돈키호테 2편

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1615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7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Claude Opus 검수

책 정보

원전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jote de la Mancha" (Juan de la Cuesta, Madrid 1615)

저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 1547–1616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000 (스페인어)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검수

Claude Opus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7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원작의 분위기와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제1장. 신부와 이발사가 돈키호테의 병세에 관해 나눈 대화에 대하여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이 이야기의 제2부이자 돈키호테의 세 번째 출정에 대해 전하기를, 신부와 이발사는 돈키호테에게 지난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여 병을 도지게 하지 않으려고 거의 한 달 동안 그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카딸과 가정부를 찾아가는 일까지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조카딸과 가정부에게 돈키호테를 잘 보살피고, 심장과 뇌에 좋고 기운을 북돋아 줄 만한 음식을 챙겨 먹이라고 당부했다. 온당한 이치로 따져 보건대, 돈키호테의 모든 불행이 바로 그 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두 여인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돌보겠다고 대답했다. 돈키호테가 이따금 제정신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신부와 이발사는 이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이토록 방대하면서도 빈틈없는 이 이야기의 제1부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를 마법에 걸린 것처럼 꾸며 소달구지에 태워 데려온 것이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비록 병이 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기면서도, 돈키호테의 병세가 나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그들은 기사도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꺼냈다가 이제 겨우 아물기 시작한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기로 약속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를 방문했다. 돈키호테는 초록색 모직 조끼를 입고 붉은색 톨레도식 모자를 쓴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몸이 어찌나 마르고 초췌한지 마치 미라처럼 보일 정도였다. 신부와 이발사는 돈키호테에게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두 사람이 건강이 어떠냐고 묻자, 돈키호테는 아주 이성적이고 품격 있는 말로 자신의 처지와 건강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화제는 이른바 국가의 통치 원리나 통치 방식에 관한 문제로 흘러갔다. 세 사람은 어떤 악습은 바로잡고 어떤 폐단은 규탄하며, 어떤 관습은 개혁하고 또 다른 관습은 없애 버렸다. 마치 각자가 새로운 입법자, 현대판 리쿠르고스나 새로 등장한 솔론이라도 된 양 기세를 떨쳤다. 그들이 국가를 어찌나 새로 뜯어고치는지, 마치 나라를 용광로에 넣어 녹였다가 처음 넣은 것과는 전혀 다른 새 나라를 꺼낸 것만 같았다. 돈키호테가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해 워낙 신중하고 분별 있게 말하는 바람에, 그를 시험하러 온 두 사람은 그가 완전히 나았으며 제정신을 되찾았다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게 되었다.

조카딸과 가정부도 그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주인님이 이토록 명석한 정신을 되찾은 것을 보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다. 하지만 신부는 기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던 처음 계획을 바꾸었다. 그는 돈키호테의 건강이 정말로 나은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것인지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온갖 주제를 다 건드려 보기로 했다. 그리하여 신부는 대화의 흐름을 타고 궁정에서 들려온 몇 가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여러 소식 중에서도 특히 터키군이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디로 그 거대한 먹구름 같은 군대를 몰고 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거의 해마다 전쟁의 위협이 닥치는 터라, 이 두려움 때문에 온 기독교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으며, 국왕 폐하께서도 나폴리와 시칠리아 해안, 그리고 몰타섬의 방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국왕 폐하께서는 적군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미리 영토를 방비하셨으니, 참으로 현명한 전사다운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조언을 따르신다면, 저는 폐하께 한 가지 예방책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폐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그 방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신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가엾은 돈키호테여, 신께서 그대를 보살펴 주시기를! 그대가 광기라는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와, 어리석음이라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것만 같구나!"

하지만 이발사 역시 신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돈키호테에게 도대체 어떤 예방책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실행하면 정말 좋을 것이라니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쩌면 군주들에게 흔히 늘어놓는 쓸데없는 조언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보시오, 이발사 양반."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조언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마땅히 필요한 조언이라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발사가 대답했다. "그저 경험상 보아하니, 폐하께 올리는 조언이란 건 대부분 실현 불가능하거나, 터무니없거나, 아니면 국왕 폐하와 나라에 해가 되는 것들뿐이었으니까요."

"내 조언은 불가능하지도 않고 터무니없지도 않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오히려 어떤 조언가가 머리를 짜내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쉽고, 가장 타당하며, 가장 영리하고도 간결한 방법이라오."

"돈키호테 님, 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뜸을 들이시는군요." 신부가 말했다.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여기서 말해버렸다가 내일이라도 자문관들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내 공로를 가로채 다른 사람이 상과 포상을 다 가져가 버릴까 걱정되는구려."

"저라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발사가 말했다. "여기서,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돈키호테 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왕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도둑이 백 두블라와 떠돌이 노새를 훔쳐 갔다고 서문에서 왕에게 일러바친, 그 신부 이야기를 다룬 로만세에서 제가 배운 맹세이지요."

"그런 이야기들은 잘 모르오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맹세가 훌륭하다는 것만은 알겠소. 이발사 양반이 선량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잘 아니, 그 점을 믿고 하는 말이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부가 말했다. "제가 그를 보증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라면 그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며, 만일 어긴다면 판결과 선고에 따른 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님, 신부님께서는 누가 보증해 줍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신부가 대답했다.

"세상에나!" 돈키호테가 이 대목에서 외쳤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국왕 폐하께서 공고를 내려 스페인 전역을 떠도는 모든 편력기사를 정해진 날짜에 궁정으로 모이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령 기사가 고작 여섯 명뿐이라 해도, 그들 사이에서 터키 놈들의 세력을 단숨에 무너뜨릴 만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편력기사 한 명이, 마치 이십만 대군이 모두 한 목구멍을 가졌거나 설탕 공예품으로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 대군을 혼자서 물리치는 것이 어찌 새삼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가득한 소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내 팔자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돈 벨리아니스가 살아있거나,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그 셀 수 없이 많은 혈통 중 한 명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오늘날 살아있어 터키 놈들과 맞선다면, 분명 적이 결코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살피시어, 비록 옛 기사들만큼 용맹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의 기개에 뒤처지지 않는 누군가를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말을 알아들으실 테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조카딸이 이 대목에서 외쳤다. "우리 주인님께서 다시 편력기사가 되려고 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아니라면 저를 죽이셔도 좋아요!"

돈키호테가 그 말에 대답했다.

"나는 편력기사로서 죽을 것이오. 터키 놈들이 제멋대로 내려오든 올라오든, 제아무리 기세등등하게 덤벼든들 상관없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을 알아주실 것이오."

이때 이발사가 말했다.

"여러분께 간곡히 청하건대, 제가 세비야에서 겪었던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져서,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군요."

돈키호테가 허락하자 신부와 다른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비야의 정신병원에는 친척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둬 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수나에서 교회법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지요. 많은 이들의 말에 따르면, 설령 살라망카에서 학위를 땄다 해도 미친놈인 건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입니다. 이 학사 출신 남자는 몇 년 동안 갇혀 지내더니, 어느새 자신이 이제 제정신이고 판단력이 온전하다고 스스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아주 치밀하고 조리 있는 근거를 들어, 하나

님의 자비로 잃어버렸던 이성을 이미 되찾았으니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간곡히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차지하려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가 죽을 때까지 미친놈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주교는 치밀하고 논리적인 편지 내용에 설득되어, 자신의 부속 성당 신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의 관리인을 찾아가 그 학사가 쓴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라고 말입니다. 또한 신부에게 그 미친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고, 만약 그가 제정신인 것 같으면 그를 데려와 자유를 주라고 일렀습니다. 신부는 그 명령대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은 그 남자가 여전히 미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평소에는 아주 총명한 사람처럼 말할 때가 많지만, 결국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소리를 늘어놓아서,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어리석음이 처음의 명석함을 가릴 정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부는 그 미친 사람과 마주 앉아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미친 사람은 단 한 번도 엉뚱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신부는 그가 제정신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신부에게 한 말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는, 친척들이 보내주는 선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자신은 아직도 미쳤으며 가끔씩만 정신이 맑아질 뿐이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에게 닥친 가장 큰 불행은 역설적이게도 많은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들

이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농간을 부리며, 주님께서 짐승 같던 자신을 사람으로 되돌려 주신 자비마저 의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친 사람이 워낙 말을 잘한 나머지, 관리인은 의심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친척들은 탐욕스럽고 비정한 이들로 비춰졌으며, 정작 본인은 매우 명석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신부는 대주교가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선의를 품은 신부는 관리인에게 그 학사가 입고 들어왔던 옷을 가져다주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그 학사가 분명히 여전히 미친 상태이니, 신부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잘 생각해보라며 다시 한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신부가 그를 데려가지 말라는 관리인의 경고와 주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그것이 대주교의 명령임을 알고 결국 따르기로 했습니다. 학사에게 새롭고 품위 있는 옷을 입혀주자, 그는 자신이 미친 사람의 누더기가 아닌 제정신의 옷을 입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신부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허락해 준다면 함께 지내던 미친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신부는 그가 가는 길에 동행하여 그곳에 어떤 미친 사람들이 있는지 직접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학사가 광증이 심하지만 지금은 진정되어 조용히 앉아 있는 한 미친 사람이 갇힌 우리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집에 가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말하게나.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 덕분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성을 되찾았으니 말일세. 나는

이제 건강하고 제정신이라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나. 주님께서 나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 주셨듯이, 자네를 믿는다면 자네 또한 되돌려 주실 걸세. 내가 자네가 먹을 만한 선물을 좀 보내주도록 하겠네. 어떤 상황에서든 꼭 챙겨 먹게나.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우리의 모든 광기는 배는 비어 있고 머릿속은 공기로 가득 차서 생기는 것이라네. 기운을 내게, 기운을 내야 하네. 불행 앞에 낙담하면 건강이 상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네."

학사의 이런 말을, 광증이 심한 그 사람의 우리 맞은편 우리에 갇혀 있던 또 다른 미친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낡은 돗자리 위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더니, 누가 건강하고 제정신이 되어 떠난다는 것인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사가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바로 나라네. 이제 더는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으니, 내게 이토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늘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겠네." 그러자 그 미친 사람이 대꾸했습니다. "학사 양반, 말조심하게나. 악마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말일세. 발걸음을 멈추고 그냥 자네 집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나. 그래야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덜지 않겠나." 학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멀쩡하다는 것을 아네. 그러니 다시 돌아오려고 길을 나설 일은 없을 걸세." "자네가 멀쩡하다고?" 미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이지. 아무튼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네. 하지만 내가 땅 위에서 그 위엄을 대변하는 주피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오늘 세비야가 저지른 이 죄, 즉 자네를 이 집에서 내보내고 제정신이라고 인정해 준 이 죄 때문에, 나는 세비야에

영원토록 기억될 벌을 내리고야 말겠네. 아멘. 이보게, 보잘것없는 어린 학사 양반,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모르나? 내가 말했듯이 나는 번개를 휘두르는 주피터라네. 나는 세상을 위협하고 파괴할 때 쓰는 뜨거운 번개를 내 손에 쥐고 있단 말일세. 하지만 나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벌만 내리려 하네. 바로 오늘 이 경고를 내뱉은 순간부터 앞으로 꼬박 3년 동안, 이 도시와 그 주변 모든 지역에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것이지. 자네는 자유롭고, 건강하고, 제정신인데, 나는 미치고, 병들고, 묶여 있다니……! 내가 비를 내릴 생각은 내 목을 맬 생각만큼이나 없단 말일세."

미친 사람의 고함과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사는 신부에게 다시 몸을 돌려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저 미친 사람이 하는 말은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저자가 주피터라 불리며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고집한다 해도, 물의 아버지이자 신인 네프투누스인 제가 마음껏,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게 할 테니까요." 그러자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네프투누스님, 아무리 그래도 주피터 신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댁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조만간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관리인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에 신부는 다소 무안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학사의 옷을 다시 벗겼고, 그는 그 집에 그대로 남았으며,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발사 양반,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자네가 기어이 들려주지 않고는 못 배긴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가?"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아, 면도사 양반, 면도사 양반, 체로 거른 듯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조차 못 보는 자는 어찌 그리도 눈이 먼 것인가! 사람의 재능을 재능에, 용기를 용기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에, 가문을 가문에 견주는 비교란 언제나 가증스럽고 달갑잖게 받아들여지는 법이라는 것을 자네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보게 이발사 양반, 나는 물의 신 넵투누스도 아니거니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나를 현명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네. 나는 그저, 편력기사도가 위세를 떨치던 그 더없이 행복했던 시대를 스스로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 애쓸 뿐이라네.

우리 시대의 타락한 세태는, 편력기사들이 왕국을 수호하고 처녀들을 보호하며, 고아와 피후견인들을 구제하고, 오만한 자를 벌하며 겸손한 자에게 상을 내리던 그 영광스러운 시대만큼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네. 요즘 활동한다는 기사들을 보게나. 그들은 무장할 때 쓰는 사슬 갑옷보다 몸에 걸친 비단이나 화려한 자수 옷이 해질까 봐 더 걱정하는 자들이라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무기를 갖추고 하늘의 혹독한 날씨를 견디며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 기사는 이제 어디에도 없네. 또한, 말 안장 등자에서 발을 떼지 않은 채 창을 짚고 서서, 옛 기사들처럼 ‘잠을 베어버린다’고들 하는 그 달콤한 잠을 청하는 이도 더는 없네.

어느 숲을 빠져나와 저 산으로 들어가, 거칠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황량하고 적막한 해변에 닿는 기사도 이제는 없네. 그곳, 그 해변과 물가에서 노 한 자루, 돛 한 폭, 돛대도 삭구도 없는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하고는,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그 배에 몸을 던져, 하늘까지 솟구쳤다 심연으로 꺼져 내리는 깊은 바다의 무자비한 파도에 자신을 맡기는

기사도 없단 말일세. 그런 기사는 거센 폭풍우에 맞서 가슴을 펴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배를 탔던 곳에서 삼천 리 넘게 멀리 떨어진 곳에 닿게 되지. 그리고 낯설고 미지의 땅에 발을 내디디며, 양피지가 아니라 청동판에 새겨 넣어야 할 만큼 위대한 일들을 겪게 되는 법이라네.

하지만 지금은 게으름이 부지런함을 이기고, 나태함이 노동을 삼켰으며, 악덕이 미덕을 대신하고 있네. 용맹함은 오만함으로 변했고, 무예의 실천은 이론으로만 남았으니, 이는 오직 황금시대와 편력기사들의 시대에만 존재했던 모습이라네. 만약 내 말이 틀리다면 말해보게. 저 유명한 아마디스 데 가울라보다 더 고결하고 용맹한 자가 누구인가? 잉글랜드의 팔메린보다 더 영리한 자가 누구인가? 티란테 엘 블랑코보다 더 유능하고 손재주 좋은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의 리수아르테보다 더 멋진 자가 누구인가? 돈 벨리아니스보다 더 칼솜씨가 좋고 싸움을 잘하는 자가 누구인가? 페리온 데 가울라보다 더 용맹한 자가 누구인가? 혹은 펠릭스마르테 데 이르카니아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있는가? 에스플란디안보다 더 진실한 자가 있는가? 트라키아의 돈 시롱힐리오보다 더 과감한 자가 있는가? 로다몬테보다 더 사나운 자가 있는가? 소브리노 왕보다 더 신중한 자가 있는가? 레이날도스보다 더 대담한 자가 있는가? 롤란보다 더 천하무적인 자가 있는가? 그리고 투르핀의 『지리학』에 따르면 페라라의 공작들이 그 후손이라는데, 루제로보다 더 기개 있고 예의 바른 자가 있는가?

신부님, 이 모든 기사와 그 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수많은 기사가 바로 편력기사의 빛이자 영광이었네. 내가 폐하께 올리려는 방책에 끌어들이고 싶은 이들이 바로 이런 기사들, 혹은 이에 견줄 만한 기사들이

라네. 그리될 수만 있다면 국왕 폐하께서도 큰 도움을 얻으시어 막대한 비용을 아끼실 것이고, 터키 놈들은 분에 못 이겨 수염이나 쥐어뜯고 있을 텐데 말일세. 그러니 나로서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싶지 않네. 사제가 나를 거기서 끌어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발사 양반 말대로 저 주피터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들, 여기 내가 있지 않은가? 내가 마음 내킬 때면 언제든 비를 내리게 할 테니 말이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자네 말뜻을 다 알아들었다는 걸 대야 양반께서 아셨으면 해서라네."

"정말이지, 돈키호테님,"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제 의도가 선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이 상했는지 아닌지는,"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아네."

이 말에 신부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돈키호테 나리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양심을 갉아먹고 파헤치는 듯한 의구심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신부님께서는 다른 일로도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니,"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맺힌 의구심을 편히 말씀하십시오. 양심을 옥죄며 찝찝하게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허락해 주시니,"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제 의구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 방금 늘어놓으신 그 수많은 기사 무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았던 살과 피를 가진 실존 인물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허구와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꿈이거나,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잠결에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것 또한 많은 이가 저지르는 오류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사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 또한 여러 사람을 만나 여러 상황을 겪으며, 이 흔한 오해를 진실의 빛 아래 드러내고자 수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진실의 어깨를 빌려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진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저는 제가 아마디스 데 가울라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체구가 당당하고 얼굴은 하얗고, 검은 수염을 잘 가꾼 인물이었습니다.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했고, 말수가 적고 성미는 좀처럼 화내지 않으면서도 일단 화가 나면 금방 가라앉는 성격이었지요. 제가 아마디스를 묘사한 방식대로라면, 세상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편력기사를 다 그려내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야기 속 모습 그대로였다는 제 확신과, 그들이 이룬 업적 및 성품을 고려해 볼 때, 철학적인 원리만 있다면 그들의 이목구비와 피부색, 체구까지도 모두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 나리," 이발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 보시기에 거인 모르간테는 얼마나 거대한 인물이었습니까?"

"거인에 관해서라면,"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거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단 한 점의 진실도 빠뜨릴 수 없는 성경은 거인이 존재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키가 일곱 큐빗 반이나 되었던 그 무지막지한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말이지요. 그 정도면 실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또한 시칠리아섬에서는 정강이뼈와 등뼈가 아주 크게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크기를 보면 주인들이 거인이었음이 분명하며 마치 거대한 탑만큼이나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하학을 따져봐도 이 진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모르간테가 정확히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뿐입니다. 그의 업적을 특별히 기록한 역사서를 보면 그가 지붕이 있는 집 아래에서 잠을 자곤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몸을 누일 집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의 크기가 무지막지하게 컸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니까요."

"정말 그렇군요." 신부가 말했습니다.

신부는 돈키호테가 이토록 거창한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이 즐거워, 그에게 몬탈반의 레이날도와 돈 롤란, 그리고 프랑스의 열두 용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편력기사였기 때문입니다.

"레이날도에 대해서라면,"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넓고 붉은빛을 띠었으며,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군요. 성미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불같았으며, 도둑이나 부랑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요. 롤란, 혹은 로톨란도, 아니면 올란도라고도 불리며 이야기마다 이름이 제각각인 그에 대해서는, 키가 중간 정도에 어깨가 넓고 다리가 약간 휘었으며, 얼굴은 가무잡잡하고 턱수염은 불그스름했다고 생각합니다. 몸에는 털이 많고 눈빛은 위협적이었지요. 말수는 적었으나 매우 정중하고 가정 교육을 잘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롤란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 신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면,"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안젤리카 여인이 그를 무시한 것도 이상할 게 없겠군요. 그녀가 몸을 맡긴 그 솜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무어인에게는 화려한 차림새와 기백, 그리고 품위가 넘쳤을 테니까요. 여인이 롤란의 거친 면모보다 메도로의 부드러움을 사랑한 것도 분별 있는 처신이었습니다."

"그 안젤리카 여인은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신부에게 대답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제멋대로 행동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명성만큼이나, 그녀가 저지른 무모한 행동들로도 세상에 큰 소란을 일으켰지요. 수많은 귀족과 용맹한 기사, 그리고 현명한 사내들을 모두 거절하더니, 결국 턱수염도 변변히 나지 않은 어린 시종 하나로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그 시종은 제 친구에게 지킨 의리 덕분에 얻은 이름 말고는, 다른 재산도 명성도 없는 처지였지요.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위대한 시인 아리오스토는, 이 여인이 그렇게

비천하게 몸을 내맡긴 뒤에 겪게 된 일들을 차마 노래할 용기가 없었거나 혹은 노래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일들은 결코 점잖은 이야기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딱 거기까지만 남겨 둔 것입니다."

그리고 카타이의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물려받았기에,

어쩌면 다른 시인은 더 유려한 가락으로 노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시인을 뜻하는 '바테스(vates)'라는 말 자체가 예언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뒤이어 안달루시아의 한 유명한 시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슬픔을 노래했고, 또 다른 독보적인 카스티야의 시인은 그 아름다움을 노래했으니까요.

"돈키호테 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때 이발사가 물었다. "그토록 많은 시인이 그분을 찬양했는데, 혹시 그 안젤리카라는 여인을 풍자한 시인은 없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만약 사크리판테나 롤란이 시인이었다면, 분명 그 처녀를 아주 깎아내렸을 겁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시인이라면—그것도 자신이 마음의 연인으로 삼으려고 지어낸 가상의 여인에게 거절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풍자와 비방으로 복수하려 드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물론 그런 복수는 고결한 마음을 지닌 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비겁한 짓입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뒤흔들었던

안젤리카 여인을 모욕하는 시 구절은 지금껏 제 귀에 들어온 적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러던 중,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비웠던 유모와 조카딸이 마당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모두 그 소란을 따라 달려갔다.

제2장



제2장.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의 조카 및 유모를 비롯한 여러 익살스러운 이들과 벌인 놀라운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에 따르면, 돈키호테와 신부, 그리고 이발사가 들은 목소리는 조카와 유모의 것이었다. 그들은 돈키호테를 만나려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산초 판사와 격렬하게 다투며 문을 막아서고 있었다.

"이 근본도 없는 놈이 우리 집에 왜 찾아온 거야? 형씨,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 주인을 홀려 꼬드기고, 엉뚱한 길로 끌고 다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사탄의 계집 같으니라고! 홀리고 엉뚱한 길로 끌려다니는 건 당신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를 저런 세상으로 끌고 간 건 그분이라고. 당신들은 반값도 안 되는 헐값에 속고 있는 거야. 그분은 나한테 섬을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꼬드겨서 집에서 데려갔는데, 난 아직도 그 섬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다!"

"그놈의 섬에 빠져 죽어버려라!" 조카가 저주하며 대답했다. "이 빌어먹을 산초야! 섬이 대체 뭔데? 먹는 거라도 되느냐? 먹보에 대식가인 네놈한테 딱 맞는 음식이라도 된다는 거야?"

"먹는 게 아니란 말이다!" 산초가 대꾸했다. "섬이란 도시 네 곳이나 궁정의 재판관 네 명보다도 더 훌륭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란 말이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유모가 말했다. "악마 같은 놈, 온갖 못된 짓만 골라 하는 놈아, 넌 여기 못 들어온다. 가서 네 집이나 잘 다스리

고 네 밭이나 일구거라. 섬이니 뭐니 하는 헛된 꿈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신부와 이발사는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는 것이 꽤나 즐거웠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산초가 입을 놀려 악의 섞인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자신의 명성에 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꺼낼까 봐 겁이 났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산초를 불러 세우더니, 두 여인에게 입을 다물고 산초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 산초가 안으로 들어갔다. 신부와 이발사는 돈키호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돈키호테가 얼마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해괴한 기사 놀음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보니 그의 건강 상태가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신부가 이발사에게 말했다.

"이보게, 친구.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귀하신 나으리가 다시금 세상 밖으로 튀어 나가는 꼴을 보게 될 걸세." 신부가 말했다.

"나도 그 점은 의심치 않네." 이발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기사의 광기보다 종자의 어리석음에 더 놀라게 된다네. 섬을 차지할 거라는 말을 어찌나 굳게 믿고 있는지, 세상의 그 어떤 환멸을 겪는다 해도 그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지워내지 못할 것 같군."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제해 주시길 빌 뿐이네." 신부가 말했다. "그저 지켜보세나. 마치 같은 거푸집에서 함께 빚어낸 것처럼 똑 닮은 이 기사와 종자가 벌이는 이 황당무계한 소동이 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말

이야. 종자의 어리석음이 없었다면, 주인인 기사의 광기 또한 한 푼의 값어치도 없었을 테니 말일세.”

“정말 그렇네.” 이발사가 말했다.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군.”

“분명 조카나 유모가 나중에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줄 걸세.” 신부가 대답했다. “그들이 돈키호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칠 위인들은 아니니까 말이야.”

그사이 돈키호테는 산초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둘만 남게 되자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야, 내가 너를 네 보금자리에서 끌어낸 장본인이라고 네가 말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이 무겁구나. 나 역시 내 집에 가만히 눌러앉아 있지 않았다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우리는 함께 길을 떠났고, 함께 나아갔으며, 함께 방랑했다. 우리 둘은 똑같은 운명과 똑같은 처지를 겪어 왔단 말이다. 네가 한 번 담요에 키질을 당했다면, 나는 백 번은 흠씬 두들겨 맞았다. 바로 이 점에서 내가 너보다 한 수 앞서 있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나으리 말씀대로라면, 불행이란 종자보다는 떠돌이 기사에게 훨씬 더 가깝게 붙어 다니는 법이니까요.”

"산초야,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말마따나, 'quando caput dolet(머리가 아프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격이 아니냐."

"저는 제 말 말고는 다른 말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내 말은 이렇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법이지. 그러니 내가 네 주인이며 상전이니 내가 곧 네 머리이고, 너는 내 수하인 종이니 내 몸의 일부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나에게 닥친 고통은 너에게도 아픔이 되어야 하고, 네가 겪는 고통 또한 나에게도 아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몸의 일부로서 담요에 키질을 당할 때, 제 머리는 울타리 뒤에 가만히 숨어서 제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걸 지켜보기만 했지, 조금도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일부가 머리의 고통을 함께 느껴야 한다면, 머리 또한 몸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초야, 네 말은 네가 담요 키질을 당할 때 나는 아프지 않았다는 말이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만약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도 꺼내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때 나는 네 육체가 느끼는 고통보다 내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컸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자꾸나. 나중에 차분히 따져보고 결론을 내릴 때가 올 테니. 자, 이제 말해 보거라, 친구 산초야. 사람들이 이 근방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들 하더냐? 일반 백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귀족들

과 기사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의 용맹함과 업적, 그리고 나의 예법에 대해서는 무엇이라들 하더냐? 이미 잊힌 기사도의 질서를 부활시켜 세상에 다시 내놓겠다는 나의 이 결단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들이 오가느냐? 결론적으로 산초야, 네 귀에 들려온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다오. 아첨으로 부풀리거나 허례허식으로 깎아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한다. 충성스러운 신하란 주군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그 본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법이다. 자, 산초야, 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만약 군주들의 귀에 아첨의 옷을 입히지 않은 적나라한 진실이 닿는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다른 시대들이 우리 시대보다 더 가혹한 '철의 시대'로 여겨질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지금 통용되는 시대들 가운데 우리 시대야말로 '황금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을 명심하여, 내가 물은 것들에 대해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을 신중하고도 진실하게 내게 들려주도록 해라."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도 노여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전해 들은 그대로, 다른 옷을 입히지 않은 알몸 그대로의 진실만을 말씀드리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결코 노여워하지 않으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말해도 좋다."

"그럼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사람들은 주인님을 엄청난 광인으로 보고 있고, 저 또한 그에 못지않은 얼간이라

고 생각합니다. 귀족들은 주인님께서 귀족의 품위를 지키지 않으시고, 고작 포도나무 네 그루와 땅 두 마지기에 앞뒤로 누더기 천 조각이나 걸친 채 스스로 '돈(don)'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기사 행세를 하며 날뛴다고들 합니다. 기사들은 귀족들이 자신들에게 대드는 것을 원치 않는데, 특히 신발에 그을음을 입혀 광을 내고 검은 양말의 터진 코를 초록색 비단실로 기워 신는 그런 종자 출신 하급 귀족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옷을 잘 차려입고 다니지, 결코 기워 입지 않는다. 옷이 해지는 일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세월 탓이라기보다 갑옷과 무구를 걸친 탓일 것이다."

"용맹함이나 예의, 그리고 주인님의 업적과 행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산초가 말을 이었다. "어떤 이들은 '미쳤지만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용감하지만 불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의는 바르지만 주제넘은 사람'이라고도 하지요. 이처럼 온갖 말들이 떠돌아다니니, 주인님과 저 모두 뼈도 못 추릴 지경입니다."

"보아라,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고결한 미덕이 드높게 빛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박해를 받기 마련이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중 악의에 찬 비방을 피한 이는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백이 넘치고 더없이 현명하며 용맹하기 그지없던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야심가라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옷차

림이나 행실이 다소 깨끗하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받았지. 위대한 업적 덕분에 '대왕'이라는 명성을 얻은 알렉산드로스 역시 술버릇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다.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헤라클레스는 음탕하고 나약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아마디스 데 가울라의 형제인 돈 갈라오르는 지나칠 정도로 호색했다는 수군거림을 들었고, 그의 형제는 울보였다는 소문도 있지. 그러니 오, 산초야! 선한 이들이 받는 수많은 비방 중에 내 비방이 섞여 든다 한들, 네가 방금 말한 것보다 더 심하기야 하겠느냐?"

"아이고, 바로 그게 문제라니까요, 맙소사!" 산초가 대꾸했다.

"그럼, 더 있느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아직 꼬리 가죽은 벗기지도 못했는걸요." 산초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저 맛보기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은 이제부터라니까요. 만약 주인님께서 사람들이 주인님께 뒤집어씌우는 험담을 전부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당장이라도 한 마디도 빠짐없이 다 일러줄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어젯밤에 바르톨로메 카라스코의 아들이 살라망카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사가 되어 돌아왔거든요. 제가 마중을 나가 인사를 건넸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재치 있는 시골 귀족 돈키호테 데 라 만차'라는 이름으로 주인님의 이야기가 벌써 책으로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그 책에는 제 이름도 '산초 판사'라고 그대로 적혀 있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에 관한 내용도 실려 있다지 뭡니까. 우리 둘만 아는 일들까지 다 적혀 있다니, 도대체 그 책을 쓴 역사

가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아냈는지 저는 놀라서 성호를 다 그었답니다."

"산초야, 내가 장담하건대 우리 이야기를 쓴 이는 분명 어떤 지혜로운 마법사일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쓰고 싶은 내용 중 숨겨지는 것이란 없으니까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산초가 말했습니다. "지혜롭고 마법사라니요, 그럴 수밖에요. 제가 말한 그 학사 산손 카라스코의 말에 따르면, 그 이야기의 저자 이름이 무려 시데 아메테 베렝헤나라고 하니까요!"

"그 이름은 무어인의 것이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무어인들은 가지를 아주 좋아한다고들 하니까요."

"산초야, 네가 잘못 안 모양이구나."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 시데라는 이름은 아랍어로 '주인'이라는 뜻이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주인님께서 제가 그를 여기로 데려오길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날아갈 기세로 달려가 데려오겠습니다."

"친구여,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 정말 기쁘겠구나."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네가 방금 한 말이 내 마음을 무척이나 초조하게 만드는구나. 모든 사실을 다 듣기 전까지는 입맛이 없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할 것 같구나."

“그럼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산초는 주인을 뒤로하고 학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초는 학사를 데리고 돌아왔고, 세 사람은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3장



제3장.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리고 학사 산손 카라스코 사이에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논쟁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학사 카라스코를 기다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산초가 말했듯, 책으로 엮인 자신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카라스코에게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가 존재할 리 없다고 굳게 믿었다. 자신이 죽인 적들의 피가 아직 검날에서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신의 고결한 기사 행적을 책으로 찍어내려 하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현자나, 혹은 친구나 적 중 누군가가 마법 같은 힘을 써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만약 친구가 썼다면 자신의 기사도를 그 누구보다 드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일 것이고, 만약 적이 썼다면 자신의 행적을 깎아내려 비천한 종자의 기록보다도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그는 혼자 생각했다. 종자의 행적 따위는 애초에 기록된 적도 없으니 말이다. 설령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사의 모험을 다룬 것이라면 마땅히 웅장하고 높으며, 이름 높고 장엄하며, 참된 이야기여야만 한다고 그는 믿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저자의 이름이 시데라는 것을 보니 무어인이라는 사실이 못내 괴로웠다. 무어인들에게서 진실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은 모두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이며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혹시라도 저자가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품위 없게 써 내려가서, 자신의 귀부인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지켜온 정절과 명예를 훼손하고 손상시키지는 않았을까 두려웠다. 그는 책에 자신의 충성심과 그녀를 향한 예우가 잘 드러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왕이나 황후, 혹은 그 어떤 귀한 처녀들보다도 그녀를 높게 여기며,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마저

억누르고 오직 그녀만을 향한 절개를 지켜온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를 원했다. 이처럼 이런저런 상념에 휩싸여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로 있을 때, 산초와 카라스코가 그를 찾아왔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 학사는 비록 이름은 산손(삼손)이었지만 몸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대신 익살스럽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안색은 창백했으나 이해력은 매우 뛰어났다. 나이는 스물네 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동글동글한 데다 코는 뭉툭하고 입은 컸다. 이런 생김새는 모두 심술궂은 성미에 농담과 장난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였는데, 돈키호테를 보자마자 그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산손은 돈키호테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라만차의 귀하신 돈키호테 님, 제게 그 고귀한 손을 내어 주소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성 베드로의 의복에 걸고 맹세하건대, 비록 제가 받은 성직이라곤 하급 사품(四品)뿐일지라도, 당신은 이 세상 어디를 통틀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또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유명한 편력기사 중 한 분이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으로 남긴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그 기록을 아랍어에서 우리네 통속 카스티야어로 번역하도록 힘쓴 그 호기심 많은 이에게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키호테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무어인 현자라는 것도 사실인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리."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 그 이야기가 담긴 책이 이미 만 이천 권 넘게 찍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그 책이 인쇄된 포르투갈과 바르셀로나, 발렌시아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심지어 안트베르펜에서도 인쇄 중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이니, 아마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언어로든 번역되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덕망 높고 이름난 이가 가장 기뻐할 일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책으로 인쇄되어 널리 알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름이 높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 그 반대가 된다면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비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명성이 높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학사가 말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나리께서 모든 편력기사 중 단연 으뜸이십니다. 무어인은 자기네 언어로, 그리스도인은 자기네 언어로 나리의 용맹함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으니까요. 위험에 맞서는 그 거침없는 기개와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심, 불행을 겪을 때나 상처를 입었을 때나 보여준 그 끈기, 그리고 나리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가 보여준 그 고결하고도 순수한 사랑 속에서 나타난 절제와 품격까지 말입니다."

"제 귀에는," 이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우리 둘시네아 아씨를 '돈'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엘 토보소의 둘시네

아 여사'라고만 불렸지요. 이것만 봐도 이 책은 벌써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학사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책에서는 저의 어떤 모험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건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취향이 제각각인 것과 마찬가지지요." 학사가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주인님께는 브리아레오스나 거인처럼 보였던 풍차 모험을 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방앗간 방망이(축융기) 모험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나중에 양 떼로 밝혀진 두 군대에 관한 대목을 가장 높게 칩니다. 또 다른 이는 세고비아로 옮겨 매장하려던 시신과 얽힌 모험을 강조하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갤리선 죄수들을 풀어 준 모험이 단연 최고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용맹한 비스카야 사람과 벌인 싸움을 곁들인, 거인으로 착각한 베네딕토회 수도사 두 사람의 모험을 따라올 이야기는 없다고 말합니다."

"학사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때 산초가 끼어들며 물었다. "우리 착한 로시난테가 주제넘게 엉뚱한 욕심을 부렸던 그 양구에스 사람들과의 모험도 그 책에 들어 있습니까?"

"빠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산손이 대답했다. "그 현자라는 작가는 잉크병에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말하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어 두었지요. 우리 착한 산초가 담요 위에서 재롱을 부렸던 일까지 말입니다."

"담요 위에서 재롱을 부린 건 제가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공중에서 재롱을 부린 거지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지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세상에 우여곡절 없는 인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특히 기사도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늘 승승장구하는 일들로만 가득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렇긴 합니다만," 학사가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읽어 본 사람들 중 몇몇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키호테 경이 여러 모험에서 얻어맞은 그 무수한 매질 가운데 몇 가지쯤은 저자들이 차라리 잊어버리고 적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진실이지요." 산초가 말했다.

"공정함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 일들을 침묵하고 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야기의 진실을 바꾸지도, 훼손하지도 않는 일들을 굳이 기록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내용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깎아내리는 결과만 가져온다면 말입니다. 내 생각에 아이네아스는 베르길리우스가 그린 것만큼 경건하지도 않았고, 오디세우스는 호메로스가 묘사한 것만큼 신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인으로서 글을 쓰는 것과 역사학자로서 글을 쓰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인은 사건이 실제로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마땅히 어떠해야 했느냐에 따라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노래할 수 있지요. 반면 역사학자는 사건이 마땅히 어떠해야 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떠했느냐를 기록해야 합니다. 진실에 무엇 하나 보태거나 빼는 일 없이 말입니다."

"그 무어인 저자가 정말 사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제 주인님이 맞으신 매 중에 제가 맞은 매도 분명 섞여 있을 겁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주인님께서 등짝을 얻어맞으실 때마다 저도 온몸을 두들겨 맞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놀랄 일도 아니지요. 우리 주인님 말씀처럼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법 아니겠습니까?"

"산초, 너 참 영악하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마음만 먹으면 기억력이 참으로 좋구나."

"제가 맞은 몽둥이 자국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갈비뼈에 남은 멍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제 몸이 도무지 허락을 안 하거든요."

"산초, 입 다물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학사님 말씀을 끊지 마라. 그 책에서 나에 관해 뭐라고들 하는지 계속 들려 달라고 내가 저분께 청하는 바이니, 부디 말씀을 이어가시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 책에서는 저도 아주 중요한 등장이물 중 하나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등장인물'이라고 하는 거지, 자네가 말한 '등장이물'이 아니라네, 산초 친구여."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또 단어 가지고 트집 잡는 분이 나셨네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렇게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 끝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면 말이지, 산초. 자네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겠나?" 학사 산손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자네 말을 듣는 게 이 책에 나오는 그 어떤 화려한 인물들의 말보다 훨씬 더 값지다네. 사실 어떤 이들은 자네가 너무 순진하게 믿었다고 말하기도 하거든. 여기 계신 돈키호테 나리께서 제안하신 그 섬을 다스리는 일이 정말로 가능할 거라고 말이야."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자네도 나이를 먹고 세월이 주는 경험이 쌓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섬을 다스리기에 적합하고 능숙한 통치자가 될 걸세."

"맙소사, 나리." 산초가 말했다. "제 나이에 그 섬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므두셀라처럼 오래 산다 해도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그 복된 섬이 어디론가 자꾸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지, 제가 통치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하느님께 맡기게,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고, 어쩌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될 걸세. 하느님의 뜻 없이는 나무의 잎사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산손이 말했다. "하느님의 뜻만 있다면, 산초에게는 섬 하나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다스릴 섬이 천 개라도 넘게 생길 테니까요."

“어디선가 총독이라는 사람들을 봤는데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제가 보기엔 제 신발 밑창만도 못한 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다들 ‘나리’니 ‘각하’니 떠받들어 부르고, 은그릇에 음식을 차려 대접한다지 뭡니까.”

“그런 자들은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아닙니다.” 산손이 대답했다. “그저 더 하찮고 자질구레한 자리나 다스리는 자들이지요. 적어도 섬을 다스리는 자라면 문법 정도는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문법 같은 건 저한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게 있든 없든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통치니 뭐니 하는 건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저를 가장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곳으로 보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산손 카라스코 학사님,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이야기의 저자가 저에 대해 쓴 내용이 듣기에 거북하지 않게 그려 주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선량한 종자로서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만약 저자가 본디 유서 깊은 구교도 집안 출신인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을 지껄였더라면, 귀머거리조차 들을 만큼 제가 한바탕 소란을 피웠을 테니까요.”

“그건 기적이나 다름없지요.” 산손이 대답했다.

“기적이든 아니든 간에,” 산초가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조심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뱉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그 이야기에 흠이 하나 있는데," 학사가 말했다. "저자가 그 속에 '호기심 많은 무례한 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끼워 넣었더군요. 내용이 나쁘다거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소설이 이 이야기의 배경과 전혀 상관도 없고, 돈키호테 나리께서 겪으신 모험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산초가 대답했다. "그놈이 이것저것 다 뒤섞어 놓은 게 분명합니다. 마치 잡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제 보니 내 이야기를 쓴 저자는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만 산 놈임이 틀림없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무런 체계도 없이 그저 손 가는 대로 써 내려간 모양인데, 마치 우베다의 화가 오르바네하 같은 놈이구려. 그에게 무엇을 그리느냐고 물으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린다'라고 대답하곤 했었지. 아마 그놈은 수탉을 그리더라도 아주 형편없는 모양새로 그려서, 옆에 고딕체로 '이것은 수탉이다'라고 써 붙여야 할 정도였을 거요. 내 이야기도 딱 그 꼴이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만 할 판이오."

"그렇지 않소." 산손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그 책은 아주 명쾌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전혀 없소. 아이들은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고, 젊은이들은 읽어 내려가며, 어른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노인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지. 게다가 워낙 널리 읽히고 유명해져서 온갖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오. 이제는 마른 노새만 봐도 사람들이 '저기 로시난테가 간다!'라고 말할 정도라니까. 특히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건 시종들이라오. 돈키호테 책이 비치돼 있지 않은 귀족의 응접실은 한 군데도 없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한 사람이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집어 들고, 이쪽에서는 달려들어 붙잡고 저쪽에서는 빌려 달라 조르는 식이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즐거우면서도 해롭지 않은 오락이라오. 책 전체를 통틀어 아주 조금이라도 상스러운 말이나 불경한 생각이 담긴 대목은 단 한 군데도 없으니까 말이오."

"달리 썼더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쓰는 것이 되었을 거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거짓을 끌어다 쓰는 역사가들은 가짜 돈을 만드는 자들처럼 불태워 버려야 마땅하오. 내 이야기에는 쓸 내용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저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남의 소설과 이야기를 가져다 쓴 것인지 모르겠구려. 분명 '짚과 건초로…' 어쩌고 하는 속담을 따랐던 모양이오. 진실로, 내 생각과 한숨, 눈물과 선한 염원, 그리고 내가 펼친 용맹한 행적을 기록하기만 해도, 토스타도(Tostado)가 쓴 모든 저작을 합친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두툼한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을 것이오. 사실 내가 깨달은 바는 이렇소, 학사 양반. 어떤 종류의 이야기나 책을 쓰든 간에, 그것을 지어내려면 커다란 판단력과 성숙한 이해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오. 재치 있게 말하고 익살스럽게 글을 쓰는 것은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 가능한 법이지. 희극에서 가장 영리한 역할은 바보 역할이라오. 바보인 척 보이려는 자는 결코 진짜 바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역사는 신성한 것이오.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진실이 있는 곳에는 진실인 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마치 튀김 과자를 툭툭 던져 대듯 제 책을 마구 찍어 내놓곤 하니 말이오."

"아무리 나쁜 책이라도," 학사가 말했다. "그 안에 좋은 구석이 하나쯤은 있는 법이라오."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글을 통해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드높였던 이들이, 정작 그 글을 책으로 펴내면서 명성을 통째로 잃어버리거나 혹은 깎아먹는 경우를 자주 보았소."

"그건 인쇄된 책이라는 게 워낙 꼼꼼히 읽히기 때문이라오."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사람들은 책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결점을 쉽게 찾아내곤 하지. 특히 글을 쓴 이의 명성이 높을수록 그 결점은 더욱 낱낱이 파헤쳐지기 마련이라오. 뛰어난 재능으로 이름을 날린 이들이나 위대한 시인, 저명한 역사학자들은 늘, 아니 대개는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한다오. 정작 본인은 세상에 내놓을 글 한 줄 제대로 써본 적 없으면서, 남의 글을 품평하는 것을 유일한 낙이자 즐거움으로 삼는 자들 말일세."

"그건 놀랄 일도 아니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설교단에 서면 젬병인 신학자들도 많지만, 정작 남의 설교에서 허점이나 군더더기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도가 튼 이들이 많으니까 말이오."

"돈키호테 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비평가들이 조금만 더 자비롭고 덜 까다로웠으면 좋겠군요. 그들이 헐뜯는 작품이 아무리 눈부신 태양 같더라도, 그 속의 아주 작은 먼지 하나까지 들춰내려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설령 위대한 호메로스 같은 이가 가끔 졸았을지언정, 그가 작품의 빛을 밝히기 위해 얼

마나 깨어 있었는지를 먼저 헤아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어쩌면 얼굴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매력적인 점일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책을 펴내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위험이 따르는 법이지요.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만큼 완벽한 글을 쓰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나를 다룬 그 저자는," 돈키호테가 말했다. "만족시킨 독자가 거의 없을 것이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어리석은 자의 수는 끝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재미를 본 사람도 그만큼 끝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저자의 기억력에 흠과 잘못이 있다고 트집을 잡기도 하더군요. 이를테면 산초의 잿빛 나귀를 훔쳐 간 도둑이 누구인지 적는 걸 깜빡했다는 식이지요. 책에는 나귀를 도둑맞았다는 사실만 넌지시 드러날 뿐, 정작 누가 훔쳤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초가 바로 그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나귀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통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산초가 시에라 모레나의 여행 가방에서 찾아낸 그 100에스쿠도를 어떻게 했는지 적는 걸 저자가 잊어버렸다는 말도 합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그 뒤로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산초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혹은 어디에 써버렸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정작 작품에는 그 핵심적인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산손 선생님, 지금은 셈을 따지거나 이야기보따리를 풀 때가 아닙니다. 속이 영 뒤집혀서, 묵은 술이라도 두어 모금 들이켜 달래지 않으면 정말 뼈만 남게 생겼거든요. 술은 집에 챙겨 두었고, 집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는 대로 곧장 돌아와서, 나귀를 잃어버린 일이며 그 100에스쿠도를 어디에 썼는지까지, 어르신과 다른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시원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산초는 대답을 기다리거나 다른 말을 더 덧붙이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돈키호테는 학사에게 남아서 변변찮은 식사나마 함께 들자고 간곡히 청하고 또 청했다. 학사는 그 청을 받아들여 그곳에 머물렀다. 식탁에는 평소 먹던 음식에 비둘기 요리 두 마리가 더해졌고, 식탁에서는 기사도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카라스코도 그 흥에 장단을 맞추었다. 연회가 끝나고 다들 낮잠을 한숨 자고 난 뒤, 산초가 돌아오면서 끊겼던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다.

제4장



제4장. 산초 판사가 학사 산손 카라스코의 의구심과 질문에 답하며, 그 외에도 알아두고 들려줄 만한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

산초는 돈키호테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아까 나누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말했다.

산손 카라스코가 누가, 어떻게, 언제 내 당나귀를 훔쳐 갔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성스러운 형제단(Santa Hermandad)을 피해 우리가 시에라 모레나로 들어갔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갤리선 노예들을 풀어준 불운한 사건과, 세고비아로 운구되던 시신과 관련된 사건이 있은 직후였지요. 그때 주인님과 저는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님은 창에 몸을 기댄 채로, 저는 제 당나귀 위에 올라탄 채로, 연이은 싸움에 녹초가 되어 마치 네 개의 깃털 매트리스 위에 누운 것처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너무나 깊이 잠든 나머지, 누군가가 다가와 안장 사방에 네 개의 말뚝을 박고 저를 안장 위에 떠받쳐 놓은 채, 저는 안장에 그대로 올라탄 모양으로 두고 그 밑에 있던 당나귀만 쏙 빼 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건 아주 흔한 일이지요.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사크리판테가 알브라카 공성전에 참가하고 있을 때도, 브루넬로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도둑놈이 똑같은 수법을 써서 사크리판테의 다리 사이에서 말을 쏙 빼갔다고 하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산초가 말을 이었다. "몸을 움찔하며 깨어났을 때, 받치고 있던 말뚝들이 사라져 있어서 그대로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그 대목을 생략하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처절하게 울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미코미코나 공주님과 함께 가던 길에 제 당나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그 사기꾼이자 악질 중의 악질인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집시 차림을 하고

제 당나귀를 타고 오고 있지 뭡니까! 바로 저와 주인님이 사슬에서 풀어주었던 그놈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당나귀가 나타나기 전,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산초가 그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역사가가 착각했거나, 아니면 인쇄업자가 실수한 게 아니고서야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림없지요."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그런데 그 100에스쿠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건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 돈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 덕분에 제 아내도 제가 주인 돈키호테 님을 모시고 온갖 길을 떠돌아다니느라 집을 비우는 동안 그 고생을 묵묵히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오랜 세월이 지나 제가 빈털터리에 당나귀까지 잃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지독한 불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 있는 저에게 물으십시오. 국왕 폐하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당당히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돈을 가져왔는지, 혹은 썼는지 아닌지를 두고 남들이 참견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이 여정 중에 맞은 매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매 한 대에 고작 4마라베디씩만 쳐준다고 해도 100에스쿠도로는 그 절반도 못 갚을 겁

니다. 그러니 다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무엇이 희고 무엇이 검은지 제대로 구분도 못 하면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려 들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이 만든 모습 그대로인 법이며, 때로는 그보다 더 못난 법이니까요."

"명심하겠습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만약 이 이야기의 저자가 다시 책을 펴낸다면, 착한 산초가 한 말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빛나게 해 줄 테니까요."

"학사님, 그 이야기에 더 고칠 부분이 있습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있겠지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내용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혹시 작가가 2편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약속했습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하지만 작가는 아직 후속편을 가진 사람을 찾지 못했고,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출간될지 아닐지 우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들은 '두 번째는 결코 훌륭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돈키호테 이야기는 이미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니, 2편이 나오지 않을 거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돈키호테의 기행이 더 이어지게 해달

라고! 돈키호테는 돌격하고 산초 판사는 입을 놀리게 해달라고!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우니 말이야.'"

"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할 작정이랍니까?"

"작가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산손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자신이 엄청난 정성을 쏟아 찾고 있는 그 이야기를 발견하기만 하면 곧바로 책으로 펴내겠다고 말입니다. 작가는 다른 어떤 찬사보다도, 이 이야기를 출판해서 얻게 될 이득에 더 마음이 끌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산초가 이렇게 말했다.

"작가가 돈과 이득만 따진다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작가는 제대로 된 글을 쓰기 어려울 겁니다. 부활절 전날의 재봉사처럼 서둘러서 뚝딱뚝딱 만들기만 할 테니까요. 그렇게 급하게 만든 작품은 결코 필요한 만큼의 완성도를 갖출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모로인 작가라는 양반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살펴야 할 겁니다. 저와 제 주인님이 모험과 온갖 사건거리를 아주 넉넉하게 보태줄 테니까요. 그러면 제2편뿐만 아니라 백 편도 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양반은 분명 우리가 여기서 잠만 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두고 보면 압니다. 발을 편자로 박기 시작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 제 주인님이 제 조언을 따르셨다면, 우리는 벌써 훌륭한 기사들이 늘 하던 관습대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해결하러 들판을 누비고 있었을 겁니다."

산초가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로시난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돈키호테는 이 울음소리를 더없이 길한 징조로 여기고, 사나흘 뒤에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돈키호테가 학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어느 방향으로 여정을 시작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자, 학사는 아라곤 왕국의 사라고사 시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곳에서는 며칠 뒤 성 호르헤 축일을 맞아 아주 성대한 마상 시합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아라곤의 모든 기사를 제치고 명성을 얻는다면 세상 모든 기사들 사이에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나 다름없으리라는 것이었다. 학사는 그의 결심이 더없이 명예롭고 용맹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위험한 일에 뛰어들 때는 더욱 신중하라고 당부했다. 기사의 목숨은 기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곤경에 빠진 이들을 지키고 구해 주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손 선생님, 제가 바로 그 점 때문에 주인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때 산초가 끼어들었다. "우리 주인님은 무장한 병사 백 명을 상대로도, 마치 먹을 것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어린애가 참외 여섯 개를 보고 달려들듯 무모하게 덤벼드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학사님! 그렇지요, 나아갈 때가 있으면 물러설 때도 있는 법 아닙니까. 매번 '산티아고, 돌격하라, 에스파냐!'를 외치며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 수만은 없는 노릇이지요.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주인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을 텐데, 겁쟁이와 무모한 자라는 양극단의 한가운데에 진정한 용기가 있다고들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주인님이 아무 까닭 없이 도망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분별이 다른 길을 일러줄 때 무턱대고 덤비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저

를 데려가시려거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주인님이 도맡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님의 몸을 청결히 해 드리고 편히 모시는 일 외에 다른 의무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제가 정성껏 시중을 들겠습니다. 하지만 도끼와 투구로 무장한 악독한 마을 불한당들을 상대로 칼을 빼 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바라신다면, 그건 부질없는 기대입니다. 산손 선생님, 저는 용맹하다는 명성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편력기사를 모신 종자 중 가장 훌륭하고 가장 충직한 종자였다는 명성을 얻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제 주인님 돈키호테께서 저의 많고 충실한 봉사에 보답하시어, 길에서 마주치게 되리라 늘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섬 가운데 하나라도 제게 주신다면 더없는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섬을 주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이미 태어난 몸이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남에게 기대어 살 것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통치자가 되어 먹는 빵보다, 통치를 하지 않고 마음 편히 먹는 빵이 그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맛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혹시 압니까, 그런 통치 자리에서 악마가 저를 골탕 먹이려고 발을 걸어, 제가 넘어지면서 어금니가 다 나가 버릴지 말입니다. 저는 산초로 태어났으니 산초로 죽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수고나 큰 위험 없이 순순히 하늘이 제게 섬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내려 주신다면, 그것을 마다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송아지를 주거든 고삐를 들고 달려가라'는 말도 있고, '복이 오거든 집 안으로 들여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산초 형제여," 카라스코가 말했다. "방금 마치 대학교수처럼 훌륭하게 말씀하셨군요. 하지만 그 모든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돈키

호테 주인님을 믿으십시오. 주인님께서는 당신에게 섬이 아니라 왕국을 내려 주실 분이니까요."

"왕국이든 섬이든 다 매한가지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카라스코 선생님께 한 말씀 드리자면, 주인님께서 제게 왕국을 주신다 해도 그것을 헛된 데 내버리시는 셈은 아닐 겁니다. 제 스스로 맥을 짚어 보니, 왕국을 다스리고 섬을 통치할 만큼 멀쩡히 건강하더군요. 이런 말씀은 전에도 주인님께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산초."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직업이 바뀌면 사람의 버릇도 바뀌는 법입니다. 그러다 당신이 통치자가 되고 나면, 정작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조차 몰라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그건 본디 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저처럼 영혼 위에 순수 혈통 기독교인의 기름기가 손가락 네 개 두께로 덮여 있는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천만에요! 어디 제 천성을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 천성이 누구한테 배은망덕할 줄이나 아는지 말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건 통치자 자리가 생겼을 때 가서 보면 절로 드러날 일이지요. 벌써 그 자리가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만 같으니 말입니다."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학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그가 시인이라면, 자신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작별을 고할 때 쓸 시를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각 행의 첫머리

에 그녀 이름의 글자를 하나씩 넣어, 시가 끝났을 때 그 행들의 첫 글자를 모두 모으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이름이 읽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사는 대답했습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시인이 고작 세 명 반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신은 대단한 시인이 아니기에, 요청하신 운율에 맞춰 시를 짓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가 열일곱 자나 되니 구성하기가 무척 까다롭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네 줄씩 네 연으로 이루어진 카스텔라식 시를 쓴다면 글자 하나가 남을 것이고, 데시마나 레돈디야라고 불리는 다섯 줄씩의 시를 쓴다면 글자 세 개가 모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글자를 잘 배치하여, 네 개의 카스텔라식 연 안에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이름이 모두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 이름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시를 자신을 위해 지었다고 믿어줄 여인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여드레 뒤에 길을 떠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돈키호테는 학사에게 이 계획을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신부와 마에스니콜라스, 그리고 자신의 조카와 가정부가 알게 되어 명예롭고 용기 있는 자신의 결심을 방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산손 카라스코는 이 모든 사항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사는 작별 인사를 건네며, 돈키호테에게 형편이 닿는 대로

자신의 앞날에 일어날 모든 길흉화복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산초 판사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러 떠났습니다.

제5장



제5장. 산초 판사와 그의 아내 테레사 판사가 나눈 지혜롭고도 익살스러운 대화, 그리고 행복하게 기억할 만한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번역하는 번역가는 제5장에 이르러 이렇게 말한다. 이 장은 위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산초 판사가 보여주는 말투는 그의 짧은 지혜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인 데다, 그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오묘하여 그가 그런 말을 알았을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역가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이 대목을 번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이어간다.

산초 판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어찌나 대단하던지 아내 테레사는 석궁을 쏘면 닿을 만큼 멀리서도 그의 즐거운 기색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기색이 워낙 뚜렷했기에 테레사는 결국 그에게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산초. 대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싱글벙글하며 돌아와요?"

그가 대답했다.

"여보, 만약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지 않아도 참 좋겠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여보." 그녀가 대답했다.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좀 어리석긴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보시오, 테레사."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우리 주인 돈키호테를 다시 모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라오. 주인님께서 벌써 세 번째로 모험을 떠나겠다고 하시니, 나도 그분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서려는 것이지. 형편이 그래야만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써버린 만큼 또 다른 에스쿠도 백 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으니 기쁘기도 하구려. 물론 당신과 아이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하지만 말이오. 만약 신께서 나를 굽어살피셔서, 이리저리 굽이진 길이나 갈림길로 끌고 다니지 않고 발 한 번 적시지 않게 편히 내 집에서 배불리 먹고살게 해주신다면 — 그것도 큰돈 들이지 않고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되실 일인데 — 두말할 것 없이 내 기쁨이 훨씬 더 확고하고 값졌을 것이오. 지금 내 기쁨은 당신을 떠나는 슬픔과 뒤섞여 있으니 말이오. 그러니 아까 내가 한 말은 틀린 게 아니오.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차라리 이렇게 싱글벙글 웃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거라고 한 말 말이오."

"이보시오, 산초." 테레사가 대답했다. "당신이 무슨 기사도 모험을 한다고 나서더니, 말투가 아주 거창해져서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그만이지, 부인." 산초가 대답했다. "신이야말로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신 분 아니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둡시다. 그리고 이보시오, 여보. 이 사흘 동안은 저 잿빛 당나귀를 잘 살펴봐야 하오. 당장이라도 싸움에 나설 수 있게 말이오. 먹이도 두 배로 넉넉히 챙겨두고, 안장과 나머지 마구도 잘 점검해 두시오. 우리는 잔치에 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거인이며 괴룡이며 괴

물들과 치고받고, 휘파람 소리와 으르렁대는 소리, 울부짖음과 비명을 들으러 가는 것이니 말이오. 게다가 이 모든 것도, 양구아스 사람들이나 마법에 걸린 무어인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저 사소한 장난거리에 불과할 것이오."

"내 생각엔 말이에요, 여보." 테레사가 대답했다. "기사들의 종자 노릇이 결코 거저 먹는 일은 아닐 것 같구려. 그러니 부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저런 불행 속에서 하루빨리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게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부인."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내가 머지않아 어느 섬의 총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여기서 쓰러져 죽었을 것이오."

"아니에요, 여보." 테레사가 말했다. "암탉은 병이 들었어도 살아 있는 게 낫다잖아요. 당신도 부디 목숨이나 잘 부지하며 사시고, 세상에 있는 통치권 따위는 죄다 악마가 가져가 버리라고 하세요. 당신은 통치권 없이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왔고, 지금까지도 통치권 없이 살아왔으며, 하느님의 뜻이 닿을 때 죽음을 맞이해 무덤으로 가거나 실려 갈 때도 통치권 없이 갈 테니까요. 세상에는 통치권 없이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삶을 포기하거나 사람 축에 못 끼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양념은 배고픔이라지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그 배고픔이 떨어질 날이 없으니 늘 맛있게 먹는 법이고요. 하지만 산초, 명심하세요. 혹시라도 정말로 당신이 통치권을 갖게 된다면, 저와 아이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산치코가 벌써 꽉 찬 열다섯

살이니, 삼촌인 수도원장이 그 아이를 성직자로 키울 작정이라면 이제는 학교에 보내야 마땅해요. 그리고 당신 딸 마리 산차도 시집을 보낸다고 죽기야 하겠어요. 내 예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 아이도 당신이 통치권을 바라는 것만큼이나 남편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딸자식은 첩으로 호강하며 사느니 못한 자리라도 시집가는 편이 나아 보이는 법이니까요."

"내 진심을 말하건대," 산초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내게 정말로 통치권을 맡겨 주신다면, 부인, 나는 우리 딸 마리 산차를 아주 높은 자리에 시집보낼 것이오. 그 누구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그저 '마님'이라 불러야 할 만큼 말이오."

"그건 아니에요, 산초." 테레사가 대답했다. "딸아이를 신분에 맞는 사람에게 시집보내는 게 가장 현명한 법이에요. 나무 신발을 신던 아이를 갑자기 화려한 비단 신발에 태우고, 거친 무명 치마를 입히던 아이에게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드레스를 입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처녀를 갑자기 귀부인이나 귀족 부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오히려 걸음마다 허점이 드러나고, 결국 그 아이가 입은 옷이 얼마나 싸구려인지, 그 바탕이 얼마나 거칠고 조잡한지 만천하에 들통나고 말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산초가 말했다. "그저 두세 해만 익히면 될 일이오. 그 시간이 지나면 귀부인다운 위엄과 품격이 마치 본을 뜬 듯 자연스레 몸에 딱 배게 될 것이오. 설령 그렇지 않다 한들 그게 무슨 상

관이란 말이오? 일단 '마님' 소리 들으며 귀부인으로 살게 해 주고, 그 다음 일은 될 대로 되라지."

"산초, 당신 처지에 맞게 행동하세요." 테레사가 대답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웃집 아들 코나 닦아주고 네 집으로 데려와라'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리아를 백작이나 기사에게 시집보내서 그들이 마음 내킬 때마다 우리 딸을 '촌뜨기'니, '천한 집안의 딸'이니 하며 함부로 대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어요? 여보, 내 생전에 그런 일은 절대 못 봐요!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설마 그런 대접을 받게 하겠어요? 산초, 당신은 돈이나 가져오세요. 시집보내는 건 내 소관이니까요. 마침 후안 토초의 아들 로페 토초라는 애가 있잖아요. 몸집도 건장하고 아주 건강한 데다 우리가 잘 아는 애라, 우리 딸을 아주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와 신분이 비슷한 그 아이와 결혼해야 딸도 잘 살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부모와 자식, 손주와 사위로 한데 어우러져 화목하게 지낼 수 있고, 우리 사이에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당신 말대로 딸을 저 멀리 궁전 같은 곳에 시집보냈다가는, 딸도 그곳 분위기를 못 따라가고 사람들도 우리 딸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짐승 같고 바라바의 마누라 같은 여편네야!" 산초가 대꾸했다. "도대체 왜, 아무 까닭도 영문도 없이 내 일을 가로막는 거요? 내 딸을 '마님' 소리 들을 손주를 안겨 줄 사람에게 시집보내겠다는데 말이오! 잘 들으시오, 테레사. 어른들 말씀에, 복이 굴러들어 왔을 때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복이 지나가 버려도 불평할 자격이 없다고 했소. 지금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행운을 우리 손으로 닫아버리

는 건 옳지 않은 일이오.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순풍에 몸을 맡겨봅시다."

산초가 이렇게 말하고 뒤이어 하는 말들을 보건대, 이 이야기의 번역가는 이 장이 가짜라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미련한 여자 같으니!" 산초가 말을 이었다. "우리를 이 진흙탕 속에서 건져줄 만한 번듯한 관직을 얻는 게 훨씬 낫지 않겠소? 내 뜻대로 마리 산차를 시집보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도냐 테레사 판사라고 부르며 떠받들 거요. 마을의 귀족들이 아무리 속이 쓰려도, 당신은 성당에서 카펫과 쿠션, 그리고 화려한 자수 방석 위에 앉아 있게 될 거란 말이오! 아니, 평생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이, 벽에 걸린 그림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소?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이쯤 해둡시다.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 산치카는 반드시 백작 부인이 될 테니까."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요, 여보?" 테레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얻게 될 백작 작위가 오히려 아이를 망치는 길일까 봐 두렵군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딸을 공작부인으로 만들든 공주로 만들든 마음대로 하란 말이에요. 다만 내 동의나 허락 없이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점만 알아두세요. 나는 평생 평등한 처지를 좋아해 왔고, 근거 없는 허세를 부리는 꼴은 못 봐요. 세례를 받을 때 내 이름은 군더더기나 미사여구 하나 없이 테레사라고 아주 담백하게 지어졌지요. 우리 아버지는 카스카호라고 불렸고, 나는 당신 아내니까 테레사 판사라고 불리는 것이지, 원래대로라면 테레사 카스카

호라고 불려야 마땅해요. 하지만 세상일이란 게 결국 힘 있는 자들 뜻대로 흘러가는 법이니, 나는 이 이름 그대로에 만족하며 살렵니다. 내 몸에 다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귀족 칭호를 붙이지 말아 주세요. 내가 백작 부인이나 총독처럼 차려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게 뻔하니까요. '저 천한 여편네 좀 봐! 어제까지만 해도 솜뭉치나 만지작거리며 살고, 성당에 갈 때도 망토 대신 치마 자락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가던 여자가, 오늘은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 양 화려한 치마에 보석까지 달고 나타났네!'라며 비웃을 게 분명하다고요. 하느님이 내 정신줄을 붙잡아 주신다면, 아니 내 이 다섯 가지 혹은 일곱 가지 감각이 무사하다면, 그런 곤란한 상황을 자초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당신은 당신 좋을 대로 관직을 얻든 섬의 통치자가 되든 마음껏 꾸미고 다니세요. 하지만 내 딸과 나는, 내 어머니의 명을 걸고 말하건대, 우리 마을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숙한 여자는 다리가 부러져도 집에 있어야 하는 법이고, 조신한 처녀는 집안일을 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돈키호테와 함께 모험을 떠나세요. 우리는 우리 운명에 맡길 테니,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느님께서 우리 운명도 좋게 바꿔주시겠지요. 그나저나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 양반은 부모님이나 조상님들도 못 누린 귀족 칭호를 달고 다니는지 참 모르겠군요."

"이제 보니 당신 몸속에 무슨 귀신이라도 씌었구려!" 산초가 대답했다. "맙소사, 이 여편네 좀 보게! 어쩜 저렇게 앞뒤도 없이 별의별 소리를 줄줄이 꿰어 늘어놓는담! 카스카호니, 보석 장식이니, 속담이니, 허세니 하는 것들이 내가 하는 말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이리

좀 와 봐요, 이 어리석고 무지한 여자야(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굴러온 복을 걷어차고 있으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소). 만약 내가 우리 딸더러 탑에서 뛰어내리라거나, 인판타 도냐 우라카처럼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라고 했다면 당신이 내 뜻에 반대할 만도 하오. 하지만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순식간에 우리 딸에게 귀족 작위와 마님 칭호를 떡하니 입혀서 이 비루한 볏짚더미 속에서 건져내어, 모로코의 알모아다 가문 조상들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벨벳 쿠션이 깔린 화려한 좌석과 단상에 앉혀 놓겠다는데, 어째서 내 뜻에 따르지 않고 반대만 한다는 말이오?"

"여보, 왜 그런지 알아요?" 테레사가 대답했다. "'너를 덮어주는 것이 오히려 너를 드러낸다'는 속담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눈길은 가난한 사람은 스치듯 지나쳐 버리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멈춰 서서 머무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그 부자가 한때 가난했다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욕하기 바쁘고, 길거리에 벌떼처럼 우글거리는 비방꾼들은 더욱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테니까요."

"이봐요, 테레사." 산초가 대답했다.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당신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말이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오. 지난 사순절에 우리 마을에서 설교했던 신부님이 하신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오. 내 기억이 맞다면, 신부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재의 일들은 지나간 과거의 일들보다 우리 기억 속에 훨씬 더 또렷하고 강렬하게 남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소."

(산초가 여기서 늘어놓는 이 모든 이유야말로, 번역가가 이 장을 가짜로 여기는 두 번째 근거다. 산초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산초는 말을 이어 나갔다.)

"그러니까 말이오, 테레사.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차려입고 화려한 옷을 갖춰 입은 데다 하인들까지 거느리고 나타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게 되는 법이오. 비록 그 순간 우리 기억이 예전에 보았던 그 사람의 비천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더라도 말이오. 하지만 그 초라함이란 게 가난이든 미천한 혈통이든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일 뿐,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 아니겠소? 운명이 그를 비천한 처지에서 끌어올려 번영의 자리에 앉혔을 때(신부님도 바로 이런 이치로 말씀하신 거요), 만약 그 사람이 예의 바르고 너그러우며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문이 오래된 옛 귀족들과 부질없는 시비를 벌이지 않는다면, 테레사, 내 장담컨대 질투에 사로잡힌 자들—번영하는 운명은 그 누구 앞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니—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의 지난날을 들먹이지 않고 지금의 모습만을 우러러볼 것이오."

"여보,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소." 테레사가 대답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놈의 훈계니 수사니 하는 말들로 내 머리만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만약 당신이 말한 대로 행동하려니 마음이 갈팡질팡한다면……."

"갈팡질팡이 아니라, 결심을 굳혔다고 말해야지, 임자." 산초가 말했다.

"여보, 나랑 말다툼하려 들지 마시오." 테레사가 대답했다. "나는 그저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말만 할 뿐이지, 다른 딴생각은 없소. 내 말은, 만약 당신이 정말로 통치자가 되겠다고 고집을 피울 거라면, 당신 아들 산초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오. 그래야 지금부터라도 통치하는 법을 가르칠 것 아니오? 자식은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고 배우는 게 당연한 법이니까."

"통치자가 되면 말이지," 산초가 말했다. "전령을 보내 아들을 데려오게 하겠소. 그리고 당신에게도 돈을 보내줄 테니 걱정 마시오. 돈이 없는 통치자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언제나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 아들에게 옷을 좀 입혀 두시오. 지금의 모습은 감추고, 장차 통치자가 될 모습처럼 보이게 말이오."

"돈은 당신이 보내시오." 테레사가 말했다. "그 돈으로 아들에게 아주 번듯한 옷을 입혀 놓을 테니까."

"그렇소, 우리 딸이 백작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로 결론을 내립시다." 산초가 말했다.

"우리 딸이 백작부인이 되는 날을 보게 된다면," 테레사가 대답했다. "그날은 차라리 내가 딸을 땅에 묻었다고 생각하겠소.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건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여자는 남편이 아무리 멍청이라 해도 그 말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을 타고나는 법이니까."

그러고는 테레사가 마치 산치카가 이미 죽어 땅에 묻히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산초는 어차피 딸을 백작부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되도록 최대한 늦게 그렇게 하겠노라 달래며 아내를 위로했다. 이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마무리되었고, 산초는 떠날 채비를 갖추려고 다시 돈키호테를 찾아갔다.

제6장



제6장.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조카와 유모와의 일, 그리고 이 이야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

산초 판사와 그의 아내 테레사 카스카호가 앞서 말한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돈키호테의 조카와 유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벌써 세 번째로 다시 기사 노릇을 하겠다며, 자신들이

보기엔 그저 망령된 짓인 기사 활동을 재개하려 한다는 사실을 온갖 정황을 통해 눈치채고 있었다. 조카와 유모는 어떻게든 그가 그런 나쁜 생각을 버리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설득해 보았지만, 마치 사막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듯, 혹은 차가운 쇠뭉치를 두드리는 것처럼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돈키호테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유모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인님. 만약 주인님께서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집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모험'이라 부르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불행'일 뿐인 것들을 찾아 떠도는 망령처럼 산과 골짜기를 헤매고 다니기를 그만두지 않으신다면, 저는 하나님과 국왕 폐하께 이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목청 높여 울부짖으며 하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유모, 당신의 하소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혹은 국왕 폐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나도 모르겠소. 다만 내가 만약 왕이라면, 매일같이 올라오는 그 수많은 쓸데없는 상소문에 일일이 대답하는 일은 피하고 싶을 뿐이라오. 왕이 겪는 수많은 고충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이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 모두에게 대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니 말이오. 그러니 내 일로 인해 폐하께 번거로움을 드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려."

그러자 유모가 말했다.

"말씀해 보세요, 주인님. 국왕 폐하의 궁정에는 기사가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기사가 아주 많지요. 왕족의 위엄을 빛내고 국왕 폐하의 존엄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기사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주인님께서는," 유모가 대답했다. "궁정에 가만히 머무시면서 발 편히 두고 왕이자 주군이신 분을 모시는 그런 기사들 중 한 분이 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보시오, 친구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모든 기사가 궁정 기사가 될 수는 없으며, 모든 궁정 기사가 방랑 기사가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법이라오. 세상에는 두 부류가 모두 있어야 하니까 말이오. 설령 우리 모두가 기사라 할지라도, 서로 간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오. 궁정 기사들은 자기 방이나 궁정 문턱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도 지도를 들여다보며 온 세상을 누비곤 하지. 돈 한 푼 들일 필요도 없고, 더위나 추위,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겪을 일도 없으니 말이오. 하지만 우리 같은 진정한 방랑 기사들은 뜨거운 태양과 추위, 거센 바람과 하늘의 온갖 변덕을 온몸으로 맞서야 한다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걷거나 말을 타며 우리 발로 직접 온 땅을 누비는 것이지. 우리는 단순히 그림으로 그려진 적을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오. 적의 실체를 직접 마주하며,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기회가 왔을 때 사소한 규칙이나 결투의 법도 따위는 개의치 않고 곧장 달려든다오. 적의 창이나 칼이 짧든 길든, 몸에 성물을 지녔든 아니면 어떤 속임수를 숨기고 있든, 또

햇빛을 둘로 나누어 공평하게 가를지 말지 따위, 일대일 결투에서 행해지는 그 밖의 온갖 의례 — 그대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그런 절차들도 전혀 따지지 않는단 말이오.

또한 그대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소. 훌륭한 방랑 기사라면, 설령 머리가 구름을 뚫고 지나갈 만큼 거대한 거인 열 명을 마주한다 해도 결코 겁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오. 다리가 거대한 탑 두 개처럼 보이고, 팔은 굵고 힘찬 범선의 돛대 같으며, 눈은 커다란 맷돌처럼 생긴 데다 유리 가마보다 더 뜨겁게 불타는 그런 거인들 앞에서도 말이오. 오히려 기사는 품위를 유지하며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들어 들이받아야 하며, 가능하다면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치고 박살 내야 하오. 설령 그들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하다는 어떤 물고기 껍질로 무장하고 나왔다 해도, 혹은 칼 대신 다마스쿠스 강철로 만든 날카로운 단검이나 내가 두 번 넘게 본 적이 있는 강철 끝이 달린 쇠몽둥이를 휘두른다 해도 말이오.

사랑하는 아주머니, 내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기사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오. 기사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떤 기사는 한 왕국뿐만 아니라 여러 왕국의 구원자가 되기도 한다고 하지 않소? 그러니 어떤 군주라도 바로 이 두 번째,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부류의 방랑 기사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아이고, 주인님!" 이때 조카가 말을 가로챘다. "방랑 기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꾸며낸 이야기이자 거짓말이라는 사실

을 명심하셔야 해요. 그 기사 이야기들은 차라리 불태워 버리는 게 나을 정도예요. 만약 불태우지 않는다면,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수치스러운 낙인을 찍거나, 풍속을 해치는 저질스러운 책이라는 표시를 남겨서 그 정체를 세상에 알려야 마땅할 정도라고요."

"나를 지탱해 주시는 하느님을 걸고 맹세하건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내 친누이의 딸인 나의 친조카가 아니었다면, 방금 내뱉은 그 망령된 말에 대해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엄히 벌을 주었을 것이오. 고작 레이스를 뜨는 실패 열두 개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어린 계집애가 감히 어디서 입을 놀리며 방랑 기사들의 이야기를 비난한단 말이오? 만약 아마디스 경이 그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하시겠소? 물론 그분은 당대에서 가장 겸손하고 예의 바른 기사였고, 처녀들을 지극히 보살피는 분이었으니 분명 그대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말이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대의 말을 들었다가는 오히려 그대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오. 모든 기사가 다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오. 어떤 이들은 그저 건달 같고 무례하기만 하오.

또한 기사라 불리는 이들이 모두 모든 면에서 기사인 것도 아니오. 어떤 이는 황금으로 만든 기사이고, 어떤 이는 연금술로 만든 기사라오. 겉보기에는 모두 기사 같아 보여도, 진실의 시금석을 갖다 대면 모두가 그 시험을 견디는 것은 아니란 말이오. 기사처럼 보이려고 애쓰다 속이 터져 죽을 저급한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결한 기사임에도 일부러 천한 인간처럼 보이려 안달인 이들도 있소. 전자는 야망 때문에, 혹은 덕망으로 몸을 일으키고, 후자는 나태함 때문에, 혹은 악행으로 몸을 낮추는 법이라오. 그러니 이름은 비슷해도 행동은 천지 차이

인 이 두 부류의 기사를 구별해 내려면, 사물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오."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조카가 말했다. "삼촌, 제발 좀 아셔야 해요. 삼촌이 만약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강단에 올라가 거리마다 설교를 하러 다니실 만큼 박식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얼마나 뻔뻔한 바보짓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니 말이에요.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용감한 척하고, 몸도 아픈 분이 기운이 넘치는 척하고, 나이에 짓눌려 기력이 쇠한 분이 세상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니요. 무엇보다 기사도 아닌 분이 기사인 양 구시니,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아셔야 해요! 이달고 귀족이라면 기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한 이들은 결코 기사가 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조카야, 네 말이 아주 옳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가문의 혈통에 관해서라면 너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뒤섞고 싶지 않으니 그 이야기는 아껴두마. 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보렴. 세상의 모든 가문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단다. 첫째는 비천한 처지에서 시작해 점점 세력을 넓혀 지극한 위대함에 이른 가문이고, 둘째는 처음부터 위대하게 시작하여 그 위엄을 잘 지켜내고 유지하는 가문이다. 셋째는 비록 시작은 위대했을지언정, 마치 피라미드처럼 끝이 뾰족하게 깎여나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가문이지.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그 밑바닥이나 기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단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작도 없었고 중

간 과정도 평범했으니 결국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끝을 맺는 가문이다. 바로 평민이나 일반 백성들의 혈통이 그러하지.

비천하게 시작해 지금의 위대함에 이른 첫 번째 가문의 예로는 오스만 가문을 들 수 있겠구나. 보잘것없는 목동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저 높은 정점에 올라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위대하게 시작해 그 위엄을 더하거나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두 번째 가문의 예로는, 대대로 왕위를 물려받아 자신의 영토 안에서 평화롭게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수많은 군주를 들 수 있다. 반대로 위대하게 시작했으나 끝이 뾰족하게 깎여나간 가문의 예는 수천 가지나 된단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프톨레마이오스 왕들, 로마의 카이사르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수많은 군주와 왕, 영주, 메디아인,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야만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가문과 통치권은 결국 뾰족한 끝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단다.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문을 시작한 이들도 마찬가지지. 이제 그들의 후손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설령 찾는다 해도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있을 테니까 말이다. 평민의 혈통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구나. 그저 사람들의 수를 늘려줄 뿐, 그들의 위대함이 다른 명성이나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니 말이다.

얘들아,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가문 사이에는 엄청난 혼란이 존재하며, 오직 덕망과 부, 그리고 주인 특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가문만이 위대하고 빛나는 법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덕망과 부, 너그러움을 말하는 이유는, 위대한 자라도 악행을 저지르면 그저 '위대한 악당'일 뿐이고, 부유한 자라도 너그럽지 못하면 '구두쇠 거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물을 가진 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재물 그 자

체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법이며,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쓸 줄 아는 지혜에 달려 있다. 가난한 기사가 자신이 기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덕을 쌓는 것뿐이다. 상냥하고, 예의 바르며, 품격 있고 절제할 줄 알며, 남을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오만하거나 거만해서도 안 되고, 남을 헐뜯어서도 안 되며, 무엇보다 자비로워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가난한 이에게 던져주는 단돈 2 마라베디만으로도, 그는 마치 종을 치며 자선을 베푸는 이만큼이나 너그러운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록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닌 저 고결한 덕망을 보고는 그를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일 터이니 말이다. 찬사는 언제나 덕망에 따르는 보상이며, 덕을 갖춘 자는 결코 찬사를 피할 수 없다.

애들아, 사람이 부유하고 명예롭게 사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단다. 하나는 학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무예의 길이다. 나는 무예에 더 가깝고, 내 운명 또한 무예를 향해 흐르고 있으니, 나는 마르스 행성의 영향을 받아 태어났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 나는 거의 숙명적으로 무예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하늘이 원하고 운명이 정했으며, 이성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내 의지가 갈망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짓이다. 나는 방랑 기사가 겪어야 할 수많은 고난을 잘 알고 있기에, 그 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영광 또한 잘 알고 있다. 또한 덕을 쌓는 길은 매우 좁고 험난하지만, 악행을 따르는 길은 넓고 평탄하다는 것도 안다. 그 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말이다. 넓고 평탄한 악의 길은 결

국 죽음으로 끝나지만, 좁고 고된 덕의 길은 삶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단순히 죽어 없어질 삶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삶이다. 우리 위대한 스페인 시인이 말했듯이, 나는 알고 있단다."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네."

불멸의 영광과 높은 지위에 이르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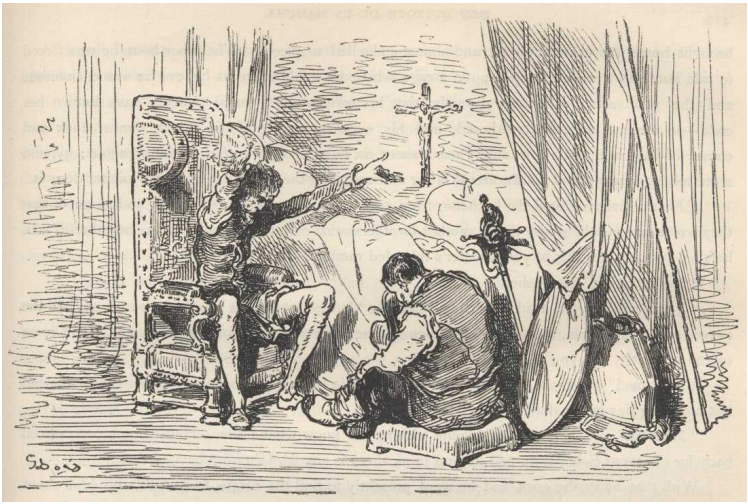
그 길에서 벗어나는 자는 결코 그곳에 오르지 못하는 법이라네.

"아이고, 내 팔자야!" 조카가 말했다. "우리 주인님은 시인이라니까요! 모르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으시니, 만약 저분이 석공이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새장처럼 정교한 집도 뚝딱 지어내실 게 분명해요."

"조카야, 약속하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만약 이 기사도에 대한 생각들이 내 온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못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특히 새장이나 이쑤시개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게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가 왔느냐고 묻자 산초 판사가 자신이라고 대답했다. 안주인은 산초를 알아채자마자 그를 마주치기 싫어 얼른 몸을 숨기러 달려갔다. 그만큼 산초를 몹시 싫어했던 것이다. 조카가 문을 열어주자 주인 돈키호테가 두 팔을 벌려 산초를 맞이하러 나갔다. 두 사람은 방 안에 틀어박혀 또 한 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앞서 나눈 대화에 견주어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제7장



제7장.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 사이에 일어난 일과 그 외 아주 유명한 사건들에 대하여

산초 판사가 주인과 함께 방에 틀어박히는 것을 보자마자, 안주인은 그들이 무슨 궁리를 하는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그 대화 끝에 돈

키호테가 세 번째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근심과 슬픔에 휩싸인 채 망토를 챙겨 들고 곧장 학사 산손 카라스코를 찾아 나섰습니다. 산손 카라스코라면 말솜씨도 좋고 주인과도 가까운 사이니, 그 미친 듯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집 마당을 거닐고 있던 산손 카라스코를 발견하자, 안주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근심 가득한 모습으로 그의 발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산손 카라스코는 그녀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안주인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마치 혼이 빠져나갈 듯한 모습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손 카라스코 님. 그저 제 주인님이 밖으로 나가려 하십니다. 틀림없이 나가고야 말 겁니다!"

"그런데 안주인님, 어디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산손 카라스코가 물었다. "몸 어디라도 다치신 건가요?"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저 광기라는 문을 통해 나가려 하실 뿐이지요. 제 영혼의 안식처이신 학사님, 제 말은 주인님이 또다시 길을 떠나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번까지 하면 벌써 세 번째인데, 세상천지를 떠돌며 소위 '행운'이라는 것을 찾아다니려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들에 그런 이름을 붙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첫 번째 때는 당나귀 등에 가로질러 실린 채 흠씬 두들

겨 맞아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셨지요. 두 번째에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우리 안에 갇혀 돌아오셨는데, 본인은 자기가 마법에 걸렸다고 굳게 믿고 계셨답니다. 돌아오신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그를 낳아준 어머니라도 못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몸은 야위고 안색은 누렇게 떠서, 눈은 머릿속 가장 깊은 곳까지 쑥 들어가 있었지요. 그를 겨우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제가 달걀을 육백 개 넘게 썼답니다. 하나님과 온 세상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을 못 하는 제 암탉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사가 대답했다. "그 암탉들이 워낙 좋고 통통하며 잘 자라서, 설령 배가 터져 죽는다 해도 앞뒤 안 맞는 소리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안주인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키호테가 하려는 일이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그 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으며, 그 외에 다른 미친 짓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학사님."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사가 대답했다. "그저 기분 좋게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서 제가 먹을 따뜻한 점심 식사나 좀 준비해 두시고요. 가시는 길에 혹시 성 아폴로니아 기도문을 아신다면 나직이 읊조리며 가십시오. 제가 곧 그곳으로 달려갈 테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안주인이 대답했다. "성 아폴로니아 기도문을 읊으라고요? 그건 주인님께서 치통이라도 앓고 계신다면 모를까, 주인님은 이가 아니라 머리가 아프신걸요."

"안주인께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만 돌아가십시오. 저와 말다툼하려 들지 마시고요. 제가 살라망카 출신의 학사라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학사란 원래 그런 법입니다."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안주인은 이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다. 그러자 학사는 곧장 신부를 찾아가,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히기로 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그와 상의하러 떠났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갇혀 지냈던 그 방에서 벌어진 일들은,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고도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는 바와 같다.

산초가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제 아내에게는 이미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든 기꺼이 따라나서겠습니다."

"'단단히 일러두었다'가 아니라 '설득해 두었다'라고 해야지,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한두 번쯤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말입니다. 주인님, 제가 하는 말의 뜻을 알아들으실 수 있다면 굳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고쳐주지 말아 달라고 간청드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다면, 그냥 '산초야, 아니면 악마가 씌었나, 도통 못 알아듣겠구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도 제가 제 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그때는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워낙 눈치가 빨라서 말입니다……."

"산초야, 도통 못 알아듣겠구나." 돈키호테가 이어서 말했다. "네가 방금 말한 '눈치가 빠르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눈치가 빠르다'는 건, 제가 원래 그렇다는 뜻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이제는 더 못 알아듣겠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아, 이제야 알겠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말은, 네가 워낙 고분고분하고 유순하며 눈치가 빨라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이로구나."

"제 생각엔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처음부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제 말도 다 알아들으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저 제가 헛소리를 늘어놓는 걸 보시고는 저를 좀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겠지요."

"그럴지도 모르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테레사는 뭐라고 하더냐?"

"테레사 말로는요."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두라고 하더군요. 말이 아니라 증서로 분명히 해 두고 군말은 말라고요. 미리 똑똑히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는 법이니까요. '나중

에 두 번 주마' 하는 말보다 지금 '자, 받아라' 하며 한 번 받는 게 낫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자의 조언이란 게 별것 아닌 듯해도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은 바보나 다름없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계속해 보게, 친구 산초. 자네 오늘따라 아주 보석 같은 말을 하는군. 어서 말해 보게나."

"문제는 이겁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살아 있어도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법이고, 어린 양이나 숫양이나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신께서 허락하신 시간보다 더 오래 살겠다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귀가 먹은 법이라,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는 늘 무섭게 달려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도 그렇고, 저 높은 강단에서 들려오는 설교 내용도 그렇듯이, 그 어떤 간청도, 무력도, 왕의 권위도, 주교의 권위도 죽음을 멈출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 말은 다 맞는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군."

"제 말은 이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을 모시는 동안 매달 얼마를 받을지 그 액수를 확실히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급여는 주인님의 재산에서 바로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늦게 오거나, 적게 오거나, 아예 안 올지도 모르는 주인님의 자비에만 매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신께서 제 몫을 챙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요컨대, 액수가 적든 많든 제가 얼마를 버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암탉도 알 하나

에서 시작하는 법이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무엇이라도 벌고 있으면 손해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설령, 제가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서, 주인님께서 약속하신 그 섬을 제게 주신다 해도, 저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매사를 그렇게 야박하게 따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섬에서 나올 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그 액수만큼을 제 급여에서 '고양이만큼씩' 떼어 가셔도 좋습니다."

"산초, 이 친구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때로는 고양이가 쥐만큼이나 쓸모 있을 때도 있는 법이라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쥐라고 하려던 걸 고양이라고 잘못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만, 뭐 상관없습니다. 주인님께서 제 뜻을 알아들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렇게나 잘 알아듣다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네가 수많은 속담이라는 화살을 쏘아대며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네. 잘 듣게, 산초. 만약 내가 읽은 기사도 이야기 중에, 기사들이 매달 혹은 매년 얼마를 벌었는지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보여주는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나 역시 자네에게 월급을 정해줄 수 있었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기사도 이야기를 거의 다 읽다시피 했음에도, 어떤 편력기사도 종자에게 정해진 급여를 준 사례는 본 기억이 없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이 모두 운명에 몸을 맡긴 채 봉사했다는 사실뿐이라네.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주군에게 행운이 찾아오면, 섬을 하사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며, 적어도 작위와 영지를 얻게 된다는 것 말일세. 산초, 자네가 이런 희망

과 부수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다시 나를 섬기겠다면 기꺼이 환영하네. 하지만 내가 기사도의 오래된 관습을 벗어나 월급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욕심일세. 그러니 나의 산초여, 어서 집으로 돌아가 테레사에게 내 뜻을 전하게나. 만약 그녀가 좋다고 하고 자네도 나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참으로 잘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처럼 좋은 친구로 남으면 되는 것이네. 비둘기집에 먹이가 끊이지 않는다면 비둘기도 끊이지 않는 법 아니겠나. 그리고 명심하게나, 아들아. 비루한 소유물보다는 희망찬 기대가 낫고, 나쁜 보수보다는 정당한 불평이 낫다는 것을 말일세.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 또한 자네처럼 속담을 빗물처럼 쏟아낼 줄 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라네. 마지막으로 말하건대, 만약 자네가 나와 함께 운명을 걸고 봉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부디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고 자네가 성인(聖人)이 되기를 빌겠네. 나에게는 자네처럼 고집스럽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으면서, 훨씬 더 순종적이고 정성스러운 종자들은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말이야."

주인의 단호한 결심을 들은 산초 판사의 눈앞은 캄캄해졌고, 심장은 힘없이 털썩 내려앉았다. 세상 그 어떤 보물이 있다 한들 주인이 자신을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초가 망연자실하여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산손 카라스코와 조카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산초가 어떤 논리로 주인을 설득해 다시 모험을 찾아 나서지 못하게 만류하는지 몹시 궁금해하던 참이었다. 특유의 능청스러움을 지닌 산손 카라스코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를 덥석 껴안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오, 편력기사도의 꽃이시여! 무인의 찬란한 빛이시여! 스페인 민족의 명예이자 거울이시여! 전능하신 하느님께 간절히 비옵나니, 당신의 세 번째 출정을 가로막고 방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제 욕망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게 하시고, 그들이 품은 악한 소망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고는 안주인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안주인께서 성 아폴로니아에게 더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 그 높고 새로운 결심을 다시 실행에 옮기시리라는 것은 천체가 정확히 정해 놓은 운명임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 기사님께 용맹한 팔의 힘과 더없이 담대한 마음의 선함을 더는 움츠리고 묶어 두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고 설득하지 않는다면 제 양심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리께서 출정을 늦추시는 바람에, 부당한 일을 당한 이들의 권리를 바로잡는 일도, 고아들을 보호하는 일도, 처녀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도, 과부들을 돕는 일도, 유부녀들을 보살피는 일도, 그리고 편력기사도와 관련되고 거기에 속하는 그 밖의 수많은 일도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아름답고 용맹하신 돈키호테 나리,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나리께서 길을 나서십시오! 만약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의 몸과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채워 드리겠습니다. 만약 나리의 위엄을 받드는 종자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그때 돈키호테가 산초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산초야, 내가 종자가 차고 넘칠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보아라, 누가 종자가 되겠다고 자처하는지. 바로 그 놀라운 학사 산손 카라스코가 아니냐! 살라망카 대학 교정에서 늘 소란을 피우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저 친구 말이다. 몸도 건강하고 몸놀림도 민첩하며, 말수도 적은 데다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도 묵묵히 견뎌낼 줄 아니, 편력기사의 종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질을 두루 갖추었구나. 하지만 하늘이 허락지 않으시길, 내가 내 고집을 부리느라 학문의 기둥을 꺾고 학문의 그릇을 깨뜨리며, 고결하고 자유로운 예술의 드높은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니 새로운 산손은 고향에 머물며 그곳을 빛내고, 백발이 성성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산초 네가 감히 나와 함께하려 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 어떤 종자와 함께해도 만족하겠다."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산초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말을 이었다. "주인님, 사람들이 저를 두고 '밥 다 얻어먹고 나니 동무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식의 배은망덕한 자라고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은혜를 모르는 집안 출신이 아니니까요.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제가 나온 판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주인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수많은 선행과 그보다 더 따뜻한 말씀들을 통해 이미 잘 알고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제가 급료를 두고 이래저래 따져 물었던 것은 오로지 제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아내는 한번 마음을 먹고 무언가를 설득하려 들면, 그 어떤 망치가 술통의 테를 조이는 것보다도 더 끈질기게 제 뜻을 밀어붙이거든요. 하지만 사실 남자

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서든 부정할 수 없는 남자이니, 누가 뭐라 해도 제 집에서는 남자답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유언장과 부속 서류를 확실히 정리해 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곧장 길을 떠납시다. 양심상 주인님께 세 번째로 세상에 나가시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산손 선생이 마음의 가책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말입니다. 저 또한 예나 지금이나 편력기사를 모셔온 그 어떤 종자보다도 더 충실하고 법도에 어긋남 없이 주인님을 모시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하겠습니다."

산초 판사가 말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학사 산손 카라스코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주인인 돈키호테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었지만, 산초가 그 책에 묘사된 것만큼이나 익살스러운 인물일 것이라고는 미처 믿지 못했었다. 하지만 산초가 '취소(revocar)할 수 없는 유언장과 부속 서류'라고 해야 할 것을 '뒤집어엎을(revolcar) 수 없는 유언장과 부속 서류'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는 책에서 읽은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믿게 되었고, 산초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어처구니없는 얼간이 가운데 하나라고 단정 지었다. 그러고는 주인과 종자처럼 미친 두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마침내 돈키호테와 산초는 서로를 껴안으며 우정을 다졌다. 당시 그들의 조언자 노릇을 하던 위대한 카라스코도 기꺼이 찬성했기에, 사흘 뒤에 길을 떠나기로 정했다. 그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고, 돈키호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져가겠다고

고집한, 얼굴을 가리며 꼭 맞물리는 투구를 구하기로 했다. 산손 카라스코는 자기 친구 중에 그런 투구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가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그 투구는 매끄러운 강철의 광택으로 번쩍이기보다는, 녹과 곰팡이 때문에 거뭇거뭇하게 빛이 바랜 상태였다.

안주인과 조카, 이 두 여인이 학사에게 퍼부은 저주는 끝이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얼굴을 할퀴며, 마치 주인이 죽기라도 한 것처럼 통곡하며 떠나보내는 슬픔을 연기했다. 산손 카라스코가 돈키호테를 다시 길 떠나게 하려고 세운 계획은, 이전에 미리 상의했던 신부와 이발사의 조언을 따라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내용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그 사흘 동안 돈키호테와 산초는 각자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챙겼다. 산초는 아내를 달래고, 돈키호테는 조카와 안주인을 진정시킨 뒤, 해가 저물 무렵 아무도 모르게 길을 나섰다. 오직 학사만이 그들을 배웅하려 마을에서 반 레구아 떨어진 지점까지 따라왔을 뿐이다. 두 사람은 엘 토보소로 향했다. 돈키호테는 훌륭한 로시난테를 타고, 산초는 예전에 타던 잿빛 나귀를 탔다. 산초의 안장 자루에는 먹을거리를 가득 채워 넣었고, 돈키호테가 만일의 사태에 쓰라고 준 돈주머니도 챙겼다. 산손 카라스코는 돈키호테를 껴안으며, 우정의 도리에 따라 행운이 찾아오면 함께 기뻐하고 불운이 닥치면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소식을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돈키호테가 그러겠노라 약속하자, 산손 카라스코는 마을로 발길을 돌렸고 두 사람은 위대한 도시 엘 토보소를 향해 길을 떠났다.

제8장



제8장. 돈키호테가 자신의 여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만나러 가던 중에 겪은 일에 대하여

"전능하신 알라께 찬미를!"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이 여덟 번째 장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한다—. "알라께 찬미를!" 그는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다. 그는 돈키호테와 산초가 이제 본격적으로 길을 나선 것을 보고 이 축복을 내린다고 말한다. 또한 이 즐거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바로 이 지점부터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가 펼치는 모험과 익살

스러운 소동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독자들이 이 재치 있는 귀족이 이전에 겪었던 기사도 이야기들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에 주목하기를 권한다. 그 새로운 이야기는 몬티엘 들판에서 시작되었던 이전 이야기들처럼, 지금 엘 토보소로 향하는 길 위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가 약속하는 바에 비하면 독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돈키호테와 산초만 남게 되었다. 산손 카라스코가 떠나자마자 로시난테가 히힝 하고 울기 시작했고, 산초의 나귀도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기사와 종자 모두에게 이 소리는 아주 좋은 징조이자 더할 나위 없는 길조로 여겨졌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로시난테의 울음소리보다는 나귀의 한숨과 울음소리가 훨씬 더 잦았다. 이를 보고 산초는 자신의 운수가 주인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가 알고 있던 점성술 때문이었는지는 이야기에 나오지 않으니 알 길이 없다. 다만 산초가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질 때마다 "집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져 봐야 찢어진 신발이나 부러진 갈비뼈 말고는 남는 게 없으니 말이야"라고 투덜거렸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이다. 비록 어리석은 소리였지만, 아주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다. 이때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산초야, 친구여, 밤이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게다가 낮에 엘 토보소를 보고 닿으려 했던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어. 나는 다른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곳에 들러, 비할 데 없이 고귀하신 둘시네아께 축복과 허락을 받을 작정이다. 그녀의 허락을 받아야만 모든 위험한 모험을 무사히 마치고 영광스

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단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기사가 자신의 여인으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만큼 기사를 용맹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축복을 받는 일조차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마당 울타리 너머로 축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제가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저는 주인님께서 시에라 모레나에서 저지르고 계신 어리석고 미친 짓들에 관한 소식을 담은 편지를 그녀에게 전해 주러 갔었지요."

"산초야, 네 눈에는 그곳이 고작 마당 울타리처럼 보였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토록 칭송받아 마땅한 고귀한 품격과 아름다움을 지닌 분을 네가 본 곳이 어찌 그런 곳이란 말이냐? 그곳은 분명 화려한 회랑이나 복도,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한 왕궁의 대청이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기억이 틀린 게 아니라면, 제 눈에는 분명 마당 울타리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가자,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그녀를 보게 된다면, 그게 마당 울타리든 창문이든, 틈새든 정원 울타리든 상관없을 것이다. 그녀의 아름다움이라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단 한 줄기라도 내 눈에 닿기만 한다면, 내 지혜는 밝아지고

내 마음은 강해질 것이니, 그리하여 나는 분별력과 용기에 있어서 유일무이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나으리."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님이라는 그 태양을 보았을 때는, 빛을 내뿜을 수 있을 만큼 밝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사님께서 밀을 까부르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때 일어난 엄청난 먼지가 여사님의 얼굴 앞에 구름처럼 피어올라 얼굴을 어둡게 가렸던 게 분명합니다."

"산초야, 너는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여사님인 둘시네아가 밀을 까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고, 우겨대다니! 밀을 까부르는 일은 다른 고귀한 일에 전념하며 품위를 지켜야 할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다. 그들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드러내는 법이지! 오, 산초야! 너는 우리 시인이 쓴 구절을 벌써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그 시를 보면, 사랑스러운 타호 강에서 머리를 내민 네 명의 님프가 수정 궁전에서 나와 초록빛 들판에 앉아, 영리한 시인이 묘사한 것처럼 금과 실크, 그리고 진주를 엮어 만든 그 화려한 옷감을 짜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본 내 여사님의 모습도 분명 그러했을 것이다. 다만 어떤 사악한 마법사가 내 일들을 시기한 나머지, 나를 기쁘게 해줄 모든 것을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온갖 모습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두렵구나. 내 무용담이 실린 그 책을 쓴 저자가 만약 내 적수인 현자라면, 진실에 수천 가지 거짓을 뒤섞어 내용을 멋대로 바꾸어 놓았을까 봐 말이다. 참된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일들을 늘어놓으며 재미를 보려 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아,

질투란 끝없는 악의 뿌리이자 미덕을 좀먹는 좀벌레로구나! 산초야, 모든 악덕은 저마다 묘한 즐거움을 품고 있기 마련이지만, 질투라는 악덕은 오직 불쾌함과 원망, 그리고 분노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산손 카라스코 학사가 우리에 대해 읽었다는 그 전설이나 이야기 속에서, 제 명예가 아마도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길바닥을 쓸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이지, 저는 어떤 마법사를 욕한 적도 없고, 남들이 시기할 만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심술궂고 못된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타고난 순박함이라는 커다란 망토가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것이라곤 언제나처럼 하느님과 로마 가톨릭 성교회가 믿는 모든 것을 굳건하고 진실하게 믿는 마음뿐이고, 또 저처럼 유대인의 철천지원수 노릇을 하는 것뿐인데, 역사가들이라면 저를 불쌍히 여겨 글 속에서 저를 좀 좋게 다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벌거숭이로 태어나 벌거숭이로 지내고 있으니,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책에 실려 세상 사람들의 손을 타고 돌아다닌다 해도,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떠들든 저는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산초야, 그 이야기는 요즘 활동하는 어느 유명한 시인이 겪은 일과도 비슷하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시인은 궁정의 모든 귀부인을 대상으로 아주 매서운 풍자시를 썼는데, 정작 자신이 귀부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어떤 여인을 시에 넣지도,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단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른 이들의 명단에 빠진 것을 보고 시인을 찾아

가 따졌지. 왜 자신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느냐고, 풍자시를 더 길게 늘여서 자신도 꼭 포함해 달라고 말이야. 그러지 않으면 그저 태어난 대로 살다 죽으라는 말이냐며 말이지. 시인은 그 요구대로 시를 늘려 그 여인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만큼 험하게 헐뜯어 묘사해 주었고, 덕분에 그 여인은 비록 악명일지언정 명성을 얻게 되어 만족해 했단다.

이것은 세상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유명한 디아나 신전을 불태워버린 어느 목동의 이야기와도 맥락이 닿아 있지. 그는 오로지 후세에 자신의 이름이라도 남기기 위해 신전을 태워버렸단다. 비록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글로나 말로 언급하지도 못하게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이름이 에로스트라토라는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지.

또한 로마에서 위대한 황제 카를 5세와 어느 기사가 겪은 일도 이와 비슷하단다. 황제는 고대에는 모든 신의 신전이라 불렸고, 지금은 더 경건하게 모든 성인의 신전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로툰다 신전을 보고 싶어 했지. 그 건물은 로마의 이교도들이 세운 건축물 중 가장 온전하게 남아 있으며, 창건자들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이란다. 그 건물은 반구형 돔 모양으로 아주 거대하고, 꼭대기에 있는 둥근 창, 아니 천창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오기에 내부가 아주 환하지. 황제가 그 건물을 살피고 있을 때, 한 로마 기사가 곁에서 그 위대한 구조물과 기념비적인 건축의 정교함을 설명하고 있었단다. 그러다 기사가 천창에서 물러나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지. '지고하신 폐하, 세상에

제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라면, 폐하를 껴안고 저 천창 아래로 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수천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대답했단다. '그 끔찍한 생각을 실제로 옮기지 않아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오. 앞으로는 그대의 충성심을 시험할 만한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소. 그러니 내게 말을 걸지도 말고,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나지도 마시오.' 황제는 이 말을 마친 뒤 그 기사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었지.

산초야, 내 말은 명성을 얻으려는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무장을 한 채 티베르 강의 깊은 곳으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호라티우스는 누가 밀었겠느냐? 무시오의 팔과 손을 불태운 자는 누구이며, 로마 한복판에 나타난 뜨거운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쿠르티우스는 누구냐? 모든 불길한 징조를 무릅쓰고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게 한 자는 또 누구이며, 더 현대적인 예로, 신대륙에서 더없이 정중한 코르테스가 이끄는 용맹한 스페인 사람들의 배를 뚫어 그들을 메마른 육지에 고립시킨 것은 누구겠느냐?

이 모든 위대한 업적들은 명성을 얻기 위한 행위들이란다. 필멸의 인간들은 자신의 위대한 행적이 가져다줄 불멸의 보상으로서 명성을 갈구하지. 우리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가톨릭 신자이자 편력 기사들은, 이 덧없는 현재의 세기에서 얻는 헛된 명성보다는, 저 높은 하늘과 천상의 영역에서 영원히 빛날 다가올 세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단다. 이 세상의 명성은 아무리 오래간다 한들, 끝이 정해진 이 세상과 함께 결국 사라지고 말 테니까 말이다.

그러니 산초야,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거인에게서 오만을 죽여야 하고, 관대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질투를 다스려야 한다. 평온한 절제와 마음의 평정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적게 먹고 많이 깨어 있음으로써 탐욕과 나태를 이겨내야 한다. 또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여인들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음란함과 방탕함을 막아야 하며, 그리스도교도이자 유명한 기사로서 명성을 쌓을 기회를 찾아 온 세상을 누빔으로써 게으름을 물리쳐야 한다. 산초야, 이것이 바로 선한 명성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찬사를 얻는 방법이란다."

"주인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의문 하나만은 꼭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의문을 풀어달라는 말이냐,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말해 보아라. 내가 아는 것이라면 기꺼이 대답해 주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인님." 산초가 말을 이었다.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율리우스나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그 용맹한 기사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교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옥에 있겠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약 선량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연옥에 있거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산초가 말했다. "그럼 이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 귀하신 분들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 앞에는 은으로 만든 등잔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배당 벽면이 밀랍으로 만든 지팡이나 수의, 머리카락, 다리, 눈 모양의 장식들로 꾸며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체 무엇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돈키호테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이교도들의 무덤은 대부분 화려한 신전이었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유해는 엄청나게 거대한 돌 피라미드 위에 안치되었는데,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 그곳을 성 베드로의 첨탑이라 부르지.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마을 하나만큼이나 커다란 성채를 무덤으로 삼았는데, 사람들은 이를 '몰레스 하드리아니'라 불렀고 지금은 로마의 산탕헬 성채가 되었네. 아르테미시아 여왕은 남편 마우솔로스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무덤에 안치하기도 했지. 하지만 이 무덤들이나 다른 수많은 이교도의 무덤 중 그 어디에도, 그곳에 잠든 이들이 성인임을 보여주는 수의나 다른 제물, 혹은 상징물로 장식된 곳은 없었네."

"그게 바로 제가 하려던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이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거인을 죽이는 게 더 큰 일입니까?"

"답은 아주 간단하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더 큰 일이지."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라면 그 명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눈먼 이에게는 시력을 주고, 다리를 저는 이는 곧게 펴 주며, 병든 이에게는 건강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무덤 앞에는 등불이 타오르고, 예배당은 그 유해를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신실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번 세기는 물론 다음 세기까지도,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이교도 황제나 편력 기사보다 훨씬 더 높은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인정하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명성이나 기적,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특권이라는 것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성스러운 어머니이신 교회의 승인과 허락을 받은 성인들의 몸과 유해에는 등불과 양초, 수의와 목발, 그리고 성인의 머리카락이나 눈, 다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그리스도교적 명성을 드높여 주는 법이지요. 왕들은 성인의 몸이나 유해를 어깨에 메고 다니며, 뼈 조각에 입을 맞추고, 성물을 모신 기도실과 가장 귀한 제단을 그런 유해들로 꾸미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산초야, 네가 방금 한 말들을 내가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말은 이렇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우리도 성인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명성을 훨씬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인님, 이것 좀 보세요. 어제나 그저께, 아니 요즘 말로 하자면 아주 얼마 전에, 맨발의 작은 수도사 두 분이 성인이나 복자로 추대되

었습니다. 그분들이 몸을 동여매고 괴롭히는 데 쓰던 쇠사슬은 이제 사람들이 행운으로 여기며 입 맞추고 만지는 귀한 물건이 되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쇠사슬은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임금님 무기고에 있는 롤랑의 검보다도 더 큰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님, 어떤 수도회에 속하든 용맹한 편력 기사가 되는 것보다 겸손한 작은 수도사가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거인에게든 괴물에게든 마수에게든 이천 번 창을 내지르는 것보다, 스무남은 번의 고행이 하느님께는 더 큰 효험이 있으니까요."

"그 말도 다 맞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수도사가 될 수는 없는 법이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아주 다양하단다. 기사도야말로 곧 종교이니, 천국에는 성스러운 기사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긴 합니다만," 산초가 대답했다. "천국에는 편력 기사보다 수도사가 훨씬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성직자의 수가 기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

"편력 기사도 아주 많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많기는 하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기사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자는 극히 드물다네."

그렇게 이런저런 비슷한 대화를 나누며 그날 밤과 다음 날을 보냈으나, 딱히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이

점이 못내 아쉬웠다. 그러다 어느 날 해 질 녘, 드디어 거대한 도시 엘 토보소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기운이 솟구쳤지만, 산초 판사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산초는 둘시네아의 집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했고, 주인님처럼 그녀를 본 적도 한 번 없었기 때문이다. 한 명은 보고 싶어 안달이고, 다른 한 명은 보지 못해 속이 타니 두 사람의 마음은 갈팡질팡 어지러웠다. 산초는 주인님이 자신을 엘 토보소로 보내면 대체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결국 돈키호테는 밤이 깊어지면 도시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두 사람은 엘 토보소 근처의 상수리나무 아래 머물렀다. 마침내 정해진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도시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된다.

제9장



제9장.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에 대하여

자정 무렵, 거의 정확히 그 시각에 돈키호테와 산초는 산을 내려와 엘 토보소에 들어섰다. 마을은 고요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흔히 말하듯 다리를 쭉 뻗고 편안히 잠든 상태였다. 밤은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는데, 산초는 차라리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변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마을 어디에서도 개 짖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 소리는 돈키호테의 귓전을 먹먹하게 울렸고 산초

의 마음을 불안하게 뒤흔들어 놓았다. 이따금 나귀가 울부짖고 돼지가 꿀꿀거렸으며 고양이가 야옹거렸다. 제각기 다른 이 소리들은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사랑에 빠진 기사는 이 모든 것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얘야, 둘시네아 공주님의 궁전으로 나를 안내하거라. 어쩌면 그분이 깨어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아이고, 주인님, 제가 대체 어느 궁전으로 안내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그 고귀하신 분을 뵈었던 곳은 아주 작은 집이었는걸요."

"그렇다면 그때는 아마도 궁전 안의 작은 별채에 머물고 있었겠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고귀한 여인이나 공주들이 관례대로 하는 것처럼, 시녀들과 함께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

"주인님," 산초가 말했다. "제 뜻과는 상관없이 주인님께서 우리 여인, 둘시네아의 집을 궁전이라 부르고 싶으시다면야 어쩌겠습니까만, 혹시 지금이 문이 열려 있을 만한 시간이기나 합니까? 게다가 우리가 문을 쾅쾅 두드려서 사람들을 다 깨우고 온 동네를 소란과 수군거림에 빠뜨리는 게 정말 괜찮은 일일까요? 첩을 둔 사내들이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제멋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정부의 집이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굴어도 된단 말입니까?"

"우선 저 궁전이 어디인지부터 찾아보자꾸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고 나면 산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마. 그리고 산초, 잘 보아라. 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커다란 덩어리와 그림자는 분명 둘시네아의 궁전일 것이다."

"그럼 주인님께서 앞장서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손으로 만져봐야만, 지금이 낮인 것을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가 앞장섰다. 그는 이백 걸음쯤 나아간 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던 그 덩어리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 보니 그것은 커다란 탑이었고, 돈키호테는 그 건물이 궁전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 성당이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산초야, 우리가 성당에 도착했구나."

"벌써 보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부디 우리가 무덤을 마주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어야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공동묘지 근처를 돌아다니는 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주인님께 이 귀부인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 하느님께 저주를 받을 놈 같으니!" 돈키호테가 말했다. "왕궁이나 화려한 궁전이 막다른 골목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냐?"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지역마다 관습이 다른 법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곳 엘 토보소에서는 궁전이나 큰 건물들을 막다른 골목에 짓는 게 관습일지도 모르지요. 그러니 부디 제가 눈앞에 보이는 이 길이나 골목들을 좀 뒤져보게 해주십시오. 어느 구석진 곳에서 그 궁전을 마주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 돌리며 지치게 만든 그 궁전, 차라리 개들한테 뜯어 먹히는 꼴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초, 내 귀하신 여주인에 관해 말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평화롭게 끝내고, 두레박을 잃었다고 밧줄까지 내던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꾸나."

"알겠습니다,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주인님, 도대체 무슨 인내심이 있어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여주인의 집을 딱 한 번 봤을 뿐인데, 주인님께서는 수천 번은 보셨을 법한 그 집을 왜 한밤중에 찾아내지 못하고 매번 새로 찾아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산초, 네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이단아 같은 녀석아, 이리 좀 와 봐라. 내가 수천 번도 더 말하지 않았느냐? 내 평생에 비할 데 없이 고귀하신 둘시네아를 직접 뵌 적도 없고, 그분의 궁전 문턱을 넘나든 적도 없다고 말이다. 나는 오직 그분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대한 드높은 명성을 전해 들었을 뿐, 그 소문만으로 사랑에 빠진 것이란 말이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도 그분을 직접 뵌 적이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면…"

"그럴 리가 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적어도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보낸 편지의 답장을 가져왔을 때, 네가 그분께서 밀을 까부르고 계신 모습을 보았다고 말이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가져온 그 모습과 답장도 사실은 남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제가 둘시네아 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나 하늘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거나 매한가지니까요."

"산초,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농담을 해도 될 때가 있고, 농담을 했다가는 큰일 날 때가 있는 법이다. 내가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직접 뵙지도 못했고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까지 그분을 뵙지도 못했고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정반대라는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노새 두 마리를 끌고 그들 곁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보였다. 땅을 긁으며 끌려오는 쟁기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은 저 사람이 동트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러 나선 농부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농부는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그 로만세를 흥얼거리며 오고 있었다.

"프랑스 놈들아, 너희는 참으로 꼴사납게도 당했구나,"

론세스바예스의 그 사건 말이다.

"산초야, 오늘 밤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 그 노랫소리를 들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 촌사람이 부르며 다가오는 노래가 들리지 않느냐?"

"들립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론세스바예스의 그 사건이 우리 목적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 사람이 칼라이노스의 노래를 부르든 말든, 우리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때 농부가 다가왔고, 돈키호테는 그에게 물었다.

"좋은 친구여,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혹시 이 근처에 비할 데 없이 고귀한 공주,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의 궁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겠소?"

"나리," 청년이 대답했다. "저는 외지인이라 이 마을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농부 밑에서 밭일을 돕고 있지요. 저기 맞은편 집에는 이 마을 신부님과 성당지기가 살고 있습니다. 두 분 중 누구에게든, 아니면 둘 중 한 분에게라도 여쭤보시면 그 공주님에 대해 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엘 토보소 주민 명부를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마을 전체에 공주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다만 귀한 집안의 부인들은 많이 사는데, 저마다 자기 집 안에서는 공주라 할 만하지요."

"그렇다면 친구여, 내가 묻고 있는 분도 분명 그중 한 분일 것이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청년이 대답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가십시오, 곧 날이 밝겠군요."

그 청년은 노새를 몰고 가버리느라 더 이상의 질문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주인이 어안이 벙벙해져서 몹시 언짢아하는 모습을 본 산초 판사가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곧 날이 밝아오는데 길 위에서 해를 맞이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근처 숲에 몸을 숨기고 계시면, 제가 낮에 다시 나가서 이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 제 여주인님의 집이나 성, 혹은 궁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끝내 찾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찾게 되면 그분을 만나 뵙고, 주인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명예와 명성에 흠이 가지 않게 주인님이 그분을 뵐 방도와 계획을 일러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하겠습니다."

"산초야, 네가 방금 한 말은 짧은 문장 속에 수천 가지의 격언을 담아낸 것이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해준 조언이 참으로 마음에 드니 기쁘게 받아들이마. 자, 얘야, 어서 가자. 네 말대로 네가 가서 내 귀부인을 찾고, 보고, 대화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내가 숨을 곳을 찾아 가겠다. 나는 그녀의 영민함과 예의 바름이 기적 같은 은총보다 더 큰 도움을 줄 것이라 믿고 있단다."

산초 판사는 주인을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났다. 전에 시에라 모레나에서 둘시네아를 대신한답시고 주인에게 전했던 답변이 거짓이었음을 주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산초는 서둘러 길을 나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마을에서 2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숲을 발견했고, 산초가 둘시네아와 이야기하러 마을로 돌아가는 동안 돈키호테는 그 숲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그 심부름길에서 산초에게 일어난 일들은 새삼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이 믿음을 가져야 할 만한 것이었다.

제10장



제10장. 산초가 둘시네아 여인을 마법에 걸기 위해 부린 꾀와, 그만큼이나 황당하면서도 실화 같은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이 거대한 이야기의 저자가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을 적어 내려가려 할 때, 그는 차마 입을 떼기가 두렵다고 말한다.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광기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랐을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화살 두 발을 더 날려 보낼 정도로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두려움과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자신이 겪은 그대로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야기에 단 한 점의 거짓도 보태거나 빼지 않았으며,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염려하지도 않았다. 저자의 판단은 옳았다. 진실은 가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으며, 물 위에 기름이 뜨듯 언제나 거짓 위를 떠다니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이렇게 말한다. 돈키호테는 위대한 엘 토보소 근처의 숲이나 참나무 숲, 혹은 울창한 수풀 속에 몸을 숨긴 뒤, 산초에게 마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을 대신해 여주인에게 말을 전하기 전에는 자기 앞에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곧 그 여인이 자신의 포로가 된 기사에게 모습을 보여 주는 은혜를 베풀고, 또 기꺼이 축복을 내려 주기를 청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기사가 앞으로 벌일 모든 전투와 험난한 모험에서 그녀 덕분에 더없는 행운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산초는 명령받은 대로 그렇게 하기로, 그리고 지난번에 가져왔던 것만큼 좋은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겠노라 약속했다.

"자, 어서 가거라, 얘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찾아갈 그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의 빛 앞에 서더라도 당황하지 말거라. 세상의 그 어떤 종자보다도 네가 참으로 복이 많구나! 다만 명심하고, 그녀가 너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보낸 사절의 말을 그녀에게 전하는 동안 그녀의 안색이 변하는지, 내 이름을 듣고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동요하는지 잘 살펴라. 혹시 그녀가 위엄을 드러내는 화려한 단에 앉아 있거든, 방석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들썩이는지도 보거라. 만약 그녀가 서 있다면, 한쪽 발에 무게를 실었다가 다시 다른 쪽 발로 옮겨 딛는지도 확인하거라. 내가 일러준 대답을 두세 번이나 되풀이하는지, 말투가 부드러웠다가 갑자기 거칠어지지는 않는지, 혹은 사랑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차가워지지는 않는지 말이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지지 않았는데도 손을 들어 머리를 매만지지는 않는지도 보거라. 요컨대 얘야, 그녀의 모든 몸짓과 움직임을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 네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게 전해준다면, 내 사랑의 결말에 대해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산초야, 네가 혹 모르고 있을까 하여 말해두는데, 연인들 사이에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움직임이야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해주는 가장 확실한 전령이란다. 자, 이제 가거라, 친구야. 나보다 더 큰 행운을 만나길 바란다. 그리고 나를 이 쓰라린 고독 속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내가 두려움과 기대를 품고 기다리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너라."

"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 그러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지금 주인님의 마음은 아마 개암나무 열매보다도 작아져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착한 마음씨가 나쁜 운명을 꺾는다'는 말도 있고, '비계가 없으면 꼬챙이도 필요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토끼가 튀어나온다'는 말도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우리 여

인님의 궁전이나 성채를 찾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밝은 낮에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말이지요. 일단 찾게 되면, 그 뒤에는 저에게 그녀를 맡겨 주십시오."

"그나저나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하는 속담들은 매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너무도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져서 신께서 내게 더 큰 행운을 내려주신다면 참 좋겠구나."

말을 마친 산초는 뒤를 돌아 회색 나귀를 몰아 길을 떠났다. 돈키호테는 말에 올라탄 채 등자대에 발을 얹고 창에 몸을 기댄 채 쉬었다. 그는 슬프고도 혼란스러운 상상에 빠져 있었는데, 일단 그를 그 상태로 두고 산초 판사를 따라가 보자. 산초 역시 주인 못지않게 혼란스럽고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멀어져 갔다. 산초는 숲을 벗어나자마자 고개를 돌려 돈키호테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나귀에서 내려 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말해보게, 형제 산초여. 자네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혹시 잃어버린 나귀라도 찾으러 가는 건가?"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찾으러 가는 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드리자면, 공주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분은 아름다움의 태양이며, 하늘 그 자체이신 분이지요."

"그렇다면 산초, 자네가 말한 그분을 어디서 찾을 생각인가?"

"어디긴요? 위대한 도시 엘 토보소에서 찾을 겁니다."

"좋네. 그럼 누구의 심부름으로 찾아가는 건가?"

"부정을 바로잡고, 목마른 자에게는 먹을 것을, 배고픈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는 저 유명한 기사 돈키호테 데 라 만차 님의 심부름입니다."

"그거 참 훌륭하군. 그런데 산초, 그분의 집이 어디인지 아는가?"

"주인님 말씀으로는 분명 왕궁 같은 궁전이나 아주 당당한 성채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집을 본 적이 있는가?"

"저도, 주인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게. 만약 엘 토보소 사람들이 자네가 여기 와서 공주님을 꼬셔내고 귀부인들을 괴롭히려 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보나? 아마 사람들이 달려와서 자네 갈비뼈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뼈 하나 멀쩡히 남지 않게 만들 텐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나?"

"정말로 그럴 만도 합니다. 제가 심부름꾼이라는 사실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친구여,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명령을 받았을 뿐이니까요."

"그걸 믿지 말게, 산초. 라만차 사람들은 정직한 만큼이나 성미가 급해서, 누구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신께 맹세코, 만약 그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자네에게 불운이 닥칠 걸세."

"아이고, 빌어먹을! 에잇, 재수 없으려니까! 아니, 남의 기분 맞춰주겠다고 내가 왜 괜한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엘 토보소에서 둘시네아를 찾는 건, 라베나에서 마리카를 찾는 것만큼이나, 혹은 살라망카에서 학사님을 찾는 것만큼이나 허망한 일이라고! 젠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악마가 나를 이 꼴로 만들었구나!"

산초는 이렇게 혼잣말을 늘어놓았는데, 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곤 다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뭐, 죽음만 아니라면 모든 일에는 해결 방법이 있는 법이지. 죽음이야 우리 모두가 인생의 끝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지만 말이야. 내 주인님은 천 번 만 번을 봐도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사실 나도 주인님한테 뒤처질 게 없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거나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울려 지내는 곳이 사람을 만든다'는 속담이 사실이라면, 주인님을 따라다니며 수발을 드는 나야말로 주인님보다 더 얼간이니까. 주인님은 정신이 나간 게 확실해. 워낙 매번 사물을 착각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판단하시니 말이야. 풍차를 거인이라 부르고, 신부님의 나귀를 낙타라고 하며, 양 떼를 적군이라 부르던 걸 생각하면 말이지. 그런 식이라면 여기서 처음 마주치는 농가 처녀를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고 믿게 만드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거야. 주인님이 믿지 않으려 들면 내가 맹세하

면 되고, 주인님이 맹세하면 내가 다시 맹세하면 되지. 주인님이 고집을 피우면 나는 더 세게 고집을 피울 거야. 무슨 일이 생기든 내 주장은 끝까지 밀고 나갈 테니까. 아마 이렇게 끝까지 우기다 보면, 내가 이런 심부름을 해와 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안 시키게 될지도 몰라. 아니면 내 예상대로, 주인님이 말하는 그 못된 마법사가 주인님을 괴롭히려고 여인의 모습을 바꿔놓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자 산초 판사는 마음이 놓였다. 그는 이 정도면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가 자신이 엘 토보소를 왕복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고 믿게 하려고, 그곳에 머물며 오후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일이 아주 잘 풀린 덕분에, 산초가 나귀에 올라타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엘 토보소 쪽에서 농가 처녀 세 명이 새끼 나귀 세 마리를 타고 오는 것이 보였다. 저자가 새끼 나귀의 성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시골 여인들이 흔히 타는 것을 생각하면 암나귀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초는 그 처녀들을 보자마자 서둘러 주인 돈키호테를 찾아갔다. 그때 돈키호테는 한숨을 내쉬며 온갖 애절한 탄식을 늘어놓고 있었다. 산초를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여어, 산초 친구! 오늘은 흰 돌로 표시해 둘 만한 날이더냐, 아니면 검은 돌로 표시할 날이더냐?"

"차라리 붉은 흙칠을 해서 표시해 두는 게 낫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강단에 붙은 안내문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인님을 아주 똑똑히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주 좋은 소식이로다."

"그렇게나 좋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그저 로시난테를 몰아 평지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인께서 다른 시녀 두 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뵈러 오실 테니까요."

"세상에나! 산초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거짓된 기쁨으로 나의 참된 슬픔을 달래려 하지 말란 말이다."

"제가 주인님을 속여서 얻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게다가 이제 곧 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실 텐데요. 주인님, 어서 로시난테를 몰아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여주인이신 공주님께서 예복을 갖춰 입고 화려하게 꾸민 채, 그야말로 공주님다운 모습으로 오시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공주님과 시녀들은 모두 황금빛 불꽃처럼 빛나고, 진주를 엮어 만든 옥수수 같으며, 다이아몬드와 루비 그 자체입니다. 입으신 옷은 높이가 열 자가 넘는 화려한 비단 옷이고요.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바람과 함께 노니는 햇살 같지요. 무엇보다도, 그분들은 기워 만든 누더기 말 세 마리에 올라타고 오실 텐데, 그 모습이 정말 볼만할 겁니다."

"하카네아라고 해야지,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누더기나 하카네아나 그게 그거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떤 말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귀부인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특히 제 여주인이신 공주님, 둘시네아 님은 보는 이의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아름다우십니다."

"자, 가거라,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뜻밖의 기쁜 소식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처음 맞닥뜨릴 모험에서 얻을 가장 값진 전리품을 너에게 주마. 만약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올해 우리 마을 의회 초원에서 새끼를 낳을 내 암말 세 마리가 낳을 망아지들도 너에게 주겠다."

"망아지들을 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첫 번째 모험에서 얻을 전리품이 정말 좋을지는 확실치 않으니까요."

그때 마침 숲을 빠져나온 그들은 근처에 있는 마을 여인 세 명을 발견했다. 돈키호테는 엘 토보소로 이어지는 길목을 샅샅이 훑어보았으나, 농사짓는 여인 세 명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혹시 여인들을 마을 밖에 두고 온 것이냐고 물었다.

"마을 밖에 두다니요?" 산초가 대답했다. "혹시 주인님 눈이 뒤통수에라도 박혀 있는 겁니까? 저기 정오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며 오고 있는 저 여인들이 바로 그분들이라는 게 안 보이십니까?"

"산초야, 내 눈에는 당나귀 세 마리를 타고 가는 농사짓는 여인 세 명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맙소사, 신께서 저를 악마로부터 구해주시길!" 산초가 대답했다. "눈처럼 새하얀 저 하카네아 세 마리가, 아니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주인님 눈에는 당나귀로 보인단 말씀입니까? 주님을 걸고 맹세하건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 수염을 다 뽑아버려도 좋습니다!"

"산초야, 내 말 잘 들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들이 당나귀를 타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돈키호테이고 네가 산초 판사인 것만큼이나 명백한 진실이다. 적어도 내 눈에는 분명히 그렇게 보인다."

"그만하십시오, 주인님." 산초가 말했다. "그런 말씀은 꺼내지도 마세요. 대신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십시오. 주인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귀부인께서 곧 저기 나타나실 테니, 어서 가서 정중히 인사를 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산초는 세 명의 마을 여인을 맞이하러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 세 농부 여인 중 한 명이 타고 있던 암나귀의 고삐를 붙잡고는, 땅에 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름다움의 여왕이자 공주, 그리고 공작부인이시여! 당신의 고결함과 위대함으로, 당신의 장엄한 모습 앞에 서서 혼이 나가고 맥이 풀린 채 대리석상처럼 굳어버린 이 포로 기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저는 그의 종자 산초 판사이며, 이분은 라만차의 기사, 다른 이름으로는 슬픈 형상의 기사라 불리는 돈키호테 님입니다."

그때 돈키호테는 산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산초가 여왕이자 주인이라 칭송한 여인을 넋이 나간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에

게서 보이는 것이라곤 그저 얼굴이 둥글고 납작하게 생긴, 그리 잘생기지도 않은 시골 처녀뿐이었기에, 돈키호테는 입조차 떼지 못한 채 망연자실하여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다. 농부 여인들도 이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졌다. 전혀 다르게 생긴 두 남자가 무릎을 꿇고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동료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침묵을 깨뜨리며 한 여인이 말했다.

"길에서 좀 비키세요, 어서! 우리는 급히 가야 하니 길 좀 비켜주시라고요!"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오, 엘 토보소의 공주님이시며 온 세상의 여주인이시여! 기사도의 기둥이자 버팀목인 이 자가 당신의 숭고한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시고도, 어찌 그 너그러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나머지 한 사람이 말했다.

"에구, 내 팔자야! 우리 시아버지가 키우는 저 멍청한 암나귀 같으니라고! 보라고, 요즘 도련님들이란 사람들은 시골 처녀들을 놀려먹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다니까! 우리라고 저들처럼 빈정거릴 줄 모르는 줄 아나? 에잉, 그냥 갈 길들 가시라지. 우리는 우리 할 일이나 하자고. 그래야 속이 편하지."

"일어나게, 산초."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운명의 여신이 내 불행을 채우고도 모자라, 이 비천한 육신을 가진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길을 죄다 막아버린 모양이군. 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용기의 정점이자 고결함의 극치이며, 그대를 숭배하는 이 고통받는 마음의 유일한 구원자여! 사악한 마법사가 나를 쫓아다니며 내 눈앞에 구름과 백태를 드리워 놓았네. 그자가 오직 내 눈에만,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게, 그대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얼굴을 가난한 농가 처녀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말일세. 혹여 내 모습조차 그대의 눈에 혐오스럽게 보이도록 어떤 괴물의 형상으로 변해버렸을지라도, 부디 나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 주게나. 내가 그대의 일그러진 아름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모습에서, 내 영혼이 그대를 얼마나 겸허히 숭배하고 있는지 헤아려 주게나."

"아이구, 내 팔자야!" 시골 처녀가 대답했다. "나는 그런 소리 듣는 건 질색이니까요! 다들 비켜요, 우리 좀 가게 내버려 두라고요. 그래야 고맙지 않겠어요?"

산초는 그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뻐하며, 그녀를 보내주었다.

둘시네아 여인인 척 연기하던 시골 처녀는 풀려나자마자, 막대기 끝에 달린 뾰족한 침으로 암나귀를 쿡쿡 찔러 초원 앞쪽으로 달려가게 했다. 암나귀는 평소보다 훨씬 따가운 침 끝을 느끼자 몸을 뒤틀며 날뛰었고, 그 바람에 '둘시네아 여인'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본 돈키호테는 얼른 달려가 여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고, 산초는 암나귀 배 쪽으로 흘러내린 안장을 바로잡고 끈을 조이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안장을 겨우 고쳐 매자, 돈키호테는 마법에 걸린 자신의 귀한 여인을 품에 안아 나귀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땅에서 일어난

여인이 그 수고를 덜어주었다. 여인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가 가볍게 달려오더니, 두 손으로 암나귀의 엉덩이를 짚고는 매보다도 가볍게 몸을 날려 안장 위에 올라탔고, 마치 남자처럼 두 다리를 벌리고 걸터앉았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맹세코, 우리 마님은 새매보다도 날렵하셔서, 코르도바나 멕시코에서 제일가는 기수라도 마님께 히네타식 승마법을 배워야 할 판입니다! 안장 뒷가지를 단번에 훌쩍 뛰어넘으시더니, 박차도 없이 암말을 얼룩말처럼 내달리게 하시는군요. 게다가 저 시녀들도 뒤지지 않으니, 다들 바람처럼 달리는걸요!"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다. 둘시네아 여인이 말에 올라타자마자 시녀들도 모두 그녀를 뒤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반 리가 넘는 거리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돈키호테는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그러다 시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산초를 돌아보며 말했다.

"산초야, 마법사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느껴지느냐? 그들의 악의와 나를 향한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아라. 내 귀한 여인을 본모습으로 뵙고 얻을 수 있는 기쁨마저 나에게서 빼앗으려 하지 않느냐. 참으로 나는 불운한 자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 또 불행의 화살이 겨누어 날아와 꽂히는 표적이자 과녁이 되기 위해 태어난 모양이다. 그리고 산초야, 너도 잘 새겨두어라. 저 배신자들은 내 둘시네아를 변신시킨 것만으로는 모자랐는지, 저 시골 처녀처럼 비천하고 못생긴 모습으로 둔갑시켜 놓았구나. 게다가 늘 향료와 꽃들 사이를 거니는 고귀한

부인들의 고유한 특징인 향기마저 앗아가 버렸다. 산초야, 분명히 말해두마. 네가 작은 말이라고 하지만 내게는 암나귀로만 보였던 그 짐승에 둘시네아를 태우려 했을 때, 생마늘 냄새가 진동해 내 영혼이 다 어지럽고 괴로울 지경이었다."

"이런, 나쁜 놈들!" 이때 산초가 소리쳤다. "불길하고 악의에 찬 마법사 놈들아! 너희 모두가 아가미를 꿰여 줄줄이 엮인 정어리 신세가 되어버렸으면 좋겠구나! 너희는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출중하고, 하는 짓도 참으로 대단하구나. 이 고약한 놈들아, 차라리 내 여인의 눈에 박힌 진주를 코르크나무 혹으로 바꾸고, 순금 같은 머리카락을 붉은 황소의 꼬리털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그 고운 이목구비까지 전부 못생기게 바꿔 놓는 것으로 만족했어야지, 굳이 향기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 향기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그 못생긴 껍데기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냈을 것 아니냐.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분의 못생긴 모습은 본 적이 없고 오직 아름다운 모습만 보았다. 특히 오른쪽 입술 위에 콧수염처럼 자리 잡은 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위로 금실처럼 가늘고 한 뼘 넘게 긴 금발 일곱여덟 가닥이 돋아 있어 그분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었단 말이다."

"그 점으로 말하자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얼굴의 점과 몸의 점은 서로 짝을 이루는 법이니, 둘시네아는 얼굴에 점이 있는 쪽과 같은 편 허벅지의 판판한 자리에도 분명 또 다른 점이 하나 있을 게다. 다만 네가 말한 그런 크기의 털이라면 점에 난 털치고는 지나치게 길구나."

"그 머리카락은 마치 그 점 위에서 돋아난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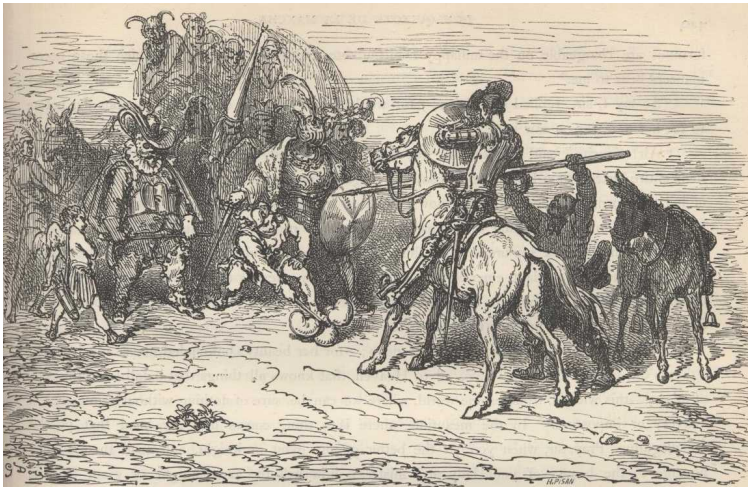
"나도 그렇게 믿는다, 친구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연이 둘시네아를 빚을 때,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 네 말대로 그녀에게 점이 백 개나 있다 한들,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라 찬란하게 빛나는 달과 별이 될 게다. 그런데 산초야, 네가 꾸며준 저 물건 말이다. 내 눈에는 안장처럼 보였는데, 그게 평평한 안장이었느냐, 아니면 등받이가 있는 안장이었느냐?"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건 히네타식 안장이었고, 들판용 덮개는 어찌나 호화로운지 나라의 절반 값은 나갈 정도였습니다."

"산초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다니!"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다시 한번 말하노니, 아니 천 번이라도 말하겠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주인이 늘어놓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으며, 능청스러운 산초는 웃음을 참느라 무척 애를 먹어야 했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더 나눈 끝에, 마침내 다시 말에 올라타 사라고사로 향했다. 그들은 그 유명한 도시에서 매년 열리는 성대한 축제에 맞춰 도착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닿기도 전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기록하고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할 만큼 크고 놀랍고도 새로운 사건들이 그들에게 연이어 일어났다.

제11장



제11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죽음의 법정' 수레와 마주하며 겪게 된 기이한 모험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마법사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랄한 장난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길을 나아갔다. 마법사들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를 추한 시골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그녀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이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정신이 팔려 자신도 모르게 로시난테의 고삐를 놓아버렸다. 고삐가 풀린 로시난테는 자유를 느꼈는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풀밭이 무성한 들판에 멈춰 서서 푸른 풀을 뜯어 먹었다. 산초 판사가 그를 불러 깨우며 말했다.

"주인님, 슬픔이란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슬픔에 너무 깊이 빠지면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시고 제발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어서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고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방랑 기사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그 용맹함을 보여달란 말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 계신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프랑스에 와 있는 겁니까? 세상에 둘시네아가 아무리 많다 한들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리라고 하십시오. 방랑 기사 한 명의 건강이 세상의 그 어떤 마법이나 변신보다 훨씬 더 소중한 법이니까요."

"입 다물게, 산초." 돈키호테가 그리 기운 없는 목소리가 아닌 어조로 대답했다. "입 다물라고 했네. 그리고 마법에 걸린 나의 귀한 여인을 두고 그런 망령된 말을 내뱉지 말게. 그녀가 이런 불행과 재난을 겪게 된 것은 오로지 내 잘못이라네. 악한 자들이 나를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질투 때문에 그녀의 처지가 이토록 나빠진 것이라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예전의 그분을 보았다가 지금의 그분을 보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네 말이 맞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네는 그녀의 아름다움이 온전하고 완벽했던 모습을 보았으니 말일세. 마법이 자네의 눈을 흐리거나 그녀의 미모를 가리지는 않았으니까. 그 독한 마법은 오로지 나만을, 그리고 나의 눈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네. 하지만 산초, 그렇다고 해도 내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네. 자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잘못 묘사했다는 점일세. 내 기억이 맞다면, 자네는 그녀의 눈이 진주 같다고 말하지 않았나? 하지만 진주처럼 보이는 눈은 귀부인의 눈이 아니라 보통 생선 눈인 법이라네. 내가 생각하기에 둘시네아의 눈은 초록빛 에메랄드 같아야 하며, 눈매는 길쭉하고 그 위에는 눈썹 역할을 하는 천상의 아치 두 줄기가 자리해야 하네. 그러니 눈에 진주 운운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이빨에나 갖다 붙이게나. 산초, 자네가 분명 눈을 이빨로 착각해서 말한 게 틀림없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그녀의 추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신 것처럼, 저 역시 그녀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 눈물의 골짜기 같은 세상, 악의와 거짓과 비열함이 섞이지 않은 것이라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법이니까요. 다만 주인님, 다른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거인이나 다른 기사를 물리치신 뒤 그자에게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의 아름다운 모

습 앞에 나아가 인사를 올리라고 명령하시면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패배한 가련한 거인이나 불쌍하고 비참한 기사가 그녀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자들이 얼이 빠진 멍청이 꼴로 제 주인이신 둘시네아 님을 찾아 엘 토보소 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설령 길 한복판에서 그녀를 마주친다 해도, 제 아버지를 못 알아보듯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마법이 패배하여 굴복한 거인이나 기사들에게서 둘시네아를 알아보는 지각마저 앗아가지는 않을 테니까 말일세. 내가 처음으로 물리친 거인이나 기사 한둘에게 그녀를 보러 가라고 명령한 뒤, 그들에게서 이 일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보고하라고 시키면, 그들이 그녀를 알아보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지요. 만약 그녀가 오직 주인님께만 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면, 그 불행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것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께서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대로 우리 갈 길을 가며 할 수 있는 한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모험을 찾아 나서면서, 나머지는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요. 세월이야말로 이런 병이나 그보다 더 큰 병을 고치는 데 가장 뛰어난 의사 아니겠습니까."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에게 대답하려 했으나, 길을 가로질러 나타난 수레 한 대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수레에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기괴하고 이상한 인물과 형상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노새를 몰며 마부 노릇을 하는 자는 흉측한 악마처럼 보였다. 수레는 차양이나 덮개도 없이 하늘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채로 오고 있었다. 돈키호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형상은 사람의 얼굴을 한 죽음 그 자체였다. 그 곁에는 커다랗고 색칠된 날개를 단 천사가 있었고, 한쪽에는 머리에 금으로 만든 듯한 왕관을 쓴 황제가 서 있었다. 죽음의 발치에는 큐피드라 불리는 신이 있었는데, 눈을 가리지 않은 채 활과 화살통, 그리고 화살을 들고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기사도 한 명 보였는데, 투구나 얼굴 가리개 대신 알록달록한 깃털이 가득 달린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깃털들 사이로 저마다 다른 옷차림과 얼굴을 한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갑작스럽게 마주하자 돈키호테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고, 산초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곧 돈키호테는 새로운 위험한 모험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믿으며 기뻐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품고 어떤 위험도 맞설 준비를 마친 채 수레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러고는 위협적인 큰 목소리로 외쳤다.

"마부든, 운전수든, 악마든, 네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어서 말해라!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레에 실린 자들이 누구인지 당장 밝혀라! 그 수레는 평범한 수레라기보다 차라리 카론의 배처럼 보이는구나!"

그러자 악마처럼 보이는 마부가 수레를 온순하게 멈춰 세우고는 대답했다.

"나으리, 저희는 앙굴로 엘 말로 극단의 배우들입니다. 오늘 아침, 성체 축일 여드레째를 맞아 저 언덕 너머 마을에서 '죽음의 법정'이라는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저기 멀리 보이는 곳에서 다시 공연을 할 예정이지요. 공연 장소가 워낙 가까워서 옷을 갈아입는 수고를 덜려고, 아예 연극 의상을 입은 채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저 청년은 '죽음' 역이고, 다른 청년은 '천사' 역입니다. 저 여인은 극단장의 부인인데 '여왕' 역을 맡았고, 저쪽은 '군인', 저쪽은 '황제' 역입니다. 저는 '악마' 역을 맡았는데, 이 극단에서 주연급 배우라 아주 중요한 역할이지요. 저희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주 상세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악마 아니겠습니까, 악마라면 모르는 게 없는 법이지요."

"방랑 기사의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수레를 보자마자 내 앞에 거대한 모험이 펼쳐지는 줄 알았노라. 하지만 이제 보니, 환상에서 깨어나 진실을 마주하려면 직접 손으로 그 실체를 확인해 보아야만 했구나. 선량한 사람들이여, 부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가서 공연을 잘 마치도록 하시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꼭 말해주시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돕겠소. 내가 어릴 적부터 연극 구경을 참 좋아했거든. 젊었을 적에는 눈만 뜨면 연극판을 찾아다니곤 했으니 말이오."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 운명의 장난인지 극단 일행 중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방울이 잔뜩 달린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막대기 끝에는 부풀린 소 방광 세 개를 매달고 있었다. 이 청년은 돈키호테에게 다가오더니 막대기를 휘두르며 소 방광으로 땅을 두드리고, 방울 소리를

내며 힘차게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기괴한 광경에 놀란 로시난테가 날뛰기 시작했다. 돈키호테가 고삐를 이빨로 물어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로시난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쾌한 몸놀림으로 들판을 가로질러 질주해 버렸다. 산초 판사는 주인이 말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뛰어내려 달려갔다. 하지만 산초가 도착했을 때, 돈키호테는 이미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로시난테 역시 주인과 함께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로시난테의 그 기세등등한 혈기와 무모한 행동이 늘 맞이하는 결말이 바로 이러했다.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를 도우러 달려가느라 나귀를 버려두기가 무섭게, 소 방광을 든 그 춤추는 악마가 나귀 위로 뛰어올랐다. 악마가 방광으로 나귀를 두들겨대자, 나귀는 매질의 아픔보다 그 소음과 공포 때문에 공연이 열릴 곳을 향해 들판 저편으로 내달렸다. 산초는 달아나는 나귀와 쓰러진 주인을 번갈아 바라보며, 당장 어느 쪽을 먼저 챙겨야 할지 몰라 어쩔 줄을 몰랐다. 하지만 충직한 종자이자 하인답게, 그는 나귀에 대한 애정보다 주인에 대한 사랑을 우선시했다. 비록 공중에 치솟은 소 방광이 나귀의 엉덩이를 내리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괴로움에 시달렸고, 차라리 그 매를 제 나귀 꼬리털 하나에 맞느니 자기 눈동자에 맞는 게 낫겠다고 여길 정도였지만 말이다. 산초는 이런 혼란스러운 괴로움 속에서 돈키호테에게 다다랐는데, 돈키호테는 그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으로 다쳐 있었다. 산초는 그를 도와 로시난테 위에 다시 태우며 말했다.

"주인님, 악마가 나귀를 채갔습니다!"

"악마라니, 대체 무슨 악마를 말하는 것이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방광을 든 악마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설령 그놈이 지옥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숨어버린다 해도 말이다. 산초, 나를 따르거라. 수레가 천천히 가고 있으니, 저 수레를 끄는 노새들로 잃어버린 네 나귀를 메꾸면 될 것이다."

"주인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화 좀 가라앉히십시오. 제가 보기엔 악마가 이미 나귀를 놓아주고 제 발로 돌아오려는 모양이니까요."

실제로 그러했다. 돈키호테와 로시난테를 흉내 내고 싶었던 악마가 나귀와 함께 나뒹굴고 나자, 악마는 걸어서 마을로 가버렸고 나귀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악마가 무례하게 굴었으니, 저 수레에 탄 자들 중 하나에게 반드시 벌을 내려야겠다. 설령 그자가 황제 본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제발 그런 망상 좀 버리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제 충고를 들으세요. 광대들은 다들 봐주는 사람이 많으니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저는 배우가 살인을 두 건이나 저질러 감옥에 갇혔다가도 비용 한 푼 안 물고 멀쩡히 풀려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저런 사람들은 즐거움을 주는 이들이라 다들 예뻐하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아껴줍

니다. 특히 저렇게 번듯한 왕립 극단 소속이라 옷차림이며 맵시가 왕자님처럼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 해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온 인류가 저 광대 악마를 두둔한다 한들, 저놈이 의기양양하게 으스대며 빠져나가도록 두지는 않겠다."

그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마을에 거의 다다라 있는 수레 쪽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멈춰라, 기다려라! 즐겁게 떠들어대는 무리들아! 방랑 기사의 종자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와 짐승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

돈키호테가 워낙 큰 소리로 외쳐댄 덕분에 수레에 탄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상대의 의도를 짐작한 이들은 즉시 수레에서 튀어나왔다. 죽음이 먼저 뛰어내렸고, 뒤이어 황제와 마부 악마, 천사가 나타났다. 여왕과 큐피드 신도 빠짐없이 뒤따랐다. 그들은 모두 돌멩이를 한 움큼씩 집어 들고는, 돈키호테를 향해 돌을 날릴 준비를 하며 대열을 갖췄다. 돈키호테는 그들이 위풍당당하게 대열을 갖추고는, 돌을 힘껏 던지려는 듯 양팔을 치켜든 모습을 보았다. 그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아 멈춰 세우고는,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위험을 덜 끼치면서 저들에게 맞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돈키호테가 멈춰 서 있는 사이 산초가 다가왔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저 잘 짜인 대열을 향해 돌격하려는 기세인 것을 보고 말했다.

"그런 무모한 짓을 벌이려 하시다니, 정말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인님, 잘 생각하십시오. 빗발치는 돌팔매를 막아내려면 청동 종 안에 들어가 몸을 숨기는 것 말고는 세상에 방어할 무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죽음이 버티고 있고, 황제들이 직접 싸우며,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까지 모두 돕고 있는 저 군대에 혼자 덤벼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으로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시겠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저기 있는 자들이 아무리 왕이나 왕자, 황제처럼 보여도, 그중에 방랑 기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야 그렇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네 말이 맞다. 네 덕분에 내가 이미 결심한 계획을 바꿀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이, 기사 작위를 받지 않은 자를 상대로는 검을 뽑아서도 안 되고 뽑을 수도 없는 법이다. 산초야, 네 당나귀가 입은 수모를 네 손으로 직접 갚고 싶다면 네가 나서거라. 나는 여기서 너를 향해 힘찬 목소리로 응원하고 주의를 주며 도와주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누구에게도 복수할 까닭이 없습니다. 받은 모욕을 그대로 갚는 건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니까요. 더구나 제 당나귀로 말하자면, 제가 그 녀석을 잘 타일러서 당한 모욕일랑 제 뜻에 맡기도록 할 참입니다. 제 뜻이란 하늘이 제게 허락하신 날 동안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요."

"그래, 그것이 네 결심이라면 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착하고, 분별력 있고, 신앙심 깊고, 진실한 산초야. 이 허망한 환영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더 훌륭하고 격조 높은 모험을 찾아 떠나자꾸나.

내가 보기에 이 땅은 그런 곳이라, 수많은 기적 같은 모험이 끊이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돈키호테는 다시 고삐를 돌려 길을 잡았고, 산초는 자신의 당나귀를 데리러 갔다. 죽음과 그를 따르는 비행 부대는 다시 수레에 올라 여행을 계속했다. 산초 판사가 주인에게 건넨 현명한 조언 덕분에, 죽음의 수레가 불러온 이 무시무시한 모험은 이렇게 다행스럽게 끝이 났다. 하지만 다음 날, 돈키호테에게는 사랑에 빠진 어느 편력기사 때문에 지난번 못지않게 가슴 졸이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제12장



제12장. 용맹한 돈키호테가 거침없는 거울 기사와 마주하며 겪게 된 기이한 모험에 대하여

죽음과 마주쳤던 그날 밤을,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는 키 큰 나무들이 드리운 짙은 그늘 아래에서 보냈다. 산초의 권유로 돈키호테는 당나귀의 짐 꾸러미에 들어 있던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했다. 식사를 하던 중 산초가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주인님, 만약 제가 세 마리 암말이 낳은 새끼들을 기다리기보다 주인님이 처음으로 치르실 모험의 전리품을 먼저 챙기려 했다면, 저는 정말 바보였을 겁니다! 정말이지, 정말이지, 날아다니는 독수리보다는 손안에 있는 참새 한 마리가 훨씬 나은 법이니까요."

"아직 멀었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 네가 나를 내버려 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험을 떠나게만 해줬더라면, 내가 황후의 금관과 큐피드의 화려한 날개를 몽땅 뺏어서 네 손에 쥐여주었을 테니, 적어도 그것만큼은 네 전리품이 되었을 게다."

"가짜 황제들이 들고 다니는 홀이나 왕관은 순금이었던 적이 없지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건 다 번쩍거리기만 하는 가짜 금이거나 양철 조각일 뿐입니다."

"그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연극에 쓰이는 의상이 진짜라면 오히려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연극 그 자체가 그러하듯, 의상 또한 가짜이고 겉치레일 뿐이어야 한다. 산초, 네가 이 연극의 묘미를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연극을 꾸미는 사람들과 연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 모두는 사회에 큰 선을 행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발걸음마다 거울을 놓아 인간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연극과 배우만큼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비유는 세상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말해보아라. 왕이나 황제, 교황이나 기사, 귀부인 등 온갖 인물이 등장하는 연극을 본 적이 없느냐? 어떤 이는 악당을 연기하고, 어떤 이는 사기꾼을, 또 어떤 이는 상인이나 군인을 맡는다.

또 다른 이는 어리석은 현자를, 또 다른 이는 순진한 사랑꾼을 연기하기도 하지. 하지만 연극이 끝나고 옷을 벗고 나면, 연기하던 이들은 모두 똑같은 처지가 되지 않느냐?"

"본 적이 있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연극도 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어떤 이는 황제가 되고, 어떤 이는 교황이 되며, 결국 연극에 등장할 수 있는 온갖 인물이 다 나타나지 않느냐? 하지만 삶이 끝나는 순간, 즉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은 사람들을 구분 짓던 모든 옷을 벗겨버린다. 그리하여 무덤 속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멋진 비유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아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군요. 체스 게임에 비유하는 말 말입니다. 체스를 두는 동안에는 기물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게임이 끝나면 모든 기물이 한데 뒤섞이고 섞여서 주머니 속에 담기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서 삶이 끝나는 것도 그와 같지요."

"산초야, 날이 갈수록 네가 덜 어리석어지고 점점 더 영리해지는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고말고요. 주인님의 영리함이 저에게도 조금씩 옮겨붙고 있는 모양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본래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라도 거름을 주고 잘 일구면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지 않습니까? 제 말은, 주인님과 나누는 대화가 제 메마른 재치라는 척박한 땅에 뿌려진 거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인님을 모시며 대화를 나눈 시간은 그 땅을 일

구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니 저도 이제는 축복받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인님께서 메마른 제 지각을 잘 다스려 주신 덕분에, 제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나 길을 잃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늘어놓은 짐짓 꾸민 듯한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산초가 자신의 발전에 대해 한 말은 사실인 듯 보였다. 산초가 가끔씩 놀라울 정도로 번듯하게 말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산초는 학자처럼 격식을 차려 논하거나 궁정식으로 우아하게 말하려고 애쓸 때마다, 결국에는 어리석음의 산에서 무지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지듯 말을 망치곤 했다. 하지만 산초가 가장 품격 있고 기억력이 좋아 보일 때는 바로 속담을 인용할 때였다. 그 속담이 다루던 화제에 들어맞든 맞지 않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 이야기를 읽어 내려오면서 누구나 이미 보고 눈치챘겠지만 말이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밤의 태반이 흘러갔다. 잠이 오고 싶을 때마다 산초가 말하곤 하던 표현을 빌리자면, 산초의 눈꺼풀에도 눈꺼풀의 수문이 열리려 했다. 산초는 당나귀의 굴레를 풀어주고 풀을 넉넉히 먹였다. 다만 로시난테의 안장은 벗기지 않았는데, 이는 야영 중이거나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잠을 잘 때는 로시난테의 안장을 벗기지 말라는 주인님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편력기사들 사이에서는 굴레를 벗겨 안장 앞가지에 매달아 두는 것이 예부터 정해져 지켜져 온 관습이었다. 하지만 말의 안장을 아예 벗겨버리는 것은, 천만의 말씀! 산초는 그 관습대로, 당나귀에게 해준 것처럼 로시난테에게도 똑같이 자유를 주었다. 당나귀와 로시난테 사이의 우정은 너무나 특별하고 돈독

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 진실한 이야기의 저자가 이들의 우정을 다룬 장을 따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였다. 다만 이 영웅적인 이야기에 걸맞은 품위와 예의를 지키기 위해 저자는 그 내용을 책에 싣지 않았다. 사실 저자가 가끔 이런 원칙을 어기고 글을 쓸 때가 있기는 하다. 저자는 두 짐승이 서로 모여들어 서로의 몸을 긁어주기도 하고, 배불리 먹고 지친 뒤에는 로시난테가 당나귀의 목 위로 제 목을 얹기도 한다고 썼다. 이때 로시난테의 목은 당나귀의 목 너머로 반 자 넘게 삐져나왔다. 두 짐승은 땅바닥을 유심히 내려다보며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붙어 있곤 했다. 적어도 누군가 방해하지 않거나, 배고픔 때문에 먹이를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말이다.

저자가 이들의 우정을 니소와 에우리알로, 그리고 필라데스와 오레스테스의 우정에 비견하여 기록해 두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평화로운 두 짐승의 우정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온 세상이 경탄하게 될 것이며, 서로 우정을 지키는 데 서툰 인간들에게는 큰 망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 내려온다.

친구를 위한 친구는 없다.

갈대는 창이 된다.

그리고 다른 이가 노래를 불렀다.

친구 사이에는 빈대도 친구라네, 등.

저자가 이 동물들의 우정을 인간의 우정에 비유했다고 해서, 혹여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기를 바란다. 인간은 짐승으로부

터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다음과 같이 중요한 사실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황새에게서는 관장하는 법을, 개에게서는 토하는 습성과 은혜를 아는 마음을, 두루미에게서는 경계심을, 개미에게서는 앞날을 대비하는 지혜를, 코끼리에게서는 정숙함을, 그리고 말에게서는 충성심을 배웠다.

결국 산초 판사는 코르크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고, 돈키호테는 튼튼한 참나무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에 돈키호테는 잠에서 깨고 말았다.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 그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살피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말에 탄 두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친구, 말에서 내려서 말 고삐 좀 풀어주게나. 내가 보기엔 이 근처에 말들이 먹을 풀이 아주 풍성한 것 같군. 내 사랑스러운 생각들이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이곳의 고요함과 적막함이 내게는 꼭 필요하다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곧장 바닥에 몸을 뉘었다. 그가 쓰러지듯 눕는 바람에 몸에 차고 있던 무기들이 요란한 소리를 냈는데, 돈키호테는 그 소리를 듣고 상대가 분명 기사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돈키호테는 잠들어 있던 산초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돈키호테는 꽤 애를 쓴 끝에 산초를 깨우는 데 성공했고,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산초 형제, 우리에게 모험이 찾아왔네."

"부디 좋은 모험이길 빌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주인님, 그 모험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냐니,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보게나. 저기 한 편력기사가 쓰러져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 내 짐작건대 기사의 기분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네. 방금 전 기사가 말에서 떨어져 분한 기색을 내비치며 바닥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았는데, 떨어질 때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더군."

"그런데 주인님, 이게 대체 어떻게 모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초가 물었다.

"이게 온전한 모험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저 모험의 시작일 뿐이지. 모험이란 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법이라네. 하지만 저 자를 좀 보게나. 보아하니 지금 류트나 비우엘라 같은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 모양인데, 침을 뱉으며 가슴을 펴는 꼴을 보니 곧 노래라도 한 곡 뽑으려는 모양이야."

"정말 그렇군요." 산초가 대답했다. "분명 사랑에 빠진 기사임이 틀림없습니다."

"떠돌이 기사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 일단 노래를 들어보세나. 만약 노래를 부른다면, 그 가락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일세. 마음이 풍성하면 혀도 그만큼 풍성하게 움직이는 법이니까."

산초는 주인에게 대꾸하고 싶었지만,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은 숲의 기사의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다. 두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사이, 기사가 부른 노래는 바로 다음과 같은 소네트였다.

"부인, 당신의 뜻에 맞게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소서. 당신이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그 길을 제 뜻대로 귀하게 여겨, 결코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나아가리다. 만약 제가 고통을 삼킨 채 침묵 속에서 죽기를 바라신다면, 이제 저를 끝난 사람이라 여기소서. 하지만 만약 제가 이 고통을 색다른 방식으로 당신께 들려주길 원하신다면, 사랑 그 자체가 직접 말하게 하겠나이다. 저는 상반된 두 모습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니, 부드러운 밀랍 같으면서도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랑의 법칙에 따라 당신께 저를 맞추겠나이다. 제가 부드럽든 강하든, 제 가슴을 당신께 바치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새기거나 각인하소서. 당신이 주신 것을 영원히 간직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숲의 기사는 마치 심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비탄 섞인 "아!" 하는 외침과 함께 노래를 마쳤다. 그러고는 잠시 후, 애처롭고 상처 입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야속한 여인이시여! 고귀하신 반달리아의 카실데아여, 어찌하여 당신의 이 포로가 된 기사가 끊임없는 방랑과 거칠고 고된 고난 속에서 스러져 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나바라의 모든 기사와 레온의 모든 기사, 타르테소스의 모든 기사와 카스티야의 모든 기사, 그리고 마침내 라만차의 모든 기사까지 당

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고백하게 만들었거늘, 이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단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지."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는 라만차 사람이라 그런 말은 한 적도 없고, 내 주인의 아름다움을 해칠 만한 그런 말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법이라네. 산초, 자네도 보았겠지만 저 기사는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일단 더 들어보세. 아마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을지도 모르니까."

"그럼요, 그럴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 양반은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불평을 늘어놓을 기세인걸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숲의 기사는 자기 근처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는, 더 이상 비탄을 이어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낭랑하면서도 절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혹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의 무리냐, 아니면 슬픔에 잠긴 자들의 무리냐?"

"슬픔에 잠긴 자들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게로 가까이 오시오." 숲속의 사내가 대답했다. "그리하면 마치 슬픔과 비탄 그 자체에게 다가오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오."

그토록 다정하고 정중한 대답을 들은 돈키호테는 그에게 다가갔고, 산초도 똑같이 그를 따라 다가갔다.

슬퍼하는 기사는 돈키호테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여기 앉으십시오, 기사님. 당신이 진정한 기사이며 기사도를 실천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고독과 밤의 정적이 동무가 되어주는 이 장소에서 당신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이야말로 편력기사들에게는 천연의 침상이요, 마땅히 머물러야 할 안식처가 아니겠습니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기사이며, 당신이 말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내 영혼에는 슬픔과 불행, 그리고 불운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불행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당신이 겪는 고난은 사랑 때문인 듯하군요. 다시 말해, 당신이 탄식하며 언급했던 그 아름답고 야속한 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딱딱한 땅 위에 나란히 앉아, 마치 날이 밝으면 서로 머리를 깨부수며 싸워야 할 일 따위는 전혀 없다는 듯이, 아주 평온하고 화기애애하게 어울려 있었다.

"저, 기사님." 숲에서 온 사내가 돈키호테에게 물었다. "혹시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올바른 생각에서 비롯된 고통이라면, 불행이라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야 마땅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숲에서 온 사내가 대답했다. "냉대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마치 복수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려놓는 일만 없다면 말이지요."

"제 여인께서 저를 무시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건 절대 아니지요." 곁에 있던 산초가 말했다. "제 여인께서는 순한 암양 같으셔서, 버터보다도 더 부드러운 분이시니까요."

"이 사람이 당신의 종자인가요?" 숲에서 온 남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주인이 말하는 자리에서 감히 입을 여는 종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숲에서 온 남자가 대꾸했다. "적어도 내 종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 녀석은 제 아버지만큼이나 덩치가 크지만, 제가 말할 때 입을 벙긋거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아이고,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저도 지금까지 말을 해왔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이쯤에서 입을 다무는 게 낫겠습니다. 괜히 더 떠들었다가는 상황만 더 꼬일 테니까요."

숲에서 온 종자가 산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우리 둘만 가서 종자답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 봅시다. 주인님들은 저기 두고, 서로 사랑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머리싸움이나 하시라고 내버려 둡시다. 분명 저러다 해가 다 뜰 때까지도 이야기를 다 못 끝내실 게 뻔하니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산초가 말했다. "저도 제 정체를 말씀드릴 테니, 제가 다른 종자들만큼이나 수다스러운 편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두 종자는 이렇게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는 주인들 사이에 오간 담론이 진지했던 만큼이나 익살스럽고 유쾌했다.

제13장



제13장. 숲의 기사 모험이 계속되는 대목이자, 두 종자가 나누는 신중하고도 새롭고 부드러운 대화에 대하여

기사들과 종자들은 이렇게 갈라져 있었다. 종자들은 자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사들은 사랑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먼저 종자들의 대화를 들려준 뒤에 주인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

야기에 따르면, 숲의 종자는 주인들에게서 조금 떨어져 나와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우리처럼 편력기사의 종자로 사는 삶이란 참으로 고달픈 법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가며 겨우 빵을 얻어먹고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들에게 내리신 저주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초가 말을 보탰다. "우리 몸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 빵을 먹는다고도 할 수 있지요. 편력기사를 모시는 이 가련한 종자들보다 더 덥고 추운 일을 겪는 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먹기라도 하면 덜 서러울 텐데요. 빵이라도 있으면 슬픔도 덜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 말고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채 하루 이틀을 꼬박 굶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고생도 보상에 대한 희망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는 법입니다." 숲의 종자가 말했다. "종자가 모시는 편력기사가 아주 운이 없는 사람만 아니라면, 머지않아 어느 섬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영주가 되거나 보기 좋은 백작령을 하사받는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될 테니까요."

"저는 이미 주인님께 어느 섬을 다스리는 영주가 되기만 해도 만족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주인님께서는 워낙 고결하고 너그러운 분이라, 저에게 아주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약속까지 해주셨단 말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숲의 종자가 말했다. "성직자 자리를 하나 얻을 수만 있다면 제 공로에 만족할 겁니다. 주인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요!"

"귀하의 주인님께서는 기사님답게 성직자 쪽으로 길을 열어두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충직한 종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말했다. "하지만 제 주인님은 순전히 세속적인 분입니다. 예전에 분별 있는 사람들—제 보기에는 속셈이 있는 사람들 같았지만요—이 주인님께 대주교라도 되어 보라고 권유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주인님께서는 오직 황제가 되기만을 원하셨지요. 그때 저는 주인님께서 혹시라도 교회 쪽으로 마음을 돌리실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겉보기엔 사람 같아 보여도 교회 일에는 영 소질이 없는 짐승 같은 놈이라서 말입니다."

"그건 귀하께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숲의 종자가 말했다. "섬의 통치 자리라고 해서 다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뒤틀린 곳도 있고, 가난한 곳도 있고, 우울한 곳도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번듯하고 잘 갖춰진 통치 자리라 할지라도, 운 나쁘게 그 자리에 앉게 된 불행한 이는 무거운 생각과 불편함이라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우리처럼 이 저주받은 종자 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다들 고향 집으로 돌아가, 사냥이나 낚시처럼 좀 더 한가로운 일에 몰두하며 지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종자라 한들, 고향 마을에서 소일거리로 삼을 노새 한 마리, 사냥개 두 마리, 낚싯대 하나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사실 노새는 없지만, 제 당나귀는 주인님의 말보다 두 배는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만약 그 말과 제 당나귀를 바꾼다면, 설령 덤으로 보리 네 파네가(fanega)를 더 얹어준다 해도 신께서 저에게 당장이라도 재앙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당나귀가 회색이라서 귀하께서 그 가치를 우습게 보시는 모양입니다만, 정말로 값어치가 높습니다. 사냥개야 고향 마을에 널리고 널렸으니 부족할 리 없고요. 게다가 남의 돈으로 하는 사냥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고말고요."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저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기사들이 벌이는 술판은 이제 그만두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려 합니다. 가서 동양의 진주처럼 귀한 내 자식 셋을 키우며 살 생각입니다."

"저는 둘이 있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교황 앞에 직접 데려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지요. 특히 제 딸아이 하나는, 비록 제 엄마의 반대가 있더라도 신의 뜻이 허락한다면 반드시 백작부인으로 키워낼 생각입니다."

"백작부인으로 키우겠다는 그 아가씨는 나이가 몇이나 됩니까?" 숲의 종자가 물었다.

"열다섯 살 정도 됩니다. 한두 살 적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몸집은 창만큼이나 훤칠하고, 4월의 아침처럼 싱그럽습니다. 게다가 힘은 장사라니까요."

“그 정도면 백작부인뿐만 아니라 푸른 숲의 요정이 되어도 손색없겠군요.”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아이고, 망할 것, 그 발칙한 계집이 어지간히 기운이 세겠구먼!”

그러자 산초가 약간 언짢은 기색으로 대답했다.

"제 딸은 창녀도 아니고, 그 어머니도 창녀였던 적이 없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둘 중 누구도 창녀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말 좀 가려서 하십시오. 귀하께서는 예의범절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편력기사들 사이에서 자라셨다면서, 방금 하신 말씀은 전혀 그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군요."

"아이고, 종자 나리께서 칭찬을 참으로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광장에서 어떤 기사가 황소를 향해 멋지게 창을 내찌르거나, 누군가 일을 아주 야무지게 해냈을 때, 저잣거리 사람들이 '에이, 이 빌어먹을 놈, 아주 끝내주게 잘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걸 모르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욕설처럼 들리는 말이 사실은 대단한 찬사랍니다. 그러니 나리, 부모에게 그런 칭찬이 돌아갈 만한 훌륭한 일을 하지 못하는 아들이나 딸일랑 차라리 의절해 버리십시오."

"네, 의절하고말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 식이라면, 바로 그 이유로 귀하께서는 저와 제 자식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온통 창녀라는 욕을 한 보따리 뒤집어씌우셔도 할 말이 없겠군요. 그들이 하는 짓이나 하는 말마다 죄다 그런 찬사를 들어 마땅한 것들뿐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보려면, 하느님께서 저를 대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빌 따름입니다. 그건 곧 저를 이 위험한 종자 일에서 빼내 주시는 것과 같은

일이지요. 제가 이 일에 두 번째로 발을 들인 건, 언젠가 시에라 모레나 한복판에서 발견한 백 두카도가 든 주머니에 눈이 멀어 속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악마가 자꾸만 제 눈앞에,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 바로 저 너머에 금화가 가득 든 자루를 들이밉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자루가 손에 잡힐 것만 같고, 당장이라도 그것을 껴안고 집으로 가져가서 그 돈으로 연금을 사들이고 땅을 마련해 왕자처럼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동안만큼은, 기사라기보다는 미치광이에 가까운 이 얼간이 같은 주인 때문에 겪는 온갖 고생도 견딜 만하고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욕이 자루를 터뜨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를 따지자면, 세상에 제 주인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 주인은 '남의 걱정이 나귀를 죽인다'는 말에 딱 어울리는 분이거든요. 다른 기사가 잃어버린 정신을 되찾도록 해주겠다며 스스로 미친 척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막상 찾고 나면 오히려 화가 되어 제 얼굴로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런데 그분도 혹시 사랑에 빠지셨나요?"

"그렇습니다." 숲의 종자가 말했다. "카실데아 데 반달리아라는 여인에게 빠지셨지요. 세상천지를 다 뒤져봐도 그만큼 거칠고 야성적인 여인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거친 성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훨씬 더 지독한 속임수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머지않아 곧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평탄한 길이라도 돌부리에 걸리거나 낭떠러지를 만나기 마련이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남의 집에서는 콩을 삶는데, 우리 집은 솥째로 삶아대는 격입니다. 광기라는 놈은 분별력이라는 놈보다 곁에 동료를 더 많이 거느리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고생할 때 동료가 있으면 위안이 된다는 흔한 말도 사실이라면, 당신과 함께하니 그나마 위로가 되겠군요. 당신도 내 주인만큼이나 어리석은 주인을 모시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리석긴 해도 용감한 분이지요."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어리석고 용감한 것보다 훨씬 더 고약한 양반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 말은, 주인님은 전혀 고약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씨가 항아리처럼 넉넉하고 순박하시지요. 누구에게 해를 끼칠 줄은 모르고 오직 모두에게 선을 베풀 뿐이며, 악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으십니다. 아이가 대낮에 밤이 되었다고 속여도 그대로 믿으실 분이지요. 저는 이런 순박한 모습 때문에 주인님을 제 심장처럼 아낍니다. 주인님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셔도, 저는 결코 주인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모든 말씀에도 불구하고, 형제이자 주인님," 숲의 종자가 말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는 법입니다. 차라리 발걸음을 재촉해 이만 물러나 각자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모험을 찾아 나선다고 해서 항상 좋은 모험만 만나는 건 아니니까요."

산초는 자꾸만 끈적거리고 마른 침을 뱉어댔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숲의 종자가 이 모습을 보고 눈여겨보더니, 그가 말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 때문에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제 말 안장 가죽에는 입안을 헹궈낼 만한 아주 좋은 도구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와인 가죽 부대 하나와 반 바라(약 40센티미터)나 되는 큼지막한 고기 파이 하나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얀 토끼로 만든 파이였는데, 그 크기가 어찌나 큰지 산초는 파이를 만져보고는 이게 새끼 염소가 아니라 다 자란 숫염소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모습을 본 산초가 말했다.

“나으리, 설마 이것들을 다 혼자 가지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소?" 그가 대답했다. "내가 무슨 물과 양털이나 짊어진 보잘것없는 종자인 줄 아시오? 장군이 길을 나설 때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든든한 양식을 나는 내 말 궁둥이에 싣고 다닌단 말이오."

산초는 사양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어둑한 가운데 그는 큼직한 덩어리들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참으로 충직하고 올바르며, 빈틈없고 한결같은 데다, 더없이 훌륭하고 대단한 종자이십니다. 이 성대한 잔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치가 마법으로 이곳에 옮겨온 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군요. 저처럼 비루하고 불운한 놈과는 영 딴판

이지요. 제 괴나리봇짐에는 치즈 몇 조각뿐인데, 그게 어찌나 딱딱한지 거인의 머리통이라도 깨뜨릴 정도랍니다. 게다가 쥐엄나무 열매(캐럽) 네 다스에 헤이즐넛과 호두도 그만큼 들어 있는 게 고작이지요. 이게 다 인색한 주인님 덕분이자, 편력기사는 마땅히 말린 과일과 들풀로만 끼니를 때워야 한다는 그분의 지론과 규칙 때문입니다."

"내 말을 믿으시오, 형제여."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나는 저런 잡풀이나 뿌리째 씹어 먹는 식성에는 영 소질이 없소. 우리 주인님들이 기사도니 뭐니 하는 고집과 규칙을 부리든 말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드시라고 하시오. 나는 먹을 것을 챙겨 다니고, 안장 옆에는 술병도 하나 매달아 두었소. 이 술병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도 가만두지 못하고 수시로 입을 맞추고 껴안아 줄 정도라오."

이렇게 말한 숲의 종자는 술병을 산초 판사에게 건넸다. 산초 판사는 술병을 들어 입에 대고는, 한창 술을 들이켜는 동안 15분 동안이나 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술을 다 마신 산초 판사는 고개를 옆으로 툭 떨구더니, 커다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 참으로 신실하기도 하시지!"

"저기 좀 보시오." 산초가 빌어먹을 놈이라며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숲의 종자가 말했다. "이 술을 빌어먹을 놈이라고 칭찬하며 치켜세우는 꼴 좀 보라고!"

"제 말은 이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누군가를 '화냥년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를 칭찬하는 뜻으로 통할 때라면, 그렇게 부

른다 해도 전혀 욕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리,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의 목숨을 걸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술은 시우다드 레알에서 온 것입니까?"

"대단한 감별사로군!"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정말이지 다른 곳에서 온 게 아니고말고. 게다가 몇 년쯤 묵은 술이라오."

"그쯤이야 문제없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이 술의 정체를 알아맞히는 일쯤은 제게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말이지요. 종자 나리, 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저처럼 본능적이고 타고난 감각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아무 술이나 코에 대고 냄새만 맡아도, 그 술이 어느 고장에서 났는지, 어느 가문 것인지, 맛은 어떤지, 얼마나 오래가고 또 어떻게 변해갈지까지, 술에 관한 온갖 세세한 사정을 척척 맞혀낸단 말입니다.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제 아버지 쪽 혈통에는 라만차가 오랜 세월 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술 감별사 두 분이 계셨으니까요. 그 증거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커다란 술통에 담긴 술을 맛보게 하고는, 술의 상태나 품질, 맛이 좋은지 나쁜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코끝에 가져다 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술에서 쇠 맛이 난다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가죽 맛이 더 난다고 했습니다. 술 주인은 술통은 깨끗하며 이 술에는 쇠 맛이나 가죽 맛이 날 만한 첨가물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유명한 두 감별사는 자신들이 한 말이 옳다고 우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술이 다 팔리고 나서 술통을 비워보니, 그 안에서 가죽 끈에 매달린 작은 열쇠 하나가 나

왔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저처럼 이런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런 일에 의견을 낼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숲의 종자가 말했다. "이제 모험 찾으러 다니는 건 그만두자는 겁니다. 이미 빵 덩어리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굳이 다른 떡을 찾아 헤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집 오두막으로 돌아갑시다.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그곳에서 편히 지내면 그만이지요."

"제 주인이 사라고사에 도착할 때까지만 모시겠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그때 가서 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결국 두 충직한 종자는 그토록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토록 술을 마셔댔다. 그러다 마침내 잠이 그들의 혀를 묶고 갈증을 가라앉혀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갈증을 완전히 풀기란 불가능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거의 비어버린 술 부대를 함께 붙잡은 채, 입안에는 채 씹지도 못한 음식을 머금고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일단 이들은 이대로 두고, 이제 숲의 기사가 슬픈 몰골의 기사와 겪은 일을 이야기하기로 하자.

제14장



제14장. 숲의 기사의 모험이 계속되는 이야기

돈키호테와 숲의 기사가 여러 말을 주고받던 중에, 이야기에 따르면 숲의 기사가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사님, 제 운명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 선택이 저를 비길 데 없는 카실데아 데 반달리아와 사랑에 빠지게 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녀를 비길 데 없다고 부르는 이유는 체구의 위엄이나 신분의 고귀함, 그리고 미모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그녀와 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카실데아라는 여인은 저의 선한 생각과 절제된 갈망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마치 헤라클레스의 대모처럼 저를 수많은 위험과 고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모험을 마칠 때마다 다음 모험을 끝내면 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 약속하곤 했지요. 하지만 그 고난들이 쇠사슬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바람에, 제 소망을 실현해 줄 마지막 모험이 무엇인지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한번은 그녀가 저에게 세비야의 그 유명한 거녀(巨女), 히랄다에게 도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은 청동으로 만든 것처럼 용맹하고 강인하면서도, 한곳에 머문 채로도 세상에서 가장 잘 움직이고 변화무쌍한 여인이지요. 저는 그곳에 이르러 그녀를 보고 꺾어, 꼼짝 못 하게 제압해 놓았습니다. 일주일 넘게 북풍만 불어대던 때였지요. 또 한번은 저에게 구이사도의 용맹한 황소상들의 오래된 돌덩이를 번쩍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기사보다는 차라리 짐꾼에게나 어울릴 법한 일이었지요. 또 어떤 때는 카브라의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쳐 뛰어들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무시무시한 위험이었지요. 그 어두운 구렁텅이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상세히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히랄다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고, 구이사도의 황소 돌덩이를 들어 올렸으며, 카브라의 심연으로 몸을 던져 그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 희망은 죽고 또 죽어 사라졌건만, 그녀의 명령과 냉대는 살아나고 또 살아나 더욱 기세등등해졌지요.

결론적으로, 그녀는 최근 저에게 스페인의 모든 지방을 누비며, 그곳을 떠도는 모든 편력기사에게 오늘날 살아 있는 그 어떤 여인보다 그녀의 미모가 가장 빼어나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깊이 사랑에 빠진 기사임을 인정하게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하느라 이미 스페인의 태반을 돌아다녔고, 제 말에 토를 다는 수많은 기사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뽐내는 것은, 단 한 번의 결투로 그 유명한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를 굴복시켜, 제 카실데아가 그의 둘시네아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사실을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승리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기사를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돈키호테가 이미 세상의 모든 기사를 이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를 이겼으니, 그의 영광과 명성, 그리고 명예가 모두 저에게로 넘어온 셈 아니겠습니까?"

또한 승자가 더 큰 영예를 누리는 법이니,

패배한 자의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승자의 영예 또한 그만큼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앞서 언급한 돈키호테가 이룬 그 수많은 업적은 이제 모두 제 공이며, 온전히 저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숲의 기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수천 번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고, 이미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이려 입술 끝까지 말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숲의 기사가 제 입으로 직접 거짓을 자백하게 만들고자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말했다.

“기사님, 당신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사들을 물리쳤다는 말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이겼다는 말씀은 의심스럽군요. 당신이 본 사람이 돈키호테처럼 보였을 뿐, 사실은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돈키호테처럼 보이는 사람이 흔치 않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어찌 아니겠습니까?" 숲의 기사가 대답했다. "하늘을 두고 맹세컨대, 저는 돈키호테와 싸워 그를 꺾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몸집이 말랐으며, 얼굴은 갸름하고 팔다리는 길쭉하면서 거무스름합니다. 머리카락은 약간 희끗하고 코는 매부리코처럼 약간 굽었으며, 콧수염은 크고 검고 아래로 처져 있지요. '슬픈 형상의 기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산초 판사라는 농부를 종자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한 로시난테라는 유명한 말의 등에 올라타 고삐를 쥐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한때 알돈사 로렌소라 불렸던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여인을 마음속 주군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연인도 이름은 카실다이지만 안달루시아 출신이라 제가 카실데아 데 반달리아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모든 특징만으로 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면, 여기 제 검이 있습니다. 이 검이 불신 그 자체마저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 기사님."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그 돈키호테는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 저 자신과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지요. 당신이 일러 주신 그 특징들이 워낙 정확하고 확실해서, 당신이 꺾은 자가 분명 그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져 보면 그가 같은 사람일 리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에게는 마법사인 적들이 많고, 특히 늘 그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자가 하나 있는데, 그들 중 누군가가 돈키호테가 온 세상 방방곡곡에서 드높은 기사도로 얻어 낸 명성을 가로채려고, 그의 모습을 빌려 일부러 패배해 준 것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를 적대하는 그런 마법사들은 불과 이틀 전에도 아름다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천박하고 비천한 시골 여인으로 변신시켰으니, 돈키호테 역시 그런 식으로 변신시켰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진실임을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시겠다면, 여기 바로 그 돈키호테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땅 위에서 싸우든, 말 위에서 싸우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이 제 무기로 이 진실을 지켜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뽑아 들고, 숲의 기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렸다. 그러자 숲의 기사 역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빚을 잘 갚는 사람에게는 채무가 아깝지 않은 법이지요. 돈키호테 기사님, 변신한 모습으로 당신을 꺾은 자라면, 당신의 본래 모습 그대로를 굴복시키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들

이 강도나 건달처럼 어두운 곳에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태양이 우리의 행보를 지켜볼 수 있도록 내일 날이 밝기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우리 결투의 조건으로, 패자는 승자의 처분에 따르기로 합시다. 승자가 패자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패자는 따라야 하되, 그 명령이 기사로서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과 합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말을 마친 그들은 종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종자들은 잠이 쏟아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돈키호테와 숲의 기사는 그들을 깨우며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해가 뜨는 대로 두 사람이 피비린내 나는, 유례없고도 한쪽으로 기운 결투를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들은 산초는 앞서 숲의 기사의 종자에게서 그 종자의 주인이 얼마나 용맹한지 전해 들은 터라, 제 주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어안이 벙벙할 만큼 깜짝 놀랐다. 하지만 두 종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의 가축을 찾으러 떠났다. 말 세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는 이미 서로의 냄새를 맡고 한데 모여 있었다.

길을 가던 중 숲의 기사가 산초 판사에게 말했다.

"형제여, 이것만은 알아두게나. 안달루시아의 결투꾼들은 어떤 싸움에 입회인으로 나서면, 자기가 입회를 서 준 당사자들이 싸우는 동안 팔짱만 끼고 한가로이 구경만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네. 내가 이 말을 하는 까닭은, 우리 주인들이 싸우는 동안 우리도 함께 싸워 서로 박살을 내야 한다는 걸 미리 일러두려는 것이네."

"그건 종자 양반, 그쪽 동네에서나 통할 이야기일 겁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말씀하신 그런 관습은 건달이나 싸움꾼들 사이에서나 통하지, 편력기사의 종자들에게는 꿈에도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저는 제 주인님께서 그런 관습을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님은 기사도의 모든 규율을 줄줄 외우고 계시는데도 말이지요. 게다가 설령 주인들이 싸우는 동안 종자들도 함께 싸우는 것이 진짜 관습이자 명백한 규율이라 칩시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따르는 대신, 그런 얌전한 종자들에게 매겨지는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양초 두 근은 안 넘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 벌금을 내는 게 낫겠습니다. 머리가 이미 두 쪽으로 쪼개진 거나 다름없는 마당에, 이걸 치료하느라 써 버릴 붕대 값보다 그 양초 값이 훨씬 쌀 테니까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칼 한 번 차 본 적이 없으니, 싸우고 싶어도 칼이 없어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내게 있네." 숲의 기사가 말했다. "여기 크기가 똑같은 천 주머니 두 개를 가져왔네. 자네가 하나를 갖고 내가 나머지 하나를 갖게나. 그러고 나서 똑같은 무기로 주머니질을 하며 싸우는 걸세."

"그렇게 하시지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차라리 그렇게 싸우는 게 서로 다치기보다는 먼지나 털어내는 데 훨씬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건 안 될 말이네." 상대방이 대답했다. "주머니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 안에 예쁘고 매끄러운 조약돌을 각각 여섯 알씩 넣어야

하네. 양쪽 주머니의 무게가 똑같도록 말이야. 그래야 서로 다치거나 해를 입히지 않고도 주머니질을 하며 싸울 수 있을 테니까."

"맙소사, 이것 좀 보세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저 양반이 우리 머리통이 으스러지고 뼈마디가 가루가 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주머니에 넣겠다는 게 대체 뭡니까? 무슨 검은담비 모피라도 됩니까, 아니면 곱게 탄 솜뭉치라도 됩니까? 하지만 이보시오, 양반, 그 주머니에 비단 고치를 가득 채운다 해도 저는 절대 싸우지 않을 겁니다. 싸움은 우리 주인님들끼리 하게 두고,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라 하고, 우리는 그저 술이나 마시며 살면 그만이지요. 어차피 세월이라는 놈이 알아서 우리 목숨을 거두어 갈 텐데, 굳이 제때가 되어 무르익어 떨어지기도 전에 수명을 앞당겨 끝낼 구실을 찾아다닐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적어도 반 시간은 싸워야 하네."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저는 그렇게 무례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신 분과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절대로 다투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떤 미친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싸움을 걸겠습니까?"

"그렇다면," 숲의 종자가 말했다. "내가 아주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겠네.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대에게 정중히 다가가 뺨을 서너 대 때려주겠네. 그대가 내 발치에 엎어지도록 말이야. 그러면 설령 잠에 취해 비몽사몽한 상태라 해도, 그 분노가 단번에 깨어날 것이네."

"그렇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 방법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몽둥이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래서 종자님께서 제 분노를 깨우기도 전에, 몽둥이질로 그분의 분노를 아예 잠재워 버릴 겁니다. 저세상에 가기 전에는 도저히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만지작거리게 놔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해야 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차라리 각자 분노를 잠재우고 잠이나 자는 게 현명할 겁니다. 사람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남의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도리어 제 털이 깎여 돌아오는 일도 허다하니까요. 신께서도 평화는 축복하시고 싸움은 저주하셨습니다. 구석에 몰려 갇힌 고양이도 궁지에 몰리면 사자로 변하는데, 하물며 사람인 제가 궁지에 몰리면 대체 무엇으로 변할지 신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 종자님, 미리 경고해 두건대, 우리 싸움 때문에 생기는 모든 해악과 피해는 전부 종자님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좋소." 숲의 종자가 대답했다. "신께서 날을 밝혀 주실 테고, 그러면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요."

이때 나무 위에서는 온갖 빛깔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새들은 저마다 즐겁게 노래하며, 동쪽의 문과 발코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얼굴을 뽐내는 싱그러운 새벽을 축복하고 맞이하는 듯했다. 새벽빛은 머리카락에서 무수히 많은 액체 진주를 털어내듯 쏟아냈고, 그 부드러운 이슬에 젖은 풀들은 마치 하얗고 고운 진주가 비처럼 내리며 솟아나는 듯 보였다. 버드나무에서는 달콤한 만나가 흘러나왔고,

샘물은 웃음 짓고 시냇물은 속삭였으며, 숲은 즐거워하고 초원은 새벽의 도래와 함께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빛이 밝아와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되자마자, 산초 판사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숲의 기사가 거느린 종자의 코였다. 그 코는 어찌나 큰지 거의 그의 몸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울 정도였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 코는 지나치게 거대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이 굽어 있었고 온통 사마귀투성이였으며, 색깔은 마치 가지처럼 거무죽죽한 보랏빛을 띠었다고 한다. 코는 입 아래로 손가락 두 마디나 더 내려와 있었다. 코의 크기와 색깔, 사마귀, 그리고 굽은 모양새가 워낙 흉측하여, 산초는 그 코를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킨 어린아이처럼 손발을 마구 버둥거리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속으로 다짐했다. 저 괴물 같은 자와 싸우느라 분노를 터뜨리느니, 차라리 뺨을 이백 대 맞는 게 낫겠다고 말이다.

돈키호테가 맞은편의 상대방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투구를 쓰고 머리까지 깊숙이 눌러쓴 상태라 얼굴을 볼 수는 없었다. 다만 체격이 건장하고 키는 그리 크지 않은 사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는 갑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옷감은 아주 고운 금실로 짠 듯 보였고 그 위에는 반짝이는 작은 거울들이 달 모양으로 촘촘히 박혀 있어 무척이나 멋스럽고 화려했다. 커다란 투구 위로는 초록색, 노란색, 흰색 깃털들이 수없이 휘날리고 있었다. 나무에 기대어 놓은 창은 아주 크고 굵었으며, 창끝의 강철 부분은 한 뼘이 넘을 정도로 길었다.

돈키호테는 상대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고 눈여겨보았다. 그는 눈앞의 기사가 아주 힘이 센 사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산초 판사와 달리 조금도 겁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돈키호테는 기품 있는 용기를 내어 거울의 기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사님, 싸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예의를 잊으신 게 아니라면, 부디 투구의 가리개를 조금만 올려 주시길 청합니다. 기사님의 용맹한 얼굴이 그 당당한 풍채와 어울리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 말입니다."

"기사님, 이번 싸움에서 이기시든 지시든, 저를 마주하실 시간과 여유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거울의 기사가 대답했다. "제가 지금 당장 기사님의 청을 들어드리지 않는 것은, 투구 가리개를 올리느라 시간을 끄는 통에, 기사님께서 이미 알고 계실 제 뜻—기사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을 그만큼 미루게 되어, 아름다운 반다리아의 카실데아 님께 큰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에 오르는 동안," 돈키호테가 말했다. "당신이 이겼다고 한 그 돈키호테가 정말 나인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질문에 답해 드리지요." 거울의 기사가 말했다. "기사님은 제가 이겼던 그 기사와 꼭 닮으셨습니다. 마치 달걀 하나가 다른 달걀과 똑같이 생긴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사님 말씀대로라면 그 기사는 마법사들에게 쫓기고 있는 셈이니, 기사님이 바로 그분인지 아닌지 제가 감히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겠군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당신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충분하군요. 하지만 당신의 그 거짓을 완전히 밝혀내기 위해, 우선 우리 말들을 이쪽으로 몰아오십시오. 기사님께서 투구를 들어 올리는 시간보다도 더 짧은 순간 안에, 하느님과 나의 귀부인, 그리고 나의 용맹한 팔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당신 또한 내가 당신이 생각하는 그 패배한 돈키호테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주고받지 않고 두 사람은 곧장 말에 올라탔다. 돈키호테는 적과 다시 맞붙기 위해 자리를 잡으려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려 들판의 적당한 곳으로 향했고, 거울의 기사 역시 똑같이 했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채 스무 걸음도 떨어지기 전에, 거울의 기사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길을 반쯤 좁혀 다가섰고, 거울의 기사가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사님,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투의 조건은 패자가 승자의 처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다만 승자가 패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요구가 기사도 정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거울의 기사가 대답했다.

그때 돈키호테의 눈에 종자의 기이한 코가 들어왔다. 그는 그 코를 보고 산초만큼이나 깜짝 놀랐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저것이 괴물인

지, 아니면 세상에 흔치 않은 기묘한 부류의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였다. 주인이 도움닫기를 하려고 달려 나가는 것을 본 산초는, 저 코 큰 자와 단둘이 남고 싶지 않았다. 저 코로 자기 코를 한 번 툭 치기만 해도 자기 싸움은 끝장나고, 그 일격에든 겁에든 바닥에 나동그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초는 로시난테의 가죽끈을 붙잡고 주인을 따라갔다. 그러다 이제 주인이 다시 돌격할 때가 되었다 싶자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다시 적과 맞붙으러 가시기 전에, 저를 저 코르크 참나무 위로 올려주십시오. 주인님께서 저 기사와 벌이실 그 멋진 결투를, 바닥에 서서 보는 것보다 그 위에서 훨씬 더 마음 편히 구경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투우를 위험 없이 구경하려고 저 높은 비계 위로 기어 올라가려는 모양이구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 종자의 엄청나게 큰 코를 보니 너무 기가 막히고 겁이 나서, 도저히 그 사람 곁에 서 있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 코가 정말 그렇긴 하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지금의 나만 아니었다면 나 역시 깜짝 놀랐을 게다. 자, 오너라. 네가 말한 그곳으로 올라가도록 도와주마."

돈키호테가 산초를 코르크나무 위로 올려주느라 지체하는 동안, 거울의 기사는 들판에서 필요하다고 여긴 만큼 거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돈키호테도 자기와 똑같이 했으리라 믿고, 나팔 소리든 다른 어떤 신호든 기다리지도 않은 채 말의 고삐를 돌렸다. 그가 탄 말은 로시난테보다 가볍지도, 생김새가 더 훌륭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전속력으로—그래 봤자 중간 정도의 구보였다—적을 향해 달려 나갔다. 그러나 돈키호테가 산초를 나무에 올려주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을 보고는, 고삐를 당겨 질주하던 도중에 멈춰 섰다. 어차피 더는 움직일 수도 없던 말은 이에 더없이 고마워했다. 한편 적이 벌써 날듯이 달려온다고 여긴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야윈 옆구리에 박차를 힘껏 갖다 댔고, 어찌나 다그쳤던지, 평소에는 늘 대놓고 구보로만 달리던 로시난테가 이 한 번만큼은 정말로 좀 달렸다고 이야기에 전해질 정도였다. 돈키호테는 이 보기 드문 기세로, 거울의 기사가 멈춰 선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말을 움직이지 못한 채 박차를 끝까지 박아 넣고 있는 곳으로 들이닥쳤다.

마침 돈키호테는 적이 말을 다루느라 쩔쩔매고 창을 챙기느라 바빠서, 끝내 창을 창받이에 제대로 걸지 못했거나 그럴 겨를조차 없었던 것을 보았다. 이런 불리한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돈키호테는, 손쉽게 아무런 위험도 없이 거울의 기사에게 달려들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셌던지, 거울의 기사는 본의 아니게 말 엉덩이 너머로 땅바닥에 나가떨어졌고, 어찌나 호되게 떨어졌던지 손발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다.

산초는 그가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코르크나무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주인에게 급히 달려갔다. 돈키호테 역시 로시난테에서 내려 거울의 기사에게 다가갔다. 그는 상대가 죽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살아 있

다면 바람이라도 쐬게 해주려고 투구 끈을 풀었다. 그리고 그는 보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경악과 경이로움, 그리고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않고서야 대체 누가 그 광경을 말로 옮길 수 있겠는가?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바로 산손 카라스코 학사의 얼굴과 모습, 형체와 생김새, 그리고 그 인상까지 똑같은 모습을 보았다. 돈키호테는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산초야, 이리 와서 보아라!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을 것이다! 어서 와서 보렴, 얘야! 마법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마법사와 요술쟁이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똑똑히 보란 말이다!"

산초가 달려와 산손 카라스코 학사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연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성호를 긋고 또 긋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쓰러진 기사는 살아있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에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주인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저 자의 입에 칼을 찔러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는 산손 카라스코 학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법사들이 저 자의 몸을 빌려 주인님의 원수 중 하나를 처단하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로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원수는 적을수록 좋은 법이니까."

돈키호테는 산초의 충고를 실행에 옮기려 칼을 뽑아 들었다. 바로 그때, 거울의 기사를 모시는 종자가 나타났다. 그는 아까의 그 흉측한 코도 사라진 모습이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돈키호테 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좀 보십시오. 당신 발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당신의 친구인 학사 산손 카라스코이고, 저는 그의 종자입니다."

산초는 그가 아까와 같은 흉측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코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여기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뻗어 허리춤에서, 앞서 묘사한 그대로 가면에 쓰는 반죽과 칠로 빚은 가짜 코를 꺼냈다. 산초는 그 모습을 경탄 섞인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목소리를 높여 크게 말했다.

"세상에, 맙소사! 이 사람, 내 이웃이자 내 대부인 토메 세시알 아니오?"

"그럼요, 당연히 저지요!" 코가 없어진 종자가 대답했다. "산초 판사, 내 대부이자 친구인 토메 세시알이 맞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온갖 속임수와 술책, 복잡한 사정들은 나중에 다 말해

주겠소. 그러니 그동안 당신 주인님께 간곡히 부탁하고 빌어보시오. 당신 발치에 쓰러져 있는 저 '거울의 기사'를 건드리거나, 때리거나, 상처 입히거나, 죽이지 말아 달라고 말이오. 저 자는 틀림없이 무모하게 굴다 잘못된 조언에 넘어간 학사 산손 카라스코, 바로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말이오."

이때 거울의 기사가 정신을 차렸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칼끝을 그의 얼굴에 갖다 대며 말했다.

"기사여, 만약 당신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당신의 카실데아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또한, 이번 싸움과 추락에서 살아남는다면 반드시 약속해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소. 엘 토보소로 가서 나를 대신해 그녀 앞에 나아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당신을 처분하도록 허락을 구하는 것이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살려준다면, 그때는 다시 나를 찾아와야 하오. 내가 남긴 업적의 흔적들이 당신을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니, 그때 그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해주어야 하오. 이 조건들은 우리가 전투 전에 정한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기사도 도의 범위 안에서 정한 것들이오."

"인정하겠소." 쓰러진 기사가 말했다. "카실데아의 수염이 비록 깨끗할지언정 제대로 빗질도 안 된 것에 비하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님의 올이 터지고 더러운 신발 한 짝이 훨씬 더 값지다는 사실을 말이오. 또한 당신의 명령대로 그녀를 찾아갔다가 다시 당신에게 돌아

와, 요청하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보고할 것을 약속하겠소."

"또한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소."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당신이 꺾은 그 기사는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아니었으며, 결코 돈키호테일 수도 없었소. 그저 그와 닮은 다른 사람이었을 뿐이오. 내가 당신을 보며 비록 산손 카라스코 학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말이오. 당신 또한 그와 닮은 다른 사람일 뿐이며, 나의 분노를 억누르고 가라앉히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거둔 승리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누리게 하려고 나의 적들이 그 사람의 형상을 빌려 이곳에 보낸 것이오."

"당신이 믿고 판단하고 느끼는 그대로, 나 또한 모두 인정하고 판단하며 느끼겠소." 쓰러진 기사가 대답했다. "부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오. 떨어질 때 받은 충격으로 몸이 워낙 상해 일어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충격이 허락만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소."

돈키호테와 거울의 기사의 종자인 토메 세시알이 함께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산초는 토메 세시알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는데, 그가 대답하는 내용을 보니 자기 말대로 진짜 토메 세시알임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마법사들이 거울의 기사의 모습을 산손 카라스코 학사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주인의 말이 산초의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산초는 눈앞에 빤히 보이는 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결국 주인과 종자는 이 착각에 빠진 채로 남았고, 한편 거울의 기사와 그의 종자는 잔뜩 화가 나 풀이 죽은 채로

돈키호테와 산초를 떠나, 어디든 찜질을 하고 부러진 갈비뼈에 부목을 댈 만한 곳을 찾아 나섰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시 사라고사로 향하는 길을 떠났고, 이야기는 여기서 거울의 기사와 그의 코쟁이 종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잠시 이들을 떠난다.

제15장



제15장. 거울의 기사가 누구이며 그의 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거울의 기사가 자신만큼이나 용맹한 기사라고 상상해 왔기에, 그를 꺾고 승리를 거둔 사실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의기양양했다. 그는 거울의 기사가 기사로서 한 약속을 지켜, 자신의 여주인에게 걸린 마법이 계속되고 있는지 알려주기를 기다렸다. 패배한 기사

라면 기사 자격을 잃지 않으려면 마땅히 돌아와 여주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돈키호테대로 생각하고, 거울의 기사는 거울의 기사대로 생각할 뿐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거울의 기사의 머릿속에는 그저 어디 가서 상처를 찜질로 치료할까 하는 궁리뿐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에 따르면, 학사 산손 카라스코가 돈키호테에게 중단했던 기사 생활을 다시 이어가라고 권유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이전에 그는 신부, 이발사와 함께 돈키호테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 조용히 지내게 할 수 있을지, 그가 벌이는 쓸데없는 모험 때문에 소동을 피우지 않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었다. 모두의 뜻을 모으고 카라스코의 개인적인 의견을 따른 결과, 그들은 돈키호테를 붙잡아 두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니 차라리 그를 길로 내보내기로 했다. 대신 산손 카라스코가 떠돌이 기사가 되어 길목에서 그를 가로막고 결투를 벌이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싸울 구실이야 얼마든지 있을 테니, 카라스코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그리고 패배한 기사는 승리한 기사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는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즉, 돈키호테가 패배하면 학사인 카라스코가 기사로서 명령을 내려, 돈키호테를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는 계획이었다. 돈키호테가 패배한다면 기사도의 법도를 어길 수 없으니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명령을 따를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유폐된 기간 동안 돈키호테가 허황된 망상을 잊어버리거나, 그의 광기를 치료할 적절한 방도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라스코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산초 판사의 대부이자 이웃인 토메 세시알을 종자로 삼았다. 토메 세시알은 성격이 쾌활하고 재치가 넘치는 사내였다. 앞서 말한 대로 산손 카라스코는 기사로 무장했고, 토메 세시알은 마주쳤을 때 산초 판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앞서 언급한 가짜 가면 코를 본래의 코 위에 잘 맞추어 썼다. 이렇게 두 사람은 돈키호테가 가던 길을 따라 나섰고, 죽음의 마차 모험이 일어난 곳 근처까지 다다랐다. 마침내 그들은 숲속에서 돈키호테 일행과 마주쳤는데, 그곳에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미 읽었을 법한 온갖 일들이 벌어졌다. 만약 돈키호테가 가진 그 기이한 생각들, 곧 학사가 진짜 학사가 아니라고 믿어 버린 그 망상이 아니었더라면, 학사님은 새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간 곳에 둥지조차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영영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할 뻔하였다.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 상황이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를 목격한 토메 세시알이 학사에게 말했다.

"그나저나 산손 카라스코 님, 우리는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건 쉽지만, 그 일을 무사히 끝내는 건 대개 어려운 법이지요. 돈키호테는 미친놈이지만 우리는 제정신인데, 그는 멀쩡하게 웃으며 떠나고 당신은 만신창이가 되어 슬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이제 누가 더 미친 것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어쩔 수 없이 미친 사람과, 제 발로 미치기로 마음먹은 사람 중 과연 누가 더 미친 것일까요?"

산손이 대답했다.

"그 두 미치광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억지로 미친 사람은 평생 미친 채로 살겠지만, 스스로 미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토메 세시알이 말했다. "저도 나으리의 종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 의지로 미친 척을 했던 것이니, 이제는 그만 미친 척을 그만두고 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맞네." 산손 카라스코가 대답했다. "내가 돈키호테를 매질해서 아주 혼쭐을 내주기 전까지는 내 집으로 돌아갈 생각 따위는 전혀 없으니 말일세. 지금 내 마음은 그가 제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복수심뿐이라네. 갈비뼈가 너무 아파서 더는 자비로운 말을 내뱉기가 힘들 정도야."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다가, 운 좋게도 접골사가 있는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덕분에 불운한 산손 카라스코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토메 세시알은 그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산손 카라스코는 오로지 복수할 생각만 하며 남았다. 이제 이야기는 잠시 돈키호테를 보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훗날 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제16장



제16장. 돈키호테가 라만차의 사려 깊은 신사를 만나 겪게 된 일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앞서 말한 대로 기쁨과 만족감, 그리고 자만심에 흠뻑 취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난번 승리 덕분에 자신이 그 시대 온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편력기사라고 상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험이 닥치더라도 모두 승리로 끝날 것이며,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마법이나 마법사 따위는 대수롭

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동안 기사도 모험을 하며 겪었던 수많은 매질도, 이빨 절반이 날아갈 정도로 얻어맞았던 돌팔매질도, 갤리선으로 끌려가던 죄수들이 보여준 배은망덕함도, 양구스인들이 들이댄 말뚝 세례와 그들의 무모함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군인 둘시네아를 마법에서 풀어낼 방법이나 수단만 찾아낸다면, 지난 세기 동안 가장 운이 좋았던 기사가 누렸던 그 어떤 행운도 부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온통 이런 망상에 빠져 있을 때, 산초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주인님, 제 대부인 토메 세시알의 그 터무니없이 크고 유별난 코가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거리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산초야, 설마 너는 거울의 기사가 카라스코 학사이고, 그 종자가 네 대부인 토메 세시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그분이 제 집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건 그분 본인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코만 빼면, 얼굴은 제가 고향 마을에서, 그것도 우리 집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옆집에서 수없이 봐왔던 토메 세시알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말투도 완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산초야,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리 와서 들어보렴. 카라스코 학사가 어찌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무장한 편력기사가 되어 나와 싸우러 왔겠느냐? 내가 설마 그에게 원수라도 된단 말이냐? 내가 그에게 미움을 살 만한 빌미라도 준 적이 있느냐?

내가 그의 연적이라도 되느냐, 아니면 그가 무예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서 내가 무공으로 쌓아온 명성을 시기하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저 기사가 누구든 간에 카라스코 학사와 너무 닮았고, 그 종자 또한 제 대부인 토메 세시알과 판박이인데 말입니다. 만약 나리 말씀대로 이게 마법사의 속임수라면, 세상에 하필이면 딱 그 두 사람을 닮게 만들었단 말씀입니까?"

"모든 게 다 속임수이자 계략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를 괴롭히는 사악한 마법사들이 꾸민 일이지. 그들은 내가 이번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패배한 기사의 얼굴이 내 친구인 카라스코 학사와 닮게끔 미리 손을 써둔 것이다. 내가 그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내 칼날과 팔의 힘을 주저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내 마음의 정당한 분노를 누그러뜨려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내 목숨을 앗아가려던 자가 살아서 도망치게 하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다.

산초야, 너도 이미 경험해 보아서 잘 알지 않느냐! 너를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을 그 생생한 경험을 떠올려 보렴. 마법사들이 얼굴을 이리저리 바꾸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지 말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것을 추하게 만들고, 추한 것을 아름답게 바꾸기도 한다. 불과 이틀 전에도 너는 네 두 눈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지닌 온전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기품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하지만 나는 그녀를 눈에 백내장이 생기고 입에서는 악취가 나는, 천한 농부의 추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보았단 말이다. 하물며 그토록 끔찍한 변신을 감행한

사악한 마법사가, 나의 승리를 가로채려고 산손 카라스코와 네 대부를 닮게 만든 것쯤이야 일도 아니겠지.

하지만 이 모든 일에도 나는 위안을 얻는다. 결국 그가 어떤 모습이었든, 나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니까."

"모든 진실은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산초는 둘시네아의 변신이 사실은 자신이 꾸며낸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인님이 늘어놓는 헛된 망상들이 전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거짓말을 들킬까 두려워, 산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남자가 그들 뒤를 따라 같은 길을 오며 다가왔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회색 암말을 타고 있었는데, 고운 초록색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 위에는 황갈색 벨벳이 조각조각 덧대어져 있었다. 머리에 쓴 모자 역시 같은 벨벳 재질이었다. 말의 장식과 그가 탄 작은 안장은 모두 보라색과 초록색이었다. 그는 초록색과 금색이 섞인 넓은 가죽띠에 모로코식 곡도를 매달고 있었는데, 신발 역시 그 가죽띠와 같은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박차는 금색은 아니었지만 초록색 칠을 입혀 아주 매끄럽고 윤이 났기에, 옷차림 전체와 잘 어우러져 마치 순금으로 만든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 행인이 그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말을 몰아 지나치려 했다. 그때 돈키호테가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귀하신 신사분, 만약 나리께서 저희와 같은 길로 가시는 중이라면, 서두르실 것 없이 저희와 동행해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암말을 탄 남자가 대답했다. "제 말이 저 말 때문에 놀라 날뛰기라도 할까 봐 걱정되어 그냥 지나치려던 참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이렇게 서둘러 지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리." 이때 산초가 대답했다. "암말의 고삐를 꽉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말이 세상에서 가장 점잖고 분별 있는 놈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추잡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주제넘게 그런 짓을 하려다가, 저와 주인님이 그 대가를 일곱 곱절로 호되게 치렀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멈춰 서셔도 됩니다. 설령 저 암말을 두 접시에 곱게 담아 갖다 바친다 해도, 이놈은 결코 거들떠보지도 않을 테니까요."

행인이 고삐를 당겨 멈춰 섰다. 그는 돈키호테의 늠름한 자태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돈키호테는 투구를 쓰지 않은 채였는데, 산초가 그 투구를 마치 여행 가방처럼 잿빛 당나귀의 길마 앞쪽 안장에 매달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가 돈키호테를 유심히 살피는 만큼, 돈키호테 역시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돈키호테가 보기에 그는 기품 있는 신분인 듯했다. 남자는 쉰 살쯤 되어 보였고, 흰머리는 적었으며 코는 매부리코였다. 눈빛은 명랑하면서도 진중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한마디로 옷차림과 풍채를 보아하니 품격 있는 신사임이 분명했다.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가 돈키호테를 보고 느낀 점은, 저토록 기이한 모습이나 풍채를 지닌 사람은 생전 처음 본다는 것이었다. 그는 돈키호테가 탄 말의 껑충한 길이와, 돈키호테의 큰 체구, 창백하고 노르스름한 얼굴, 그리고 그의 무기와 몸짓과 자태에 감탄했다. 그 지역에서는 아주 오래전에도 저런 형상의 인물을 본 적이 없었다. 돈키호테 역시 행인이 자신을 얼마나 유심히 살피는지 알아차렸고, 멍하니 멈춰선 모습에서 그가 무언가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읽어냈다. 워낙 예의가 바르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돈키호테였기에, 상대가 먼저 묻기도 전에 길을 나서며 이렇게 말을 건넸다.

"귀하께서 저를 보고 놀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모습이 워낙 생소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차림새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사라고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도 더는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이 모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나는 고향을 떠나 재산을 저당 잡히고, 내게 주어진 안락함도 뒤로한 채 운명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운명이 나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주길 바랐지요. 이미 죽어버린 기사도의 명맥을 다시 살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수많은 날 동안 이곳저곳에서 넘어지고 구르고, 낭떠러지로 떨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내 소망을 상당 부분 이루어 왔습니다. 과부들을 돕고, 처녀들을 보호하며, 유부녀와 고아, 그리고 후견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 그것이야말로 편력

기사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용맹하고 경건한 수많은 업적을 쌓은 덕분에, 이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미 3만 권이나 인쇄되었고, 하늘이 막지 않는 한 앞으로도 수천만 번은 더 인쇄될 기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짧게, 아니 단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이며, '슬픈 형상의 기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스스로를 칭송하는 일은 품위를 떨어뜨리는 법이라, 누군가 대신 칭찬해 줄 사람이 없을 때에나 어쩔 수 없이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귀하신 신사여,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이미 알게 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말이나 창, 방패, 혹은 이 종자나 이 모든 무기, 심지어 내 노란 얼굴이나 야윈 몸뚱어리를 보더라도 더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키호테가 이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자, 초록색 옷을 입은 신사는 대답을 하는 데 한참이 걸리는 것으로 보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 침묵을 보고 제 마음을 알아맞히셨군요. 하지만 저를 마주한 경이로움만큼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말씀대로, 기사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경이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사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 저는 더욱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편력기사가 존재할 수 있으며, 기사도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인쇄되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과부를 돕고, 처녀를 보호하며, 유부녀를 예우하고, 고아를 보살피는 이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기사님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면 결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찬양을 돌립니다! 기사님께서 인쇄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고귀하고 진실한 기사도 이야기 덕분에, 세상에 가득했던 가짜 편력기사들의 수많은 이야기는 이제 잊히고 말겠군요. 그 가짜 이야기들이 얼마나 풍속을 해치고, 제대로 된 이야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신뢰를 떨어뜨렸던가요!"

— 편력기사들의 이야기가 가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베르데가 대답했습니다.

—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 이 말은 일단 여기 남겨 두지요. 만약 우리의 여정이 계속된다면, 기사들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의 흐름에 무작정 휩쓸려 간 귀하의 판단이 틀렸음을 반드시 깨닫게 해 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한 이 마지막 말 때문에, 길을 가던 행인은 돈키호테가 분명 정신 나간 자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돈키호테가 다른 말

로도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증명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른 논쟁을 벌이기도 전에, 돈키호테는 자신이 이미 자신의 신분과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니 자신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초록색 외투를 입은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 슬픈 형상의 기사님, 저는 오늘 하느님의 뜻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갈 곳 출신의 어느 귀족입니다. 저는 제법 재산이 넉넉한 편이며, 이름은 돈 디에고 데 미란다라고 합니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보내고 있지요. 사냥과 낚시를 즐기지만, 매나 사냥개를 기르지는 않고 그저 온순한 미끼 자고새나 대담한 페럿 정도를 기릅니다. 책도 일흔두 권(여섯 다스)이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은 스페인어로 쓰인 것이고 어떤 것은 라틴어로 쓰인 것이며, 역사서도 있고 경건한 신앙 서적도 있습니다. 다만 기사도 소설만큼은 아직 제 집 문턱을 넘지 못했지요. 저는 신앙 서적보다는 세속적인 책들을 더 자주 들춰봅니다. 물론 건전한 즐길 거리가 되는 책, 즉 유려한 문장으로 기쁨을 주고 기발한 구성으로 감탄과 몰입을 자아내는 책들 말입니다. 스페인에는 그런 책이 아주 드무니까요. 이웃이나 친구들과 가끔 어울리고 자주 그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제 잔치는 늘 정갈하고 깨끗하며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제 앞에서 남을 헐뜯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지도 않으며, 타인의 행적을 살피는 영민한 눈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선행을 과시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위선과 허영심은 아무리 고결한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파고들어 장악하는 적들이기에,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들

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이 있다면 화해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며, 우리 주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산초 판사는 그 귀족이 들려주는 삶과 취미에 관한 이야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나 선하고 경건하여, 말을 하는 이가 분명 기적이라도 일으킬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산초는 얼른 잿빛 당나귀에서 뛰어내려 아주 급히 달려가더니, 귀족의 오른쪽 등자(鐙子)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경건한 마음으로, 거의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분의 발에 한 번, 아니 여러 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귀족이 산초에게 물었습니다.

— 형제여,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오? 이 입맞춤은 또 무엇이란 말이오?

— 입맞춤하게 해주십시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탄 성인을 뵌 것은 제 평생을 통틀어 나으리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 나는 성인이 아니라 대죄인이오. —그 귀족이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그대야말로 선한 사람임이 틀림없소. 그 순박한 모습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 주고 있구려.

산초는 다시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주인의 깊은 우울함을 웃음으로 날려버린 산초의 모습에 돈 디에고는 새삼 감탄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귀족에게 자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옛 철학자들이 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부족했던 탓에, 대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자연의 축복과 운의 도움, 많은 친구, 그리고 많고도 훌륭한 자식을 두는 일 말입니다.

—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돈키호테 님. —그 귀족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없다면, 아마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바라는 만큼 선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열여덟 살쯤 되었을 겁니다. 지난 6년 동안 살라망카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지요. 그러다 제가 다른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싶어 했더니, 이 아이가 시(詩)라는 학문에, 이를 학문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시키고 싶었던 법학은커녕, 모든 학문의 여왕이라 불리는 신학조차 아이에게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국왕께서 덕망 있고 훌륭한 학문을 높이 치하해 주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덕이 없는 학문은 마치 쓰레기더미에 굴러다니는 진주와 같으니까요. 아이는 온종일 『일리아스』의 어느 구절에서 호메로스가 옳게 말했는지 틀리게 말했는지를 따지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마르티알리스가 어떤 경구에서 품위 없게 굴었는지 아닌지, 혹은 베르길리우스의 이런저런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 저런 식으로 해석해야 할지를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대화 상대라고는 앞서 말한 시인들의 책과 호라티우스, 페르시우스, 유베날리스, 티불루스의 책뿐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페인어 작가들에게는 별 관심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스페인어 시를 못마땅해하면서도, 지금 아이는 살라망카에서 보내온 네 구절의 시에 주석(글로사)을 다느라 정

신이 팔려 다른 생각은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시들이 문학 경연에 출품할 것 같습니다만 말입니다.

그 모든 말에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 귀한 분이시여, 자식은 부모의 장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선하든 악하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영혼을 사랑하듯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덕망과 올바른 훈육,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선한 관습의 길로 인도하여, 장성했을 때 부모의 노년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고 후손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이 학문 저 학문을 강제로 공부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설득해 보는 것 자체는 해롭지 않겠지요. 생계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늘이 내린 복을 받아 공부를 허락해 주는 부모를 둔 학생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이가 가장 마음을 두는 학문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비록 시(詩)라는 학문이 실용성은 덜할지언정 즐거움은 크고, 그 학문을 하는 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도 아니니까요.

귀하신 신사여, 제가 보기에 시란 마치 연약하고 어린 처녀와 같아서, 모든 면에서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다른 수많은 학문이라는 처녀들이 이 처녀를 풍요롭게 하고, 다듬고, 꾸며주기 위해 애를 쓰지요. 시는 그 모든 학문의 도움을 받으며, 동시에 모든 학문은 시를 통해 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이 처녀는 함부로 손을 타거나, 거리로 끌려 나오거나, 광장 구석이나 궁전 구석구석에서 떠벌려지는 것을 원

치 않습니다. 시는 아주 신비로운 연금술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시를 값을 매길 수 없는 순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를 가진 자는 시를 잘 다스려, 천박한 풍자시나 품격 없는 소네트 속에서 날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웅적인 서사시나 비통한 비극, 혹은 즐겁고 정교한 희극이 아니라면, 시는 결코 팔아넘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또한 시를 그 안에 담긴 보물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무지한 대중이나 건달들에게 함부로 다뤄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사여, 제가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 단지 천한 신분의 사람만을 뜻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없다면 귀족이나 왕자라 할지라도 대중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마땅히 그렇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한 요건을 갖추어 시를 대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문명국에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존경받을 것입니다. 또한 아드님이 자국어, 곧 에스파냐 속어로 쓰인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아드님이 조금 잘못 짚은 데가 있는 듯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대한 호메로스는 그리스인이었기에 라틴어로 쓰지 않았고, 베르길리우스는 라틴인이었기에 그리스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대의 모든 시인은 자신이 젖을 먹고 자란 모국어로 글을 썼으며, 자신의 사상을 드높이겠다고 해서 굳이 외국어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관습이 모든 나라에 퍼져야 마땅하며, 독일 시인이 자기 언어로 쓴다고 해서, 혹은 카스티야인이나 바스크인이 자기 언어로 쓴다고 해서 그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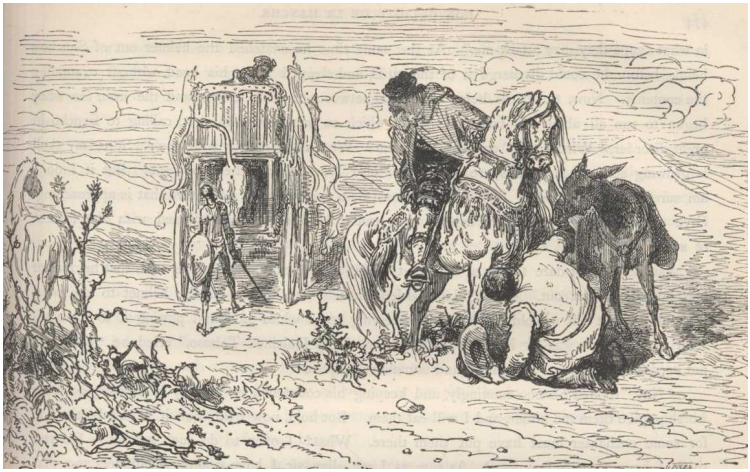
다만 제 생각에 아드님은 자국어 시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영감을 다듬고 깨우고 북돋워 줄 다른 언어나 학문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자국어로만 글을 끄적이는 시인들을 못마땅해하는 것이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틀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참된 의견에 따르면 시인은 태어나는 법입니다. 즉,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타고난 시인이 시인으로 나온다는 뜻이지요. 하늘이 내린 그 재능만으로도 별다른 공부나 기교 없이 시를 짓는데, 이는 "신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한 이의 말이 참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저는 타고난 재능에 기교를 더한 시인이, 기교만 부릴 줄 아는 시인보다 훨씬 훌륭하며 앞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교는 본성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성과 기교가 어우러지고, 기교가 본성과 섞일 때 비로소 가장 완벽한 시인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귀하신 신사여,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드님이 자신의 별이 부르는 길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아드님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훌륭한 학생이라면, 이미 학문의 첫 계단인 언어를 성공적으로 밟아 올랐으니, 그 언어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인문학의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 학문은 칼을 찬 기사에게 참으로 잘 어울리며, 주교의 미트라(mitra)가 주교를 빛내듯, 혹은 법학자의 예복이 법학자를 빛내듯, 기사의 품격을 높여주고 명예를 드높여 줄 것입니다. 만약 아드님이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풍자시를 쓴다면 엄히 꾸짖고 벌을 주어 그 글을 찢어버리십시오. 하지만 호라티우스가 그토록 우아하게 했던 것처럼 악덕 일반을 꾸짖는 풍자시를 쓴다면 오히려 칭찬해 주십시오. 시인이 시기심에 맞서 글을 쓰고, 시 구절을 통해 시기하는 자들을 비난

하는 것은, 그리고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는 한 그 밖의 다른 악덕들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담 한마디를 하겠다고 폰토스의 섬으로 유배당할 위험을 무릅쓰는 시인들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지요. 시인의 품행이 정결하다면 그의 시 또한 정결할 것입니다. 펜은 영혼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속에서 어떤 사상이 잉태되느냐에 따라 글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국왕과 군주들은 현명하고 덕망 있으며 진중한 이들이 보여주는 시라는 신비로운 학문을 보게 되면, 그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며 부를 쌓아줄 뿐만 아니라, 벼락도 침범하지 못하는 나무의 잎사귀로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 줍니다. 이는 그러한 관(冠)으로 관자놀이를 장식한 채 영예를 누리는 이들을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리라는 징표인 것입니다.

초록 외투를 입은 신사는 돈키호테의 논리에 감탄했습니다. 그 논리가 어찌나 뛰어난지, 돈키호테를 미치광이로 여겼던 생각마저 점차 사라질 정도였습니다. 한편 산초 판사는 이런 긴 이야기가 딱히 취향에 맞지 않았던 터라, 근처에서 양젖을 짜고 있던 목동들에게 우유를 좀 얻어 마시려고 길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마침 신사는 돈키호테의 분별력과 훌륭한 말솜씨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돈키호테가 고개를 들더니, 자신들이 가던 길 쪽에서 왕실 깃발로 가득한 마차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것이 분명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려는 징조라고 믿고, 산초를 향해 투구를 가져오라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부름을 들은 산초는 목동들을 뒤로하고 서둘러 잿빛 나귀를 몰아 주인에게 달려갔는데, 바로 그 주인에게 참으로 놀랍고도 황당한 사건이 닥치게 됩니다.

제17장



제17장. 돈키호테의 전대미문의 용기가 도달했고 또 도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극한의 경지와, 사자들과의 모험이 다행히 마무리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에 따르면,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투구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산초는 마침 목동들에게 리코타 치즈를 사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이 워낙 급하게 재촉하는 바람에 산초는 치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에 담아 가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값을 다 치른 치즈를 버릴 수는 없었기에, 산초는 차라리 주인님의 투구 챙이 안에 치즈를 넣어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치즈를 챙겨 들고서야 산초는 다시 주인님에게 달려갔고, 돈키호테는 산초가 다가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그 투구 좀 이리 내주게. 내가 모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네만, 저기 보이는 저것은 분명 내가 무장을 갖춰야 할, 아니 무장을 갖추라고 나를 부르고 있는 어떤 모험인 듯하군."

초록 외투를 입은 신사가 이 말을 듣고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으나, 그들에게 다가오는 마차 한 대 말고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차에는 작은 깃발 두세 개가 꽂혀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 국왕 폐하의 화폐를 운반하는 마차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돈키호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모험이고 또 다른 모험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준비를 갖춘 자는 절반은 싸워 이긴 법이지. 내가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네. 내 경험상 눈에 보이는 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들이 언

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공격해 올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 아니겠나.”

그러고는 다시 산초에게로 몸을 돌려 투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산초는 치즈를 꺼낼 틈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투구를 있는 그대로 건네주었습니다. 돈키호테는 투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머리에 썼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치즈가 짓눌리고 짜지면서, 돈키호테의 얼굴과 수염 위로 치즈 국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모습에 너무 놀라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초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머릿속이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뇌가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구나. 아니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흐르는 것인가? 만약 땀이 나는 것이라면, 결코 두려워서 흘리는 게 아니다. 분명 지금 나에게 닥치려는 모험이 아주 무시무시한 놈인 게 틀림없어. 혹시 닦을 만한 것이 있다면 좀 다오. 이 엄청난 땀 때문에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구나.”

산초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다행히 주인님이 이 상황이 치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을 보며, 산초는 속으로 신께 감사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얼굴을 닦아낸 뒤, 대체 무엇이 머릿속을 차갑게 만드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투구를 벗었습니다. 투구 안에 든 하얀 치즈 덩어리들을 본 돈키호테는 그것을 코끝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내 목숨 걸고 맹세하건대, 이 배신자 같고 악랄하고 못된 종자 놈아! 네가 지금 내 머리에 넣어둔 것은 다 리코타 치즈가 아니냐!"

그러자 산초는 아주 침착하고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치즈라면 차라리 제게 주십시오. 제가 다 먹어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그 치즈를 거기다 집어넣은 놈은 악마가 먹어 치워야 마땅할 겁니다. 제가 감히 주인님의 투구를 더럽힐 배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대담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다니, 정말이지 대단한 오해십니다! 맹세컨대, 제 생각에는 저를 괴롭히는 마법사들이 분명히 있는 모양입니다. 주인님을 모시는 저를 시기해서, 주인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평소처럼 저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 더러운 것을 거기다 넣어둔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헛다리를 짚은 셈입니다. 저는 주인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니까요. 주인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치즈도 없고 우유도 없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만약 제게 그런 게 있었다면, 투구 속에 넣는 대신 제 배 속에 먼저 넣었을 테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 신사는 눈앞에 벌어진 모든 일을 지켜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돈키호테가 머리와 얼굴, 수염, 그리고 투구까지 깨끗이 닦아낸 뒤 다시 투구를 머리에 썼을 때 그 경이로움은 더욱 컸습니다. 그러고는 등자에 발을 단단히 딛고 서서, 칼을 단단히 갖추고 창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닥치든 상관없다. 나는 사탄 본인과 직접 맞붙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깃발을 단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이라고는 노새를 몰며 가는 마부와, 앞쪽에 앉아 있는 사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돈키호테는 마차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디로 가는 길이오? 이 마차는 무엇이며, 그 안에 실린 것은 무엇이고, 저 깃발들은 또 무엇이란 말이오?" 돈키호테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이 마차는 제 것입니다. 안에 실린 것은 오란의 사령관이 폐하께 진상하려고 궁정으로 보내는, 우리에 갇힌 사나운 사자 두 마리입니다. 저 깃발들은 우리 주군이신 국왕 폐하의 것으로, 이곳에 폐하의 물건이 실려 있음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마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자들이 덩치가 큰가요?" 돈키호테가 물었습니다.

"그 정도로 큽니다." 마차 문 옆에 있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껏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건너온 사자 중에 이보다 더 크거나 덩치 큰 놈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자 사육사인데, 다른 사자들도 여럿 옮겨 봤지만 이놈들 같은 놈은 본 적이 없어요. 암수 한 쌍입니다. 수컷은 이 첫 번째 우리에, 암컷은 뒤쪽 우리에 들어 있지요. 게다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디 길을 비켜 주십시오. 어서 빨리 가서 먹이를 줘야 하거든요."

돈키호테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사자라고? 나한테 사자 새끼들을, 그것도 이 시각에? 맹세컨대, 이 사자들을 이리로 보낸 저 양반들이 똑똑히 봐야 할 게다. 내가 사자 따위에 겁먹을 사람인지 말이야! 이보게, 착한 양반, 어서 내리게. 자네가 사자 사육사라면 그 우리들을 열고 저 짐승들을 밖으로 내놓게. 이 벌판 한복판에서, 나에게 저놈들을 보낸 마법사들이 아무리 약을 올려도,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누구인지 저놈들에게 똑똑히 알려 줄 테니까!"

"에이, 참!" 그 순간 신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훌륭하신 기사가 어떤 사람인지 본색을 드러냈구먼. 저 치즈가 분명히 머릿속을 흐물흐물하게 만들고 골을 물러 터지게 해 버린 게 틀림없어."

그때 산초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리, 제발 하느님을 봐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제 주인 돈키호테 님께서 저 사자들과 맞붙지 않으시도록 좀 말려 주십시오. 만약 정말로 맞붙으셨다가는, 우리 모두 여기서 갈가리 찢겨 죽고 말 겁니다."

"아니, 당신 주인이 그렇게까지 미쳤단 말이오?" 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렇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덤벼들까 봐 그토록 겁을 내며 그리 믿는 거요?"

"미친 게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막아 보겠소." 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신사가, 사자 사육사에게 어서 우리를 열라고 재촉하고 있던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편력기사라면 모험을 마주했을 때 잘 풀릴 가망이 보이는 일에 뛰어들어야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일에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모함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용기는 용기라기보다 광기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사자들은 기사님을 공격하러 오는 것도, 그럴 생각조차 없습니다. 국왕 폐하께 바치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막거나 방해해서 좋을 게 무엇이겠습니까?" 신사가 말했습니다.

"신사님, 가서 그 길들인 자고새 미끼나 대담한 족제비나 데리고 사냥이나 즐기시지요."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제 할 일이나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건 제 일입니다. 저 사자 나리들이 저를 찾아오든 말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사자꾼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 당장 그 우리를 열지 않으면, 이 창으로 네놈을 마차에 꿰매 버리겠다!"

마부는 그 무장한 허깨비 같은 사내의 결연한 기세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자들이 우리에서 풀려나기 전에, 제가 노새들의 멍에를 벗기고 그놈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만약 사자들이 제 노새들을 죽인다면, 저는

평생을 망치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마차와 노새들 말고는 재산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요."

"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여!"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어서 내려서 노새들의 멍에를 벗기고 마음대로 하게나. 하지만 곧 자네가 헛수고를 했음을, 차라리 이 수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임을 깨닫게 될 테니 말일세."

마차꾼은 내려서 급히 노새들의 멍에를 벗겼고, 사자 사육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원치 않는데도 억지로 우리를 열어 사자들을 풀어놓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께 분명히 항의하건대, 이 짐승들이 끼치는 모든 해악과 피해는 제 급료와 수당까지 더하여 모두 이분 부담으로 돌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신사 여러분, 제가 문을 열기 전에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저야 이놈들이 저를 해치지 않으리라 확신하니까요."

신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벌이는 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짓이라며 다시 한번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사는 잘 생각해 보라고, 자기가 보기에 돈키호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자, 신사님." 돈키호테가 대꾸했습니다. "보시기에 비극으로 치닫게 될 이 광경을 굳이 지켜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서 그 잿빛 암말에 박차를 가해 몸을 피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산초 판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발 그런 무모한 짓은 그만두시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번 모험에 비하면 예전의 풍차 모험이나 그 무시무시했던 물방아(축융기) 모험은, 아니 평생 그가 감행했던 모든 모험을 다 합쳐도, 그저 애들 장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산초가 말했습니다. "여기엔 마법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저 우리 창살과 틈새 사이로 진짜 사자의 발톱을 봤단 말입니다. 그 발톱을 보니, 저 발톱의 주인인 사자는 아마 산더미만큼이나 거대할 게 분명합니다."

"적어도 두려움이라는 놈 때문에, 네 눈에는 저 사자가 세상 절반만큼은 커 보일 게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물러나거라, 산초. 나를 좀 내버려 둬. 만약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면, 우리 사이의 옛 약속을 기억하겠지? 둘시네아를 찾아가거라. 더는 말하지 않겠다."

돈키호테는 여기에 몇 마디 더 덧붙여, 자신의 그 미친 시도를 기어이 밀어붙이고야 말 것임을 분명히 하여 그를 말릴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꺾어 버렸습니다. 초록 외투의 신사도 그를 막고 싶었지만, 무기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게다가 돈키호테가 이미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터라 미치광이와 맞붙는 것은 분별 있는 짓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사이 돈키호테가 다시 사자 사육사를

재촉하며 위협을 거듭하자, 그 틈을 타 신사는 암말에, 산초는 잿빛 나귀에, 마부는 자기 노새들에 박차를 가하여, 모두가 사자들이 우리에서 풀려나기 전에 마차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애썼습니다.

산초는 주인이 사자의 발톱에 죽게 될 것이라 굳게 믿으며, 그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고, 다시 주인을 모시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그 시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울며 한탄하면서도, 마차에서 멀어지라고 나귀를 채찍질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사육사는 도망치던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보고, 돈키호테에게 이미 했던 경고와 명령을 다시 한번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그 말을 듣고 있다고 대답하며, 아무리 경고하고 명령해 봤자 아무 소용없을 테니 그만하고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사자 사육사가 첫 번째 우리를 여는 동안, 돈키호테는 말 위에서 싸우는 것보다 땅에 내려서 싸우는 편이 나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로시난테가 사자들을 보고 겁을 먹을까 걱정되어, 땅에서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에서 뛰어내려 창을 던져두고 방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뽑아 들고, 놀라울 정도로 용맹하고 씩씩한 기세로 한 걸음 한 걸음 마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기도한 뒤, 자신의 여인인 둘시네아에게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대목에 이르러, 이 참된 이야기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외치며 말합니다. "오, 강인하고 무엇보다도 숭고하며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

테여! 세상의 모든 용사가 우러러볼 거울이자, 스페인 기사들의 영광이요 명예였던 레온의 돈 마누엘을 잇는 제2의 새로운 영웅이여! 이토록 경악스러운 위업을 대체 어떤 말로 전해야 하며, 다가올 후세에 어떻게 믿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설령 모든 과장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과장이라 할지라도, 그대에게 어울리고 딱 들어맞지 않을 찬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대는 두 발로, 그것도 홀로, 두려움 없이 의연하게, 오직 칼 한 자루만을 들고 서 있구나. 그마저도 잘 들기로 이름난 명검도 아니요, 방패 또한 그리 번쩍이고 깨끗한 강철로 된 것도 아니건만, 그대는 아프리카의 밀림이 길러낸 가장 사나운 사자 두 마리를 마주하고 기다리며 맞서고 있도다. 용맹한 라만차의 기사여, 그대의 행적 자체가 그대를 찬양하게 하라. 나는 그것을 드높일 말을 찾지 못해, 여기서 그 이야기를 이대로 멈추려 하노라."

저자의 외침은 여기서 멈추고, 그는 다시 이야기의 실타래를 이어가며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사자 사육사가 돈키호테를 향해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을 보고, 만약 수사자의 우리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분노한 용맹한 기사의 화를 피할 수 없으리라 판단한 사육사는 첫 번째 우리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앞서 말했듯 사자가 들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실로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생김새 또한 무시무시하고 흉측했습니다. 사자는 우리 안에 누워 있다가 가장 먼저 몸을 뒤척이더니, 앞발을 뻗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벌려 아주 천천히 하품을 했는데, 혀를 두 뼘 가까이 길게 내밀어 눈가를 털고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우리 밖으로 내밀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그 눈빛과 몸짓은 그 자체로 보는 이를 겁에 질리게

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오직 돈키호테만이 사자가 어서 마차에서 뛰어내려 자신에게 달려들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사자를 붙잡아 갈기갈기 찢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전례 없는 광기는 여기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기품 있는 사자는 오만하기보다 오히려 침착한 편이었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사방을 한 번 둘러본 뒤에는 돈키호테의 유치한 장난이나 허세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자는 그저 등을 돌려 돈키호테에게 엉덩이를 보이고는, 아주 태연하고 느긋하게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사육사에게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사자를 자극해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전 못 하겠습니다." 사육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자를 자극했다가는, 사자가 가장 먼저 갈기갈기 찢어버릴 대상은 바로 저 자신이 될 테니까요. 기사님, 이미 충분히 용맹을 떨치셨으니 이쯤에서 만족하십시오. 용기라는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무모하게 운을 시험하려 들지 마십시오. 사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나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사자의 처분에 달린 일이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 종일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기사님의 대담함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용맹한 전사라면 적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들판에서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면 치욕은 적의 몫이 될 것이고, 기다린 쪽이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말이 맞소."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문을 닫으시오. 그리고 방금 내가 보여준 모습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증언해 주시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하오. 당신이 사자를 풀어주었을 때 나는 기다렸으나 사자는 나오지 않았고, 다시 기다려 보았으나 사자는 여전히 나오지 않은 채 다시 누워버렸다는 사실 말이오. 나는 이보다 더 할 필요가 없소. 마법의 장난 따위는 집어치우고, 부디 신께서 도리와 진실, 그리고 진정한 기사도를 지켜 주시기를! 자, 아까 말한 대로 문을 닫으시오. 나는 도망치거나 자리를 비운 이들에게 손짓을 해서, 당신의 입을 통해 이 위대한 업적이 전해지도록 하겠소."

사육사는 말한 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치즈 비를 맞으며 닦아냈던 천을 창끝에 매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기 바쁜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기사에게 겁을 먹은 채 멀리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초가 하얀 천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말했습니다.

“제 주인이 저 맹수들을 이기지 못했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주인이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산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신호를 보내는 이가 돈키호테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두려움을 조금씩 떨쳐내며, 자신들을 부르는 돈키호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곳까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마차로 돌아갔고, 마차에 도착하자 돈키호테가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다시 노새를 매고 길을 떠나시오. 그리고 산초, 너는 저 마부와 사자 사육사에게 금화 두 에스쿠도를, 한 사람에 하나씩 주어라. 나 때문에 길을 멈춘 것에 대한 보답이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그러자 사자 사육사는 싸움의 결말을 자세하게, 중간중간 쉬어 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한 최대한 돈키호테의 용맹함을 과장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사육사의 말에 따르면, 사자는 우리 문이 한참 동안이나 열려 있었는데도 돈키호테를 보자 겁에 질려 감히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육사 자신이 그 기사에게, 사자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자극하는 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말했기에, 기사는 비록 사자를 자극하길 원했으나 마지못해 제 뜻과는 달리 문이 닫히도록 허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초야, 네 생각은 어떠냐?" 돈키호테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용맹함에 맞설 수 있는 마법이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마법사들이 내 운을 앗아갈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노력과 기개만큼은 결코 꺾지 못할 것이다."

산초 판사가 에스쿠도를 건네자 마차꾼은 멍에를 멨습니다. 사자 사육사는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며 돈키호테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는 훗날 궁정에 가게 되면 이 용맹한 무용담을 국왕 폐하께 직접 전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좋다, 만약 폐하께서 누가 이 일을 해냈느냐고 물으신다면, '사자의 기사'라고 답하거라. 나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쓰던 '슬픈 형상의 기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 이름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옛 편력 기사들이 원할 때나 혹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이름을 바꾸곤 했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마차는 길을 떠났고,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리고 초록색 외투를 입은 사내는 각자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동안 돈 디에고 데 미란다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키호테가 하는 행동과 말을 주의 깊게 살피며 관찰하는 데만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돈키호테는 제정신인 듯하면서도 미친 사람 같았고, 또 미친 사람 같으면서도 제정신인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담긴 1편이 그에게 알려지기 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1편을 읽었더라면, 돈키호테의 행동과 말에 이토록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광기를 부리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내용을 전혀 몰랐기에, 돈키호테가 하는 말은 조리 있고 품격 있으며 유창한 반면, 하는 행동은 터무니없고 무모하며 어리석다 보니 그를 제정신인 동시에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투구 안에 치즈를 가득 채워 넣고는, 마법사들이 자기 머리를 물렁하게 만들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믿는 것보다 더한 광기가 어디 있겠는

가? 그리고 사자와 억지로 맞서 싸우려 드는 것보다 더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돈키호테는 이런 상상과 혼잣말에서 그를 불러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디에고 데 미란다 나리, 저를 미친 사람이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행동이 그 증거이니, 설령 그렇게 보신다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리 눈에 비친 것만큼 그렇게 미쳤거나 모자란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넓은 광장 한복판에서 왕의 눈앞에 당당히 서서 용맹한 황소를 창으로 찔러 승리를 거두는 기사는 늠름해 보입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갖춰 입고 귀부인들 앞에서 즐겁게 마상 시합을 벌이는 기사도 훌륭해 보이지요. 군사 훈련을 하거나 그와 비슷한 활동을 하며 군주의 궁정을 즐겁게 하고, 감히 말하자면 그 명예를 높이는 기사들도 모두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방랑 기사답게 보이는 이는, 황량한 벌판과 외딴곳, 갈림길과 숲, 그리고 산맥을 헤매며 위험천만한 모험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명성과 영원히 남을 이름을 얻기 위해, 그 모험을 행운과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 말입니다. 제 말은, 도시에서 처녀에게 구애하는 궁정 기사보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과부를 도와주는 방랑 기사가 훨씬 더 기사답다는 뜻입니다. 기사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법이지요. 궁정 기사는 귀부인들을 섬겨야 하고, 왕의 궁정을 화려한 복식으로 빛내야 하며, 가난한 기사들에게는 자신의 풍성한 식탁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마상 시합을 주선하고 토너먼트를 열

어 자신의 관대함과 너그러움, 그리고 위엄을 보여주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사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랑 기사는 세상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가장 복잡한 미로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고, 발걸음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맞서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텅 빈 황무지에서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야 하고, 겨울에는 매서운 바람과 얼어붙는 추위를 버텨내야 합니다. 사자를 보고 놀라거나, 괴수에 겁을 먹거나, 용 같은 괴물에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맞서 싸우며, 모두 물리치는 것이야말로 방랑 기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진정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운명처럼 방랑 기사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으니, 제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방금 제가 사자에게 맞서려 한 것도 제게 주어진 당연한 일이었던 셈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나친 무모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란 비겁함과 무모함이라는 두 극단적인 악덕 사이에 놓인 덕목이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아니까요. 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 무모함의 경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비겁함의 경계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낭비벽이 있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보다 관대해지기는 쉬워도, 비겁한 사람이 진정한 용기를 갖추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니 돈 디에고 나리, 모험을 마주함에 있어서는 차라리 조금 과한 탓에 명성을 잃는 편이 낫다는 점을 믿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귀에는 '저 기사는 무모할 정도로 용맹하다'라는 말이 '저 기사는 겁쟁이다'라는 말보다 훨씬 듣기 좋으니까요."

“돈키호테 나리,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돈 디에고가 대답했습니다. “나리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모두 이성이라는 저울로 재어 보아도 한 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만약 편력 기사도의 규율과 법전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나리의 가슴 속에는 마치 소중한 보관소나 기록 보관소처럼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으니 서두릅시다. 어서 제 마을과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야 나리께서 그간 겪으신 고생을 좀 쉬실 수 있을 테니까요. 몸이 고된 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음고생은 심하셨을 테니, 마음의 피로가 결국 몸의 피로로 이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돈 디에고 나리, 그 제안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이자 큰 호의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속도를 내어 달렸고, 돈키호테가 '초록 외투의 기사'라고 부르던 돈 디에고의 마을과 집에 도착했을 때는 대략 오후 두 시쯤이었습니다.

제18장



제18장. 초록 외투 기사의 성 혹은 저택에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일과 그 외 기상천외한 사건들

돈키호테가 보니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의 저택은 마을 집처럼 널찍했다. 다만 대문 위에는 투박한 돌로 새긴 가문의 문장(紋章)이 걸려 있었고, 안뜰에는 포도주 저장고가, 현관에는 지하 저장실이 있었으며,

그 둘레에는 항아리들이 빙 둘러 놓여 있었다. 그 항아리들이 엘 토보소산(産)이었던 까닭에, 그것들은 그에게 마법에 걸려 변해버린 둘시네아를 떠올리게 했다. 돈키호테는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누구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말했다.

"오, 내 불행 속에서 마주한 달콤한 보물들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던 그 시절엔 달콤하고도 즐거웠던 것들이여!"

"오, 엘 토보소의 항아리들이여! 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그 달콤한 보물을 떠올리게 하다니!"

돈 디에고의 아들이자 시인을 꿈꾸는 학생이 이 말을 들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돈키호테를 맞이하러 나왔다가,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습에 모자가 모두 넋을 잃고 말았다. 한편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서 내려와 아주 정중하게 다가가 부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 했고, 이에 돈 디에고가 말했다.

"부인, 눈앞에 계신 이 라만차의 돈키호테 경을 평소처럼 너그럽게 맞아주십시오. 이분은 편력기사이시며,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고도 명석한 분이십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이름의 부인은 아주 다정하고 정중하게 그를 맞아주었다. 돈키호테 역시 매우 사려 깊고 절제된 태도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넸다. 그는 학생에게도 거의 같은 태도로 정중히 대했는데,

돈키호테가 말하는 것을 들은 학생은 그가 매우 명석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저자는 돈 디에고의 저택이 어떤 모습인지 상세히 묘사하며, 부유한 지주 가문의 집이 갖추어야 할 모든 면모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번역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묘사나 그와 비슷한 사소한 이야기들은 차라리 생략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런 군더더기들은 이 이야기의 본래 목적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차가운 잡담보다는 진실한 사건 속에 그 힘이 실려 있다.

돈키호테는 방 안으로 들어갔고, 산초가 그의 무기를 모두 벗겨주었다. 돈키호테는 발론(valones)과 카무사(camuza) 소재의 주본(jubón) 차림이 되었는데, 무기에서 묻어난 때 때문에 옷이 온통 번들거렸다. 목깃은 풀을 먹이지도 않고 레이스 장식도 없는 학생 스타일의 발론 형태였다. 반장화는 대추야자처럼 짙은 갈색이었고, 신발은 왁스를 칠해 반질거렸다. 그는 바다표범 가죽으로 만든 가죽 띠에 매달린 훌륭한 검을 허리에 찼는데, 그 가죽으로 말하자면 오랫동안 신장병을 앓았다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였다. 또한 질 좋은 갈색 모직물로 만든 짧은 외투를 걸쳤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그는 다섯 솥, 혹은 여섯 솥 — 솥의 개수에 대해서는 말이 조금 엇갈린다 — 정도 되는 물로 머리와 얼굴을 씻어냈다. 그런데도 씻고 난 물은 여전히 유청 같은 뿌연 색이었는데, 이는 산초의 식탐과 그가 사 온 형편없는 리코타 치즈 탓에 주인의 얼굴이 그토록 허옇게 되어버렸던 까닭이었다. 이렇게 옷차림을 갖춘 돈키호테는 품위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른 방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식탁을 차리는 동안 돈키호테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크리스티나 부인은 이토록 귀한 손님이 찾아온 만큼,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얼마나 잘 대접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

돈키호테가 무기를 벗으며 채비를 갖추는 동안, 돈 디에고의 아들인 로렌소가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에게 데려오신 이 기사가 대체 누구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 이름과 모습, 그리고 스스로를 편력기사라 칭하는 것을 보니 저와 어머니 모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얘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구나." 돈 디에고가 대답했다. "그저 내가 본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을 저지르다가도 그 행동을 다 잊게 만들 만큼 아주 명석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라는 것만 말해줄 수 있겠구나. 네가 직접 말을 걸어보고 그가 얼마나 아는지 한번 살펴보렴. 너는 식견이 있으니, 그가 제정신인지 아니면 바보인지 네가 판단해 보거라. 사실대로 말하자면, 나는 그를 제정신인 사람보다는 미치광이로 보고 있단다."

말을 마친 로렌소는 앞서 말한 대로 돈키호테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돈키호테가 로렌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귀하의 아버님이신 돈 디에고 데 미란다 님께서, 귀하가 가진 보기 드문 재능과 예리한 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하가 위대한 시인이라는 소식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시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로렌소가 대답했다. "위대한 시인이라니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제가 시를 좀 좋아하고 훌륭한 시인들의 작품을 읽기도 하지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대한 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 겸손함이 참으로 보기 좋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세상에 오만하지 않은 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예외 없는 규칙이란 없지요." 로렌소가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오만한 시인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사람은 드물 겁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런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를 쓰고 계신가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그 시 때문에 무척이나 마음을 졸이며 고민에 빠져 계신다던데 말입니다. 혹시 주석을 다는 글이라면, 제가 주석을 다는 법을 조금은 압니다만, 괜찮으시다면 한번 살펴보고 싶군요. 만약 문학 경연 대회에 나갈 작품이라면, 부디 2등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1등은 언제나 사람의 인맥이나 뛰어난 배경이 차지하기 마련이고, 2등이라야 오로지 실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3등은 결국 2등이나 다름없고, 그렇게 따지면 1등은 사실상 3등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셈이지요. 대학교에서 주는 학위 같은 것도 다 그런 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해도, '1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은 참으로 대단한 법이지요."

"이 정도라면," 로렌소가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은 이분을 미치광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겠어.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그는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아하니 나으리께서는 학문을 닦으신 모양인데, 어떤 학문을 공부하셨습니까?"

"기사도 학문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시학만큼이나 훌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 두 마디만큼은 더 낫지요."

"그런 학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로렌소가 대답했다.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군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 혹은 거의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학문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학문을 닦는 이는 법률가여야 하기에, 각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과 적절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배분적 정의와 교환적 정의의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학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서든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교의 법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의사이자 무엇보다 약초학에 능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적 드문 황야나 사막 한가운데서도 상처를 치유할 효능이 있는 풀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력기사가 걸핏하면 상처를 고쳐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점성술사도 되어야 합니다. 별을 보고 밤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자신이 세상의 어느 곳, 어느 기후에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수학도 알아야 합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학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테니까요. 게다가 신학적 덕목과 사대 덕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사소한 것들을 더 덧붙이자면 니콜라오라는 물고기가 헤엄쳤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수영도 잘해야 합니

다. 말 편자를 박는 법과 안장과 고삐를 손질하는 법도 알아야 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과 자신의 귀부인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생각은 순결해야 하고, 말은 정중해야 하며, 행동은 너그러워야 하고, 실천은 용맹해야 합니다. 고된 일은 인내해야 하며, 궁핍한 이들에게는 자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령 진리를 수호하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끝까지 진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요소가 모여야 비로소 훌륭한 편력기사가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돈 로렌소 나리, 이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사가 익히는 것이 고작 어린애 장난 같은 학문인지, 아니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거창한 학문들과 견줄 만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다면," 로렌소가 대답했다. "그 학문은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도 뛰어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정말로 그렇다면 말입니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 말은 이겁니다." 로렌소가 말했다. "그토록 많은 미덕을 갖춘 편력기사가 과거에 있었는지, 혹은 지금 존재하기라도 하는지 저는 의심스럽군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세상 사람 대부분은 편력기사라는 존재가 과거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편력기사가 과거에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는 진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을 통해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빠져 있는 그

오류를 제가 지금 당장 바로잡으려 애쓰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하늘에 기도할 뿐입니다. 하늘께서 귀하를 그 오류에서 건져주시기를, 그리고 지난 세기에 편력기사가 세상에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했는지, 또 지금 그들이 활동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귀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나태함과 게으름, 탐욕과 방탕함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손님이 우리 손아귀에서 슬쩍 빠져나가 버렸군." 로렌소가 이때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렇긴 해도 저분은 참으로 기개 넘치는 광인이야. 만약 내가 저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나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놈이겠지."

식사하라는 부름을 받고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났다. 돈 디에고는 아들에게 손님의 기지(機智)를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러자 로렌소가 대답했다.

"세상의 그 어떤 의사나 솜씨 좋은 필경사가 온다 해도 저분을 그 광기의 초고(草稿)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저분은 맑은 정신이 드는 순간이 수시로 끼어드는, 아주 묘하게 뒤섞인 광인이에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다. 음식은 돈 디에고가 오는 길에 손님들에게 대접하겠다며 호언장담했던 대로 아주 깔끔하고 풍성하며 맛이 좋았다. 하지만 돈키호테를 가장 만족시킨 것은 집안 전체를 감도는 경이로운 정적이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카르투시오 수도원처럼 엄숙하기까지 했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보를 치운 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손을 씻은 돈키호테는 로렌소에게 아까 말했던 문학 경연

의 시들을 꼭 들려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그러자 로렌소가 대답했다. 자신은 누군가 간청할 때는 시를 안 읊어대다가, 정작 시를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쏟아내 버리는 그런 시인들과는 다르다며 말이다.

"…제 주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을 바라고 쓴 게 아니라, 그저 재주를 갈고닦으려고 지어본 것이니 상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게 식견 있는 친구가 한 분 있었는데,"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분은 누구도 시를 주해하는 일에 부질없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인즉, 주해라는 것은 결코 원문의 뜻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해는 원문이 의도하고 목표로 하는 바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거나, 적어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해의 규칙은 지나치게 까다롭기까지 합니다. 질문을 던질 수도 없고, '말했다'나 '말하리라'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없으며, 동사를 명사로 만들거나 의미를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해를 하는 이들은 이처럼 수많은 제약과 굴레에 묶여 있습니다."

"정말이지, 돈키호테 님." 로렌소가 말했다. "어떻게든 귀하의 말꼬리를 붙잡아 허점 하나라도 들춰내고 싶은데, 마치 장어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니 도무지 잡을 수가 없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가 장어처럼 빠져나간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리지요." 로렌소가 대답했다. "우선은 제가 주석을 달아 쓴 시와 그 주석에 집중해 주십시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나의 과거가 다시금 현재가 된다면, 더 이상의 미래를 기다릴 것도 없이, 혹은 다가올 미래의 시간이 벌써 찾아온다 해도 말입니다!"

주석

결국 모든 일이 그러하듯, 운명이 내게 베풀어 준 행운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어지다 끝이 나고 말았다. 운명은 내게 다시는 풍요로운 복을 돌려주지 않았고, 그 양 또한 일정하지 않았다. 운명이여, 내가 당신 발치에 엎드린 지도 이미 수 세기가 흘렀으니, 부디 나를 다시금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오. 나의 과거가 다시금 현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될 것이오. 나는 다른 즐거움이나 영광, 다른 승리나 정복, 혹은 또 다른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오. 그저 내 기억 속에서 슬픔으로 남아 있는 그 시절의 만족감을 되찾고 싶을 뿐이오. 운명이여, 당신이 나를 그 시절로 되돌려만 준다면, 내 마음의 타오르는 고통도 모두 가라앉을 것이오. 만약 그 복이 더 기다릴 것도 없이 곧바로 찾아온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불가능한 것을 구하고 있구려.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되돌리는 일은 이 세상 그 어떤 권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오. 시간은 흘러가고, 날아가듯 빠르게 지나가며 결코 되돌아오지 않소. 그러니 시간을 되돌려달라거나,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말하거나, 혹은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오. 나는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소. 죽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니,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며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편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소. 나로서는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이득이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삶을 이어갈 명분을 주기 때문이오.

로렌소가 주석을 다 마치자, 돈키호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마치 비명처럼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외치며, 로렌소의 오른손을 움켜쥐고 말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저 하늘에 맹세코, 고결한 청년이여,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이오! 그러니 월계관을 쓸 자격이 충분하오. 어떤 시인이—신께서 그를 용서하시기를—말했듯 키프로스나 가에타에서가 아니라, 만약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면 아테네의 학술원들에서, 그리고 지금도 건재한 파리, 볼로냐, 살라망카의 학술원들에서 월계관을 받아 마땅하오! 그대에게 첫 번째 상을 주지 않는 심판관들이 있다면, 태양신 아폴론이 그들에게 화살을 퍼붓고 뮤즈들이 그들의 집 문턱을 영영 넘지 않기를 하늘에 빌겠소. 선생, 괜찮으시다면 운율이 긴 시 몇 구절을 더 들려주시오. 그대의 경이로운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속속들이 가늠해보고 싶으니 말이오."

로렌소가 돈키호테를 미치광이라 여겼으면서도, 그에게서 찬사를 받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 아첨의 힘이란 이토록 대단하단 말인가. 아첨이 미치는 범위는 대체 어디까지이며, 그 달콤한 권세의 경계는 또 얼마나 넓은 것인가! 로렌소는 이 사실을 몸소 증명이라도 하

듯, 돈키호테의 요청과 바람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고는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우화 혹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소네트를 들려주었다.

소네트

아름다운 처녀가 담을 허물고 나타나니, 용맹한 피라모스의 가슴을 열었도다. 키프로스의 사랑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기적 같고도 좁은 틈을 직접 확인하려 달려가네. 그곳에서는 침묵만이 말을 하니, 너무도 좁은 틈새로 감히 목소리가 비집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함이라. 하나 영혼만은 가능하리니, 사랑은 본래 가장 어려운 일도 해내곤 하는 법이니까. 욕망은 절제를 잃고 날뛰고, 앞뒤 가리지 않는 처녀는 제 욕심을 채우려 죽음을 향해 발을 내딛네. 아, 이 얼마나 기이한 이야기인가! 칼 한 자루가 두 사람을 동시에 죽이고, 무덤이 그들을 덮으며, 기억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하느님을 찬양하라!" 돈 로렌소가 읊은 소네트를 들은 돈키호테가 말했다. "세상에 수많은 시인이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중에서도 귀하처럼 진정한 시인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축복된 일이옵니다. 이 소네트에 담긴 기교만 보아도 귀하가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알 수 있나이다."

돈키호테는 돈 디에고의 저택에서 나흘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나흘이 지난 뒤 그는 떠나겠다는 허락을 구하며, 그동안 저택에서 받은 친절과 극진한 대접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방랑 기사가 너무 오랫동안 유흥과 안락함에 빠져 지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제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길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근방에 모험거리가 풍부하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사라고사에서 열릴 마상 시합 날을 기다릴 계획이었다. 그 사라고사 시합이야말로 그가 곧장 향해 가던 목적지였다. 또한 그는 그 전에 반드시 몬테시노스의 동굴에 들르겠다고 덧붙였다. 그 주변에서는 몬테시노스에 관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흔히 루이데라라고 불리는 일곱 개의 호수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떤 근원을 가지고 흐르는지도 직접 알아보고 조사할 생각이었다.

돈 디에고와 그의 아들은 돈키호테의 명예로운 결단에 찬사를 보냈다. 그러고는 저택에 있는 것이나 자신들의 재산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져가라고 말하며,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돈키호테라는 인물이 지닌 용기와 그가 택한 명예로운 직업을 생각하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마침내 떠날 날이 밝았다. 돈키호테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었으나, 산초 판사에게는 슬프고도 불길한 날이었다. 산초는 돈 디에고의 저택에서 누리는 풍족한 생활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나머지, 다시 숲속과 황량한 들판을 헤매며 겪어야 할 배고픔과 텅 빈 괴나리봇짐의 허기를 마주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초는 봇짐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 채워 넣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돈키호테가 로렌소에게 말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말씀드렸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군요. 만약 귀하께서 명성의 신전이라는 그 닿기 힘

든 정상에 더 빠르고 수월하게 도달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길이 다소 좁고 험난한 시인의 길은 잠시 접어두고, 훨씬 더 좁고 험한 기사의 길을 택하십시오. 그 길만으로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귀하를 황제로 만들어 드리기에 충분하니까요."

돈키호테는 이런 이유를 들어 자신의 광기 어린 논리를 마무리 지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며 말을 이었다.

"하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로렌소 도련님을 모시고 가서 제가 따르는 기사직에 깃든 덕목, 곧 복종하는 자는 용서하고 오만한 자는 굴복시켜 짓밟는 법을 직접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연세가 아직 어려 그럴 형편이 못 되고, 도련님이 힘쓰시는 그 훌륭한 학문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테니 어쩔 수 없군요. 다만 시인이 되시려는 귀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남의 의견을 더 따르며 글을 쓰신다면 명성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 자식을 못생겼다 여기지 않는 법인데, 지성이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이 착각이 한층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돈키호테가 내놓는 논리가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터무니없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한번 그에게 감탄했다. 또한 불운한 모험을 찾아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리는 그 외곬의 집착과 끈기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돈키호테에게 있어 모험이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간절한 염원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서로 정

중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성주 부인의 허락을 받아 돈키호테와 산초는 각각 로시난테와 그의 당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다.

제19장



제19장. 사랑에 빠진 목동의 모험과 그 밖의 여러 재미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돈키호테가 돈 디에고의 집을 떠나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성직자나 학생처럼 보이는 두 사람과 나귀 네 마리에 짐을 싣고 오는 농부 두 명

을 만났다. 학생 중 한 명은 초록색 거친 천에 싸인 보따리를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약간의 흰 고급 천과 코르델라테 양말 두 켤레가 들어 있는 듯 보였다. 다른 학생은 끝에 가죽 보호 단추를 씌운 새 검은색 연습용 검 두 자루만 들고 있을 뿐이었다. 농부들이 가져온 물건들은 그들이 큰 마을에서 물건을 사서 자기 마을로 가져가는 중임을 짐작게 했다. 학생들과 농부들 모두 돈키호테를 처음 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도대체 저렇게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딴판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돈키호테가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이 가는 길이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안 돈키호테는 동행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농부들의 당나귀들이 자신의 말보다 더 빨리 걷고 있으니 걸음을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 돈키호테는 그들의 동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 곳곳을 누비며 모험을 찾아다니는 편력기사라는 자신의 직업과 신분을 짧게 설명했다. 그는 본명이 돈키호테 데 라 만차이며, 별칭은 사자의 기사라고 말했다. 농부들에게 이 모든 말은 그리스어나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처럼 들렸으나, 학생들은 달랐다. 학생들은 돈키호테의 머릿속이 얼마나 빈약한지 곧바로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키호테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존경하며 바라보았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기사님, 만약 모험을 찾아 떠나는 분들이 대개 그렇듯 정해진 목적지가 없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라만차는 물론이고 이 근방 수십 리 안에서도 본 적 없을 만큼 성대하고 풍성한 결혼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결혼식이 그토록 대단하다니 혹시 어느 왕자의 결혼식인지 물었다.

"아닙니다." 학생이 대답했다. "왕족은 아니고 농부와 농가 처녀의 결혼식입니다. 신랑은 이 땅에서 제일가는 부자이고, 신부는 사람들이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지요. 결혼식 준비가 아주 특별하고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부의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초원에서 식을 올릴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처녀를 '아름다운 키테리아'라고 부르고, 신랑은 '부유한 카마초'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열여덟 살이고 신랑은 스물두 살로, 두 사람은 더없이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다만 세상 모든 가문의 족보를 꿰고 있다는 유별난 사람들은 아름다운 키테리아의 가문이 카마초보다 더 높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력이라는 게 워낙 막강해서 웬만한 결함은 다 메워주니까요. 실제로 카마초는 통이 아주 커서, 초원 전체를 위에서부터 덩굴로 뒤덮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태양 빛이 땅을 덮은 초록 풀잎을 구경하러 들어오려면 아주 애를 먹을 정도가 될 겁니다. 또한 마을 사람 중에는 방울을 달아 요란하게 흔들어대는 춤꾼들도 있어, 검무나 방울춤 같은 화려한 춤도 선보일 예정이지요. 발을 구르며 추는 춤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기가 막힌 솜씨를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나,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다른 수많은 구경거리보다도 이 결혼식을 훨씬 더 잊지 못할 사건으로 만들 것은, 바로 실연당한 바실리오가 벌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실리오는 키테리아와 같은 마을에 사는 청년인데, 키테리아의 부모님 댁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잊혔던 피라모와 티스베의 사랑 이야기가 되살아났다고 말하곤 합니다. 바실리오는 아주 어릴 때부터 키테리아와 사랑에 빠졌고, 키테리아 역시 그 마음에 정중하고도 다정한 태도로 화답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어린 바실리오와 키테리아의 사랑 이야기를 재미삼아 이야기하곤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자라자, 키테리아의 아버지는 바실리오가 평소처럼 자기 집을 드나드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딸을 부유한 카마초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은 적고 재주만 많은 바실리오와 결혼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시기심 없이 사실대로 말하자면, 바실리오는 우리가 아는 청년 중 가장 날렵한 친구입니다. 쇠막대 던지기에 뛰어나고, 씨름 솜씨가 빼어나며, 공놀이 실력도 대단합니다. 사슴처럼 달리고 염소보다 더 높이 뛰며,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구주희 핀을 쓰러뜨리는 솜씨가 일품이지요. 노래는 종다리처럼 잘 부르고 기타 연주도 기가 막히게 해서 기타가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보다 검술 실력만큼은 일류 못지않습니다."

"그 재주만으로도,"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청년은 아름다운 키테리아는 물론이고, 설령 여왕 기네브라가 지금 살아 있다 한들 그녀와 결혼할 자격이 충분하네. 란살로테나 그를 방해하려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야."

"그 말씀이라면 우리 마님께 딱이올시다!"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산초 판사가 말했다. "우리 마님으로 말하자면, '각자 제 짝을 찾아야 한다'는 속담처럼 끼리끼리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거

든요. 제 바람은 그저, 벌써 정이 들기 시작한 저 착한 바실리오가 저 키테리아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맺어지는 걸 방해하는 자들이야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아차, 거꾸로 말하려던 거였는데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결혼해야 한다면," 돈키호테가 말했다.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정하고 시기를 결정할 권한과 법적 권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네. 만약 딸들의 뜻대로 남편을 고르게 한다면, 어떤 이는 아버지의 하인을 고를 것이고, 또 어떤 이는 길을 지나가던 사람 중 제 눈에 멋지고 훤칠해 보인다는 이유로, 설령 그가 엉망진창인 검객일지라도 선택해 버릴 것이네. 사랑과 연정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신분을 선택할 때 꼭 필요한 이성의 눈을 너무나 쉽게 멀게 만들기 때문이지. 혼인을 결정하는 일은 잘못될 위험이 매우 크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세심한 주의와 하늘의 특별한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려 할 때, 신중한 사람이라면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믿음직하고 평온한 동행을 구하는 법이네. 하물며 죽음이라는 목적지까지 평생을 걸어가야 할 사람은 어떻겠나? 더군다나 아내가 남편과 함께 침상과 식탁, 그리고 모든 곳을 늘 함께하는 법인데, 어찌 동행을 구하지 않겠는가? 아내라는 존재는 한 번 사면 돌려주거나 바꾸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네. 아내는 평생을 함께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이지. 아내라는 인연은 일단 목에 거는 순간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혀버리는 밧줄과 같아서, 죽음의 낫이 그 매듭을 끊어주지 않는 한 결코 풀 수 없다네.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네만, 저 석사 나리께서 바실리오의 이야기에 대해 더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이만 줄이겠네."

이에 그 학생, 곧 학사였으나 돈키호테가 석사라 부른 그가 대답했다.

"바실리오가 부유한 카마초와 아름다운 키테리아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이후로, 그가 웃거나 조리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늘 생각에 잠겨 슬픈 기색으로 혼잣말만 중얼거리는데, 그 모습은 그가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분명하고도 또렷한 징후입니다. 먹는 것도 적고 잠도 거의 자지 않습니다. 겨우 먹는 것이라곤 과일뿐이고, 잠을 잔다 해도 들판의 딱딱한 땅 위에서 짐승처럼 몸을 뉘일 뿐입니다.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또 어떤 때는 넋이 나간 듯 땅바닥만 뚫어지게 응시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람에 옷자락만 흔들리는, 옷을 입은 조각상 같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이 너무나 타들어 가는 기색이 역력해서, 그를 아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키테리아가 내일 결혼을 승낙한다면 그것이 곧 바실리오의 사형 선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약도 주시는 법이니까요.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내일까지도 아직 한참 남았고, 집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비가 오다가도 갑자기 해가 뜨는 걸 저도 봤습니다. 밤에는 멀쩡히 누워 있다가도 다음 날이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운명의 수레바퀴에

못을 박아 멈춰 세웠다고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 없지요. 여자의 대답이 '예'가 될지 '아니요'가 될지, 저는 그 사이에 바늘 끝 하나도 끼워 넣을 엄두가 안 납니다. 그 틈이 너무 좁아서 들어가지도 않을 테니까요. 그저 키테리아가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실리오를 받아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바실리오에게 행운이 가득 담긴 자루를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사랑이란 게 참 묘해서, 구리를 금처럼 보이게 하고 가난을 부유함처럼 느끼게 하며, 눈곱조차 진주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산초야, 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딴 망측한 소리를 지껄이느냐? 네가 속담이니 이야기니 하며 말을 늘어놓기 시작할 때면, 유다 같은 놈이 너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못 박는 것이나 수레바퀴 같은 걸 알아서 떠드는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아이구,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 제 격언이 헛소리로 들리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라도 알아들으면 됐으니까요. 제가 한 말 중에 아주 바보 같은 소리는 별로 없었다는 걸 저 스스로는 잘 압니다. 다만 주인님께서 늘 제 말은 물론이고 행동까지도 사사건건 '트짐'을 잡으시니 그런 것뿐입니다."

"'트짐'이 아니라 '트집'이라고 해야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올바른 언어를 망치는 녀석 같으니, 하느님께서 너를 혼쭐내주시기를!"

"제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궁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살라망카에서 공부를 한 것

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말을 할 때 글자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고 있는지 알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시골뜨기더러 톨레도 사람처럼 말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톨레도 사람 중에서도 세련되게 말하는 솜씨가 그리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고말고요." 학사가 말했다. "무두질 공방 거리나 소코도베르 장터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대성당 회랑을 거니는 사람들만큼 말을 잘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비록 그들 모두가 톨레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순수하고 적절하며, 우아하고 명료한 언어는 지혜로운 궁정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설령 그들이 마할라혼다 같은 시골 구석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제가 '지혜로운'이라는 말을 덧붙인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움이야말로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기 위한 문법이며, 이는 꾸준한 습관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라망카에서 교회법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덕에 명료하고 평이하며 뜻이 분명한 말로 제 생각을 밝히는 일에 적잖이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니고 다니시는 그 검은 연습용 검을 휘두르는 솜씨를 학문보다 더 자랑하지만 않으셨더라면," 다른 학생이 말했다. "학위 시험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신 것과는 달리, 당당히 수석을 차지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보게, 학사생," 학사가 대답했다. "자네는 검술이 헛된 것이라 여기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네."

"나에게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라네." 코르추엘로가 대답했다. "만약 경험을 통해 직접 보여주길 원한다면 기꺼이 그러겠네. 자네는 검을 지녔고, 마침 여건도 좋으며, 내게는 흔들림 없는 손과 완력이 있네. 여기에 적잖은 내 결기까지 더해진다면,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자네도 인정하게 될 걸세. 자, 말에서 내려보게. 자네가 가진 발놀림과 회전, 각도 계산과 지식을 마음껏 발휘해 보라고. 내 투박하면서도 현대적인 검술로 자네가 대낮에 별이 보이게 만들어 줄 테니까. 하느님 다음으로 내가 믿는 바, 나를 등 돌려 달아나게 할 사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내가 발붙일 곳조차 잃게 만들지 못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네."

"등을 돌리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나는 끼어들지 않겠네." 검술의 달인이 대답했다. "다만 자네가 처음 발을 내디딘 그 자리에 바로 무덤이 파일지도 모르겠다는 말은 해두지. 내 말은, 자네가 그토록 무시하는 내 검술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네."

"이제 곧 알게 될 걸세." 코르추엘로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아주 재빨리 나귀에서 뛰어내리더니, 학사가 자기 나귀에 싣고 있던 칼 중 하나를 맹렬히 뽑아 들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오!" 그 순간 돈키호테가 끼어들며 말했다. "내가 이 검술의 스승이 되고, 여러 번 다투었어도 아직 결판나지 않은 이 문제의 심판이 되고자 하오."

그는 로시난테에서 내려 창을 움켜쥐고 길 한복판에 섰다. 마침 학사가 몸놀림을 우아하게 하며 발걸음을 맞추어 코르추엘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고, 코르추엘로 역시 눈에서 불을 뿜으며 그를 향해 달려들던 참이었다. 일행 중 다른 두 농부는 나귀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이 치명적인 비극을 지켜보는 관객이 되었다. 코르추엘로가 휘두르는 칼질과 찌르기, 위아래로 오가는 칼날과 반격, 그리고 맹렬한 공격은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간처럼 빽빽하고 우박처럼 잘게 쪼개져 있었다. 그는 화가 난 사자처럼 달려들었지만, 학사가 휘두르는 칼날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번번이 공격을 저지했다. 덕분에 코르추엘로는 분노에 휩싸인 와중에도 마치 성물이라도 되는 양 칼끝에 입을 맞추어야 했다. 물론 성물을 대할 때만큼 경건한 태도는 아니었지만 말이다.

결국 학사는 칼끝으로 찔러 대며 코르추엘로가 입고 있던 짧은 겉옷의 단추를 모조리 떨어뜨렸고, 치맛자락은 마치 문어 다리처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학사는 그의 모자를 두 번이나 떨어뜨리며 그를 몹시 괴롭혔다. 참다못한 코르추엘로는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올라 칼자루를 움켜쥐고는 허공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곁에서 지켜보던 농부 중 서기였던 한 남자가 그 칼을 주우러 갔다가 나중에 증언하기를, 칼이 몸에서 거의 3/4레구아나 날아갔다고 했다. 이 증언은 기술이 힘을 어떻게 굴복시키는지를 진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로 쓰이고 있다.

코르추엘로는 지쳐서 자리에 주저앉았고, 산초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학사님. 제 조언을 받아들이신다면,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칼싸움을 하자고 도전하지 마십시오. 대신 씨름을 하거나 쇠막대 던지기를 하자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엔 연세도 알맞고 힘도 충분하시지 않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소위 칼솜씨가 뛰어나다는 자들은 바늘귀에 칼끝을 집어넣을 정도라더군요."

"나는 내 나귀에서 떨어진 것만으로도, 다시 말해 내 잘못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네." 코르추엘로가 대답했다.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 진실을 경험이 내게 보여주었으니, 그걸로 충분하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학사를 껴안으며 이전보다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서기가 칼을 챙기러 간 사이 기다리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기에, 그들은 서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모두의 고향인 키테리아 마을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곧장 길을 떠났다.

길을 가는 동안 학사는 칼이 얼마나 뛰어난 물건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설명했다. 그는 온갖 논리적인 근거와 비유, 수학적 증명까지 동원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 설명을 듣던 사람들은 모두 학문의 위대함을 깨달았고, 코르추엘로 역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수긍했다.

어느덧 밤이 깊었으나,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의 눈앞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이 펼쳐졌다. 또한 피리, 작은 북, 켕기, 심벌즈, 탬버린, 딸랑이 같은 온갖 악기들이 내는 부드럽고도 어우러진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입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마을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둔 나무 그늘 아래에 수많은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아주 잔잔하여 나뭇잎조차 흔들지 못할 정도였기에,

등불은 바람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환하게 빛났다. 악사들은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잔치패였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 무리로 나뉘어, 어떤 이는 춤을 추고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며, 또 어떤 이는 앞서 말한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며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참으로 그 초원 전체에 기쁨이 달음박질치고 즐거움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듯한 풍경이었다.

다른 많은 이들은 비계를 세우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중에 부유한 카마초의 결혼식과 바실리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마련된 이곳에서, 사람들이 공연과 춤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이었다. 농부와 학사가 간곡히 권했음에도 돈키호테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비록 황금빛 지붕 아래일지라도, 편력기사라면 마을보다는 들판이나 숲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관례라며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핑계를 댔다. 그러고는 산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을 조금 벗어나 걷기 시작했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예전에 돈 디에고의 성이나 저택에서 누렸던 안락한 숙소를 떠올리며 못내 아쉬워했다.

제20장



제20장. 부유한 카마초의 결혼 잔치와 가난한 바실리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하얗게 밝아온 새벽이 지나고, 눈부신 페보 신이 뜨거운 광채를 내뿜으며 황금빛 머리카락에 맺힌 액체 진주 같은 이슬을 닦아낼 무렵이었다. 돈키호테는 몸에 밴 나른함을 떨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종자 산초를 불렀다. 돈키호테는 산초를 깨우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다.

"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복 받은 자여! 너는 질투를 품지도 않고 남의 질투를 받지도 않으며,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어 있구나. 마법사들이 너를 쫓아다니지도 않고, 어떤 마법도 너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구나! 잠을 자거라. 내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다시 말하마. 네 여인이 너를 질투하여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도 없고, 갚아야 할 빚 때문에 고민하며 밤을 지새우는 일도 없으며, 너와 네 작고 가련한 가족이 내일 먹고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일도 없으니 말이다. 욕심이 너를 괴롭히지도 않고, 세상의 허황된 겉치레가 너를 지치게 하지도 않는구나. 네 욕망의 끝은 그저 네 나귀를 생각하는 것뿐이니 말이다. 정작 네 몸뚱이는 내 어깨에 얹혀 있지 않느냐? 자연과 관습이 주인에게 지운 짐이자 무게가 바로 그것이다. 종자는 잠들었으나 주인은 깨어 있구나. 종자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형편을 낫게 하며, 은혜를 베풀지 고민하느라 말이다. 하늘이 구리 빛으로 변해 대지에 적절한 이슬을 내려주지 않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는 것은 종자가 아니라 주인이다. 풍요와 넘침 속에서 자신을 섬겼던 이에게, 이제는 메마른 땅과 굶주림 속에서 먹을 것을 대줘야 하는 이가 바로 주인이지 않느냐."

산초는 잠에 취해 있었기에 이 모든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돈키호테가 창 자루 끝으로 쿡쿡 찔러 정신이 들게 하지 않았더라

면 그렇게 빨리 깨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마침내 산초는 비몽사몽간에 게으른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렇게 말했다.

"제 착각이 아니라면, 이 정자 쪽에서 갈대나 타임 향기보다는 노릇하게 구운 베이컨 냄새가 훨씬 더 진하게 풍겨 나옵니다. 이런 냄새로 시작하는 잔치라면, 제 신의를 걸고 말하건대 분명 엄청나게 풍성하고 너그러운 결혼 잔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만 좀 해라, 이 식탐 많은 녀석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가자, 저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버림받은 바실리오가 무엇을 하는지 직접 보러 가자꾸나."

"그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가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키테리아와 결혼했을 텐데요. 동전 한 푼 가진 주제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려 하다니, 그게 될 말입니까? 정말이지 주인님, 제 생각엔 가난한 사람은 제 손에 들어오는 것에 만족해야지, 바다 한가운데서 진귀한 것을 내놓으라 떼를 써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 팔을 걸고 장담하건대, 카마초는 바실리오를 레알 은화 속에 파묻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럴 것이 틀림없으니, 키테리아가 카마초가 이미 주었고 또 앞으로도 줄 수 있는 화려한 옷과 보석을 마다하고 바실리오의 쇠막대 던지기나 검술 솜씨를 택한다면 그야말로 바보짓이지요. 술집에서는 멋진 쇠막대 던지기 한 판이나 근사한 검술 한 수에 포도주 반 잔도 내주지 않는 법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 재주와 재간이라면, 그것을 디를로스 백작이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하지만 그런 재주가 돈 많은 사람에게 깃든다면, 제 인생도 그 재주만큼

이나 근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한 기초 위에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초이자 토대는 바로 돈이니까요."

"하느님 맙소사, 산초야."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일장연설 좀 그만 끝내거라. 네가 걸핏하면 늘어놓기 시작하는 그 말들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었다간, 말하는 데 시간을 다 써버려서 밥 먹을 새도 잠잘 새도 없을 것 같구나."

"주인님께서 기억력이 좋으시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집을 나설 때 맺었던 약속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약속 중 하나는, 제가 남을 비방하거나 주인님의 권위를 거스르지만 않는다면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속 따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이제 그만 입을 다물고 따라오너라. 어젯밤 우리가 들었던 악기 소리가 다시금 골짜기를 즐겁게 울리고 있지 않느냐. 분명 혼례는 뜨거운 오후가 아니라 선선한 아침에 치러질 터이니 말이다."

산초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로시난테에게는 안장을 얹고 회색 나귀에게는 짐안장을 얹은 뒤, 두 사람은 각자 올라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뭇가지로 엮은 그늘 길을 따라 들어갔다.

산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느릅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꼬챙이 삼아 꿴 채 구워지고 있는 송아지 한 마리였다. 송아지를 굽는 불

속에는 자그마한 산만큼이나 많은 장작이 타오르고 있었고, 모닥불을 빙 둘러 놓인 솥 여섯 개는 흔히 보는 평범한 솥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커다란 술독을 반으로 자른 것으로, 하나하나가 도축한 짐승을 통째로 담고도 남을 만큼 컸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양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마치 새끼 비둘기라도 들어 있는 양 표도 나지 않게 푹 잠겨 버렸다. 솥에 넣으려고 나무에 매달아 둔, 껍질을 벗긴 토끼와 털을 뽑은 닭도 셀 수 없이 많았다. 또 갖가지 새와 사냥한 짐승들이 바람에 식으라고 나무마다 끝없이 매달려 있었다.

산초는 두 아로바가 넘게 들어가는 자루를 예순 개도 넘게 세어 보았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자루들은 모두 질 좋은 포도주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타작마당에 쌓인 밀더미처럼 눈부시게 하얀 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치즈는 마치 격자무늬 벽돌을 쌓아 올린 듯한 모습으로 성벽을 이루고 있었고, 염색용 통보다 더 큰 기름 솥 두 개에서는 반죽 요리를 튀겨내고 있었다. 요리사들은 커다란 뒤집개 두 개를 들고 튀겨낸 음식들을 건져 올려, 바로 옆에 놓인 꿀이 담긴 다른 솥에 푹 담갔다.

요리사는 남녀를 합쳐 쉰 명이 넘었다. 모두가 깨끗한 차림에 부지런히 움직였으며, 표정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구워지고 있는 송아지의 넓은 배 안에는 작고 연한 새끼 돼지 열두 마리가 들어 있었다. 요리사들은 돼지들을 배 안에 넣고 꿰매어 놓았는데, 이는 송아지의 맛을 더하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갖가지 향신료도 무게를 재어 파는 수준이 아니라 아로바 단위로 사들인 듯 보였으며, 커다란 궤짝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혼 잔치 준비는 소박한 듯

하면서도 그 양이 어찌나 풍성한지 군대 하나를 먹이고도 남을 정도였다.

산초 판사는 그 모든 광경을 눈에 담고 또 눈에 담으며, 보이는 것마다 군침을 흘렸다. 우선은 커다란 솥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저 솥에 담긴 아주 맛 좋은 국물로 든든한 한 끼를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다음에는 가득 찬 자루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는 프라이팬에 튀겨내는 음식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사실 저렇게 둥글고 커다란 솥을 프라이팬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였다. 결국 산초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움직이던 요리사 중 한 명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주 공손하면서도 배고픈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저 솥 중 하나에 빵 한 조각을 적셔 먹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자 요리사가 대답했다.

"형씨, 오늘은 부유한 카마초 덕분에 배고픔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날이라오. 저기 가서 국자라도 하나 찾아보쇼. 그러고는 닭 한두 마리 정도 건져 먹으면 아주 맛있을 거요. 맛있게 드시오."

"그런 건 안 보이는데요." 산초가 대답했다.

"기다려 보시오." 요리사가 말했다. "아이구, 이 죄 많은 사람아! 어쩜 그리 까다롭고 유난을 다 떨며, 겨우 그것 때문에 그러시오!"

말을 마친 요리사는 작은 솥 하나를 집어 들더니, 반으로 자른 그 커다란 항아리 중 하나에 푹 담갔다가 닭 세 마리와 거위 두 마리를 건져 올렸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말했다.

"자, 친구, 어서 들게나. 점심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건져 낸 것으로라도 요기를 해두라고."

"그걸 담아 먹을 그릇이 없는데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럼 숟가락까지 통째로 가져가게나." 요리사가 말했다. "카마초의 막대한 재산과 풍요로움이 부족한 건 무엇이든 다 채워줄 테니까."

산초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돈키호테는 정자 한쪽으로 농부 열두 명이 더없이 아름다운 암말 열두 마리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말들은 화려하고 멋스러운 시골풍 마구를 갖추었고, 가슴걸이에는 방울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농부들은 모두 축제 분위기에 맞춰 잔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들판을 가로질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나 힘차게 내달렸다. 그러면서 즐겁게 떠들고 소리치며 이렇게 외쳤다.

"카마초와 키테리아 만세! 그는 그녀가 아름다운 만큼 부유하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그 소리를 들은 돈키호테가 혼잣말로 말했다.

"이 사람들은 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본 적이 없는 모양이군. 만약 그녀를 직접 봤더라면, 저 키테리아라는 여자를 찬양하기는커녕 당장 입을 다물었을 텐데 말이야."

잠시 후, 정자 곳곳에서 여러 종류의 춤사위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검무도 있었는데, 늠름하고 기운찬 모습의 소년 스물네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소년들은 모두 얇고 눈부시게 하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며, 머리에 두르는 천에는 여러 색깔의 고운 비단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이때 말을 타고 가던 이들 중 한 명이 춤꾼들을 이끄는 날렵한 청년에게, 혹시 춤을 추다 다친 사람은 없는지 물었다.

"지금으로서는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무사합니다."라고 그 청년이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다른 동료들과 어우러져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이 어찌나 화려하고도 능숙하게 돌아가던지, 평소 이런 춤사위를 자주 보아온 돈키호테조차 이번만큼 멋지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그다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처녀들이 들어와 추는 춤도 돈키호테의 눈에는 무척 보기 좋았다. 처녀들은 모두 십사 세는 넘고 열여덟 세는 되지 않아 보이는 풋풋한 나이였고, 초록빛 고운 모직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일부는 땋고 일부는 길게 늘어뜨린 차림이었다. 머리카락이 어찌나 금빛으로 빛나는지 태양 빛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 그 위에는 재스민과 장미, 아마란스와 인동초를 엮어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다. 그 앞에는 인자해 보이는 노인과 할머니가 길을 안내하며 따라갔는데,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걸음걸이가 가볍고 경쾌했다. 자모라 지방

의 백파이프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처녀들은 얼굴과 눈매에는 정숙함을, 발걸음에는 경쾌함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무용수처럼 보였다.

그다음으로는 기교를 부린 춤, 이른바 '말하는 춤'이 이어졌다. 여덟 명의 요정이 두 줄로 나뉘어 등장했는데, 한 줄은 큐피드가 이끌었고 다른 한 줄은 이욕(利慾)이 이끌었다. 큐피드는 날개와 활, 화살통과 화살로 몸을 치장했고, 이욕은 금사와 비단으로 만든 화려하고 다채로운 옷을 입고 있었다. 사랑을 따르는 요정들은 등 뒤에 흰 양피지를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각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요정의 이름은 시(詩)였고, 두 번째는 신중, 세 번째는 명문가, 네 번째는 용맹이었다. 이욕을 따르는 요정들의 이름도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었다. 첫 번째는 관대함,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는 보물, 네 번째는 평화로운 소유였다. 그들 맨 앞에는 나무로 만든 성이 있었는데, 담쟁이덩굴과 초록색으로 물들인 삼베옷을 입은 네 명의 야만인이 그 성을 끌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 나던지 산초 판사는 하마터면 겁을 먹을 뻔했다. 성의 정면과 네 면의 벽면에는 '정숙의 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들의 춤사위에는 북과 피리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네 명의 악사가 장단을 맞추었다.

큐피드의 춤이 시작되었다. 큐피드는 두 번의 대형 변화를 마친 뒤, 눈을 치켜뜨고 성벽의 총안 사이에 자리한 한 처녀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드넓고 출렁이는 바다와 무시무시한 심연이 품은 모든 곳을 다스리는 강력한 신이다! 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불가능한 것을 원한다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으며, 가능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빼앗고, 부여하고, 금할 권한이 있다!"

노래가 끝나자 큐피드는 성벽 위로 화살을 한 발 쏘아 올리고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어 이욕(利慾)이 등장하여 두 번의 대형 변화를 선보였다. 북소리가 잦아들자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랑보다 강한 존재이며, 사랑조차 나를 이끈다. 나는 하늘이 땅 위에 낳은 그 어떤 혈통보다 더 고귀하고, 더 널리 알려졌으며, 더 위대하다. 나는 '이해관계'다. 나를 따르면서 선하게 행동하는 이는 드물고, 나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에게 바치노니, 영원무궁토록, 아멘.”

'이해관계'가 물러가자 '시'가 앞으로 나섰다. '시'는 다른 이들처럼 여러 차례 대형 변화를 선보인 뒤, 성안의 처녀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입을 열었다.

"고귀하신 여인이시여, 지극히 감미로운 '시'가 천 개의 소네트에 온 마음을 담아 당신께 바칩니다. 저의 이 끈질긴 구애가 혹여 당신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당신의 운명을 제가 달의 테두리 위로 드높여 올리겠습니다."

'시'가 물러나자 '이해관계'가 있던 자리에서 '관대함'이 나타났다. '관대함'은 여러 차례 대형 변화를 선보인 뒤 입을 열었다.

"낭비와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베풂을 '관대함'이라 부르지요. 반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미지근하고 나약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면 오늘부터 더욱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허물일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베푸는 명예로운 허물이 될 테니까요. 베풂이야말로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법이지요."

그렇게 두 진영의 인물들이 모두 차례로 나왔다가 물러갔다. 각자 몸짓을 바꾸며 자신의 시를 읊었는데, 어떤 것은 우아했고 어떤 것은 우스꽝스러웠다. 그중에서 앞서 소개한 시구들만은 돈키호테가—기억력이 워낙 좋았던 터라—외워 두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모두 뒤섞여 품격 있는 몸짓과 능숙한 솜씨로 매듭을 묶었다 풀었다 하며 춤을 추었다. '사랑'이 성 앞을 지날 때면 화살을 높이 쏘아 올렸고, '이해관계'가 지날 때는 성을 향해 황금 돈궤를 깨뜨렸다.

한참 동안 춤이 이어지더니, 마침내 '이해관계'가 커다란 로마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돈이 가득 들어 있는 듯한 주머니였다. '이해관계'가 그 주머니를 성을 향해 내던지자, 그 충격으로 성의 판자들이 어긋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 바람에 처녀는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말았다. '이해관계'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듯 일행을 이끌고 다가와 처녀의 목에 커다란 황금 사슬을 걸자, 사람들은 처녀를 붙잡아 굴복시키고 포로로 삼는 시늉을 했다.

이를 본 '사랑'과 그 추종자들이 처녀를 되찾아오려는 듯 행동했고, 이 모든 광경은 작은 북소리에 맞춰 일제히 춤을 추며 화려하게 펼쳐졌다. 그러다 '야만인'들이 나타나 상황을 정리하자, 그들은 아주 재빠르게 성의 판자들을 다시 조립하고 고정했다. 처녀는 다시 성 안에 갇혔고, 구경하던 이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가운데 춤판은 막을 내렸다.

돈키호테가 요정 중 한 명에게 이 행사를 누가 기획하고 준비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요정은 이 마을의 한 성직자가 이런 기발한 발상을 해내는 뛰어난 재주를 가졌기에 그가 꾸민 것이라고 대답했다.

"내 장담하건대,"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학사인지 성직자인지 하는 사람은 바실리오보다는 카마초와 더 친한 자일 것이네. 게다가 경건한 기도보다는 풍자에 더 능한 모양이야. 바실리오의 재주와 카마초의 재력을 이 춤판에 아주 기가 막히게 버무려 놓았으니 말일세!"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산초 판사가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미는 닭이오. 나는 카마초 편입니다."

"결국,"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 너는 정말 평범한 마을 사람답구나. '이긴 자가 최고다!'라고 외치는 그런 부류 말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겠군요. 바실리오의 솥에서는 카마초의 솥에서 얻은 이 거품처럼 근사한 건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산초는 거위와 닭이 가득 담긴 솥을 보여주더니, 그중 한 마리를 집어 들고는 아주 능청스럽고 맛있게 먹기 시작하며 말했다.

"바실리오의 재주 따위야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가진 게 곧 가치고, 가치 있는 만큼 가진 법이니까요.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가문뿐이라고 하셨지요. 바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인데, 할머니께서는 가진 자의 편을 드셨습니다. 주인님 돈키호테님, 오늘날에는 아는 것보다 가진 것이 먼저 대접받는 법입니다. 금칠을 한 당나귀가 길마만 얹은 말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저는 다시 한번 카마초의 편을 들겠습니다. 카마초의 솥에는 거위와 닭, 산토끼와 집토끼가 거품처럼 넘쳐나니까요. 반면에 바실리오의 솥은, 운 좋게 손에 닿는다면 모를까, 설령 발치에 굴러온다 해도 그저 멀건 맹탕이나 될 겁니다."

"산초야, 네 훈계는 다 끝났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다 끝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 말이 주인님을 괴롭게 해 드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만약 주인님께서 중간에 제 말을 끊지 않으셨다면, 사흘은 꼬박 걸렸을 겁니다."

"산초야,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금 우리 걸음걸이로 봐서는요."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미 흙이나 씹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

상 끝날 때까지, 아니, 적어도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못 할지도 모르지요."

"설령 정말 그렇게 된다 해도, 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내뱉은 말들이 도달한 그 깊이만큼 네 침묵이 도달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평생 말을 하고, 또 계속해서 말을 해야만 하는 존재니까 말이다. 게다가 자연의 이치로 보아도 네가 죽는 날보다 내가 죽는 날이 먼저 오는 것이 마땅하니, 나는 네가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결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 말이다. 이 점은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구나."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그 뼈만 앙상한 여자, 그러니까 죽음이란 놈은 도무지 믿을 게 못 됩니다. 죽음은 어린 양이든 다 자란 양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잡아먹으니까요. 저희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죽음은 왕들의 높은 탑이든 가난한 이들의 초라한 오두막이든 똑같은 발로 짓밟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까다로움보다 위세가 더 센 분이라, 비위가 약한 구석이라곤 전혀 없어서 무엇이든 다 먹고 무슨 짓이든 다 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과 나이와 지위를 가리지 않고 제 자루에 쓸어 담습니다. 낮잠이나 자는 게으른 일꾼이 아니라 때를 가리지 않고 휘둘러 마른 풀이든 푸른 풀이든 죄다 베어 넘기는 낫과 같지요. 게다가 음식을 꼭꼭 씹는 게 아니라 앞에 놓인 것이라면 무엇이든 통째로 집어삼키고 꿀꺽 넘겨 버립니다. 굶주린 개처럼 게걸스러워 도무지 배부른 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배는 없는데도, 마치 수종에 걸린 사람처럼, 살아 있는 모든 이의 목숨을 시원한 물 한 항아리 들이켜듯 마셔 대고 싶어 안달이 난 듯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산초야."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적당히 하고 선을 넘지 마라. 네가 방금 죽음에 대해 투박한 말투로 늘어놓은 말들은, 훌륭한 설교사가 할 법한 말이었다. 산초야, 네가 타고난 성품도 좋고 분별력도 있으니, 차라리 강단에 올라가 온 세상에 아름다운 진리를 설교하며 돌아다니는 게 어떻겠느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는 법이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그것 말고 다른 신학은 모릅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지혜의 근본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데, 하느님보다 도마뱀을 더 무서워하는 네가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단 말이냐?"

"주인님, 주인님의 기사 노릇에 관한 일이나 판단하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남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얼마나 용감한지까지 판단하려 들지는 마시고요. 저도 이웃집 아무개 못지않게 하느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거품이나 마저 걷어 먹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말일 뿐이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세상에서 일일이 따져 물을 테니까요."

그렇게 말한 산초는 다시 솥을 향해 달려들어 어찌나 기운차게 먹어대는지, 돈키호테의 식욕마저 돋우고 말았다. 만약 뒤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만 아니었더라면, 돈키호테도 분명 산초를 거들어 함께 먹었을 것이다.

제21장



제21장. 카마초의 결혼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또 다른 즐거운 사건들

돈키호테와 산초가 앞 장에서 이야기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커다란 함성과 엄청난 소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를 지르

며 소란을 일으킨 것은 암말을 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신랑 신부를 맞이하려고 길게 내달리며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신랑 신부는 온갖 종류의 악기와 화려한 장식물에 둘러싸인 채, 사제와 양가의 친척들,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가장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가 축제 의상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산초는 신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저 여인은 농가 처녀가 아니라 궁정의 귀부인처럼 차려입었구먼요! 아니,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면 저 여인이 두른 장식은 값비싼 산호고, 쿠엥카산 초록색 천은 서른 겹이나 되는 고급 벨벳이 분명해요! 게다가 저 옷단은 흰 천 조각을 덧댄 것 같지만, 내 장담컨대 분명 새틴일 거예요! 저기 좀 보세요, 검은 흑옥 반지를 끼고 있는 저 손을요! 만약 저게 응유처럼 하얀 진주가 촘촘히 박힌 순금 반지가 아니라면 차라리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반지 하나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비싸 보이는데 말이오! 아이고, 저 머리카락 좀 보소! 가발이 아니라면 내 평생 저렇게 길고 금빛이 도는 머리카락은 본 적이 없소! 게다가 저 여인의 몸매와 기품은 또 어떻고요. 대추야자 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흔들리는 종려나무 잎사귀에도 비길 만하구먼요. 귀걸이와 목걸이에 달린 장식품들이 꼭 그 모습 같으니 말이오!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 여인은 아주 야무진 처녀라서, 플랑드르의 모래톱이라도 거뜬히 헤쳐 나갈 만하다오!"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의 투박한 찬사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돈키호테가 보기에, 자신의 주군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제외하고는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는 듯했다. 아름다운 키테리아는 안색

이 다소 창백해 보였는데, 이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들이 다음 날을 위해 단장하느라 밤을 지새우며 겪는 흔한 일이었다. 행렬은 초원 한편에 카펫과 꽃다발로 화려하게 장식된 무대를 향해 다가갔다. 그곳은 혼례를 올리는 장소이자, 춤과 각종 구경거리를 관람할 자리였다. 행렬이 무대에 다다랐을 무렵, 등 뒤에서 커다란 외침과 함께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다들 앞뒤 가리지 않고 서두르기만 하는구려!"

그 외침과 말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검은 겉옷을 입은 한 남자가 보였는데, 그 옷에는 불꽃 모양의 진홍색 천 조각들이 덧대어져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듯이, 그는 불길한 사이프러스 가지로 엮은 화관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그가 늠름한 바실리오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모두 숨을 죽인 채 그의 외침과 말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지켜보며, 이런 때에 그가 나타난 것이 혹여 불상사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마침내 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기진맥진한 상태로 도착했다. 끝에 강철 촉이 박힌 지팡이를 바닥에 짚으며 신랑 신부 앞에 선 그는, 안색이 변한 채 키테리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떨리고 거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은혜도 모르는 키테리아여,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룩한 법에 따르면, 내가 살아 있는 한 당신은 다른 이와 혼인할 수 없

습니다. 또한 내가 시간을 두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내 가난한 형편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 기다려 왔기에, 당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예의를 갖추며 참아왔다는 사실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향한 그 모든 정성을 저버리고, 내게 속한 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려 하는군요. 그 자는 재산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운수도 아주 좋은 사람이지요. 그 행운이 — 내 생각에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이 아니라, 하늘이 그에게 내려주고자 하는 만큼 — 가득 차도록, 내가 그 앞길을 가로막는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장애물을 내 손으로 직접 치워버리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없애버림으로써 말입니다! 부디 부유한 카마초와 은혜도 모르는 키테리아가 길고 행복한 세월을 누리길! 반면, 가난 때문에 행복의 날개를 꺾이고 무덤으로 향하게 된 가련한 바실리오는 죽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을 마친 그는 바닥에 짚고 있던 지팡이를 움켜쥐었다. 그러자 지팡이의 절반이 땅에 남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중간 크기의 검이 숨겨져 있었고 지팡이는 검집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지팡이의 남은 부분을 손잡이 삼아 바닥에 고정하더니, 망설임 없이 단호한 결심을 품고 그 검 위로 몸을 던졌다. 순식간에 검의 강철 날 절반이 그의 등 뒤로 피를 흘리며 튀어나왔다. 가련한 청년은 자신이 휘두른 무기에 몸이 꿰뚫린 채, 자신의 피로 온몸이 젖어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친구들이 달려와 그의 비참하고도 가련한 처지를 슬퍼하며 그를 도우려 했다. 돈키호테 역시 로시난테를 남겨둔 채 달려가 그를 부축하며 품에 안았는데, 다행히 그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검을 뽑아내려 하자, 현장에 있던 신부가 검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검을 뽑는 순간 그가 숨을 거둘 수도 있으니, 그전에 고해성사부터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실리오가 정신을 조금 차리더니, 애처롭고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잔인한 키테리아여, 만약 당신이 이 마지막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아내로서 내게 손을 내밀어 준다면, 나의 이 무모한 행동도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여길 것이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내가 당신의 사람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을 테니 말이오.”

그 말을 들은 신부는 육신의 욕망보다 영혼의 안녕을 먼저 돌보라고 타이르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이 절망적인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바실리오는 키테리아가 자신을 아내로 맞아주지 않는다면 결코 고해성사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키테리아가 손을 잡아주어야만 마음이 달래져 고해성사를 할 기운이 생길 것 같다는 이유였다.

부상당한 바실리오의 요청을 들은 돈키호테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바실리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며,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카마초가 용맹한 바실리오의 미망인이 된 키테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마치 그녀의 아버지가 보내준 것처럼 그 명예가 매우 드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는 오직 한 번의 '예'라는 대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대답은 그저 입 밖으로 내뱉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으니, 이 결혼식의 침실이 곧 무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마초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바실리오의 친구들이 내는 목소리가 워낙 컸다. 그들은 바실리오가 절망 속에 이 세상을 떠나 영혼을 잃지 않도록, 키테리아가 그에게 아내로서 손을 내어주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 목소리에 떠밀린 카마초는 결국 키테리아가 응해주기만 한다면 자신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그것은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한순간 미루는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곧이어 모든 사람이 키테리아에게 몰려들었다. 어떤 이는 간곡히 애원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으며, 또 어떤 이는 설득력 있는 말로, 가련한 바실리오에게 손을 내어주라고 그녀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대리석보다 단단하고 조각상보다 미동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며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려는 기색이었다. 실제로 사제가 그녀에게 어서 결단을 내리라고 다그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실리오가 이미 목숨이 경각에 달려 우유부단한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름다운 키테리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당황한 기색으로 슬프고 괴로운 듯한 모습으로 바실리오에게 다가갔다. 바실리오는 이미 눈을 뒤집은 채 숨을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며, 입술 사이로 키테리아의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라 이교도처럼 죽음을 맞이하려는 듯 보였다. 마침내 키테리아

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는, 말 대신 몸짓으로 그의 아내가 되어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바실리오는 눈을 번쩍 뜨더니,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오, 키테리아! 당신의 자비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칼날이 될 때에야 비로소 제때에 찾아왔구려. 당신이 나를 선택해 주어 내게 선사한 그 영광을 감당할 기력도, 죽음의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이토록 급히 내 눈을 가리는 고통을 견뎌낼 힘도 이제 내게는 남아 있지 않소! 오, 나의 가혹한 운명이여, 내가 간청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오. 당신이 내게 내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손이, 그저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거나 나를 다시 한번 속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기를 바라오. 당신의 의지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당신의 정당한 남편으로 인정하며 내게 손을 내어준다고 고백해 주시오. 이토록 절박한 순간에, 그동안 당신에게 수많은 진심을 보여온 나를 속이거나 가식으로 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소!"

이런 말을 내뱉던 바실리오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운지,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한 번씩 의식을 잃을 때마다 영혼까지 함께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모두 가슴을 졸였다. 그러자 키테리아는 정숙하고 수줍은 태도로 오른손을 뻗어 바실리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어떤 힘도 내 마음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나는 가장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에게 정당한 아내로서 내 손을 내어줄게요. 만약 당신도 진심으로 내게 손을 내어준다면 기꺼이 그 손을 잡겠어요. 당신의

다급한 말들이 몰고 온 이 비극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기꺼이 내어줄게요." 바실리오가 대답했다. "당황하거나 혼란스럽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늘이 내게 허락하신 맑은 정신으로 당신에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어 나를 온전히 당신에게 바칩니다."

"나도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키테리아가 대답했다. "부디 오래도록 살아주세요. 아니면 내 품에 안긴 채 무덤까지 함께 가더라도요."

"저 청년은 몸에 상처를 저렇게 입고서도 말이 참 많군요." 이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저러다 말만 늘어놓다 죽겠어요. 입놀림은 그만두고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하세요. 제가 보기엔 저 친구는 영혼이 이빨이 아니라 혓바닥에 달려 있는 것 같으니까요."

바실리오와 키테리아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자, 마음이 약해져 눈물까지 글썽이던 신부가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그러고는 하늘에 기도하며, 새로 맞이한 신랑의 영혼이 평안히 안식하기를 빌었다. 축복을 받은 바실리오는 그 즉시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의 몸이 칼집이라도 되는 양, 아주 능숙한 솜씨로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 들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그중 호기심보다는 단순함이 앞서는 몇몇 이들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 기적이다, 기적이야!

하지만 바실리오는 이렇게 대답했다.

—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다 머리를 써서 꾸며낸 일이야!

신부는 당황하여 어안이 벙벙한 채로, 두 손을 뻗어 바실리오의 상처를 살폈다. 그런데 칼날이 바실리오의 살점이나 갈비뼈를 뚫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아주 적절하게 배치된 속이 빈 철제 관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관 안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그 피는 차갑게 식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결국 신부와 카마초,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조롱당하고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색시 키테리아는 이런 농락을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 결혼이 속임수로 이루어진 것이라 무효가 될 거라는 말을 듣자, 자신은 다시 한번 결혼을 승낙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뜻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어 이 일을 꾸몄음을 알아차렸다. 카마초와 그의 측근들은 너무나 창피를 당한 나머지, 복수를 직접 하기로 마음먹고는 수많은 칼을 뽑아 들고 바실리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순식간에 바실리오를 옹호하는 이들도 그만큼이나 많은 칼을 뽑아 들었다. 이때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앞장서서, 한쪽 팔에는 창을 괴고 방패로 몸을 잘 가린 채, 모두가 자기에게 길을 비키도록 만들었다. 산초 판사는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좋아하지도, 견디지도 못해, 아까 맛있는 거품을 떠먹었던 항아리들 뒤로 몸을 숨겼다. 그 항아리 속이 마치 경건하게

모셔야 할 성소라도 되는 양 그곳으로 숨어든 것이다.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입힌 상처에 대해 복수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랑과 전쟁은 본래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전쟁에서 적을 이기기 위해 속임수와 책략을 쓰는 것이 정당하고 흔한 일인 것처럼, 사랑의 다툼과 경쟁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꾸미는 기만이나 술수는 허용되는 법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명예를 더럽히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늘이 정해준 공정하고도 축복 어린 섭리에 따라, 키테리아는 바실리오의 사람이고 바실리오 또한 키테리아의 사람입니다. 카마초는 부유하니,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즐거움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실리오에게는 이 귀한 양 한 마리뿐이며, 그 누구도, 설령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한들 이 양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두 사람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만약 누군가 이를 시도하려 한다면, 우선 이 창끝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가 창을 아주 힘차고 능숙하게 휘둘렀는데, 그 기세가 워낙 대단하여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리고 말았다. 한편 키테리아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사실이 카마초의 머릿속에 너무도 강하게 박힌 나머지, 그 멸시감이 순식간에 키테리아를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 버렸다. 그리하여 신중하고 선한 뜻을 지닌 신부의 설득이 카마초에게 먹혀들었고, 그 말을 들은 카마초와 그 측근들은 모두 평온을 되찾고 진정되었다. 그 증거로 사람들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다.

그러면서 바실리오의 꾀보다는 키테리아가 너무 쉽게 마음을 준 것을 더 탓했다. 카마초는 키테리아가 처녀 시절에 바실리오를 사랑했다면 결혼한 뒤에도 그를 사랑했을 테니, 그녀를 얻은 것보다 오히려 그녀를 빼앗긴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카마초와 그의 수행원들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되찾자, 바실리오의 일행 또한 모두 안정을 찾았다. 부유한 카마초는 자신이 농락당한 일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며 그런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마치 정말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처럼 축제를 계속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바실리오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 일행은 축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바실리오의 마을로 떠나갔다. 부유한 이들에게 아첨하고 곁을 지키는 이들이 있듯이, 가난하지만 덕망 있고 분별력 있는 이들에게도 그들을 따르고 존중하며 보살펴 주는 이들이 있는 법이다.

그들은 돈키호테를 용맹하고 배짱 두둑한 사내라 여기며 자기들과 함께 데려갔다. 오직 산초 판사만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카마초의 성대한 잔치와 진수성찬을 구경도 못 해보고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산초 판사는 낙담하여 슬픈 기색으로 주인을 따라나섰다. 바실리오의 일행과 함께 떠나는 주인의 뒤를 쫓으며,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집트의 솥단지들을 뒤로하고 떠나야만 했다. 비록 솥 안의 거품이 거의 다 꺼져 가고 있었지만, 그 거품은 산초 판사가 놓치고 가는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음식들을 떠올리게 했다. 산초 판사는 배가 고프지는 않았으나, 슬픔과 상념에 잠긴 채 나귀에서 내리지도 않고 로시난테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제22장



제22장. 라만차의 심장부에 있는 몬테시노스 동굴에 얽힌 위대한 모험에 관하여, 용맹한 돈키호테가 그 모험의 영광스러운 정점에 도달하다

신랑 신부는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싸워준 돈키호테에게 보답하고자 크고 많은 선물을 건넸다. 그들은 돈키호테의 용맹함뿐만 아니라 분

별력 또한 높이 평가하며, 그를 무예에서는 시드와 같고 웅변에서는 키케로와 같은 인물이라 칭송했다. 착한 산초 판사는 신랑 신부가 차려준 잔치 덕분에 사흘 동안 배불리 먹으며 호사를 누렸다. 그 사흘 동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거짓으로 상처를 입은 척한 것은 아름다운 키테리아와 미리 짠 계략이 아니라, 오로지 바실리오 혼자 꾸며낸 책략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목격한 바로 그 결과를 키테리아에게서 기대했던 것이다. 다만 바실리오가 자신의 계획을 몇몇 친구들에게 미리 귀띔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이 그 의도를 도와주고 속임수를 뒷받침해주도록 한 것은 사실이었다.

"고결한 목적을 두는 일은 속임수라고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는 법이라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또한 연인들이 결혼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결한 목적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랑의 가장 큰 적은 배고픔과 끊임없는 궁핍이라고 경고했다. 사랑이란 온통 기쁨과 즐거움, 행복으로 가득한 것인데, 특히 사랑하는 이를 곁에 두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반면 궁핍과 가난은 사랑에 맞서 싸우는 명백하고도 적대적인 적이라는 것이다. 돈키호테가 이토록 말한 이유는 바실리오가 가진 재주를 부리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 재주가 명성은 높여줄지언정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었다. 대신 돈키호테는 바실리오가 합법적이고 부지런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데 힘쓰기를 바랐다. 현명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이 결코 마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정직한 사람이라니, 가난하면서 정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름다운 아내를 얻음으로써 일종의 담보를 갖게 되는 셈이라네.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의 명예 그 자체인데, 누군가 아내를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남편의 명예를 앗아가는 것이자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지. 남편이 가난한데도 아름답고 정직한 아내를 둔 사람이라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월계관과 종려나무 가지로 축복받아 마땅할 것이네. 아름다움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보는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이라서, 마치 달콤한 미끼처럼 위엄 있는 독수리나 고귀한 새들조차 그 앞에 굴복하게 만들지.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궁핍과 가난이 더해지면, 까마귀나 솔개 같은 맹금류들이 달려들어 쪼아대기 마련이라네. 그러니 그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여인이야말로 진정 남편의 영광스러운 왕관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이보게, 현명한 바실리오—돈키호테가 덧붙였다—어떤 이름 모를 현자가 세상에 선한 여인은 단 한 명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네. 그는 사람들에게 저 단 한 명뿐인 선한 여인이 바로 자기 아내라고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조언했지. 그래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일세.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결혼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내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여인을 찾아야 할지 기꺼이 일러줄 수 있다네. 우선, 재산보다는 명성을 더 살피라고 권하겠네. 선한 여인은 단순히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야 비로소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네. 사실 여인의 명예를 해치는 것은 은밀한 악행보다 오히려 대외적인

방종과 자유분방함인 경우가 훨씬 많다네. 만약 자네가 선한 여인을 집안에 들인다면, 그 선함을 지켜주고 더욱 키워주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네. 하지만 악한 여인을 들인다면, 그 여인을 바로잡느라 고생만 뒤집어쓸 것이야.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법이 아니니까 말일세.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네."

산초는 이 모든 말을 듣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 주인님은 내가 핵심을 찌르는 알맹이 있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내가 강단이라도 붙잡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말들을 설교하고 다녀도 되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지. 한데 나는 그 주인님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싶다네. 격언을 줄줄이 읊고 조언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면, 강단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마다 두 개씩 들고서 온 광장을 마음껏 휘젓고 다니셔도 되겠다고 말이야! 원, 저렇게 아는 게 많으시다니, 편력기사 양반도 참 별나시지! 나는 속으로 '주인님은 기사도에 관한 일만 아시는 분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세상천지에 주인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안 끼어드는 데가 없으시구먼."

산초가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돈키호테가 엿듣고는 그에게 물었다.

"산초야, 무엇을 그렇게 투덜대느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투덜댄 것도 아니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인님께서 제가 결

혼하기 전에 여기서 하셨던 말씀을 저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랬다면 저도 지금쯤 '풀 뜯는 소가 제 몸을 잘 핥는 법이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아내 테레사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냐, 산초야?"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렇게 못된 건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착한 사람도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바라는 만큼 착하지는 않답니다."

"산초야, 네가 잘못하고 있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 아내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다니 말이다. 사실 네 아내는 네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니냐."

"우리 사이에 빚진 건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 사람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저를 나쁘게 말하거든요. 특히 질투가 날 때면 아주 가관인데, 그때는 차라리 사탄이 직접 그 고생을 떠맡는 게 나을 정도라니까요."

결국 그들은 신랑 신부와 함께 사흘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극진한 대접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돈키호테는 곁에 있던 법학사에게 몬테시노스 동굴로 가는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동굴에 꼭 들어가서, 이 근방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경이로운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학사는 돈키호테에게 자

신의 사촌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촌은 이름난 학생이자 기사도 소설 읽기에 푹 빠진 애호가였는데, 그가 아주 기꺼이 돈키호테를 동굴 입구까지 안내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라만차 전역은 물론 스페인 전체에서도 유명한 루이데라 호수까지 구경시켜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학사는 그 사촌이 인쇄할 책을 짓고 그것을 제후들에게 헌정할 줄 아는 젊은이라, 돈키호테의 여정에 즐거운 동행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사촌이 새끼를 밴 암나귀 한 마리를 끌고 나타났는데, 나귀의 안장 위에는 화려한 덮개나 거친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산초는 로시난테에게 안장을 얹고 회색 나귀도 잘 갈무리한 뒤, 양쪽 주머니를 넉넉히 채웠습니다. 사촌의 주머니 역시 먹을거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안녕을 빌고 모두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유명한 몬테시노스 동굴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던 중 돈키호테가 사촌에게 그의 학문과 직업, 그리고 전공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촌은 자신의 직업은 인문학자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공이자 연구 분야는 인쇄용 책을 짓는 일인데, 그 책들은 모두 사회에 큰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선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제복의 책'이라 부르는데, 그 책에는 칠백삼 가지나 되는 제복의 색깔과 표어, 그리고 문양들이 그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궁정 기사들이 축제나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남에게 구걸하거나, 제 입맛에 맞는 옷을 얻으려고 남의 비위를 맞추며 애걸복걸할 필요 없이, 그 책을 보고 원하는 대로 골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에 눈먼 이나 버림받은 이, 잊힌 이,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꼭 맞는 제복을 골라주기 때문입니다. 그 제복들은 마치 맞춤한 듯 그들에게 더없이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변신 이야기' 혹은 '스페인판 오비디우스'라고 부를 만한, 새롭고도 기발한 발상을 담은 또 다른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오비디우스를 익살스럽게 흉내 내어, 세비야의 히랄다와 마달레나의 천사가 누구인지, 코르도바의 베싱게라 운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귀산도의 황소들, 시에라 모레나 산맥, 마드리드의 레가니토스와 라바피에스 샘물은 또 무엇인지 그려냈습니다. 피요의 샘물과 황금 운하, 그리고 수녀원 장의 샘물도 잊지 않고 담았지요. 이 모든 것을 알레고리와 은유, 그리고 변용의 기법을 사용해 풀어냈기에, 읽는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며 교훈까지 동시에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도 하나 있는데, 저는 이를 '폴리도로의 베르길리우스에 대한 보충판'이라 부릅니다. 이 책은 사물의 기원을 다루는데, 매우 깊은 학식과 연구가 담긴 책입니다. 폴리도로가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제가 직접 조사하여 품격 있는 문체로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처음으로 감기에 걸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프랑스 병을 고치기 위해 처음으로 기름을 바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베르길리우스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저는 그 사실을 글자 그대로 명확히 밝혀냈으며 스물다섯 명 이상의 저자들을 인용해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제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이 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할지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사촌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산초 판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느님께서 선생님의 책들이 잘 출판되도록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분명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처음으로 머리를 긁적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 우리 조상 아담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겁니다." 사촌이 대답했습니다. "아담에게 머리와 머리카락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세상의 첫 인간으로서 언젠가는 머리를 긁적였을 테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처음으로 뒤집기를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형제여." 사촌이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따로 공부해 보기 전까지는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가 없군요. 제 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꼭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다시 만날 때 반드시 답을 해 드리지요. 그때가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아닐 테니까요."

"그게 말입니다, 선생님."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이 일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무엇을 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처

음으로 뒤집기를 한 사람은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 심연까지 굴러떨어질 때, 그는 계속 뒤집히며 내려왔으니까요."

"자네 말이 맞네, 친구." 사촌이 말했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산초, 그 질문과 대답은 네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서 들어본 적이 있겠지."

"그만하세요,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데 진심을 다한다면, 내일 아침이 되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데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산초, 너는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는구나."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언가를 알아내고 파헤치는 데 온 힘을 다하지만, 막상 그것을 다 알고 나면 지성에도 기억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도 있는 법이란다."

이런저런 즐거운 대화가 오가는 사이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촌은 돈키호테에게 몬테시노스 동굴까지는 여기서 채 두 리그아도 되지 않는 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동굴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동굴 깊숙한 곳까지 몸을 묶고 내려갈 밧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돈키호테는 설령 낭떠러지 끝까지 내려간다 해도 그 끝이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밧줄을 거의 백 브라사나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두 시쯤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는 넓고 큼직했지만, 덤불과 가시덩굴, 잡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이 워낙 빽빽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동굴 입구 전체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동굴을 발견하자 사촌과 산초, 그리고 돈키호테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돈키호테를 밧줄로 아주 단단히 묶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의 몸을 밧줄로 동여매고 조이는 동안, 산초가 말했습니다.

"나으리, 지금 하시는 짓 좀 보세요. 제발 살아있는 채로 무덤을 파지 마십시오. 우물 속에 식혀 두려고 던져 넣는 항아리처럼 그런 곳에 몸을 밀어 넣으려 하지 마시고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곳은 지하 감옥보다 더 험악한 곳일 텐데, 나으리께서 굳이 그 속을 샅샅이 뒤져보며 고생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밧줄이나 묶고 입 다물게."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산초, 이 친구야. 나를 위해 이토록 위대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일세."

그러자 길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돈키호테 님,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저 안을 아주 자세히, 백 개의 눈을 가진 것처럼 낱낱이 살펴봐 주십시오. 어쩌면 제 저서 『변신록』에 실을 만한 놀라운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탬버린은 솜씨 좋게 다룰 줄 아는 분의 손에 들려 있는 법이지요." 산초 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갑옷이 아니라 덧입는 조끼 위에 돈키호테의 몸을 단단히 조여 매는 작업이 마무리되자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종 하나를 준비하지 못한 게 실수였구나. 그 종을 이 밧줄에 내 곁에 매달아 두었다면,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가 아직 내려가고 있으며 살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빌 뿐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위험하고도 생소한 이 모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이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나의 모든 행보와 움직임의 주인이시며, 더없이 밝고 비할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여! 당신의 운명적인 연인이 올리는 이 간절한 기도와 애원이 당신의 귀에 닿을 수만 있다면, 당신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호소하며 간곡히 청하옵나니, 부디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제게 절실히 필요한 당신의 은총과 보살핌을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심연 속으로 몸을 던져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늪에 빠져 가라앉으려 합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맞서 싸워 끝장을 내지 못할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을 마친 그는 심연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줄을 타고 내려가거나 입구로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오직 팔의 힘을 쓰거나 칼로 베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칼을 빼 들고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잡풀들을 베어내고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와 소란 때문에 동굴 안에서 엄청나게 큰 까마귀와 갈까마귀 떼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찌나 빽빽하고 급하게 날아오르는지 돈키호테를 바닥에 쓰러뜨릴 정도였습니다. 만약 그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만큼이나 미신에 사로잡혀 징조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를 분명 불길한 징조로 여겨 그런 곳에 들어가기를 단념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더는 까마귀나 박쥐 같은 다른 밤새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사촌과 산초가 건네준 밧줄을 붙잡고 그 무시무시한 동굴 바닥을 향해 몸을 내렸습니다. 산초는 그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축복을 빌어주고 그의 몸 위에 십자성호를 수없이 그어주며 말했습니다.

"신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길! 프랑시아의 바위와 가에타의 삼위일체께서도 함께하시길! 모든 떠돌이 기사들의 꽃이자 정수이며 거품이시여! 가소서, 세상의 용사여, 강철의 심장과 청동의 팔을 가진 자여! 신께서 다시 한번 당신을 인도하시어, 이 어둠 속에 스스로를 묻으려 떠나는 당신이, 다시금 이 세상의 빛 속으로 자유롭고 건강하며 아무런 탈 없이 돌아오게 하시길!"

사촌 또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도와 간청을 올렸습니다.

돈키호테는 밧줄을 더 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맞춰 밧줄을 조금씩 내려주었습니다. 동굴 구멍을 타고 울려 퍼지던 외침이 잦아들 무렵, 사람들은 이미 백 브라사나 되는 밧줄을 다 내려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줄 밧줄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다시 끌어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 시간쯤 머뭇거리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밧줄을 아주 가볍고 쉽게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에 아무런 무게가 느껴지지 않자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동굴 안에 머물고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산초 판사는 그 사실을 믿고 서럽게 울며, 어서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필사적으로 밧줄을 당겼습니다. 그러다 밧줄이 팔십 브라사 남짓 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쯤 무게감이 느껴졌고,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밧줄이 열 브라사쯤 남았을 때 사람들은 돈키호테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고, 산초는 그를 향해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는 주인님께서 아예 그곳에 눌러앉으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완전히 끌어올린 뒤에야 그가 눈을 감은 채 깊이 잠든 것 같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닥에 눕히고 결박을 풀어주었지만,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그를 이리저리 뒤집고 흔들며 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한참이 지나서야 돈키호테는 마치 아주 깊고 무거운 잠에서 깨어난 듯 기지개를 켜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신께서 그대들을 용서하시길! 그대들이 나를 인간이 누려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가장 달콤하고 즐거운 삶과 풍경으로부터 떼어놓지 않았는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그림자나 꿈처럼 지나가 버리고, 들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 불행한 몬테시노스여! 오, 상처 입은 두란다르테여! 오, 운 없는 벨레르마여! 오, 눈물 흘리는 과디아나여, 그리고 그 아름다운 눈으로 흘린 눈물을 물결에 비추고 있는, 불행한 루이데라의 딸들이여!"

사촌과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돈키호테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을 쥐어짜 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에게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제발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곳을 지옥이라 부른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거라. 곧 알게 되겠지만, 그곳은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곳이 아니니라."

돈키호테는 배가 너무 고프다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청했습니다. 사촌이 가져온 거친 삼베 천을 푸른 풀밭 위에 펴고, 각자 짐 주머니를 뒤져 음식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앉아 간식과 저녁 식사를 한꺼번에 해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삼베 천을 걷어 올리자, 돈키호테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말거라. 얘들아,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제23장



제23장. 돈키호테가 몬테시노스의 깊은 동굴에서 보았다고 늘어놓은 경이로운 일들에 대하여. 그 이야기가 워낙 불가능하고 거창하여 이 모험을 가짜라고 여기게 만드나니.

오후 네 시쯤 되었을까. 구름에 가려진 태양이 희미한 빛과 온화한 햇살을 내뿜자, 돈키호테는 더위나 번거로움 없이 두 명의 아주 명석한

청중에게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보았던 일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지하 감옥 같은 곳의 깊이가 열두 혹은 열네 길쯤 되었을 때, 오른편에 커다란 마차와 노새들이 들어갈 만한 오목한 공간이 나타났네. 지표면에 뚫린 틈새나 구멍 사이로 멀리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 나는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줄에 매달려 정해진 길도 없이 어두운 곳을 내려가야 하는 처지가 되어 짜증이 난 상태였는데, 마침 그 공간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들어가 잠시 쉬기로 마음먹었네. 자네들에게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줄을 더 내리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자네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겠지. 자네들이 내려보내 주는 줄을 끌어올려 동그랗게 말아 둔 뒤, 그 위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네. 나를 붙들어 줄 사람도 없으니 어떻게 바닥까지 내려가야 할지 고민하던 참이었지. 그렇게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즐거우며, 대자연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쾌적한 초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네.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비벼 보아도 꿈이 아니라 정말로 깨어 있는 상태였지. 그래도 혹시나 내가 진짜 나인지, 아니면 허망하고 일그러진 환상인지 확인하려고 머리와 가슴을 더듬어 보았네. 하지만 촉감과 느낌, 그리고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을 통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네.

그때 눈앞에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궁전 혹은 성채가 나타났는데, 그 벽과 담장들은 마치 투명하고 맑은 유리로 만든 것처럼 보였네.

그 성채의 커다란 문 두 개가 열리더니, 보랏빛 모직 후드를 바닥에 끌며 걸어 나오는 경건한 노인이 보였네. 노인은 초록색 비단으로 된 학생용 깃을 어깨와 가슴에 두르고 있었고, 머리에는 검은색 밀라노식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새하얀 백발의 수염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네. 무기는 하나도 들지 않았지만, 손에는 묵주 하나를 들고 있었네. 그 알들은 중간 크기 호두보다도 굵었고, 열 알마다 들어가는 큰 구슬은 중간 크기 타조 알만 했지. 노인의 자태와 걸음걸이, 위엄과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하나하나가 경이로웠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나를 넋을 잃게 만들었네.

노인은 내게 다가와 가장 먼저 나를 꽉 껴안더니 이렇게 말했네. '용맹한 기사 돈키호테, 라만차의 돈키호테여! 오래전부터 이 황량하고 마법에 걸린 곳에 머무는 우리들은 당신을 기다려 왔소. 당신이 이 몬테시노스의 동굴이라 불리는 깊은 구멍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세상에 알려주기를 말이오. 이 모험은 오직 당신처럼 불굴의 심장과 놀라운 기개를 가진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오. 자, 이리 오시오, 명민하신 분이여. 내가 영원한 성채의 관리인이자 수호자로서, 이 투명한 성채가 감추고 있는 경이로운 광경들을 보여주리다. 내가 바로 이 동굴의 이름이 유래된 몬테시노스 본인이오.'

그가 자신을 몬테시노스라고 밝히자마자, 나는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물었네. 그의 절친한 친구인 두란다르테가 죽기 직전 명령한 대로, 작은 단검으로 그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꺼내어 벨레르마 여인에게 가져다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정말인지 말일세. 그러자 그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지만 단검에 대해서만은 틀렸다

고 대답했네. 단검이 아니었을뿐더러 작지도 않았고, 송곳보다 더 날카로운 날 선 비수였다고 말이네."

"그게 아마 세비야 사람 라몬 데 오세스의 그 비수였나 보군요." 산초 판사가 이 대목에서 말을 거들었다.

"글쎄다." 돈키호테가 말을 이었다. "그게 어떤 비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라몬 데 오세스의 것은 아닐 게다. 라몬 데 오세스는 어제 태어난 사람이나 다름없는데,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론세스바예스는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런 걸 따져 묻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진실이나 핵심이 변하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맞습니다." 사촌이 대답했다. "돈키호테 나리,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나 역시 결코 가볍게 할 이야기가 아니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존경스러운 몬테시노스가 나를 수정처럼 맑은 궁전으로 안내했네. 그곳의 한 낮은 방은 더없이 시원하고 온통 설화석고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대리석 무덤이 하나 놓여 있었지. 나는 그 무덤 위에 한 기사가 길게 누워 있는 것을 보았네. 보통 다른 무덤들처럼 청동이나 대리석, 혹은 벽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한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모습이었네. 그는 오른손을 심장 부근에 얹고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손에 털이 좀 나 있고 힘줄이 불거져 있었네. 주인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라는 증거지. 내가 몬테시노스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그저 멍하

니 무덤 속 기사를 바라보고 있자, 몬테시노스가 내게 말했네. '이분은 내 친구 두란다르테라네. 당대 사랑에 빠진 기사들과 용맹한 기사들의 꽃이자 거울 같은 분이지. 저 프랑스 마법사 멀린이 나를 포함해 수많은 남녀를 마법에 걸어둔 것처럼, 이분도 이곳에 마법에 걸린 채 잠들어 계신 거라네. 사람들은 그가 악마의 자식이라고들 하지만, 내 생각에 그는 악마의 자식이라기보다 그저 악마보다 조금 더 영리했을 뿐이라네. 그가 어떤 이유로, 또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마법에 걸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알게 되겠지. 내가 놀라운 건, 지금이 낮이라는 사실만큼이나 분명하게 두란다르테가 내 품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점이라네. 나는 그가 죽은 뒤에 내 손으로 직접 그의 심장을 꺼내기도 했지. 그 심장은 분명 두 파운드는 나갔을 게야. 자연학자들 말로는 심장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더 큰 용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말일세. 그런데 이 기사가 실제로 죽었는데도, 어째서 지금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때때로 신음하며 한숨을 내뱉는 것일까?' 몬테시노스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불쌍한 두란다르테가 큰 소리로 외쳤네."

"오, 나의 사촌 몬테시노스여! 내가 마지막으로 간청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오. 내가 죽어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게 될 때, 단검이든 비수든 무엇으로든 내 가슴에서 심장을 꺼내어, 벨레르마가 있던 곳으로 가져가 주시오!"

그 말을 들은 존경스러운 몬테시노스는 비운의 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이렇게 말했네. "오, 나의 가장 소중한 사촌 듀란다르테 경이여, 우리가 비극을 맞이했던 그 슬픈 날에 당신이 명하

신 대로 나는 이미 다 해두었소. 당신의 가슴에 아주 작은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당신의 심장을 꺼내어 두었소. 나는 손수건으로 그 심장을 깨끗이 닦았고, 당신을 먼저 땅속에 안치한 뒤에는 곧장 프랑스로 달려갔다오. 그때 흘린 눈물은 내 손을 씻고, 당신의 내장을 만지느라 묻은 피를 닦아내기에 충분할 만큼 많았지. 그리고 내 영혼의 사촌이여, 론세스바예스를 나와 처음 들른 곳에서, 당신의 심장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 신선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육포처럼 잘 마른 상태로 벨레르마 님 앞에 이르도록 심장에 소금을 조금 뿌려두었소. 지혜로운 마법사 멀린이 당신과 벨레르마 님, 그리고 당신의 종자 과디아나와 안주인 루이데라 부인과 그녀의 일곱 딸과 두 조카딸, 그리고 당신의 수많은 지인과 친구를 이곳에 수년째 마법으로 가두어 두고 있소. 벌써 500년이 넘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죽지 않았지. 다만 루이데라 부인과 그녀의 딸들, 조카딸들만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슬피 우는 모습이 가여웠던 마법사 멀린이 그들을 여러 개의 호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라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인 라만차 지방에서는 그곳을 루이데라 호수라고 부르지. 일곱 호수는 스페인 국왕의 소유이고, 두 조카딸의 호수는 성 요한 기사단이라는 아주 거룩한 기사단의 소유라네. 당신의 종자 과디아나 역시 당신의 비극을 슬퍼하며 울다가 그 자신의 이름을 딴 강이 되었지. 그 강이 지표면으로 올라와 다른 하늘의 태양을 보았을 때, 당신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다시 땅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겨버렸다오. 하지만 자연스러운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라, 가끔은 태양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모습을 드러내곤 하지. 그 강물은 앞서 말한 호수들을 거쳐 흘러가며, 그 물줄기와 다른 많은 물을 모아 아주 위엄 있고 거대

하게 포르투갈로 흘러 들어간다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강은 가는 곳마다 슬픔과 우울함을 드러내고 있소. 귀하고 맛있는 물고기를 키우는 대신, 황금빛 타호 강과 달리 아주 거칠고 맛없는 물고기들만 키우고 있지. 오, 나의 사촌이여!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전에도 여러 번 말해주었네. 그런데도 당신이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만이 아실 만큼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려.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전해주려 하네. 이 소식이 당신의 슬픔을 달래주지는 못하더라도, 결코 슬픔을 더 키우지는 않을 것이네. 자, 눈을 떠서 보시오. 여기 당신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지혜로운 멀린이 그토록 많은 예언을 남겼던 위대한 기사, 바로 이 라만차의 돈키호테 경이라네! 즉, 과거의 세기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이미 잊혔던 기사도를 이 시대에 다시 부활시켜 우리를 마법에서 풀어줄 수도 있는 분이지. 위대한 업적은 위대한 인물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법이니까 말이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비운의 듀란다르테가 힘없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오 사촌이여! 그저 인내하며 패를 다시 섞을 뿐이라네." 그러고는 옆으로 몸을 돌려 다시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침묵에 잠겼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깊은 신음과 고통스러운 흐느낌이 섞인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네. 내가 고개를 돌려 보니, 수정으로 된 벽 너머 다른 방으로 두 줄로 늘어선 아주 아름다운 처녀들이 행진하고 있었네. 그녀들은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터키식처럼 하얀 터번을 쓰고 있었지. 행렬의 맨 뒤에는 한 여인이 오고 있었는데, 아주 엄숙해 보이는 모습이었고 그녀 역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네. 그녀가 쓴 하얀 베일은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져 있었지. 그녀의 터번은 다른 처녀들의 것보다 두 배나 컸네. 그녀는 눈썹이 일자로 이어져 있고 코는 약간 납작했으며, 입은 컸지만 입술은 붉었네. 가끔 보이는 치아는 듬성듬성하고 고르지 않았지만, 껍질을 벗긴 아몬드처럼 하얬지. 그녀는 손에 얇은 천을 들고 있었는데, 그 천 사이로 내가 얼핏 본 것은 바싹 마르고 육포처럼 쪼그라든, 미라가 된 살덩이 심장이었네. 몬테시노스는 행렬의 저 사람들이 모두 듀란다르테와 벨레르마의 하인들이며, 그들의 주인과 함께 마법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네. 그리고 천 사이에 심장을 들고 오는 마지막 여인이 바로 벨레르마 님인데, 그녀는 처녀들과 함께 일주일에 나흘 동안 저렇게 행진하며 사촌의 시신과 상처 입은 심장을 위해 애가를 부르거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통곡을 한다고 했네. 그녀가 소문만큼 아름답지 않거나 조금 못생겨 보였다면, 그것은 마법에 걸린 채 겪고 있는 끔찍한 밤낮 때문이라고 했지. 그녀의 깊은 다크서클과 창백한 안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네. “그녀의 노란 안색과 다크서클은 여인들에게 흔히 있는 생리 현상 때문이 아니라네. 이미 여러 달, 아니 여러 해 동안 그것이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으니 말이네. 그것은 손에 든 심장이 느끼는 슬픔 때문에 생긴 것이라네. 그 심장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비극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니 말이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근방은 물론 온 세상에서 그토록 칭송받는 저 위대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조차도 아름다움과 품위, 활력에서 그녀에게 좀처럼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그때 말했네. "몬테시노스 경, 제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비교하는 것은 서로에게 실례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를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독보적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둘시네아이고, 벨레르마 부인은 벨레르마 부인인 법이니, 그냥 거기까지 하시지요."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했네. "돈키호테 경, 부디 용서하십시오. 제가 실언했음을 인정합니다. 둘시네아 님이 벨레르마 님과 겨우 비길 만하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예감으로든 당신이 그녀의 기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제가 그녀를 하늘과 비교하지 않고는 입을 놀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위대한 몬테시노스가 이렇게 말하며 나를 달래주자, 내 여인이 벨레르마와 비교되었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내 마음도 비로소 진정되었네.

"그나저나 주인님," 산초가 말했다. "어떻게 그 늙은이 위에 올라타 발길질로 뼈마디를 모조리 으스러뜨리고, 수염도 한 올 남기지 않고 몽땅 뽑아버리지 않으셨는지, 저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니라네, 친구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네. 비록 기사가 아닐지라도 노인에게는 마땅히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기사였으나 마법에 걸린 분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하기 때문이라네. 다만 우리 둘 사이에 오간 그 숱한 문답에서는 서로 한 치도 뒤지지 않았다는 것만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때 사촌이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아래에서 머무신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 짧은 사이에 그토록 많은 것을 보고 그토록 많은 말을 하며 대답까지 하셨단 말입니까?"

"내가 내려간 지 얼마나 되었느냐?" 돈키호테가 물었다.

"한 시간 남짓 되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곳에서는 밤이 찾아왔다가 다시 아침이 밝았고, 또 밤이 찾아왔다가 다시 아침이 밝기를 세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내 계산으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멀고도 숨겨진 곳에서 벌써 사흘이나 지낸 셈이다."

"제 주인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께 일어난 모든 일은 마법 때문이었으니, 우리에게는 한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그곳에서는 밤낮을 포함해 사흘이나 되는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럴 것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동안 주인님께서는 식사라도 좀 하셨습니까?" 사촌이 물었다.

"아침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배고픔은커녕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느니라."

"그럼 마법에 걸린 사람들도 식사를 합니까?" 사촌이 물었다.

"먹지 않는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배설물도 생기지 않지. 다만 손톱과 수염, 머리카락은 계속 자란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럼 마법에 걸린 사람들도 혹시 잠을 잡니까, 주인님?" 산초가 물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적어도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낸 지난 사흘 동안은, 그들 중 누구도 눈을 붙이지 못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군요."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마법에 걸린 사람들과 어울리며 굶주린 채 잠도 못 자고 계시니,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인님,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방금 여기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제가 믿는다면, 하느님이—아니, 악마라고 할 뻔했습니다만—저를 잡아가도 좋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촌이 말했다. "돈키호테 주인님께서 설마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설령 마음먹는다 해도, 그 수만 가지 거짓말을 꾸며내고 상상해낼 겨를조차 없으셨을 텐데요."

"제 주인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키호테가 그에게 물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그 아래에서 보았고 또 전해주셨다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마법을 걸었다는 저 멀린인지 뭔지 하는 자나, 혹은 그 마법사들이 주인님의 머릿속이나 기억력에 방금 말씀하신 그 온갖 이야기와 앞으로 더 하실 이야기들을 통째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한 것들은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본 것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말해주면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몬테시노스가 나에게 보여준 무수히 많은 경이로운 일들 중 몇 가지를 말해주마.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이곳이 적절치 않으니, 우리 여정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때가 되면 하나씩 천천히 들려주겠다만, 우선 이런 일도 있었다. 몬테시노스가 저 아름다운 들판을 염소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농가 여인 셋을 보여주었단다. 내가 그들을 보자마자, 그중 한 명이 바로 유일무이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나머지 두 명도 우리가 엘 토보소를 떠날 때 함께 이야기했던 그 농가 여인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내가 몬테시노스에게 그들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들이 며칠 전부터 이 초원에 나타난, 마법에 걸린 귀한 신분의 여인들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라고 하더구나. 그리고 이런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곳에는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귀부인이 각기 다르고 기이한 모습으로 마법에 걸린 채 머물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중에는 란살로테에게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기네브라 왕비와 그녀의 시녀 킨타뇨나도 있었다고 한다."

브리타니아에서 왔을 때 말이다.

산초 판사는 주인에게 이 말을 듣고는, 정신이 나가버렸거나 아니면 웃겨서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했다. 둘시네아가 꾸며낸 마법에 관한 진실을 산초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둘시네아를 마법에 걸린 것처럼 꾸미고 그런 증언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산초 자신이었으니까. 결국 산초는 자신의 주인이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속수무책으로 미쳤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산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나의 귀한 주인님, 하필이면 이렇게 운수 나쁜 때에, 그것도 이렇게 불길한 날에 저세상까지 내려가셨단 말입니까? 거기서 몬테시노스 씨를 만나는 바람에 주인님 상태가 저 지경이 되어버렸군요. 여기 위에서 제정신을 온전히 붙들고 계실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대로 매 순간 명언을 남기시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지금처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으시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산초야, 네 성미를 내가 잘 알지 않느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네 말 따위는 귀담아듣지 않겠다."

"저도 주인님 말씀은 안 들을랍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앞으로 하실 말씀들을 고치고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 때문에 저를 때리시든 죽이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나저나 주인님, 이제 싸우지 말고 좋게 말씀해 보세요. 대체 우리 여주인님을 어떻게, 어디서 만나신 겁니까? 여주인님과 대화를 나

누셨다면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여주인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분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나에게 보여주었을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단다. 그분께 말을 걸었지만, 한마디 대답도 듣지 못했어. 오히려 그분은 내게 등을 돌리더니, 화살 한 발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아주 급히 달아나 버리셨지. 나도 그분을 뒤쫓으려 했으나, 몬테시노스가 만류하는 바람에 그만두었단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게다가 내가 다시 동굴 밖으로 나가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주었거든. 몬테시노스는 시간이 흐르면 그곳에 있는 몬테시노스 자신과 벨레르마, 두란다르테,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이 어떻게 마법에서 풀려나게 될지 알려주겠다고도 했지. 하지만 그곳에서 보고 겪은 일 중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따로 있단다. 몬테시노스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어. 내가 미처 보지도 못했는데, 불행한 둘시네아의 동료 중 한 명이 내 곁으로 다가오더구나. 그 여인은 눈물이 그득한 채로, 떨리고 낮은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말했단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주인님께서 주인님의 손에 입을 맞추며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이 몹시 어려우니, 제가 들고 있는 이 새 코토니 면 치마를 담보로 잡고 6레알이나 혹은 주인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빌려달라고 간곡히 청하셨습니다. 조만간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말이야.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단다. 그러다 다시 몬테시노스에게 돌아가 물었지. '몬테시노스 님, 마법에 걸린 고귀한 분들조차 이런 궁핍을 겪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가 내게 대답했단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님, 믿으십시오. 이른바 궁핍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곳에 퍼져 있고, 모든 이에게 닥칩니다. 마법에 걸린 이들조차 피하지 못하지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주인님께서 그 6레알을 청하셨고, 보아하니 담보도 확실하니 그냥 빌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아주 큰 곤경에 처해 계신 게 분명합니다.’라고 말이야. 나는 ‘담보 따위는 받지 않겠습니다. 게다가 제게는 4레알밖에 없으니 그분이 요구하신 만큼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지. 그래서 내가 가진 4레알을 건네주었는데(그건 산초야, 네가 지난번에 길에서 만나는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하라고 내게 준 돈이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단다. ‘내 친구여, 그대 여주인님께 전해주게. 그분의 고난 소식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그 고난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푸카르 가문 사람만큼 큰 부자가 되고 싶을 정도라고 말이야. 또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명석한 대화를 보지 못하고서는 내 건강을 지킬 수도, 지켜서도 안 된다고 전해주게. 그러니 부디 이 포로가 된 종이자 고난을 겪는 기사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이야. 그리고 여주인님께서 미처 생각지도 못하실 때쯤, 내가 한 맹세를 듣게 될 것이라고도 전해주게. 마치 만투아 후작이 했던 그 맹세처럼 말이야. 후작은 산속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 조카 발도비노스를 발견하고는, 그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식탁보를 깐 식탁에서는 빵을 먹지 않겠다는 둥 여러 가지 맹세를 덧붙였었지. 나 또한 그처럼, 포르투갈의 돈 페드로 왕자가 다녔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세상의 일곱 구역을 돌아다니며, 그분의 마법을 풀 때까지 결코 편히 쉬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다고 말이야.’ 그러자 그 처녀가 대답했단다. ‘그 모든 것과 그 이상의 일들이 우리 여주인님께 빚진 것입니다.’라고 말이지. 그러고는 4레

알을 챙겨 들더니, 내게 절을 하는 대신 공중으로 여섯 자가량 솟구쳐 오를 만큼 힘차게 한 바퀴 깡충 뛰어올랐단다."

"오, 신이시여!" 그 말을 듣던 산초가 크게 소리쳤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법사와 마법의 힘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주인님의 멀쩡한 정신을 이토록 터무니없는 광기로 바꿔 놓았단 말입니까! 오, 주인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제발 정신을 차리시고 명예를 되찾으십시오. 주인님의 이성을 흐리고 정신을 빼놓는 저 허망한 말들을 더는 믿지 마십시오!"

"산초야, 네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 크니 이토록 말하는 것이겠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너는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하니,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은 모두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는 게다. 그러나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거야. 내가 저 아래에서 보고 온 다른 일들도 몇 가지 들려주마.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이야기들도 믿게 될 게다. 내가 말한 것들은 반박할 수도, 논쟁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말이다."

제24장



제24장. 이 위대한 이야기의 진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참으로 쓸데없는 수만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

원저자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쓴 원전을 바탕으로 이 위대한 이야기를 번역한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몬테시노스 동굴의 모험이 나오

는 장에 이르렀을 때, 그 여백에는 베넹헬리가 직접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 놓았다고 한다.

"용맹한 돈키호테에게 앞 장에 기록된 일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났으리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모험은 우연히 일어날 법한 일이었고 그럴싸하기도 했으나, 이번 동굴 모험만큼은 이치에 너무 어긋나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근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대에서 가장 진실한 귀족이자 가장 고결한 기사인 돈키호테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그를 화살로 쏘아 죽인다 해도 그는 결코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다. 한편으로 그가 말한 모든 정황을 살펴보건대,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거대한 헛소리 뭉치를 꾸며냈을 리도 없다. 만약 이 모험이 가짜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이 이야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단정 짓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옮길 뿐이다. 독자여, 그대는 현명한 사람이니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전해지는 바로는, 돈키호테가 죽음을 앞둔 임종의 순간에 이 이야기를 스스로 번복하며, 자신이 읽었던 기사도 이야기들의 흐름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직접 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잇는다.

사촌은 산초 판사의 대담함과 주인에게 보여주는 그 인내심에 깜짝 놀랐다. 그는 주인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만난 기쁨 때문에, 비록

그녀가 마법에 걸린 상태였을지라도 지금처럼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판단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산초는 매를 맞아 마땅할 정도로 심한 말을 내뱉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촌이 보기에 산초는 주인에게 다소 무례하게 굴었다. 그래서 사촌은 산초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라만차의 귀하신 돈키호테 나리, 저는 나리와 함께한 이번 여정이 참으로 보람찬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길에서 저는 네 가지나 얻었거든요. 첫째는 나리를 알게 된 것인데, 이는 제게 큰 행복입니다. 둘째는 이 몬테시노스 동굴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과디아나 강의 변화나 루이데라 호수들에 관한 지식 말입니다. 이건 제가 준비 중인 '스페인판 오비디우스'를 쓰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는 카드 게임의 역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리가 말씀하신 뒤란다르테의 말을 들어보니, 적어도 샤를마뉴 황제 시절에는 이미 카드를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몬테시노스가 그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끝에 잠에서 깨어나며 '인내심을 갖고 카드를 섞어라'라고 말했다고 하셨지요? 이런 말과 말투는 마법에 걸린 상태에서는 배울 수 없는 법입니다. 마법에 걸리지 않았을 때, 즉 프랑스에서 그 샤를마뉴 황제 시절에 배웠을 게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제가 집필 중인 또 다른 책, 즉 고대 유물의 발명에 관한 '폴리도루스 베르길리우스 보충판'을 쓰는 데 아주 딱 들어맞는 정보입니다. 저는 그 책을 쓴 이가 카드에 관한 내용을 넣는 걸 깜빡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리께서 말씀하신 뒤란다르테처럼 중후하고 진실한 저자의 말을 인용하여, 아주 중요하게

다룰 생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과디아나 강의 발원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나리의 말씀이 옳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신께서 나리께 그 책들을 출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 과연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 그 책들을 누구에게 헌정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군요."

"스페인에는 그 책들을 헌정할 만한 귀족과 대귀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촌이 말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자들의 노력과 예우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기 싫어서 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분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장점이 많아서, 제가 만약 그 장점들을 다 늘어놓는다면 아마도 수많은 고결한 이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형편이 더 나을 때 나누기로 하고, 이제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아 떠납시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은둔자가 사는 작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사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전에 군인이었다고 하는데, 신앙심이 깊고 아주 신중하며 자비로운 분이라는 평을 듣고 계십니다. 기도원 옆에는 그분이 직접 자기 돈을 들여 지은 작은 집도 하나 있는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 은둔자라는 분, 혹시 암탉이라도 키우고 계십니까?" 산초가 물었다.

"은둔자 중에 암탉을 키우지 않는 이가 거의 없지."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요즘 은둔자들은 대추야자 잎으로 옷을 해 입고 땅속 뿌리를 캐 먹던 이집트 사막의 은둔자들과는 다르니까 말이다. 내가 옛날 사람들을 좋게 말한다고 해서 지금의 은둔자들을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다. 다만 옛날의 그 혹독하고 고달팠던 고행에 비하면 요즘의 고행은 그만큼 엄격하지 못하다는 뜻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다. 적어도 내 눈에는 다 선한 분들로 보인다. 세상이 온통 혼탁할 때는, 차라리 선한 척이라도 하는 위선자가 대놓고 죄를 짓는 죄인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들은 한 남자가 걸어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남자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창과 알라바르다를 가득 실은 짐승을 채찍질하며 몰고 오고 있었다. 남자는 그들 곁을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여보게, 잠시 멈춰 서게나. 보아하니 자네가 저 노새한테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는 것 같으니 말일세."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으리." 남자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실어 나르는 이 무기들을 내일 바로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서둘러 가야겠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무기들을 왜 가져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저기 은둔자의 집 위쪽에 있는 여관에서 오늘 밤 묵을 생각입니다. 만약 나으리께서도 같은 길로 가신다

면 그곳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지요. 그럼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남자가 짐승을 채찍질하며 서둘러 떠나는 바람에, 돈키호테는 그가 말하겠다던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어볼 겨를조차 없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고 늘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안달하던 돈키호테는, 사촌이 머물고 싶어 하는 은둔자의 집에는 들르지 말고 곧장 여관으로 가서 밤을 지내자고 명령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세 사람은 말을 타고 여관으로 향하는 곧은 길을 따라 나아갔다. 해가 지기 직전, 세 사람은 마침내 여관에 도착했다. 사촌은 돈키호테에게 여관에 들러 술을 한잔하자고 제안했다. 산초 판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나귀를 몰아 은둔자의 집으로 향했고, 돈키호테와 사촌도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산초의 불운 때문인지 은둔자는 집에 없었던 모양이다. 은둔자의 집에서 만난 하인이 그렇게 전해주었다. 그들은 하인에게 값비싼 술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하인은 주인님이 그런 건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약 값싼 물을 원한다면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대답했다.

"제가 마시고 싶었던 게 물이었다면요," 산초가 대답했다. "길가에 우물이 널려 있으니 거기서 얼마든지 갈증을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아, 카마초의 결혼식이여, 돈 디에고 댁의 그 풍성함이여, 내 너희를 얼마나 자주 그리워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말한 뒤, 그들은 은둔자의 집을 떠나 여관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못 가 그들은 앞서 걷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리 서두르는 기색은 아니었다. 세 사람은 곧 그를 따라잡았다. 젊은이는 어깨에 칼을 메고 있었는데, 그 칼 위에는 옷가지로 보이는 보따리가 얹혀 있었다. 보따리 속에는 아마도 바지나 부풀은 바지, 짧은 망토, 그리고 셔츠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 듯했다. 그는 벨벳으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비단 자락이 언뜻언뜻 보였고, 그 위에는 셔츠를 덧입고 있었다. 양말은 비단이었고 신발은 궁정에서 신는 것처럼 앞코가 뭉툭했다. 나이는 열여덟이나 열아홉 살쯤 되어 보였으며,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몸놀림도 날렵해 보였다. 그는 길을 가는 무료함을 달래려고 세기디야 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들이 젊은이에게 다다랐을 때 그는 마침 노래 한 곡을 끝마쳤는데, 사촌이 그 노래를 기억해 내어 읊어주기를, 내용은 이러했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향하네. 만약 돈만 있었다면, 정말이지 가지 않았을 것을.

가장 먼저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은 돈키호테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 멋쟁이 양반, 걸음이 너무 급하신 것 아닙니까? 대체 어디로 그리 바삐 가시는지요? 괜찮으시다면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젊은이가 대답했다.

"더위와 가난 때문에 이렇게 급히 걷는 것이라오. 그리고 나는 전쟁터로 가는 길이라네."

"가난이라니요?" 돈키호테가 물었다. "더위 때문일 수는 있겠으나, 가난 때문이라니요?"

"나리," 청년이 대답했다. "이 보따리 안에는 지금 입고 있는 겉옷과 어울리는 벨벳 소재의 그리스식 바지가 들어 있습니다. 길 위에서 이 옷을 다 해지게 하면, 정작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옷으로 체면을 차릴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새 옷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고 바람도 쐴 겸 해서 이런 차림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12레구아도 채 안 되는 곳에 보병 부대가 있는데, 거기서 입대할 생각입니다. 일단 부대에 합류하고 나면, 거기서부터 카르타헤나에 있다는 승선지까지 타고 갈 짐말이야 얼마든지 있을 테고요. 궁정에서 빈털터리 나리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국왕 폐하를 주인으로 모시고 전쟁터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운 좋게 얻은 이점이라도 있으신지요?" 사촌이 물었다.

"만약 제가 스페인의 고귀한 귀족이나 높은 신분의 분을 모셨더라면, 분명 운이 따랐을 겁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훌륭한 분들을 모시는 일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보통 하인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부관이나 대위가 되거나, 적어도 먹고살 만한 대접을 받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늘 뜨내기 상인이나 근본 없는 자들 밑에서 일했습니다. 급료는 어찌나 형편없고 쥐꼬리만 한지, 옷깃에 풀이라도 먹이려면 월급의 절반이 다 나갈 정도였지요. 이런 처지의 떠

돌이 시종이 그나마 괜찮은 운이라도 만난다면, 그건 기적이라 불러야 할 겁니다."

"그나저나 친구여, 내 말 좀 들어보게." 돈키호테가 물었다. "자네가 일해 온 세월 동안, 제복 한 벌 얻지 못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두 벌이나 받았습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서원을 하기도 전에 수도회를 떠나면 수도복을 벗기고 원래 입던 옷을 돌려주는 법인데, 제 주인들도 꼭 그렇게 제 옷을 도로 돌려주었지요. 주인들은 궁정에 보러 온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저 과시용으로 내주었던 제복들을 다시 거두어 갔으니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듯 참으로 인색한 처사로군."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품은 그 선한 마음을 간직한 채 궁정을 떠나게 된 것을 행운이라 여기게나. 세상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고, 그다음에는 자네의 진정한 왕이자 주군을 섬기는 것보다 더 명예롭고 유익한 일은 없으니 말일세. 특히 무기를 다루는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지.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무예를 통해서는 학문보다 부는 못 얻을지언정 명예만큼은 더 얻을 수 있다네. 학문이 무예보다 더 많은 세습 영지를 일으켰을지는 몰라도, 무예를 닦은 이들에게는 학문하는 이들이 갖지 못한 어떤 찬란한 기품이 흐르고 있어 그들 모두를 압도한다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꼭 기억해 두게나. 앞으로 겪을 고난 속에서 큰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될 걸세. 앞으로 닥칠 불행한 일들은 미리 상상하지 말라는 말일세. 그중 가장 최악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좋은 죽

음이라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죽는 것이라네. 용맹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어떤 죽음이 가장 좋은지 물었더니,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답했다네. 비록 그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 대답하긴 했으나, 인간적인 괴로움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는 옳은 말이었지. 만약 자네가 첫 전투나 난전 중에 죽거나, 대포 한 방에, 혹은 지뢰가 터져 죽는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나? 그저 죽는 것이고, 모든 소임이 끝나는 것뿐이라네. 테렌티우스의 말에 따르면, 도망치며 목숨만 부지하는 사람보다 전장에서 죽은 병사가 훨씬 보기 좋다네. 또한 훌륭한 병사는 상관과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들에게 복종하는 만큼 명성을 얻는 법이지.

그리고 아들아, 명심하게나. 병사에게는 사향 냄새보다 화약 냄새가 더 어울리는 법이라네. 만약 이 명예로운 일을 하다가 노년에 접어들게 된다면, 비록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를 절게 될지라도, 적어도 명예를 잃은 채 노년을 맞이하지는 않을 것이네. 명예가 있다면 가난조차 자네의 품위를 깎아내리지 못할 걸세. 게다가 이제는 늙고 다친 병사들을 보살피고 구제하는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네. 늙어서 더는 부릴 수 없게 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답시고 집 밖으로 내쫓아, 자유인이라는 이름만 붙여준 채 굶주림의 노예로 만드는 짓을 병사들에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그 굶주림에서는 오직 죽음으로써만 벗어날 수 있으니 말일세.

지금은 더 말하지 않겠네. 우선 내 말 등에 올라타서 여관까지 가게나. 거기서 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나게나. 하나님께서 자네의 소망만큼이나 좋은 길을 열어주시길 빌겠네."

시종은 말 등에 올라타자는 제안은 거절했지만, 여관에서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제안은 받아들였다. 이때 산초 판사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지켜주시기를! 저렇게 훌륭하고 멋진 말을 줄줄 읊는 분이, 정작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보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일들을 직접 겪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뭐, 결국 시간이 말해주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해가 저물 무렵 여관에 도착했다. 산초 판사는 기분이 꽤 좋았다. 주인님께서 이번에는 여관을 평소처럼 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대로 여관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돈키호테가 여관 주인에게 창과 알라바르다를 짊어진 남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그 남자가 마구간에서 짐승을 돌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사촌과 산초 판사도 각자의 나귀를 돌보러 갔다. 그들은 로시난테에게 마구간에서 가장 좋은 먹이통과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었다.

제25장



제25장. 당나귀 울음소리 소동과 인형술사의 익살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예언하는 원숭이의 놀라운 수수께끼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무기를 다루는 그 사내가 약속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알기 전까지는, 흔히 말하듯 빵 한 조각조차 구워 먹지 못할 기세였

다. 그는 여관 주인이 알려준 곳으로 그를 찾아갔다. 돈키호테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아까 길에서 물었던 일에 대해 나중에 해주기로 한 이야기를 어찌 됐든 지금 당장 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다.

"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으시려면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서서 듣지 말고 앉아서 들으셔야 합니다. 착한 나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짐승에게 먹이를 다 먹이고 나면, 나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룰 것 없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무엇이든 도와드리리다."

돈키호테는 곧바로 그 말대로 보리를 까불러 먹이고 여물통까지 깨끗이 치워 주었다. 이런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움직인 사내는 기꺼이 그가 청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사내가 돌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돈키호테도 그 곁에 앉았고, 사촌과 시종, 산초 판사, 그리고 여관 주인이 의회이자 청중처럼 둘러앉았다. 그러자 사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여관에서 네 레구아 반쯤 떨어진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의 한 관리에게 일이 생겼는데, 그가 부리던 하녀의 꾀와 잔머리 때문이었지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그 관리의 당나귀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관리가 당나귀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당나귀가 사라진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심에 빠진 그 관리가 광장에 나와 있는데, 같은 마을의 다른 관리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좋은 소식 값을 내게나. 자네 당나귀를 찾았네!'

'그러지, 그것도 후하게 쳐줌세, 친구. 정말 고맙네.' 다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찾았는지부터 말해 주게나.'

'산속이라네.' 당나귀를 찾은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안장도 없고 짐도 하나 없이 어찌나 홀쭉해졌던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네. 내 앞으로 몰아 자네한테 데려다주려 했지만, 워낙 사나워지고 겁이 많아져서 내가 다가가니 그대로 도망쳐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 버리더군. 자네와 내가 함께 다시 찾으러 가려거든, 이 암나귀부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곧 돌아올 테니 기다려 주게.'

'그렇게 해 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당나귀를 잃어버린 관리가 말했습니다. '나도 반드시 같은 식으로 보답함세.'

이 모든 정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대로,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전합니다. 결국 두 관리는 나란히 걸어서 산으로 향했고, 당나귀가 있을 법한 곳에 이르렀지만 당나귀는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찾아 헤매도 그 일대 어디에서도 자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당나귀를 봤다던 관리가 다른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좋은 수가 하나 떠올랐네. 이 방법이라면 당나귀가 산속은 커녕 땅속 깊이 처박혀 있다 해도 틀림없이 찾아낼 수 있을 걸세. 내가 당나귀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흉내 내거든. 자네도 조금이나마 할 줄 안다면, 이 일은 다 된 셈이네.'

'조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친구?' 다른 관리가 말했습니다. '맹세컨대 누구한테도, 심지어 진짜 당나귀한테도 안 질 자신이 있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두 번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산의 한쪽으로 가고 나는 다른 쪽으로 가서, 당나귀를 에워싸듯 온 산을 샅샅이 도는 거지. 그러면서 군데군데서 자네도 울고 나도 울면, 당나귀가 산속에 있기만 하다면 분명 우리 소리를 듣고 대답할 걸세.'

그러자 당나귀 주인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그 방법 정말 훌륭하군. 자네의 그 뛰어난 재치에 딱 어울리는 수일세.'

두 사람은 약속한 대로 갈라져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이 울음소리를 내는 바람에, 서로 상대의 울음소리에 속아 자기 당나귀가 나타난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서로 마주치자 상심했던 관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친구, 방금 운 게 내 당나귀가 아니었단 말인가?'

'자네 당나귀가 아니라 바로 날세.' 다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친구, 울음소리 하나만큼은 자네와 당나귀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구먼. 살다 살다 이렇게 똑같은 소리는 처음 듣네.'

'그런 칭찬과 추어올림은 나보다 자네한테 더 어울리는 말일세, 친구.' 그 꾀를 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느님께 맹세코, 자네는 세상에서 가장 울음소리 크고 능숙한 당나귀 울음꾼보다도 두 울음은 더 앞설 걸세. 소리는 높고, 길게 뽑는 가락은 박자와 장단이 척척 맞고, 끝맺는 여운은 풍부하고도 다급하니 말이야. 결국 나는 두 손 들고, 자네의 그 보기 드문 재주에 승리의 깃발을 바치며 패배를 인정하겠네.'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군.' 당나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나 자신을 좀 더 높이 보고 아껴야겠어. 나도 재주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잘 운다고 여기긴 했어도, 자네가 말한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네.'

'세상에는 이렇게 보기 드문 재주가 묻혀 있는 경우가 많지.' 두 번째 관리가 말했습니다. '그걸 살릴 줄 모르는 자들에게 가 있으니 헛되이 버려지는 거라네.'

'우리 재주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일이 아니고서는 다른 데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당나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에는 부디 하느님의 가호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

이 말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갈라져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로 속아 다시 만나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당나귀가 아니라 자기들임을 알아보도록 연이어 두 번씩 울기로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걸음마다 울음소리를 두 번씩 내며 산 전체를 돌았지만, 잃어버린 당나귀는 기척조차, 시늉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엾고 운 없는 당나귀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숲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늑대들에게 잡아먹힌 채 발견되었으니 말입니다. 당나귀를 발견한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쩐지 대답이 없다 했네! 죽지만 않았다면 우리 소리를 듣고 분명 울었을 걸세. 안 그러면 당나귀라 할 수 없지. 그래도 친구, 자네의 그 기막힌 울음소리를 들었으니, 비록 죽은 채로 찾긴 했어도 그놈을 찾으러 다닌 보람은 충분하네.'

'염려 말게, 친구.' 다른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이 노래를 잘하면 복사도 그에 못지않은 법이니까.'

두 사람은 허탈하고 목이 쉰 채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 아는 사람들에게 당나귀를 찾으러 다니며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 상대가 울음소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냈는지 한껏 추어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세 퍼져서 인근 마을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지 않는 악마는 어디서든 다툼과 불화의 씨를 뿌리고 퍼뜨리기를 좋아하는지라, 바람에 갈대 피리를 울리듯 별것 아닌 일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악마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을 보

기만 하면, 마치 그 관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이대며 면박을 주듯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도록 만들었지요. 게다가 아이들까지 가세하니, 이는 지옥의 온갖 악마들의 손과 입에 떨어진 격이어서, 당나귀 울음소리 놀림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을 사람들은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듯, '당나귀 울음소리 마을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림이 빚은 불행이 어찌나 심해졌는지, 놀림을 당한 쪽이 무기를 들고 대오를 짜서 놀린 자들에게 맞서 싸우러 나가는 일까지 벌어졌고, 왕이든 누구든,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으로도 도무지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당나귀 울음소리로 통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는, 우리 마을에서 2레구아 떨어진 이웃 마을을 향해 출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채비를 갖추려고 여러분이 보신 이 창과 미늘창들을 사 두었지요. 자, 이것이 제가 들려드리겠다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신기하게 들리지 않으셨다면, 저로서는 더 들려드릴 이야기가 없군요."

그렇게 해서 그 선량한 사내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 온통 세무 가죽으로 된 옷에 긴 양말, 헐렁한 반바지와 더블릿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여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관 주인장, 묵을 방이 있소? 여기 점쟁이 원숭이와 멜리센드라 해방을 다룬 인형극이 도착할 참이오!"

"세상에나, 이럴 수가!" 여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마세 페드로 씨가 오셨구먼! 오늘 밤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생기겠어."

그런데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마세 페드로는 왼쪽 눈과 뺨 절반을 초록색 호박단 안대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쪽 얼굴이 온통 병들었다는 표시인 듯했습니다. 그러고서 여관 주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마세 페드로 씨,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원숭이랑 인형극 무대는 어디 있습니까? 도통 보이지가 않네요."

"곧 도착할 겁니다." 온통 세무 가죽옷을 입은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먼저 앞서 온 것뿐이지요."

"알바 공작님한테서라도 빼앗아 마세 페드로 씨께 내드릴 겁니다." 여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숭이랑 인형극 무대나 어서 도착하면 좋겠군요. 오늘 밤 여관에 손님이 많으니, 인형극 구경값에 원숭이 재주 부리는 값까지 톡톡히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좋습니다." 안대를 한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값은 적당히 깎아 드리지요. 든 비용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럼 저는 원숭이랑 인형극 무대를 실은 수레가 어서 오도록 다시 재촉하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여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돈키호테는 이어서 여관 주인에게 저 페드로라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인형극 무대와 원숭이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인형극 배우입니다. 벌써 며칠째 이 아라곤의 라만차 지방을 돌아다니며 '멜리센드라' 이야기를 공연하고 있지요. 위대한 돈 가이페로스가 그녀를 해방해 주는 내용인데, 최근 몇 년간 이 왕국에서 본 인형극 중 가장 훌륭하고 연출도 뛰어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또 아주 기이한 재주를 가진 원숭이 한 마리도 데리고 다닙니다. 원숭이 중에서도 보기 드물고 사람 중에서도 상상조차 못 할 재주를 가졌지요.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면 원숭이가 귀를 기울여 듣고는, 주인 어깨 위로 껑충 뛰어올라 주인의 귀에 대고 정답을 속삭여 줍니다. 그러면 마세 페드로가 곧바로 그 답을 외치는 식이지요. 이 원숭이는 앞날에 관한 일보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번 맞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틀리지 않아서, 사람들은 저 원숭이 몸속에 악마가 들었나 보다 생각할 정도입니다. 원숭이가 대답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인이 원숭이의 귓속말을 듣고 대신 대답해 줄 때마다 질문 하나당 2레알씩 받습니다. 덕분에 저 마세 페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라고들 합니다. 이탈리아 말로 '신사답고 싹싹한 사람'이라 할까요, 아주 매너가 좋고 세상에서 제일가는 호사를 누리며 산다고 합니다. 말은 여섯 명분보다 많이 하고 술은 열두 명분보다 많이 마시는데, 그 돈을 다 저 입과 원숭이, 그리고 인형극으로 벌어들인 것이지요."

이때 마에세 페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수레에는 인형극 무대가 실려 있었고, 꼬리가 없는 커다란 원숭이 한 마리도 함께 있었는데, 엉덩이는 펠트처럼 털이 없었지만 얼굴은 그리 험상궂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는 원숭이를 보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언자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물고기를 낚게 될까요? 저희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제 돈 2레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그 돈을 마에세 페드로에게 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마에세 페드로는 원숭이를 대신해 대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대답도 못 하고 아무런 소식도 전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지나간 일은 조금 알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느 정도 알 뿐이지요."

"세상에나!" 산초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말해준다고 해서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내놓는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요! 내가 겪은 일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듣는 대가로 돈을 내는 건 정말이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짐승이 지금 벌어지는 일은 안다고 하니, 여기 내 레알 두 개를 드릴 테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대단하신 짐승님, 지금 내 아내 테레사 판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마에세 페드로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보상을 받기도 전에 미리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일을 완수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마에세 페드로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두 번 탁탁 쳤습니다. 그러자 원숭이가 껑충 뛰어올라 그의 어깨에 올라앉더니, 입을 귀에 바짝 갖다 대고는 아주 빠르게 이빨을 딱딱 부딪쳐 댔습니다. 원숭이가 사도

신경 한 번을 윌 정도의 시간 동안 이런 몸짓을 하더니, 다시 한 번 껑충 뛰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마에세 페드로는 무척이나 서둘러 돈키호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를 붙잡고 있노라면 마치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껴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 이미 잊힌 편력기사도를 다시 살려내신 위대한 부활자시여! 오,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라만차의 돈키호테 기사여! 낙담한 이들의 용기가 되시고, 쓰러지려는 이들의 버팀목이 되시며, 쓰러진 이들의 팔이 되어주시고, 모든 불행한 이들의 지팡이와 위안이 되어주시는 분이시여!"

돈키호테는 멍하니 서 있었고, 산초 판사는 넋을 잃었으며, 사촌은 어안이 벙벙해졌고, 시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나귀 소리를 흉내 내던 이는 멍청한 표정이 되었고, 여관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인형술사의 말을 들은 모든 이가 겁에 질려 얼어붙었을 때, 인형술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 오, 착한 산초 판사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사를 모시는 최고의 종자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아내 테레사는 아주 건강하답니다. 지금쯤 그녀는 아마 섬유 한 파운드를 빗질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녀의 왼쪽 옆에는 주둥이가 깨진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포도주가 제법 넉넉히 들어 있어 그녀는 일하면서 그 술을 곁들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 생각도 아주 그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질투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제 주인님 말씀처럼 아주 점잖고 훌륭한 여인이었던 거인 안단도나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제 아내 테레사는 설령 자기 상속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축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 한 몸은 결코 궁색하게 두지 않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제 내 생각을 말하겠소."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이 보고 많이 아는 법이라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방금 내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세상에 점을 치는 원숭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면 대체 어떤 설득이 필요하겠소? 방금 이 짐승이 나를 칭송하느라 말을 길게 늘어놓긴 했지만, 나는 바로 그가 말한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맞소.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늘에 감사를 드리고 있소. 하늘이 내게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고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주셨으니 말이오."

"제게 돈만 있다면," 시종이 말했습니다. "이 여행 중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 원숭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의 발치에서 이미 몸을 일으킨 마에세 페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물은 앞날을 점쳐주지 않는다고요. 만약 점을 칠 수 있다면 돈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돈키호테 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세상의 온갖 이익 따위는

다 내팽개칠 테니까요. 자, 이제는 제가 그분께 신세를 진 데다 그분을 즐겁게 해 드리고 싶기도 하니, 아무런 대가 없이 제 재주를 부려 이 여관에 계신 모든 분께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관 주인은 무척이나 기뻐하며 재주를 부릴 자리를 가리켰고, 곧바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원숭이가 점을 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에, 그 점괘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원숭이가 앞날을 예언하든 지나간 일을 맞히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에세 페드로가 재주를 부릴 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돈키호테는 산초와 함께 마구간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듣거라, 산초야. 내가 이 원숭이의 기묘한 재주를 찬찬히 살펴보니, 저 주인인 마에세 페드로가 분명 악마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계약을 맺었음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그 마당이 빽빽하고 악마의 소굴이라면, 분명 아주 지저분한 마당이겠지요." 산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 마에세 페드로라는 사람이 그런 마당을 가져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산초야, 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내 말은, 저 원숭이에게 그런 재주를 불어넣어 먹고살게 하려고 저 주인이 악마와 어떤 계약이라도 맺었음이 틀림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악마는 저 주인이 배불리 먹고 부자가 된 뒤에 그의 영혼을 가져갈 텐데, 바로 그것이 만인의 적인 악

마가 노리는 바 아니겠느냐. 원숭이가 오직 과거와 현재의 일에만 대답하는 것을 보니 내 생각은 더욱 확고해진다. 악마의 지혜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기 마련이다. 미래의 일은 짐작만 할 뿐이고, 그마저도 매번 맞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시기와 때를 아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만 허락된 권능이며, 하느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직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저 원숭이가 악마의 말투로 말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저 원숭이를 종교 재판소에 고발하여, 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 점을 치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뿌리째 캐내지 않은 것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분명한 건 저 원숭이는 점성술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인도 원숭이도, 요즘 스페인에서 흔히들 쓰는 저 점성 도표를 뽑을 줄도 모르고 뽑을 능력도 없다. 요즘은 웬만한 아낙네나 시종, 심지어 늙은 구두 수선공조차도 마치 바닥에 떨어진 카드 한 장을 집어 들듯 점괘 도표를 뽑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치며, 거짓과 무지로 그 경이로운 학문의 진실을 더럽히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아는 어떤 부인께서 이런 점쟁이 중 한 명에게 물은 적이 있다. 자기가 기르는, 무릎에 안고 다니는 작은 애완견이 새끼를 밸 수 있는지, 만약 밴다면 몇 마리나 낳을지, 또 새끼들은 무슨 색일지를 말이다. 그러자 점쟁이는 점성 도표를 뽑아본 뒤 이렇게 대답했다. 그 강아지가 새끼를 밸 것이며, 초록색 한 마리, 진홍색 한 마리, 그리고 얼룩무늬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를 낳을 것이라고 말이다. 단, 그 강아지가 낮이든 밤이든 열한 시에서 열두 시 사이에 교미를 해야 하며, 그날이 월요일이나 토요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느냐? 이틀 뒤에 그 강아지는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터져 죽고 말았다. 그런데

도 그 점쟁이는 그 마을에서 더없이 용한 점쟁이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으니, 점치는 자들이란 대개 다들 그런 식이지 않느냐."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님께서 마에세 페드로에게 부탁하여 그 원숭이에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인님께서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겪으신 일이 정말 사실인지 말입니다. 주인님께 결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속임수나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꿈속에서나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 조언대로 해 보마. 그래야 내 마음속에 남을지 모를 찝찝함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구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에세 페드로가 돈키호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대 장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꼭 와서 구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생각을 마에세 페드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겪은 일들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이었는지, 나중에 원숭이에게 꼭 물어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돈키호테가 보기에는 그 일이 꿈인지 실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에세 페드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원숭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앞에 원숭이를 세워 두고 말했습니다.

"자, 원숭이님, 잘 보세요. 이 기사님께서 몬테시노스라고 불리는 동굴에서 겪은 일들이 가짜였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원숭이가 평소처럼 신호를 보내더니 돈키호테의 왼쪽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에세 페드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숭이님 말씀으로는, 귀하께서 그 동굴에서 보고 겪으신 일들 중 어떤 것은 가짜이고 어떤 것은 그럴듯한 진짜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원숭이가 아는 것이 여기까지이며, 그 이상은 모른다고 하네요. 만약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가오는 금요일에 무엇이든 묻는 말에 다 대답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원숭이의 신통한 능력이 다해버려서, 아까 말한 대로 금요일이 되어야 다시 능력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산초가 말했습니다. "제 주인님께서 그 동굴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사실도 아니고, 그 절반조차도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 제가 계속 의심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세상 만물을 밝혀내는 시간이라는 녀석은, 설령 어떤 일이 땅속 깊이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햇빛 아래로 끌어내고야 마는 법이니까.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페드로 씨의 인형극을 보러 가자꾸나. 분명 뭔가 새로운 구경거리가 있을 게다."

"새로운 구경거리라니요, 어떤 게 말입니까?" 페드로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인형극 안에는 무려 육만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돈키호테 주인님, 오늘 세상에서 가장 볼만한 구경거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

시오. 자, 이제 서둘러 시작합시다. 날이 저물고 있으니 할 일도 많고, 들려드릴 이야기도 보여드릴 것도 아주 많으니까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그의 말에 따라, 이미 무대가 설치되어 막이 걷힌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곳곳에는 밀랍 초들이 환하게 켜져 있어, 인형극 무대를 아주 화려하고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페드로 씨는 인형들을 조종하기 위해 무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밖에는 페드로 씨의 하인인 한 소년이 서서, 인형극의 신비로운 장면들을 설명하고 해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소년은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무대에 나타나는 인형들을 하나하나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대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시종과 사촌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해설자가 입을 열어, 다음 장을 읽거나 보는 이들이 듣고 보게 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26장



제26장. 인형극사의 익살스러운 모험이 계속되는 대목, 그리고 그 외에 참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티로스인도 트로이인도, 다시 말해 인형극 무대를 바라보던 모든 이가 경이로운 이야기를 해설하는 소년의 입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때 무대 위에서 수많은 북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이어서 대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 소란은 잠시 이어지다 이내 잦아들었고, 곧이어 소년이 다시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이 실화는 프랑스 연대기와 스페인 민요들을 토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저 거리의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들이지요. 이 이야기는 돈 가이페로스가 스페인의 산수에냐 성에 포로로 잡혀 있던 아내 멜리센드라를 구출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산수에냐는 지금의 사라고사를 일컫는 이름이지요. 자, 여러분, 노래 가사에서 묘사하듯 돈 가이페로스가 저기서 어떻게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돈 가이페로스는 저기서 주사위 놀이에 푹 빠져, 아내 멜리센드라는 이미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는 홀을 든 채 저기 나타나는 인물은 멜리센드라의 양아버지인 황제 카를 대제입니다. 그는 사위가 빈둥거리며 방탕하게 구는 모습에 화가 나 꾸짖으러 나옵니다. 황제가 얼마나 격렬하고 기세등등하게 꾸짖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마치 홀로 사위의 머리를 대여섯 대는 후려칠 기세입니다. 어떤 작가들은 황제가 실제로 사위의 머리를 때렸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었지요. 황제는 아내를 구하려 애쓰지 않으면 가문의 명예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갖은 잔소리를 늘어놓은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자, 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황제가 등을 돌려 돈 가이페로스를 분통 터지게 내버려 두고 떠나는 모습도 잘 살펴보십시오. 돈 가이페로스가 화를 참지 못해 놀이판과 말들을 멀리 내던지는 모습도 보이실 겁니다. 그는 서둘러 무기를 챙기고, 사촌인 돈 로를란에게 자신의 검 뒤린다나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돈 로를란은 그가 마주할 험난한 모험에 동행하겠다 제안하며 검을 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맹한 돈 가이페로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설령 아내가 땅속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다 해도, 자신 혼자서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지요. 그러고는 곧장 길을 떠나기 위해 무장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길을 저기 보이는 탑으로 돌려보십시오. 저 탑은 지금은 알하페리아라고 불리는 사라고사의 알카사르에 있는 탑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발코니에 보이는 여인은 무어인 복장을 한, 비길 데 없이 아름다운 멜리센드라입니다. 그녀는 저곳에서 프랑스로 향하는 길을 자주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파리와 남편을 생각하며 포로 생활의 슬픔을 달래곤 했지요.

자, 이제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을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댄 채 조용히, 그리고 살금살금 멜리센드라의 뒤로 다가가는 저 무어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 무어인이 그녀의 입술 한가운데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그녀는 급히 침을 뱉어내고 하얀 셔츠 소매로 입술을 닦아냅니다. 그러고는 마치 머리카락이 이 저주스러운 일의 원인이라도 되는 양, 슬픔에 겨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통곡합니다.

또한 저 복도에 서 있는 엄숙한 표정의 무어인이 산수에냐의 왕 마르실리오라는 사실도 주목하십시오. 마르실리오는 그 무어인이 자신의 친척이자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는, 즉시 그를 체포하여 도시의 관례에 따라 길거리로 끌고 나가 채찍질을 이백 대나 하라고 명령합니다.

앞에서는 죄목을 외쳐대는 포고꾼들이 앞장서고, 뒤에서는 곤봉을 든 형리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가 채 저질러지기도 전에 형벌을 집행하러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어인들 사이에는 우리처럼 '상대편에게 송달한다'거나 '증거 조사에 부쳐 그때까지 보류한다'는 식의 소송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얘야, 얘야!" 이때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야기는 곧장 쭉 이어가거라. 괜히 이리저리 곁길로 새거나 말을 돌리지 말고 말이다. 진실을 명확히 밝히려면 수많은 검증과 재검증이 필요한 법이니라."

안에서 마에스 페드로도 말을 거들었다.

"얘야, 괜히 딴짓하지 말고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렴.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란다. 노래를 부를 때도 곁가지로 빠지지 말고 곧게 쭉 이어가야지, 괜히 복잡하게 대위법을 섞으려 들다가는 사소한 실수로 노래를 망치기 십상이란다."

"그렇게 할게요." 소년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기 가스콩식 망토를 두르고 말을 탄 것처럼 보이는 인형은 바로 돈 가이페로스예요. 사랑에 빠진 무례한 무어인에게 복수를 마친 그의 아내는, 훨씬 더 밝고 평온한 얼굴로 탑의 전망대에 올라서서 남편을 맞이해요. 아내는 남편을 지나가는 행인 중 한 명으로 착각하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내며 대화를 나누지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님, 만약 프랑스로 가신다면 가이페로스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일일이 늘어놓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듣는 사람이 지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대신 돈 가이페로스가 투구를 벗는 모습과, 멜리센드라가 기뻐하며 몸짓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몸짓만 봐도 그녀가 남편을 알아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발코니에서 몸을 내려와 사랑하는 남편의 말 안장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면 더욱 확실하지요. 그런데 아아, 불행하게도! 그녀의 치맛자락 끝이 발코니 난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하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법입니다. 돈 가이페로스가 다가와서, 값비싼 치맛자락이 찢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잡아당겨 그녀를 무사히 땅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러고는 단숨에 그녀를 들어 올려 말 안장에 남자처럼 올라타게 합니다. 그러고는 떨어지지 않도록 남편의 등에 팔을 둘러 가슴 쪽으로 꽉 껴안으라고 일러줍니다. 멜리센드라 부인이 이런 기사도식의 거친 행동에 익숙하지 않았

기 때문이지요. 또한 말이 히힝거리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용맹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등에 태운 것이 무척이나 즐겁다는 신호입니다. 두 사람이 말을 돌려 도시를 빠져나와 파리로 향하는 길을 기쁘고 즐겁게 나아가는 모습도 보십시오. 오, 세상에 둘도 없는 진정한 연인들이여, 평안히 가십시오! 운명이 그대들의 행복한 여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는 고향 땅에 무사히 도착하기를! 그대들의 친구와 친척들이, 네스토르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나날을 보내는 그대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이때 마에스 페드로가 다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얘야, 담백하게 해라. 너무 잘난 체하지 말고. 지나친 꾸밈은 다 좋지 않은 법이란다."

해설하던 소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길 좋아하는 게으른 눈들이라면, 멜리센드라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마르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왕은 즉시 무기를 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다들 서두르십시오! 이슬람 사원의 모든 첨탑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도시가 통째로 가라앉을 지경이니까요!"

"그건 틀렸습니다!" 그 순간 돈키호테가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마에세 페드로, 종소리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부적절하군요. 무어인들은 종을 치지 않고 북을 치거나, 우리 지역의 치리미아와 비슷한 종

류의 둔세이나 연주하니까요. 게다가 산수에냐에서 종을 울린다는 건 분명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마에세 페드로가 이 말을 듣고는 연주를 멈추며 말했습니다.

"돈키호테 나리, 그런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무 꼬투리를 잡으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부적절하고 말도 안 되는 설정이 가득한 연극이 거의 예사로 수천 편씩 공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들 더없이 성공적으로 흥행하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건 물론이고 감탄까지 하며 즐겁게 구경합니다." 마에세 페드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 얘야, 계속하거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버려 두고. 내 주머니만 두둑이 채울 수 있다면, 태양의 원자 수보다 더 많은 엉터리 이야기를 보여준들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 말씀이 옳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두 가톨릭 연인을 뒤쫓아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눈부신지! 저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둔세이나 소리, 그리고 둥둥 울리는 북소리를 좀 들어 보십시오. 저들이 두 사람을 따라잡아, 자기들이 타고 온 바로 그 말 꼬리에 묶은 채 끌고 돌아올까 봐 겁이 나는군요. 정말 끔찍한 광경이 될 겁니다."

돈키호테는 그토록 요란스러운 이슬람풍의 소동과 소란을 보고 듣자, 도망치는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 돈 가이페로스처럼 유명한 기사이자 용맹한 연인에게 이런 가짜 연극을 보여주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이 천한 것들아, 멈춰라! 저들을 쫓거나 괴롭히지 마라! 만약 계속한다면, 나를 상대로 싸우게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을 동시에 하며 그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훌쩍 뛰어올라 인형 무대 바로 옆에 자리를 잡더니,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격렬한 기세로 인형극 속 이슬람 무리에게 칼날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형은 쓰러뜨리고, 어떤 인형은 목을 베고, 누구는 망가뜨리고, 또 누구는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칼질을 어찌나 세차게 휘둘렀던지, 만약 마에세 페드로가 몸을 낮추어 움츠리고 납작 엎드리지 않았다면, 마치 마지판 반죽으로 빚은 머리인 양 손쉽게 그의 목이 잘려 나갔을 정도였습니다. 마에세 페드로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키호테 님, 제발 멈춰 주십시오! 당신이 쓰러뜨리고 부수고 죽이고 있는 저들은 진짜 무어인이 아니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인형일 뿐입니다! 아이고, 이 죄인 같으니라고! 저 사람이 내 전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못 쓰게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돈키호테는 아랑곳하지 않고 칼질과 휘두르기, 베기와 치기 등을 빗줄기처럼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주기도문을 두 번 채 읊기도 전에, 그는 인형 무대 전체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장식하던 모든 소품과 인형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르실리오 왕은 중상을 입었고, 카를 대제 황제는

왕관과 머리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구경하던 관객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소란을 피웠고, 원숭이는 창문 지붕 너머로 달아났으며, 사촌은 겁에 질리고 시종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심지어 산초 판사조차 엄청난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뒤 산초가 맹세하기를, 주인님이 이토록 무모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은 평생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인형 무대가 완전히 박살 나고 나서야 돈키호테는 조금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 편력기사가 세상에서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믿지 않거나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고 싶구나. 보아라, 만약 내가 여기 없었더라면 용맹한 돈 가이페로스와 아름다운 멜리센드라가 어찌 되었겠느냐? 분명 저 개 같은 놈들에게 붙잡혀 무슨 변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편력기사도가 최고로다!"

"그럼 마음껏 만세를 부르시구려." 이때 마에세 페드로가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죽어 마땅하지요. 저는 너무도 불행한 처지라 로드리고 왕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스페인의 주인이었거늘… 오늘날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성벽 한 칸조차 남아 있지 않구나!"

"불과 반 시간도, 아니 잠깐의 순간도 지나지 않았거늘, 방금 전까지 나는 왕들과 황제들의 주인이었소. 내 마구간과 궤짝, 자루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말과 끝도 없는 화려한 장식품들로 가득했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나는 황폐해지고 낙담하여, 가난한 거지 신세가 되었소. 무엇보

다도 내 원숭이를 잃었으니, 맹세코 그놈을 다시 되찾기 전에는 이를 갈며 피눈물을 흘릴 것이오. 이 모든 게 후견 받는 고아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일을 바로잡으며, 그 밖의 자비로운 일을 한다고 칭송받는 저 기사님의 경솔한 분노 때문이라니! 저 기사님의 너그러운 본심이 나에게만큼은 미치지 못했으니, 하늘의 보좌가 가장 높이 솟아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축복과 찬양이 가득하기를 빌 뿐이오. 결국, '슬픈 형상의 기사'라는 이름은 바로 나의 형상을 망가뜨린 자를 일컫는 말이었구려."

산초 판사는 마에세 페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에세 페드로, 울지 마세요. 그렇게 한탄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제 주인 돈키호테님은 아주 독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러니 만약 주인님께서 당신에게 결례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다면, 반드시 그 잘못을 알고는 당신에게 아주 큰 보상을 해줌으로써 마음을 달래 주실 겁니다."

"그러니 주인 돈키호테님께서 제가 망가뜨린 물건값 중 일부라도 쳐서 갚아 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님의 양심도 편안해지시겠지요. 남의 물건을 주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 놓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마에세 페드로, 지금까지 제가 당신의 물건을 가져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찌 아니겠습니까?" 마에세 페드로가 대답했다. "이 딱딱하고 메마른 땅 위에 흩어져 형체도 없이 부서진 이 유물들을 보십시오. 저 강력한 팔의 무적에 가까운 힘이 아니면 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건들이 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것이었겠습니까? 제가 이것들 덕분에 먹고살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키호테가 이 대목에서 말했다. "제가 그동안 수없이 믿어왔던 사실을 말입니다. 저를 괴롭히는 마법사들이 제 눈앞에 사물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뒤, 곧바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로 말씀드리건대, 방금 일어난 일들은 모두 글자 그대로 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멜리센드라는 멜리센드라였고, 돈 가이페로스는 돈 가이페로스였으며, 마르실리오는 마르실리오였고, 카를 대제는 카를 대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 떠돌이 기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도망치는 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며, 그 선한 의도로 여러분이 보신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저를 괴롭히는 악한 마법사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악의에서 비롯된 실수는 아니었으나 제 잘못을 인정하여 비용을 부담하겠습니다. 마에세 페드로, 부서진 인형들의 값을 얼마로 정하든 말씀하십시오. 조만간 제대로 된 카스티야 화폐로 지불하겠습니다."

마에세 페드로가 몸을 굽히며 그에게 말했다.

"용맹하신 라만차의 돈키호테 님이야말로 모든 궁핍하고 어려운 떠돌이들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수호자이시니,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주인장과 위대한 산초 판사께서 귀하와 저 사이에서, 이미 부서진 인형들의 가치가 얼마이며 또 얼마면 적당할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고 중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인장과 산초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에세 페드로는 머리가 떨어져 나간 사라고사의 왕 마르실리오 인형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 왕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 제 식견으로는, 더 나은 판단이 없다면 이 인형의 죽음과 종말, 그 마지막에 대한 값으로 4레알 반을 받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마에세 페드로가 말했다.

"어서 계속하시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 여기 위아래로 난 이 틈을 보면 말입니다." 마에세 페드로가 두 동강 난 카를 대제 황제 인형을 손에 들고 말을 이었다. "제가 5레알과 1쿠아르티요를 달라고 해도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겁니다."

"그게 어디 적은 돈입니까." 산초가 말했다.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지요." 여관 주인이 대꾸했다. "그 차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5레알로 정합시다."

"5레알과 1쿠아르티요를 다 주시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놀라운 불행의 값이 1쿠아르티요 더하고 덜한 데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니 말이오. 마에세 페드로,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으니 어서 끝내시오. 나도 슬슬 배가 고파오는 것 같으니 말이오."

"코가 없고 눈도 하나 없는 저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마에세 페드로가 말했다. "아름다운 멜리센드라의 모습이 저렇게 되었으니, 딱 맞춰서 2레알과 12마라베디를 받겠습니다."

"멜리센드라가 지금쯤 남편과 함께 적어도 프랑스 국경에는 가 있지 않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악마의 장난일 것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들이 타고 가던 말은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오. 그러니 코가 떨어져 나간 멜리센드라를 내게 들이밀며 고양이를 토끼라고 속여 팔아넘기려 하지 마시오. 정작 진짜 멜리센드라는 지금쯤 프랑스에서 남편과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쉬고 있을 테니 말이오. 마에세 페드로,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내려 주시길 빌며, 우리 모두 떳떳한 걸음과 건전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계속하시오."

돈키호테가 또 엉뚱하게 빗나가며 처음의 망상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본 마에세 페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

"이 여인은 멜리센드라가 아니라, 그녀를 모시던 시녀 중 한 명일 것이오. 그러니 저 여인 값으로 마라베디 60개를 내준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른 셈이 될 것이오."

마에세 페드로는 이런 식으로 망가진 인형들의 값을 계속 매겼다. 나중에 두 중재 판사가 양측의 만족을 이끌어내며 가격을 조정해 준 덕분에, 최종 금액은 40레알 3쿠아르티요가 되었다. 산초 판사가 이 금액을 곧바로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마에세 페드로는 원숭이를 붙잡느라 고생했다며 수고비로 2레알을 더 요구했다.

"산초, 그 돈을 내어주게." 돈키호테가 말했다. "원숭이를 잡는 수고비가 아니라, 저 암원숭이를 잡는 수고비로 말일세. 만약 저 귀하신 멜리센드라 여사님과 돈 가이페로스 경이 이미 프랑스에 도착해 가족들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축하의 의미로 200레알을 기꺼이 내놓겠네."

"내 원숭이만큼 이 소식을 잘 전해줄 녀석도 없지요." 마에세 페드로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악마가 와도 그놈을 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아마 녀석이 정이 들었든 배가 고프든, 오늘 밤에는 저를 찾아올 테니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게 되겠지요."

결국 인형극의 소동은 끝이 났고, 모두가 평온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식사 비용은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돈키호테가 기꺼이 냈다.

날이 밝기 전, 창과 할버드를 나르던 사람이 먼저 떠났다. 해가 뜬 뒤에는 사촌과 시종이 돈키호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사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종은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돈키호테는 시종이 길 가는 데 보태라며 12레알을 건넸다. 마에세 페드로는 돈키호테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그와 더 이상 실없는

소리를 주고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서둘러 일어났다. 인형극 무대의 유물들과 원숭이를 챙긴 그는 자신만의 모험을 찾아 떠났다.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를 잘 몰랐지만, 그의 광기만큼이나 너그러운 인심에 몹시 감탄했다. 마지막으로 산초 판사는 주인의 명에 따라 여관 주인에게 값을 넉넉히 치렀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해가 거의 여덟 시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여관을 떠나 길을 나섰다. 이제 그들을 길 위에 남겨두고, 이 유명한 이야기의 전말을 알리는 데 필요한 다른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제27장



제27장. 마에세 페드로와 그의 원숭이의 정체가 밝혀지는 대목, 그리고 돈키호테가 당나귀 울음소리 소동에서 자신이 원했던 대로, 또 계획했던 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불운한 결말을 맞이하는 대목

이 위대한 이야기의 기록자인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이번 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나는 가톨릭 신자로서 맹세하노니…….”

이에 대해 그 번역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슬림임이 분명한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맹세한다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가톨릭 신자가 맹세할 때 자신이 말하는 바가 진실임을 맹세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그 역시 돈키호테에 대해 쓰고자 하는 바에서—특히 마에세 페드로가 누구이며, 그 신통한 점괘로 온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점술가 원숭이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어—마치 가톨릭 신자가 맹세하듯 진실만을 말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제1편을 읽은 사람이라면 히네스 데 파사몬테라는 인물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돈키호테는 시에라 모레나에서 여러 죄수 중 그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악하고 버릇없는 그 무리들은 그 은혜를 잊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악행으로 되갚았다. 돈키호테가 '히네시요 데 파라피야'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히네스 데 파사몬테가 바로 산초 판사의 당나귀를 훔쳐 간 자다. 제1편에서 인쇄업자들의 실수 때문에 그가 언제, 어떻게 당나귀를 훔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지는 바람에, 많은 이들이 작가의 기억력이 나빠서 내용을 빠뜨린 것이라 오해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히네스는 산초 판사가 당나귀 위에서 잠든 사이에 당나귀를 훔쳤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크리판테가 알브라카를 포위하고 있을 때 브루넬로가 그의 다리 사이에서 말을 빼내 훔쳐 달아났던 수법과 똑같았다. 히네스는 자신의 수많은 악행과 범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 범죄가 워낙 많고 대단해서 스스로 그 내용을 담은 두꺼운 책을 썼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결국 그는 처벌을 피하고자 아라곤 왕국으로 건너가 왼쪽 눈을

가린 채 인형극사 노릇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형극뿐만 아니라 손 기술에도 아주 능숙했다.

그리하여 그는 베르베리아에서 막 풀려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원숭이 한 마리를 샀다. 그리고는 특정한 신호를 보내면 원숭이가 주인의 어깨 위로 올라와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거나, 혹은 속삭이는 척을 하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그는 인형극 상자와 원숭이를 데리고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 가장 가까운 곳이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 그 마을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냈다. 그런 정보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둔 뒤, 그는 가장 먼저 인형극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때로는 저런 이야기를 보여주었으나, 모두가 즐겁고 유쾌하며 친숙한 내용이었다.

공연이 끝나면 그는 원숭이의 재주를 뽐내며, 이 원숭이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을 맞힐 수 있지만 미래를 맞히는 데는 서툴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는 질문 하나당 두 레알을 요구했는데, 질문자의 형편을 보고 가끔 값을 깎아주기도 했다. 또한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사람들이 돈을 내기 아까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그 집을 찾아가곤 했다. 그러고는 원숭이에게 신호를 보낸 뒤, 원숭이가 이러저러한 말을 했다며 실제 일어난 일과 딱 들어맞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 수법 덕분에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망을 얻었고, 사람들은 모두 그를 뒤쫓아 다녔다. 워낙 영리하기도 해서 질문에 딱 들어맞는 대답을 내놓는 일도 잦았다. 아무도 원숭이가 어떻게 점괘를 맞히는지 캐묻거나 몰아세우지 않았기에, 그는 사람들을 적당히 속여 넘기며 주머니를 두둑이 채웠다.

그가 여관에 들어서자마자 돈키호테와 산초를 알아보았다. 그 덕분에 그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물론, 여관에 있던 모든 사람을 손쉽게 놀라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 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돈키호테가 마르실리오 왕의 목을 베고 그의 기사단을 모조리 무찌를 때 손을 조금만 더 낮춰 내리쳤더라면, 히네스는 하마터면 큰 대가를 치를 뻔했다.

이것이 마에세 페드로와 그의 원숭이에 대해 말할 내용이다.

다시 라만차의 돈키호테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는 여관을 떠난 뒤 자라고사 시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에브로 강가와 그 주변 지역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기사 시합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아주 넉넉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계획을 따라 길을 재촉했다. 이틀 동안은 딱히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으나, 사흘째 되는 날 언덕을 오르던 중 북소리와 나팔 소리, 그리고 화승총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군대의 한 부대가 지나가는 줄로만 알았던 그는, 그들을 직접 확인하려고 로시난테를 몰아 언덕 위로 올라갔다.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가 보기에는 이백 명이 넘는 무장 병사들이 보였다. 그들은 창과 석궁, 파르테잔, 알라바르다, 파이크 같은 온갖 무기를 들고 있었으며, 화승총과 둥근 방패도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는 언덕을 내려가 그 부대에 가까이 다가갔다. 깃발들을 똑똑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간 그는 깃발의 색깔을 살피고 그 안에 그려진 문장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특히 흰 비단으로 만든 깃발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는 사르데냐산 작은 나귀처럼 생긴 당나귀 한 마리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당나귀는 머리를 치켜들고 입을 벌

린 채 혀를 내밀고 있었는데, 마치 울음소리를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주변에는 커다란 글자로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이 적혀 있었다.

두 시장이 헛되이 울부짖은 것이 아니로다.

이 문장을 보고 돈키호테는 저 사람들이 분명 '울부짖는 자들의 마을' 사람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산초 판사에게 깃발에 적힌 글귀를 일러주며 그렇게 말했다. 또한, 그 사건을 전해준 사람이 울부짖은 자들이 시의원 두 명이었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깃발에 적힌 구절을 보니, 울부짖은 이들은 시의원이 아니라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주인님, 그런 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울부짖었던 시의원들이 나중에 마을 시장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두 직함으로 다 불릴 수도 있는 법이지요. 게다가 울부짖은 사람이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그들이 한 명씩 차례로 울부짖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울부짖기 직전인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조롱당한 그 마을 사람들이, 도리에 넘치도록 또 이웃 간의 정리를 저버릴 만큼 지나치게 자신들을 놀려대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뛰쳐나온 것임을 목격하고 그 사정을 알게 되었다.

돈키호테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소동에 휘말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산초 판사는 무척이나 근심스러운 기색이었다. 부대원들은 돈키호테를 자기 편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그를 대열 한가운데

로 불러들였다. 돈키호테는 투구의 가리개를 들어 올리며 기사다운 기개와 침착함을 유지한 채 당나귀 깃발이 있는 곳까지 나아갔다. 그러자 군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그를 구경하려고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돈키호테를 처음 본 사람들이 늘 그렇듯, 경이로움에 휩싸여 그를 바라보았다. 돈키호테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걸거나 질문하지 않은 채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자, 이 침묵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그는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귀하신 분들이여,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가 듣기 싫거나 화가 난다는 기색을 보이기 전까지는 제 말을 끊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기색이 그러하다면, 아주 작은 신호만 주셔도 즉시 제 입을 봉하고 혀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무엇이든 말하라고, 기꺼이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돈키호테는 그 허락을 얻어 말을 이어갔다.

"귀하신 분들이여, 저는 무예를 닦는 편력기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궁핍한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불행과, 적들에게 복수하고자 매번 무기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두고 제 머릿속으로 수없이 고민해 본 결과, 결투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모욕을 당했다고 착각하고 계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개인도 한 마을 전체를 모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배신자라 몰아 결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것은

자신이 비난하는 그 배신을 구체적으로 누가 저질렀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돈 디에고 오르도녜스 데 라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벨리도 돌포스 혼자서 왕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모라(Zamora) 마을 사람 전체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복수를 하거나 응답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요. 물론 돈 디에고 경이 다소 지나치긴 했습니다. 결투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기도 했지요. 죽은 자나 흐르는 물, 빵이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그리고 그 외에 언급된 온갖 사소한 것들까지 결투 상대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분노가 한번 둑을 넘어 터지면, 그 혀를 다스릴 아버지도, 스승도, 제어할 고삐도 없는 법이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 개인이 왕국이나 지방, 도시, 공화국, 혹은 마을 전체를 모욕할 수는 없으므로, 애초에 모욕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니 복수를 위해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렐로하' 마을 사람이라 불리는 이들이나, 아이들과 변변찮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온갖 별칭을 가진 이들이 매번 서로를 죽이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발끈하여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들어, 아무리 사소한 싸움이라도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신께서도 결코 허락지 않으실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과 잘 정돈된 공화국이 무기를 들고 칼을 뽑아 자신의 신분과 생명,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은 오직 네 가지 경우뿐입니

다. 첫째는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자연법과 신법에 따른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자신의 명예와 가족,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고, 넷째는 정의로운 전쟁에서 국왕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다섯 번째 이유를 더한다면, 사실상 두 번째 이유로 셈할 수도 있는데, 바로 조국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삼고, 거기에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무기를 들 만한 다른 이유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보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애들 장난 같은 일이나, 모욕이라기보다는 웃음거리나 구경거리에 불과한 일 때문에 무기를 드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가 전혀 없는 자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정의롭지 못한 복수는—애초에 정의로운 복수란 있을 수 없지만—우리가 믿는 거룩한 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 법은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덜 가지고 영혼보다 육신을 더 가진 사람들에게나 어려운 일일 뿐,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참된 하느님이자 참된 사람이시며 결코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고 거짓을 말씀하실 수도 없는, 우리의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멍에는 부드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일을 명령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분들이여, 여러분은 신법과 인법에 따라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악마가 날 잡아가도 좋다." 산초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주인님이 신학자가 아니라면 말이야. 설령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영락없이 신학자처럼 보이니, 마치 달걀이 달걀을 빼닮은 격이로구나."

돈키호테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추었다. 사람들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경청하는 것을 보자, 그는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가려 했다. 산초의 재치가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그대로 이어갔을 것이다. 산초는 주인이 말을 멈추는 것을 보고는, 그를 대신해 발언권을 넘겨받아 이렇게 말했다.

"라만차의 귀공자 돈키호테 님께서는 한때 '슬픈 형상의 기사'라 불리셨고, 지금은 '사자의 기사'라 불리십니다. 이분은 매우 신중하신 이달고로, 라틴어와 속어에 능통하여 마치 학사처럼 말씀하십니다. 또한 무슨 일을 다루거나 조언하실 때는 아주 훌륭한 군인처럼 처신하시며, 이른바 결투의 모든 법도와 규율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저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그것이 틀린다면 그 책임은 저 산초가 지겠습니다. 게다가, 그저 당나귀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발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만, 그때 저는 누가 말리는 이도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당나귀 울음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고 멋들어지게 흉내 내곤 했습니다. 제가 울음을 터뜨리면 마을의 모든 당나귀가 따라 울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없이 정직하신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재주 때문에 마을의 거들먹거리는 자들 여럿이 저를 시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기다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재주는 수영과 같아서, 한 번 배우고 나면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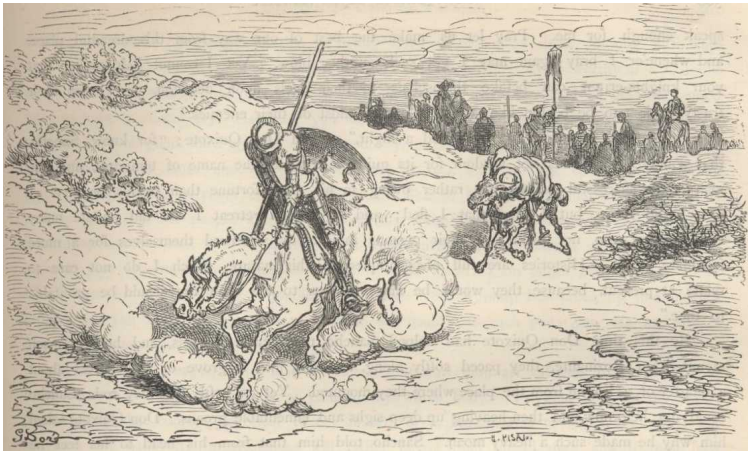
그러고는 산초가 코에 손을 갖다 대더니, 주변의 모든 골짜기가 울릴 정도로 아주 요란하게 당나귀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초 곁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산초가 자신들을 놀리는 것이라 오해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몽둥이를 들어 산초를 내리쳤다. 그 몽둥이는 달리 쓸 데는 없었어도, 산초 판사를 바닥에 나동그라뜨리기에는 충분했다. 산초가 이토록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창을 꼬나들고 그를 때린 자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앞을 가로막는 바람에 복수를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사방에서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지고, 수천 개의 석궁과 그에 못지않은 수의 화승총이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렸다. 그는 이 위험에서 자신을 구해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께 기도하며, 로시난테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그들 사이를 빠져나왔다. 도망치는 내내 그는 뒤에서 날아온 총알이 등을 뚫고 가슴으로 빠져나오지는 않을까 매 순간 겁에 질렸고, 혹시 숨이 끊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 연신 숨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그 무리는 돈키호테에게 총을 쏘는 대신,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산초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사람들 손에 다시 당나귀 위에 올려졌고, 사람들은 그가 고삐를 다룰 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인을 뒤따라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래도 회색 당나귀는 로시난테의 발자국을 따라갔으니, 그 당나귀는 로시난테가 곁에 없으면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녀석이었다. 돈키호테는 꽤 멀리

달아난 뒤에야 고개를 돌려 산초가 오는 것을 확인했고, 아무도 그를 뒤쫓지 않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산초를 기다렸다.

그 무리는 밤이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적들이 전투에 나서지 않았기에,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갔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인들의 옛 관습을 알았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 승전 기념비를 세웠을 것이다.

제28장



제28장. 베넹헬리가 말하기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알게 될 일들에 대하여

용맹한 자가 도망칠 때 비로소 속임수는 탄로 나기 마련이니, 현명한 사내라면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몸을 사리는 법이다. 돈키호테에게는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는 분노한 군중과 화가 머리끝까

지 난 무리의 악의에 휘말리자, 앞뒤 가릴 것 없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그 와중에 산초나, 자신이 산초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 왔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안전하다 싶을 만큼 멀찍이 도망치고 또 도망쳤다. 산초는 앞서 말한 대로 당나귀에 가로로 걸쳐진 채 그 뒤를 따라왔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산초가 다다랐을 때, 그는 온몸이 쑤시고 매맞은 자국이 가득한 채로 안절부절못하며 회색 당나귀에서 로시난테의 발치로 굴러떨어졌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상처를 살펴주려고 말에서 내렸다. 하지만 산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것을 확인하자,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산초, 네놈은 어쩜 그렇게 운도 없게 울어댔느냐! 교수형 집행장 앞에서 밧줄을 언급하는 게 얼마나 불길한 일인지 정녕 몰랐단 말이냐? 당나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몽둥이 세례 말고 무슨 대답이 돌아오겠느냐! 산초, 하느님께 감사해라. 몽둥이로 성호를 그어준 것이 다행이지, 칼로 네 몸에 성호를 긋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대꾸할 처지가 못 됩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꼭 입이 아니라 등짝으로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일단 올라타서 여기서 좀 벗어납시다. 당나귀 울음소리는 쏙 집어넣겠습니다. 하지만 편력기사들이 도망치면서 자기네 착한 종자들을 적들의 손아귀에 헤나 가루처럼, 빻은 곡식처럼 짓이겨진 채 내버려 둔다는 말만큼은 입을 다물지 않을 겁니다."

"물러나는 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신중함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용기는 무모함이라 불리는 법이며, 무모한 자가 이룬 업적은 그 용기보다는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나도 내가 물러났다는 사실은 인정하마. 하지만 도망친 것은 아니다.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며 몸을 피한 수많은 용맹한 기사들을 본받은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차고 넘치지만, 네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도 않을 테니 지금은 굳이 들려주지 않겠다."

이때 돈키호테의 도움을 받아 산초가 말에 올라탔고, 돈키호테 역시 로시난테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조금씩 움직여서 약 4분의 1레구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숲속으로 몸을 숨기러 갔다. 산초는 가끔씩 깊은 신음과 고통스러운 앓는 소리를 내뱉었다. 돈키호테가 왜 이토록 괴로워하느냐고 묻자, 산초는 척추 끝부터 머리 뒷덜미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라고 대답했다.

"그 통증의 원인은 분명 이것 때문일 것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맞은 몽둥이가 워낙 길고 세게 휘둘러진 탓에, 네 등 전체를 다 얻어맞은 모양이구나. 네가 아프다고 하는 부위가 전부 그 등 안에 들어있으니 말이다. 만약 더 많이 맞았더라면 통증은 훨씬 더 심했을 게다."

"맙소사!" 산초가 말했다. "나으리께서 제 큰 의문을 풀어주셨군요. 그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말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몽둥이에 맞은 곳이 전부 아프다는 사실이 그렇게나 감춰져 있어서, 몽둥이가 닿은 곳은 다 아프다는 말씀을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발목이 아프다면 왜 아픈지 짐작이라도 해보겠지만, 얻어맞은 곳

이 아픈 건 짐작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이지, 주인님, 남의 고통이란 머리카락 한 올에 매달린 것처럼 가볍게만 여겨지는 법이지요. 나으리를 모시고 다니며 기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를 맞고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수백 번은 더 예전처럼 담요로 헹가래 쳐지는 일이나 온갖 짓궂은 장난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등으로 탈이 났지만, 다음번에는 눈으로 탈이 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제가 야만인이 아니고 평생 좋은 일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훨씬 나은 선택을 했겠지만, 저는 야만인인 데다 평생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못 할 팔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차라리 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들로 그들을 먹여 살리며 키우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길도 없는 길을 헤매고, 갈 곳도 없는 길을 따라다니며, 나쁜 술에 맛없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나으리를 따라다니느니 말입니다. 게다가 잠자리는 또 어떻고요! 이보게, 동료 종자 양반, 땅 일곱 자만 재어 두게나. 더 갖고 싶거든 얼마든지 더 가지게나. 푸고 베푸는 거야 자네 손에 달렸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실컷 드러눕게나. 편력기사도라는 짓을 처음 시작한 놈, 아니면 지나간 편력기사들이 다 그랬듯 저런 바보들의 종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첫 번째 놈이 불에 타 재가 되는 꼴을 내가 봤으면 좋겠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말하지 않겠네. 나으리께서도 그중 한 분이시니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또 나으리께서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실 때만큼은 악마보다 한 수 위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일세."

"산초야, 내가 너와 내기를 하나 하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지금 네가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걸 보니, 사실은 몸 어디에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 게 분명하구나. 얘야,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 보거라. 네 몸은 하나도 안 아플지 몰라도, 네가 내뱉는 그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내가 받는 화는 아주 실감이 나니까 말이다. 그리고 만약 네가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막지 않게 하시길 빌 뿐이다. 내 돈이 네게 있으니, 우리가 이번에 세 번째로 마을을 떠난 뒤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따져 보아라. 그리고 네가 매달 얼마를 벌 수 있고 또 벌어야 하는지도 계산해 본 다음, 네 손으로 직접 네 몫을 챙겨 가거라."

"제가 토메 카라스코를 모실 때는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나으리께서도 잘 아시는 학사 산손 카라스코의 아버지 말입니다. 그때는 식사도 따로 제공받으면서 매달 두 두카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으리를 모시고 다닐 때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사도를 수행하는 종자가 농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농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낮에 고된 일을 하고 일이 잘못 풀린다 해도, 밤이면 뜨끈한 국물로 저녁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나으리를 모신 뒤로는 침대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의 집에서 머물렀던 짧은 시간이나, 카마초의 솥에서 걷어낸 거품 같은 음식들로 잔치를 벌였던 일, 그리고 바실리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잠잤던 때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시간 동안 저는 딱딱한 땅바닥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잤습니다. 날씨가 궂으면 궂은 대로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 치즈 조각과 빵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고는 우리가 헤매는 이 외진 길목마다 나오는 시냇물이나 샘물로 목을 축여야 했습니다."

"네 말이 다 맞다, 산초야. 인정하마."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렇다면 토메 카라스코가 네게 주던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줘야 네 마음에 차겠느냐?"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나으리께서 매달 두 레알만 더 얹어 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노동에 대한 품삯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나으리께서 제게 섬 하나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문제로 따지자면, 여섯 레알을 더 얹어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면 전부 서른 레알이 되겠지요."

"아주 좋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정한 품삯에 맞춰 계산해 보자꾸나. 우리가 마을을 떠난 지 스물세 날이 되었으니, 산초야, 그 날수에 비례해서 꼼꼼히 따져 보아라. 내가 네게 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내가 말한 대로 네 손으로 직접 챙겨 받도록 해라."

"아이구, 맙소사!" 산초가 말했다. "나으리, 계산이 아주 틀렸습니다. 섬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나으리께서 그 약속을 하신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를 다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 산초야, 내가 그 약속을 한 지가 대체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앞뒤로 사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20년은 넘었을 겁니다."

돈키호테는 제 이마를 세게 탁 치더니, 아주 즐겁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는 시에라 모레나에서든 우리의 출정 전체를 통틀어서든 고작 두 달 남짓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산초 너는 내가 섬을 주겠다고 약속한 지 20년이나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네 말을 듣고 보니, 너는 내 돈을 네 품삯으로 다 써버리려는 속셈이로구나.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네가 원하니 여기서 바로 다 주마. 맛있게 잘 먹어라! 이렇게 형편없는 종자를 곁에 두느니, 차라리 빈털터리로 가난하게 사는 편이 속 편하겠다.

그런데 말이다, 이 기사도 종자의 법도를 어기는 배신자 놈아, 편력 기사의 종자 중에 주인이 매달 얼마를 줘야 모시겠다며 주인과 흥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어디서 읽기라도 했느냐? 이 악당에 무뢰한에 괴물 같은 놈아, 그 꼴이 영락없이 딱 그렇다! 자, 어서 그 방대한 이야기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 보아라. 만약 어떤 종자가 네가 지금 한 말과 똑같이 말했거나, 혹은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있다는 걸 찾아낸다면, 그 증거를 내 이마에 못 박아도 좋다. 거기다 덤으로 내 얼굴에 손가락 도장을 네 번 쾅쾅 찍어주마.

당장 그 잿빛 당나귀의 고삐든 굴레든 돌려서 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 한 발짝도 더 움직일 생각 마라. 아, 베풀어 준 은혜도 모르는 놈! 아, 엉뚱한 자에게 한 약속이여! 아, 사람이라기

보다 짐승에 더 가까운 놈 같으니!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 네 아내가 뭐라 하든 너를 나리님이라 부를 정도의 신분으로 올려주려던 참이었는데, 이제 와서 작별을 고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섬의 영주로 만들어 주겠다는 확고하고 진실한 결심을 품고 왔는데, 지금 떠나겠다고? 결국, 네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듯이, '꿀은 당나귀 입에 맞지 않는다'더니… 어쩌고저쩌고. 너는 당나귀고, 앞으로도 당나귀일 것이며, 네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당나귀 신세로 끝날 것이다. 내가 보기엔, 네가 스스로 짐승임을 깨닫는 날보다 네 목숨이 다하는 날이 먼저 올 것 같으니 말이다."

산초는 돈키호테가 그런 욕설을 퍼붓는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고, 괴롭고 병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인님, 제가 완전히 짐승이 되려면 이제 꼬리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만약 주인님께서 제게 꼬리를 달아주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평생 동안 주인님을 위해 충직한 짐승처럼 모시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철없는 제 행동을 가엾게 여겨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이 적어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많아지는 것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몸이 좋지 않아 그런 것이니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바로잡는 사람이 하늘의 도우심을 받는 법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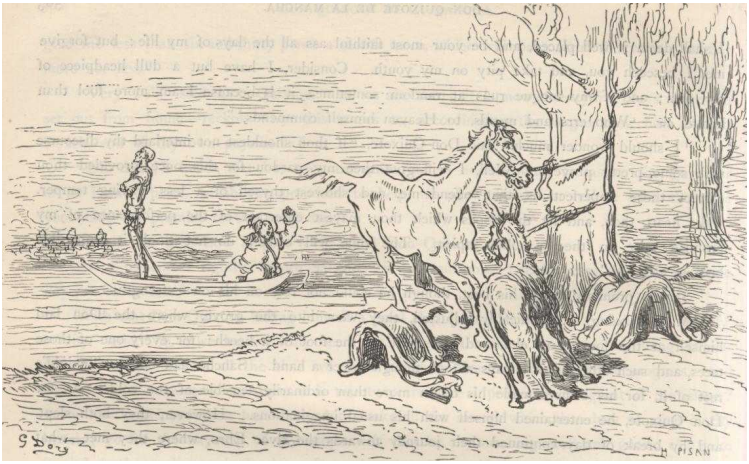
"산초야, 네가 말할 때 속담을 한 마디라도 섞지 않는다면 내가 오히려 놀랄 것이다. 좋다, 네가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하니 나도 너를 용서

하마. 다만 앞으로는 네 이익만 챙기려 들지 말고, 마음을 넓게 써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운을 내어 기다리도록 해라. 비록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니까 말이다."

산초는 설령 기운이 다 빠져 쇠약해질지언정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숲으로 들어갔다. 돈키호테는 느릅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고, 산초는 너도밤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나무들은 늘 발은 있어도 손은 없기 마련이다. 산초는 밤새 무척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밤이슬을 맞으니 매 맞은 자리가 더욱 쓰라렸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밤새 끊임없이 상념에 잠겨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결국 잠이 들었다. 이튿날 동이 트자, 두 사람은 유명한 에브로강 유역을 찾아 길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제29장



제29장. 그 유명한 마법의 배 모험에 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길을 가다 보니, 포플러 숲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돈키호테와 산초는 에브로 강에 도착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강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맑은 물줄기, 잔

잔하게 흐르는 물결과 투명하게 빛나는 물을 찬찬히 살펴보니, 그 즐거운 광경에 마음속에 수많은 낭만적인 생각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보았던 일들을 자꾸만 곱씹었습니다. 마에세 페드로의 원숭이가 그 일들 중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라고 말했기에, 돈키호테는 거짓보다는 사실인 쪽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반대로 산초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으니, 두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 노도 없고 다른 돛이나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작은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배는 강가에 있는 나무 밑동에 묶여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곧장 로시난테에서 내려오며 산초에게도 당나귀에서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짐승을 근처에 있는 미루나무나 버드나무 밑동에 나란히 잘 묶어두라고 일렀습니다. 산초는 왜 갑자기 말에서 내리느냐며, 왜 짐승들을 묶어두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산초야, 잘 들어라. 여기 있는 이 배는 다른 무엇도 아닌, 분명 나를 부르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러 배에 올라타라고 말이다. 분명 어떤 기사나, 혹은 아주 중요한 귀한 신분의 누군가가 큰 곤경에 처해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기사도 이야기책에 나오는 일들이나, 그 속에 끼어들어 떠드는 마법사들의 방식이 바로 이렇지 않느냐. 어떤 기사가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비록 서로 이삼천 레구아, 아니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오직 다른 기사의 손길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법이다. 그럴 때면 구름이 그를 낚아

채 가거나, 아니면 배가 나타나 그를 태운 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든 바다로든 그 도움이 꼭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느냐. 그러니 산초야, 이 배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이 낮인 것만큼이나 이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당나귀와 로시난테를 나란히 묶어두어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신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말이다. 설령 맨발의 수도사들이 그만두라 간곡히 말린다 해도, 나는 결코 이 배에 오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군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께서 매 걸음마다, 이게 망령된 짓인지 뭔지 모를 일을 저지르려 하신다면, 그저 따르고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겠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라'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한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 배는 마법사가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이 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배 같습니다. 이 강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맛 좋은 사보가(saboga)가 잡히거든요."

산초는 짐승들을 마법사들의 보호와 보살핌에 맡겨두는 심정으로, 아주 괴로운 마음을 안고 짐승들을 묶었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짐승들이 홀로 남겨진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멀고 먼 길과 지역으로 짐승들을 데려가는 이가, 그들의 먹을 것과 돌볼 일도 책임질 것이라며 산초를 다독였습니다.

"논리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롱긴쿠오스(Longincuos)'라는 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라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그 말을 모르는 것도 당연하지. 자네는 라틴어를 알아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말이야. 아는 체하며 으스대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어떤 이들과는 다르지 않은가."

"이미 묶여 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냐고?"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성호를 긋고 닻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배에 올라타서 이 배를 묶어둔 밧줄을 끊어야 한다는 말일세."

돈키호테가 배 위로 훌쩍 뛰어오르자 산초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돈키호테가 밧줄을 끊자 배는 강가에서 조금씩 멀어져 나갔습니다. 산초는 배가 강 안쪽으로 두 자(varas) 정도 들어갔을 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초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나귀가 울부짖는 소리와 로시난테가 결박을 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산초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나귀가 울부짖는구나. 우리가 곁을 떠난 것을 슬퍼하는 게야. 그리고 로시난테는 우리를 뒤따라오려고 어떻게든 결박을 풀려 애쓰고 있고 말이다. 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부디 평안히 계시오! 우리를 여러분에게서 떼어놓은 이 광기가 부디 깨달음으로 바뀌어, 우리를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려보내 주기를!"

그러자 산초는 너무나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돈키호테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쟁이 같은 녀석, 무엇이 두렵다는 말이냐? 버터처럼 말랑한 심장을 가진 놈아,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 게야? 집쥐 같은 마음을 가진 놈아, 대체 누가 너를 뒤쫓거나 괴롭히는 것이냐? 아니면 풍요로움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해 그리 구슬피 우는 것이냐? 네가 지금 리페오 산맥을 맨발로 걸어 넘고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천만에, 너는 머지않아 드넓은 바다로 나아갈 이 잔잔한 강줄기를 따라, 대공이라도 된 듯 판자 위에 편히 앉아 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적어도 700이나 800레구아는 나아왔을 것이다. 만약 내게 극(極)의 고도를 잴 수 있는 아스트롤라베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말해 줄 수도 있으련만. 내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적도를 지났거나 머지않아 지나게 될 것이다. 적도란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극을 같은 거리로 나누고 가로지르는 선이니 말이다."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 더미에 도착할 때쯤이면," 산초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걸어온 것이 되겠습니까?"

"아주 많이 걸었겠지."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리학자로 알려진 프톨레마이오스의 계산에 따르면, 물과 땅을 포함한 지구 전체는 360도니까, 우리가 말한 그 선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 절반만큼은 이미 걸어온 셈이 될 게다."

"맙소사," 산초가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의 증인이라며 저한테 어떤 점잖은 양반을 들이대시는군요. 한데 그분이 푸토

(상놈)에 가포(문둥이)이고, 게다가 메온(오줌싸개)인지 메오인지 뭔지까지 덧붙은 양반이라니, 참 나 원."

돈키호테는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름과 계산법을 두고 산초가 해댄 해석이 우스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산초야, 잘 들어라.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동인도로 가려고 카디스에서 배를 타는 이들이 내가 말한 그 적도(赤道)를 지났다는 걸 알아채는 징표가 하나 있단다. 바로 배에 탄 사람들의 머릿니가 모조리 죽어 단 한 마리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금을 주고 산다 해도 배 안 어디에서도 한 마리 찾을 수 없을 게다. 그러니 산초야, 네 손으로 허벅지를 한번 슥 훑어 보아라. 만약 살아 있는 것이 만져진다면 우리의 의문이 풀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적도를 지난 것이니라."

"저는 그런 말은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인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험을 왜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우리는 강가에서 채 다섯 자도 멀리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도 두 자조차 벗어나지 않았고요. 로시난테와 나귀가 우리가 두고 온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가늠해 봐도, 우리는 개미 한 마리 걸음만큼도 움직이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산초야, 내가 말한 대로 확인부터 해라. 다른 생각은 말고 말이다. 너는 위도나 경도, 평행선, 황도, 자오선, 극, 하지와 동지, 행성, 별자

리, 지점, 그리고 천구와 지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성 요소조차 전혀 모르지 않느냐. 만약 네가 이 모든 것, 혹은 그중 일부라도 안다면 우리가 평행선을 얼마나 가로질렀는지, 어떤 별자리를 지나왔는지, 또 어떤 형상들을 뒤로하고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네 몸을 한번 훑어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매끄럽고 하얀 종이 한 장처럼 아주 깨끗한 것 같으니 말이다."

산초는 자기 몸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을 왼쪽 오금 쪽으로 조심스럽고 살며시 가져가 살피더니,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이 실험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곳에는 아직 수십 리는 더 가야 할 만큼 한참 멀었거나, 둘 중 하나겠군요."

"그래서, 어떠냐?" 돈키호테가 물었습니다. "무엇이라도 발견했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산초는 손가락을 털어내고는 강물에 손 전체를 씻었습니다. 배는 강 한가운데를 따라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성이나 숨어 있는 마법사가 아니라, 그저 부드럽고 완만하게 흐르는 강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강 한가운데에 커다란 물레방아들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돈키호테는 그것들을 보자마자 산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아라! 친구여, 저기 도시나 성, 혹은 요새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저곳에는 분명 고난에 처한 기사나, 혹은 불행을 겪고 있는 왕비, 공주, 혹은 왕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곳까지 온 것도 바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말이다!"

"도대체 무슨 도시나 요새, 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인님?" 산초가 물었습니다. "저건 그냥 강물에 떠 있는 물레방아잖아요. 밀을 빻는 곳 말입니다."

"조용히 해라,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물레방아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마법이란 세상 모든 만물의 본래 모습을 뒤바꾸고 변하게 만든다고 말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 내 유일한 희망의 안식처인 둘시네아가 변했던 것처럼, 경험을 통해 이미 증명된 사실 아니냐."

이때 강 한가운데로 들어선 배가 이전보다 제법 속도를 내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물레방아 근처에서 배가 물살을 타고 다가오는 것을 본 방앗간 일꾼들은, 배가 물레방아 물길로 빨려 들어갈까 봐 서둘러 긴 막대기를 들고 달려 나왔다. 밀가루를 뒤집어쓴 채 얼굴과 옷이 하얗게 가루 범벅이 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볼품없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망할 놈의 인간들아! 어디로 가는 거냐? 미쳤느냐?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물레방아에 처박혀서 익사하고 몸뚱이를 박살 내려는 게냐!"

"산초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팔의 용맹함이 어디까지 닿는지 보여줄 곳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말이다. 보아라, 얼마나 많은 악당과 불한당이 나를 맞으러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 적들이 앞길을 가로막는지, 얼마나 많은 험상궂은 놈들이 우리를 위협하는지 말이다. 자, 이제 똑똑히 보아라, 이 못된 놈들아!"

그리고 배 위에 우뚝 올라선 돈키호테는 큰 소리로 물레방아 주인들을 위협하며 이렇게 외쳤다.

"사악하고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의 요새나 감옥에 가두어 억압하고 있는 자가 누구든, 지위가 높든 낮든, 어떤 종류나 신분이든 상관없이 당장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의 의지대로 살게 하라!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사자의 기사'라 불리는 자다. 하늘의 명을 받들어 이 모험을 행복하게 끝맺을 권한이 바로 나에게 있다!"

이렇게 외친 돈키호테는 칼을 뽑아 들고 물레방아 주인들을 향해 허공에 칼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도통 알아듣지 못한 주인들은, 배가 이미 물레방아의 물살과 수로로 빨려 들어가자 막대기를 휘둘러 배를 막아섰다.

산초 판사는 이 명백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늘에 간절히 빌며 무릎을 꿇었다. 다행히 물레방아 주인들이 재빨리 기지를 발휘해 배를 막아선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주인들이 막대기로 배를

막아 세우긴 했으나, 배가 뒤집히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결국 돈키호테와 산초는 물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하지만 거위처럼 수영을 잘했던 돈키호테는 잘 버텨냈다. 비록 무거운 갑옷 무게 때문에 물밑으로 두 번이나 가라앉긴 했지만 말이다. 만약 물레방아 주인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을 통째로 건져 올리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 것이다.

마침내 땅 위로 올라온 두 사람은, 목말라 죽기는커녕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꼴이었다. 산초 판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앞으로는 주인님의 무모한 욕심과 돌발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하고도 긴 기도를 올렸다.

그때 마침 물레방아 바퀴에 부서진 배의 주인인 어부들이 도착했다. 배가 박살 난 것을 본 어부들은 산초의 옷을 벗겨 값을 받아내려 들었고, 돈키호테에게 배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는 물레방아 주인들과 어부들에게 기꺼이 배 값을 치르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성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사람과 무슨 성을 말하는 거요?" 물레방아 주인 중 한 명이 정신 나간 사람을 보듯 대답했다. "설마 이 물레방아에 밀을 빻으러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요?"

"그만!" 돈키호테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런 무지몽매한 무리에게 간청하여 선행을 베풀게 하려는 건 사막에서 설교하는 격이로구나.

이번 모험에는 분명 용맹한 마법사 두 명이 나타난 게 틀림없다. 한 명은 나에게 배를 마련해 주었으나, 다른 한 명은 나를 뒤엎어 물에 처박았으니, 서로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셈이다. 세상에, 신께서 도와주시길! 온 세상이 서로 맞물리지 않고 어긋나기만 하는 속임수와 계략투성이로구나. 나로서는 더 어쩔 도리가 없구나."

그러고는 목소리를 높여 물레방아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누구든 간에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여, 나를 용서하시오. 나의 불행 때문이기도 하고 그대들의 불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대들을 저 고통에서 구해낼 수가 없구려. 이 모험은 다른 기사를 위해 마련된 것이 분명하오."

이렇게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어부들과 협상을 벌였고, 배 값으로 50레알을 지불했다. 산초 판사가 아주 마지못해 돈을 내놓으며 다음과 같이 투덜거렸다.

"이런 뱃놀이를 두어 번만 더 하다간, 우리가 가진 돈을 몽땅 강바닥에 처넣고 말겠구나."

어부들과 방앗간 주인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영 딴판인 두 사람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하여 바라볼 뿐이었다. 돈키호테가 던지는 질문과 말들이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두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내버려 둔 채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갔고, 어부들도 제 거처로 물러났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도 다시 짐승처럼 짐승을 타고 길을 떠났으니, 이로써 마법에 걸린 배의 모험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제30장



제30장. 돈키호테가 아름다운 사냥꾼 여인을 만나 겪게 된 일에 대하여

기사와 종자는 매우 우울하고 기분이 언짢은 채로 말에 올라탔다. 특히 산초 판사의 상태가 심각했다. 가진 돈에 손을 대는 일이 마음속

깊이 사무쳤던 산초에게는, 그 돈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그 유명한 강가에서 멀어졌다. 돈키호테는 사랑에 빠진 생각에 잠겨 있었고, 산초는 재산을 불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당시 산초가 느끼기에 재산 형성이란 아직 갈 길이 아주 먼 일처럼 보였다. 산초는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나, 주인인 돈키호테가 하는 행동이 대부분, 혹은 전부 허튼짓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인과 어떤 계산이나 작별 인사도 나누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산초가 두려워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 질 녘, 숲을 빠져나온 돈키호테는 푸른 초원을 바라보았다. 초원 끝자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이기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매사냥을 하는 사냥꾼들이었다. 조금 더 다가가자 그들 사이로 눈부시게 하얀 말에 올라탄 기품 있는 여인이 보였다. 그 말은 초록색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은제 안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여인 또한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화려한지 화려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인에게서 형상화된 듯했다. 여인은 왼손에 매를 쥐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돈키호테가 보기에 그녀가 분명 지체 높은 귀부인임을 짐작게 했다. 실제로 그녀는 그 사냥꾼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어서 달려가거라. 저 하얀 말에 올라타 매를 쥐고 있는 귀부인께 전하거라. 나, '사자의 기사'가 그녀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경의

를 표하며 그 손에 입을 맞추고 싶다고 말이다. 또한, 만약 그녀의 위엄 있는 허락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손에 입을 맞추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녀의 명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전해라. 그리고 산초야, 말할 때 조심해야 한다. 네놈의 그 천박한 속담 따위를 전하는 말에 섞어 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거라."

"속담을 섞어 쓰지 말라고요? 벌써 저를 제대로 짚으셨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제가 살면서 지체 높은 귀부인들께 사절로 간 게 이번이 처음인 줄 아십니까?"

"설령 네가 둘시네아 님께 사절로 간 적이 있다 하더라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아는 한, 적어도 내 곁에 있을 때 네가 다른 귀부인께 사절로 간 적은 없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빚을 잘 갚는 사람에게는 빌린 물건이 아깝지 않은 법이고, 집안에 먹을 게 가득하면 저녁 식사도 금방 차려지는 법이지요. 제 말은, 저한테는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주의를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뭐든 제 몫이 있고, 무엇이든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겠지,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부디 잘 다녀오너라. 신께서 너를 인도하시길."

산초는 곧장 달려 나갔다. 그는 나귀를 평소 걸음보다 재촉하여 아름다운 사냥꾼 여인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러고는 나귀에서 내려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아름다우신 귀부인님, 저기 보이는 저 기사님은 '사자의 기사'라 불리는 제 주인님이시며, 저는 그분의 종자로서 집에서는 산초 판사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슬픈 형상의 기사'라 불렸던 이 사자의 기사님께서 저를 보내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셨습니다. 주인님께서는 귀부인님의 뜻과 승낙, 그리고 허락이 있다면 직접 찾아뵙고 그 소망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또한 생각하기에, 그 소망이란 다름 아닌 귀부인님의 드높은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받드는 일입니다. 만약 귀부인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주인님께 커다란 영광이 될 것이며, 주인님께서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종자이시군요." 여인이 대답했다. "사절로서 갖추어야 할 격식을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 말씀을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우리가 이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슬픈 형상의 기사'처럼 위대한 기사의 종자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 어서 일어나세요, 친구여. 그리고 주인님께 전해 주세요. 이곳에 우리가 마련해 둔 별장으로 부디 기꺼이 오셔서, 저와 제 남편인 공작의 대접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입니다."

산초는 귀부인의 아름다움과 품격 있는 예우에 감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특히 귀부인이 이미 '슬픈 형상의 기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말에 더욱 놀랐는데, 만약 그를 '사자의 기사'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별칭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아직 작위가 밝혀지지 않은 공작부인이 그에게 물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제 같은 종자여. 당신의 주인님은 혹시 『라만차의 영리한 귀족 돈키호테』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 있는 그분인가요? 영혼의 여인으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분을 모시고 있다는 그분 말이에요."

"맞습니다, 부인." 산초가 대답했다. "그분이 바로 제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거나, 혹은 등장해야만 하는 산초 판사라는 종자도 바로 저입니다. 요람에서 뒤바뀐 게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책에 인쇄되는 과정에서 뒤바뀐 게 아니냐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참으로 반갑군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판사 형제여, 어서 가서 당신의 주인님께 전하세요. 우리 영지에는 아주 잘 오셨다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입니다. 그분보다 더 기쁜 손님은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산초는 이토록 친절한 대답을 듣고 무척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귀하신 부인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다.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가 묘사한 부인의 빼어난 미모와 우아함, 그리고 정중한 예법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돈키호테는 안장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몸을 세우고 등자에도 발을 바짝 붙였다. 이어 투구의 가리개를 고쳐 쓰고는 로시난테를 몰아 힘차게 나아갔다. 그는 기사다운 용맹함을 떨치며 공작부인의 손에 입을 맞추기 위해 달려갔다. 공작부인은 남편인 공작을 불러들였다. 돈키호테가 도착하는 동안 부인은 산초가 전해온 사절의 말을 모두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이미 이 이야기의 1편

을 읽었기에 돈키호테의 황당한 성미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아주 반갑게 맞이했다. 또한 그들은 돈키호테의 기분에 맞춰주기로 마음먹었다. 돈키호테가 머무는 동안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맞장구를 쳐주며, 자신들이 읽고 즐겨온 기사도 소설에 나오는 관례 그대로 정식 편력기사를 대접하기로 약속했다.

이때 돈키호테가 투구의 가리개를 올린 채 도착했다. 그가 말에서 내리려는 기색을 보이자 산초가 얼른 달려가 등자를 붙잡아 주려 했다. 그런데 운도 지지리 없게도, 산초가 제 잿빛 당나귀에서 내리는 순간 한쪽 발이 길마 끈에 걸리고 말았다. 도무지 풀 수가 없어서, 산초는 입과 가슴이 땅에 닿은 채 그대로 매달려 버렸다. 평소 누군가 등자를 잡아주지 않으면 말에서 내리지 않던 돈키호테는, 산초가 이미 등자를 붙잡았으리라 여기고 몸을 훅 내던졌다. 그러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았는지 로시난테의 안장까지 통째로 딸려 내려왔고, 안장과 돈키호테는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돈키호테는 무척 창피해하며, 여전히 길마 끈에 발이 걸려 있는 불운한 산초를 향해 이를 갈며 온갖 욕설을 중얼거렸다.

공작은 사냥꾼들에게 기사와 종자를 도우러 가라고 명했다. 사냥꾼들이 달려와 넘어져 만신창이가 된 돈키호테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돈키호테는 절뚝거리며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움직여 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공작은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작은 직접 말에서 내려 돈키호테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슬픈 모습의 기사님, 당신이 우리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이토록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 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소. 하지만 종자의 부주의가 더 큰 사고를 부르는 법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용맹하신 군주여, 당신을 뵙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비록 이번 낙마로 심연의 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으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당신을 뵙는 영광을 누렸으니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제 종자 놈은, 신께서 저주하시길, 안장을 단단히 얹고 조이는 법은 모르면서 남을 헐뜯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는군요. 하지만 제가 쓰러져 있든 다시 일어났든, 땅을 걷고 있든 말 위에 있든, 저는 언제나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이신 공작부인님을 섬기겠습니다. 공작부인님은 아름다움의 주인이며 예의의 수호자이신, 온 세상의 고귀한 공주님이십니다."

"천천히 가시오, 라만차의 귀한 돈키호테 님!" 공작이 말했다. "내 부인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이 계신데, 다른 이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오."

그 무렵 산초 판사는 결박에서 막 풀려난 상태였다. 산초는 주인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근처에서 얼른 말을 가로챘다.

"제 주인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이 아주 아름답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확언할 수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법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자연이라는 것이 마치 옹기를 만드는 옹기장이와 같아서, 아름다운 항아리를 하나 만들 줄 안다면 두 개도, 세 개도, 백 개도 만들 수 있다고들 합

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작부인께서도 우리 주인님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우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는 다시 공작부인을 향해 몸을 돌려 말했다.

"공작부인께서는, 세상 어떤 편력기사도 제가 거느린 이 종자보다 더 말 많고 익살스러운 종자를 둔 적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귀하신 분께서 며칠만이라도 저를 곁에 두고 부려 주신다면, 그가 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자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착한 산초가 익살스럽다는 점을 저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익살스럽다는 건 그만큼 영리하다는 증거니까요. 돈키호테 경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치와 유머는 머리가 둔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지요. 그러니 착한 산초가 이토록 재치 있고 유쾌한 것을 보니, 저는 그가 영리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말솜씨도 좋고요." 돈키호테가 덧붙였다.

"그보다 더 좋지요." 공작이 말했다. "말이 짧으면 감사의 마음을 다 전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감사의 인사를 나누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도록, 저 위대한 '슬픈 모습의 기사'께서 이리로 오시게 하시지요."

"사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이제는 '슬픈 모습'도 없고, 그런 모습 같은 건 아예 없으니까요."

"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군요." 공작이 말을 이었다. "저 위대한 '사자의 기사'께서 이 근처에 있는 내 성으로 오시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고귀한 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환대를 베풀 것이며, 저와 공작부인이 이곳을 찾는 모든 편력기사에게 늘 해왔던 것처럼 정중히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마침 산초는 로시난테의 안장을 정돈하고 뱃대끈을 단단히 조여 매었다. 돈키호테가 로시난테에 올라타고 공작도 멋진 말에 오르자, 그들은 공작부인을 가운데에 모신 채 성을 향해 길을 떠났다. 공작부인은 산초의 재치 있는 말솜씨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에, 그에게 자기 곁으로 오라고 일렀다. 산초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대화에서 네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공작 부부는 이를 무척 즐거워하며, 이토록 대단한 편력기사와 그 종자를 자신들의 성에 맞이하게 된 것을 커다란 행운이라 여겼다.

제31장



제31장. 온갖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

산초 판사는 자신이 공작부인의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에 빠졌다. 그는 늘 좋은 생활을 즐기기 좋아했기에, 돈 디에고의 집이나 바실리오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성에서도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산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치 앞머리를 움켜쥐듯,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대접을 놓치지 않고 덥석 붙잡았다.

이야기에 따르면, 돈키호테 일행이 유락의 집이자 성에 도착하기 전, 공작은 미리 앞서 나가 모든 하인에게 돈키호테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일러두었다고 한다. 돈키호테가 공작부인과 함께 성문에 다다르자마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고운 진홍색 새틴으로 지은 긴 실내용 겉옷을 차려입은 두 명의 하인이 즉시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게 돈키호테를 번쩍 안아 들며 이렇게 말했다.

"위대하신 분이시여, 어서 가셔서 저희 공작부인을 말에서 내려 드리소서."

돈키호테는 그 말에 따라 움직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상황을 두고 정중한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결국 공작부인의 고집이 이겼다. 공작부인은 감히 이토록 위대한 기사에게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울 자격이 없다며, 공작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절대로 말에서 내려오거나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공작이 직접 나서서 그녀를 내려주었다. 이들이 커다란 안뜰로 들어서자 아름다운 처녀 두 명이 나타나 돈키호테의 어깨 위로 아주 고운 진홍색 망토를 덮어주었다. 그러자 그 즉시 안뜰의 모든 회랑에 주인댁의 하인들이 나타나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편력기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고귀한 분이 드디어 오셨도다!"

사람들은 저마다 향기로운 물이 든 병을 들어 돈키호테와 공작 부부에게 뿌려댔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일에 동참했다. 돈키호테는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무척 감탄했다. 그날은 돈키호테가 자신이 환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편력기사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믿게 된 첫날이었다. 그는 자신이 예전 세기의 기사도 소설에서 읽었던 모습 그대로 대접받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산초 판사는 당나귀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공작부인 곁에 바짝 붙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당나귀를 홀로 내버려 두고 왔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산초는, 공작부인을 맞이하러 다른 여인들과 함께 나와 있던 한 귀부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곤살레스 부인, 아니, 귀하의 존함이 무엇이든 간에……."

"제 이름은 도냐 로드리게스 데 그리할바입니다." 귀부인이 대답했다.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형제여?"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성문 앞까지 나가서 제 회색 당나귀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가면 제 당나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을 마구간에 좀 넣어달라고 일러주십시오. 불쌍한 녀석이 겁이 좀 많아서, 어디에 있든 혼자 두면 안 되거든요."

"주인이 종만큼이나 신중한 사람이라면, 우린 정말 큰일 났군요!" 귀부인이 대답했다. "가 보세요, 형씨. 당신이나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

온 사람이나 참 운도 없지. 그리고 당신 당나귀나 잘 챙기시라고요. 이 집 귀부인들은 이런 식의 부탁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사실 제 주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주인님은 이야기라면 아주 귀신같이 잘 찾아내시는 분이거든요. 란사로테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도 그랬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브리타니아에서 왔을 때, 귀부인들이 그를 간호하고 안주인들이 그의 말을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제 당나귀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제 당나귀를 란사로테 기사님의 말과 바꿀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형제여, 만약 당신이 유랑 시인이라면, 그 재주를 알아봐 주고 보답해 줄 만한 곳에 가서 마음껏 부리시오. 나한테서는 무화과 한 알조차 얻어내지 못할 테니까."라고 안주인이 대답했다.

"그게 참 잘된 일이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아주 잘 익은 열매가 되겠군요. 설령 아주 조금이라도 덜 익는다고 해서, 귀하의 연세가 깎이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 나쁜 놈!" 안주인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내가 늙었는지 아닌지는 하느님께 따질 일이지, 마늘 냄새나 풍기는 네놈한테 따질 일이 아니다!"

그녀가 이토록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공작부인까지 그 소리를 듣고 말았다. 공작부인은 안주인이 이토록 소란을 피우며 눈을 부라리는 것을 보고는, 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양반이랑요!" 안주인이 대답했다. "성문 앞에 있는 자기 당나귀를 마구간에 좀 넣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길래 들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디선가 봤다나 뭐라나, 어떤 귀부인들은 란사로테라는 사람을 돌봐줬고, 어떤 시녀들은 그 사람의 말을 돌봐줬다는 예시까지 들면서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양반이 저보고 늙었다고 아주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 뭡니까!"

"그건 그 어떤 말보다도 나를 더 모욕하는 일이군요."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그리고 공작부인은 산초와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산초 친구, 조심하게나. 도냐 로드리게스는 아주 젊은 아가씨라네. 그녀가 저 머리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권위와 관습 때문이라는 걸 알아두게나."

"제게 남은 삶이 아무리 길다 한들, 고작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저를 비난하신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그저 제 당나귀를 너무나 아끼기 때문입니다.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만큼 자애로운 분이라면 제 당나귀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산초야,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하는 게냐?"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사람이란 자기가 처한 곳이 어디든 간에 자기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 제 당나귀 생각이 나서 말한 것뿐입니다. 만약 마구간에 있었다면 거기서 당나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공작이 그 말에 대답했다.

"산초의 말이 아주 옳네. 그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지. 당나귀는 자네가 바라는 대로 더할 나위 없이 잘 보살펴 줄 테니, 산초, 걱정 말게나. 자네 자신을 대하듯 정성껏 돌봐줄 테니까."

이런 논리적인 대화가 오갔는데, 돈키호테를 제외한 모두가 즐거워했다. 일행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돈키호테는 금실과 브로케이드로 화려하게 장식된 방으로 들어갔다. 여섯 명의 처녀가 돈키호테의 무장을 해제하고 시종 노릇을 하며 그를 모셨다. 공작과 공작부인은 이 처녀들에게 돈키호테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로 편력기사 대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미리 일러두었기에, 처녀들은 모두 능숙하고 기민하게 움직였다. 무장을 해제한 돈키호테는 몸에 딱 붙는 바지와 카무사 가죽 윗옷 차림으로 남았다. 그는 비쩍 마르고 키가 크며 몸을 꼿꼿이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이가 없어 두 턱이 안쪽에서 서로 맞닿을 지경이었다. 만약 시종 노릇을 하던 처녀들이 웃음을 참으라는 주인의 엄명을 따르며 필사적으로 웃음을 억누르지 않았더라면,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 배를 잡고 쓰러졌을 것이다.

처녀들은 그에게 셔츠로 갈아입도록 옷을 벗어달라고 청했으나, 돈키호테는 결코 응하지 않았다. 그는 편력기사에게는 용맹함만큼이나 정숙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셔츠는 산초에게 가져다주라고 일렀다. 돈키호테는 산초와 함께 호화로운 침대가 놓인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셔츠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산초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에게 말했다.

"말해 보아라, 요즘 세상의 사기꾼이자 옛날 방식의 무식쟁이 녀석아. 저토록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존경받아 마땅한 귀부인을 모욕하고 망신 주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느냐? 지금이 당나귀 따위를 떠올릴 때더냐? 아니면 이분들이 주인을 저토록 정중히 대접하면서 그 짐승은 함부로 굶기고 방치할 만한 분들이더냐? 산초야, 하늘을 우러러 부디 자제하거라. 네가 천하고 거친 천으로 짜인 옷감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지 않도록 말이다. 이 죄 많은 녀석아, 잘 들어라. 주인의 품격은 그를 모시는 하인이 얼마나 명예롭고 귀한 신분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이다. 군주가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자신만큼이나 훌륭한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다. 이 한심한 녀석아, 그리고 불행한 나를 생각해서라도, 만약 저들이 너를 무식한 촌놈이나 우스꽝스러운 얼간이로 본다면, 나를 까마귀나 쫓는 돌팔이나 사기꾼 기사 따위로 여기지 않겠느냐? 안 된다, 안 돼. 친구 산초야,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어서 도망쳐라. 말만 번지르르하고 우스갯소리나 늘어놓는 자와 함께 있다가는, 첫 발만 잘못 디뎌도 순식간에 불쌍한 사기꾼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니 입을 조심해라. 말을 내뱉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고 곱씹어 보란 말이다. 우리가 지금 도착한 이곳은,

하나님의 은총과 내 팔의 용맹함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명성과 재산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빛나게 될 곳임을 명심하거라."

산초는 돈키호테의 명령대로, 상황에 딱 맞고 신중하게 생각한 말만 하겠노라고 굳게 약속했다. 그는 차라리 입을 꿰매거나 혀를 깨물지언정, 제멋대로 말을 내뱉어 자신들이 누구인지 탄로 나게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간곡히 다짐했다.

돈키호테는 옷을 차려입고 허리띠를 매어 칼을 찼다. 그러고는 어깨에 진홍색 망토를 걸치고, 처녀들이 준 초록색 공단 모자까지 써서 모양을 갖춘 뒤 대연회장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처녀들이 양옆으로 줄을 지어 서 있었는데, 좌우에 선 인원이 똑같았다. 처녀들은 모두 손을 씻을 물을 받쳐 들고 그를 맞이할 채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돈키호테가 나타나자 정중한 예법을 갖추어 그에게 세수를 시켜 주었다.

이어서 열두 명의 시종이 연회장 관리와 함께 돈키호테를 식사 자리로 안내하기 위해 나타났다. 주인 내외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종들은 돈키호테를 가운데에 모시고, 아주 위엄 있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다른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화려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식기 세트는 네 세트뿐이었다. 공작부인과 공작은 그를 맞이하려 방 문 앞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들 곁에는 품위 있어 보이는 성직자 한 명도 함께였다. 그는 왕실의 가신을 맡는 부류의 성직자였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정작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진짜 왕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 또한 이들은 위대한 자들의 위엄을 자신들의 좁은 식견으로 재단하려 든다. 다스리는 이들의 그릇이 작

다는 것을 보여주려다가, 도리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들도 바로 이런 부류다. 돈키호테를 맞이하러 공작 부부와 함께 나온 저 엄숙한 성직자도 바로 그런 부류임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온갖 정중한 예법을 갖추어 돈키호테를 대접했고, 마침내 돈키호테를 가운데에 모신 채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공작은 돈키호테에게 식탁 상석을 권했다. 돈키호테는 사양했으나, 공작이 워낙 끈질기게 권하는 바람에 결국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성직자는 상석 맞은편에 앉았고, 공작과 공작부인은 그 양옆에 자리를 잡았다.

산초 판사는 주인이 공작 부부로부터 받는 극진한 대접을 보고 넋이 나간 채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공작이 돈키호테를 식탁 상석에 앉히려고 온갖 예법을 갖추며 끈질기게 권하는 모습을 보던 산초 판사가 말했다.

"나으리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자리 배치와 관련해서 저희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산초가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돈키호테는 산초가 분명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려는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떨었다. 산초는 돈키호테를 바라보며 그 속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말했다.

"나으리, 제가 분수를 모르고 나대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을 길게 할지 짧게 할지, 혹은 말을

잘할지 못할지에 대해 얼마 전에 나으리께서 해주신 가르침을 제가 잊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하되, 다만 빨리 말하거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초가 말했다. "너무나 사실이라서, 여기 계신 제 주인 돈키호테 나으리께서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돈키호테가 대꾸했다. "산초, 네가 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보아라. 내가 너를 붙잡지는 않겠다. 다만 네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는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 점은 제가 아주 깊이, 또 신중하게 따져 보았습니다. 말은 신중히 내뱉는 자가 나중에 화를 면하는 법이니, 제 행동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게 좋겠군요."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천 번 만 번 헛소리를 해대기 전에, 귀하신 분들께서 어서 저놈을 여기서 쫓아내라고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공작님의 명예를 걸고 말하건대," 공작부인이 말했다. "산초는 잠시도 내 곁을 떠나서는 안 돼요. 산초는 아주 사리 분별이 밝은 사람이라, 나는 그가 참으로 마음에 든답니다."

"사리 분별이라니요." 산초가 말했다. "저를 그렇게 좋게 봐 주시니, 비록 제게 그런 자질이 없더라도, 성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주 부유하고 지체 높은 어느 귀족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분은 메디나 델 캄포의 알라모스 가문 출신으로, 산티아고 기사단의 단원이었던 돈 알론소 데 마라뇬의 딸, 도냐 멘시아 데 키뇨네스와 결혼한 분이지요. 그 아버님은 에르라두라에서 익사하셨는데, 그 일 때문에 몇 년 전 우리 마을에서 싸움이 났었지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주인님인 돈키호테께서도 그 싸움에 끼어 계셨다던데… 그 소동 중에 대장장이 발바스트로의 아들인 장난꾸러기 토마시요가 다치기도 했지요…' 주인님, 이 모든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귀하신 분들께서 저를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로 보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신부가 말했다. "자네를 거짓말쟁이라기보다는 허풍쟁이라고 생각했네만, 앞으로는 자네를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겠구먼."

"산초야, 네가 워낙 증인도 많이 세우고 묘사도 상세하게 하니, 네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자, 어서 이야기를 이어가되 좀 줄여보렴. 그러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끝내는 데 이틀로도 모자라겠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 이야기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럴 필요는 없답니다. 오히려 산초가 아는 대로 다 이야기하게 하세요. 설령 이야기를 마치는 데 엿새가 걸린다 해도 상관없어

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길어진다면, 제 평생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귀하신 분들.” 산초가 말을 이었다. “제가 제 손바닥 보듯 잘 아는 이 귀족 양반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저 양반 집까지는 화살 한 발이면 닿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거든요. 이 양반이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부 한 명을 초대했답니다.”

“자, 계속하게나, 형제여.” 이때 신부가 말했다. “자네 이야기를 저 세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할 기세로 몰아붙이는구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절반도 못 가서 멈출 겁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 농부가 그 초대한 귀족 양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의 일인데요, 이미 죽은 양반이니 그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 뿐입니다. 게다가 사람들 말로는 그분이 천사처럼 아주 거룩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테블레케로 추수하러 가 있었거든요……."

“얘야, 제발 부탁이다. 테블레케에서 어서 돌아오너라. 그리고 그 귀족 양반 장례를 치르느라 이야기를 더 길게 끌 생각이 없다면, 장례 절차는 생략하고 어서 이야기를 끝맺어다오.” 신부가 말했다.

“그러니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두 사람이 막 식탁에 앉으려던 참이었는데, 아, 지금 보니 그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선하군요…….”

산초가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자꾸만 말을 끊고 지체하는 바람에 선량한 신부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자, 공작 부부는 오히려 그 모습을 더없이 즐거워했다. 그사이 돈키호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다.

"제 말은 이렇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막 식탁에 앉으려던 참이었는데, 농부는 귀족 나리께 식탁 상석에 앉으시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그러자 귀족 나리께서도 농부더러 상석에 앉으라고 맞섰지요.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의 바르고 가정 교육을 잘 받았다고 자부하던 농부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분이 상한 귀족 나리가 농부의 양 어깨에 손을 얹고는, 억지로 앉히며 이렇게 말할 때까지 말입니다. '앉으시오, 이 미련한 양반아. 내가 어디에 앉든 그곳이 바로 당신의 상석이 될 테니.'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정말이지 이 이야기를 여기서 꺼낸 건 결코 뜬금없는 일이 아닙니다."

돈키호테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으락푸르락 달아올라, 검은 피부 위로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겨날 정도였다. 산초가 속이 빤히 보이는 농담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챈 귀족들은, 돈키호테가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까 봐 웃음을 꾹 참았다. 공작부인은 화제를 돌려 산초가 또 다른 헛소리를 늘어놓지 못하게 하려고, 돈키호테에게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님께는 별다른 소식이 없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혹시 그동안 거인이나 악당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분께 보낸 선물은 없는지도 물었다. 분명 수많은 적을 물리쳤을 테니 선물을 보냈을 법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부인, 제 불행은 비록 시작은 있었으나 결코 끝은 없을 것입니다. 거인들은 제가 물리쳤고, 건달과 악당들은 그분께 보내드렸습니다만, 마법에 걸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못생긴 시골 아낙네의 모습으로 변해 버린 그분을 대체 어디서 찾으란 말씀입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몸놀림이나 폴짝폴짝 뛰는 솜씨만큼은 곡예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공작부인님, 정말이에요. 그분은 땅에서 당나귀 위로 뛰어오를 때가 마치 고양이처럼 날렵하시다니까요."

"산초, 네가 마법에 걸린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았단 말이냐?" 공작이 물었다.

"아이고, 그럼요, 봤다니까요!" 산초가 대답했다. "아니, 그 마법이라는 속임수에 제일 먼저 걸려든 게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마법에 걸렸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마법에 걸렸다는 소리나 매한가지죠!"

거인과 소동, 그리고 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던 신부는 그가 바로 돈키호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작은 평소에 돈키호테의 이야기를 즐겨 읽곤 했는데, 신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공작을 여러 번 나무라기도 했었다. 자신의 짐작이 사실임을 알게 된 신부는 몹시 화가 난 채 공작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하, 제 주군이시여, 이 선량한 사람이 저지르는 짓에 대해 우리 주님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돈키호테인지, 돈 멍청이인지,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각하께서 그가 바보 같은 짓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걸 보면, 그가 각하께서 의도하시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모자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돈키호테에게 화제를 돌리며 신부가 말했다.

"그나저나 당신 같은 멍청이는 대체 누가 머릿속에 당신이 떠돌이 기사이며, 거인을 물리치고 악당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망상을 집어넣었단 말입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누가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빌어주든 말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이나 잘 키우고, 재산 관리나 잘하며 사세요. 세상 돌아다니며 바람이나 얻어먹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마다 비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보았습니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떠돌이 기사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스페인에 거인이 어디 있고, 라만차에 악당이 어디 있으며, 마법에 걸린 둘시네아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 대해 떠도는 그 온갖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돈키호테는 그 존경스러운 어른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러다 신부가 말을 멈추는 것을 보고는, 공작 부부에 대한 예우도 잊은 채 잔뜩 화가 난 표정과 격앙된 얼굴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 답변은 그 자체로 따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

제32장



제32장. 돈키호테가 자신을 꾸짖는 자에게 대답한 내용과 그 외의 엄숙하고도 익살스러운 사건들

돈키호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치 수은이라도 마신 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르르 떨고 있었다. 그러고는 당황하여 혀가 꼬인 채 서둘러 말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와 제 앞에 계신 분의 존재, 그리고 제가 귀하께서 몸담고 계신 성직이라는 직분에 대해 늘 가져왔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경외심이 제 정당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복을 입은 자들의 무기가 여인들의 무기와 다를 바 없는 '혀'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제 무기를 들고 귀하와 대등하게 싸워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저에게 비열한 욕설을 퍼붓기보다는 차라리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야 마땅한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고 선의가 담긴 훈계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예우와 조건이 있는 법입니다. 적어도 저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이토록 거칠게 꾸짖으신 것은 올바른 훈계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처사입니다. 훈계란 모름지기 거친 말투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로 행할 때 더 잘 받아들여지는 법이며, 죄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죄인을 향해 아무 이유 없이 미치광이라느니 바보라느니 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귀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보여준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저를 정죄하고 비난하시며, 제가 가정을 잘 돌보든 아내와 자식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들 뒤치다꺼리나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남의 집에 제멋대로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겨우 20~30레구아 정도의 좁은 세상밖에 보지 못한 채 어느 비좁은 기숙사살이의 궁색함 속에서 자란 이들이,

기사도에 법을 내리려 들고 떠돌이 기사들을 심판하려 들다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들이 불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난을 찾으며 세상을 유랑하는 것이 정녕 헛된 일이며 시간 낭비란 말입니까? 만약 고귀한 기사들이나 위대한 귀족, 용맹하고 신분이 높은 이들이 저를 바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이겠지만, 기사도의 길을 단 한 번도 밟아보지도 않은 학생 놈들이 저를 어리석다고 떠드는 것쯤은 제게 눈곱만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사이며, 지고하신 분께서 허락하신다면 기사로서 죽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만한 야망의 넓은 들판을 달리고, 어떤 이들은 비굴하고 천박한 아첨의 들판을 달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만적인 위선의 길을 가고, 몇몇은 참된 종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운명의 별을 따라, 기사도의 좁은 길을 갑니다. 저는 이 길을 수행하며 재산은 경시할지언정 명예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원한을 갚았고, 굽은 것을 바로잡았으며, 무례한 자들을 응징하고 거인들을 물리치고 괴물들을 짓밟아 왔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진 자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사라면 마땅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지, 결코 방탕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제하며 순수한 사랑을 지키는 자입니다. 저의 의도는 언제나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선한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행하는 자를 바보라 불러야 한다면, 고귀하신 공작님과 공작부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고, 세상에나!" 산초 판사가 말했다. "주인님, 제발 그만 말씀하십시오. 더 보탤 말씀도, 더 생각할 것도, 더 정진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양반이 방금 그러셨듯이 세상에 떠돌이 기사란 있은 적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부정하시는 마당이니, 정작 자기가 떠들어댄 그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그리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설마," 신부가 말했다. "형제여, 당신이 바로 그 산초 판사입니까? 당신의 주인께서 섬 하나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산초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누구 못지않게 그 섬을 다스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들 중 하나가 된다'는 말도 있고,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곳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나무에 기대어야 좋은 그늘을 얻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주인님 곁에 딱 붙어 수개월째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주인님처럼 될 것입니다. 주인님은 다스릴 제국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저 또한 다스릴 섬을 얻게 될 테니, 주인님도 저도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니, 산초 친구여." 그때 공작이 말했다. "나도 돈키호테 경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가진 섬 중 하나를 그대에게 맡기겠다. 그 섬은 결코 작지 않은 아주 훌륭한 곳이라네."

"산초, 무릎을 꿇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공작 전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어라."

산초는 그 말대로 행동했다. 그 모습을 본 성직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식탁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걸친 이 수도복을 두고 맹세컨대, 공작 전하께서도 이 죄인들 못지않게 어리석으시다고 말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제정신인 자들이 저들의 광기를 성인처럼 떠받드니, 저들이 어찌 미치광이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공작 전하께서는 그냥 저들과 함께 계십시오. 저들이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제 집에 있으면서, 어찌할 도리도 없는 일에 참견하며 꾸짖는 수고를 면하겠습니다."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사도 마저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공작 부부가 간곡히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공작은 성직자의 무례한 분노가 불러일으킨 웃음을 참느라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못했다. 한참을 웃던 공작은 마침내 웃음을 멈추고 돈키호테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자 기사님, 기사님께서는 스스로를 아주 훌륭하게 변호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명할 것도 없군요. 비록 모욕을 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으니까요. 기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인에게 모욕을 줄 수 없듯이 성직자에게도 모욕을 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이유는 모욕을 당할 수 없는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모욕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성직자들은 설령 공격을 당하더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에 모욕을 당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피해'와 '모욕'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이

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가 당당히 저지르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피해'는 모욕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 방심하고 있는데, 무장한 열 명이 달려들어 매질을 한다고 칩시다. 이때 맞은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 해도, 적들이 떼로 몰려와 가로막는 바람에 복수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이지 '모욕'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가와 매질을 하고는, 기다려 주지도 않고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뒤쫓던 사람이 따라가 보지만 결국 잡지 못합니다. 이때 매를 맞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이지 '모욕'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모욕이 되려면 그 행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를 때린 사람이 비록 몰래 기습했을지라도, 칼을 뽑아 들고 적을 마주하며 꿋꿋이 버텼다면, 매를 맞은 사람은 '피해'와 '모욕'을 동시에 당한 것이 됩니다. 기습을 당했으니 '피해'를 입은 것이고, 매를 때린 자가 등을 돌려 도망치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자신의 행위를 책임졌으니 '모욕'을 당한 것이지요. 이처럼 저주받은 결투의 법칙에 따르면, 저는 피해를 입었을지는 몰라도 모욕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모욕을 느끼지 못하고, 여인들도 마찬가지이며, 이들은 도망칠 수도 없고 굳이 맞서 기다릴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종교에 몸담은 이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격할 무기도, 방어할 무기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래 스스로를 지켜야 할 의무는 있을지언정, 타인을 공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까는 제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

없는 존재는 모욕을 줄 수도 없는 법이니까요. 이런 이유로 저는 저 선량한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며, 실제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저를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떠돌이 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씀하시는 그 오류를 바로잡아 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만약 아마디스가 이 말을 듣거나, 그의 무한한 혈통을 잇는 기사 중 한 명이라도 이 말을 듣는다면, 그분에게 결코 좋은 일이 없을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랬다면 아주 잘 익은 멜론이나 석류처럼 위아래로 쩍 갈라지도록 칼침을 맞았을 겁니다! 그런 가려운 장난을 당하고 가만있을 분들이 아니었지요! 맙소사, 제 생각에는 만약 레이날도스 데 몬탈반이 저 작은 양반의 말을 들었다면, 입을 틀어막아 삼 년 동안은 말도 못 하게 만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아니, 저 양반이 그분들에게 한번 덤벼봤다면 그분들 손아귀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똑똑히 알게 됐을 겁니다!"

산초의 말을 듣던 공작부인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녀가 보기에 산초는 주인보다 훨씬 더 익살스럽고, 한편으로는 더 미친 사람 같았다. 당시 많은 이들이 그녀와 같은 생각이었다. 마침내 돈키호테도 진정되었고 식사도 끝이 났다. 식탁보를 치우려는데 시녀 네 명이 나타났다. 한 명은 은쟁반을, 다른 한 명은 역시 은으로 만든 세숫대야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어깨에 아주 희고 고급스러운 수건 두 장을 걸치고 있었다. 마지막 시녀는 팔꿈치까지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하얀 그 손에는 나폴리산 비누 덩어리가 동그랗게 들려 있었다.

쟁반을 든 시녀가 다가오더니, 아주 우아하고 능숙한 몸짓으로 돈키호테의 턱밑에 쟁반을 받쳐 들었다. 돈키호테는 이런 의례적인 모습에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손으로 수염을 씻는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의 풍습이라 믿고는, 할 수 있는 한 수염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곧바로 세숫대야의 물이 쏟아져 내렸고, 비누를 든 시녀는 아주 급하게 그의 수염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눈송이 같은 거품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비누 거품은 수염뿐만 아니라 돈키호테의 얼굴 전체와 눈가까지 덮어버릴 정도로 하얬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순종적인 기사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감을 수밖에 없었다.

공작과 공작부인 역시 이 기이한 세수 의식이 어떻게 끝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비누를 든 시녀는 거품이 한 뼘이나 올라오자, 마치 물이 다 떨어진 것처럼 연기했다. 그러고는 세숫대야를 든 시녀에게 물을 더 가져오라고 시키며, 돈키호테 경이 기다려 줄 것이라고 일렀다. 시녀는 그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돈키호테는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우스꽝스럽고 기묘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돈키호테를 바라보았다. 한 뼘이나 길게 뺀 목은 가무잡잡하다 못해 거무죽죽했고, 눈은 감긴 채 수염은 온통 비누 거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도 웃음을 감출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자 대단한 자제력이었다. 조롱을 일삼던 시녀들은 주인들의 눈치를 보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반면 공작 부부는 분노와 웃음이 동시에 치밀어 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시녀들의 무례함을 꾸짖어야 할지, 아

니면 돈키호테의 저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상으로 주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마침내 세숫대야를 든 시녀가 도착했고, 돈키호테의 세수가 끝났다. 이어 수건을 든 시녀가 아주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시녀들은 모두 한꺼번에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히 예의를 갖춘 뒤 물러가려 했다. 하지만 공작은 돈키호테가 이 모든 것이 조롱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쟁반을 든 시녀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리 와서 내 몸도 좀 씻겨다오. 물이 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리하고 부지런한 시녀가 다가와 돈키호테에게 했던 것처럼 공작에게도 세숫대야를 받쳐 들었다. 시녀들은 서둘러 공작의 몸을 아주 깨끗하게 씻기고 비누칠까지 정성껏 해주었으며, 보송보송하고 깨끗하게 닦아준 뒤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공작은 자기도 돈키호테처럼 씻겨주지 않으면 시녀들의 당돌한 장난을 벌하겠다고 맹세했었는데, 시녀들은 공작에게도 비누칠을 해줌으로써 그 일을 재치 있게 무마했다고 한다.

산초 판사는 그 세숫물 의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맙소사, 세상에! 이 땅에서는 기사뿐만 아니라 종자들의 수염까지 씻겨주는 게 관습이란 말인가? 하느님과 내 영혼을 걸고 맹세컨대, 차라리 면도날로 수염을 깎아버린다 해도 그게 훨씬 이득이겠다!"

"산초,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공작부인이 물었다.

"그게 말입니다, 마님."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다른 나라 왕실에서는 식탁보를 걷어낼 때 손은 씻겨줘도 수염에 세제까지 묻혀주는 법은 없다는 말을 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구경할 것도 많으니 참 좋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오래 살면 그만큼 고생도 많이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식의 세수 대접을 받는 건 즐거움이라기보다 차라리 고역에 가깝거든요."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산초 친구." 공작부인이 말했다. "내 시녀들을 시켜 자네를 깨끗이 씻겨주겠네. 정 필요하다면 세제물에 푹 담가 빨아줄 수도 있고 말이야."

"수염이야 뭐, 지금으로선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든 되겠지요."

"보게나, 집사장." 공작부인이 말했다. "착한 산초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게나."

집사장은 산초 판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산초를 데리고 식사를 하러 자리를 떴다. 공작 부부와 돈키호테는 식탁에 남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는 모두 무예를 닦는 법과 편력기사의 도리에 관한 것이었다.

공작부인은 돈키호테에게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의 아름다움과 생김새를 자세히 그려내듯 묘사해 달라고 청했다. 돈키호테가 기억력이 매우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공작부인은 세상에 떠도는 그녀의 미모에 대한 소문으로 미루어, 둘시네아가 온 세상에서, 아니 라만차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임이 틀림없으리라 여기고 있었다. 공작부인의 청을 들은 돈키호테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약 제가 제 심장을 꺼내어 이 식탁 위 접시에 올려놓고 고귀하신 분의 눈앞에 바칠 수만 있다면, 차마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그 아름다움을 혀로 설명하느라 애쓰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작부인께서 그 심장 속에 온전히 그려진 그녀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둘시네아의 미모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부분 하나하나 묘사하고 설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깨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그녀를 화판에 그려 내고 대리석과 청동에 새기려면 파라시오와 티만테스와 아펠레스의 붓과 리시포스의 끌이 나서야 할 일이요, 그녀를 찬양하려면 키케로와 데모스테네스의 수사학이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 경, 데모스테네스식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공작부인이 물었다. "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라서요."

"데모스테네스식 수사학이란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키케로의 수사학을 키케로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수사학자였던 데모스테네스의 수사학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작이 말했다. "그 질문 때문에 잠시 어리둥절하셨나 보군요. 하지만 돈키호테 경께서 그 미인을 그려 주신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설령 아주 거칠게 밑그림만 그리신다 해도,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 시샘할 만큼 훌륭한 그림이 나올 테니까요."

"사실 그려 드리고 싶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얼마 전 그녀에게 닥친 불행이 제 머릿속에서 그 모습을 지워 버렸습니다. 그 불행이 얼마나 참혹한지, 저는 그것을 묘사하기보다 차라리 눈물 흘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날 제가 이 세 번째 출정을 위해 그녀의 손에 입 맞추고 그녀의 축복과 승낙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제가 찾던 그녀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에 걸려 공주에서 농사꾼 아낙으로, 미인에서 추녀로, 천사에서 악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향기롭던 모습은 악취로, 고운 말씨는 상스러운 말투로, 차분하던 거동은 촐랑대는 몸짓으로, 빛은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사야고의 천한 시골 아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그 순간 공작이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도대체 누가 세상에 이토록 큰 해악을 끼쳤단 말입니까? 세상의 기쁨이었던 아름다움을 빼앗고, 즐거움을 주던 우아함을 앗아갔으며, 세상의 품격을 높여주던 정숙함마저 가로챈 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누구냐고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저를 시기하여 쫓아다니는 수많은 악랄한 마법사 중 하나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 저주받은 무

리는 선한 이들의 업적을 어둡게 가리고 말살하며, 악한 이들의 행적에는 빛을 비추고 드높여주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마법사들은 저를 쫓아왔고, 지금도 쫓아오고 있으며, 저와 저의 고귀한 기사도를 망각의 깊은 심연 속으로 밀어 넣을 때까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골라 저를 해치고 상처 입힙니다. 방랑 기사에게 여인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빼앗는 것이며, 그를 비추는 태양을 앗아가는 것이요, 그를 지탱해 주는 양식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에도 여러 번 말했으나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없는 방랑 기사는 잎사귀 없는 나무와 같고,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으며,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더 할 말이 없군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부터 세상에 알려지며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돈키호테 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귀하께서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을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여인은 세상에 실재하는 분이 아니라, 귀하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태어난 환상 속의 여인일 뿐입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갖 우아함과 완벽함을 갖추어 그려낸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세상에 둘시네아가 실재하는지 아닌지, 혹은 환상 속의 존재인지 아닌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끝까지 파헤쳐서 알아낼 필요가 있는 종류의 문제도 아니지요. 또한 저는 제

여인을 만들어내거나 낳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명성을 떨칠 만한 자질을 갖춘 여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모습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즉, 티 없이 아름답고,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품위가 있으며, 정숙하면서도 사랑스럽고, 예의 바르면서도 은혜를 아는 여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 있게 자라나 예절이 몸에 밴 여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고귀한 혈통을 지녀야 합니다. 고귀한 혈통 위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은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미인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눈부신 법이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공작이 말했다. "하지만 돈키호테 경, 제가 읽은 귀하의 무용담이 저로 하여금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을 미루어 보건대, 설령 엘 토보소에 있든 그 밖에 있든 둘시네아라는 분이 실재한다고 치고, 또 귀하께서 묘사하신 것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혈통의 고귀함에 있어서는 오리아나나 알라스트라헤라, 마다시마, 혹은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기사도 소설에 수없이 등장하는 그와 비슷한 급의 여인들과는 비견될 수 없을 듯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둘시네아는 그녀가 행하는 덕행의 결실입니다. 덕은 혈통을 더욱 빛나게 하는 법이지요. 또한, 비록 신분은 낮더라도 덕을 갖춘 겸손한 사람을, 신분은 높으나 악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둘시네아는 왕관과 홀을 쓰고 여왕의 자리에 오를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덕스러운 여인이 지닌 가치는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며, 비록 형식적으로는 아

닐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더 큰 복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 경,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하고, 흔히 말하듯 마치 측연(測鉛)을 손에 쥐고 깊이를 재듯 빈틈이 없군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앞으로 저는 엘 토보소에 둘시네아라는 분이 실재하며,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아름다우며, 무엇보다 돈키호테 경 같은 기사가 모시기에 걸맞은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또한 제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제 남편인 공작님께도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고 또 드릴 줄 아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하지만 산초 판사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들고, 어딘지 모르게 못마땅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군요. 그 의구심이란, 앞서 말한 이야기에서 산초 판사가 돈키호테 경의 편지를 전하러 갔을 때 그 둘시네아 님이 밀 한 자루를 키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게다가 그것이 붉은 밀이었다고까지 자세히 적혀 있으니, 바로 그 점이 그녀의 고귀한 혈통을 의심하게 만드는군요."

이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부인, 제게 일어나는 모든 일, 혹은 대부분의 일은 다른 편력기사들에게 일어나는 보통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귀하의 고귀함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의 헤아릴 수 없는 뜻에 따른 것이든, 혹은 질투심 많은 마법사가 부리는 악의에 의한 것이든 말입니다. 유명한 편력기사들 중에는 누구나 하나쯤 특별한 은총을 입는 법이라,

어떤 이는 마법에 걸리지 않는 은총을, 어떤 이는 프랑스의 열두 기사 중 한 명인 그 유명한 롤랑처럼 살결이 너무나 단단하여 상처를 입을 수 없는 은총을 입기도 합니다. 롤랑은 왼쪽 발바닥만은 상처를 입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오직 굵은 핀 끝으로만 가능할 뿐 그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델 카르피오가 론세스바예스에서 그를 죽이려 할 때, 칼로는 상처를 낼 수 없음을 깨닫고는 그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팔로 껴안은 채 숨을 막아 죽였다고 합니다. 이는 헤라클레스가 땅의 아들이라 불리던 사나운 거인 안테온을 죽였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처를 입지 않는 은총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제 살결은 아주 부드러워서 전혀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마법에 걸리지 않는 은총도 아닙니다. 마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갇힐 수 없는 새장에 갇혔던 적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새장에서 탈출했으니, 이제는 저를 괴롭힐 수 있는 자가 더는 없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를 가지고 나쁜 수작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마법사들이라면, 차라리 제가 가장 아끼는 것, 즉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둘시네아를 괴롭혀 제 목숨을 앗아가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종자가 제 심부름을 하러 갔을 때, 마법사들이 그녀를 천한 농민으로 변모시켜 밀을 까불고 있는 비천한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밀은 붉은 밀도 아니고 보통 밀도 아니었으며, 사실은 동방에서 온 진주 알갱이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귀하의 고귀함께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엘 토보소를 지나갈 때 저는 결코 둘시네아의 궁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 종자 산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인 그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저 말귀 못 알아듣는 못생기고 거친 농부로 보였을 뿐입니다. 사실 그녀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분별 있는 여인인데도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건대, 제가 마법에 걸린 것도 아니고 걸릴 수도 없다면, 마법에 걸린 쪽은 바로 그녀입니다. 그녀가 바로 마법에 걸려 모욕을 당하고, 모습이 변하고, 뒤바뀌고, 뒤틀린 것입니다. 원수들이 저를 해치기 위해 그녀를 공격한 것이지요. 저는 그녀가 원래의 고귀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영원한 눈물 속에서 살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산초가 둘시네아의 밀 까불기와 관련해 했던 말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그녀를 변모시킨 마법사들이라면, 산초에게 그녀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둘시네아는 고귀한 신분이며, 엘 토보소에 있는 수많은 고귀하고 오래된 명문가 중에서도 분명히 그 비중이 큰 가문 출신입니다.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덕분에 그녀의 고향은 훗날 트로이가 헬레네 덕분에, 스페인이 카바 덕분에 이름을 떨쳤던 것처럼, 훨씬 더 명예롭고 유명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산초 판사가 지금까지 편력기사를 모신 종자들 중 가장 재치 있는 이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때때로 너무나 순진해서 그가 정말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영리한 것인지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예리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당이라 불릴 만

큼 영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보라고 확신할 만큼 허술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도 모든 것을 믿어버리곤 하지요. 그가 너무 멍청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할 때면, 돌연 하늘을 찌를 듯한 명철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설령 도시 하나를 덤으로 준다 해도 산초를 다른 종자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귀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를 통치자로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그에게 통치자의 자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보입니다. 지혜를 조금만 북돋아 준다면, 마치 왕이 세금을 거두듯 어떤 통치든 거뜬히 해낼 것입니다. 게다가 통치자가 되는 데 대단한 능력이나 학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글을 겨우 읽는 수준이면서도 마치 송골매처럼 훌륭하게 다스리는 통치자가 수두룩합니다. 핵심은 선한 의도를 품고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해내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글은 몰라도 고문관의 조언을 받아 판결을 내리는 기사 출신 통치자들처럼, 그에게도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하고 이끌어 줄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그에게 뇌물을 받지 말고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등의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제 속에는 아직 할 말이 더 남아 있지만, 산초의 유익과 그가 다스릴 섬의 번영을 위해 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작과 공작부인, 그리고 돈키호테의 대화가 바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궁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커다란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산초 판사가 겁에 질린 모습으로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는

데, 목에는 빨래에 쓰는 굵은 잿물 천을 턱받이처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수많은 하인이 따라 들어왔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방의 잔챙이 악당들이나 잡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물을 담은 작은 나무통을 들고 오고 있었는데, 그 색깔이나 지저분한 상태를 보니 설거지용인 듯했습니다. 그 나무통을 든 자가 산초를 바짝 뒤쫓으며 어떻게든 그 통을 산초의 턱밑에 들이밀어 고정시키려 갖은 애를 쓰고 있었고, 또 다른 악당은 산초의 수염을 씻겨주려는 모양새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얘들아?" 공작부인이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말이다! 저 선량한 사람에게 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그가 통치자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어찌하여 모르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악당인 이발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관례대로 씻기는 것을 마다하십니다. 제 주인이신 공작님도, 저분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도 그렇게 씻으셨는데 말입니다."

"싫다는 게 아닙니다!" 산초가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만 좀 더 깨끗한 수건을 쓰고, 더 맑은 잿물을 쓰고, 무엇보다 손 좀 깨끗이 씻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주인님과 저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다고, 주인님은 천사의 물로 씻겨 드리고 저한테는 악마의 잿물을 쓴단 말입니까? 왕실이나 궁전의 관습이라는 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때나 좋은 법이지, 여기서 행하는 이 씻기 관습은 고행단이 하는 짓보다도 못합니다. 제 수염은 이미 깨끗해서 이런 번거로

운 손질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누가 감히 저를 씻긴답시고 제 머리카락, 아니, 예의를 갖춰 말하자면 제 수염 한 올이라도 건드리기만 해 보십시오. 제 주먹이 그놈 머리통에 박혀 버릴 만큼 호되게 한 대 갈겨 줄 테니까요. 이런 식의 요식 행위나 비누칠은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놀리는 꼴 아닙니까?"

산초의 분노와 그가 내세운 논리를 지켜보던 공작부인은 웃음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얼룩덜룩한 수건을 두른 채 꼴사나운 몰골로 주방 일꾼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산초의 모습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에 돈키호테는 공작 부부에게 마치 발언 허락을 구하듯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그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신사 여러분! 저 청년을 그만 내버려 두고, 오셨던 길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다른 길로 가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 종자도 다른 사람만큼이나 깨끗합니다. 그런 시시한 통들은 저 청년에게는 그저 좁고 거북한 물그릇일 뿐입니다. 제 충고를 듣고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나 제 종자나, 남을 놀리는 수작 따위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가로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어디 이 떠돌이 같은 놈을 한번 놀려 보시지요! 지금이 한밤중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나 잘도 참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빗이든 뭐든 가져와서 이 수염을 솔질하고 빗겨 보십시오. 만약 거기서 청결을

해칠 만한 것이 나온다면, 제 머리를 십자 모양으로 빡빡 깎아 버려도 좋습니다."

그때 공작부인이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산초 판사가 한 말은 모두 옳습니다. 앞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옳을 겁니다. 그는 깨끗한 사람이라, 본인 말대로 굳이 씻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관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요. 더구나 청결을 담당하는 관리라는 자들이 너무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아니 무엄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인물과 이런 수염에는 순금 세숫대야와 물병, 독일제 수건을 가져다드려야 마땅하거늘 그 대신 나무 대야와 구유, 그릇장의 행주 따위나 들고 왔으니 말입니다. 결국 당신들은 성품이 나쁘고 근본도 못된 자들이라, 악당답게 편력기사의 종자를 미워하는 그 못된 심보를 끝내 감추지 못하는군요."

짓궂은 관리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 온 집사까지도 공작부인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초의 가슴에서 그 잿물 천을 떼어 주었고, 모두 당황한 채 거의 무안해하며 자리를 떠나 산초를 홀로 남겨 두었습니다. 산초는 자신이 보기에 그토록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며, 공작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귀부인께서는 위대한 은혜를 베푸시는 법이지요. 오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제가 기사 작위를 받아 평생토록 이토록 높으신 귀부인을 모시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망을 들어주시는 것 말고는 달리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농부이며, 이름은 산초 판사입니다. 가정이 있고 자식도 있으며, 지금은 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 어느 것이라도 공작부인을 모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명령을 따르는 일은 공작부인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산초, 참으로 보기 좋구나." 공작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예법을 배우는 학교에서 예법을 제대로 배운 모양이야. 내 말은, 네가 돈키호테 경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는 뜻이지. 그분은 분명 예의범절의 정수이자, 네가 말하는 그 '의식'이니 '의례'니 하는 것들의 꽃과 같은 분이실 게다. 그런 주인과 그런 종자가 있으니 참으로 보기 좋구나. 주인은 편력기사도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종자는 종자로서의 충실함을 별처럼 빛내고 있으니 말이다. 자, 일어나거라, 착한 산초야. 내 너의 그 정중한 태도에 보답하마. 나의 주인인 공작께서 약속하신 통치권을 가능한 한 빨리 네게 넘겨주도록 하겠다."

이로써 대화가 끝났습니다. 돈키호테는 낮잠을 자러 갔고, 공작부인은 산초 판사에게 혹시 낮잠을 잘 생각이 없다면 아주 시원한 방에서 자신과 시녀들과 함께 오후 시간을 보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초 판사는 여름철 낮잠은 보통 네다섯 시간씩 자는 것이 습관이긴 하지만, 공작부인의 선의를 받들기 위해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한숨도 자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분부에 순종하여 오겠노라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공작은 돈키호테를 대할 때 마치 옛날 기사들이 서로 대하던 방식 그대로, 한 치도 벗어남 없이 편력기사로서 예우를 갖추어 대하라고 다시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33장



제33장. 공작부인과 그녀의 시녀들이 산초 판사와 나누었던,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고 눈여겨볼 만한 아주 흥미진진한 대화에 대하여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진다. 산초 판사는 그날 낮잠을 자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식사를 마친 뒤 곧장 공작부인을 찾아갔다. 공작부

인은 산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다. 그래서 산초를 자기 곁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혔다. 산초는 예의를 차리느라 선뜻 앉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자 공작부인은 산초에게 말하기를, 통치자로서 앉고 종자로서 말하되, 그 두 가지 자격 모두 시드 루이 디아스 캄페아도르가 앉았던 그 귀한 자리와 맞먹으니 어서 앉으라고 권했다.

산초 판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내 공작부인의 말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공작부인의 시녀들과 상궁들이 모두 산초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그를 에워쌌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아주 조용히 집중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공작부인이었다. 공작부인이 말했다.

"자, 이제 우리만 남았고 아무도 듣는 이가 없으니, 위대한 돈키호테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생긴 내 의문점들을 통치자님께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군요. 그 의문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착한 산초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그러니까 그 귀하신 둘시네아 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게다가 돈키호테 경이 보낸 편지도 전해주지 못했고요. 그 편지는 시에라 모레나에서 수첩에 적힌 채 그대로 두고 왔으니까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그런 가짜 답변을 꾸며낼 수 있었을까요? 밀을 까부르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는 그 이야기는 전부 조롱이자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비할 데 없이 고귀한 둘시네아 님의 명성에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종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니까요."

산초 판사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손가락을 입

술에 댄 채 방 안을 돌아다니며 휘장을 하나하나 들춰 보았다. 그러고는 그 일을 마친 뒤 다시 자리에 앉아 말했다.

"자,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몰래 엿듣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니,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질문하신 내용과 앞으로 물으실 모든 것에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는 제 주인 돈키호테 경이 아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주인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가 느끼기에,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현명하고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할 정도로 아주 명쾌하고 올바른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주인님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편지 답변 사건이나 아직 책에는 나오지 않은 엿새나 여드레 전의 일처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들도 주인님이 믿게끔 꾸며낼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께 마법이 걸렸다고 주인님께 믿게 한 일 말입니다.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공작부인이 그 마법 혹은 장난에 대해 들려달라고 청하자, 산초 판사는 일이 일어난 그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듣고 있던 이들은 그 이야기에 꽤나 즐거워했다. 공작부인은 산초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말을 이었다.

"착한 산초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맴돌고 귓가에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군요. '라만차의 돈

키호테 경이 미치고 모자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종자인 산초 판사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산초는 주인님을 모시고 따르며 그 허황된 약속들에 매달리고 있으니, 산초가 주인보다 더 미치고 바보임이 틀림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공작부인님, 저런 산초 판사에게 다스릴 섬을 맡겨 보았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다스릴 줄 알겠습니까?'"

"하느님 맙소사, 부인님," 산초가 말했다. "그 의구심은 아주 타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인님께서는 그 의구심이 무엇을 말하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잘 압니다. 만약 제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주인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운명이고 제 팔자입니다. 더는 어쩔 도리가 없으니 계속 따를 수밖에요. 우리는 고향도 같고, 그분의 빵을 나누어 먹으며 정이 들었습니다. 주인님은 고마워할 줄 아는 분이고 제게 어린 나귀들도 주셨지요. 무엇보다 저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헤치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인님의 고결함 때문에 제게 약속된 통치권을 주지 않으려 하신다면, 그것 또한 제게는 차라리 다행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제 양심이 편안해질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비록 바보라 해도, '개미는 불행하게도 날개를 얻었다'는 속담이 저에게 딱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종자 산초로 남는 것이 통치자 산초가 되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더 빨리 가는 길일지도 모르지요. 여기 빵도 프랑스만큼이나 맛있게 잘 구워지고, 밤이 되면 고양이 색깔은 다 똑같아 보이는 법입니

다. 오후 두 시까지 아침조차 못 먹은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지요. 위장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 한들, 흔히 말하듯 짚이나 건초로 채울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들판의 작은 새들도 하느님께서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옷감도 쿠엥카산 네 자가 세고 비아산 네 자보다 훨씬 따뜻한 법이고요.

이 세상을 떠나 땅속으로 들어갈 때가 되면, 왕자나 날품팔이나 좁은 길을 지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키가 크다 한들, 교황의 몸이 차지하는 땅이 성당지기의 몸이 차지하는 땅보다 더 넓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갈 때는 우리 모두가 몸을 굽히고 움츠러들거나, 싫든 좋든 그렇게 굽히고 움츠러들도록 만들어지니,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인님께서 저를 바보라 여겨 섬을 주지 않으신다면, 저 또한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악마가 있다'는 말과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또한 옛 노래들이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소와 쟁기와 멍에 사이에서 농부 왐바가 나와 스페인의 왕이 되기도 했지만, 화려한 비단과 유흥과 재물 속에서 로드리고는 뱀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지요!" 듣고 있던 이들 중 한 명인 상궁 로드리게스 부인이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말했다. "어떤 노래에는 로드리고 왕이 산 채로 두꺼비와 뱀, 도마뱀이 가득한 무덤 속에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왕이 무덤 안에서 고통에 찬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벌써 나를 갉아먹고 있구나, 나를 갉아먹고 있어."

내가 가장 많이 죄지은 바로 그곳을.

그러니 이 말씀대로라면, 하찮은 벌레들에게 잡아먹힐 바에야 차라리 왕보다 농부로 살고 싶다는 이분의 말씀은 참으로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공작부인은 자기 시녀인 로드리게스 부인의 그 순박한 말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산초가 내놓는 논리와 속담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작부인은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한 산초도 잘 알다시피, 기사가 한 번 약속한 일은 설령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키려 하는 법이라네. 내 남편인 공작님은 비록 편력기사는 아니시지만, 그렇다고 기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 그러니 세상의 시기와 악의가 있더라도, 약속했던 그 섬을 반드시 다스리게 해주실 걸세. 그러니 산초는 기운을 내게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자네는 섬의 통치자 자리와 영지의 자리에 앉아 권좌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니, 세 겹으로 짠 고급 비단 자리를 준다 한들 그 통치권과는 결코 바꾸지 않으려 할 걸세. 다만 내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네의 백성들이 모두 충성스럽고 좋은 가문에서 난 이들임을 명심하고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이라네."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 말인가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건 굳이 제게 당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천성이 인정 많은 사람이라 가난한 이들을 가엾게 여길 줄 알거든요. '빵을 굽고 반죽하는 사람의 빵을 훔

치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맹세코 제게 가짜 주사위를 들이밀 수는 없을 겁니다. 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놈이라 온갖 수작을 다 알아채고, 때가 되면 눈치껏 기민하게 움직일 줄도 압니다. 눈앞에서 헛것이 어른거리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지요. 어디서 신발이 발을 죄는지 다 아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선한 사람들에게는 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겠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발붙일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치라는 게 일단 시작이 어렵지, 막상 해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통치자가 된 지 보름 만에 그 일에 푹 빠져 손가락을 빨 만큼 좋아하게 되고, 평생 해 온 농사일보다 통치하는 법을 더 잘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지요.”

"산초, 자네 말이 맞네." 공작부인이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우면서 성장하는 법이고, 주교도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 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조금 전 우리가 나누던 둘시네아 여사의 마법 이야기에 대해 다시 말해보자면, 나는 산초 자네가 주인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 농부 여인을 둘시네아라고 믿게 만들고, 주인님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 그녀가 마법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둘러댄 그 생각이, 사실은 돈키호테 경을 괴롭히는 어느 마법사가 꾸며 넣은 것이라고 확신하네. 왜냐하면 암나귀 위로 폴짝 뛰어오른 그 시골 처녀가 예나 지금이나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사실을, 나는 믿을 만한 곳에서 분명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지. 착한 산초는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건 바로 자네라네. 이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만큼이나 의심할 여지가 없네. 산초 판사, 알아두게나. 여기에도 우리를 아끼는 마법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

무런 술수나 농간 없이 아주 솔직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러니 믿게나, 폴짝 뛰어오르던 그 시골 처녀는 예나 지금이나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맞으며, 그녀를 낳아 준 어머니가 살아 있는 것만큼이나 틀림없이 마법에 걸려 있다네. 그러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그녀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산초 자네도 지금 빠져 있는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될 걸세."

"그 말씀이 다 맞을지도 모르지요." 산초 판사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인님께서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보았다는 이야기도 믿어야겠군요. 주인님 말씀으로는, 제가 제 재미로 마법을 부려 보았을 때 보았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옷차림과 모습의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를 그 동굴에서 보았다고 하시니까요. 공작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이 정반대였던 게 분명합니다. 제 보잘것없는 머리로는 그렇게 날카로운 속임수를 순식간에 꾸며냈을 리도 없고, 또 제 주인님께서 저처럼 빈약하고 허술한 말에 속아 그토록 터무니없는 일을 믿으실 만큼 미치셨을 리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부인,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보지는 말아 주십시오. 저 같은 미천한 놈이 그 악랄한 마법사들의 속셈이나 악의를 일일이 파헤치고 다닐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주인님인 돈키호테 경과 다투는 상황을 피하려고 그런 말을 지어냈을 뿐이지, 주인님을 기분 나쁘게 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정반대로 흘러갔다면,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요."

“그게 바로 진실이라네.” 공작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산초, 아까 말한 그 몬테시노스 동굴 이야기는 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제 말해보게나. 나도 참 궁금하거든.”

그러자 산초 판사는 앞서 이야기된 그 모험에 관한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공작부인이 말했다.

"이 일로 미루어 보건대, 위대한 돈키호테께서 그곳에서 산초가 엘 토보소를 나올 때 보았던 바로 그 농가 여인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니, 그 여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둘시네아가 분명하네. 그러니 이 근방에는 아주 영악하고도 참견하기 좋아하는 마법사들이 들끓고 있는 게 틀림없군."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만약 저의 귀하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께서 마법에 걸리신 거라면 그건 그분 사정이지요. 저는 제 주인님의 원수들과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 원수들이 아주 많고도 악한 자들일 텐데, 제가 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제가 본 여인이 농가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저는 그분을 농가 여인으로 보았으며, 농가 여인이라 여겼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 둘시네아였다 하더라도, 그건 제 책임이 아니며 저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아니, 그저 사람들이 저를 두고 ‘산초가 그랬다, 산초가 했다, 산초가 이랬다저랬다 한다’라며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며 저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저는 그저 산초 판사일 뿐입니다. 산손 카라스코의 말

에 따르면 저는 이미 세상에 책으로까지 알려진 몸이라더군요. 적어도 그분은 살라망카에서 학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나 자신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저를 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습니다. 저는 평판이 좋으니,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라는 주인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통치권을 맡겨만 주신다면 놀라운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직한 종자였던 자가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이 착한 산초가 한 말은 전부 카토 같은 현자의 격언이거나, 적어도 미카엘 베리노가 남긴 명언에서 그대로 따온 것이로구나." 공작부인이 말했다. "아무튼, 아무튼, 산초 식대로 말하자면, 초라한 외투 속에도 훌륭한 술꾼이 숨어 있는 법이지."

"정말입니다, 마님."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평생 나쁜 의도로 술을 마셔 본 적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시는 건 몰라도 말입니다. 저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마시고 싶지 않아도 남이 권하면 까다롭거나 버릇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마십니다. 친구가 건네는 건배를 거절할 만큼 마음이 돌덩이처럼 딱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 해서 그 신발을 더럽히는 법은 없지요. 게다가 편력기사의 종자들은 대개 물을 마시며 지냅니다. 늘 숲과 수풀, 초원과 산맥, 험한 바위산을 헤매고 다니다 보니, 한 쪽 눈을 내주고서라도 포도주 한 모금 얻어 마시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작부인이 말했다. “일단 산초는 가서 좀 쉬도록 해라. 나중에 더 길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초가 말한 그 통치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자리에 딱 들어맞게 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자꾸나.”

산초는 다시 한번 공작부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잿빛 당나귀를 잘 보살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 잿빛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공작부인이 물었다.

"제 당나귀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 이름으로 부르기가 좀 뭣해서 보통은 '잿빛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이 성에 들어왔을 때 여기 계신 시녀분께 그 녀석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마치 제가 못생겼다거나 늙었다고 말하기라도 한 것처럼 펄쩍 뛰며 놀라시더군요. 원래 시녀라면 응접실을 빛내고 다니기보다 당나귀 같은 짐승을 돌보는 게 더 격에 맞고 자연스러운 일일 텐데 말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 고향의 어느 시골 양반은 이런 시녀 부인들을 어찌나 못마땅해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천한 놈이었을 게다." 시녀인 도냐 로드리게스가 말했다. "만약 그자가 귀족 출신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시녀들을 달의 뿔 위에 떠받들어 모셨을 테니까."

"자, 이제 그만합시다." 공작부인이 말했다. "도냐 로드리게스는 그만 입을 다물고, 산초 판사님은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 잿빛 당나귀

를 잘 보살피는 일은 제가 맡지요. 산초에게는 보물 같은 녀석이니, 제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저 마구간에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공작부인님의 두 눈동자 위에라면 저나 제 당나귀나 단 한순간도 올라앉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칼에 찔리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는 예의를 차릴 때는 모자란 것보다 차라리 지나친 편이 낫다고 말씀하시지만, 당나귀에 관한 일이나 눈동자에 관한 일을 대할 때는 자를 손에 든 듯 딱 알맞은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산초가 그 당나귀를 통치지로 데려가게 하세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그곳에 가면 산초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호강시키든, 아니면 아예 일에서 은퇴시키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공작부인님, 제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통치하러 가는 당나귀를 두 마리 넘게 본 적도 있으니, 제가 제 당나귀를 데려간다 해도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산초의 재치 있는 답변에 공작부인은 다시금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워했다. 그녀는 산초를 가서 쉬게 한 뒤, 공작에게 가서 산초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돈키호테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다. 기사도 문학의 격식에 딱 맞으면서도 세상에 이름을 떨칠 만큼 아주 기발한 장난을 꾸민 것이다. 그들은 돈키호테를 상대로 아주 적절하고도 영리

한 장난을 수없이 펼쳤는데, 이 대목은 이 방대한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백미로 꼽히는 모험들이다.

제34장



제34장. 비할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어떻게 마법에서 풀어내야 하는지에 관한 소문이 돌게 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모험 중 하나이다.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나누는 대화를 무척 즐겼다. 두 사람은 돈키호테와 산초에게 기사도 모험의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은근히 골탕을 먹이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이미 들려주었던 몬테시노스 동굴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아주 유명한 소동을 하나 꾸며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공작부인이 가장 기가 막혀 했던 점은, 정작 이 모든 일을 꾸민 마법사이자 사기꾼이 산초 자신인데도, 산초가 어찌나 순진한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렸다는 말을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로 곧이곧대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공작 부부는 하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모두 지시한 뒤, 엿새 후에 돈키호테 일행을 사냥에 데려갔다. 이때 사냥꾼과 몰이꾼들의 행렬은 왕이 행차할 때나 갖출 법할 만큼 화려하고 성대했다.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에게는 사냥용 옷을, 산초에게는 아주 고운 천으로 만든 초록색 옷을 내주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그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조만간 다시 고된 무예 수련에 매진해야 할 몸이라며, 이런 옷가지나 살림살이 따위를 챙겨 다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산초는 받은 옷을 덥석 챙겼는데, 기회만 생기면 바로 팔아치울 속셈이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돈키호테는 무장을 갖추었고, 산초는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산초는 새 말을 한 마리 내주어도 제 잿빛 당나귀를 두고 떠나려 하지 않았고, 그 당나귀에 올라탄 채 사냥꾼 무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공작부인은 아주 화려하고 품위 있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돈키호테는 예의를 갖추고 절도를 지키려, 공작이 만류하는데도 굳이 공작부인이 탄 말의 고삐를 직접 쥐었습니다. 마침

내 일행은 두 개의 높은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각자 정해진 위치와 매복 지점, 오솔길로 흩어졌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자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뒤섞여 엄청난 소음과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사람들은 서로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공작부인도 말에서 내려 날카로운 작살을 손에 들고, 멧돼지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작과 돈키호테 역시 말에서 내려 그 곁에 섰습니다. 산초는 혹시라도 당나귀에게 무슨 변이라도 생길까 두려워 차마 그 곁을 떠나지 못한 채, 당나귀에서 내리지도 않고 모두의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수많은 하인과 함께 자리를 잡자마자, 사냥개들에게 쫓기고 사냥꾼들이 뒤쫓는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멧돼지는 이빨과 엄니를 딱딱거리며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본 돈키호테는 방패를 앞세우고 칼자루에 손을 얹은 채, 놈을 맞이하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작도 작살을 들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만약 공작이 가로막지만 않았다면 공작부인이 모두보다 앞서 나갔을 것입니다. 오직 산초만이 그 용맹한 짐승을 보고는 당나귀를 내팽개친 채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산초는 높은 상수리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나무 중간쯤 올라가 가지 하나를 붙잡고 꼭대기로 올라가려 버둥거리던 중, 운이 지독히도 없고 불행하게도 붙잡고 있던 가지가 툭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무 아래로 떨어지려던 산초는 나무에 달린 갈고리 같은 가지에 몸이 걸리는 바람에, 땅에 닿지도 못한 채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

다. 이 꼴이 된 데다 입고 있던 초록색 옷까지 찢어지자, 산초는 저 사나운 짐승이 여기까지 쫓아와 자신을 덮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했는지 산초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맹수의 이빨 사이에 끼어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마침내 이빨이 날카로운 멧돼지는 앞을 가로막은 수많은 작살에 꿰뚫리고 말았습니다. 산초의 비명 소리를 듣고 그를 알아챈 돈키호테가 고개를 돌려보니, 산초는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채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있었고, 잿빛 당나귀는 주인의 재난을 저버리지 않은 채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산초 판사만 있고 당나귀는 없는 모습이나, 당나귀만 있고 산초는 없는 모습을 본 적은 거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사이의 우정과 신의가 그만큼 두터웠던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다가와 산초를 나무에서 내려주었습니다. 땅에 내려와 자유로워진 산초는 찢어진 사냥용 옷을 살펴보더니 마음속으로 몹시 상심했습니다. 그 옷 한 벌을 마치 자손에게 물려줄 세습 재산이라도 되는 양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힘센 멧돼지를 노새 등에 얹어, 로즈마리 덤불과 도금양 가지로 덮고는 승리의 전리품을 과시하듯 숲 한가운데 설치된 커다란 천막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는 식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음식이 워낙 많고 화려하여 차려놓은 이의 위엄과 풍요로움이 한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산초는 찢어진 옷의 상처를 공작부인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냥이 토끼나 작은 새를 잡는 것이었다면, 제 옷이 이렇게까지 너덜너덜해질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송곳니 하나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짐승을 기다리는 게 대체 무슨 재미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오래된 발라드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파빌라라 불리는 자가 곰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그대도 곰에게 잡아먹히길!"

"그분은 고트족의 왕이셨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사냥을 나가셨다가 곰에게 잡아먹히고 만 분이라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왕자님이나 왕들께서 그런 위험에 처하는 건 정말 원치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죽이겠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변덕 때문에 말입니다."

"산초, 자네는 잘못 알고 있네." 공작이 대답했다. "산속에서 하는 사냥이야말로 왕이나 왕자들에게 그 어떤 활동보다 적합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네. 사냥은 전쟁의 축소판이지. 적을 안전하게 물리치기 위한 책략과 기지, 그리고 함정이 모두 그 안에 들어 있네. 사냥을 하다 보면 엄청난 추위와 견디기 힘든 더위도 겪어야 하지. 게으름과 잠을 멀리하게 되고, 체력은 강해지며, 몸놀림은 민첩해진다네. 요컨대 사냥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많은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지. 무엇보다 사냥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종류의 사냥들과 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네. 다만 매사냥만은 예외라서, 그 역시 왕이나 고귀한 귀족들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 산초, 생각을 고

쳐먹게나. 나중에 자네가 총독이 되면 사냥에 힘써보게. 그러면 그것이 백 배의 값어치를 한다는 걸 알게 될 걸세."

"그건 아니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훌륭한 총독이라면 다리가 부러진 채 집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상인들이 지쳐서 찾아왔는데, 총독은 산속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정치가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나리. 사냥이나 오락 같은 건 총독보다는 게으름뱅이들에게나 어울리는 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활절에는 판돈을 거는 트리운포 카드놀이나 하고, 일요일이나 축제일에는 볼링이나 치는 게 제일입니다. 제 처지에 그런 사냥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체질에도 안 맞고 양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산초,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하늘에 빌어보세. 말처럼 행동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 상관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돈을 제때 잘 갚는 사람은 담보 잡히는 것쯤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지요. 그리고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보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낫고, 발이 배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배가 발을 끌고 다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하늘이 저를 돕고 제가 선한 마음으로 마땅히 할 일을 다한다면, 분명 저도 그 어떤 송골매보다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제 입에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 보십시오. 제가 꽉 깨무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시란 말입니다!"

"이 빌어먹을 산초 놈아, 신께서 너를 저주하시고 모든 성인께서도 너를 저주하시길! 내가 전에도 수없이 말했지만, 도대체 언제쯤이면

네가 속담 하나 안 섞고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하는 꼴을 볼 수 있겠느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으리들, 이 바보 녀석은 제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 녀석은 속담을 두어 개 끼워 넣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이천 개나 섞어 놓으니, 나으리들의 영혼이 다 너덜너덜해질 지경입니다. 하느님이 저 녀석에게 건강을 주시는 한, 아니 제가 그 속담들을 기꺼이 들어줄 마음이 있어 저에게 건강을 주시는 한, 저 녀석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딱딱 들어맞는 속담을 끝없이 쏟아낼 것입니다."

"산초 판사가 쓰는 속담이라니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그리스 기사단장의 속담보다 양이 많다고 해서, 문장이 짧다는 이유로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설령 다른 이들의 속담이 더 적절하고 때맞춰 잘 쓰였다 하더라도, 저는 산초의 속담이 훨씬 더 즐겁답니다."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천막을 나서 숲으로 향했고, 몇몇 사냥 길목을 둘러보는 사이 어느덧 낮이 저물고 밤이 찾아왔다. 한여름 한복판이라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해가 아주 밝게 지거나 뉘엿뉘엿 넘어가는 것도 아니었으나, 어스름한 빛이 감돌며 만들어낸 명암이 공작 부부의 의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황혼이 지나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마치 숲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이리저리서 수많은 나팔과 군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대규모 기병대가 숲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타오르는 불빛과 전쟁을 알리는 악기 소리는 주변 사람들은 물론 숲에 있던 모든 이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였다. 이어 전투에 임하는 무어인들의 관습처럼 수많은 함성이 터져 나

왔고, 트럼펫과 나팔, 북소리, 피리 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들이 워낙 끊임없이 몰아치며 급박하게 울려 퍼진 나머지, 그 혼란스러운 악기 소리에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공작은 멍해졌고, 공작부인은 동작을 멈췄으며, 돈키호테는 경탄했고, 산초 판사는 몸을 떨었다. 급기야 이 모든 상황을 꾸민 당사자들조차 겁에 질리고 말았다. 공포 섞인 침묵이 그들을 덮쳤을 때, 악마 복장을 한 마부 한 명이 그들 앞을 지나가며 크고 텅 빈 뿔나팔을 불어댔다. 그 나팔에서는 거칠고도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보게, 전령 양반!" 공작이 말했다. "누구신가?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리고 이 숲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저 군사들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자 전령이 거칠고도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악마다! 돈키호테를 찾아가는 길이지.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은 마법사들의 여섯 부대라네. 저들은 개선 수레에 세상에 둘도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태우고 오고 있지. 마법에 걸린 그분은 용맹한 프랑스 기사 몬테시노스와 함께 오는데, 그 마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돈키호테에게 일러주러 오는 길이라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 험상궂은 모습대로 정말 악마라면, 이미 저기 눈앞에 있는 돈키호테를 알아봤어야지."

"하느님과 내 양심을 걸고 맹세하건대," 악마가 대답했다. "그 점은 미처 생각지 못했소. 워낙 다른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정작 이곳에 온 본래 목적까지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구려."

"틀림없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저 악마는 선량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느님과 제 양심을 걸고 맹세할 리가 없지요. 제 생각엔 저 지옥 속에도 분명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돈키호테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사자 기사여, 불행하지만 용맹한 기사 몬테시노스가 나를 보냈네. (그 사자들의 발톱 사이에 자네가 끼어 있는 꼴을 내가 보게 된다면 좋겠군.) 몬테시노스가 전하길, 자네가 어디서든 마주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 그는 지금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고 불리는 여인을 데리고 오고 있으며, 그녀의 마법을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자네에게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내 방문이 이보다 더 길어질 이유는 없으니, 머무는 것도 이쯤이면 충분하겠지. 나 같은 악마들은 자네 곁에 남고, 선한 천사들은 이 귀하신 분들 곁에 머물기를."

말을 마친 악마는 그 엄청난 뿔나팔을 한 번 불더니, 누구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등을 돌려 가버렸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특히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가 더욱 그러했다. 산초 판사는 사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린 상태로 남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고, 돈키호테는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겪은 일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당혹스러워했다. 두 사람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공작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돈키호테 경, 기다리실 생각입니까?"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가 대답했다. "설령 지옥의 모든 악마가 저를 들이받으러 온다 해도, 저는 여기서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버티며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아까처럼 또 다른 악마가 나타나거나 뿔나팔 소리가 또 들린다면, 저는 여기서 기다리느니 차라리 플랑드르로 줄행랑을 칠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때 밤이 더욱 깊어지더니, 숲속 여기저기서 수많은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땅에서 피어오른 마른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 우리 눈에는 달리는 별처럼 보이는 것과 같았다. 또한 소름 끼치는 소음도 들려왔는데, 이는 마치 소가 끄는 수레의 단단한 바퀴가 굴러갈 때 나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 거칠고 끊임없는 삐걱거림은, 만약 그 근처에 늑대나 곰이 있다면 그들을 쫓아버린다고들 하는 바로 그 소리였다. 이 모든 소란에 더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또 다른 소동이 더해졌으니, 마치 숲의 네 방향에서 동시에 네 번의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무시무시한 대포가 굉음을 내며 터져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총성이 울려 퍼졌다. 가까운 곳에서는 싸우는 이들의 함성이 들려왔으며, 멀리서는 무어인들의 전투 함성이 끊임없이 되울려 퍼졌다.

결국 나팔과 뿔나팔, 호른과 클라리온, 트럼펫과 북소리, 그리고 대포와 총성, 무엇보다도 수레가 내는 무시무시한 소음이 한데 어우러져 너무나 혼란스럽고 끔찍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돈키호테는 이 소리를 견뎌내려고 온 힘을 다해야 할 정도였다. 반면 산초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공작부인의 품에 툭 떨어졌다. 공작부인은 쓰러진 산초를 받아 안으며 서둘러 얼굴에 물을 끼얹으라고 명령했다. 시키는 대로 물을 끼얹자 산초는 정신을 차렸는데, 마침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를 내는 수레 한 대가 그들이 있는 곳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검은 장식으로 온몸을 덮은 게으른 황소 네 마리가 수레를 끌고 오고 있었다. 황소의 뿔마다 커다란 밀랍 횃불이 하나씩 묶여 타오르고 있었고, 수레 위에는 높은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좌석에는 눈보다 더 하얗고 허리 아래까지 내려올 만큼 긴 수염을 기른 위엄 있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검은색 보카시 천으로 지은 긴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수레에 가득한 수많은 불빛 덕분에 수레에 실린 모든 것을 아주 또렷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노인 곁에서는 똑같은 보카시 옷을 입은 흉측한 악마 둘이 수레를 인도하고 있었다. 그 얼굴들이 어찌나 흉측한지, 산초는 한 번 보고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눈을 질끈 감아 버렸다. 수레가 그들이 있는 곳과 나란히 멈춰 서자, 위엄 있는 노인이 높은 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두 발로 우뚝 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현자 리르간데오다."

수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수레가 나타났고, 그 위에도 다른 노인이 왕좌처럼 높은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 노인은 수레를 멈춰 세우더니, 앞선 노인 못지않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현자 알키페다. 이름 모를 우르간다의 위대한 벗이지."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이어서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수레가 도착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있던 이는 다른 이들처럼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덩치가 크고 건장했으나 인상이 매우 험악한 사내였다. 그는 수레가 도착하자 다른 이들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훨씬 더 걸걸하고 악마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마법사 아르칼라우스다! 아마디스 데 가울라와 그 일가족 모두의 철천지원수지!"라고 그가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세 대의 수레가 멈춰 섰고, 바퀴가 구르는 시끄러운 소리도 멎었다. 그러자 곧이어 다른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화로운 음악 소리였다. 산초는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며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곁을 지키던 공작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님, 음악이 있는 곳에는 나쁜 일이 생길 리 없습니다.”라고 그가 말했다.

“빛과 밝음이 있는 곳이라 해도 마찬가지랍니다.”라고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산초가 대답했다.

“불은 빛을 내고 모닥불은 밝음을 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불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자칫하면 우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음악은 언제나 즐거움과 축제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는 정말 옳은 말을 했다. 다음 장에 자세히 나오듯이 말이다.

제35장



제35장.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의 마법이 풀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과정과 그 외의 놀라운 사건들

즐거운 음악 소리에 맞춰 나아가던 그들은, 개선 행렬에 쓰이는 화려한 마차 한 대가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갈색 노새 여섯 마리가 마차를 끌고 있었는데, 노새들은 모두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노새 한 마리마다 흰 옷을 입은 참회 고행자가 한 명씩 타고 있었

고, 그들은 손에 커다란 밀랍 횃불을 들고 불을 밝히고 있었다. 마차는 앞서 지나간 것들보다 두 배, 아니 세 배는 더 컸다. 마차의 옆면과 위쪽에는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열두 명의 고행자가 더 타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모두 불붙은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 광경은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보는 이를 겁에 질리게 했다.

마차 위로 높이 솟은 보좌에는 한 님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빛 천으로 된 수천 겹의 베일을 걸치고 있었는데, 베일마다 금빛 은박이 무수히 박혀 눈부시게 빛났다. 덕분에 그녀는 아주 부유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눈에 띄게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투명하고 섬세한 비단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나, 천의 올이 가리지 못한 그 사이로 더없이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사방에서 비치는 수많은 불빛 덕분에 그녀의 아름다움과 나이까지 가늠할 수 있었는데, 보아하니 스무 살에는 이르지 않았고 열일곱 살보다 적지도 않은, 곧 열일곱에서 스무 살 사이로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검은 베일을 쓴 인물이 함께 오고 있었다. 마차가 공작 부부와 돈키호테의 바로 앞에 이르자, 울려 퍼지던 피리 소리가 멎었고 뒤이어 마차에서 연주되던 하프와 류트 소리도 멈추었다. 그러자 화려한 옷을 입은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옆으로 옷자락을 걷어치우고 얼굴의 베일을 벗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죽음의 형상 그 자체였다. 살점 하나 없이 흉측하고 못생긴 그 모습에 돈키호테는 슬픔에 잠겼고, 산초는 겁에 질렸으며, 공작 부부는 두려움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이렇게 살아있는

죽음이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다소 잠이 덜 깬 듯 둔탁하고 어눌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멀린이다. 이야기 속에서는 악마를 아버지라 불렀다고들 하지만, 이는 시대가 허락한 거짓말일 뿐이다. 나는 마법의 왕자이자 조로아스터 마법 학문의 군주이며 그 기록을 보관하는 자이다. 또한 내가 예나 지금이나 깊이 아끼는 용맹한 편력 기사들의 무훈을 묻어 버리려 하는 세월과 시대에 맞서 겨루는 호적수이기도 하다. 마법사나 마술사들의 성정이 대개 거칠고 가혹한 법이나, 나의 성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자애로워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즐긴다.

내가 디테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기하학적 도형과 문자를 만드느라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아름답고 비할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고통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녀가 마법에 걸려 불행을 맞이했다는 사실과, 고결한 숙녀에서 천한 시골 처녀로 변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 그리하여 이 사악하고 투박한 마법 지식이 담긴 책을 십만 권이나 뒤진 끝에, 이 무시무시하고 흉측한 해골 속에 내 영혼을 가두고서라도 그 커다란 고통, 그 엄청난 재앙에 걸맞은 해결책을 가져오고자 이곳에 왔다.

오, 강철과 다이아몬드의 갑옷을 입은 모든 이들의 영광이자 명예여! 나태한 잠과 한가로운 깃펜을 버리고, 피 흘리는 무거운 무기를 드는 견디기 힘든 고행을 택한 이들에게 빛과 등불이 되어 주며, 길과 북극성,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 주는 이여! 오,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을 결코 다 받지 못할 사내여, 그대에게 말하노라! 용맹하면서도 분별 있

는 돈키호테여, 라만차의 광채이자 스페인의 별이여! 비할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그대의 종자 산초가 그 용맹한 양쪽 엉덩이를 공중에 드러낸 채로, 쓰리고 아리고 화끈거리도록 스스로 매 삼천삼백 대의 채찍질을 가해야만 한다. 이것이 그녀의 불행을 초래한 모든 이들이 합의한 결론이며, 귀하신 분들이여,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산초가 그 말을 듣고 외쳤다. "삼천 대는커녕, 세 대를 때리느니 차라리 칼에 세 번 찔리는 편이 낫겠습니다! 마법을 푸는 방법치고는 참 고약하기도 하군요! 제 엉덩이가 마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맙소사, 멀린 님께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을 마법에서 풀어 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마법에 걸린 채로 무덤에 들어가시는 수밖에요!"

"이 천한 촌놈, 마늘이나 잔뜩 처먹은 놈 같으니!"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 너를 붙잡아, 네 어미가 낳은 그대로 발가벗겨 나무에 묶어 놓겠다. 그러고는 삼천삼백 대가 아니라 육천육백 대를, 어찌나 야무지게 갈겨 붙이는지 삼천삼백 번을 잡아당겨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만큼 호되게 때려 주마. 한마디라도 토를 달면 네놈의 혼을 쏙 빼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 말을 들은 멀린이 말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산초가 맞아야 할 매는 강제로 맞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따라야 하며, 그 시기도 본인이 원하는 때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산초가 이 매질의

절반만으로 자신의 고초를 덜고 싶다면, 비록 다소 매서운 손길일지라도 남의 손을 빌려 매를 맞는 것은 허락됩니다."

"남의 손이든 제 손이든, 무겁든 무겁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산초가 대꾸했다. "그 어떤 손도 저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마 엘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을 낳기라도 했답니까? 그분의 눈이 지은 죄를 어째서 제 엉덩이가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제 주인님이야 그럴 만하지요. 주인님은 그분과 한 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걸음마다 그분을 두고 내 생명이요 내 영혼이며, 내 삶의 양식이자 버팀목이라 부르시니, 그분을 위해 매를 맞고 마법을 풀기 위한 온갖 수고를 다하실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더러 매를 맞으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초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멀린의 영혼 곁에 함께 있던 은빛 옷차림의 님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얇은 베일을 벗어 던지자,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다. 님프는 사내처럼 거침없는 태도로, 그리 가냘프지 않은 목소리를 내며 산초 판사에게 곧장 말을 건넸다.

"오, 불행한 종자여! 깡통 같은 영혼에 코르크나무 같은 심장을 가진 놈! 속은 자갈처럼, 부싯돌처럼 딱딱하구나! 얼굴 가죽을 벗겨 버릴 도둑놈 같은 녀석아, 만약 누군가 네게 높은 탑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리라고 명령한다 해도, 인류의 원수 같은 놈아, 만약 누군가 네게 두꺼비 열두 마리와 도마뱀 두 마리, 그리고 뱀 세 마리를 먹으라고 요구한다 해도, 혹은 잔혹하고 날카로운 칼로 네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라고 부추

긴다 해도, 네가 까다롭게 굴며 피하려 드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게다. 하지만 아무리 못된 아이라도 매달 한 번씩은 맞고도 남을 그 삼천삼백 대의 매질을 마다하다니! 이 말을 듣는 자들은 물론이고,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될 모든 이들의 자비로운 마음마저 경악하고 아연실색하며 소스라치게 만드는구나.

오, 비참하고도 무지한 짐승아! 겁먹은 노새 같은 그 눈을, 반짝이는 별과도 같은 내 두 눈동자에 똑바로 두고 보아라. 그러면 내 아름다운 두 뺨이라는 들판에 눈물이 한 올 한 올, 한 타래 한 타래 흘러내리며 고랑과 자국과 오솔길을 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측은히 여겨 다오, 이 뻔뻔하고 음흉한 괴물아! 아직 열아홉 살이라 스무 살에도 이르지 못한 내 꽃다운 나이가 저 투박한 시골 아낙의 껍데기 아래서 시들어 가고 있으니, 그 가련한 처지에 부디 네 마음이 움직이게 하려무나! 지금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내 아름다움으로 네 마음을 녹이게 하시려고 여기 계신 멀린 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총 덕분이다. 슬픔에 잠긴 미인이 흘리는 눈물은 험한 바위를 솜처럼 만들고, 호랑이를 양으로 바꾸어 놓는 법이니까.

어서, 어서 그 우람한 살덩이를 후려쳐라, 이 길들지 않은 짐승아! 오로지 먹고 또 먹는 데에만 쏠려 있는 그 기운을 게으름에서 떨쳐 일으켜, 내 매끄러운 살결과 온순한 성품과 고운 얼굴을 자유롭게 풀어다오. 만약 나를 위해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어떤 합당한 선에서 타협할 생각이 없거든, 네 곁에 있는 저 가련한 기사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바로 네 주인을 위해서 말이다. 나는 지금 그분의 영혼을 보고 있는데, 그 영혼이 목구멍에 가로걸린 채 입술에서 열 손가락도 채 떨

어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다. 그분은 오직 네 대답이 단호할지 부드러울지에 따라, 그 영혼이 입 밖으로 빠져나갈지 아니면 위장으로 되돌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자기 목을 더듬어 만져 보더니, 공작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하느님께 맹세코, 공작님, 둘시네아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지금 제 영혼이 마치 석궁의 걸쇠처럼 목구멍에 꽉 걸려 있으니 말입니다."

"산초, 너는 이 말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작부인이 물었다.

"마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매질에 관해서라면, 아베르눈시오, 그러니까 질색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초, '아브레눈시오'라고 해야 하네. 자네가 말한 것처럼 하면 안 되지." 공작이 말했다.

"공작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지금 저는 이런 미묘한 말이나 글자 한두 개를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곧 맞게 될, 아니 제가 맞아야만 하는 이 매 때문에 정신이 너무 혼미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대체 뭘 어쩌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저의 마님이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식으로 부탁하는 법을 배우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더러 매로 살점을 터뜨려 달라고 요구하시다니요! 게다가 저를 '항아리 같은 영혼'이니 '길들지 않은 짐승'이니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줄줄이 퍼부으시는데, 악마나 그 욕을 다 받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살이 무슨 청동

이라도 된답니까? 아니면 그분이 마법에서 풀리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이라도 있답니까? 저를 달래려고 하얀 속옷이나 셔츠, 머릿수건이나 덧버선이 든 바구니라도 — 제가 쓰지도 않는 것들이지만 — 가져오셨습니까? 있는 거라곤 욕설에 또 욕설뿐이지 않습니까. '황금을 실은 나귀는 산도 가볍게 오른다'거나 '선물은 바위도 깨뜨린다'는 속담도 있고,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망치질도 하라'거나 '나중에 두 번 주겠다는 말보다 지금 당장 가져가라는 말 한 번이 낫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 주인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를 양털이나 잘 빗은 솜처럼 부드럽게 만들려고 등이라도 쓰다듬으며 비위를 맞춰 주셔야 할 분인데, 오히려 저를 붙잡기만 하면 벌거벗겨 나무에 묶어 놓고 매질 횟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이 딱한 양반들께서는, 지금 한낱 종자가 아니라 엄연한 통치자더러 매를 맞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헤아려 주셔야 합니다. 마치 '체리까지 곁들여 마셔라' 하는 격이 아닙니까. 부탁하는 법, 청하는 법, 그리고 예의를 갖추는 법을 어디 한 번 단단히들 배워 두시지요. 세상사가 늘 한결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 기분이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 제 초록색 겉옷이 찢어진 것을 보며 속이 터질 지경인데, 저더러 제 발로 매를 맞으라고 요구하다니요. 제 마음이 그 일에 동의하는 거야, 저를 추장으로 만드는 일만큼이나 어림도 없는 노릇인데 말입니다."

"정말이지, 산초 친구여," 공작이 말했다. "자네가 저 잘 익은 무화과보다 더 무르게 마음을 풀지 않는다면, 도저히 통치자가 될 수 없네. 고통받는 처녀들의 눈물에도, 또 현명하고 위엄 있고 유서 깊은 마법사와 현자들의 간청에도 굴하지 않는, 잔인하고 심장이 부싯돌처럼 단단

한 통치자를 내 섬 백성들에게 보낸다면 그것 참 꼴좋겠군! 결론은 이렇네, 산초. 자네가 스스로 매를 맞든, 남에게 매를 맞든 하지 않으면, 자네는 절대로 통치자가 될 수 없네."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제게 무엇이 더 나을지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이틀만 주실 순 없겠습니까?"

"안 되네, 결코 안 돼." 멀린이 말했다. "이 일의 향방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야 하네. 그래야만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다시 몬테시노스의 동굴로 돌아가 예전처럼 평범한 농가 처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모습 그대로 엘리시온의 들판으로 옮겨가 매를 맞는 횟수가 다 채워지기를 기다리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착한 산초야." 공작부인이 말했다. "기운을 내렴. 돈키호테 주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말이다. 주인님은 훌륭한 인품과 고결한 기사도를 지니셨으니, 우리 모두는 그분을 받들고 기쁘게 해 드려야 한단다. 얘야, 어서 매를 맞겠다고 대답하렴. 악마는 악마에게나 가버리고, 겁쟁이 같은 마음은 저 멀리 던져버리거라. 너도 잘 알다시피, 굳센 마음은 불운마저 꺾어버리는 법이란다."

산초는 이런 말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는 멀린에게 이렇게 물었다.

"멀린 님, 제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번에 그 악마 전령이 이곳에 와서 제 주인님께 몬테시노스 님의 전갈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몬테시노스 님이 직접 오셔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님의 마법을 풀어 줄

지시를 내리겠다며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다는 전갈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몬테시노스 님은커녕 그 비슷한 자도 코빼기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멀린이 대답했다.

"산초 친구여, 악마라는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에다 둘도 없는 고약한 놈이라네. 자네 주인님을 찾아가라고 내가 보낸 건 맞지만, 몬테시노스의 전갈이 아니라 내 전갈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었네. 몬테시노스는 지금 제 동굴에 들어앉아 일을 보고 있거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 마법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아직 가장 까다로운 고비가 — 꼬리 가죽을 벗기는 일이 — 남아 있으니 말일세. 만약 그가 자네에게 빚진 게 있거나 자네가 그와 매듭지을 일이 있다면, 내가 직접 데려다 자네가 원하는 곳에 놓아 주겠네. 그러니 지금은 이 고행을 받아들이게나. 내 말을 믿게, 이 고행은 영혼에도 육신에도 큰 보탬이 될 테니. 영혼에는 자네가 베풀 자비 덕분에 보탬이 되고, 육신에는 — 자네가 다혈질 체질인 걸 내 잘 아는데 — 피를 좀 빼내는 것이 결코 해롭지 않을 테니 말일세."

"세상에는 의사가 참 많기도 하군요. 마법사들까지 의사 노릇을 하려 들다니요." 산초가 대답했다. "다들 저보고 그렇다고 하니,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 3,300대의 매를 맞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날짜나 시간을 따지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이 빚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엘 토

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여사님은 정말로 아름다운 분이신가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고행을 한다고 해서 피를 뽑아야 할 의무는 없어야 하며, 혹시라도 파리를 쫓듯 가볍게 스치는 매질이 섞이더라도 그것 역시 매를 맞은 횟수에 포함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제가 숫자를 잘못 센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멀린 님께서 직접 횟수를 잘 세어 주시고, 제가 몇 대를 더 맞아야 하는지 혹은 몇 대를 덜 맞았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남는 횟수에 대해서는 따로 알려줄 필요 없네." 멀린이 대답했다. "정해진 횟수를 다 채우는 순간, 둘시네아 여사님의 마법은 예고도 없이 풀릴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면 여사님께서도 고마운 마음을 담아 착한 산초를 직접 찾아오실 걸세. 그 선행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심지어 상까지 내리실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 매를 더 맞거나 덜 맞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것 없네. 하늘도 내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테니 말일세."

"그럼, 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제 불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지켜주신다면, 기꺼이 이 고행을 감내하겠습니다."

산초가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금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많은 화승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목을 껴안고는 그의 이마와 뺨에 입을 퍼붓듯 맞추었다. 공작부인과 공작, 그리고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기색을 보였고, 행렬

을 실은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레가 지나갈 때, 아름다운 둘시네아는 공작 부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산초에게도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절을 했다.

그러던 중 어느덧 새벽이 밝아오며, 세상은 활기차고 유쾌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들판의 작은 꽃들은 고개를 들며 피어났고, 시냇물은 하얗고 거뭇한 자갈 사이를 속삭이며 흘러, 자신을 기다리는 강물로 흘러들어갔다. 즐거운 대지와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평온한 빛이 저마다, 그리고 한데 어우러져, 새벽녘 산기슭을 밟으며 다가온 이 하루가 아주 평온하고 맑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계획했던 장난을 이토록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마친 것에 만족한 공작 부부와 일행은 다시 성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줄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농담들을 기약했다.

제36장



제36장. 돌로리다 여인, 즉 트리팔디 백작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겪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한 모험과 산초 판사가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쓴 편지에 관한 이야기

공작의 집사라는 자는 아주 익살스럽고 거침없는 재치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멀린 마법사가 된 것처럼 분장하고, 앞서 벌어진 모험의 모든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시를 짓고 시종에게 둘시네아의 모습을 흉내 내게 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주인들의 도움을 받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수법으로 또 다른 모험을 꾸며냈다.

며칠 뒤 공작부인이 산초에게 물었다.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고행을 이미 시작했느냐고 말이다. 산초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어젯밤에 스스로 다섯 대의 채찍질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작부인이 무엇으로 채찍질을 했느냐고 물었다. 산초는 손바닥으로 했다고 대답했다.

"그건 채찍질이라기보다 손바닥질에 가깝군요."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현명한 멀린 마법사께서 그렇게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면 분명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착한 산초가 가시가 돋친 채찍이나,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운 채찍을 써서 엄격하게 고행을 해야 할 거예요. 배움은 매를 맞아야 몸에 배는 법이고, 둘시네아처럼 고귀한 귀부인의 마법을 푸는 대가가 고작 그 정도라니 너무 값싸게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산초는 명심해야 합니다. 미지근하고 흐리멍덩하게 행하는 자선은 아무런 공덕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공작부인님, 제게 적당한 채찍이나 매를 하나 주십시오. 너무 아프지만 않다면 제가 알아서 잘 써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록 시골뜨기라 해도 제 살결은 거친 에스파르토 풀보다는 솜에 더 가깝습니다. 남의 이득을 챙겨주겠다고 제 몸을 망가뜨리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니까요."

"좋습니다."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내일 당신에게 아주 적당한 채찍을 하나 주겠습니다. 당신의 그 부드러운 살결을 마치 제 친동생처럼 아껴주는 채찍으로 말이에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영혼의 주인님이신 공작부인 전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를 한 통 써 두었습니다. 그녀를 떠나온 뒤로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을 적어 보냈지요. 여기 품속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주소만 적으면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 지혜로운 눈으로 이 편지를 직접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편지는 통치자로서의 도리에 딱 맞거든요. 아니, 제 말은, 통치자라면 마땅히 써야 할 그런 방식대로 썼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건 누가 불러준 것이오?" 공작부인이 물었다.

"이 죄 많은 저 말고 누가 그걸 불러줬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그걸 직접 쓰셨나요?" 공작부인이 물었다.

"꿈에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거든요. 그저 서명만 할 줄 압니다."

"그 편지를 한번 봅시다." 공작부인이 말했다. "분명 그 내용 속에 당신이 얼마나 영리하고 재주가 넘치는지 잘 나타나 있을 테니까요."

산초는 품 안에서 펼쳐진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공작부인이 그 편지를 건네받아 읽어 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산초 판사가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쓴 편지

내게 매질을 제대로 해준다면 기사다운 풍채를 갖출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훌륭하게 통치하려면 그만큼 혹독한 매질을 견뎌내야 할 것이오. 나의 테레사여, 지금은 당신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오. 테레사, 내가 당신에게 마차를 타게 해주겠다고 결심했다는 걸 알아두시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어 다니는 꼴밖에 안 될 테니까 말이오. 당신은 이제 통치자의 아내이니, 어디 누가 감히 당신 험담을 늘어놓나 보시오! 여기 공작부인께서 내게 주신 초록색 사냥복 한 벌을 보내니, 우리 딸에게 치마와 상의가 되도록 적당히 고쳐 입히시오. 이 땅에서 듣기로는 나의 주인 돈키호테가 제정신인 미치광이이자 익살스러운 바보라는데, 나 또한 그 뒤를 따르고 있소. 우리는 몬테시노스의 동굴에 다녀왔는데, 현자 멀린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그곳에서는 알돈사 로렌소라 불리는—의 마법을 풀기 위해 나를 붙잡았소. 내가 스스로에게 삼천삼백 번에서 다섯 번을 뺀 만큼 매질을 하고 나면, 그녀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감쪽같이 마법이 풀릴 것이오. 이 이야

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누구에게 털어놓든, 어떤 이는 하얗다고 하고 어떤 이는 검다고 떠들 테니까 말이오. 며칠 뒤면 나는 통치하러 떠날 것이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떠나는 길인데, 새로 부임하는 통치자들은 모두 그런 마음을 품고 간다고들 하니 말이오. 상황을 좀 살펴보고 당신이 내 곁으로 와야 할지 말지 알려주겠소. 나귀 상태는 좋으니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오. 설령 내가 위대한 터키의 술탄이 된다 해도 이 녀석을 두고 갈 생각은 없소. 나의 주인 공작부인께서 당신의 손에 천 번의 입맞춤을 전하셨으니, 당신은 이천 번의 입맞춤으로 화답하시오. 내 주인 말씀으로는, 예의 바른 태도만큼 값싸면서도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하오. 아쉽게도 하나님께서 저번 가방처럼 백 에스쿠도가 든 가방을 하나 더 보내주시지는 않았소. 하지만 테레사,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종을 치는 자는 안전한 법이니, 통치하면서 번 돈으로 다 해결될 것이오. 다만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통치란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맛에 빠져 손가락까지 빨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내게 그리 값싼 일은 아니겠지요. 하기야 몸이 망가지고 손이 없는 거지들조차 구걸하는 적선만으로 제 밥벌이를 챙기고 있긴 하지만 말이오. 어쨌든 이래저래 당신은 운 좋게 부자가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능한 한 많은 복을 내려주시길, 그리고 나를 지켜주셔서 당신을 잘 모실 수 있게 해주시길 빌겠소. 1614년 7월 20일, 이 성에서.

당신의 남편이자 통치자인 자가,

산초 판사.

공작부인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산초에게 말했다.

"이 착한 통치자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나는, 자기가 맞아야 할 채찍질 덕분에 이 통치권을 얻은 것처럼 말하거나 그런 뜻을 내비친 것이란다. 하지만 그 자신도 부정하지는 못하겠지. 우리 주인이신 공작께서 그에게 통치권을 약속하셨을 때만 해도, 세상에 채찍질 따위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꿈에조차 떠올리지 못했으니 말이다. 다른 하나는, 편지에서 너무나 탐욕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지. 부디 그 욕심이 화근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구나. 욕심이 과하면 자루가 터지는 법이고, 탐욕스러운 통치자는 정의를 어지럽히는 법이니까."

"마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마님께서 보시기에 그 편지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 그냥 찢어 버리고 새로 쓰면 그만이지요. 하지만 저 혼자 알아서 쓰게 내버려 두셨다가는 오히려 일이 더 꼬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이 편지는 아주 괜찮으니, 공작께서도 꼭 보게 하고 싶구나."

말을 마친 그들은 그날 식사를 하기로 한 정원으로 향했다. 공작부인은 공작에게 산초의 편지를 보여주었고, 공작은 그 편지를 보고 무척 즐거워했다. 식사를 마친 뒤 식탁보를 치우고, 산초가 나누는 맛깔스러운 대화에 한참 동안 즐겁게 빠져 있던 바로 그때, 느닷없이 아주 슬픈 피리 소리와 낮고 불협화음이 섞인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 어수선하고도 군대 행진곡 같으면서도 슬픈 화음에 모두가 술렁였다. 특히 돈키

호테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할 정도였다. 산초는 겁에 질려 평소처럼 공작부인의 곁이나 치맛자락 근처로 몸을 숨겼다. 실제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슬프고 우울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그때, 정원 앞쪽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사내 둘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입은 옷은 너무 길고 늘어져서 바닥을 끌고 다녔다. 사내들은 검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북 두 개를 치며 오고 있었다. 그 곁에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새까만 차림의 피리 연주자가 따랐다. 그 세 사람의 뒤로는 거구의 인물이 뒤따라 오고 있었는데, 옷을 입었다기보다는 온통 칠흑같이 검은 긴 겉옷을 망토처럼 두른 듯한 모습이었다. 그 겉옷 자락 역시 말도 안 되게 길었다. 그 검은 겉옷 위로는 마찬가지로 검은색인 넓은 띠를 어깨에 가로질러 둘렀고, 그 띠에는 검은 칼집과 장식이 달린 거대한 칼이 매달려 있었다. 얼굴은 투명한 검은 베일로 가리고 있었는데, 그 너머로 눈처럼 하얗고 아주 긴 수염이 비쳤다. 그 인물은 북소리에 맞춰 아주 엄숙하고 차분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요컨대 그 거대한 체구와 위엄 있는 몸짓, 온통 검은 빛깔과 그 뒤를 따르는 악사들의 모습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바라보던 모든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 거구의 인물은 앞서 말한 대로 위엄을 갖추어 천천히 다가오더니, 다른 이들과 함께 선 채로 자신을 맞이하던 공작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공작은 그가 일어서기 전까지는 결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다. 이 경이로운 허수아비 같은 인물은 공작의 뜻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고는 얼굴을 가린 베일을 걷어 올렸는데, 그 순간 지금까지 인간의 눈으로 본 것 중 가장 끔찍하고도 길며, 눈처럼 하얗고 풍

성한 수염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넓고 듬직한 가슴에서 울림이 크고 웅장한 목소리를 끌어내어 공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극히 높으시고 강력하신 주인이시여, 사람들은 저를 '백수염의 트리팔딘'이라 부릅니다. 저는 '고통받는 여주인'이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진 트리팔디 백작부인의 종자입니다. 저는 백작부인을 대신하여 주군께 사절을 전하러 왔습니다. 백작부인께서 직접 들어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실 수 있도록 허락과 권한을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시름에 잠긴 이가 떠올릴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전에 먼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성에 용맹하고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라만차의 돈키호테 기사가 계시는지요? 백작부인께서는 그를 찾아 칸다야 왕국에서부터 이곳 주군의 영지까지, 아침 식사조차 거르신 채 두 발로 걸어오셨습니다. 이토록 먼 길을 오신 것은 기적이나 마법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백작부인께서는 지금 이 요새의 문 앞에 계시며, 주군의 허락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양손으로 수염을 위아래로 쓸어내렸다. 이어 그는 공작의 대답을 아주 차분하게 경청했다. 공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소, 백수염의 트리팔딘이라는 이름의 훌륭한 종자여. 마법사들이 '고통받는 여주인'이라 부르게 만든 우리 트리팔디 백작부인의 불행에 대해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소식을 듣고 있었소. 훌륭한 종자여, 백작

부인께 안으로 들어오시라 전하시오.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 기사가 여기 계신다고 말이오. 그 기사의 고결한 성품이라면 백작부인께 어떤 도움과 보호도 확실히 약속할 수 있을 것이오. 또한 내 뜻을 전해드리되, 만약 백작부인께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고 전하시오. 기사란 마땅히 모든 여인, 특히 백작부인처럼 과부이거나 처지가 곤궁하고 고통받는 여인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니, 나는 이미 그 의무를 다할 준비가 되어 있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트리팔딘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러고는 피리 부는 사람과 북 치는 사람들에게 연주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들어올 때와 똑같은 박자와 발걸음에 맞춰 다시 정원을 나갔다. 그의 당당한 풍채와 침착한 태도에 모두가 감탄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공작은 다시 돈키호테를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결국, 유명하신 기사여, 악의나 무지의 어둠도 용기와 미덕의 빛을 가리거나 흐리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하의 선량함이 이 성에 머무신 지 겨우 엿새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람들이 귀하를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마차나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걸어 굶주린 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귀하의 위대한 업적이 온 세상에 자자하여, 슬픔과 고통에 빠진 이들이 그 강인한 팔에 의지해 자신들의 근심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귀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작님, 제 소망은 이렇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편력기사들을 향해 그토록 고약한 심보를 드러내며 눈엣가시처럼 여기던 그 복된 수도사가 여기 직접 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말입니다. 적어도 그 수도사가 직접 만져보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거나 엄청난 불행을 겪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절망에 빠진 이들이, 그 해결책을 찾으러 학자들의 집을 찾아가거나 마을의 성당지기를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자기 마을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는 기사나, 직접 업적을 세워 남들이 이야기하고 기록하게 만들기보다는 남의 소식이나 찾아다니며 떠벌리기 바쁜 게으른 궁정 신하를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근심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구제하며, 처녀들을 보호하고, 과부들을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편력기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 제가 기사라는 사실에 하늘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다 겪게 될 그 어떤 무모한 일이나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든 이리로 와서 무엇이든 요구하기만 한다면, 저의 강인한 팔과 두려움 없는 용기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제37장



제37장. 유명한 여주인 돌로리다의 모험이 계속되는 이야기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아주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심 무척 흡족해했다. 바로 그때, 산초가 입을 열었다.

“저기 계신 여주인께서 제가 통치하겠다는 약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톨레도에서 어떤 약사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그 양반이 무슨 방울새처럼 재잘재잘 떠들어대길, 여주인들이 끼

어드는 곳에는 결코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고, 맙소사! 그 약사는 여주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주인들이란 원래 신분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다들 까다롭고 참견하기 좋아하니까, 저 '세 치마'나 '세 꼬리'라고 불리는 백작부인처럼 '돌로리다(슬픈)'라는 이름까지 붙은 여주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치마나 꼬리나, 꼬리나 치마나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입 다물게, 친구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저 멀리 타지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이 귀하신 여주인께서, 그 약사가 말하던 그런 부류일 리가 없네. 더구나 이분은 백작부인이 아니신가. 백작부인이 여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것은 여왕이나 황후를 모실 때나 있는 일이고, 백작부인이란 본디 제 집에서는 다른 여주인들을 거느리는 지체 높은 귀부인들이니 말일세."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도냐 로드리게스가 이 말에 대답했다.

"우리 공작부인께서도 모시는 여주인들이 계십니다. 운만 따라준다면 그분들도 백작부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지요. 하지만 왕이 원하는 대로 법이 움직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주인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예전부터 품위를 지켜온 처녀 여주인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비록 제가 처녀는 아니지만, 처녀 여주인이 과부 여주인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만큼은 저 스스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우리를 깎아내리려 한 자는 결국 제 손에 가위를 쥔 채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이발사 말로는, 여주인들이라는 게 워낙 깎아낼 데가 많아서, 떡이 될 것 같아도 차라리 쌀을 젓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하더군요."

"종자라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적이라니까요." 도냐 로드리게스가 대답했다. "그들은 대기실을 떠도는 도깨비 같은 존재들이라 우리를 매 순간 지켜보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 그 남는 시간에 우리에 대해 수군거리며 우리의 치부를 들춰내고 명예를 짓밟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 저런 쓸모없는 자들에게는 그저 마음대로 떠들라지 말라고 하고 싶군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도 귀한 집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니까요. 설령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마치 행렬이 있는 날 쓰레기더미를 화려한 태피스트리로 덮어 가리듯 우리의 연약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한 살결을 검은 수도복으로 꽁꽁 싸매야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맹세컨대, 제게 기회만 주어지고 때가 허락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싶군요. 여주인이라는 직분 안에 얼마나 많은 미덕이 깃들어 있는지를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현명하신 도냐 로드리게스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주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 불량한 약제사가 퍼뜨린 나쁜 평판을 바로잡고, 저 위대한 산초 판사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을 뽑아내려면, 저 사람과 다른 여주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줄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겠지요."

이에 산초가 대답했다.

"총독이 되리라는 생각에 우쭐해지고 나니, 종자 노릇 하던 시절의 그 겁먹고 쩔쩔매던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 이제는 여주인들이 아무리 많다 한들,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피리 소리와 북소리가 다시 울리는 것을 듣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여주인들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갔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여주인 돌로리다가 입장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공작부인은 공작에게 직접 마중을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다. 돌로리다가 백작부인이자 귀한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백작부인이라는 신분을 생각하면," 공작이 대답하기도 전에 산초가 말을 가로챘다. "두 분께서 직접 마중을 나가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주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산초야, 네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들 수 있으니까요. 주인님께 배운 예법을 갖춘 종자로서 말입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귀족보다도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기사 아니십니까? 주인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일에서는 말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너무 적게 해도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눈치 빠른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알아듣는 법이지요."

“산초의 말이 맞다.” 공작이 말했다. “백작부인의 품격을 지켜보자꾸나. 그 품격에 맞춰 우리가 그분께 갖춰야 할 예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아야겠으니 말이다.”

이때, 처음과 마찬가지로 북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연주자들이 입장했다.

이로써 저자는 이 짧은 장을 마무리하고, 같은 모험을 그대로 이어가는 다음 장을 시작했는데, 그 모험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들 중 하나이다.

제38장



제38장. 슬픈 사연을 가진 여인 돌로리다가 자신이 겪은 불행한 일을 털어놓는 대목

슬픈 음악가들 뒤로, 열두 명의 여인이 두 줄로 나뉘어 정원 앞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인들은 모두 폭이 넓은 수도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도 축융 처리한 안사스코테 천으로 만든 듯했다. 머리에는 얇은 카네키 천으로 만든 흰 베일을 썼는데, 그 길이가 워낙 길어서 수도복 자락의 가장자리만 겨우 드러날 정도였다. 그 뒤를 트리팔디 백작부인이 따랐는데, 흰 수염을 가진 종자 트리팔딘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백작부인은 아주 곱고 검은, 아직 보풀을 세우지 않은 양모 천

(바예타)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만약 그 보풀을 세웠더라면 마르토스산 좋은 병아리콩만 한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드러났을 정도였다. 백작부인의 옷자락, 혹은 치마라고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그것은 세 갈래로 갈라진 형태였다. 세 명의 시종이 그 끝을 각각 손으로 받치고 있었는데, 시종들 역시 상복 차림이었다. 세 갈래의 뾰족한 끝이 만드는 세 개의 예리한 각이 마치 수학적으로 계산된 듯 화려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이 뾰족한 치마를 본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트리팔디 백작부인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마치 '세 치마의 백작부인'이라 부르는 것과 같았다. 베넹헬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기록했다. 본래 그녀의 가문은 영지에 늑대가 워낙 많아 '로부나 백작부인'이라 불렸다. 만약 그곳에 늑대 대신 여우가 많았다면 아마 '소루나 백작부인'이라 불렸을 것이다. 그 지역 귀족들은 자신의 영지에 가장 풍부한 사물의 이름을 따서 칭호를 정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백작부인은 자신의 독특한 치마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로부나라는 이름 대신 트리팔디라는 이름을 택했다.

열두 명의 여인과 백작부인은 마치 행렬을 이루듯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여인들은 모두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트리팔딘의 베일처럼 속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비쳐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하고 두꺼웠다.

여인들의 행렬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자, 공작과 공작부인, 그리고 돈키호테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장대한 행렬을 지켜보던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열두 명의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길을 터주었다. 그러자 트리팔딘이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돌로리다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 모습을 본 공작과 공작부인, 그리고 돈키호테는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열두 걸음 정도 앞으로 나아갔다. 돌로리다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섬세하고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거칠고 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디 이 미천한 종에게 너무 과한 예우를 갖추지 말아 주십시오. 아, 제가 종이라니요, 여인이니 종이라 말해야겠군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탓에, 마땅히 드려야 할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토록 기이하고 생전 처음 겪는 불행 때문에 제 정신이 어디론가 멀리 달아나 버린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린 듯싶습니다. 정신을 찾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도무지 보이지가 않으니 말입니다."

"백작부인님," 공작이 대답했다. "당신을 뵙고도 그 고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자야말로 정신이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더 볼 것도 없이, 세상의 모든 정중함과 가장 품격 있는 예법을 다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공작은 백작부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공작부인 곁에 있는 의자에 앉혔다. 공작부인 역시 백작부인을 매우 정중하게 맞이했다.

돈키호테는 침묵을 지켰고, 산초 판사는 트리팔디 백작부인과 그녀를 따르는 수많은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났다. 하지만 여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내어 베일을 벗기 전까지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모두가 진정하며 침묵에 잠긴 채, 누가 먼저 입을 열지 기다리고 있을 때, 돌로리다라는 이름의 여인이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했다.

가장 강력하신 귀하와 더없이 아름다우신 부인, 그리고 더없이 분별 있는 참석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음을 놓습니다. 저의 이 지극히 비통한 사연이 여러분의 용맹한 가슴에 닿아, 너그러우면서도 따스한 위로를 얻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 슬픔은 대리석조차 눈물짓게 하고 다이아몬드마저 녹이며,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강철 같은 마음조차 부드럽게 녹여버릴 만큼 깊고도 처절합니다. 하지만 그 사연을 여러분의 귀에, '귓바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귀에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귀한 모임에 라만차의 가장 순결한 기사이신 돈키호테 님과 그의 충직한 종자 산초 판사님이 함께 계시는지요?

"판사 여기 있습니다." 다른 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산초가 먼저 말을 받았다. "그 위대하신 돈키호테 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지극히 비통하신 부인, 하고 싶은 말씀을 얼마든지 다 하십시오. 저희 모두는 부인을 모실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돈키호테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통함에 잠긴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넸다.

"고통에 잠긴 부인, 만약 어떤 편력기사의 능력이나 힘으로 부인의 괴로움을 달래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여기 제 힘이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라도, 제 모든 힘을 다해 부인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라만차의 돈키호테입니다. 모든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저

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부인, 다른 이의 호의를 구하거나 길게 말을 늘어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돌려 말하지 말고 부인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록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할지라도, 부인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슬퍼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비통함에 잠긴 부인은 돈키호테의 발치에 엎드려 절하려는 몸짓을 보였다. 부인은 실제로 발치에 엎드려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안으려 애쓰며 이렇게 말했다.

"패배를 모르는 기사여, 편력기사도의 토대이자 기둥인 당신의 이 발치에 엎드립니다! 이 발에 제 불행을 해결할 모든 희망이 달려 있기에, 저는 이 발에 입을 맞추고 싶나이다. 오, 용맹하신 기사여! 당신의 진정한 업적은 아마다이스나 에스플란디안, 벨리아니스의 허구적인 이야기들을 뒤로 물리치고 그 빛을 가릴 만큼 찬란하나이다!"

그러고는 돈키호테를 뒤로한 채 산초 판사에게 몸을 돌린 부인은, 그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 당신이야말로 지난 세기나 지금 이 시대에 기사를 모신 이들 중 가장 충직한 종자이시군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수행원 트리팔딘의 수염보다도 그 선함이 훨씬 길고 깊으니 말이에요. 위대한 돈키호테를 모시는 당신은, 세상의 무기를 다루어 온 그 어떤 기사 무리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 자부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지극한 선량함에 걸맞게 맹세하건대, 부디 주인님께 제 사정을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비천하고 불행한 백작부인을 부디 도와달라고 간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제 선량함이 나리의 종자 수염만큼이나 길고 깊든 말든, 나리, 저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느냐가 중요할 뿐이지요. 지금 이 몸에 난 수염이 어떻든 말든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미사여구나 간청은 치워두고, 제가 주인님께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저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특히 지금처럼 저를 어떤 일에 필요로 하실 때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주인님께서 나리께서 처한 모든 사정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제가 꼭 청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리께서는 우선 그 괴로운 사정을 하나하나 다 풀어놓으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판을 짠 공작 부부는 이 광경을 보며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트리팔디가 보여준 기지와 치밀한 연기력을 서로 칭찬하며 감탄했다. 한편, 트리팔디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위대한 트라포바나와 남해 사이, 코모린 곶에서 두 리그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 유명한 칸다야 왕국에는 아르키피엘라 왕의 미망인인 마군시아 여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키피엘라 왕은 그녀의 주군이자 남편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왕국의 후계자인 안토노마시아 공주가 태어났지요. 제가 공주 어머니의 가장 나이 많고 으뜸가는 시녀였기에, 안토노마시아 공주는 제 보살핌과 가르침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안토노마시아 공주가 열네 살이 되었는데, 그 미모가 어찌나 완벽한지 자연의 솜씨가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분별력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공주는 아름다운 만큼이나 분별 있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질투에 눈먼 운명이나 무정한 파르카스 여신들이 그 생명의 실타래를 이미 끊어놓지 않았다면,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가는 미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도밭의 송이를 덜 익은 채로 거두어 가는 것만큼 이 땅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늘이 허락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 미모에 반해,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수많은 왕자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궁정에 머물던 한 기사가 감히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향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용맹함, 그리고 뛰어난 재주와 품격, 명석한 두뇌를 믿고 있었지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는 기타를 타면 악기가 말을 하는 것 같을 정도로 솜씨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시를 짓고 춤도 잘 추었으며, 새장을 만드는 재주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워지면 새장만 만들어 팔아도 먹고살 수 있을 정도였지요. 이런 재주와 매력이라면 산더미도 무너뜨릴 수 있을 터인데, 하물며 가녀린 처녀 하나쯤이야 어찌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뻔뻔한 도둑놈이 저를 먼저 무너뜨리는 수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친절함이나 품격, 재주와 매력도 제 아이의 마음을 빼앗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악랄하고 무자비한 떠돌이 놈

은 우선 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제 마음을 사려고 꾀를 냈습니다. 제가 나쁜 관리 노릇을 하며 지키고 있던 성의 열쇠를 그놈에게 넘겨주게 하려는 속셈이었지요. 결국 그는 제게 안겨 준 이런저런 패물과 장신구로 제 정신을 홀리고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바닥에 주저앉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놈이 서 있던 골목길로 난 창살 너머로 들려온 노래 때문이었지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노래는 이러했습니다."

"달콤한 나의 원수에게서 영혼을 찌르는 고통이 태어나니, 이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차마 말로 내뱉지 못하고 가슴에만 묻어두게 하는구나."

그 노래는 마치 진주 같았고, 그의 목소리는 달콤한 시럽 같았습니다. 그 노래와 그 비슷한 시구들에 홀려 제가 이런 불행에 빠진 것을 보면, 그 이후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이 권고했듯이, 선량하고 질서 정연한 공화국에서는 시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음탕한 시인들만큼은 말이지요. 그들이 짓는 시는 아이들이나 여인들을 즐겁게 하고 눈물짓게 만드는 만투아 후작의 시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가시처럼 영혼을 꿰뚫고, 번개처럼 영혼을 상처 입히면서도 겉옷은 멀쩡하게 남겨두는 교묘한 재주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죽음이여, 오너라. 네가 오는 줄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다가오너라. 죽음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내가 다시 삶을 얻는 일은 없도록 말이다."

그 뒤로도 노래로 부르면 홀리고 글로 쓰면 마음을 붙잡아두는 짧은 시구와 기묘한 구절들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당시 칸다야에서 세기디야라고 불리던 운율의 시를 짓는 데까지 몸을 낮출 때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시들은 영혼이 뛰놀고 웃음이 넘쳐나며, 몸은 들뜨고 마침내 모든 감각이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신사 여러분, 저는 그런 유랑 시인들이라면 마땅히 '도마뱀의 섬'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바보들에게 죄가 있지요. 만약 제가 마땅히 갖춰야 할 현숙한 시녀였다면, 그들의 해묵은 망상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죽어가며 살고, 얼음 속에서 타오르며, 불길 속에서 떨고, 희망 없이 기다리며, 떠나면서도 머물러 있노라" 같은, 그들의 글에 가득한 불가능한 말들을 참이라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불사조나 아리디아나의 왕관, 태양의 말들, 남쪽의 진주, 티바르의 황금, 그리고 판카야의 향유를 약속할 때면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코 생각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을 약속하는 데에는 아주 능숙하니, 이때가 바로 펜을 가장 길게 휘두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 것입니까? 아, 가련한 저여! 제 허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어찌하여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다시 한번 불행한 저여! 저를 굴복시킨 것은 시가 아니라 저의 어리석음이었고, 저를 마음 약하게 만든 것은 음악이 아니라 저의 경박함이었습니다. 저의 깊은 무지와 모자란 분별이 돈 클라비호의 발걸음 앞에 길을 열고 터주었으니, 앞서 말씀드린

그 기사의 이름이 바로 돈 클라비호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탓에, 그는 — 그가 아니라 바로 제가 속인 — 안토노마시아의 침소에 진정한 남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안토노마시아는 비록 죄를 지었을지언정, 남편이 아닌 자가 자기 신발 밑창 가장자리에라도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안 될 일이지요. 제가 주선하는 이런 일이라면 어떤 경우든 반드시 혼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다만 이 일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돈 클라비호는 평범한 기사였고, 안토노마시아 공주는 왕국의 후계자였으니까요. 제가 정숙함을 가장하고 교묘하게 숨긴 덕분에 이 복잡한 사정은 며칠간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토노마시아의 배가 알 수 없이 불러오면서 일이 점점 드러나는 듯하자, 이 일이 탄로 날까 두려워 우리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론은, 나쁜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돈 클라비호가 대리 신부 앞에서 안토노마시아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주가 자신을 남편으로 삼겠다고 써 준 증서를 근거로 말이지요. 제가 아주 기발하게 작성한 그 증서는 산손의 힘으로도 찢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갔고, 대리 신부는 증서를 확인한 뒤 공주에게 고해성사를 시켰습니다. 공주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신부는 그녀를 아주 정직한 법원 보안관의 집에 맡겨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산초가 말했습니다.

"칸다야에도 법원 보안관과 시인, 그리고 세기디야가 있다고 하니, 세상 모든 곳이 다 똑같다고 장담할 수 있겠군요. 하지만 트리팔디 백작부인님, 어서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은 데다,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서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라고 산초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작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제39장



제39장. 트리팔디가 자신의 놀랍고도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대목

산초가 입을 열 때마다 공작부인은 즐거워 어쩔 줄 몰랐고, 돈키호테는 속이 타들어 가는 듯 절망했습니다. 공작부인이 산초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령하자, 돌로리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수많은 문답이 오갔으나, 공주가 처음 주장한 바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신부는 결국 돈 클라비호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주를 그의 정당한 아내로 내주었습니다. 이에 안토노마시아 공주의 어머니인 마군시아 여왕은 어찌나 크게 노하셨던지, 우리는 사흘 만에 그분을 땅에 묻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겠군요." 산초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트리팔딘이 대답했습니다. "칸다야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묻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묻는 법이지요."

"죽은 줄 알고 기절한 사람을 묻는 일이라면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종자 양반."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 마군시아 여왕은 죽기보다는 차라리 기절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수습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공주가 저지른 어리석은 짓이 그렇다 한들, 여왕이 그토록 비통해할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공주가, 제가 듣기로 다른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집 시동이나 하인 중 한 명과 결혼했다면 정말 손쓸 도리 없는 재앙이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묘사된 것처럼 아주 품격 있고 식견 높은 기사와 결혼한 것이라면, 정말이지, 비록 어리석은 행동이었을지언정 생각만큼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며 제 말이 틀리지 않음을 증언해 주실 제 주군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르자면, 학식 높은 사람을 주교로 만들 듯이, 기사도, 그것도 편력기사라면 왕이나 황제까지도 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산초, 네 말이 맞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운이 조금이라도 따른다면, 편력기사는 머지않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돌로리다 백작부인께서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달콤했던 이 이야기에 아직 못다 한 쓰라린 사연이 남아 있는 듯하니 말입니다."

"쓰라린 사연이 남았냐고요? 그럼요, 아주 많이 남았지요!" 백작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 쓰라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에 비하면 쓴맛이 나는 덩굴식물이나 독이 있는 협죽도가 오히려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질 정도라니까요. 여왕은 기절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은 것이었기에, 우리는 그녀를 매장했습니다. 흙을 덮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자마자, 바로 그때,"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누가 눈물을 참을 수 있으랴?

나무로 만든 말 위에 올라탄 거인 말람브루노가 여왕의 무덤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군시아 여왕의 친사촌으로, 잔인할 뿐만 아니라 마법에도 능한 자였는데, 사촌인 여왕의 죽음에 복수하고 돈 클라비호의 무례함을 벌하며, 안토노마시아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그 두 사람을 같은 무덤 위에 그대로 마법으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안토노마시아는 청동 암원숭이로 변했고, 돈 클라비호는 정체 모를 금속으로 된 흉측한 악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마찬가지로 금속으로 만든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는 시리아어로 적힌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칸다야어로, 그리고 지금은 카스티야어로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용맹한 라만차인이 나에게 와서 일대일로

결투를 벌이기 전까지는, 이 오만한 연인들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리라. 운명은 오직 그 위대한 용기만을 위해 이 전대미문의 모험을 남겨두었노라."

말람브루노는 이 말을 마치더니 칼집에서 크고 거대한 곡도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는, 마치 제 목을 베어 머리를 날려버릴 듯이 휘둘렀습니다. 저는 너무나 겁에 질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기운을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제 간절한 말에 그는 그 가혹한 처형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궁전의 모든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과장하고 여인들의 품행과 나쁜 버릇, 더 나쁜 속내를 비난하며, 오직 저 혼자만 저지른 잘못을 모두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우리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형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얼굴의 모공이 하나하나 열리면서 온 얼굴이 바늘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급히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으나, 결과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자 돌로리다 백작부인과 다른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들어 올려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 있었는데, 어떤 것은 금발이었고 어떤 것은 검은색이었으며, 어떤 것은 흰색이었고 또 어떤 것은 희끗희끗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작 부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멍하니 굳어버렸으며,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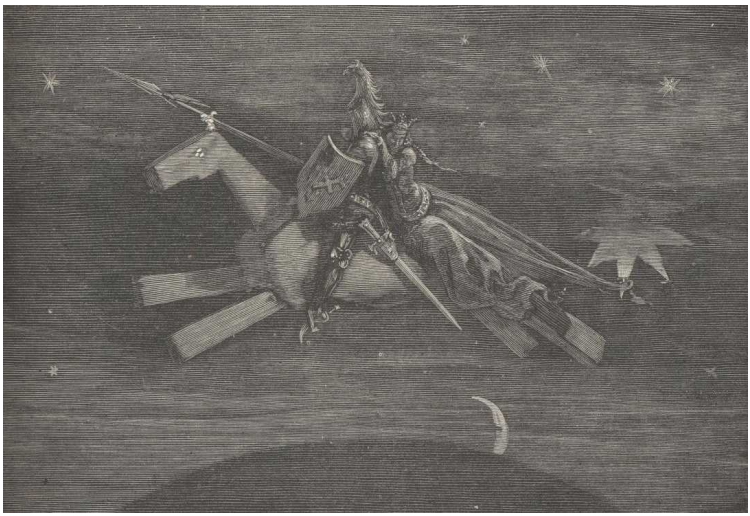
그러자 트리팔디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악랄하고 사악한 말람브루노가 우리를 이렇게 벌했습니다. 우리 얼굴의 부드럽고 고운 살결을 이 거칠고 뻣뻣한 수염으로 뒤덮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하늘이 도우셔서, 그자가 커다란 칼로 우리 머리를 단칼에 베어 넘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지저분한 털로 얼굴의 빛을 가려 이토록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따져 봅시다. (지금 이 말을 할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황과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바다를 생각하면, 눈물조차 말라붙어 가시처럼 딱딱해질 지경이라 눈물 없이 말하겠습니다.) 수염이 난 여인이 대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염 난 딸을 가엽게 여기겠습니까? 누가 그녀를 도와주겠습니까? 평소에도 피부가 매끄럽고 얼굴이 온갖 약물과 화장품으로 고생할 만큼 가꾸어도 제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찾기 힘든 법인데, 얼굴이 이토록 숲처럼 수염으로 뒤덮였다면 어쩌겠습니까! 오, 나의 동료 여인들이여,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운명 속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달도 기울어가는 불길한 시간에 우리를 낳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는 금방이라도 기절할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40장



제40장. 이 모험과 이 기억할 만한 역사에 관계되거나 맞닿아 있는 일들에 대하여

정말이지 사실 그대로 말하건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즐기는 이들이라면 이 이야기의 첫 저자인 시데 아메테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마땅하다. 그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밝혀내어, 이 놀라운 사건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물의 생각을 그려내고, 상상을 드러내며, 말하지 않은 물음에까지 답하고, 의구심을 풀어 주며, 온갖 논쟁을 매듭짓는다. 마침내 가장 까다로운 호기심의 아주 작은 티끌까지도 환히 드러내 보인다. 오, 이름 높은 저자여! 오, 행복한 돈키호테여! 오, 유명한 둘시네아여! 오, 익살스러운 산초 판사여! 살아 있는 모든 이의 즐거움과 위안을 위하여, 그대들 모두가 다 함께, 그리고 저마다 영원무궁토록 살기를!

이야기에 따르면, 산초는 돌로리다가 기운 없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선량한 사람의 명예를 걸고, 또 우리 판사 가문 모든 조상의 명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이런 모험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거니와, 주인님께서 들려주신 적도, 주인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른 적도 없을 겁니다. 천 마리 악마가 너를 잡아가기를, 말람브루노 — 너를 마법사니 거인이니 대놓고 저주하지는 않겠다만! 이 죄 많은 여인들에게 내릴 벌이 고작 수염을 붙이는 것밖에 없었더란 말입니까? 수염을 붙이느니, 차라리 코의 윗부분 절반을 잘라내는 편이 — 비록 콧소리로 말하게 될지언정 — 저 여인들에게는 훨씬 나았을 것 아닙니까? 장담컨대, 저 여인들은 수염을 깎아 줄 사람에게 줄 돈조차 없을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나리." 열두 명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저희에게는 수염을 깎을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저희 중 몇몇은 끈적끈적한 반창고를 얼굴에 붙였다가 한꺼번에 확 떼어내는 방법을 쓰지요. 그러면 얼굴이 돌절구 바닥처럼 매끈하고 평평해진답니다. 칸다야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잔털을 뽑아 주고 눈썹을 다듬어 주며 여자들에게 필요한 온갖 미용을 해 주는 여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주인마님의 시녀들은 그런 여자들을 결코 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대개 점잖은 축에 들기는커녕 뚜쟁이 냄새를 풀풀 풍겼으니까요. 그러니 돈키호테 나리께서 저희를 구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이 수염을 단 채 무덤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대들의 수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내 수염은 차라리 무어인들의 땅에 가서 깎아버리겠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대목에서 정신을 잃었던 트리팔디가 깨어나며 말했다.

"용맹하신 기사님,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그 약속이 울려 퍼져 제 귀에 닿았습니다. 덕분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그러니 고귀하고 굴하지 않는 기사님이시여, 부디 그 자비로운 약속을 꼭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돌로리다가 말했다.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부인, 제가 무엇을 하면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받들 준비는 이미 만반을 갖추었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돌로리다가 대답했다. "여기서 칸다야 왕국까지 땅으로 가면 오천 리그는 가야 하고, 더도 덜도 아니고 두 리그쯤 차이가 날 뿐이지요. 하지만 하늘을 통해 직선으로 가면 삼천이백이십칠 리그면 됩니다. 그리고 말람브루노가 제게 말하기를, 운 좋게 우리를 구원해 줄 기사님을 만나게 되면, 흔히 빌려 쓰는 삯말보다 훨씬 훌륭하고 사나운 버릇도 없는 말을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용맹한 피에르가 아름다운 마갈로나를 납치할 때 탔던 바로 그 나무 말입니다. 그 말은 이마에 박힌 나무 못으로 고삐를 대신해 조종하며, 마치 악마들이 직접 이끄는 것처럼 하늘을 아주 가볍게 날아다닙니다. 옛 전설에 따르면, 이 말은 현자 멀린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멀린은 친구인 피에르에게 이 말을 빌려주었고, 피에르는 이 말을 타고 위대한 여정들을 떠났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에르는 이 말을 타고 아름다운 마갈로나를 말 엉덩이에 태운 채 공중으로 낚아채 달아났는데, 땅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멀린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나 값을 후하게 치르는 사람에게만 이 말을 빌려주었는데, 위대한 피에르 이후로 그 누구도 이 말에 올라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말람브루노는 자신의 마법으로 이 말을 멀린에게서 빼내어 손에 넣었기에, 지금은 이 말을 마음대로 부리며 세계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있다가도 내일은 프랑스에 가 있고, 그다음 날은 포토시에 가 있기도 하지요. 게다가 이 말은 아주 훌륭한 점이 많은데,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으며 편자도 닳지 않습니다. 날개도 없으면서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니는데, 그 움직임이 워낙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서 말 위에 탄 사람이 손에 물이 가득 찬 잔을 들고 있

어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정도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갈로나도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지요."

이 말에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면야 제 잿빛 당나귀가 최고지요. 비록 공중을 날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땅 위에서라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준마와 견주어도 제 당나귀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돌로리다가 말을 이었다.

"만약 말람브루노가 우리의 불행을 끝내 주려 한다면, 이 전설적인 말은 밤이 시작되고 채 삼십 분도 지나기 전에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가 제게 말하기를, 자신이 찾던 기사를 찾아냈다는 신호로, 그 기사가 편안하고 빠르게 타고 올 수 있도록 그 말을 제게 보내 주겠다고 했거든요." 돌로리다가 말했다.

"그 말에는 몇 명이나 탈 수 있습니까?" 산초가 물었다.

돌로리다가 대답했다.

"두 명입니다. 한 명은 안장에 타고 다른 한 명은 말 엉덩이에 올라타는 방식이지요. 대개는 기사와 종자가 이렇게 둘이서 타곤 합니다. 납치된 처녀가 한 명 더 없다면 말입니다." 돌로리다가 대답했다.

"돌로리다 아주머니, 그 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초가 물었다.

"그 이름은 페가소라 불린 벨로로폰테의 말과도 다르고, 부케팔로스라 불린 알렉산드로 대왕의 말과도 다르답니다. 광기 어린 올란도의 말인 브리야도로와도 다르고, 레이날도스 데 몬탈반의 말인 바이아르테나 루제로의 말인 프론티노와도 다르지요. 태양의 말들이라 불리는 부테스나 페리토아도 아니랍니다. 또한, 불운한 고트족의 마지막 왕 로드리고가 목숨과 왕국을 잃은 전투에 타고 나갔던 오렐리아라는 이름의 말과도 다르답니다." 돌로리다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렇게 유명한 이름들을 하나도 붙여주지 않은 걸 보니, 제 주인님의 말인 로시난테라는 이름도 안 붙여줬을 게 분명합니다. 로시난테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언급된 그 어떤 이름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니까요."

"맞아요." 수염 난 백작부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아주 딱 들어맞는답니다. 그 말의 이름은 클라비레뇨 엘 알리헤로거든요. 이름부터가 나무라는 뜻을 담고 있고, 이마에 박힌 나무못과도 어울리며, 달리는 속도와도 아주 잘 어울리니까요. 그러니 이름만큼은 그 유명한 로시난테와 겨뤄볼 만하답니다."

"이름이야 뭐 나쁠 건 없지만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 말은 고삐를 어떻게 써야 하고, 재갈은 어떤 걸 물려야 조종할 수 있답니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트리팔디가 대답했다. "그 말의 이마에 박힌 나무못을 이쪽저쪽으로 돌려가며 조종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기사는 그 말이 하늘을 날게 할 수도 있고, 땅을 훑으며 거의 쓸 듯이 낮게 달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바람직하고 질서 정연한 행동을 위해 추구해야 할 중간 높이로 달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직접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안장이든 말의 엉덩이든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비단보다 더 말랑말랑한 짐 깔개 위에 앉아 제 당나귀를 겨우 버티고 있는 판인데, 이제는 쿠션이나 베개도 없이 딱딱한 나무 안장에 올라타라는 말씀입니까! 세상에나, 저는 누군가의 수염을 깎아주려고 몸을 혹사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머리를 깎으면 그만이지요. 저는 주인님을 따라 그렇게 긴 여행을 함께할 생각이 없거든요. 게다가 제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님의 마법을 푸는 일에는 쓰임이 있을지 몰라도, 저 수염들을 깎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트리팔디가 대답했다.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으니까요."

"세상에나!" 산초가 말했다. "종자가 주인님의 모험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명성은 주인님들이 다 가져가고, 고생은 왜 우리가 다 해야 합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설령 역사가들이 '어떤 기사가 이러저러한 모험을 끝냈으나, 종자 누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다’라고 써준들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세 개의 별을 가진 돈 파랄리 포메논 경이 여섯 괴물의 모험을 끝냈다’라고, 종자의 이름은 쏙 빼놓고 그냥 써버리라고 하십시오. 마치 그 종자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주인님은 혼자 가셔도 됩니다. 부디 잘 다녀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남아서 저의 주인님이신 공작부인 곁을 지키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돌아올 때쯤이면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여사님의 상태가 아주 많이 호전되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한가한 틈이 생길 때마다 제 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스스로 채찍질을 할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해도, 산초야, 필요하다면 네가 꼭 동행해야 한다. 다들 간곡히 부탁할 테니까. 네가 쓸데없는 겁을 먹는 바람에 이 부인들의 얼굴이 이토록 수염으로 무성하게 뒤덮인 채로 남게 된다면, 그건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 될 게다.”

“세상에나, 또 시작이군요!” 산초가 대꾸했다. “정숙하게 자란 처녀들이나 교리를 배우는 어린 소녀들을 위해서라면 무슨 고생이든 마다하지 않겠지만, 고작 시녀들 수염이나 깎아주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면, 정말이지 재수 없는 해일 겁니다! 게다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장 어린 사람까지, 그리고 가장 내숭 떠는 사람부터 가장 점잔 빼는 사람까지, 그들 모두가 수염을 기르고 있는 꼴을 직접 봐야 한다니 말입니다!”

"산초야, 시녀들에 대해 너무 심하게 말하는구나." 공작부인이 말했다. "너는 톨레도 약제사의 말만 너무 믿는 모양이다. 하지만 네 말이 틀렸다는 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우리 집에는 시녀의 본보기가 될 만한 분들이 아주 많거든. 여기 내 시녀 로드리게스 부인이 바로 그 증거란다. 이분께서도 내 말에 동의하실 게야."

"공작부인께서 말씀하시게 두어야지요." 로드리게스 부인이 말했다. "모든 진실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법입니다. 우리 시녀들이 선하든 악하든, 수염이 났든 매끈하든, 우리 어머니들께서 다른 여인들과 똑같이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 뜻 또한 그분만이 아실 터이니, 저는 그저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할 뿐이지 누군가의 수염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자, 로드리게스 부인, 그리고 트리팔디 부인과 그 일행 여러분." 돈키호테가 말했다. "여러분의 고통을 너그러이 살펴주실 하늘의 뜻을 믿습니다. 클라비레뇨가 오든, 혹은 말람브루노가 내 앞에 나타나든, 산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 어떤 면도칼이 여러분의 수염을 깎는 것보다, 내 검이 말람브루노의 머리를 그의 어깨에서 베어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지만, 결코 영원히 두지는 않으시는 법이니까요."

"아아!" 이때 돌로리다가 말했다. "용맹하신 기사님, 하늘의 모든 별이 당신의 위엄을 자비로운 눈길로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난받고 낙담한 여인들의 신세를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

음속에 온갖 번영과 용기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사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종자들에게는 뒷말의 소재가 되며, 시종들에게는 무시당하는 처지가 된 우리 여인들을 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녀가 되기보다 차라리 수녀가 되는 길을 택했어야 할 불쌍한 여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 우리 여인들이란 참으로 불행합니다. 비록 우리가 트로이의 헥토르로부터 시작되어 남자에서 남자로 곧게 이어진 혈통의 후손일지라도, 우리 안주인 마님들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여왕이 된다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너'라고 하대하기를 서슴지 않을 테니까요! 오, 거인 말람브루노여! 당신은 마법사이지만 약속만큼은 확실히 지키는군요! 우리의 불행을 끝내줄 유일무이한 클라비레뇨를 어서 보내주십시오. 만약 날이 더워지는데도 이 수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우리 신세는 정말 끝장이고 말 것입니다!"

트리팔디가 이 말을 어찌나 절절하게 하는지,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산초 판사의 눈마저 눈물로 그득 차오를 정도였다. 그 모습을 본 산초는, 만약 그 존엄한 얼굴들에 난 털을 뽑아주는 것이 모험의 목적이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주인님을 따라가겠노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제41장



제41장. 길고 긴 모험을 끝맺으며, 클라비레뇨가 나타나다

때마침 밤이 찾아왔다. 유명한 말 클라비레뇨가 오기로 약속한 시간도 바로 그때였다. 돈키호테는 클라비레뇨가 너무 늦는다고 생각하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말람브루노가 말을 보내는 걸 미루고 있

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모험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혹은 말람브루노가 감히 자신과 맞서 싸우러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기치 않게 네 명의 야만인이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초록색 담쟁이덩굴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어깨에는 커다란 나무 말을 메고 있었다. 그들이 말을 바닥에 내려놓자, 야만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용기가 있는 자는 누구든 이 기계 위에 올라타라."

"전 여기 안 올라탑니다." 산초가 말했다. "용기도 없는 데다 기사도 아니니까요."

그 야만인은 말을 이었다.

"종자 양반, 만약 용기가 있다면 어서 말 엉덩이에 올라타게나. 용맹한 말람브루노를 믿게나. 그분의 검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무기로도, 어떤 악의로도 자네가 해를 입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게. 그저 목에 걸린 이 나무못만 돌려놓으면 된다네. 그러면 말람브루노가 자네들을 공중으로 실어, 그가 기다리는 곳으로 데려다줄 걸세. 다만, 길이 높고 아득해 어지럼증이 일지 않도록, 말이 히힝 하고 울 때까지는 눈을 가리고 있어야 하네. 말이 울면 비행이 끝났다는 신호라네."

말을 마친 뒤, 그들은 클라비레뇨를 남겨두고 품위 있게 몸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돌로리다는 말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돈 키호테에게 말했다.

"용맹한 기사님, 말람브루노의 약속은 참으로 사실이었군요. 말은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우리 수염은 그사이 쑥쑥 자라났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자라난 수염 한 올 한 올이 당신께 우리를 깎고 다듬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종자와 함께 저 말에 올라타 새로운 여정의 행복한 첫발을 내딛는 일만 남았으니까요."

"트리팔디 백작부인님,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지요. 지체하지 않도록 쿠션도 챙기지 않고 박차도 차지 않은 채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백작부인님과 이 모든 시녀분들이 수염을 말끔히 밀어 매끈해진 모습을 어서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전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산초가 말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어떤 식으로도 말입니다. 만약 제가 말 등에 올라타지 않고서는 그 수염을 깎는 일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주인님께서 저 대신 길을 동행할 다른 종자를 구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귀부인들께서도 얼굴을 매끄럽게 다듬을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요. 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즐길 만큼 마법사도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제 섬 사람들이 자기네 통치자가 바람을 타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칸다야까지는 삼천여 레구아나 되는 먼 길인데, 만약 말이 지치거나 거인이 화라도 내면 돌아오는 데만 반년은 족히 걸릴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제 이름을 아는 섬 사람도, 섬도 남아 있지 않겠지요. 흔히들 늦어지면 위험이 따른다고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잡아야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이 귀부인들의 수염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처럼 이 집에서

편히 머물겠습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곳에서, 섬의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며 머무는 것이 제게는 가장 좋습니다."

공작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초, 내 친구여. 내가 자네에게 약속한 섬은 움직이거나 도망가는 곳이 아니네. 그 섬은 땅속 깊은 심연까지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어서, 세 번을 세게 잡아당겨도 그 자리에서 뽑히거나 옮겨지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자네도 알다시피, 이런 직책 가운데 비중 있는 자리치고 많든 적든 어느 정도의 뇌물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자네도 알고 나도 안다네. 그러니 내가 이 통치직의 대가로 받고자 하는 뇌물은 바로 이것이네. 자네가 주인이신 돈키호테 님을 모시고 이 기념비적인 모험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말일세. 클라비레뇨의 날렵함이 약속하는 대로 자네가 그 빠른 속도로 금방 돌아오든, 아니면 운이 나빠 순례자처럼 이 여관 저 여관, 이 주막 저 주막을 거쳐 걸어서 돌아오든, 언제 돌아오더라도 자네의 섬은 떠나온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섬 사람들도 늘 그래 왔듯 자네를 통치자로 맞이하려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네. 내 뜻 또한 변함이 없을 것이고 말이야. 산초,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게. 그것은 자네를 섬기고자 하는 내 진심을 대놓고 모욕하는 일이 될 테니까 말일세."

"그만하시면 됩니다, 주인님." 산초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종자일 뿐이라, 주인님의 그 과한 친절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 주인님께서 먼저 올라타시고, 제 눈을 가려 주신 다음, 저를 하느님께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갈 때, 제가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저를 도와줄 천사들을 불러야 할지 꼭 알려 주십시오."

그러자 트리팔디가 대답했습니다.

"산초,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든 네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빌든 마음대로 하거라. 말람브루노가 비록 마법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인이니 말이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아주 영리하고 신중하게 마법을 부린단다."

"그럼, 좋습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가에타의 성삼위일체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방앗간에서의 그 유명한 모험 이후로,"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산초가 겁에 질린 모습은 본 적이 없구나. 만약 내가 다른 이들처럼 불길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그 나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주 근질거릴 정도란다. 하지만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산초야. 이 귀하신 분들의 허락을 받아 너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

그러고는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산초를 데려가 양손을 꼭 붙잡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형제 산초야. 우리 앞에 놓인 이 긴 여정이 보이지 않느냐? 언제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을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여유와 틈을 내어 줄지도 알 수 없구나. 그러니 지금 길 떠날 채비로 뭔가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잠시 네 방으로 들어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네가 맞기로 되어

있는 삼천삼백 대 가운데 우선 오백 대만이라도 미리 매를 쳐 두었으면 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이미 맞아 둔 셈이 될 테니 말이다.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해 놓으면 절반은 끝낸 것이나 다름없는 법이니까."

"세상에나, 맙소사!" 산초가 말했습니다. "나으리는 정신이 좀 모자라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건 마치 '서두르라면서 정숙함까지 바라는 격'이라더니, 딱 그 꼴이군요! 이제 겨우 맨 판자 위에 올라타서 가야 할 판인데, 나으리는 제 엉덩이가 다 터지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정말이지 나으리는 틀리셨습니다. 자, 어서 가서 저 여인들의 수염이나 밀어 버립시다. 그러고 나면 제가 장담하건대, 제 의무를 아주 신속하게 다 마쳐서 나으리께서 아주 만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 약속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착한 산초야. 네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라 믿는다. 사실 너는 좀 어리석긴 해도,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니까 말이다."

"저는 초록색이 아니라 거무스름한 겁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설령 제가 잡색이라 할지라도, 제 말만큼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런 대화를 끝으로 두 사람은 다시 클라비레뇨에 올라탔고, 돈키호테는 말에 오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초, 얼굴을 가리고 어서 올라타게! 우리를 이토록 먼 곳에서 부르는 분이 우리를 속이려 하지는 않을 걸세. 자신을 믿는 사람을 속여서

얻을 영광이 얼마나 되겠나? 설령 모든 일이 내 예상과 반대로 흘러간다 해도, 이 위대한 과업에 도전했다는 영광만큼은 그 어떤 악의도 결코 가릴 수 없을 것이네."

"어서 가시지요, 주인님." 산초가 말했습니다. "저 귀부인들의 수염과 눈물이 제 가슴에 박혀 있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이 예전처럼 매끈해진 모습을 뵙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맛있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 먼저 올라타 얼굴을 가리십시오. 제가 말 엉덩이 쪽에 타야 한다면, 당연히 안장에 앉으신 주인님께서 먼저 올라타셔야지요."

"그 말이 맞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는 허리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고통받는 여인에게 눈을 아주 잘 가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눈을 가린 뒤에 그는 다시 손수건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나는 베르길리우스의 글에서 트로이의 팔라디온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네. 그것은 그리스인들이 팔라스 여신에게 바친 나무 말이었는데, 그 배 속에는 무장한 기사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결국 그들이 트로이를 완전히 파멸시켰다네. 그러니 우리도 먼저 클라비레뇨의 배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통받는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으며, 말람브루노가 악의를 품거나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돈키호테 나리,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올라타십시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어떤 대답이라도 하는 순간 용기가 깎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말다툼하지 않고 곧장 클라비레뇨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말의 고정 장치를 건드려 보았는데, 그것은 아주 쉽게 돌아갔습니다. 등자가 없어서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린 돈키호테의 모습은, 마치 로마의 개선식 장면을 그린 플랑드르식 태피스트리의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산초 판사는 기분이 언짢은 채로 천천히 말에 올라탔습니다. 산초는 말의 엉덩이 부분에 최대한 몸을 붙여 보려 했으나, 그곳이 전혀 푹신하지 않고 꽤 딱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산초는 공작에게 가능하다면 쿠션이나 베개라도 하나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공작부인께서 앉으시는 의자의 방석이든, 아니면 어떤 시종의 침대 베개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말의 엉덩이는 나무라기보다는 차라리 대리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트리팔디가 말하기를, 클라비레뇨는 어떤 마구도 그 어떤 장식도 몸에 지니려 하지 않으니, 산초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자가 말을 타듯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아 옆으로 앉는 것뿐이며, 그렇게 하면 딱딱함을 덜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초는 그 말대로 옆으로 앉고는 "하느님, 굽어살피소서" 하고 말하며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자마자 다시 가리개를 풀어 버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정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이 위기를 넘기도록 각자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한 번씩 바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훗날 그

들 자신이 이와 비슷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을 하느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도둑놈아, 네가 운이 나빠 교수대에 매달리기라도 한 것이냐, 아니면 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이라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냐? 이 매정하고 비겁한 놈아, 너는 지금 아름다운 마갈로나가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녀는 그곳에서 무덤으로 간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여왕이 되었단 말이다! 네 곁을 따르는 나 또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머물렀던 용맹한 피에르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얼굴을 가려라, 어서 가리란 말이다, 이 겁먹은 짐승 같은 놈아! 적어도 내 앞에 서는 그 두려운 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지 말란 말이다."

"눈 좀 가려 주십시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신께 몸을 맡기든, 신의 보살핌을 받든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니, 혹시라도 페랄비요 근처 어딘가에 우리를 덮칠 악마들이 득실거린다고 해도 제가 놀라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그들은 눈을 가렸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세로 제대로 자리를 잡았음을 느끼며 고정 장치를 만져 보았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그 장치에 대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귀부인과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용맹한 기사여, 신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길!"

"용맹한 종자여, 신께서 그대와 함께하시길!"

"자, 자, 이제 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군요. 화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중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땅에서 당신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경탄하며 넋을 잃고 말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용맹한 산초! 몸이 휘청거리지 않는가! 조심하게, 떨어지면 큰일 나네. 제 아비인 태양의 마차를 몰려 했던 그 무모한 젊은이가 떨어졌을 때보다 자네의 추락이 훨씬 더 비참할 테니까!"

산초는 그 목소리들을 듣고는 주인에게 바짝 달라붙어 두 팔로 주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고 말하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리는 데다, 마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말입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산초야. 이런 일이나 하늘을 나는 재주 같은 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에서 벗어난 것이니, 천 리 밖에서도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고 들을 수 있을 게다. 그리고 나를 너무 꽉 안지 마라, 떨어지겠구나. 네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겁을 내는지 모르겠다. 장담컨대 내 평생을 통틀어 이보다 더 발걸음이 평온한 말을 타 본 적이 없으니, 마치 우리가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친구여, 두려움은 떨쳐버려라. 정말이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있고, 바람도 우리 뒤에서 밀어주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마치 수천 개의 풀무로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커다란 풀무들이 실제로 그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작과 공작부인, 그리고 그들의 집사가 꾸민 이 모험은 어찌나 치밀하게 짜였는지, 완벽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자기에게도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산초야. 우리는 이미 공중의 두 번째 영역에 거의 다다랐을 게다. 그곳에서는 우박과 눈이 생겨나지. 천둥과 번개, 그리고 벼락은 세 번째 영역에서 생겨나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계속 올라간다면 머지않아 불의 영역에 닿을 텐데, 우리가 타 죽지 않으려면 이 고정 장치를 어떻게 조절해서 더는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때 멀리서 갈대 끝에 매달린 채 불꽃이 일었다 꺼졌다 하는 가벼운 심지들이 두 사람의 얼굴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 열기를 느낀 산초가 말했다.

"제 수염의 상당 부분이 다 타버린 걸 보니, 우리가 벌써 불의 영역에 들어왔거나 혹은 그 근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주인님, 저는 지금 눈가리개를 벗고 우리가 대체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 보려던 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토랄바 학사의 진짜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나. 악마들이 그를 갈대에 태운 채, 눈을 감긴 채로 공중으로 휙 채 가버렸지 않나. 그는 열두 시간 만에 로마에 도착해서 도시의 한 거리인 노나 탑에 내려앉았다네. 거기서 보르본이 겪은 모든 패배와 습격, 그리고 죽음을 목격하고는, 다음 날 아침 이미 마드리드로 돌아와 자신이 본 모든 일을 보고했다네. 그 학사의 말에 따르면, 하늘을 날던 중에 악마가 눈을 뜨라고 명령해서 눈을 떴더니 달의 표면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보였다더군. 그래서 정신이 아득해질까 두려워 땅은 차마 내려다보지 못했다네. 그러니 산초, 눈가리개를 벗을 필요는 없네. 우리를 이끄는 분이 알아서 우리를 잘 인도해 줄 테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방향을 틀어 높이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다 마치 송골매나 매가 백로를 낚아채려고, 백로가 아무리 높이 솟구쳐 오르더라도 단번에 내리덮치듯, 한순간에 칸다야 왕국 위로 우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테니 말이야. 우리가 정원을 떠난 지 채 삼십 분도 안 된 것 같겠지만, 분명 우리는 아주 먼 길을 달려왔을 것이네."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다만 마갈라네스, 아니 마갈로나 부인께서 이 말 궁둥이에 앉아 가시고도 만족하셨다면, 그분 살집이 그리 연하지는 않았으리라는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두 용맹한 기사의 이런저런 대화를 공작 부부와 정원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듣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대화가 무척이나 즐거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기묘하고도 잘 짜인 모험의 대미를 장식하고 싶었던 그들은 클라비레뇨의 꼬리에 심지를 묶어 불을 붙였다. 그러자마자 폭죽이

가득 실려 있던 말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고,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는 몸이 반쯤 그을린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사이 정원에는 수염 난 시녀들의 무리와 트리팔디 일행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정원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기절이라도 한 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들이 출발했던 바로 그 정원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과 수많은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러다 정원 한쪽에서 커다란 창 하나가 땅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욱 깜짝 놀랐다. 그 창에는 초록색 비단 끈 두 줄에 매달린 매끄럽고 하얀 양피지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황금색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라만차의 명성 높은 기사 돈키호테는 트리팔디 백작부인, 즉 돌로리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여인과 그 일행의 모험을, 그저 시도하는 것만으로 완수하여 끝맺었노라.

말람브루노는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만족하고 흡족해하며, 여인들의 수염은 말끔하고 매끈하게 사라졌고, 국왕 돈 클라비호와 안토노마시아 역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노라. 그리고 종자가 받기로 한 채찍질이 다 채워지면, 하얀 비둘기는 자신을 쫓던 사나운 매들에게서 벗어나 사랑하는 짝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마법사들의 시조인 현자 멀린이 정해 놓은 운명이니라.

돈키호테는 양피지에 적힌 글을 읽고 나서, 이것이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어주는 일에 관한 내용임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는 이토록 큰 위

업을 별다른 위험도 없이 무사히 이뤄낸 것에, 그리고 이제는 모습을 감춰 보이지 않게 된 고귀한 여인들의 얼굴을 본래의 안색으로 되돌려 놓은 것에 하늘에 깊이 감사했다. 그러고는 공작과 공작부인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곳으로 가서, 공작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자, 나리,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별거 아닙니다! 저기 기둥에 붙은 글귀가 분명히 보여주듯, 이번 모험은 아무런 피해도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공작은 마치 무거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공작부인과 정원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도 같은 모습이었다. 다들 어찌나 경악하고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한지, 평소에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연기하던 장난이 정말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공작은 눈을 반쯤 감은 채 게시된 글귀를 읽더니, 이내 두 팔을 활짝 벌려 돈키호테를 껴안으며 말했다. 세상 어느 시대에도 이토록 훌륭한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말이다.

산초는 수염이 없는 돌로리다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 당당한 풍채만큼이나 수염 없이도 아름다울지 궁금해서 자꾸만 그녀를 살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클라비레뇨가 불타는 듯한 기세로 하늘을 가로질러 내려와 땅에 부딪히는 순간, 트리팔디를 포함한 시녀 일행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일러주었다. 그 여인들은 이미 수염이 깨끗이 밀려 잔털 하나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공작부인이 산초에게 그 긴 여정은 어떠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부인, 제 주인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불타는 지역을 날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좀 뜨고 싶어 허락을 구했지만, 주인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궁금한 게 생기면 꼭 알아내고야 마는 성미가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눈을 가린 수건을 코끝까지 살짝 내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땅을 내려다보았는데, 세상이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 헤이즐넛보다도 작아 보였고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높이 날고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에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산초야, 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렴. 네 말을 들어보니 땅을 본 게 아니라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을 본 모양이구나. 땅이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고 사람 하나가 헤이즐넛처럼 보였다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았을 게 분명하지 않니."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저는 땅의 한 귀퉁이를 살짝 들춰보고는 그 전체를 다 보았습니다."

"산초야, 잘 보렴." 공작부인이 말했다. "한 귀퉁이를 살짝 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란다."

"그런 식의 구경은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다만 제가 아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마법의 힘으로 날아가는 중이었으니, 저도 마법의 힘을 빌려 어디를 보든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다 볼 수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눈썹 근처

를 살짝 들춰보았을 때 하늘과 저 사이의 거리가 고작 한 뼘 반밖에 안 될 정도로 하늘에 바짝 닿아 있었다는 사실도 못 믿으시겠지요. 부인, 제가 맹세컨대 하늘은 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그런데 마침 일곱 마리 새끼 염소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제 영혼을 걸고 맹세하건대, 제가 어릴 적 고향에서 염소지기 노릇을 했던 터라, 그 염소들을 보자마자 잠시라도 같이 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정말 가슴이 터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도, 심지어 주인님께도 아무 말 없이, 아주 살그머니 조심스럽게 클라비레뇨에서 내려 염소들과 놀았습니다. 그 염소들이 꼭 비단향꽃무며 갖가지 꽃처럼 곱고 어여뻐서 거의 45분 동안이나 함께 시간을 보냈지요. 그동안 클라비레뇨는 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착한 산초가 염소들과 노는 동안," 공작이 물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런 일들이나 저런 사건들은 모두 자연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니, 산초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네. 다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 나는 위로도 아래로도 눈가리개를 들추지 않았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래도 보지 못했네. 공중을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분명히 받았고, 불의 영역에 닿은 것 같기도 했지. 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건 믿을 수 없네. 불의 영역은 달이 있는 하늘과

공기의 가장 끝자락 사이에 있는데, 산초가 말하는 그 일곱 마리 새끼 염소들이 있는 하늘까지 가려면 몸이 다 타버려야만 하거든. 그런데도 우리가 타 죽지 않았으니, 산초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네."

"거짓말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정 못 믿겠으면 그 염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참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말해보렴, 산초야." 공작부인이 말했다.

"두 마리는 초록색이고, 두 마리는 붉은색이며, 두 마리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색이 섞여 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건 참 새로운 종류의 염소로구나." 공작이 말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색깔의 염소를 쓰지 않는단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가진 염소 말이다."

"그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하늘에 사는 염소와 땅에 사는 염소가 어찌 같겠습니까?"

"산초야, 말해 보거라." 공작이 물었다. "저 염소들 사이에 혹시 숫염소라도 보이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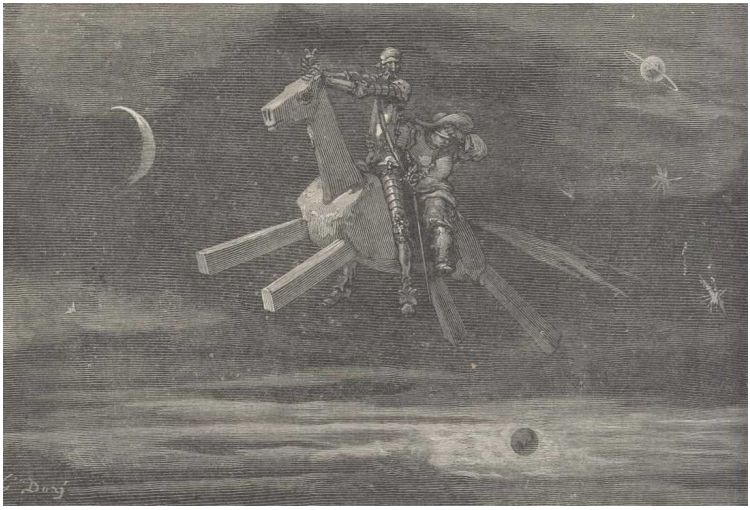
"아닙니다, 나리."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 염소들 중 누구도 달의 뿔보다 높이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산초에게 여행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다. 산초가 정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도 온 하늘을 구경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식을 전해줄 기세였기 때문이다.

결국, 고통받는 여주인 모험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이 이야기는 공작 부부에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웃음을 안겨주었으며, 만약 산초가 장수한다면 그에게는 대대손손 전해줄 이야깃거리가 될 터였다.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네가 하늘에서 본 것을 믿어달라고 나에게 요구하니, 나 또한 내가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본 것을 네가 믿어주길 바란다. 더는 말하지 않으마."

제42장



제42장.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에게 섬을 다스리러 가기 전 건넨 조언과 그 외 여러 사려 깊은 가르침에 대하여

'고통받는 여인'의 모험이 가져다준 행복하고도 유쾌한 결과 덕분에 공작 부부는 무척 기분이 좋아졌다. 그들은 산초가 자신들의 장난을 진

심으로 믿게 만들기에 안성맞춤인 인물임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놀림을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하인과 가신들이 산초가 약속된 섬을 다스릴 때 어떻게 그를 보좌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려두었다. 클라비레뇨가 날아오른 바로 다음 날, 공작은 산초를 불러 섬의 통치자가 될 채비를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고 말했다. 섬의 주민들이 마치 오월의 단비라도 기다리듯 간절히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산초는 공작에게 몸을 굽혀 예의를 갖추며 대답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뒤에, 그 높은 꼭대기에서 땅을 내려다보니 세상이 참으로 작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섬을 다스리고 싶다는 제 커다란 욕심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겨우 겨자씨 하나를 다스리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며, 제 눈에는 세상에 그것 말고는 더 보이지도 않는데, 헤이즐넛만 한 사람 대여섯 명을 다스리는 게 무슨 위엄이나 권세가 되겠습니까? 만약 주인님께서 제게 하늘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게 설령 반 리도 채 안 되는 크기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을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보게, 산초 친구," 공작이 대답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하늘의 조각을 나누어 줄 수는 없네. 설령 손톱보다 작다 해도 말일세. 그런 은총과 자비는 오직 하느님께만 허락된 것이니까.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기꺼이 주겠네. 바로 제대로 갖춰진, 둥글고 균형 잡힌 섬이라네. 그곳은 아주 비옥하고 풍요로워서, 만약 자네가 재주를 잘 발휘하기만 한다면 땅의 풍요로움을 통해 하늘의 복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네."

"그렇다면," 산초가 대답했다. "그 섬을 어서 내놓으십시오. 악당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통치자가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의 처지를 벗어나거나 출세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통치자가 된다는 게 어떤 맛인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산초, 자네가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공작이 말했다. "다스리고 복종을 받는 일이 더없이 달콤한지라, 통치하는 일에 푹 빠져 손가락을 쪽쪽 빨 만큼 좋아하게 될 걸세. 지금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자네 주인이 황제가 되는 날도 틀림없이 올 텐데, 그리되면 그 자리를 호락호락 빼앗기지 않으려 할 것이고, 혹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가 온다면 황제가 아니게 된 그 시간이 영혼 깊은 곳까지 사무치게 아프고 쓰라릴 걸세."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가축 떼를 다스리는 일이라 해도, 누군가를 부린다는 건 분명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산초, 자네는 모르는 게 없으니 나를 땅에 묻을 때 꼭 같이 묻어주게나." 공작이 대답했다. "자네의 분별력으로 보아하니 분명 훌륭한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군. 이 말은 우리끼리만 아는 것으로 하고, 내일 바로 섬을 다스리러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오늘 오후에는 자네가 입을 적절한 의복과 떠날 때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해 줄 것이네."

"어떻게 입히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어떤 옷을 입든 저는 여전히 산초 판사일 뿐이니까요."

"그 말이 맞네." 공작이 말했다. "하지만 옷이란 그 사람이 맡은 직분이나 품격에 맞게 갖춰 입어야 하는 법이라네. 법률 전문가가 군인처럼 입거나, 군인이 사제처럼 입는 것은 좋지 않지 않겠나? 산초, 자네는 학자 같으면서도 장군 같은 차림을 하게 될 것이네. 내가 자네에게 줄 섬에는 무력만큼이나 학문이 필요하고, 학문만큼이나 무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네."

"학문이라니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아직 '가나다라'도 모를 만큼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훌륭한 통치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무력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앞장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쓰러질 때까지 제게 쥐여주는 대로 휘둘러 보겠습니다."

"그토록 기억력이 좋으니," 공작이 말했다. "산초가 실수할 일은 전혀 없겠군."

이때 돈키호테가 도착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산초가 통치를 위해 얼마나 급히 떠나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공작의 허락을 받아 산초의 손을 잡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산초가 통치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할지 조언해주려는 생각에서였다.

방으로 들어간 돈키호테는 문을 닫고, 거의 강제로 산초를 자기 곁에 앉혔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친구 산초야, 하늘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내가 어떤 행운을 만나기도 전에, 네가 먼저 그 행운을 맞이하고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나는 내게 행운이 찾아오면 그것으로 네 수고에 대한 삯을 치러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이제 겨우 출세의 첫발을 내딛는 참이다. 그런데 너는 이치에 맞지 않게도, 때가 되기도 전에 네 소망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구나. 어떤 이들은 뇌물을 주고, 괴롭히고, 간청하고, 일찍 일어나 애를 쓰고, 빌고, 떼를 써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어떻게, 혹은 어떻게 하지 않고서도, 수많은 사람이 갈망하던 직책과 임무를 덜컥 맡게 되기도 하지. 이쯤 되면 무언가를 바라는 일에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이 다 있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구나. 산초야, 너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게는 그저 얼간이일 뿐인데, 밤낮으로 애쓰지도 않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저 편력 기사라는 이름 아래 네게 주어진 운수 덕분에, 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느 섬의 통치자가 되었구나. 산초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받은 이 은총을 네 공로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대신 만물을 부드럽게 다스리시는 하늘에 감사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 기사도라는 직업이 품고 있는 그 위엄에 걸맞게 행동하거라.

내 말을 믿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들아, 이제 네 조언자이자 길잡이가 되려는 이 카토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빠져들게 될 이 거친 바다에서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주려는 이 말을 말이다. 높은 직위와 막중한 책무란 혼란이라는 깊은 소용돌이와 다를 바 없단다. 우선, 아들아, 너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데 지혜가 있으니, 지혜롭다면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너는 네가 누구인지 살피고 스스로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지. 네 자신을 알게 된다면, 황소와 맞먹으려 했던 개구리처럼 우쭐대며 몸을 부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 네가 그렇게 스스로를 안다면, 네 고향에서 돼지를 치던 지난날을 떠올리는 것이, 꼬리를 활짝 펼친 네 어리석음의 수레바퀴를 부끄럽게 만드는 보기 흉한 발이 되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이지요. 나중에 조금 컸을 때는 돼지가 아니라 거위들을 키웠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치자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왕족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옳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신분이 높지 않은 자라면, 맡은 직책의 엄중함에 어울리는 품위를 갖추되, 신중함을 바탕으로 부드럽고 온화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어떤 지위에서도 피할 수 없는 악의적인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초야, 네 가문의 비천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거라. 네가 농부의 자식임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가 기죽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면,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오만한 죄인이 되느니 차라리 겸손한 덕망가가 되는 편이 훨씬 낫다. 비천한 태생으로 태어나 교황이나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이들이 셀 수 없이 많으니, 이 진실을 뒷받침할 사례를 들자면 네가 지칠 때까지도 모자랄 것이다.

산초야, 잘 들어라. 네가 미덕을 삶의 지표로 삼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려 노력한다면, 왕이나 귀족들이 누리는 권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혈통은 물려받는 것이지만 미덕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며, 미덕은 그 자체만으로 혈통이 지니지 못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섬을 다스리다 친척 중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를 내쫓거나 모욕하지 마라. 오히려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하며 선물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니, 하늘은 그 누구도 당신이 손수 지으신 것을 업신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잘 정돈된 자연의 이치에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아내를 데려온다면—오랫동안 통치직을 맡는 이가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으니 말이다—아내를 잘 가르치고 훈육하여 타고난 거친 성품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현명한 통치자가 쌓아 올린 모든 공덕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아내는 모두 망쳐놓고 쏟아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혹여 홀아비가 되거든—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그리고 직책 덕분에 더 나은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거든, 뇌물을 낚는 낚싯바늘이나 낚싯대 노릇을 하거나 '받지 않겠다'며 두건 자락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는, 그런 아내는 절대 맞이하지 마라. 진정으로 말하건대, 판사의 아내가 받은 모든 것은 남편이 훗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하나 해명해야 할 일이다. 그곳에서 네가 살아생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죽은 뒤에는 네 배에 달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악한 척하는 무지한 자들이 흔히 빠지는 자의적인 법 적용에 휘둘리지 마라. 가난한 이의 눈물이 부유한 이의 진술보다 네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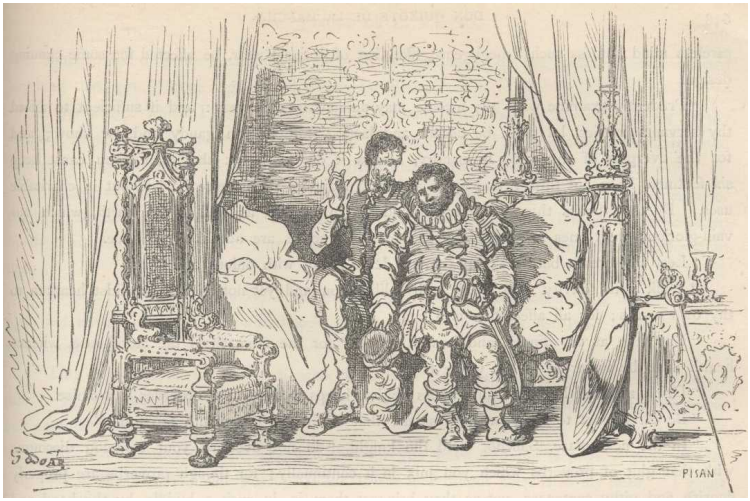
더 큰 자비를 얻게 하되, 더 큰 정의까지 얻게 해서는 안 된다. 부유한 자가 내거는 약속과 뇌물 속에서도, 또 가난한 자가 울며 매달리는 호소 속에서도 한결같이 진실을 가려내려 애써라. 공정함이 발휘되어야 할 때에는 법의 엄격함을 죄인에게 모조리 쏟아붓지 마라. 가혹한 판사라는 명성이 자비로운 판사라는 명성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의의 저울을 기울여야 한다면, 뇌물의 무게가 아니라 자비의 무게로 기울여라.

원수와 관련된 소송을 맡게 되더라도, 네 개인적인 원한은 접어두고 오직 사건의 진실에만 집중해라. 남의 일에 네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켜 눈을 멀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저지른 실수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으며, 설령 되돌린다 해도 네 명성과 재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만약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 정의를 구한다면, 그녀의 눈물과 신음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녀가 요구하는 사안의 본질을 차분히 검토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이성은 그녀의 울음소리에 잠기고, 네 선량함은 그녀의 한숨 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행동으로 벌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말로 모욕을 주지는 마라. 불행한 죄인에게는 가혹한 형벌만으로도 충분하지, 모욕적인 언사까지 더할 필요는 없다. 네 관할 아래 있는 죄인을 마주할 때는, 그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휘둘리는 가련한 존재로 여겨라.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자비롭고 관대하게 대해라. 하나님의 성품은 모두 평등하지만, 우리 눈에는 정의보다는 자비의 모습이 훨씬 더 빛나고 위대해 보이기 때문이다.

산초야, 만약 네가 이 가르침과 규칙들을 따른다면, 네 수명은 길어질 것이고 명성은 영원할 것이다. 네게 주어지는 보상은 넘쳐날 것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식들은 네 뜻대로 좋은 곳에 시집장가보낼 수 있고, 그 자식과 손자들은 모두 작위를 갖게 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의 존경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도 죽음이 너를 찾아올 때는 평온하고 성숙한 노년의 모습일 것이다. 네 눈은 증손주들의 부드럽고 섬세한 손에 감기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네 영혼을 빛내줄 지침들이다. 이제 네 몸을 빛내줄 지침들을 들어보아라."

제43장



제43장.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에게 건넨 두 번째 조언들에 대하여

돈키호테가 방금 늘어놓은 이 이치에 맞는 말들을 듣고도, 그를 아주 제정신이고 선한 의도를 지닌 사람이라 여기지 않을 이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이 거대한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

었듯이, 그는 기사도 이야기만 건드리면 엉뚱한 소리를 내뱉곤 했다. 그 외의 대화에서는 명석하고 소탈한 이해력을 보여주었기에, 그의 행동은 매번 그의 판단력을 깎아내렸고, 그의 판단력 또한 그의 행동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산초에게 건넨 이번 두 번째 조언만큼은 달랐다. 이번만큼은 그가 아주 재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분별력과 광기를 한껏 드높은 경지에까지 끌어올렸다.

산초 판사는 돈키호테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는 마치 이 조언들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장차 통치를 시작할 때 그 지혜를 꺼내어 성공적인 결실을 보려는 사람처럼 조언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기려 애썼다. 돈키호테는 말을 이어갔다.

"산초, 네 몸가짐과 집안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관해서 말이다. 우선 내가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는 늘 청결을 유지하고 손톱을 짧게 깎으라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이 손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무지한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손톱을 깎지 않고 방치해서 생기는 그 오물과 지저분한 덩어리는 손톱이 아니라, 마치 도마뱀을 잡아먹는 황조롱이의 발톱처럼 보일 뿐이다. 그건 돼지 같은 짓이며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산초, 옷을 풀어헤치거나 흐트러진 차림으로 다니지 마라.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은 마음가짐이 해이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그 흐트러짐과 헐렁함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경우처럼 의도된 능청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모를까 말이다. 그리고 네 직책이 얼마나 벌이가 되는지를 신중하게 가늠해 보아라. 그래서 하인들에게 제복을 입힐

만한 형편이 된다면,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는 품위 있고 실용적인 것을 골라라. 그리고 그 제복을 하인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 말은, 만약 하인을 여섯 명 거느릴 형편이라면 세 명에게는 제복을 입히고 나머지 세 벌은 가난한 이들에게 입혀 주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를 보필할 하인을 갖게 되는 셈이니 말이다. 허영심에 가득 찬 자들은 이런 식의 베풂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마늘이나 양파는 먹지 마라. 그 냄새 때문에 네가 천한 신분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서는 안 되니까 말이다. 걸음은 천천히 걷고, 말은 차분하게 하되, 마치 자기 목소리에 스스로 도취한 것처럼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가식은 해로운 법이다. 음식은 적게 먹고 저녁은 더 적게 먹어라. 온몸의 건강은 바로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 말이다. 술을 마실 때는 절제해야 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비밀을 지키지도 못하고 약속을 이행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리고 산초, 음식을 양 볼 가득 넣고 씹지 말고, 남들 앞에서 애기(噯氣)를 하는 일도 없도록 주의하거라."

"애기(噯氣)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돈키호테가 그에게 말했다.

"산초야, 애기(噯氣)란 트림을 한다는 뜻이란다. 이건 카스티야어에서 가장 상스러운 낱말 중 하나지만, 뜻만큼은 아주 분명하지. 그래서 식견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에 기대어, '트림하다'라고 하는 대신 '애기

하다’라고 말하고, ‘트림’이라는 명사 대신 ‘애기’라고 부른단다. 설령 누군가 이런 말들을 당장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니야. 시간이 흐르면 관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테니까 말이다. 이렇게 새로운 말이 자리 잡는 것이야말로, 대중의 습관과 관용이 좌우하는 언어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란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인님.” 산초가 말했다. “제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조언 중 하나는 바로 트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겠군요. 제가 워낙 트림을 자주 하는 편이라 말입니다.”

“산초야, 트림이 아니라 ‘애기’라고 해야지.” 돈키호테가 말했다.

“앞으로는 ‘애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초야, 대화할 때 평소처럼 속담을 마구 섞어 쓰지 말거라. 속담이란 원래 짧고 명쾌한 격언인데, 너는 그것을 맥락도 없이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으니, 격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헛소리에 가깝게 들린단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속담이라면 책 한 권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입 안에서 속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서로 나가겠다고 싸우는 통에 혀가 눈에 띄는 대로 먼저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꼭 상황에 맞는 건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제 직책의 무게에 걸맞은 속담만 골라서 쓰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집안이 가득 차야 저녁상이 빨

리 차려지는 법'이고, '흥정을 미리 끝낸 자는 다툴 일이 없는 법'이며, '종을 치는 자가 안전한 법'이고, '주고받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고말고,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속담을 마음껏 꿰고 엮고 늘어놓아 보렴, 아무도 너를 말리지 않을 테니! '어머니가 나무라도 나는 들은 척도 않는다'더니, 꼭 그 짝이로구나! 내가 지금 속담을 아껴 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순식간에 속담을 줄줄이 늘어놓는구나. 그런데 그 속담들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와 어울리는 꼴이라니, 마치 우베다의 언덕을 헤매듯 영 동떨어져 있구나. 잘 들어라, 산초야. 상황에 딱 맞는 속담을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속담을 마구 퍼붓고 늘어놓으면 대화의 품격이 떨어지고 천박해지는 법이란다. 말을 탈 때는 안장 뒷부분에 몸을 기대지 말고, 다리를 뻣뻣하게 펴서 말의 배에서 멀리 떨어뜨리지도 말거라. 그렇다고 너무 흐느적거려서 마치 잿빛 당나귀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된다. 말을 타는 태도에 따라 어떤 이는 기사가 되고, 어떤 이는 마부로 보이기 때문이다. 잠도 적당히 자거라. 해와 함께 일찍 일어나지 않는 자는 하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그리고 산초야, 명심하거라! 부지런함은 행운의 어머니이고, 그 반대인 게으름은 결코 간절히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주려는 마지막 조언은 외모를 꾸미는 데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지금까지 해준 조언들 못지않게 유익할 테니 마음 깊이 새겨두길 바란다. 그것은 바로 가문의 혈통을 두고 논쟁하거나, 적어도 가문끼리 서로 비교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문을 비교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느 한쪽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네가 깎아내린 가문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네가 치켜세운 가문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옷차림은 다리를 다 덮는 긴 양말에, 상의는 길게, 망토는 그보다 조금 더 길게 입도록 해라. 통 넓은 반바지는 생각지도 마라. 그런 옷은 기사에게도, 통치자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다. 산초야, 우선은 여기까지 조언하마.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네가 처한 형편을 내게 잘 알려주도록 해라.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언을 다시 해주마."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모두 좋고, 거룩하고, 유익한 말씀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톱을 기르지 말라거나 기회가 되면 다시 결혼하라는 말씀 같은 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하고 뒤얽힌 잡다한 수칙들은 옛날에 지나가던 구름처럼 기억도 안 나고 앞으로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글로 써서 주십시오. 제가 읽고 쓸 줄은 모르지만, 제 고해 신부님께 가져다드리면 필요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쏙쏙 넣어주시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일러주실 겁니다."

"아이고, 이 죄인 같으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통치자가 읽고 쓸 줄 모른다는 건 정말 보기 안 좋은 일이란다! 산초야, 잘 들어라. 사람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왼손잡이인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하는 법이다. 부모가 너무나 비천하고 미천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나 못되고 악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이지. 네게는

아주 큰 결점이 있구나. 그러니 적어도 자기 이름 석 자라도 쓸 줄 알도록 배우면 좋겠구나."

"제 이름 석 자 정도는 쓸 줄 압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예전에 고향에서 성당 신도회 간사를 맡았을 때, 사람들이 제 이름이라고들 하던, 짐짝에 찍는 표시 같은 글자들을 쓰는 법을 배웠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오른손이 마비된 척하고 다른 사람더러 대신 서명해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죽을 일만 아니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권력을 쥐고 지휘봉을 잡게 되면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시장이면 자식은 두려울 게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는 시장보다 더 높은 통치자가 될 텐데, 어디 한번 덤벼들 테면 덤벼보라지요! 아니, 저를 비웃고 헐뜯어 보라지요. 양털을 깎으러 왔다가 되레 제 털만 깎이고 돌아갈 겁니다. 하느님이 어여삐 여기는 사람은 집안일도 절로 잘 풀리는 법이고, 부자의 어리석은 짓도 세상에서는 명언처럼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제가 통치자가 되고, 마음먹은 대로 너그럽기까지 하다면 무슨 흠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 '꿀처럼 물러 터지면 파리가 잡아먹는 법'이지요.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가진 만큼 값어치를 인정받는 법'이라 하셨고, 또 재산이 탄탄히 뿌리내린 사람에게는 복수할 길이 없는 법이랍니다."

"아이고, 하느님 맙소사, 산초야!" 이때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와 네놈의 속담들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구나! 사탄 육만 마리가 너와 네 속담들을 통째로 삼켜버려라! 한 시간째 속담을 줄줄이 엮어대며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구나. 내가 장담하건대, 그놈의 속담 때문에 언젠가 네놈은 교수대에 매달리게 될 게다. 속담 때문에 백성들에게 통

치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백성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이 무식한 놈아, 대체 그 속담들을 어디서 찾아내는 거냐? 이 어리석은 놈아, 어떻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냐? 내가 속담 하나를 골라 적절하게 쓰려고 애쓰는 게, 마치 땅을 파는 것처럼 땀 흘리고 고생하는 일이라니 말이다!"

"하느님 맙소사,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께서는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불평을 하시는군요. 제가 가진 재산이라곤 속담과 또 속담뿐인데, 그 속담을 좀 쓴다고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게다가 지금 이 자리에 바구니 속 배처럼 딱 들어맞는 속담 네 개가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말을 잘 삼가는 사람을 산초라 부른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 산초는 네가 아니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말을 잘 삼가기는커녕, 말도 함부로 하고 말다툼에서도 지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아무튼, 방금 네 머릿속에 딱 맞게 떠올랐다는 그 네 가지 속담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구나. 나는 내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기억력이 꽤 괜찮은 편인데도 도무지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산초가 말했다. "'사랑니 두 개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넣지 마라',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오, 하는 말에는 대꾸할 필요 없다', 그리고 '항아리가 돌에 부딪히든 돌이 항아리에 부딪히든, 손해 보는 건 항아리다'라는 속담들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 아주 딱 들어맞는 것들이지요. 누구든 자기 통치자나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대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

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람처럼 다치고 말 테니까요. 그게 사랑니가 아니라도 어금니이기만 하면 상관없지요. 그리고 통치자가 하는 말에는, '내 집에서 나가시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오'라는 말처럼 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이 항아리에 부딪히는 일이야 눈먼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법이고요. 그러니 남의 눈에 든 티끌을 보는 사람은 제 눈에 든 들보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여자가 목 잘린 여자를 보고 놀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지요. 주인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 집에서는 바보가 남의 집 현자보다 더 잘 안다는 사실을요."

"그건 틀린 말이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바보는 제 집에서든 남의 집에서든 아무것도 모르는 법이다. 어리석음이 쌓인 토대 위에는 그 어떤 지혜로운 건물도 세울 수 없기 때문이지. 자, 산초야,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자꾸나. 네가 통치를 잘못한다면 그건 네 잘못이요, 내 수치일 테니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심을 다해, 그리고 최대한의 지혜를 모아 네게 조언을 해주었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마. 이로써 나는 내 의무와 약속을 다한 셈이다. 신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네 통치를 잘 이끌어주시길 빌겠다. 그리고 네가 섬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내 걱정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구나. 사실 공작에게 네 정체를 밝혀버리면 그 걱정도 사라질 게다. 네 그 비대한 몸집과 보잘것없는 덩치가 사실은 속담과 악의로 가득 찬 자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주인님께서 제가 통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그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손톱 밑 때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제 몸뚱이 전체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통치자가 되어 자고새나 거세한 수탉을 대접받느니, 그냥 산초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서 빵과 양파만 먹으며 살겠습니다. 게다가 잠든 동안에는 귀한 몸이나 천한 몸이나, 부자나 가난한 이나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주인님께서 곰곰이 헤아려 보신다면, 저를 이 통치하는 일에 밀어 넣으신 분이 오직 주인님이시라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섬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독수리만큼이나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통치자가 된 탓에 악마에게 끌려갈까 봐 걱정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통치자가 되어 지옥에 가느니 그냥 산초로서 천국에 가겠습니다."

"신께 맹세코,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방금 말한 그 이유들만 보더라도, 너는 섬 천 개를 다스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는 타고난 성품이 훌륭하니, 그 성품이 없다면 그 어떤 지혜도 소용없는 법이다. 그러니 신께 네 운명을 맡기고, 처음 마음먹은 뜻을 굽히지 않도록 노력하거라. 내 말은, 네게 닥칠 그 어떤 일이든 항상 올바르게 처리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확고한 결심을 품으라는 뜻이다. 하늘은 언제나 선한 의지를 가진 자를 돕는 법이니까. 자, 이제 식사하러 가자꾸나. 저 귀하신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구나."

제44장



제44장. 산초 판사가 통치자로 떠나게 된 과정과 성에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기이한 사건에 대하여

이 이야기의 원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이 장을 쓰기 시작했을 때, 통역사가 그가 쓴 내용을 그

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무어인인 저자 스스로가 내뱉은 일종의 한탄이었다. 돈키호테에 관한 이토록 건조하고 제한적인 이야기를 맡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는 돈키호테와 산초 이야기만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더 중대하고 흥미로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주제에만 매달려 지식과 손놀림, 그리고 펜 끝을 쏟아붓고, 고작 몇 사람의 입을 빌려 말해야 하는 작업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토로했다. 게다가 이런 작업은 저자에게 돌아오는 이득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불편함을 피하고자 제1편에서는 몇 가지 소설 형식을 빌려 쓰기도 했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호기심쟁이」나 「포로가 된 대위」 같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본편과 별개로 삽입된 형태인데, 그 외에 서술된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실제 일들이라 빼놓고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돈키호테의 무용담에 몰입한 독자들이 이런 소설 이야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서둘러 넘기거나 짜증을 내며 읽어버릴 것이라 여겼다. 그렇게 되면 그 소설들이 지닌 진정한 묘미와 기교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 본 것이다. 만약 그 소설들이 돈키호테의 광기나 산초의 어리석음에 기대지 않고 그 자체로 세상에 드러난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증명될 터였다. 그리하여 이번 제2편에서는 별개의 독립된 소설이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끼워 넣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마치 소설처럼 보이는 몇몇 에피소드를 배치했을 뿐이다. 그 에피소드들조차 내용을 전달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서술했다. 저자는 온 세상을 다룰 만한 능력과 지식, 그리고 식견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

고 오직 서사의 좁은 경계 안에 자신을 가두어 두었다. 그러니 부디 그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 그가 무엇을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쓰지 않고 참아냈느냐를 보고 말이다.

이어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던 그날, 돈키호테는 식사를 마친 뒤 그 조언들을 글로 적어 내려갔다. 산초가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도록 말이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글을 다 써서 건네주기가 무섭게, 그 종이들은 바닥에 떨어졌고 마침 그곳에 있던 공작의 손에 들어갔다. 공작은 그 내용을 공작부인에게 전했고, 두 사람은 돈키호테의 광기와 기발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렇게 공작 부부는 장난을 이어갔고, 그날 오후 산초를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채 그가 통치하게 될 섬으로 떠나보냈다.

그리하여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산초를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이는 공작의 집사였는데, 아주 신중하면서도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신중함이 없는 곳에 재치가 있을 수 없는 법이니 말이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그 재치로 트리팔디 백작부인 역을 연기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런 재간에 더해 주인 내외로부터 산초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미리 단단히 일러받은 덕분에, 그는 자신의 임무를 놀라우리만치 훌륭하게 해냈다. 그리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산초는 그 집사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트리팔디 백작부인의 바로 그 얼굴이 떠올랐고, 주인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진실하고 독실한 신자로서 맹세하건대, 제가 이 자리에서 악마에게 끌려가든가, 아니면 주인님께서 여기 있는 이 공작님의 집사

얼굴이 트리팔디 백작부인과 똑같다고 인정해 주시든가,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돈키호테는 집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는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악마가 너를 끌고 갈 이유는 없다. '진실로'든 '독실하게'든 그게 무슨 말이든 간에 말이다. 나는 네가 무슨 소릴 하려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나. 집사의 얼굴이 트리팔디 백작부인과 닮았을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저 집사가 곧 백작부인인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커다란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지금은 그런 일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다. 자칫하면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게 될 뿐이다. 친구여, 내 말을 믿어라. 우리 두 사람을 사악한 마법사와 요술쟁이들로부터 구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인님,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방금 저 집사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꼭 트리팔디 백작부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단 말입니다. 뭐, 일단 입은 다물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제 의심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만한 다른 증거가 또 나오는지 말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번 일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리고 네가 섬을 다스리며 겪게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내게 꼭 알려주어야 한다."

결국 산초 판사는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학자처럼 차려입고 그 위에 회갈색 물결무늬 샴멜로트 천으로 만든 아주 넓은 가반을 걸쳤으며, 같은 천으로 만든 모자까지 썼다. 산초는 등자를 짧게 한 히네타 식으로 노새에 올라탔고, 그 뒤로는 공작의 명령에 따라 비단으로 된 눈부시게 화려한 나귀용 마구로 치장한 잿빛 나귀가 뒤따랐다. 산초는 가끔씩 고개를 돌려 자신의 나귀를 살펴보았는데, 나귀와 함께 가는 것이 어찌나 즐거운지 독일 황제와도 그 자리를 바꾸지 않을 정도였다.

산초 판사는 공작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 주인에게 축복을 청하자, 돈키호테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었고, 산초는 코를 훌쩍이며 그 축복을 받았다.

친애하는 독자여, 이제 착한 산초 판사를 평안하고 경사스러운 마음으로 보내주자. 산초가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알게 되면 두 마지기나 될 만큼 엄청난 웃음을 터뜨리게 될 테니, 그동안은 그날 밤 그의 주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자.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도 웃지 않는다면, 적어도 입술을 실룩거리며 억지 웃음이라도 짓게 될 것이다.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일들은 경탄하며 축하하거나, 아니면 배를 잡고 웃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초 판사가 떠나자마자 돈키호테는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만약 그에게 산초의 임명을 취소하고 통치권을 다시 거두어들일 힘이 있었다면, 그는 당장 그렇게 했을 것이다. 공작부인은 돈키호테의 우울한 기색을 알아채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고 물었다.

산초가 곁에 없어서 그러하냐며, 그의 집에는 시중을 들어 줄 종자며 노시녀며 시녀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가 바라는 대로 흡족하게 모실 거라고 달래기도 했다.

"사실입니다, 마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산초 판사가 곁에 없으니 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슬퍼 보이는 주된 이유가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공작부인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수많은 호의 중에서, 저는 오직 저를 생각해주시는 그 마음만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부디 제 방 안에서만큼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저 홀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정말이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공작부인이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제 시녀들 중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네 명을 골라 당신을 모시게 할 테니까요."

"제게는 그들이 꽃이 아니라, 제 영혼을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들이 제 방에 들어오는 일은, 아니 그 비슷한 일조차도, 하늘을 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공작부인께서 제가 누릴 자격도 없는 은혜를 계속 베풀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제 방 안에서만큼은 저 스스로를 돌보게 해 주십시오. 제 욕망과 품위 사이에 단단한 성벽을 쌓고 싶습니다. 공작부인께서 보여 주시는 그 너그러움 때문에 제가 지켜 온 습관을 저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잘지언정 그 누구에게도 제 옷을 벗기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만, 그만하세요, 돈키호테 경."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시녀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당신의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죠. 제가 감히 돈키호테 경의 품위를 무너뜨릴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돈키호테 경이 지닌 수많은 미덕 중에서도 정숙함이 가장 빛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 옷을 벗고 입는 일은 그저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혼자서 편히 하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방 안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자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도 다 갖춰져 있으니,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억지로 문을 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위대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께서 천만년 동안 무궁토록 번창하시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토록 용맹하고 정숙한 기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시니까요. 또한, 자비로운 하늘이 우리 총독 산초 판사의 마음속에 그 고행을 하루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어, 세상이 다시 한번 이 위대한 귀부인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돈키호테가 말했다.

"공작부인께서는 참으로 그 신분에 걸맞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고귀한 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나쁜 말이 있을 리 만무하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달변가가 아무리 칭송한다 한들, 공작부인 같은 고귀한 분께서 찬사를 보내주신 덕분에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세상에서 더욱 행복하고 이름 높은 분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돈키호테 님,"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으니 공작께서 기다리실 겁니다. 어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지요. 어제 칸다야에서 오신 여정이 그리 짧지 않았으니, 몸도 좀 쑤실 테니 일찍 잠자리에 드셔야 합니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부인."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공작부인께 맹세하건대, 저는 평생 클라비레뇨만큼 발걸음이 안정적이고 훌륭한 짐승을 타 본 적이 없습니다. 말라브루노가 어찌하여 그토록 가볍고 품격 있는 명마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버리고, 이토록 무턱대고 불태워 버리려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작부인이 대답했다. "말라브루노가 트리팔디 일행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것이지요. 마법사이자 술사로서 저질렀을 온갖 악행을 반성하며, 자신의 마법 도구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구들 가운데 으뜸이자 그를 가장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클라비레뇨를, 이 땅 저 땅 떠돌아다니던 끝에 불태워 버린 것이지요. 클라비레뇨가 남긴 타 버린 재와 그 게시문이라는 전리품 덕분에, 위대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용맹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공작부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그러고 나서 저녁 식사를 마친 돈키호테는 누구도 방에 들여 수발을 들게 하지 않은 채 홀로 침소로 물러났다. 기사도 문학의 꽃이자 모든 편력기사의 거울인 아마디스의 고결함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기에, 자신의 주군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 대한 정조를 해칠 만한 상황이 생길까 봐 몹시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는 문을 닫고 들어간 뒤 밀랍 양초 두 자루의 불빛 아래에서 옷을 벗었다. 그런데 신발을 벗을 때—오, 이 얼마나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행인가!—한숨이나, 그의 단정한 차림새를 욕보일 만한 그 어떤 것이 새어 나온 것이 아니라, 양말의 코가 스물네 개나 풀려 양말이 그야말로 격자무늬 그물처럼 되어 버렸다. 이를 마주한 기사는 몹시 괴로워하며, 초록색 비단실을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은 한 온스라도 기꺼이 내놓았으리라 생각했다. 초록색 비단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신은 양말이 초록색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베넹헬리가 탄식하며 글을 적어 내려갔다. "오, 가난이여, 가난이여! 코르도바의 저 위대한 시인이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대를 이렇게 일컬었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감사받지 못하는 거룩한 선물이여!

"나 또한 비록 이교도이나, 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배운 바가 있으니, 성스러움이란 자애와 겸손, 신앙과 순종, 그리고 가난에 있는 것이라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만약 어떤 이가 가난한 삶에 만족하며 살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신의 은총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고 싶네. 단, 그 가난이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치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식의 가난일 때에만 말이네. 사람들은 이를 마음의 가난이라 부르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두 번째 가난이란 무엇인가? 왜 그대는 다른 이들보다 유독 귀족이나 명문가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려 드는가? 왜 그들은 신발에 빳빳한 풀을 먹여야 하고, 옷의 단추는 어떤 것은 비단으로, 어떤 것은

털로, 또 어떤 것은 유리로 만들어야만 하는가? 왜 그들의 옷깃은 대개 빳빳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며, 자연스럽게 펼쳐진 모양이어서는 안 되는가?" 이 대목을 보면 풀을 먹인 옷깃과 펼쳐진 옷깃의 관습이 아주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문을 걸어 잠근 채 끼니를 때우면서, 정작 입에 들어간 것도 없어 이쑤시개질 할 필요도 없으면서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먹은 양 뻔뻔하게 길을 나서는 저 가련한 귀족들을 보라! 명예가 너무나 예민해서, 한 리 밖에서도 신발의 덧댄 자국이나 모자의 땀 자국, 옷의 해진 실밥, 그리고 배고픈 속사정까지 남들이 다 알아챌까 봐 전전긍긍하는 저 가련한 이들을 보란 말이다!"

가난에 관한 이 모든 생각이, 풀려 버린 양말 코를 보자 돈키호테의 머릿속에 새삼 되살아났다. 그러나 산초가 여행용 장화 한 켤레를 남겨 두고 간 것을 보고는 위안을 삼아, 이튿날 그것을 신기로 마음먹었다. 마침내 그는 깊은 생각과 시름에 잠긴 채 자리에 누웠다. 산초가 곁에 없다는 허전함도 컸지만, 무엇보다 도저히 수선할 길 없는 양말의 불행이 그를 괴롭혔다. 설령 다른 색 비단으로라도 그 코를 꿰매야 할 처지였으니, 다른 색 실로 양말을 깁는 것이야말로 귀족이 기나긴 궁핍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표시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촛불을 껐다. 날은 더웠고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살 달린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창문을 열자마자 정원에서 사람들이 걷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다. 아래쪽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다음과 같은 말이 들려왔다.

"오, 에메렌시아! 제발 저를 다그치지 마세요. 노래를 부르라니요! 이 이방인이 성에 들어와 제 눈에 띈 그 순간부터, 저는 노래는커녕 울 줄밖에 모르게 되었다는 걸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 주인님의 잠은 깊다기보다 얕은 편이라, 세상의 그 어떤 보물을 다 준다 해도 주인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요. 설령 주인님께서 잠드셔서 깨어나지 않으신다 해도, 저를 조롱하려고 제 영역에 찾아온 이 새로운 에네아스가 잠든 채 깨어나 제 노래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 노래는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만두게, 친구 알티시도라." 그들이 대답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공작부인과 이 집에 있는 모든 이가 잠들어 있을 걸세. 자네 마음의 주인이며 영혼을 깨우는 그분만 빼고 말이야. 방금 저 방의 창살 달린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으니, 그분은 분명 깨어 계실 거야. 그러니 가여운 내 친구여, 하프 선율에 맞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게나. 공작부인께서 우리 기척을 알아채시더라도,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랬다고 핑계를 대면 될 테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 에메렌시아!"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제 노래 때문에 제 속마음이 들통날까 봐 겁이 나서 그래요. 사랑에 빠진 처녀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저 제멋대로 행동하는 가벼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두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 닥치든 어쩔 수 없죠.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굴이 붉어지는 게 나으니까요."

그때, 아주 부드러운 하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자 돈키호테는 깜짝 놀라 멍해졌다. 그 순간, 그가 읽었던 기사도 소설 속의 수많은 비슷한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창문과 창살, 정원과 음악, 구애와 기절이 뒤섞인 그 무수한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돈키호테는 공작부인의 시녀 중 누군가가 자신과 사랑에 빠졌으며, 그 처녀가 정숙한 성품 탓에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혹여 그녀에게 굴복하게 될까 두려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러고는 굳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음악을 듣기로 했다.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짐짓 재채기를 한 번 했더니, 돈키호테가 자신들의 노래를 들어주기만을 바라던 시녀들은 그 소리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이윽고 하프를 죽 한번 짚어 조율을 마치자, 알티시도라는 다음과 같은 로망스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 침상에 누워 홀란드식 시트 속에 몸을 뉘이고, 밤낮없이 다리를 쭉 뻗은 채 잠든 당신이여! 라만차에서 태어난 가장 용맹한 기사이시며, 아라비아의 순금보다 더 고결하고 축복받은 분이시여! 몸은 다 자랐으나 운은 따르지 않는 이 슬픈 처녀의 노래를 들어주소서. 당신이라는 두 개의 태양 빛 아래서 제 영혼은 타들어 가고 있나이다. 당신은 모험을 찾아 나서며 타인의 불행을 마주하고, 상처를 입히면서도 그 상처를 치유할 약은 내어주지 않으시는군요. 용맹한 청년이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갈망을 보살펴주시길 빌며 내게 답해주소서. 당신은 리비아에서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하카의 산맥에서 자라났습니까? 혹시 뱀의 젖을 먹고 자랐나요? 운 좋게도 거친 밀림과 험준한 산맥이 당신을 길

러준 유모였습니까? 풍만하고 건강한 처녀인 둘시네아가 사나운 호랑이와 야생의 맹수를 굴복시켰다고 자부해도 좋을 만하군요. 그렇기에 그녀의 명성은 에나레스에서 하라마까지, 타호강에서 만사나레스까지, 피수에르가에서 아를란사까지 널리 퍼질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그녀와 바꿔주신다면, 금색 줄무늬로 장식된 제 옷 중 가장 화려한 치마까지 얹어 드리겠나이다. 아, 당신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그게 아니라면 당신의 침대 곁에서 머리를 긁어 드리며 비듬이라도 털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으로 큰 욕심이며, 제게는 과분한 은총임을 잘 압니다. 그저 당신의 발이라도 받들 수 있다면, 비천한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나이다. 오, 제가 당신께 얼마나 많은 머리 장식과 은색 신발, 다마스크 비단 바지와 홀란드 천으로 지은 짧은 외투를 바칠 수 있을까요! 저마다 오배자만큼이나 큼직한 더없이 고운 진주들을 수없이 바치리니, 짝이 없다면 저마다 '유일한 진주'라 불릴 만한 것들이지요! 라만차의 네로여, 당신의 타르페야 바위 위에서 나를 태우는 이 불길을 구경하듯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의 잔인함으로 그 불길을 더 키우지도 마소서. 저는 그저 어린 소녀일 뿐, 아직 여린 처녀입니다. 제 나이는 열다섯을 넘지 않아요. 하느님과 제 영혼을 걸고 맹세컨대, 저는 열네 살 하고도 석 달이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절뚝거리지도, 다리를 저는 것도, 팔이 불편한 것도 아니랍니다. 백합처럼 긴 머리카락은 서 있으면 바닥까지 끌릴 정도지요. 비록 입은 매부리처럼 휘었고 코는 조금 납작하지만, 토파즈 같은 제 치아는 제 아름다움을 하늘 끝까지 드높여 준답니다. 제 목소리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목소리에 뒤지지 않으며, 키는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랍니다. 이 모든 것과 저의 다른 매력들은 당신의 화살통이

거둔 전리품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집의 시녀이며, 이름은 알티시도라라고 합니다."

이로써 상처 입은 알티시도라의 노래가 끝났다. 노래를 들은 돈키호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아, 어찌 이리도 불행한 방랑자란 말인가! 나를 바라보는 처녀라면 누구든 나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또한, 비할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어찌 이리도 운이 없는 것인가! 나의 이 독보적인 절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녀를 홀로 내버려 두는 이조차 없다니! 여왕들이여, 그녀를 무엇 때문에 원하십니까? 황후들이여, 그녀를 왜 쫓아다니는 것입니까? 열네 살, 열다섯 살 먹은 어린 처녀들이여, 그녀를 왜 괴롭히는 것입니까? 제발, 제발 이 가련한 여인이 승리하게 내버려 두소서! 사랑이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내 영혼을 바치게 함으로써 얻은 이 행운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하게 해달란 말입니다! 사랑에 빠진 무리들이여, 똑똑히 보시오! 오직 둘시네아에게만 나는 반죽과 엿처럼 말랑한 존재이나,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부싯돌처럼 딱딱한 존재일 뿐이오! 그녀에게 나는 달콤한 꿀이지만, 당신들에게 나는 쓴 쑥일 뿐이라오! 나에게 있어 둘시네아만이 아름답고, 영리하며, 고결하고, 용맹하며, 귀한 신분의 여인이오. 나머지 여인들은 추하고, 어리석고, 경박하며, 천한 혈통일 뿐이지!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녀의 사람이 되도록, 자연은 나를 이 세상에 던져 놓았단 말이오! 알티시도라가 울든 노래하든 상관없소. 마법에 걸린 무어인의 성에서 나를 두들겨 맞게 했던 그 마님께서 절망하시든 말든 상관없단 말이오! 세상의 그 어떤 마

법의 권능이 막아선다 해도, 삶기든 구워지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깨끗하고 예의 바르며 정직하게 반드시 둘시네아의 사람이 될 것이니!”

말을 마친 그는 창문을 쾅 닫아버렸다. 마치 커다란 불행이라도 닥친 듯 분하고 슬픈 기색이 역력한 채로 그는 침대에 누웠다. 일단은 그를 그대로 두기로 하자. 이제 그 유명한 통치를 시작하려는 산초 판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제45장



제45장. 위대한 산초 판사가 어떻게 자신의 섬을 다스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시작했는지에 대하여

오, 영원히 대륙의 반대편을 찾아내는 발견자여, 세상의 도끼여, 하늘의 눈이여, 수통을 달콤하게 흔드는 자여, 여기서는 팀브리오요 저기서는 페보요, 이쪽에서는 당기는 자요 저쪽에서는 의사요, 시의 아버지이자 음악의 창시자여! 당신은 언제나 나타나지만, 나타난 듯하면서도 결코 멈추는 법이 없구려! 내가 말하는 대상은 바로 당신, 인간이 인간을 낳을 수 있게 돕는 저 태양이오! 태양이여, 부디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재주를 밝혀주어, 위대한 산초 판사가 통치하는 이야기를 구석구석 빈틈없이 서술할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저 미지근하고 어리석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존재가 될 뿐이오.

요컨대, 산초 판사는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마을 주민이 천 명에 달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곳은 공작이 소유한 영지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였다.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이 바라타리아 섬이라고 알려주었다. 마을 이름이 바라타리오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헐값에 통치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마을 관리들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주민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사람들은 아주 성대하게 산초를 대성당으로 모셔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그 후에는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마을의 열쇠를 그에게 전달하고, 그를 바라타리아 섬의 영구적인 통치자로 임명했다.

새로운 통치자의 옷차림과 수염, 체구와 키는 사람들을 무척이나 놀라게 했다. 이 이야기의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속사

정을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조차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성당에서 데리고 나와 재판석으로 안내한 뒤 그를 앉혔다. 그러자 공작의 집사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치자님, 이 섬에는 오래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섬의 통치권을 맡으러 오시는 분은 반드시 질문 하나에 답해야만 합니다.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이지요. 그 답변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통치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가늠해 보곤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람들은 통치자의 취임을 기뻐하기도 하고, 혹은 실망하기도 합니다."

집사가 산초에게 이 말을 하는 동안, 산초는 자신의 의자 맞은편 벽면에 쓰인 크고 많은 글자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글을 읽을 줄 몰랐던 산초는 벽에 그려진 저 그림들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통치자님, 저기에는 통치자님께서 이 섬의 통치권을 맡으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요. '오늘,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산초 판사님이 이 섬의 통치권을 맡으셨으니, 부디 오랫동안 이 섬을 잘 다스리시기를.'"

"그런데 산초 판사라는 분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산초가 물었다.

"통치자님을 말하는 겁니다." 집사가 대답했다. "이 섬에는 지금 저 의자에 앉아 계신 분 말고는 다른 판사라는 분은 없으니까요."

"이보게, 형씨. 하나 알아두게나." 산초가 말했다. "나한테는 '돈'이라는 게 붙지 않네. 우리 집안 내력 전체를 통틀어도 그런 건 없었거든. 그냥 다들 나를 산초 판사라고만 불렀지. 내 아버지도 산초였고, 할아버지도 산초였네. 다들 이름 뒤에 '돈'이니 뭐니 하는 거창한 수식어 하나 없이 그냥 판사였단 말일세. 내 짐작건대 이 섬에는 돌멩이보다 '돈'이 더 많을 것 같긴 하네만, 뭐 됐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만약 내가 통치자 자리를 딱 나흘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섬에 넘쳐나는 그놈의 '돈'들을 싹 다 뽑아버리고 말 테니까. 워낙 많아서 모기 떼처럼 사람을 괴롭힐 게 분명하거든. 집사 양반, 질문을 계속하게나. 백성들이 기뻐하든 말든, 내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 대답해 줄 테니 말이야."

그 순간 두 남자가 재판장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농부 차림이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가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단사였다. 재단사가 말했다.

"통치자 나리, 저와 이 농부 양반이 나리 앞에 온 것은 어제 이 사람이 제 가게에 들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양해를 구하건대, 저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숙련된 재단사입니다만,) 이 사람이 제 손에 옷감 한 조각을 쥐여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 정도 옷감이 있으면 내 모자 하나를 만들기에 충분하겠나?' 제가 옷감을 더듬어 보고는 그렇다고 대답했지요. 그런데 제 짐작이 맞다면, 이 사람은 제가 분명 옷감 일부를 가로채려 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본인의 심보가 뒤틀린 데다 재단사들을 나쁘게 보는 세간의 평판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옷감이 두 개 분량은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저에게 되물었

습니다. 저는 그 속내를 알아채고 그렇다고 답했지요. 그러자 이 사람은 그 못된 첫 의도를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모자 개수를 늘려갔고, 저도 계속 그렇다고 대답하다 보니 어느덧 모자가 다섯 개나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사람이 그 모자들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모자를 주겠다는데, 이 사람은 제 수공비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돈을 내놓거나 옷감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형씨, 이야기가 정말 다 그렇다는 말씀이오?" 산초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리." 그 남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나리께서 저 사람이 만든 모자 다섯 개를 직접 보여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꺼이 그러지요." 재단사가 대답했다.

그러고는 즉시 품 안에서 손을 꺼내더니, 다섯 손가락 끝에 모자 다섯 개를 하나씩 씌워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이 선량한 분께서 요구하신 모자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 양심을 걸고 맹세컨대, 옷감은 단 한 조각도 남지 않았습니다. 옷을 다 만들고 나면 업계 감독관들이 보는 앞에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단사가 말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자 다섯 개가 얹힌 손가락과 새로 터져 나온 분쟁을 보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산초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이 분쟁을 길게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소. 그저 선량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즉시 판결을 내려야겠소. 그러니 내 판결을 내리겠소. 재단사는 수공비를 포기하고, 농부는 옷감을 포기하시오. 그리고 이 모자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가져다주시오. 판결은 이것으로 끝이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앞선 판결이 축산 농가의 주머니를 털어버린 셈이라 지켜보던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면, 이번 판결은 사람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어쨌든 통치자가 명령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두 노인이 통치자 앞에 나타났다. 한 명은 갈대를 지팡이 삼아 짚고 있었는데, 지팡이가 없는 노인이 말했다.

"나리, 이 선량한 사람에게 며칠 전 금 10 에스쿠도를 빌려주었습니다. 그가 기분 좋게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려던 것이었지요. 다만 제가 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이 제가 돈을 빌려줄 때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한동안은 돌려달라는 말을 아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빚 갚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부정하며, 그런 10 에스쿠도를 빌린 적도 없고 설령 빌렸더라도 이미 다 갚았다고 잡아뗍니다. 빌려준 것도, 갚았다는 것도 증명할 증인이 없습니다. 그가 돈을 갚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이 사람에게 엄중히 맹세하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가 돈을 다 갚았다고 맹세한다면, 저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지팡이가 없는 노인이 말했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초가 말했다.

그 노인이 대답했다.

"나으리, 제가 빌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나으리께서는 그 지팡이를 내려주십시오. 저분이 제 맹세에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저는 그 돈을 정말로 진실되게 다 돌려주고 갚았다고 맹세하겠습니다."

통치자가 지팡이를 내리자, 그사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노인은 다른 노인에게 지팡이를 건네주었다. 마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이 무척이나 버거운 듯, 맹세를 하는 동안 잠시 지팡이를 붙잡아 달라는 몸짓이었다. 그러고는 지팡이에 달린 십자가에 손을 얹으며, 요구받은 에스쿠도 열 개를 빌린 것은 사실이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돈을 직접 돌려주었으며, 다만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바람에 자꾸만 다시 달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위대한 통치자는 채권자에게 상대방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하는 말이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보기에 채무자는 선량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돈을 언제 어떻게 돌려주었는지 채권자 본인이 잊어버린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채무자는 다시 지팡이를 받아 들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을 나갔다.

산초는 채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모습과 원고의 인내심 있는 태도를 보고는, 고개를 가슴 쪽으로 숙였다. 그러고는 오른손 검지를 눈썹과 코 위에 올린 채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이내 고

개를 들고는 이미 떠나버린 지팡이 든 노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노인이 다시 불려 왔고, 산초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좋은 분이여, 저에게 그 지팡이를 주시오. 저에게 꼭 필요하니 말이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나으리."

그는 산초의 손에 지팡이를 쥐여주었다. 산초는 지팡이를 받아 들고는 다른 노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값은 이미 치렀으니 가보시오."

"저 말입니까, 나으리?" 노인이 대답했다. "그럼, 이 갈대 지팡이가 황금 10에스쿠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고말고요." 통치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가는 멍청이입니다. 자, 이제 내가 온 나라를 다스릴 만한 머리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지요."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갈대를 쪼개어 열어 보이라고 명령했다. 명령대로 갈대를 쪼개자, 그 속에서 황금 10에스쿠도가 나왔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고, 자신들의 통치자가 마치 솔로몬의 재림이라도 된 듯이 우러러보았다.

사람들은 그 갈대 지팡이 안에 황금 10에스쿠도가 들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산초는 이렇게 대답했다. 맹세를 하던 노인이 맹세를 하는 동안 자기 상대편 노인에게 그 지팡이를 건네주고는, 그 돈을 정말로 틀림없이 돌려주었다고 맹세하더니, 맹세를 마치자마자 다시 그 지팡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 속에 그들이 다투던 돈이 들어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 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스리는 자가 비록 멍청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이다. 게다가 산초는 고향의 신부에게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초는 기억력이 어찌나 좋은지, 만약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이 섬 전체를 통틀어도 그만한 기억력을 가진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한 노인은 망신을 당하고 다른 노인은 돈을 받아, 둘 다 자리를 떠났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고, 산초의 말과 행동과 몸짓을 기록하던 서기(書記)는 그를 멍청이로 여겨야 할지 영리한 사람으로 여겨야 할지 도무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재판이 끝나자마자, 부유한 목축업자 차림을 한 남자를 꽉 붙든 한 여인이 재판장 안으로 들어왔다. 여인은 큰 소리로 외치며 들어왔다.

"통치자님, 정의를 베풀어 주소서! 정의를! 만약 이 땅에서 정의를 찾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라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오, 내 영혼의 통치자시여! 이 나쁜 남자가 들판 한가운데서 저를 붙들더니, 마치 덜

빤 걸레를 다루듯 제 몸을 함부로 유린했습니다. 아, 이 불행한 여편네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 남자는 제가 이십삼 년 넘게 지켜온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무어인과 기독교인, 현지인과 이방인 모두로부터 필사적으로 지켜온 것을 말입니다! 저는 코르크 나무처럼 단단하게 버텼고, 불속의 도마뱀처럼, 혹은 가시덤불 속의 양털처럼 제 몸을 온전히 보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얀 사람이 이제 와서 깨끗한 손을 가진 척하며 저를 이토록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양반 손이 정말 깨끗한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해 봐야 할 문제군요." 산초가 말했다.

산초는 다시 그 남자에게 돌아가, 여인이 제기한 불평에 대해 그가 뭐라고 말하고 대답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몹시 당황하며 대답했다.

"여러분, 저는 돼지를 키우는 가난한 축산 농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리자면, 돼지 네 마리를 팔고 이 마을을 나서던 길이었지요. 그런데 세금이며 갖은 명목으로 떼인 돈이 돼지값에 조금 못 미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제 마을로 돌아가던 중에 길에서 이 고운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엉키게 하고 들쑤셔 놓는 악마의 장난인지, 하필이면 우리가 함께 몸을 섞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인에게 충분한 값을 치렀는데도, 부인은 흡족하지 않았는지 저를 붙들고는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제가 부인을 억지로 범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맹세코, 혹은 맹세하려 하는 바를 걸고 말씀드리

건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전부 진실입니다."

그러자 통치자는 그에게 은전이 좀 있는지 물었다. 그는 품 안의 가죽 주머니에 20두카도 정도가 들어 있다고 대답했다. 통치자는 그 주머니를 꺼내어 있는 그대로 고소인에게 건네주라고 명령했다. 남자는 벌벌 떨며 그 명령을 따랐다. 여인은 주머니를 받아 들고는, 가련한 고아와 처녀들을 그토록 보살펴 주시는 통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사람들에게 온갖 굽실거리는 인사를 올렸다. 그러고는 주머니 안에 든 동전이 정말 은전인지 슬쩍 확인한 뒤, 양손으로 주머니를 꼭 쥐고 재판장을 나갔다.

여인이 나가자마자 산초가 축산 농부에게 말했다. 농부는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눈도 마음도 주머니를 따라가 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이보게, 저 여자를 쫓아가서 여자가 싫다고 하더라도 주머니를 뺏어 오게나. 그러고 나서 주머니를 가지고 이리로 돌아오게.”

산초의 말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농부는 번개처럼 달려 나가시키는 대로 곧장 움직였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와 여자가 다시 나타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서로를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이었다. 여자는 치맛자락을 들어 올린 채 무릎 위에 주머니를 꼭 얹고 있었고, 남자는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

다. 하지만 여자가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통에 도무지 틈이 나지 않았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과 세상의 정의를 보소서! 통치자님, 저 무도한 놈이 얼마나 염치도 없고 겁도 없는지 좀 보십시오. 마을 한복판, 그것도 길 한가운데서 통치자님께서 제게 주라고 명하신 주머니를 빼앗으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놈이 주머니를 빼앗아 갔습니까?" 통치자가 물었다.

"빼앗다니요?" 여자가 대답했다.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머니를 빼앗기지는 않을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다른 고양이들이 내 수염을 건드리는 한이 있어도, 이 불행하고 역겨운 놈에게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집게와 망치, 둔기와 곡괭이를 다 동원해도, 아니 사자의 발톱을 가져온다 해도 제 손톱에 꽉 쥔 이 주머니를 뺏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차라리 제 살점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게 빠를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이 맞습니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이제 항복하겠습니다. 기운도 다 빠졌고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저 주머니를 뺏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니, 그냥 그 여자에게 돌려주시오."

그러자 통치자가 여자에게 말했다.

"정직하고 용감한 여인이여, 그 주머니를 보여주시오."

여자는 곧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그러자 통치자는 그 주머니를 남자에게 돌려주며, 기운은 넘쳤으되 정작 욕은 보지 않은 그 여인에게 말했다.

“자매여, 이 주머니를 지키겠다고 보여준 그 기개와 용기를, 절반만이라도 당신의 몸을 지키는 데 쓴다면 헤라클레스의 힘도 당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며 어서 가시오. 이 섬은 물론이고 사방 6레구아 내로는 절대 발도 들이지 마시오. 만약 어긴다면 채찍으로 200대를 맞을 줄 아시오! 어서 가란 말이다, 이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기꾼 계집아!”

여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떨군 채 기분이 상해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통치자가 남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돈을 챙겨서 하나님의 가호 아래 어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누구와도 동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남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서툰 방식으로 감사를 표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새 통치자의 판결과 판결문에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기록자는 곧장 공작에게 이 내용을 글로 써서 보냈다. 공작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착한 산초는 여기 남겨두기로 하자. 알티시도라의 음악에 마음이 잔뜩 들뜬 그의 주인이 우리를 몹시 재촉하고 있으니 말이다.

제46장



제46장. 알티시도라의 사랑 고백을 듣던 돈키호테가 방울 소리와 고양이 떼의 습격에 경악하며 겪은 공포에 대하여

우리는 사랑에 빠진 처녀 알티시도라의 노래에 마음을 빼앗긴 위대한 돈키호테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하자. 그는 그 생각들에 휩싸인 채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 생각들은 마치 벼룩처럼 굴며 그를 한시도 잠들지 못하게,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게 괴롭혔다. 게다가 올이 나가 코가 빠져버린 양말 걱정까지 거기에 더해졌다. 하지만 시간은 가볍게 흐르고 그 무엇도 그것을 막아 세울 수 없는 법이라, 시간은 기사가 말을 달리듯 시각들 위를 내달려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

아침이 온 것을 확인한 돈키호테는 부드러운 깃털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전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올이 나간 양말의 낭패를 감추려 사슴 가죽빛 옷을 챙겨 입고 여행용 장화를 신었다. 그러고는 진홍색 망토를 어깨에 걸치고, 은색 장식이 달린 초록색 벨벳 모자를 머리에 썼다. 잘 들고 훌륭한 검을 찬 검대를 어깨에 둘러메고, 늘 지니고 다니던 커다란 묵주를 손에 쥐었다. 그는 아주 거드름을 피우며 위풍당당하게 걸음을 옮겨 앞방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공작과 공작부인이 이미 옷을 차려입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알티시도라와 그녀의 친구인 다른 처녀가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티시도라는 돈키호테를 보자마자 실신한 척 쓰러졌고, 친구는 서둘러 그녀를 치맛자락으로 받쳐 안으며 옷의 가슴 부분을 풀어주려 했다. 이 광경을 본 돈키호테가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친구가 대답했다. "알티시도라는 이 저택에서 가장 건강한 처녀거든요. 제가 아는 동안 그녀가 '아이고' 하고 앓는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어요. 세상의 편력기사들이 다들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면, 그런 기사들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돈키호테 님, 이만 가보세요. 당신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이 가련한 처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테니까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부인, 오늘 밤 제 방에 류트를 한 대 가져다 놓아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상처 입은 처녀를 위로하겠습니다. 사랑의

초입에서는 신속한 환멸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처방약이 되는 법이니까요."

돈키호테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혹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띌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채 멀리 떨어지기도 전에, 정신을 차린 알티시도라가 동료에게 말했다.

"류트를 가져다 놓아야겠어요. 돈키호테께서 분명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모양인데, 그분이 직접 연주하신다면 분명 좋은 음악일 테니까요."

그들은 곧바로 공작부인에게 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돈키호테가 류트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공작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 즐거워하며, 공작 및 시녀들과 의논하여 돈키호테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웃음을 자아내는 장난을 치기로 계획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밤은 낮이 지나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찾아왔고,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공작부인은 숲에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본뜬 마법의 형상을 만들어 둔 자신의 시종을 불러 테레사 판사에게 보냈다. 시종은 산초 판사의 편지와 그가 보내달라고 맡겨둔 옷 꾸러미를 가지고 테레사 판사에게 갔다. 공작부인은 시종에게 테레사 판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상세히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준비를 마친 뒤 밤 열한 시가 되자, 돈키호테는 자신의 방에서 비우엘라를 하나 찾아냈다. 그는 악기의 줄을 조율하고 창살을 열었다. 그러다 정원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느꼈다. 돈키호테는 비우엘

라의 줄을 하나하나 훑으며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음을 맞추었다. 그러고는 침을 뱉어 가슴을 정돈하더니, 갈라진 듯하면서도 제법 운치 있는 목소리로 그날 직접 작곡했다는 다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랑의 힘은 방심하여 생긴 게으름을 도구 삼아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곤 한다. 바느질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늘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갈망이라는 독을 해독하는 약이 된다. 시집가기를 꿈꾸는 정숙한 처녀들에게는 정조야말로 가장 큰 지참금이요, 칭송의 근원이 된다. 편력기사들이나 궁정을 드나드는 이들은 자유분방한 여인과는 사랑을 희롱하고, 정숙한 여인과는 혼인한다. 동쪽에서 떠올랐다 손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사랑은 서쪽으로 금방 저물어버리기 마련인데, 이는 이별로 끝을 맺기 때문이다. 오늘 찾아왔다가 내일이면 떠나버리는 풋사랑은 영혼에 그 형상을 깊이 새겨두지 못한다. 마치 그림 위에 그림을 덧칠하는 격이라,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고 알아볼 수도 없다. 첫 번째 아름다움이 이미 자리를 잡은 곳에는 두 번째 아름다움이 끼어들 틈이 없다. 하지만 내 영혼에 새겨진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마치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판에 새긴 듯하여, 도저히 지울 수가 없다. 연인에게 있어 변치 않는 마음은 가장 귀한 덕목이며, 그 덕목 덕분에 사랑은 기적을 일으키고 연인을 드높인다.

돈키호테가 노래를 마칠 무렵, 공작 부부와 알티시도라, 그리고 성안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의 노래를 경청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돈키호테의 창살 바로 위로 솟아 있는 회랑에서 갑자기 줄 하나가 내려왔다. 그 줄에는 백 개가 넘는 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뒤이어 꼬리에 작은

방울을 매단 고양이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자루가 쏟아져 내렸다. 방울 소리와 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이 장난을 계획한 공작 부부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다. 돈키호테는 겁에 질려 망연자실해 있었다. 운 나쁘게도 고양이 두세 마리가 방 창살 사이로 들어오더니,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마 떼가 방 안을 휘젓고 다니는 듯했다. 고양이들은 탈출할 곳을 찾아 헤매느라 방 안의 촛불을 꺼뜨려 버렸다. 커다란 방울들이 달린 줄은 끊임없이 내려왔다 올라가기를 반복했다. 이 소동의 전말을 모르는 성안의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돈키호테는 벌떡 일어나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창살 사이로 칼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물러가라, 사악한 마법사들아! 물러가라, 비열한 술사 놈들아!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다. 너희의 그 못된 계략 따위는 나를 상대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이다!"

돈키호테는 방 안을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향해 다시 칼을 여러 번 휘둘렀다. 고양이들은 창살 쪽으로 달려가 그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중 한 마리는 돈키호테의 칼날에 거세게 몰리자, 그의 얼굴로 뛰어올라 손톱과 이빨로 코를 꽉 움켜쥐었다. 코가 뜯겨나갈 듯한 통증에 돈키호테는 비명을 지를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들은 공작과 공작부인은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는 서둘러 그의 방으로 달려갔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가련한 기사가 얼굴에 달라붙은 고양이를 떼어내려고 온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등불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이 기묘하고도 불균형한 싸움을 지켜보았다. 공작이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서자, 돈키호테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악마 같은 놈, 이 술사 놈, 이 마법사 놈과 단둘이 맞붙게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누구인지, 이놈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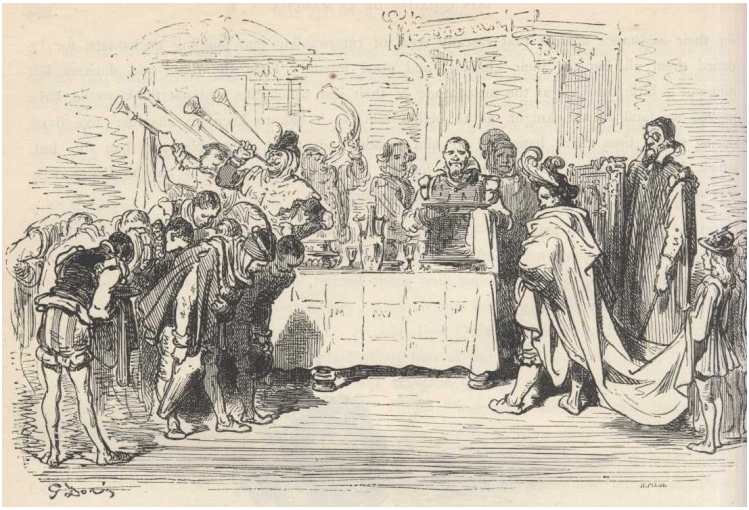
하지만 고양이는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코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결국 공작이 고양이를 떼어내어 창살 밖으로 던져버리고서야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돈키호테의 얼굴은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코도 꽤 심하게 다쳤다. 하지만 그는 그 악랄한 마법사 놈과 한창 치열하게 싸우던 도중에 방해를 받아 전투를 끝내지 못한 것이 못내 분하고 억울했다. 사람들은 아파리시오의 기름을 가져오게 했고, 알티시도라가 직접 그 하얗고 고운 손으로 상처 부위마다 붕대를 감아주었다. 붕대를 감아주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 모든 악재는 고집불통 기사님께서 너무 완고하고 억척스럽게 구신 죄 때문이에요. 부디 신께서 당신의 종자인 산초 판사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일을 잊게 해주시길 빌어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둘시네아는 결코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당신은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저처럼 당신을 흠모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녀와 침소에 드는 일도 영영 없을 거예요."

돈키호테는 이 모든 말에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쉴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침상에 몸을 뉘이며 공작 부부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그가 그 고양이 같은 악랄하고 마법을 부리는 녀석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도우러 온 이들의 선한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가 안정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고 자리를 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장난이 이토록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 못내 마음을 무겁게 여겼다. 하지만 이번 모험이 돈키호테에게 이토록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닷새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닷새 동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즐거운 또 다른 모험이 그에게 찾아왔다. 기록자인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전하기보다, 통치 업무를 아주 정성스럽고 재치 있게 수행하고 있는 산초 판사를 먼저 돌보러 가기로 했다.

제47장



제47장. 산초 판사가 통치자로서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장

이야기에 따르면, 재판소에서 산초 판사를 화려한 궁전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의 커다란 홀에는 아주 깨끗하고 호사스러운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산초가 홀에 들어서자마자 축제용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네 명의 시종이 나와서 손을 씻을 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산초는 아주 엄숙한 태도로 그 물을 받았습니다.

음악 소리가 멎자, 산초 판사는 식탁의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 외에는 다른 자리가 없었고, 식탁 위에는 다른 차림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인물이 산초의 곁에 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고래뼈로 만든 막대를 손에 든 의사였습니다. 과일과 온갖 진미가 담긴 수많은 접시 위를 덮고 있던 아주 하얗고 호사스러운 식탁보가 걷혔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는 한 청년이 축복 기도를 올렸고, 시종 한 명은 산초에게 자수가 놓인 앞치마를 둘러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시종장 역할을 맡아 산초 앞에 과일 접시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산초가 딱 한 입을 먹으려던 찰나, 막대를 든 남자가 접시를 툭 치자 시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접시를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종장이 다른 진미가 담긴 접시를 다시 가져다주었습니다. 산초가 그것을 맛보려 했으나, 입에 대기도 전에 막대가 다시 접시를 쳤고, 시종은 과일 접시를 치웠을 때처럼 재빨리 접시를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산초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혹시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요술쟁이의 눈속임 같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막대를 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통치자님. 그저 다른 섬의 통치자들이 관례와 풍습에 따라 하는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섬의 통치자분들을 돌보라는 명을 받고 이곳에 고용되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통치자님의 체질을 살피며, 혹여 병이 드셨을 때 정확히 치료할 수 있

도록 제 건강보다 통치자님의 건강을 훨씬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치자님의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통치자님께 이롭다고 판단되는 음식은 드시게 하고, 위장에 해롭거나 해가 될 것 같은 음식은 치우는 일이지요. 그래서 방금 과일 접시를 치우라고 명한 것입니다. 과일은 습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진미가 담긴 접시 역시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은 너무 뜨거운 데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 있어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생명이 깃든 근본적인 습기를 죽이고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기 구워져 있는 저 메추라기 접시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간도 아주 잘 맞는데, 저것이 제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의사가 대답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통치자께서는 저것들을 드시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초가 물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의학의 지침이자 빛이신 우리 스승 히포크라테스께서 격언으로 말씀하시길, '모든 과식은 해로우나,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 과식은 더욱 해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이든 배가 너무 부르면 해롭지만, 특히 메추라기 고기로 배를 채우는 것은 최악이다'라는 뜻이지요."

"정 그렇다면," 산초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 식탁에 차려진 진미들을 쭉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제게 가장 이롭고 어떤 것이 해가 적을지 직접 골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음식을 막대로 쳐서 제게서 빼앗는 일 없이 마음껏 먹게 내버려 두십시오. 통치자로서 제 명예를 걸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누리게 해 주시길 빌며 맹세하건대, 저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선생님께서 아무리 못마땅해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게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제 생명을 늘려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앗아가는 짓입니다."

"통치자께서 말씀이 옳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저기 놓인 토끼 고기 요리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소화하기에 아주 까다로운 음식이라서 말입니다. 저 송아지 고기로 말하자면, 굽거나 양념에 재운 것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한번 맛볼 만했을 텐데,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저 앞에 김을 모락모락 내며 놓인 커다란 접시를 보니, 분명 온갖 재료를 다 넣고 끓인 진한 고기 국물 요리인 것 같습니다. 저런 요리에는 들어가는 재료가 워낙 다양하니, 그중에는 분명 제 입맛에도 맞고 몸에도 좋은 것이 하나쯤은 있겠지요."

"안 됩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런 불길한 생각은 당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세상에 온갖 재료를 다 때려 넣고 끓인 요리만큼 몸에 해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요리는 성당 참사회원들이나 학교의 학장들, 혹은 시골 농부들의 결혼 잔치에나 가져다주시고, 온갖 정갈함과

세련됨이 깃들어야 할 통치자의 식탁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복합적인 약보다는 단순한 약재가 훨씬 더 귀하게 대접받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은 실수할 염려가 없지만, 복합적인 것은 재료의 배합 비율이 조금만 틀어져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우리 통치자께서 건강을 지키고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드셔야 할 음식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 줄 가느다란 수플리카시온스 과자 백 개와 얇게 썬 모과 정과 몇 조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산초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더니, 그 의사라는 자를 눈을 부릅뜨고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엄중한 목소리로 그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공부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통치자님, 제 이름은 페드로 레시오 데 아구에로 박사입니다. 카라쿠엘과 알모도바르 델 캄포 사이 오른편에 있는 티르테아푸에라라는 곳 출신이지요. 오수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산초가 분노로 몸을 떨며 대답했다.

"이보시오, 티르테아푸에라 출신 페드로 레시오 데 말 아구에로 박사님, 카라쿠엘에서 알모도바르 델 캄포로 가는 길 오른편에 있다는 그곳 말입니다. 오수나에서 학위까지 따셨다면서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안 그러면 맹세코 몽둥이를 들고서 당신부터 시작해 이 섬에 있는 의사 놈들을 몽둥이로 다 때려잡아 버릴 테니까. 적어도 내가 보기에 무식한 놈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 거요. 현명하고 신

중하며 식견 있는 의사라면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신처럼 받들겠지만 말이오. 다시 말하지만 페드로 레시오, 당장 여기서 꺼지시오! 안 그러면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를 들어 당신 머리에 내리쳐 버릴 테니 말이오. 나중에 내게 책임을 묻는다면, 백성의 적이자 악한 의사를 죽여 하느님께 봉사했다고 당당히 말하겠소. 그러니 어서 음식을 가져오시오. 안 그러면 당신네 직업 따위 집어치우시오. 주인에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못 가져다주는 직업은 콩 두 알만큼의 가치도 없으니까!"

의사는 통치자가 이토록 분노하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방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리에서 파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시종장이 창가로 몸을 내밀어 내다보더니 돌아서서 말했다.

"나의 주인이신 공작님께서 보내신 전령이 왔습니다. 분명 중요한 서신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전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겁에 질린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품속에서 서류 한 통을 꺼내 통치자의 손에 쥐여주었다. 산초 판사는 그 서류를 다시 집사에게 건네며, 봉투 겉면에 적힌 내용을 읽으라고 명령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 돈 산초 판사 귀하,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비서에게 전달할 것.' 그 내용을 들은 산초 판사가 말했다.

"여기 내 비서는 누구인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인님. 저는 읽고 쓸 줄 아는 비스카야 사람입니다."

"그 말까지 보태면," 산초가 말했다. "황제 폐하의 비서라도 맡으시겠군요. 자, 그 서류를 펼쳐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직접 보십시오."

새로 임명된 비서가 말한 대로 서류를 펼쳤다. 내용을 다 읽은 비서는 이 일은 단둘이서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산초는 방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집사와 시종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나가게 했으며, 의사도 물러나게 했다. 그러고 나서 비서는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돈 산초 판사 님, 제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의 적들이자 그 섬의 적인 무리가 어느 날 밤엔가 무시무시한 습격을 감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불시에 당하지 않도록 밤을 새워 경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또한 믿을 만한 첩자들을 통해, 당신의 기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변장을 한 채 네 명이나 그곳에 잠입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누가 당신에게 말을 걸러 오는지 잘 살피시고, 누가 내놓는 음식이든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곤경에 처한다면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분별력에 걸맞게 모든 일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8월 16일 새벽 4시에."

당신의 친구로부터.

공작.

산초 판사는 어안이벙벙해졌고, 곁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산초는 다시 집사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레시오 의사를 지하 감옥에 처넣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 그건 바로 저놈이어야 한다. 그것도 굶주림처럼 아주 비열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말이다."

"또한," 궁정 시종장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인님께서 이 상에 차려진 음식을 전부 드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녀들이 가져온 음식이라, 흔히들 말하듯 십자가 뒤에 악마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일단 빵 한 조각이랑 포도 네 파운드 정도만 가져다주시오. 포도에는 독이 들었을 리 없으니까 말이오. 사실 저는 먹지 않고는 못 배기겠소. 우리를 위협하는 이 전투들에 대비해 언제든 나설 준비를 하려면 잘 먹어둬야 하지 않겠소? 창자가 있어야 심장이 뛰는 법이지, 심장이 있다고 창자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말이오. 그리고 서기 양반, 내 주인이신 공작님께 가서 공작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전하시오. 아울러 공작부인께는 내 대신 손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전해주고, 내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내 편지와 짐을 보내는 일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주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 큰 은혜로 여기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정성을 다해 부인께 봉사하겠소. 가는 길에 내 주인 돈키호테 님께도 손에 입을 맞추는 인사를 전해주시오. 내

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하니까 말이오. 서기 양반은 유능한 서기이자 훌륭한 비스카야 사람답게, 필요한 말들을 다 덧붙여서 전해주면 되겠소. 자, 어서 이 식탁보를 치우고 나에게 음식을 가져다주시오! 나를 향해, 혹은 내 섬을 향해 어떤 스파이나 암살자, 마법사가 들이닥치더라도 나는 다 맞서 싸울 테니까!"

이때 한 시종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기 볼일이 있어 찾아온 농부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본인 말로는 아주 중요한 용건으로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일 보러 오는 자들은 참으로 별난 부류로군." 산초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찾아와 용건을 늘어놓으려 들다니, 이토록 어리석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처럼 다스리는 사람이나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도 결국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라, 필요할 때는 좀 쉬게 해줘야 하는 법인데 말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건가? 하느님 맙소사, 내 직감이 틀리지 않고 통치자 자리가 오래 유지된다면(내 느낌에는 오래 못 갈 것 같지만), 저렇게 볼일 보러 오는 자들 중 몇 명은 반드시 내 손에 혼쭐이 날 것이야. 일단 저 선량한 분을 들어오라고 전하게. 하지만 혹시라도 저자가 내 스파이나 암살자가 아닌지 먼저 잘 살펴야 하네."

"아닙니다, 주인님." 시종이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아주 순박한 사람처럼 보이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분은 갓 구운 빵처럼 아주 선량한 분인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집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혹시 가능하겠습니까?" 산초가 물었습니다. "지금 페드로 레시오 데 아구에로 의사가 자리에 없으니, 빵 한 조각이나 양파 하나라도 좋으니 제법 든든하고 실속 있는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식사 때 부족했던 만큼 넉넉히 대접해 드릴 테니, 그때가 되면 주인님께서도 충분히 만족하시고 배도 부르실 겁니다." 집사가 말했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농부가 들어왔는데, 인상이 아주 좋고 선량한 심성을 가졌다는 사실이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건넨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곳의 통치자께서 누구십니까?"

"의자에 앉아 계신 분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라고 서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 앞에 몸을 굽혀 예를 갖추겠습니다."라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농부는 무릎을 꿇고는 그 손에 입을 맞추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산초 판사는 손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초는 그에

게 일어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농부는 그 말대로 한 뒤, 곧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레알 시에서 두 레구아 떨어진 미겔 투라 출신의 농부입니다.”라고 농부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티르테아푸에라가 나타났군!" 산초가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형씨. 내가 해줄 말은 딱 하나뿐이오. 미겔 투라는 나도 아주 잘 아는 곳이고, 우리 마을에서도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오."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인님.” 농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가톨릭 로마 성교회의 축복 속에서 평온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도 둘인데, 작은애는 학사 학위를 따려고 공부 중이고 큰애는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얻으려고 공부하고 있지요. 저는 홀아비입니다. 아내가 죽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못난 의사 놈이 아내를 죽인 겁니다. 임신 중인 아내에게 억지로 설사를 유도하는 약을 쓰는 바람에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더라면, 저는 그 아이를 의학 박사로 공부시켰을 겁니다. 그래야 학사가 된 형과 학사 자격을 갖춘 형에게 뒤처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산초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돌아가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죽인 게 아니었다면, 주인님께서 지금 홀아비가 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아닙니다, 주인님.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나가고 있군요!” 산초가 대꾸했습니다. “자, 어서 갑시다, 형제여. 이제는 일을 논할 때가 아니라 잠을 자야 할 시간이라오.”

"그러니까 제 말은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학사가 될 제 아들이 바로 그 마을에 사는 클라라 페를레리나라는 처녀에게 반했다는 겁니다. 그 처녀는 아주 부유한 농부인 안드레스 페를레리노의 딸이지요. 페를레리네스라는 이름은 가문이 높거나 혈통이 좋아서 붙은 게 아닙니다. 그 집안사람들이 모두 중풍 환자라서, 이름을 좀 더 듣기 좋게 부르려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처녀는 정말 동양의 진주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른쪽에서 보면 들꽃처럼 예쁘지요. 왼쪽은 좀 덜합니다. 천연두 때문에 눈 하나를 잃었거든요. 얼굴에 곰보 자국도 많고 크지만, 그 처녀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게 곰보 자국이 아니라 연인들의 영혼을 묻는 무덤이라고들 합니다. 또 얼마나 깨끗한지, 얼굴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코를 치켜올리고 다녀서 마치 코가 입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아주 못생긴 건 아닙니다. 입이 커서, 열 개나 열두 개 정도의 이빨과 어금니만 빠지지 않았더라면 아주 가지런한 이들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니까요. 입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가늘고 섬세해서 실을 뽑는 도구로 쓴다면 실타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지요. 다만 보통 입술 색과는 달라서, 푸른색과 초록색, 그리고 가짓빛이 섞여 있어 마치 기적처럼 보입니다. 주인님, 제 딸이 될 아이의 생김새를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묘사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끼는 아이이고, 제 눈에는 전혀 나쁘지 않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묘사하십시오.” 산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묘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거우니까요. 만약 제가 음식을 먹었더라면, 당신의 초상화만큼 제게 더 좋은 후식은 없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모시는 도리이지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주인님, 만약 제가 그 처녀의 품위와 훤칠한 키를 그려낼 수만 있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처녀의 몸이 너무 굽고 움츠러들어서 무릎이 입에 닿을 정도라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크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랬다면 제 아들이 벌써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다만 손을 뻗을 수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요. 손이 마디마디 옹이처럼 굳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 골이 파인 손톱을 보면 그 처녀의 선량함과 타고난 생김새를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형제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미 다 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빙빙 돌려 말하거나 곁가지를 붙이지 말고, 군더더기 없이 곧장 본론만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제 사돈에게 줄 추천서 한 장만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혼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입니다. 저희는 재산이든 타고난 자질이든 결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통치자님, 제 아들은 귀신이 들린 상태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악령들에게 시달리곤 합니다. 게다가

예전에 불에 데는 바람에 얼굴은 양피지처럼 쭈글쭈글하고 눈은 늘 눈물이 고여 샘물처럼 촉촉합니다. 하지만 성품만큼은 천사처럼 선량합니다. 제 몸을 함부로 때리거나 스스로 주먹질하며 자해하지만 않는다면, 참으로 복된 아이일 것입니다."

"착한 분이여, 또 다른 부탁이라도 있으십니까?" 산초가 되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농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가 송구스럽군요. 그래도 뭐,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병이 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주인님, 제 학사 아들의 지참금을 보태줄 수 있도록 삼백 혹은 육백 두카도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제 말은 아들이 살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돈댁의 간섭도 받지 않고 둘이서 오붓하게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또 원하시는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오." 산초가 말했습니다. "쑥스럽거나 창피하다고 해서 차마 말 못 하고 넘기지는 마시고, 있으면 꼭 말씀하시오."

"아니요, 사실은 더 없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통치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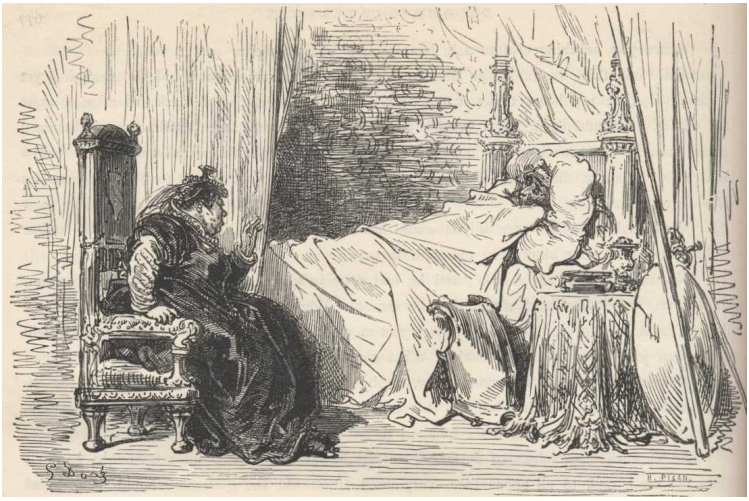
"세상에나, 이 무례하고 못된 시골뜨기 녀석아! 당장 내 눈앞에서 물러나 숨지 않으면, 이 의자로 네 머리통을 확 깨부숴 버리겠다! 이 빌어

먹을 악당 놈, 악마를 그대로 빼닮은 화가 같은 놈아, 이 시간에 와서 600두카도를 달라고? 이 지독한 냄새 나는 놈아, 내가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그리고 이 능청맞고 멍청한 놈아, 내가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왜 너 따위에게 줘야 한단 말이냐? 미겔 투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고, 페를레리네스 가문 전체가 또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내 말하노니, 썩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 주인이신 공작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한 대로 하고 말 테다! 너는 미겔 투라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려고 지옥에서 보낸 교활한 놈이 분명하구나. 이 천하의 악당아, 말해 보아라. 내가 통치를 맡은 지 채 하루 반도 안 되었는데, 벌써 나한테 600두카도를 내놓으라는 것이냐?"

집사가 그 농부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나갔는데, 통치자가 내뿜는 분노를 직접 마주할까 봐 겁에 질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능청스러운 자는 자기 역할을 아주 잘 해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초의 분노는 이쯤 해두고, 이제 소란을 가라앉힌 채 다시 돈키호테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돈키호테의 얼굴에 붕대를 감아주고 고양이에게 할퀸 듯한 상처를 치료해 준 상태에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그 상처는 여드레가 지나도록 아물지 않았는데, 그 여드레 중 어느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이 이야기의 모든 사건을 늘 그렇듯 정확하고 진실하게 들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제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48장



제48장. 돈키호테가 공작부인의 시녀 도냐 로드리게스를 만나 겪은 일과, 기록되어 영원히 기억될 만한 또 다른 사건들

상처를 입은 돈키호테는 기분이 매우 언짢고 우울했다. 얼굴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 상처는 신의 손길이 아니라 고양이 발톱에 할

퀸 것이었다. 기사도 생활을 하다 보면 으레 따라붙는 불운이었다. 그는 엿새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 있던 그는 자신의 불행과 알티시도라의 추격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열쇠로 방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사랑에 빠진 그 처녀가 찾아와 자신의 정조를 흔들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지켜야 할 충성을 저버리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오!" 그는 자신의 상상이 맞다고 믿으며, 남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다 해도, 내 심장 한복판과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새겨진 당신을 향한 숭배를 멈추지는 않겠소! 나의 여인이여, 당신이 투박한 시골 아낙으로 변하든, 황금빛 타호강의 요정이 되어 금실과 명주실로 옷감을 짜고 있든, 혹은 멀린이나 몬테시노스가 당신을 마음대로 어디에 붙들어 두었든 상관없소.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나의 것이며,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의 것이리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렸다. 돈키호테는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섰다. 머리에는 두건을 얹고, 몸 전체에는 노란 공단 이불을 두른 채였다. 얼굴과 콧수염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얼굴은 할퀸 상처 때문에, 콧수염은 힘없이 처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감은 것이었다. 그 모습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한 유령 같았다.

그는 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상처 입고 지친 알티시도라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정작 나타난 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고 하얀 베일로 온몸을 꽁꽁 싸맨 아주 경건한 차림의 노시녀였다.

그녀는 왼손 손가락 사이에 반쯤 타들어 가는 양초 하나를 끼워 들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빛이 눈에 곧장 닿지 않도록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아주 커다란 안경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발을 내디디며 다가왔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요새와 다름없는 침대 위에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인이 아무 말 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저 차림을 한 마녀나 마법사가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러 온 것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성호를 긋기 시작했다. 환영 같은 여인이 다가와 방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돈키호테가 허둥지둥 성호를 긋는 모습을 보았다. 돈키호테가 기괴한 형체를 보고 겁에 질렸다면, 여인 또한 돈키호테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불을 두른 채 높이 솟아 있는 노란 형체에, 붕대까지 감아 얼굴이 엉망이 된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했기 때문이다.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여인은 너무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촛불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몸을 돌렸으나, 그만 자신의 치맛자락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겁에 질린 채 말을 하기 시작했다.

— 유령이든 뭐든 정체를 밝혀라! 네가 누구인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당장 말하란 말이다! 만약 네가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이라면 내게 말해다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나는 가톨릭 신자이며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

문이다. 이를 위해 나는 기사 서약을 했으니, 기사의 도리는 연옥의 영혼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까지도 포함하고 있느니라.

정신이 혼미해진 여인은 자신을 향해 주문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는, 스스로 느낀 두려움으로 미루어 돈키호테 역시 겁에 질려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 돈키호테 나리, 만약 정말로 나리께서 돈키호테 나리시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령도, 환영도, 연옥의 영혼도 아닙니다. 나리께서 생각하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공작부인 마님을 모시는 시녀 도냐 로드리게스라고 합니다. 나리께서 평소에 해결해 주시던 그런 절박한 사정이 생겨서,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 말씀해 보십시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 혹시 어떤 사랑의 중매라도 서러 오신 것입니까? 미리 말씀드리건대, 저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입니다. 제 주인이신 엘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 때문이지요. 요컨대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 사랑에 관한 전언일랑 모두 접어 한쪽으로 치워 두신다면, 다시 촛불을 켜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유혹하려는 교태 따위는 다 제쳐 두고, 부인께서 명령하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모든 일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제가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나리? —시녀가 대답했다.— 저를 너무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린애 같은 장난에 넘어갈 만큼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아직 제 정신은 멀쩡하고, 이빨과 어금니도 입안에 다 잘 붙어 있거든요. 비록 이 아라곤 땅에서는

흔한 일인 감기 때문에 몇 개 좀 빠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나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가서 촛불을 켜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께 제 고민을 다 털어놓겠습니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갔다. 돈키호테는 그녀를 기다리며 차분히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곧 이 새로운 사건에 대해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맹세한 주군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위험에 처하는 것이 도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생각해도 아주 좋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 교활하고 잔꾀가 많은 악마가, 황후나 여왕, 공작부인이나 후작부인, 혹은 백작부인조차 굴복시키지 못한 나를 고작 시녀 한 명으로 유혹해 속이려 드는 건 아닐까? 현명하다는 이들에게서 여러 번 들은 말이지만, 악마는 할 수만 있다면 매부리코 미녀가 아니라 납작코 추녀로라도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하지 않던가. 혹시 이 적막함과 이 상황, 그리고 이 고요함이 잠자던 내 욕망을 깨워,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 없는 구렁텅이로 나를 밀어 넣으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는 싸움을 기다리기보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생각하는 걸 보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 흰 두건을 쓰고 키가 크며 안경을 낀 시녀 따위가, 세상에서 가장 냉혹한 가슴에 음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거나 흔들어 놓을 리가 없지 않은가. 세상에 살결이 고운 시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 주제넘고, 얼굴은 쭈글쭈글하며, 까다롭기 짝이 없지 않은 시녀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니 저 쓸모없는 시녀 떼거리들은 저리 꺼져 버려라, 인간에게 아무런 즐거움도 주지 못하는 것들 같으니! 아, 그 귀부인은 참으로 현명했

구나. 단상 끝에 안경을 쓰고 바느질 쿠션을 갖춘 채 마치 바느질을 하고 있는 듯한 모형 시녀 둘을 세워 두었다니, 그 조각상들이 진짜 시녀들만큼이나 그 방의 위엄을 세워 주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도냐 로드리게스를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문을 닫으려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가 문을 닫으려 할 때, 도냐 로드리게스는 이미 흰 밀랍 양초에 불을 밝힌 채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붕대를 감은 데다 머리에는 두건인지 모자인지 모를 것까지 얹은 돈키호테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는 다시금 겁에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로 두어 발짝 물러나며 말했다.

— 기사님, 저희가 안전한 건가요? 기사님께서 침상에서 일어나신 모습이 도무지 정숙한 신호로는 보이지 않으니 말이에요.

— 오히려 제가 여쭤봐야 할 말씀입니다, 부인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제가 누군가에게 습격당하거나 강제로 범해지는 일은 없을지, 제가 정말 안전한 것인지 여쭙고 싶군요.

— 기사님, 대체 누구에게 혹은 누구로부터 그런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시는 건가요? —도냐 로드리게스가 물었다.

— 바로 당신에게, 당신으로부터 그 안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저도 대리석이 아니고, 부인께서도 청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대낮 열 시도 아니고 한밤중, 제 짐작으로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며, 이곳은 배신자이자 무모한 에네아스가 아름답고 경건한 디도를 탐했던 그 동굴보다도 훨씬 더 폐쇄적이고 은밀

한 방이 아닙니까. 그러니 부인, 제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저는 제 절제와 신중함이 보장하는 안전, 그리고 저 더없이 경건한 베일이 보장해 주는 안전 말고는 더 큰 안전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자신의 오른손에 입을 맞춘 뒤 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도냐 로드리게스 또한 똑같이 예를 갖추어 그에게 손을 내주었다.

여기서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이렇게 말한다.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문에서 침상까지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얽힌 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두 벌의 알말라파(무어식 겉옷) 가운데 더 좋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놓았을 것이라고 말이다.

결국 돈키호테는 침상에 몸을 뉘었고, 도냐 로드리게스는 안경도 벗지 않고 촛불도 내려놓지 않은 채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돈키호테는 몸을 웅크린 채 얼굴만 겨우 내놓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이 조금 가라앉자,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연 쪽은 돈키호테였다.

"도냐 로드리게스 님, 이제 그 괴로운 마음과 상처 입은 속내에 담긴 이야기를 무엇이든 다 털어놓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순결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시녀가 대답했다. “돈키호테 님의 그 고결하고 정중한 풍모를 뵈오니, 분명 이토록 그리스도교적인 답변을 해주

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돈키호테 님. 지금은 제가 이 의자에 앉아 아라곤 왕국 한복판에 있고, 초라하고 고단한 시녀의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저는 본래 오비에도의 아스투리아스 출신으로, 그 지방의 내로라하는 명문가 사람들이 여럿 거쳐 간 가문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박복한 데다, 부모님께서 어찌 된 영문인지 너무 일찍 가세가 기우시는 바람에 저는 이곳 마드리드 궁정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더 큰 불행을 겪지 않고 평온하게 지내길 바라며, 저를 어느 지체 높은 부인의 자수 시녀로 보내셨지요. 그런데 돈키호테 님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평생 가는 자수와 흰 바느질 솜씨로는 그 누구도 저를 앞선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시녀로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참으로 선량하고 독실한 그리스도교인이셨기에 몇 년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고아가 되었고, 궁정에서 그런 하급 시녀들에게 주어지는 비참한 임금과 보잘것없는 은전에 의지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빌미를 준 것도 아닌데 집안의 한 종자가 저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지긋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풍채 좋은 남자였는데, 무엇보다 산악 지대(몬타냐) 출신이라 임금님 못지않은 어엿한 이달고(귀족) 신분이었지요. 저희의 사랑이 그리 비밀스럽지 못했던 탓에 결국 주인 부인께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뒷말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 저희를 로마 가톨릭 성모 교회의 법도에 따라 평화롭게 결혼시켜 주셨지요. 그런데 그 결혼에서 딸이 하나 태어나, 제게 무슨 복이 남아 있었다면 그마저 끝장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출산 중에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는 제때 건강하게 잘 낳았으니까요.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떤 충격을 받아 세상

을 떠났다는 점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만 있다면 돈키호테 님께서도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애처롭게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돈키호테 님, 부디 용서해 주세요. 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행했던 지난날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요. 오, 하느님! 제 남편이 칠흑같이 새까만 힘센 노새에 주인마님을 뒤에 태우고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모시고 다녔는지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차나 가마를 타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귀부인들은 종자의 노새 뒤에 올라타곤 했지요. 제 착한 남편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적어도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드려야겠습니다.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거리는 좀 좁은데, 어느 날 그 길로 궁정 법관 한 분이 두 명의 포졸을 거느리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광경을 보자마자 노새의 고삐를 돌려 그 법관을 모시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지요. 노새 뒤에 타고 계시던 주인마님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 딱한 양반아, 내가 여기 타고 있는 게 안 보이나?'라며 나무라셨습니다. 법관은 점잖게 말의 고삐를 멈추며, '가시던 길 마저 가십시오. 제 주인이신 도냐 카실다 마님은 제가 모셔야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마님의 성함이 바로 카실다였지요. 하지만 제 남편은 모자를 손에 든 채 법관을 모시고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인마님께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도구함에서 굵은 바늘, 아니 송곳이었던 것 같은 것을 꺼내 남편의 등허리를 찔러버리셨습

니다. 그러자 남편이 큰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트는 바람에, 그만 뒤에 타고 계시던 주인마님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주인마님의 하인 두 명이 마님을 일으켜 세웠고, 법관과 포졸들도 거들었습니다. 과달라하라 문 근처에서 빈둥거리던 사람들도 모두 술렁거렸지요. 주인마님은 걸어서 가셨고, 제 남편은 창자가 한쪽에서 반대쪽까지 꿰뚫린 것 같다고 소리치며 이발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그 깍듯한 예의가 어찌나 소문이 퍼졌는지, 아이들이 거리에서 남편 뒤를 졸졸 쫓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 일에다 남편이 눈까지 좀 어두웠던 탓에, 주인이신 공작부인께서는 그를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제 생각에 남편은 그 슬픔 때문에 병을 얻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떠안은 채 홀로 남겨져 비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제 딸은 바다 거품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게 자라났지요.

그러다 마침 제 자수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공작님과 갓 혼인하신 제 주인 공작부인께서 남편과 사별한 저와 제 딸을 함께 이 아라곤 왕국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딸아이는 무척이나 재주 넘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노래는 종다리처럼 잘 부르고, 생각처럼 날렵하게 춤을 추며, 흥에 겨워 정신없이 춤을 추고, 학교 선생님처럼 글을 읽고 쓰며, 구두쇠처럼 계산도 빠르답니다. 깨끗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흐르는 물보다 더 깨끗할 정도니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열여섯 살 하고도 다섯 달 사흘이 되었을 겁니다,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딸이 공작님 영지 내의 한 마을에 사는 아주 부유한 농부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두 사람은 눈이 맞았고, 그 청년은 장차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으로 제 딸을 유혹해 놓고는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작님께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소연하며 그 농부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공작님께서는 못 들은 척하시며 제 말을 거의 들어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워낙 부자라 아들에게 돈을 대주기도 하고, 청년이 사고를 칠 때마다 보증을 서며 뒤를 봐주는 터라, 공작님께서는 그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심기를 어지럽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키호테 님. 부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간청으로 하시든 무력으로 하시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 돈키호테 님은 불의를 바로잡고 굽은 것을 펴며 불쌍한 이들을 돕기 위해 태어나셨으니까요. 제 딸의 처지와 그 아이의 고결함, 어린 나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재능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주인마님의 시녀들 중에 제 딸의 발끝이라도 따라올 아이는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싹싹하고 늠름하다는 알티시도라라는 아이조차 제 딸과는 두 리그(약 10km) 차이로 한참 뒤처집니다.

돈키호테 님, 세상에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알티시도라라는 애는 아름답기보다는 허세가 심하고, 얌전하기보다는 경박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그리 건강하지도 못해서, 입에서 어떤 텁텁한 냄새가 나는 통에 곁에 단 한 순간도 붙어 있기 힘들 정

도지요. 게다가 주인님이신 공작부인께서도… 아, 그만 말해야겠군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들 하니까요."

"제 목숨을 걸고 묻건대,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 주인님이신 공작부인께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질문을 받은 이상 사실대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키호테 님, 주인님이신 공작부인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그 얼굴빛은 마치 잘 닦아 놓은 매끄러운 칼날 같고, 양 볼은 우유와 연지색이 어우러져 한쪽에는 태양이, 다른 한쪽에는 달이 떠 있는 듯합니다. 또한 그 기품 있는 발걸음을 보십시오. 땅을 밟는 게 아니라 마치 짓밟는 듯한 그 당당한 걸음걸이는, 지나가는 곳마다 건강한 기운을 뿌리고 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 님, 그 아름다움은 첫째로 하나님 덕분이며, 그다음으로는 공작부인의 두 다리에 있는 두 샘물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의사들 말로는 그 샘물로 공작부인의 몸속에 가득 찬 온갖 나쁜 기운을 다 쏟아내 보낸다고 하니까요." 도냐 로드리게스가 대답했다.

"성모 마리아시여!" 돈키호테가 말했다. "주인님이신 공작부인께 정말로 그런 배설 통로가 있단 말입니까? 맨발의 수도사들이 말한다 해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냐 로드리게스 부인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틀림없는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샘물에서는 나쁜 기운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호박(琥珀)이 흘러나와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샘물을 만드는 일이 건강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돈키호테가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누군가 방 문을 쾅 하고 거칠게 열었다. 그 소리에 놀란 도냐 로드리게스의 손에서 촛불이 떨어졌고, 방 안은 흔히 말하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그러자 불쌍한 시녀는 누군가 두 손으로 자신의 목을 아주 세게 움켜쥐어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아주 재빠르게, 아무 말도 없이 그녀의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더니 슬리퍼 같은 것으로 매질을 시작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한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돈키호테는 그녀를 가엾게 여겼지만, 침대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 그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혹여 자신에게도 매질이 쏟아지지 않을까 겁이 나기까지 했다.

그의 두려움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매질을 가하던 자들이 (감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던) 시녀를 아주 흠씬 두들겨 패 놓은 뒤, 이번에는 돈키호테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키호테를 덮고 있던 시트와 이불을 걷어치우고는, 그의 몸을 아주 빈번하고 거칠게 꼬집어댔다. 돈키호테는 기가 막힐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싸움은 거의 30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마침내 유령들이 사라지자 도냐 로드리게스는 치맛자락을 추스르고는, 자신의 불행을 신음하며 돈키호테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몸은 아프고 여기저기 꼬집힌 채 혼란과 생각에 잠긴 돈키호테는 홀로 남겨졌다. 우리는 대체 어떤 사악한 마법사가 자신을 이런 꼴로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난 그를 이대로 남겨두려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 산초 판사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이야기의 흐름상 지금은 그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제49장



제49장. 산초 판사가 자신이 다스리는 섬을 순찰하다가 겪은 일에 대하여

우리는 화가이자 익살꾼인 농부를 상대하느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몹시 분해 있는 위대한 통치자를 그대로 남겨둔 채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 농부는 집사가 부추겨서, 또 그 집사는 공작이 부추겨서 산초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산초는 비록 어리석고 투박하며 살집 있는 위인이었을지언정 그들 모두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단단히 맞섰다. 그러고는 공작의 편지에 얽힌 비밀스러운 일이 끝나자 다시 방 안으로 들어온 페드로 레시오 박사와, 곁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정말로 알겠습니다. 판사와 통치자는 청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야만 사방팔방에서 제 일만 생각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당장 내 말을 들어달라느니, 내 일을 당장 처리해달라느니 하며 괴롭히는 민원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불쌍한 판사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일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되어서든 혹은 지금은 그들을 접견할 적절한 때가 아니어서든, 즉시 판사를 저주하고 험담을 늘어놓으며 뼈가 가루가 되도록 갉아먹는 데다 가문까지 들먹이며 모욕을 줍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민원인이여,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일을 처리하려면 적절한 때와 형편을 기다려야 하는 법이오. 밥 먹을 때나 잠잘 때 찾아오지 마시오. 판사도 결국 살과 뼈로 이루어진 사람이니, 자연의 섭리에 따라 몸이 원하는 것을 챙겨야 하는 법이니까요.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지만 말이오. 내 앞에 계신 페드로 레시오 티르테아우에라 박사님 때문에 내 몸을 챙기지도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분은 내가 굶어 죽기를 바라면서, 이 죽음이 곧 삶이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분과 저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말은 나쁜 의사들에게 말한 것이니 오해 마시오. 좋은 의사들은 마땅히 박수와 영광을 받아야 할 분들이니까요."

산초 판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이토록 품격 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들은 산초가 어찌 이렇게 달라졌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막중한 직책과 임무를 맡다 보면 사람의 지혜가 더 깊어지거나 혹은 오히려 무뎌지기도 하는 법이라고 여길 뿐이었다. 결국 페드로 레시오 아구에로 데 티르테아우에라 박사는, 비록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을 모두 어기는 처사일지라도 그날 밤 산초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에 통치자는 매우 흡족해졌고, 저녁때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시간은 마치 제자리에 멈춰 서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더디게만 흘렀으나,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시간이 찾아왔다. 산초는 양파를 곁들인 소고기 살피콘과 다소 늙은 송아지의 삶은 족을 저녁으로 대접받았다. 그는 마치 밀라노산 프랑콜린이나 로마산 꿩, 소렌토산 송아지 고기, 모론산 자고새, 혹은 라바호스산 거위 요리를 받은 것처럼 무엇보다 맛있게 먹어 치웠다. 그러다 식사 도중 박사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박사님. 앞으로는 제게 진수성찬이나 귀한 음식을 대접하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제 위장은 염소나 소고기, 돼지 비계와 육포, 그리고 순무나 양파 같은 음식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귀한 음식을 주시면 오히려 제자리를 벗어나 버립니다. 혹여 궁중에서나 먹을 법한 별미를 내놓는다 해도 제 위장은 그것을 까탈스럽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역겨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식사 담당관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른바 '썩은 냄비 요리(오야 포드리다)'라고 불리는 것들을 가져다주는 것뿐입니다. 그 요리는 푹 썩을수록 냄새가 더 좋은 법이니,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안에 담아 넣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젠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사람 구실을 하든가 말든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이좋게 평화로이 더불어 살고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동을 트게 하실 때는 모두를 위해 동이 트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 섬을 다스리며 결코 정당한 권리를 봐주거나 뇌물을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분명히 말해 두는데, 악마가 칸티야나에 와 있으니, 저를 건드렸다간 여러분은 깜짝 놀랄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어디 꿀처럼 달콤하게 굴어 보십시오. 파리 떼가 달려들어 잡아먹을 테니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통치자님." 식사 담당관이 말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이 섬의 모든 주민을 대신하여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저희는 통치자님을 정성을 다해 모시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친절하게 섬기겠습니다. 통치자님께서 방금 보여주신 이 인자한 통치 방식 앞에서는, 감히 통치자님께 해가 되거나 불충을 저지를 일은 생각조차 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주민들이 다른 행동을 하거나 딴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제 당나귀의 먹거리만큼은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니까요.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순찰을 나갑시다. 이 섬을 온갖 오물과 부랑자, 게으름뱅이, 그

리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로부터 깨끗이 청소할 생각입니다. 친구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쓸모없고 게으른 사람들은 국가에서 벌떼 속의 수벌과 같습니다. 일하는 일벌들이 모은 꿀을 가로채 먹기만 할 뿐이지요. 저는 농민들을 돕고, 귀족들에게는 그들의 권위를 지켜주며, 덕망 있는 이들에게는 상을 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교를 존중하고 성직자들의 명예를 지켜줄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통치자님,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통치자님처럼 배운 데가 없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글자 한 자도 모르시는 분이, 어쩜 이리도 깊은 교훈과 경계가 담긴 말씀을 하시는지 경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보낸 분들이나 이곳에 온 저희 모두가 통치자님의 재간을 보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십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군요. 조롱이 현실이 되고, 놀리던 사람이 도리어 놀림을 당하는 법이니 말입니다."

밤이 찾아왔고, 통치자는 레시오 박사의 허락을 받아 저녁 식사를 마쳤다. 이어 순찰 준비를 갖추었다. 산초는 집사와 비서, 식사 담당관,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기록관, 그리고 보안관과 서기들을 거느리고 밖으로 나갔다. 인원이 워낙 많아 제법 큰 부대처럼 보일 정도였다. 산초는 손에 지팡이를 든 채 대열의 한가운데에 서서 나아갔다. 마을의 거리를 몇 군데 지나지 않았을 때, 어디선가 칼부림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

려가 보니, 두 남자가 서로 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치안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즉시 싸움을 멈추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하느님과 임금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십시오! 이 마을에서 버젓이 도둑질이 자행되고, 길 한복판에서 사람을 터는 짓을 벌이다니, 이런 일을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진정하십시오, 선량한 분이여." 산초가 말했다. "내가 이 섬의 통치자이니, 대체 무슨 일로 싸우는 것인지 내게 말씀해 보시오."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말했다.

"통치자님,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치자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이, 이 신사분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저 도박장에서 방금 천 레알 넘게 땄습니다. 어떻게 땄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시겠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한두 번이 아니게 미심쩍은 승부를 그에게 유리하도록 판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돈을 따고 일어서더니, 저처럼 곁에서 좋은 일 궂은 일 거들고 부당한 일을 막으며 싸움을 말려 주는 어엿한 사람에게는 관례상 적어도 에스쿠도 한 닢쯤은 개평으로 떼어 줄 줄 알았건만, 돈을 챙겨 주머니에 넣고는 그냥 도박장을 나가 버리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분해서 그를 뒤쫓아갔고, 좋고 정중한 말로 적어도 여덟 레알만이라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정직한 사람이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도 물려주지도 않으신 탓에 직업도 벌이도 없는 처지라는 걸 그자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카코 못지않은 도둑놈에 안드라디야 못지않은 사기꾼인 이 능청스러운 작자가 고작 네 레알밖에는 못 주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통치자님,

보십시오. 이 얼마나 염치없고 양심도 없는 짓입니까! 하지만 정말이지, 통치자님께서 마침 와 주지 않으셨다면 저놈이 딴 돈을 죄다 토해내게 만들고, 저울추가 몇 개나 올라가는지 똑똑히 알게 해 주었을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초가 물었다.

그러자 상대방은 앞사람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며 대답했다. 자기가 고작 네 레알만 주려 했던 이유는, 평소에도 그만큼은 자주 챙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상대가 사기꾼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은 한, 돈을 챙기는 이들과 계산기를 두드리며 얼굴을 붉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자기가 말처럼 도둑놈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으려 했던 사실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느냐며 맞받아쳤다. 사기꾼은 언제나 그 수법을 꿰뚫고 있는 구경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법이라고 말이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통치자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직접 결정해 주십시오."

"해야 할 일은 이렇소." 산초가 대답했다. "돈을 딴 당신, 잘했든 못했든 아니면 그저 그렇든 간에, 우선 이 칼부림을 벌인 자에게 당장 백 레알을 주시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감옥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서른 레알을 내놓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 직업도 벌이도 없이 이 섬에서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자는 당장 그 백 레알을 받으시오. 대신 내일 하

루가 다 가기 전에 이 섬에서 떠나 십 년 동안 유배를 가시오. 만약 이 명령을 어긴다면 저세상에서 그 형을 마저 채우게 될 것이오. 내가 직접 당신을 기둥에 매달거나, 적어도 내 명령을 받든 사형 집행인이 그리하게 할 것이니 말이오. 누구든 토를 다는 자가 있으면 내 손맛을 보게 될 줄 아시오."

한 사람은 돈을 내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돈을 받았다. 한 명은 섬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갔다. 통치자는 남아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자, 이제 내 힘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면, 이 도박장들을 없애 버리겠소. 내가 보기에 이것들은 아주 해로운 것 같으니 말이오."

"적어도 이것만큼은," 한 서기가 말했다. "통치자께서 폐쇄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곳은 아주 지체 높은 분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도박장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그분이 일 년 동안 잃는 돈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습니다. 차라리 규모가 작은 다른 도박장들을 상대로 권위를 보여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끼치고 온갖 무례한 짓을 감추는 법이니까요. 이름난 사기꾼들도 귀족이나 높은 분들의 저택에서는 감히 속임수를 쓰지 못합니다. 도박의 악습이 이미 흔한 놀이가 되어버린 마당에는, 차라리 번듯한 저택에서 게임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급 관리의 집에서 한밤중에 불운한 사람을 붙잡아 산 채로 가죽을 벗기는 짓을 당하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서기 양반," 산초가 말했다. "그 말에 대해 할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때, 한 치안관이 청년 하나를 붙잡고 나타나며 말했다.

"통치자님, 이 청년이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헌을 보자마자 등을 돌리더니 사슴처럼 달아나기 시작하더군요. 필시 무슨 죄를 지은 놈이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제가 뒤쫓아갔는데, 놈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결코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보게, 왜 도망치려 한 건가?" 산초가 물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다.

"나으리, 재판관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직조공입니다."

"그럼 무엇을 짜는가?"

"나으리의 허락만 있다면, 창끝에 끼울 철제 부품을 만듭니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건가? 농담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는 게냐? 좋다! 그래, 지금은 어디로 가던 길이었느냐?"

"나으리, 바람 좀 쐬러 가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에서는 대체 어디로 가야 바람을 쐴 수 있단 말이냐?"

"바람 부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지요."

"허허, 참으로 적절한 대답이로구나! 젊은이, 자네 참 영리하군. 하지만 내가 바로 바람이라 생각하게나. 내가 자네 엉덩이를 밀어 감옥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자, 어서 잡아라! 이놈을 끌고 가라! 오늘 밤 이놈이 감옥에서 숨도 못 쉬고 잠들게 만들어 주마!"

"맙소사," 젊은이가 말했다. "나으리께서 저를 왕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것만큼이나, 저를 감옥에서 재우실 수 있으시겠군요!"

"그럼 내가 왜 자네를 감옥에서 잠들게 하지 않겠나?"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원할 때마다 자네를 잡아 가두고 다시 풀어줄 권한이 내게 없단 말인가?"

"나으리께서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르신들," 젊은이가 말했다. "저를 감옥에 처넣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산초가 대답했다. "당장 저놈을 끌고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깨닫게 해주게. 설령 감옥장이 잇속을 챙기려고 저놈에게 너그러이 선심을 베풀고 싶어 하더라도 말이야. 만약 저놈을 감옥 밖으로 단 한 발짝이라도 내보낸다면, 나는 감옥장에게 이천 두카도의 벌금을 물릴 것이네."

"그건 다 웃기는 소리일 뿐입니다." 젊은이가 대답했다. "중요한 건, 오늘 살아있는 그 누구도 저를 감옥에 처넣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해 봐, 이 악마 같은 놈아." 산초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내릴 벌을 면하게 해 줄 천사라도 뒤에 업고 있는 거냐?"

"자, 이제 통치자님." 젊은이가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말씀하신 건 다 치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치에 맞게 이야기해 보시지요. 만약 통치자님께서 저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셔서, 제가 그곳에서 쇠사슬과 족쇄에 묶인 채 지하 감옥에 갇혔다고 칩시다. 그리고 간수가 저를 풀어줬다가는 엄벌을 받게 될 처지라 명령대로 저를 꽉 붙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그런데도 제가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눈 한 번 붙이지 않은 채 깨어 있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통치자님께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신들 제가 자지 않겠다는데 저를 잠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정말이지 못 하십니다." 서기가 말했다. "저 청년이 제 주장을 관철했군요."

"그러니까," 산초가 말했다. "자네가 잠을 자지 않는 건 내 뜻을 거스르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네 자신의 의지 때문이라는 말이로군."

"그렇습니다, 나으리." 그 젊은이가 말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럼, 부디 평안히 가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어서 댁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길 빕니다. 저는 당신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충고를 드리자면, 앞으로는 법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법의 심판을 받아 그 대가로 머리통이 깨지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젊은이가 물러가자 통치자는 다시 순찰을 이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의 치안관이 한 남자를 붙잡아 끌고 오며 말했다.

"통치자님, 이 사람은 겉보기엔 남자 같지만 사실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못생기지 않은 여자가 남자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두세 개의 등불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자, 그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보아하니 열여섯 살이나 그보다 조금 더 된 여인의 것이었다. 머리카락은 금사와 초록빛 비단으로 짠 그물망에 정갈하게 모아 올렸는데, 그 모습이 마치 수천 개의 진주처럼 아름다웠다. 사람들이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니, 흰 호박단 대님과 금실·진주로 된 술 장식이 달린 진홍색 비단 양말을 신고 있었다. 통 넓은 반바지는 초록색 금란으로 지은 것이었고, 그 위에 같은 천으로 만든 헐렁한 겉옷을 걸쳤으며, 그 안에는 금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아주 고운 비단 저고리를 받쳐 입고 있었다. 신발은 흰색이었으나 남성용이었다. 허리에는 칼 대신 아주 값진 단검을 차고 있었고, 손가락에는 좋고 화려한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었다. 요컨대 이 처녀는 모두에게 아름다워 보였으나, 그녀를 본 사람 중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마을 토박이들조차 도대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없다고 말했고, 산초를 골려

줄 계획을 꾸몄던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놀랐다. 이 사건과 발견은 그들이 꾸민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의아해하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산초는 처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그리고 어찌하여 그런 차림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처녀는 아주 정숙하고 수줍은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주인님, 제가 간직하고 싶은 비밀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도둑도 아니고 흉악한 범죄자도 아닙니다. 그저 질투에 눈이 멀어, 정숙한 여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저버리고 만 불행한 처녀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가 산초에게 말했다.

"통치자님, 사람들을 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부인께서 망설임 없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치자는 그렇게 명령했다. 그러자 집사와 궁내관, 그리고 서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물러났다. 마침내 외부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처녀는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의 양모 임대업자인 페드로 페레스 마소르카의 딸입니다. 그분께서는 저희 아버지 댁에 자주 드나드시곤 합니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집사가 말했다. "아가씨, 저는 페드로 페레스를 아주 잘 압니다. 그분께는 아들이나 딸 할 것 없이 자식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고요. 게다가 아버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뒤에는 그분이 아가씨의 아버지 댁에 자주 드나드신다고 덧붙이시니 대체 어느 쪽이 맞는 말씀입니까?"

"내 이럴 줄 알았지." 산초가 말했다.

"이제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처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디에고 데 라야나의 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분이지요."

"그건 좀 말이 되는군요." 집사가 대답했다. "저도 디에고 데 라야나를 압니다. 그분이 아주 지체 높고 부유한 귀족이라는 것도,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었다는 것도 잘 알지요. 그런데 그분이 홀아비가 된 뒤로는 이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그 딸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딸을 어찌나 꽁꽁 숨겨두었는지 햇빛조차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소문에는 그 딸이 더없이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처녀가 대답했다. "그 딸이 바로 저예요. 제 미모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께서 직접 저를 보셨으니 이제 잘 아시겠지요."

그러더니 처녀는 갑자기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서기가 궁내관의 곁으로 다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분명 이 가련한 처녀에게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신분의 분이 이런 차림으로, 이 밤중에 집 밖을 돌아다니고 계시니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네." 궁내관이 대답했다. "그 처녀의 눈물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은가."

산초는 자신이 아는 가장 타당한 말들을 들어 그녀를 달랬다. 그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려워 말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10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셨어요. 제 어머니가 흙으로 돌아간 세월과 꼭 같은 기간이지요. 집안에서는 화려한 기도실에서 미사를 드리지만, 저는 그동안 낮에는 하늘의 태양을, 밤에는 달과 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리나 광장, 성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임대업자 페드로 페레스 외에는 사내를 본 적도 없어요. 페레스 씨는 워낙 자주 집에 드나들기에,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기 싫은 마음에 그분을 제 아버지라고 둘러댔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갇혀 지내며 교회에조차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 여러 날, 여러 달이 되도록 저를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아니 적어도 제가 태어난 마을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이런 바람이 지체 높은 처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를 해치는 일은 아니라고 여겼으니까요. 투우가 벌어지고 갈대 창 시합이 열리며 연극이 상연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

보다 한 살 어린 남동생에게 그것들이, 또 제가 보지 못한 다른 많은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남동생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잘 설명해 주었지만, 그럴수록 그것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만 더 타올랐을 뿐이었지요. 결국 제 파멸의 사연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남동생에게 졸라대고 또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 그런 청일랑 하지도 조르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지요…….”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집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들려주세요. 당신의 말씀과 눈물에 저희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처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흘릴 눈물은 아주 많아요. 잘못된 욕망은 결국 이와 같은 상실 말고는 다른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니까요.”

그 처녀의 아름다움은 궁내관(maestresala)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았다. 그는 처녀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등불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눈에는 처녀가 흘리는 것이 눈물이 아니라 자잘한 진주나 초원의 이슬처럼 보였고, 더 나아가 그것을 동양의 진주만큼이나 값지게 여겼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울음과 한숨이 내비치는 만큼 그녀의 불행이 크지는 않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통치자는 처녀가 이야기를 자꾸 미루는 바람에 애가 탔다. 그는 시간이 늦었고 마을을 돌아볼 길도 많이 남았으니, 더는 사람들을 애태우지 말고 어서 이야기를 끝내라고 말했다. 처녀는 흐느낌과 거친 한숨을 섞어가며 대답했다.

"제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희 아버지가 잠드신 밤에, 오라버니에게 부탁해서 오라버니의 옷 중 하나를 입고 남자 옷차림을 한 채 마을 구경을 시켜달라고 졸랐을 뿐이에요. 오라버니는 제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제 옷을 입었는데, 수염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마치 아주 아름다운 처녀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저는 오라버니의 옷을 입었고요. 오늘 밤 한 시간 전쯤 되었을까요,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철없고 분별없는 우리 생각에 이끌려 마을을 한 바퀴 다 돌게 되었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오라버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누이야, 순찰대가 오는 모양이다. 발걸음을 재촉해라.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빨리 내 뒤를 따라 뛰어라. 들키면 큰일 난다.' 오라버니는 이 말을 남기고는 달리는 게 아니라 날아갈 듯이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여섯 걸음도 못 가서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때 저를 여러분 앞으로 데려온 치안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렇게 못되고 변덕스럽게 군 탓에,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꼴을 당하게 되었네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가씨?" 산초가 물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질투 때문에 집을 뛰쳐나오셨다거나 그 외에 다른 사고라도 치신 건 아니고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질투 때문에 집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물론 제가 말하는 세상이란 이 마을 거리들을 구경하는 것뿐이었지만요."

그 처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경찰들이 붙잡힌 오빠를 데리고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은 오빠가 누이에게서 달아날 때 그를 붙잡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오빠는 화려한 치마를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순금 장식이 달린 푸른색 다마스크 비단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머리에는 베일도 다른 장식도 없었으나, 금반지처럼 빛나는 금발의 곱슬머리 자체가 그를 꾸며주고 있었다. 총독과 집사, 그리고 궁내관(maestresala)은 경찰들과 함께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누이가 듣지 못하도록 오빠에게 어쩌다 그런 차림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오빠는 누이 못지않게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며, 누이가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에 빠진 궁내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흡족해했다. 그러자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정말이지 어린애 같은 철없는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대담한 짓을 설명하려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늘어놓거나 눈물 섞인 한숨을 내쉴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누구누구인데, 다른 목적은 전혀 없고 그저 궁금해서 부모님 집을 나와 좀 돌아다니는 중입니다'라고만 말하면 상황은 다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굳이 신세 한탄을 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칠 필요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처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혼란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마땅히 지켰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디 헤아려 주십시오."

"아무것도 잃은 게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자, 어서 갑시다. 여러분을 부모님 댁에 모셔다드리지요. 어쩌면 아버님께서 아직 여러

분이 없어진 것조차 모르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철없이 굴거나 세상 구경하고 싶어 안달복달하지 마십시오. 정숙한 처녀는 다리가 부러져서 집에 있어야 하는 법이고, 여자나 암탉은 돌아다니다가 금방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구경하고 싶어 안달 난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법이지요. 제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청년은 자신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는 통치자의 호의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하여 일행은 집을 향해 길을 나섰는데, 집은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하자, 오빠가 창살을 향해 조약돌을 하나 던졌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하녀가 내려와 문을 열어주었다. 일행이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들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밤중에 마을을 벗어나지도 않고서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그 기묘한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아이들이라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궁내관(maestresala)은 그 처녀에게 그만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공작의 하인이니 처녀의 아버지가 결코 혼사를 거절하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가 딸을 아내로 달라고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초 판사 역시 그 청년을 자신의 딸 산치카와 결혼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초는 때가 되면 그 일을 슬쩍 꺼내기로 결심했는데, 통치자의 딸에게는 그 어떤 신랑감이라도 거절당할 리 없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칠 생각이었다.

이로써 그날 밤의 순찰은 끝이 났다. 그리고 이틀 뒤, 그들의 통치는 막을 내렸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모든 계획 또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다.

제50장



제50장. 도냐 로드리게스를 매질하고 돈키호테를 꼬집고 할퀴었던 마법사와 집행관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대목, 그리고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를 전하러 간 시종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 진실한 역사의 원자 하나하나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한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렇게 말한다. 도냐 로드리게스가 돈키호테의 방

으로 가려고 자기 방을 나설 때, 그녀와 함께 잠을 자던 다른 귀부인이 그 움직임을 알아챘다. 남의 일에 참견하고, 알고 싶어 하고, 냄새를 맡는 데는 귀부인들이란 다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그 귀부인은 도냐 로드리게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뒤를 쫓았다. 그리고 도냐 로드리게스가 돈키호테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마자, 남의 집 사정을 일러주기 좋아하는 귀부인들의 흔한 습성대로 곧장 공작부인에게 달려가 도냐 로드리게스가 돈키호테의 방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일러바쳤다.

공작부인은 이 사실을 공작에게 알린 뒤, 도냐 로드리게스가 돈키호테를 상대로 무슨 속셈인지 직접 확인하겠다며 알티시도라와 함께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공작은 흔쾌히 허락했다. 두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돈키호테의 방 문 앞까지 다다랐다. 문에 아주 가까이 붙은 덕분에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모두 들릴 정도였다. 그러다 공작부인은 로드리게스가 자기 다리에 난 상처, 곧 '아란후에스의 분수' 같은 그 비밀을 거리에 까발리듯 떠벌리는 것을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알티시도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두 사람은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인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돈키호테를 마구 꼬집고 할퀴었으며 도냐 로드리게스를 매질했다. 여인의 아름다움과 자존심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일은 여인들의 분노를 크게 자극하고 복수심에 불을 지피는 법이기 때문이다.

공작부인은 공작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고, 공작은 그 사실에 무척 즐거워했다. 공작부인은 돈키호테를 골려주며 즐기려던 원래

계획을 계속 이어갔다. 그래서 그녀는 시종 한 명을 불러 일을 맡겼다. 그 시종은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의식에서 둘시네아 역을 맡았던 바로 그 아이였다. (산초 판사는 통치 업무에 정신이 팔려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공작부인은 이 시종에게, 산초 판사의 아내인 테레사 판사에게 남편의 편지와 자신의 편지, 그리고 값비싼 산호를 길게 꿴 목걸이를 함께 전하라고 명령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시종은 매우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다. 그는 주인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산초 판사가 사는 마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마을에 들어서기 전, 그는 한 시냇가에서 여인들이 무더기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시종은 그들에게, 혹시 이 마을에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라는 분의 종자인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판사라는 여인이 사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을 듣자 빨래를 하던 한 처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그 테레사 판사라는 분은 저희 어머니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산초라는 분은 저희 아버지시고요. 그 기사님은 저희 주인님이시고요."

"그럼 이리 오렴, 얘야." 시종이 말했다. "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겠니? 네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와 선물을 가져왔단다."

"기꺼이 그렇게 할게요, 주인님." 열네 살 전후로 보이는 소녀가 대답했다.

소녀는 빨래를 하던 옷을 동료에게 맡겨두고는, 맨발에 머리까지 산발을 한 채 신발도 신지 않고 급히 달려와 시종의 말 앞으로 뛰어들며 말했다.

"어서 가시지요. 마을 입구에 저희 집이 있어요. 거기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요. 아버님 소식을 며칠째 듣지 못해 어머니께서 무척 상심하고 계시답니다."

"그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라,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정도입니다."라고 시종이 말했다.

마침내 그 소녀는 폴짝폴짝 뛰고 달리고 뛰어 마을에 도착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문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테레사 어머니,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편지와 다른 물건들을 가져온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그 외침을 듣고 산초 판사의 아내인 테레사 판사가 갈색 치마 차림으로 삼 한 뭉치를 자으며 밖으로 나왔다. 치마가 어찌나 짧던지 민망한 곳을 잘라낸 듯 보였고, 상의 역시 갈색이었으며 가슴께에는 속옷 셔츠가 드러나 있었다. 마흔은 족히 넘어 보였으나 그리 늙지는 않았고, 체격은 다부지고 꼿꼿했으며 근육질에 피부는 가무잡잡했다. 그녀는 딸과 말을 탄 시종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얘야, 이게 다 무엇이냐? 이분은 또 어떤 귀한 분이시고?"

"저는 도냐 테레사 판사 마님을 모시는 종이옵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그렇게 말하며 행동을 마친 시종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테레사 판사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했다.

"테레사 판사 마님, 바라타리아 섬의 정당한 통치자이신 산초 판사 님의 적법한 아내이자 반려이신 마님께, 부디 손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이고, 나리, 어서 거기서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테레사 판사가 대답했다. "저는 궁궐에서 사는 귀한 몸도 아니고, 그저 거친 일이나 하는 농사꾼의 딸이자 떠돌이 종자의 아내일 뿐입니다. 무슨 섬의 통치자라니요!"

"귀하야말로 지극히 고귀하신 통치자의 아내로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로, 이 편지와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시종은 즉시 허리춤에서 금 장식이 달린 산호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말했다.

"이 편지는 통치자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또 다른 편지와 이 산호 목걸이는 공작부인께서 귀하께 보내라고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테레사 판사는 물론 그녀의 딸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해졌고, 딸이 말했다.

"우리 주인님이신 돈키호테 님이 이 일에 끼어 있지 않으셨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라고 하세요. 그토록 여러 번 약속하셨던 통치권이나 백작령을 드디어 아버지께 내려 주신 게 분명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돈키호테 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제 산초 님은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 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귀하신 분이시여, 제발 이 편지를 좀 읽어주십시오." 테레사가 말했다. "제가 실을 뽑을 줄은 알아도, 글자 한 자 읽을 줄은 모르거든요."

"저도 읽을 줄 모른답니다." 산치카가 덧붙였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가서 읽어줄 사람을 불러올게요. 신부님이든 산손 카라스코 학사님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저희 아버지 소식을 듣는다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실 분들이니까요."

"누구를 부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실을 뽑을 줄은 몰라도 글은 읽을 줄 알거든요.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그렇게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어 주었다. 그 편지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 다시 옮기지는 않겠다. 그런 다음 시종은 공작부인이 보낸 또 다른 편지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친애하는 테레사에게:

당신의 남편 산초가 보여 준 선량함과 영리함에 감복한 나머지, 나는 내 남편인 공작님께 간곡히 청하여 그분이 다스리는 수많은 섬 가운데 하나를 산초에게 맡기게 했습니다. 듣자 하니 산초가 송골매처럼 훌륭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하여 나는 무척이나 기쁘고, 나의 주인이신 공작님께서도 당연히 흡족해하십니다. 그러니 산초를 그 자리에 앉히기로 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 하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테레사 부인께서 꼭 알아 두셨으면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훌륭한 통치자를 찾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느님께서 산초가 다스리는 만큼이나 내게도 잘해 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금 장식으로 양 끝을 맺은 산호 목걸이를 보냅니다. 동방의 진주로 만든 것이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뼈다귀를 주는 사람이 당신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직접 만나 가까이 지낼 날이 오겠지요. 그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하느님만이 아실 일입니다. 당신의 딸 산치카에게 내 안부를 전해 주시고, 내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높은 가문과 혼인시킬 작정이니 미리 채비를 해 두라고 말입니다.

그곳에 알이 굵은 도토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게 두 타 정도만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보내주시는 것이니 아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부와 평안함이 어떠한지 자세히 적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혹여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저 입만 뻥긋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넉넉히 챙겨줄 테니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살펴 주시기를. 이곳에서.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가.

공작부인.

"아이고," 편지를 다 들은 테레사 판사가 말했다. "참으로 좋고, 소탈하고, 겸손한 분이로구나! 차라리 이런 분들과 함께 묻혔으면 좋겠다. 이 마을에 흔해 빠진 시골 귀족 여자들과는 영 다르지. 그 여자들은 귀족이랍시고 바람 한 점조차 제 몸에 닿지 못한다고 여기고, 교회에 갈 때도 제가 무슨 여왕이라도 되는 양 거드름을 피우니, 농사짓는 여자를 쳐다보는 것조차 수치로 아는 모양이더라. 그런데 이 훌륭하신 분은 공작부인이면서도 나를 친구라 불러 주시고 동등한 사람처럼 대해 주시는구나. 부디 그분이 라만차에서 가장 높은 종탑만큼이나 높이 되시기를! 그리고 도토리 말인데요, 나리. 공작부인께 도토리 한 셀레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이 어찌나 굵은지 다들 신기해하며 구경하러 올 정도랍니다. 자, 산치카야, 우선 이 손님부터 잘 대접해 드려라. 이분의 말을 잘 챙겨 드리고, 마구간에서 달걀도 꺼내 오고, 베이컨도 넉넉히 썰어다가 왕자님 모시듯 정성껏 음식을 차려 드려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주신 데다 인상도 훤하시니 그만한 대접을 받으실 만하다. 그동안 나는 이웃들에게 우리 집 경사를 알리러 나가마. 네 아버지와 그토록 가까운 신부님과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에게도 꼭 전해야겠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산초의 딸이 대답했다. "하지만 공작부인께서 보내주신 이 목걸이의 절반은 제 몫으로 떼어주셔야 해요. 우

리 공작부인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분은 아니실 테니, 분명 제 몫도 챙겨주셨을 거예요.”

“전부 네 것이란다, 얘야.” 테레사 판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며칠 동안은 내가 목에 걸고 있게 해다오. 이걸 보고 있으니 정말이지 마음이 다 환해지는구나.”

“그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 보따리 안에 든 것들을 보시면 다들 기뻐하실 거예요.” 시종이 말했다. “이 안에는 아주 고운 천으로 만든 옷이 들어 있거든요. 통치자께서 사냥하러 가실 때 딱 하루 입으셨던 옷인데, 이걸 전부 산초의 딸에게 선물로 보내셨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천 년 동안 사시길!” 산초의 딸이 대답했다. “이걸 가져다주신 분도 똑같이, 아니 필요하다면 두 배인 이천 년 동안 사셔야죠.”

그때 마침 테레사 판사가 편지들과 목걸이를 목에 건 채 집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마치 탬버린이라도 치는 것처럼 편지들을 찰랑거리며 흔들었다. 그러다 우연히 신부와 산손 카라스코를 만나자, 테레사 판사는 춤을 추며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제 가난한 친척 하나 없으니 참으로 좋구나! 우리에게도 통치자가 생겼어! 아니, 저 잘난 척하는 귀부인께서 나를 건드리신다면, 내가 아주 새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테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테레사 판사? 대체 무슨 난리법석이고, 그 종이 뭉치들은 또 무엇이냐?”

"다른 미친 짓이 아니라, 이건 공작부인과 통치자가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에 걸고 있는 건 아주 고운 산호고요. 여기 성모송 알과 주기도문 알은 두드려 만든 순금이랍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바로 통치자 부인이라고요."

"세상에나, 테레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다."

"그분들이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테레사가 대답했다.

테레사가 편지들을 건넸다. 신부가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산손 카라스코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산손 카라스코와 신부는 읽은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 서로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학사(bachiller)가 이 편지들을 누가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테레사는 편지를 들고 자기 집으로 따라오면 전령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다. 전령은 황금 소나무처럼 훤칠한 청년인데, 이보다 훨씬 더 값진 선물도 함께 가져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신부는 테레사의 목에서 산호 목걸이를 풀어 들고는 요리조리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걸이가 아주 좋은 물건임을 확인한 신부는 다시 한번 감탄하며 말했다.

"내가 입은 이 사제복을 두고 말하건대, 이 편지들과 선물들을 두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편으로는 이 산호가 얼마나 정교하고 좋은 물건인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작부인이 도토리 두 다스를 보내 달라 청한다는 글을 읽고 있으니 말이다."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자, 이제 그 편지를 가져온 사람을 만나러 갑시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이 난처한 상황이 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테레사 판사와 함께 움직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시종은 말에게 먹일 보리를 조금 고르고 있었고, 산초의 딸은 시종에게 먹이려고 달걀을 얹을 돼지비계 조각을 썰고 있었다. 두 사람이 이 광경을 보니 참으로 보기 좋고 흐뭇했다. 산손 카라스코와 테레사 판사가 시종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자 시종도 예의를 갖춰 답했다. 그러고 나서 산손 카라스코는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에 관한 소식을 들려달라고 물었다. 산초와 공작부인이 보낸 편지를 읽기는 했지만, 산초가 섬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여전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섬들이라는 곳이 대개 국왕 폐하의 영토인 지중해에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더욱 의아했다. 그러자 시종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산초 판사 님이 통치자가 되셨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곳이 진짜 섬인지 아닌지는 제가 따질 바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이 천 명은 넘는 고을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토리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작부인께서는 워낙 소탈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농가 아낙에게 도토리를 보내 달라 청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다. 실은 이웃 아낙에게 빗을 빌려 달라고 사람을 보내실 정도지요.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할 것은, 아라곤의 귀부인들은 지체가 높아

도 카스티야의 귀부인들처럼 거드름을 피우거나 도도하게 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을 훨씬 더 격의 없이 대하시지요." 시종이 말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한창 이어지던 중, 산초의 딸이 달걀 한 움큼을 들고 껑충 뛰어오더니 시종에게 물었다.

"저기, 나리. 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 통치자가 되신 뒤로 끈으로 졸라매는 멋진 반바지를 입고 다니시나요?"

"그건 미처 못 봤습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하지만 분명 입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나!" 산치카가 대답했다. "우리 아버님이 통 넓은 반바지를 떡하니 차려입으신 모습을 보게 되다니, 이게 웬일인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이 끈으로 멋지게 동여맨 반바지를 입으신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나 보네요!"

"살아만 계신다면 그렇게 차려입으신 모습을 꼭 보시게 될 겁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맙소사, 통치 기간이 고작 두 달밖에 안 되는데도, 벌써 얼굴을 가리는 여행용 두건을 쓰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니실 만한 형편이신걸요."

신부와 학사는 시종이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챘다. 하지만 산초가 보낸 화려한 산호 목걸이와 사냥복을 보자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 이미 테레사가 그 옷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산

치카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웃음을 터뜨렸는데, 테레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자 웃음은 더욱 커졌다.

"신부님, 혹시 마드리드나 톨레도로 가는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가서 제대로 된 풍성한 치마를 한 벌 사 오게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아주 좋은 물건으로요. 정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한 남편의 통치를 빛내주고 싶거든요. 만약 제가 화라도 나면, 다른 여자들처럼 마차를 타고 궁정으로 떠나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통치자를 남편으로 둔 여자라면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어머니!" 산치카가 말했다. "내일보다 오늘 당장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제가 어머니와 함께 저 마차에 앉아 가는 모습을 보고 '저 잘난 것 좀 보게, 마늘이나 잔뜩 처먹는 작자의 딸년이 무슨 여자 교황이라도 된 양 마차에 떡하니 늘어져 앉아 가는 꼴 좀 봐!'라고 수군거린대도 상관없어요. 남들은 진흙탕이나 밟고 다니라죠. 저는 발을 땅에 대지도 않고 제 마차를 타고 다닐 거예요. 세상의 온갖 험담꾼들에게는 재수 없는 해와 달이 되겠지만, 저는 따뜻하게 잘 지내고 사람들은 마음껏 비웃으라죠! 어머니, 제 말이 맞죠?"

"그럼, 네 말이 백번 옳지!" 테레사 판사가 대답했다. "이 모든 행운은, 아니 이보다 더 큰 행운까지도 내 착한 남편 산초가 이미 예언해 주었단다. 얘야, 너는 곧 보게 될 거야. 남편이 나를 백작부인으로 만들어 줄 때까지 이 행운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다. 행운이란 건 일단 시작되면 끝이 없는 법이지. 네 착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도 있잖니. 속담에 이르기를, '송아지를 주면 밧줄을 챙겨라'라고 했듯이, 통

치직을 얻으면 꽉 붙잡고, 백작령을 얻으면 놓치지 말며, 좋은 선물을 듬뿍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고 말이야. 아니, 이럴 때 잠만 자고 있을 게 아니라, 집 문을 두드리는 행운과 축복의 목소리에 기쁘게 응답해야 하는 법이란다!"

"그게 뭐 어때서요, 어머니?" 산치카가 덧붙였다. "사람들이 제가 한껏 멋부리고 우쭐대는 꼴을 보고 '개가 삼베 바지를 입더니 제 친구도 몰라보네'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을 들은 신부가 말했다.

"내 생각엔 판사 가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속담 자루를 하나씩 하나씩 품고 태어난 게 분명해. 그 집안 사람 중 누구를 보더라도, 대화할 때마다 입만 열면 속담을 쏟아내지 않는 사람이 없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시종이 말했다. "통치자가 되신 산초 님께서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담을 쏟아내시거든요. 비록 상황에 맞지 않는 말도 많지만, 듣고 있으면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작 부인과 공작께서도 그 말씀을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주인님, 산초가 정말로 통치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세상에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편지까지 쓰는 공작부인이 실존한다는 말씀을 아직도 믿으시는 겁니까?" 학사가 물었다. "저희는 눈앞에 놓인 선물들을 만져보고 편지도 읽어보았지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인 돈키호테가 모든 일을 마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저 그런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주인님께

서 환상 속의 사절인지 아니면 진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 보게 직접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에 대해 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시종이 대답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곤 제가 진짜 사절이라는 사실, 그리고 산초 판사 님이 실제로 통치자라는 사실, 그리고 저희 주인인 공작과 공작부인께서 그 통치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실제로 부여하기도 하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또한 그 산초 판사 님이 통치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일을 해내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마법이 섞여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끼리 알아서 논쟁하십시오. 저는 그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제가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라는 것을 걸고 맹세하건대, 정말로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학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도 의심은 하셨답니다."

"의심할 분은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시종이 대답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물 위에 뜬 기름처럼 거짓 위를 언제나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믿기지 않으신다면 말보다는 행동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저와 함께 가신다면, 귀로 듣고도 믿지 못했던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야지요." 산치카가 말했다. "나리, 저를 나리의 말 엉덩이에 함께 태워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뵈러 가겠습니다."

"통치자의 딸들은 길을 홀로 다녀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반드시 마차와 가마를 동반하고, 수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다녀야 하지요."

"맙소사," 산차가 대답했다. "저는 마차를 타든 암나귀를 타든 똑같이 잘 갑니다. 절 무슨 까탈스러운 아가씨로 보셨나 보군요!"

"얘야, 조용히 하렴." 테레사 판사가 말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구나. 이분 말씀이 옳다. 때에 따라 처신도 달라지는 법이야. 그이가 산초였을 땐 너도 그냥 산차였지만, 이제 통치자가 되셨으니 너도 '아가씨' 대접을 받아야지. 내 말이 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테레사 부인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시종이 말했다. "그러니 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돌아갈 생각이니까요."

이에 신부가 말했다.

"나리, 저와 함께 가셔서 변변찮으나마 식사를 하시지요. 테레사 부인께서야 이토록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픈 마음은 굴뚝같으시지만 그만한 살림은 못 되시니 말입니다."

시종은 거절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제안을 받아들였다. 신부는 돈키호테와 그의 모험에 대해 여유 있게 물어볼 기회라 생각하여 기쁜 마음으로 시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학사가 답장을 대신 써 주겠다고 나섰지만, 테레사 판사는 그가 다소 짓궂은 사람이라 여겨 자기 일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쓸 줄 아는 어린 복사 소년에게 빵 한 덩이와 달걀 두 개를 주고 편지 두 통을 쓰게 했다. 하나는 남편에게, 다른 하나는 공작 부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모두 테레사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받아 적은 것이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편지들은 이 위대한 이야기에 실린 편지들 가운데 결코 못한 축에 드는 것이 아니다.

제51장



제51장. 산초 판사의 통치가 진척되는 과정과 그 밖의 흥미로운 사건들

총독이 밤새 순찰을 돈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시종장은 변장한 처녀의 얼굴과 기개, 그리고 아름다움을 떠올리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 밤을 보냈고, 집사는 남은 밤 시간을 산초 판사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인들에게 적어 보내는 데 썼다. 산초의 말과 행동에는 영리한 구석과 어리석은 구석이 뒤섞여 있어서, 집사는 그의 행동만큼이나 그의 말에도 감탄했던 것이다.

마침내 총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페드로 레시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은 산초에게 과일 절임 약간과 찬물 네 모금을 아침 식사로 내주었다. 산초는 그것을 빵 한 조각과 포도 한 송이로 바꿔 먹고 싶었으나,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강요라는 것을 알고는 속이 쓰리고 배가 고픈 채로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페드로 레시오는 소량의 정갈한 음식이 정신을 맑게 하며, 육체의 힘보다 지적 능력을 써야 하는 통치자나 중책을 맡은 사람에게는 이런 식사가 가장 알맞다고 그를 믿게 했다.

산초는 이런 궤변 탓에 배고픔에 시달렸는데,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속으로는 통치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이 자리를 맡긴 사람까지 저주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산초는 배고픈 채로, 그 과일 절임만으로 그날의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처음 맞닥뜨린 일은 한 이방인이 던진 질문이었는데, 집사와 다른 수행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물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리, 거대한 강 하나가 한 영주의 두 영지를 가르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까다로운 일이니 부디 주의 깊게 들어 주십시오). 그 강 위에는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고, 다리 끝에는 교수대와 재판소처럼 생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보통 네 명의 판사가

상주하며, 강과 다리, 그리고 영지의 주인인 영주가 정한 법을 집행하곤 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누구든 이 다리를 건너 이편에서 저편으로 가고자 한다면, 먼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맹세해야 한다. 만약 진실을 맹세했다면 통과시켜 주되, 만약 거짓을 말했다면 예외 없이 저기 보이는 교수대에 매달아 죽여야 한다.' 이 법과 그 엄격한 조항을 잘 알면서도 많은 이가 다리를 건넜는데, 맹세한 내용이 진실임이 드러나면 판사들은 그들을 자유로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이 맹세를 걸고 말하건대, 자기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저기 있는 저 교수대에서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판사들은 이 맹세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판사들이 말하기를, '만약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준다면 그는 맹세에서 거짓을 말한 것이 되니 법에 따라 죽여야 한다. 반대로 그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그는 저 교수대에서 죽겠다고 진실을 맹세한 셈이니 같은 법에 따라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총독 나리, 판사들이 이 남자를 어떻게 처결해야 할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판사들은 지금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리의 명석하고 높은 지혜에 대해 익히 들었기에, 이토록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에 대해 나리의 의견을 여쭈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당신을 보내신 그 판사님들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을 겁니다. 저는 명석하기보다는 그저 무식한 사람에 가깝거든요.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정답을 맞힐지도 모르니까요."

질문자는 처음에 했던 이야기를 몇 번이고 거듭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교수형을 당한다면 그 남자의 맹세는 참이 되니, 정해진 법에 따라 자유를 얻어 다리를 건너갈 자격이 생깁니다. 반대로 교수형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거짓을 말한 셈이 되니, 똑같은 법에 따라 교수형에 처해 마땅합니다."

"통치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령이 말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이토록 명쾌하게 꿰뚫고 계시니, 더 바랄 것도 없고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가 참이라고 맹세한 부분은 그대로 다리를 건너게 해주고, 거짓이라고 말한 부분은 교수형에 처하게 합시다. 그래야 다리를 건너는 조건이 글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통치자님," 질문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를 거짓을 말한 부분과 참을 말한 부분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만약 사람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는 필연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요구하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법은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법이니까요."

"이보시오, 착한 양반."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통행객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가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사람은 죽어야 할 이유만큼이나 살아서 다리를 건너야 할 이유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을 말한 덕분에 목숨을 구한다면, 거짓을 말한 것 때문에 똑같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사정이 정말 이러하니, 저를 보내신 그 귀하신 분들께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를 처벌할 이유와 풀어줄 이유가 저울처럼 팽팽하게 맞서 있으니, 차라리 그를 자유롭게 지나가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언제나 더 칭송받는 법이니까요. 제가 만약 서명할 줄 알았다면 제 이름을 걸고 이 일을 분명히 보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다만 제 주인 돈키호테께서 제가 이 섬의 통치자가 되기 전날 밤에 일러주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떠올랐을 뿐입니다. 정의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자비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그에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도우셔서, 마치 이 상황에 꼭 들어맞도록 맞춰 둔 것처럼 그 가르침이 지금 떠올랐으니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라케다이몬 사람들에게 법을 세운 리쿠르고라 할지라도, 위대한 판사님께서 내린 판결보다 더 나은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 재판은 이것으로 끝내

겠습니다. 통치자님께서 입맛에 딱 맞는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거 참 좋군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그저 제게 먹을 것만 좀 주십시오. 어떤 사건이나 난처한 문제가 쏟아져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공중에서 휙휙 해결해 버리면 되니까요."

집사는 산초 판사의 말을 곧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토록 명석한 통치자를 굶겨 죽이는 것은 양심에 가책이 느껴질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날 밤, 산초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선사할 장난을 완성하여 일을 마무리 지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티르테아푸에라 박사가 말한 규칙과 격언을 어겨가며 식사를 마친 산초 판사가 식탁에서 일어날 무렵, 전령 한 명이 통치자에게 전할 돈키호테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산초는 서기에게 편지를 혼자 읽어보라고 시키면서, 만약 그 안에 비밀로 지켜야 할 내용이 없다면 소리 내어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서기는 그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서기는 먼저 편지를 찬찬히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돈키호테 님께서 통치자님께 보내는 이 글은 황금 글자로 새겨 넣어야 할 만큼 귀한 내용이니까요." 서기가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 산초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내 친구 산초야, 네가 얼마나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지 소식을 듣게 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네가 얼마나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구나. 가난한 자를 똥더미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하늘에 특별히 감사를 드렸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사람답게 통치하면서도 정작 너 자신은 짐승처럼 겸손하게 대한다고 하더구나. 산초야, 명심하거라. 직책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때로 마음속의 겸손함을 억누르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필요할 때가 있단다. 중책을 맡은 사람의 품격은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직책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야 하는 법이니까. 옷차림을 제대로 갖추어라. 잘 차려입은 막대기는 막대기처럼 보이지 않는 법이다. 보석이나 화려한 장신구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판사라는 사람이 군인처럼 입으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네 직무에 걸맞은 의복을 갖추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라는 말이다.

네가 다스리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하나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미 전에도 해준 바다. 다른 하나는 먹을거리가 풍족하도록 힘쓰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괴롭히는 것은 없으니, 바로 배고픔과 물자 부족이다.

너무 많은 법령을 만들지는 마라. 만약 법을 만든다면 반드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지키고 이행하도록 힘써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법령은 아예 만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켜지지 않는 법은, 법을 만들 만큼의 신중함과 권위를 갖춘 통치자가 정작 그 법을 지키게 할 용기는 없다는 사실

을 만천하에 드러낼 뿐이다. 사람들을 겁만 주고 집행되지 않는 법은 마치 개구리들의 왕 노릇을 하는 막대기와 같다.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 달아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개구리들은 그 막대기를 우습게 여기며 그 위로 올라타 버릴 것이니 말이다.

덕행은 아버지가 되어 보살피고, 악덕은 의붓아버지처럼 대하라. 언제나 엄격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늘 무르기만 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중용을 찾는 법을 익혀라. 그것이 바로 신중함의 핵심이다. 감옥과 정육점, 그리고 광장에도 수시로 나가보아라. 통치자가 그런 곳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판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죄수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주고, 정육점 상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 그때만큼은 저울 눈금을 정직하게 맞추게 하며, 같은 이유로 장터의 좌판 여인들에게도 허수아비 같은 경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설령 네가 그러한 성품을 가졌을지라도—나는 결코 그럴 리 없다고 믿지만—절대로 탐욕스럽거나, 여색을 밝히거나, 먹보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백성들과 네 곁의 사람들이 네 본성을 알게 되는 날에는, 너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때까지 끊임없이 너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통치를 시작하러 떠나기 전에 내가 글로 써서 준 조언과 지침들을 잘 살펴보고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아라. 만약 네가 이 내용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통치자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주하게 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네게 은혜를 베푼 주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해라. 배은망덕함은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법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 중 하나

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선을 베푼 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수많은 복을 내려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공작부인께서는 네 옷가지와, 네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줄 또 다른 선물을 지닌 전령 하나를 보내셨다. 우리는 시시각각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얼마 전 내 코에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은 고양이 할퀌 소동을 한 차례 겪은 탓에 몸 상태가 좀 좋지 않았다. 하지만 별일은 아니었다. 나를 괴롭히는 마법사가 있다면, 나를 지켜주는 마법사도 있는 법이니까.

네가 의심했던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집사가 트리팔디의 행각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거든 내게 알려다오. 그리고 앞으로 네게 무슨 일이 생기든 계속 소식을 전해다오. 우리 사이의 길이 그리 멀지 않으니 말이다. 더구나 나는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한가로운 삶을 곧 청산할 생각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어떤 일이 하나 생겼는데, 아마 이 양반들의 눈 밖에 나게 될 것 같구나. 하지만 그 일이 내게 아무리 마음에 걸린다 한들, 또 한편으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결국 나는 그분들의 비위를 맞추기보다 내 직분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말하듯, '플라톤은 친구지만, 진리는 더 친한 친구'인 법이니 말이다. 네게 이 라틴어 문구를 알려주는 것은, 네가 통치자가 된 이상 이 정도 라틴어는 이미 익혔으

리라 믿기 때문이다. 그럼 신의 가호가 있기를. 부디 그 누구도 너를 가엾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신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너의 친구가,

라만차의 돈키호테.

산초는 아주 주의 깊게 편지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편지가 참으로 현명하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초는 식탁에서 일어나 서기를 불렀습니다. 산초는 서기와 함께 자기 방으로 들어가, 지체 없이 곧장 주인 돈키호테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산초는 서기에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단 한 글자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 적으라고 일렀고, 서기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산초 판사가 라만차의 돈키호테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워낙 산더미처럼 쌓여서, 머리 한 번 긁을 틈도 없고 손톱을 깎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자라버렸습니다. 제 영혼의 주인님이신 귀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통치 업무를 수행하며 잘 지내는지 혹은 못 지내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소식을 전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예전에 주인님과 제가 함께 숲과 황무지를 헤매고 다닐 때보다 더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며칠 전 제 주인님이신 공작께서 제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저를 죽이려는 첩자들이 이 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찾아낸 첩자는 이곳에서 통치자가 올 때마다 죽이려고 월급까지 받는 어떤 의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름은 페드로 레시오 박사라고 하는데, 티르테아푸에라 출신이라더군요. '티르테아푸에라(모두 다 나가버려라)'라니, 그 이름만 들어도 그의 손에 죽지 않을까 겁이 나지 않으십니까! 이 박사라는 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병이 생겼을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방하는 약이란 그저 식단 조절과 또 식단 조절뿐이라, 환자가 뼈만 남을 때까지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마치 열병보다 허약해지는 것이 더 큰 병인 양 말입니다. 결국 그는 저를 굶겨 죽이려 하고, 저는 울화통이 터져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시원한 물을 마시며, 깃털 매트리스 위에서 홀란드식 면 시트를 덮고 몸을 편히 쉬게 하려고 이 통치직을 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해 보니 마치 은둔 수행자처럼 고행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의지로 하는 고행도 아니니, 결국에는 악마가 저를 데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부정한 짓을 저지르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풀릴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이곳 사람들 말로는, 이 섬에 통치자로 부임하는 이들은 섬에 들어오기도 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거나 빌린다고 합니다. 이런 관행은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통치직을 맡으러 가는 이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어젯밤 순찰을 돌다가 남장한 아주 아름다운 처녀와 여장을 한 그녀의 오라비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제 집사님은 그 처녀에게 반해버려서, 본인 말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를 아내로 점찍었다더군요. 저는 그 오라비를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부친인 디에고 데 라 야나를 만나, 우리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한 신분의 귀족이자 대대로 신앙을 지켜온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인님께서 권하신 대로 광장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제는 갓 수확한 헤이즐넛을 파는 상인을 한 명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싱싱한 헤이즐넛 한 바구니에 텅 비고 썩은 헌 헤이즐넛 한 바구니를 섞어 팔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구별할 수 있도록 그 헤이즐넛들을 전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그 여자는 보름 동안 광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처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아주 용맹하게 일을 처리했다고들 하더군요. 제가 주인님께 드릴 말씀은, 이 마을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니 시장 상인들만큼 나쁜 사람들도 없다더군요. 다들 염치도 없고 모질고 겁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저 역시 다른 마을에서 본 상인들을 생각하면 그 말에 동감합니다.

공작부인께서 제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를 쓰시고, 주인님께서 말씀하신 선물까지 보내주셨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적절한 때에 반드시 감사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께서 제 대신 그분께 손을 맞잡으며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선물을 결코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가 증명해 줄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주인님께서 저의 상전들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만약 주인님께서 그분들에게 화를 내신다면, 그것은 분명 저에게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내려져 있는데, 저에게 이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에서 수많은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주인님께서 정작 고마움을 모르신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가테아도'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나쁜 마법사들이 주인님을 골탕 먹이려고 부리는 수작 중 하나겠지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그때 자세히 알게 되겠지요.

주인님께 무엇인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만, 무엇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섬에서는 방광에 끼워 쓰는 아주 정교한 주사기 대롱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보내드려야 할까요? 만약 제가 이 직책을 오래 맡게 된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드릴 만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제 아내 테레사 판사가 편지를 쓴다면, 주인님께서 우편 요금을 내시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집안 형편은 어떤지, 아내와 아이들은 잘 있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인님을 못된 마법사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통치직을 무사히, 평온하게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페드로 레시오 의사가 저를 대하는 꼴을 보니,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주인님의 종으로부터,

통치자 산초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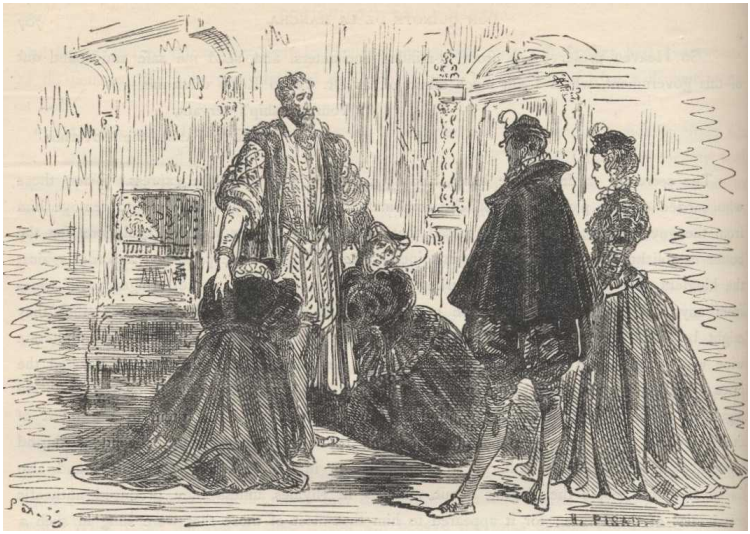
서기는 편지를 봉하고 곧바로 전령에게 들려 보냈다. 그러자 산초를 골탕 먹이려는 무리가 모여, 그를 통치직에서 어떻게 물러나게 할지 서로 의논했다. 그날 오후 산초는 자신이 섬이라 믿고 있는 그곳을 잘 다스리기 위해 몇 가지 법령을 만드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나라 안에서 식료품을 중간에서 사재기해 되파는 장사꾼을 두지 못하게 했고, 와인은 어느 지역 것이든 들여올 수 있게 허용하되 반드시 원산지를 밝히도록 했다. 그래야 그 산지의 평판과 품질, 명성에 따라 알맞은 값을 매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와인에 물을 타거나 이름을 바꿔 속여 파는 자는 그 죄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발 가격이, 특히 구두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여겨 모든 신발류의 값을 낮추었다. 또한 잇속을 좇아 제멋대로 굴던 하인들의 품삯에도 상한을 정했다. 밤이든 낮이든 음란하고 저속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매우 엄중한 벌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어떤 맹인도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는 한 노래로 기적을 읊지 못하게 했다. 맹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꾸며낸 가짜여서 진짜 기적에 해를 끼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담당하는 관리도 한 명 두었다. 다만 이 관리의 임무는 가난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가난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거짓으로 꾸민 불구나 가짜 상처 뒤에는 도둑질하는 손과, 멀쩡하면서 술에 취한 몸이 숨어 있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는 매우 훌륭한 법령들을 만들었고, 이 법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전해 내려오며 '위대한 통치자 산초 판사의 헌법'이라 불린다.

제52장



제52장. 두 번째 '슬픔의 시녀(돌로리다)' 혹은 '고뇌의 시녀(앙구스티아다)', 다른 이름으로는 도냐 로드리게스라 불리는 이의 모험에 대하여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전하기를, 돈키호테는 상처가 다 나아 몸이 회복되자 그 성에서 머무는 생활이 자신이 맹세한 기사도의 도리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곧 축제가 열릴 사라고사로 떠나겠다고 공작 부부에게 허락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런 축제에서 겨루어 차지하는 갑옷을 상으로 얻을 생각이었다.

어느 날 돈키호테가 공작 부부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획했던 대로 떠날 허락을 구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대연회장 문을 통해 두 여인이 들어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복을 입은 차림이었다. 그중 한 여인이 돈키호테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발치에 길게 엎드려 몸을 뉘었다. 그녀는 돈키호테의 발에 입이 막힌 채로 너무나 슬프고 깊으며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절한지, 그녀를 보고 듣는 모든 이가 당혹스러워할 정도였다. 공작 부부는 처음에 하인들이 돈키호테를 골탕 먹이려고 꾸민 장난인가 생각했다. 하지만 여인이 간절하게 한숨을 내쉬며 신음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자, 공작 부부도 의구심과 불안함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돈키호테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녀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고, 여인이 눈물 젖은 얼굴을 가린 망토를 걷어내도록 했다.

여인은 그렇게 했다. 그러자 누구도 상상조차 못 할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이 집안의 노시녀인 도냐 로드리게스의 얼굴이었고, 함께 상복을 입고 온 다른 여인은 부유한 농부의 아들에게 농락당한 그녀의 딸이었다. 그녀를 알아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고, 공작 부부는 누구보다 더 놀랐다. 그들은 도냐 로드리게스를 마음씨 곱고 어수룩한 사람으로만 여겼지, 결코 이런 소동을 일으키러 올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

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도냐 로드리게스가 주인 부부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다.

"공작 부부님, 부디 저에게 허락을 내려 주십시오. 이 기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악의를 품은 비천한 놈이 저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작은 기꺼이 허락하며, 돈키호테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누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인은 목소리와 표정을 가다듬고 돈키호테를 향해 말했다.

"용맹하신 기사님, 제 사랑하는 딸이 저 비천한 농부 놈에게 당한 부당하고도 비열한 일을 이미 말씀드린 지 꽤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불쌍한 아이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그때 기사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가해진 부당함을 바로잡아 주겠노라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 기사님께서 하느님이 점지해 주신 행운을 찾아 이 성을 떠나려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기사님, 그 길을 떠나시기 전에 제발 저 거칠고 무도한 농부 놈에게 결투를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놈이 제 딸과 잠자리를 갖기 전에, 먼저 남편이 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 딸과 결혼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제 주인이신 공작께서 저를 위해 정의를 구현해 주실 거라 기대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이미 기사님께 모든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부디 우리 주님께서 기사님께는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키호테는 여인의 말에 아주 엄숙하고도 장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고귀하신 부인, 눈물을 거두십시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눈물을 닦아내고 한숨도 아끼십시오. 제가 부인의 따님을 위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따님은 연인들의 약속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 약속이란 대개 입으로는 쉽게 내뱉지만, 지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법이니까요. 그러니 제 주인이신 공작님의 허락을 받아, 저는 곧장 그 무도한 청년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놈을 찾아내어 결투를 신청하고, 만약 그놈이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마다 가차 없이 처단하겠습니다. 제 본분의 으뜸가는 목표는 비천한 자를 용서하고 오만한 자를 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불쌍한 이들을 돕고 포악한 자들을 멸하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그 농부를 찾는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작이 대답했다. "또한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기 위해 제 허락을 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대신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그에게 결투를 통보하고, 그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제 성으로 와서 응하게 하는 일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결투가 벌어지는 동안 두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이며, 결투에서 지켜야 할 모든 규칙과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지 내에서 결투를 허락하는 모든 군주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처럼,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게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작님의 확약과 허락을 받았으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선언하건대, 저는 이번 한 번만 제 이달고로서의 신분을 내려놓겠습니다. 가해자의 비천한 처지에 맞추어 저 또한 그와 똑같이 몸을 낮추고 그와 대등한 신분이 되어, 그가 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록 그자가 이 자리에 없으나, 그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도전장을 던지겠습니다. 그놈은 처녀였던 이 가련한 여인을 속여 제 잘못으로 정조를 잃게 했으니 명백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놈은 정식 남편이 되겠노라 했던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 대가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돈키호테는 장갑 한쪽을 벗어 방 한가운데로 던졌다. 공작은 그 장갑을 집어 들며, 이미 말했듯이 자신의 가신을 대신하여 그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결투 기한은 지금으로부터 6일 뒤로, 장소는 이 성의 광장으로, 무기는 창과 방패 그리고 온갖 갑주를 포함한 기사들의 통상적인 무기로 정했다. 단, 결투 심판관들이 검사하고 확인한 것들 중 그 어떤 속임수나 가짜, 혹은 미신적인 요소도 섞이지 않은 정당한 무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고결한 여인과 불행한 처지에 놓인 처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돈키호테 경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번 결투 또한 제대로 집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맡기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다.

"저도 맡기겠습니다." 딸도 덧붙였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수치심과 울화가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한 뒤, 공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를 굴렸다. 상복을 입은 여인들이 물러가자, 공작부인은 도냐 로드리게스 일행을 이제부터 하녀가 아니라 정의를 구하러 찾아온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도의 방을 내어주었고, 다른 하녀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손님으로서 정중히 모셨다. 하녀들은 도냐 로드리게스와 그 불운한 딸이 부리는 이 황당하고도 거침없는 행동이 대체 어디로 흘러갈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한창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마무리하고 식사를 잘 끝내려던 참이었다. 그때 산초 판사의 아내인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하러 갔던 그 시종이 거실로 들어왔다. 공작 부부는 그가 돌아오자 무척 기뻐했는데, 그가 여행길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몹시 궁금했기 때문이다. 공작 부부가 시종에게 그 사정을 물었으나, 시종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짧게 대답할 수는 없다며, 두 분만 계실 때 따로 말씀드릴 테니 그동안 이 편지들을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청했다. 그러고는 편지 두 통을 꺼내 공작부인의 손에 쥐여 주었다. 한 통의 봉투에는 '어디인지 모를 곳에 계신 나의 귀하신 공작부인께 드리는 편지'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한 통에는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이자 나의 남편인 산초 판사에게, 신께서 저보다 그에게 더 많은 세월을 허락하시기를'이라고 적혀 있었다. 공작부인은 흔히들 말하듯,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도무지 안절부절못했다. 그녀는 편지를 열어 혼자

읽어 내려가다가, 공작과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읽어도 좋겠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읽었다.

테레사 판사가 공작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테레사 판사가 공작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공작부인님, 진심으로 고대하던 편지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보내주신 산호 목걸이는 정말 아름답고, 남편에게 보내주신 사냥복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합니다. 제 남편 산초를 통치자로 임명하셨다는 소식에 이곳 사람들은 모두 무척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부님이나 이발사 니콜라스, 그리고 학사 산손 카라스코를 비롯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으니까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산호 목걸이와 사냥복을 받지 못했다면 저조차도 이 소식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 남편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염소 떼나 몰던 사람이 대체 어떤 통치를 잘할 수 있겠느냐며 다들 혀를 찹니다. 부디 신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영혼의 주인 되시는 공작부인님, 부디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이번 좋은 날을 맞아 집을 떠나 궁정으로 가려 합니다. 마차를 타고 떠나서, 이미 저를 시기하는 수많은 이들의 눈에 쌍심지를 돋우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 공작부인님, 부디 제 남편에게 돈을 좀 보내라고 명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궁정은 물가가 비싸니 적지 않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빵 한 덩이가 1레알이고, 고기 한 파운드는 30마라베디나 하니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만약 제가 가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미리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길을 떠나고 싶어 발이 근질근질하니까요. 제 친구들과 이웃들은 말하기를, 저와 제 딸이 궁정에서 화려하고 품위 있게 돌아다니게 되면, 제가 남편을 아는 것보다 남들이 제 남편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저 마차에 탄 귀부인들은 누구신가?'라고 물을 것이고, 그러면 제 하인이 '바라타리아 섬의 통치자, 산초 판사의 아내와 딸입니다'라고 대답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산초의 이름도 널리 알려지고 저 또한 존경을 받게 될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끝까지 밀어붙여 볼 작정입니다.

올해 우리 마을에는 도토리가 하나도 열리지 않아 정말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부인님의 높으신 위엄에 보답하고자 반 셀레민(celemín) 정도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직접 산에 가서 하나하나 정성껏 줍고 골라온 것인데, 이보다 더 큰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타조 알만큼이나 커다란 도토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공작부인님의 그 드높은 위엄을 잊지 마시고 제게 답장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곳의 안부와 제 건강 상태를 비롯해 전해드릴 소식이 있다면 빠짐없이 적어 답장을 보내겠습니다. 공작부인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기를, 그리고 저를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딸 산차와 제 아들이 공작부인님의 손에 경의를 표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공작부인님을 뵙기를 글을 쓰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하녀가 올립니다.

테레사 판사.

테레사 판사의 편지를 읽은 모두는 큰 즐거움을 느꼈는데, 특히 공작 부부의 기쁨이 컸다. 공작부인은 돈키호테에게 통치자에게 전달될 이 편지를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편지 내용이 아주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돈키호테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기꺼이 편지를 열어보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편지를 펼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테레사 판사가 남편 산초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내 영혼의 반려인 산초, 당신의 편지 잘 받았어요. 가톨릭 신자로서 맹세코 약속하건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정신을 잃을 뻔했다니까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당신이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줄만 알았어요. 갑작스러운 기쁨이 큰 슬픔만큼이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 당신도 잘 알잖아요. 우리 딸 산치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을 정도라니까요. 당신이 보내준 옷을 앞에 두고, 공작부인께서 보내주신 산호 장식을 목에 걸고, 손에는 편지를 든 채, 편지를 전해준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내가 보고 만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그저 염소나 치던 사람이 어떻게 섬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께서 많은 것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더 오래 살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 같아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징세 청부인이나 세금 징수원이 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지켜볼 작정이니까요. 그런 일이야 잘못 다루는 사람은 악마가 잡아간다지만, 어쨌거나 늘 돈을 만지고 주무르는 자리잖아요. 내가 궁정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공작부인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잘 생각해서 내게 알려줘요. 궁정에서 마차를 타고 다니며 당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애써 볼 테니까요.

신부님과 이발사님, 학사님, 심지어 성당 관리인까지도 당신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속임수이거나 마법에 걸린 일이라고들 하는데, 당신의 주인인 돈키호테가 겪는 일들이 다 그렇듯 말이에요. 산손은 당신을 찾아가서 그 통치자 자리를 머리에서 떼어내 버리고, 돈키호테에게는 그 미친 정신을 머릿속에서 뽑아내 버려야겠다고 떠들고 다녀요. 나는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에요. 내 산호 목걸이를 들여다보며, 당신 옷을 뜯어 우리 딸에게 지어 줄 옷을 어떻게 만들지 궁리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공작부인께는 도토리 몇 알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들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면 좋겠네요. 만약 그 섬에서도 진주 목걸이를 즐겨 쓴다면, 당신도 내게 진주 목걸이를 몇 줄 보내주세요.

이곳의 새로운 소식은 이렇습니다. 베루에카가 자기 딸을 솜씨 나쁜 화가와 결혼시켰는데, 이 화가는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그려 보겠다며 이 마을에 흘러든 자였습니다. 마을 의회에서는 시청 문 위에 국왕 폐하의 문장을 그려 넣으라고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돈을 2두카토

달라고 요구했고, 의회는 그 돈을 미리 내주었습니다. 그는 여드레 동안 일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그려내지 못한 채 그렇게 자질구레한 것들을 그릴 재주가 없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받은 돈을 돌려주었으면서도, 솜씨 좋은 기술자라는 명목으로 결혼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제 붓을 내려놓고 괭이를 들었으며, 마치 귀족이라도 된 양 들판으로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드로 데 로보의 아들은 성직자가 되려고 하급 성직 품계를 받고 삭발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밍고 실바토의 손녀인 밍기야가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가 자신과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임신시켰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그는 죽어도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리브도 나지 않고, 이 마을 전체를 통틀어 식초 한 방울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인 한 무리가 이곳을 지나갔는데, 길을 가던 중에 이 마을 처녀 세 명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돌아온다면, 그들이 가진 결점이나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들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은 분명 나타날 것입니다.

산치카는 레이스 가장자리 장식을 뜨며 지냅니다. 매일 여덟 마라베디씩 알뜰히 벌어 혼수 비용에 보태려고 저금통에 차곡차곡 모으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총독의 딸이 되었으니, 그녀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당신이 직접 지참금을 챙겨주어야 할 겁니다. 마을 광장의 분수는 말라붙었고, 번개가 죄인을 매다는 기둥에 떨어졌지만, 그런 일이야 저와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지요.

이 일에 대한 답변과 제가 궁정으로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저보다 혹은 저만큼이나 더 오래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홀로 남겨두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당신의 아내,

테레사 판사.

편지들은 한껏 칭송받았고,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듯 우체부가 도착했는데, 그는 산초가 돈키호테에게 보낸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편지 또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었는데, 그 내용은 오히려 총독이 정말 어리석은 자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작부인은 산초가 있던 곳에서 시종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종은 그곳에서 겪은 일을 사소한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도토리를 공작부인에게 건넸고, 거기에 더해 테레사가 준 치즈도 내놓았는데, 그 치즈가 어찌나 좋은지 트론촌의 치즈보다 나을 정도였습니다. 공작부인은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작부인은 그렇게 두고, 모든 섬 총독들의 꽃이자 거울이었던 위대한 산초 판사가 총독직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그 결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53장



제53장. 산초 판사의 통치가 맞이한 피곤한 결말과 마무리

“이 세상의 일들이 언제나 한결같은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 오히려 세상은 모든 것이 둥글게, 내 말은 끊임없이 회전하며 돌아가는 듯하다. 봄은 여름의 뒤를 잇고, 여름은 한여름의 뒤를 잇고, 한여름은 가을의 뒤를 잇고, 가을은 겨울의 뒤를

잇고, 겨울은 다시 봄의 뒤를 이으니, 이렇듯 시간은 쉼 없이 돌아가는 바퀴처럼 계속해서 순환한다. 오직 인간의 삶만이 시간보다 더 빠르게 제 종말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인간의 삶은 한계로 제약받지 않는 저 세상의 삶에서가 아니고서는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랄 수 없다." 이슬람 철학자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이렇게 말했다. 현재의 삶이 얼마나 가볍고 불안정한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삶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깨닫는 일은, 신앙의 빛이 없이 타고난 이성의 빛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이미 깨우친 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저자가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산초의 통치가 마치 그림자나 연기처럼 너무나도 순식간에 끝나버렸고, 소멸했으며,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통치 7일째 되는 밤, 산초 판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빵이나 포도주로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고 의견을 내며 법령과 규칙을 만드는 일로 배가 부른 터였다. 배고픔을 무릅쓰고 겨우 잠이 들어 눈꺼풀이 감기려던 찰나, 마치 섬 전체가 가라앉는 듯한 거대한 종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이 엄청난 소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원인은커녕, 사람들의 목소리와 종소리에 무수히 많은 나팔과 북소리까지 더해지자 그는 더욱 혼란에 빠졌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이 축축한 탓에 슬리퍼를 신었다. 겉옷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방 문밖으로 나선 순간, 복도 저편에서 손에 횃불을 들고 칼을 뽑아 든 스무 명 남짓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무기를 드십시오, 무기를 드십시오, 통치자님, 무기를 드셔야 합니다! 수많은 적군이 섬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통치자님의 지략과 용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끝장입니다!"

이러한 소란과 분노, 아수라장 속에서 사람들이 산초가 있는 곳까지 들이닥쳤다. 산초는 눈앞에 벌어진 광경과 들려오는 소리에 정신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어서 무기를 드십시오, 통치자님! 그러지 않으시면 통치자님께서도 죽고, 이 섬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고 말 것입니다!"

"무기는 무슨 무기요?" 산초가 대답했다. "나는 무기나 구호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모른단 말이오. 이런 일은 차라리 내 주인인 돈키호테께 맡기는 게 상책이지요. 주인님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해결하고 상황을 정리해 버리실 테니까 말이오.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로서는, 이런 급박한 일들은 도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오."

"아, 통치자님!" 다른 사람이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서 무기를 드십시오! 여기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어서 저 광장으로 나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통치자님이시니 마땅히 그러셔야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서 무장을 시켜 주시오!" 산초가 대답했다.

그들은 즉시 무기를 갖춘 방패판 두 개를 가져왔다. 그러고는 산초 판사가 다른 옷을 갈아입을 틈도 주지 않은 채, 셔츠 위에 방패 하나를 앞면에, 다른 하나를 뒷면에 덧대어 씌웠다. 이어 방패에 미리 뚫어 놓은 구멍 사이로 산초의 팔을 빼내더니, 밧줄로 아주 단단히 묶어 버렸다. 결국 산초는 마치 벽과 판자에 갇힌 것처럼, 물레 가락처럼 꼿꼿하게 선 채 무릎을 굽히지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손에 창을 쥐여 주었는데, 산초는 겨우 몸을 지탱하려고 그 창에 몸을 기댔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뒤 사람들은 그에게 걸어가며 모두를 이끌고 격려하라고 말했다. 산초가 그들의 북극성이자 등불이며 새벽별이 되어준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불쌍한 놈더러 도대체 어떻게 걸으라는 말이오!" 산초가 대답했다. "이 판자들이 살점과 한 몸처럼 꽉 묶여 있어서 무릎을 까딱할 수도 없는데 말이오. 차라리 나를 번쩍 들어서, 가로로 눕히든 세로로 세우든 어느 쪽이든 좋으니 작은 문 앞에 갖다 놓으시오. 그러면 내가 이 창이나 내 몸을 이용해서라도 그곳을 지켜낼 테니 말이오."

"어서 가십시오, 통치자님!" 다른 사람이 말했다. "판자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보다 두려움 때문에 발이 안 떨어지는 게 더 커 보입니다. 어서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시간이 촉박합니다. 적들은 점점 불어나고, 함성은 커지며, 위험은 코앞까지 닥쳐왔습니다."

사람들의 설득과 야유에 못 이겨 불쌍한 통치자가 몸을 움직여 보았으나,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몸이 산산조각이라도 나는 줄

알았다. 그는 마치 등껍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갇힌 거북이 같기도 했고, 두 개의 나무 쟁반 사이에 끼어버린 베이컨 같기도 했으며, 모래사장에 옆으로 뒤집힌 배 같기도 했다. 비웃음을 일삼던 사람들은 그가 넘어진 모습을 보고도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횃불을 꺼뜨리더니, 더욱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무기를 들어라!"라고 다급하게 외쳐댔다. 사람들은 불쌍한 산초의 위로 지나가며 그가 든 방패판을 칼로 무수히 내리쳤다. 만약 산초가 방패판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고 몸을 잔뜩 웅크리지 않았다면, 이 불쌍한 통치자는 정말 큰 변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좁은 틈 사이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산초는 땀을 비 오듯 흘리며 이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딛고 넘어졌고, 어떤 이들은 그 위로 쓰러졌다. 한참 동안이나 그 위에 사람이 쌓여 있기도 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위에 올라선 한 사람이 마치 망루에 선 것처럼 그곳에서 군대를 지휘하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이쪽이다, 우리 편은 이쪽으로! 적들이 이쪽으로 더 세게 몰려온다! 저 쪽문은 잘 지키고, 저 문은 닫아라! 저 사다리는 빗장을 질러 막아라! 화염 단지와 역청, 송진을 끓는 기름 솥에 담아 가져와라! 거리마다 매트리스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쳐라!”

결국 그 사내는 도시의 공격을 막아낼 때 흔히 쓰는 온갖 잡동사니와 도구, 전쟁 장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을 올려 외쳐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던 녹초가 된 산초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이고, 내 주님께서 이 섬이 차라리 진작에 망해버리도록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하여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이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하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는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승리다, 승리! 적들이 패퇴하고 있다! 자, 통치자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무적의 용맹한 팔로 적들을 물리쳤으니, 이 승리를 만끽하시고 적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 좀 일으켜 주시오." 고통에 신음하던 산초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워 주자, 그는 몸을 바로 세우고 말했다.

"내가 물리친 적의 이마에는 반드시 창을 꽂아 두시오. 나는 적의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는 관심 없소. 그저 내게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간청하여 포도주 한 잔만 얻어 마시고 싶을 뿐이오. 목이 너무 말라 타들어 가는 것 같으니, 이 땀 좀 닦아 주시오. 온몸이 물에 젖은 듯하구려."

사람들이 그의 몸을 닦아 주고 포도주를 가져다주었으며, 그를 짓누르던 방패판들도 치워 주었다. 산초 판사는 침상에 걸터앉더니, 너무 놀라고 당황한 데다 기운을 다 써버린 나머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장난을 친 사람들은 산초를 너무 힘들게 몰아붙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산초가 다시 정신을 차리자, 그가 쓰러졌을 때 느

꼈던 미안함도 조금은 가라앉았다. 산초가 지금 몇 시냐고 묻자, 사람들은 벌써 날이 밝아 온다고 대답했다. 산초는 아무 말 없이 침묵에 잠긴 채 옷을 입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토록 서둘러 옷을 입는지 지켜보며 기다렸다. 마침내 옷을 다 입은 산초는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움직이며 마구간으로 향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를 따라갔다. 마구간에 도착한 산초는 자신의 나귀에게 다가가 껴안고는 이마에 평화의 입맞춤을 건넸다. 그리고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게나, 나의 동료이자 친구이며, 나의 고난과 비참함을 함께 짊어지고 가던 이여. 자네와 함께 지내며 자네의 장구류를 수선하고 자네의 몸집을 지탱해 줄 먹이를 챙겨주는 일 외에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을 때, 나의 시간과 하루하루, 그리고 세월은 참으로 행복했었지. 하지만 내가 자네를 떠나 야망과 오만이라는 높은 탑 위에 올라선 뒤로는,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수만 가지 비참함과 고통, 그리고 셀 수 없는 불안이 파고들었구려."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 동안, 산초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나귀에 길마를 얹었다. 그렇게 나귀에 길마를 다 얹은 뒤, 산초는 커다란 슬픔과 괴로움에 잠긴 채 나귀 등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집사, 서기, 궁내관, 그리고 의사 페드로 레시오를 비롯해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을 향해 말을 건넸다.

"길을 비켜주시오, 여러분! 제발 예전의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오.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예전의 삶을 되찾으러 가

게 해 달란 말이오. 나는 총독이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섬이나 도시를 침략하려는 적들로부터 지켜내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오. 법을 만들거나 영토와 왕국을 수호하는 일보다는, 밭을 갈고 땅을 파며 포도나무를 전지하고 가지를 치는 일이 내 적성에는 훨씬 잘 맞소. 로마의 성베드로도 제 자리에 있는 게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각자 타고난 직업에 충실하며 사는 게 최고라는 뜻이오. 나에게는 총독의 홀을 쥐는 것보다 손에 낫 한 자루 쥐는 게 훨씬 낫소. 나를 굶겨 죽이려 드는 무례한 의사의 수발을 받으며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가스파초나 배불리 먹고 싶소. 홀란드 천 시트를 깔고 누워 담비 모피 옷을 입고 통치자의 구속을 받으며 사느니, 자유로운 몸으로 여름에는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고 겨울에는 얇은 가죽옷 한 벌로 몸을 가리는 편이 백번 낫단 말이오. 여러분은 부디 평안하시길 빌며, 나의 주인인 공작님께는 이렇게 전해 주시오. 나는 벌거숭이로 태어나 지금도 벌거숭이 신세이니, 잃은 것도 얻은 것도 없다고 말이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빈털터리로 이 자리에 들어왔다가 빈털터리로 나가는 것이오. 보통 다른 섬의 총독들은 한몫 두둑이 챙겨서 물러나는 법이건만, 나는 그들과는 정반대인 셈이지요. 자, 이제 비켜나시오! 나 좀 가게 해 주시오! 가서 고약이라도 좀 붙여야겠소. 오늘 밤 나를 짓밟고 지나간 적들 때문에 갈비뼈가 죄다 으스러진 것 같단 말이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독님." 페드로 레시오 의사가 말했다. "제가 넘어진 데나 쑤시는 곳에 마실 수 있는 약을 처방해 드리지요. 그러면 곧 예전처럼 기운을 차리고 몸도 튼튼해지실 겁니다. 그

리고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총독님께서 드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소!" 산초가 대답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차라리 이슬람교도로 개종하고 말지, 절대로 그렇게 못 하오. 이런 장난에 두 번 속을 줄 아시오? 하느님께 맹세코, 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낼 것이오. 설령 총독 자리를 접시에 담아 내놓는다 해도 다시는 맡지 않을 것이란 말이오.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오. 나는 모두가 고집불통이라는 판사 가문의 자손이라서,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끝까지 아니라고 할 사람이오. 나를 공중에 띄워 올려서 칼새나 다른 새들이 쪼아 먹게 만들었던 그 개미 날개 같은 것들은 이 마구간에나 처박아 두시오. 이제는 그냥 땅을 딛고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싶소. 비록 코르도반 가죽으로 만든 멋진 신발은 못 신더라도, 밧줄로 엮은 투박한 짚신이라도 신는 게 낫단 말이오. 짝이 맞는 양끼리 모여야 하는 법이고, 시트가 길다고 다리를 너무 뻗어서도 안 되는 법이지요. 자, 이제 비켜나시오. 시간이 너무 늦었단 말이오."

집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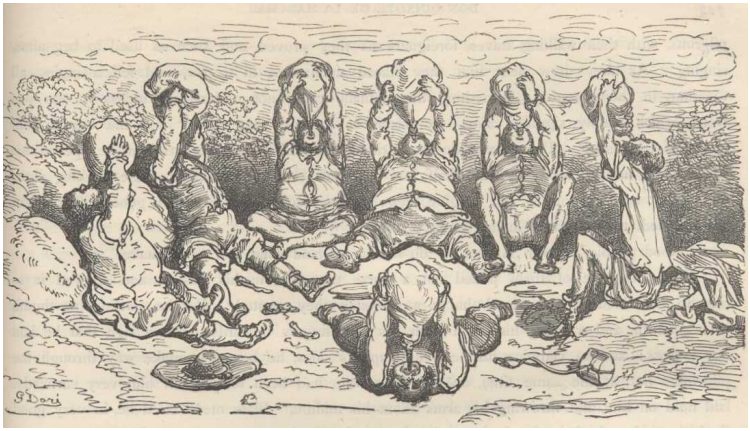
"총독님, 저희도 총독님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총독님의 재치와 그리스도인다운 품행을 생각하면 저희로서도 참으로 아쉬운 일이지요. 하지만 모든 통치자는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재임 기간을 정산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총독님께서 다스리신 열흘간의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그 누구도 제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의 주인인 공작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제가 직접 공작님을 찾아가서, 아주 제대로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알몸으로 나가는 것보다, 제가 천사처럼 훌륭하게 통치했다는 사실을 더 잘 증명할 수 있는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 맙소사, 위대한 산초의 말이 옳습니다." 레시오 박사가 말했다. "저도 산초를 보내주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작님께서 산초를 보시면 무척이나 즐거워하실 테니까요."

사람들은 모두 그를 보내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산초의 몸을 정중히 대접하고 가는 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동행할 사람이나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산초는 그저 나귀에게 먹일 보리 약간과, 자신에게 먹을 치즈 반 덩이와 빵 반 덩이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길이 워낙 짧으니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진수성찬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산초를 껴안았고, 산초 역시 눈물을 흘리며 모두를 껴안았다. 사람들은 산초가 내세운 논리도, 그 결연하고도 현명한 결단력도 보고 깜짝 놀라 넋을 잃었다.

제54장



제54장. 이 이야기와는 관련이 있으나, 다른 어떤 이야기와도 상관없는 일들에 대하여

공작 부부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돈키호테가 자신들의 가신에게 결투를 신청한 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그 가신은 도냐 로드리게스를 장모로 맞이하고 싶지 않아 플랑드르로 도망친 상태였

다. 그래서 부부는 그를 대신해 토실로스라는 이름의 가스콩 출신 하인을 내세우기로 했고, 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상세히 일러주며 준비를 시켰다.

이틀 뒤, 공작은 돈키호테에게 상대방이 나흘 뒤에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는 기사의 무장을 갖추고 들판에 나타날 것이며, 만약 그 처녀가 자기(상대)에게서 혼약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수염의 절반을, 아니 수염 전체를 걸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서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돈키호테는 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이 일에서 놀라운 업적을 세우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는 이번 기회가 공작 부부에게 자신의 강력한 팔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들뜬 마음과 즐거움 속에서 나흘을 기다렸지만, 간절히 기다리는 그에게 그 나흘은 마치 사백 세기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다른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듯 우리도 이들은 그냥 지나쳐 보내기로 하고, 이제 산초 판사를 따라가 보자. 산초는 기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색으로 나귀를 타고 주인님을 찾아가고 있었다. 산초에게는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섬을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일이었다.

산초 판사가 다스리는 섬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기 전이었다. 사실 산초는 자신이 다스리는 곳이 섬인지, 도시인지, 마을인지, 아니면 그저 작은 동네인지조차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길을 가던 산초는 지팡이를 짚은 순례자 여섯 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이들은 노래를 부르

며 구걸을 하는 외국인 순례자들이었다. 순례자들은 산초 곁에 다다르자 양옆으로 갈라져 늘어선 뒤,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자기네 나라 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산초는 그 노래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구걸'이라는 단어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를 듣고 산초는 그들이 노래로 구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의 말에 따르면, 산초는 자비로운 마음씨까지 갖춘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양쪽 가방에서 챙겨온 빵 반 덩이와 치즈 반 덩이를 꺼내 그들에게 건네주며, 몸에 지닌 것이 이것뿐이라며 손짓으로 설명했다. 순례자들은 아주 기쁘게 음식을 받아 들며 이렇게 말했다.

— 겔테! 겔테!

— 착한 분들, 대체 무엇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도통 모르겠구려. — 산초가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 산초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을 본 산초는 돈을 달라는 뜻임을 알아차렸다. 산초는 엄지손가락을 목에 갖다 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해 보이며, 수중에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고는 나귀를 몰아 그들을 뒤로하고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지나가는 동안 한 사람이 산초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더니, 갑자기 산초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덥석 껴안았다. 그러고는 아주 우렁찬 카스티야식 말투로 이렇게 외쳤다.

— 세상에나, 맙소사!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지? 내 품에 안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운 친구이자 좋은 이웃인 산초 판사란 말인가?

틀림없다, 분명히 그가 맞다! 내가 잠결에 헛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술에 취한 것도 아니니 말이다.

산초 판사는 낯선 순례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덥석 껴안자 무척 놀랐다. 산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아주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도무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순례자는 산초가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 아니, 산초 판사 형제여,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자네 마을의 상인인 모리스코인 이웃 리코테를 정말 못 알아보겠다는 말인가?

그러자 산초 판사는 그를 더욱 유심히 살피며 누구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마침내 그는 그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차렸다. 산초는 나귀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그를 덥석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 도대체 그런 어릿광대 같은 차림을 하고서야 내가 자네를 어떻게 알아보겠나, 리코테! 말해 보게. 누가 자네를 프랑스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어떻게 감히 스페인으로 돌아올 배짱이 났는가? 여기서 붙잡혀 정체가 탄로 나기라도 하면 큰 화를 당할 텐데 말일세.

— 자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산초, 이 차림새로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게 분명하네. —순례자가 대답했다—. 자, 길가에서 벗어나 저기 보이는 미루나무 숲으로 가세나. 내 동료들이 저곳에서 식사하며 쉬려고 하니, 거기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나. 다들 아주 온순한 사람들이라네. 우리 고향을 떠난 뒤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자네에게 들려주겠네. 국왕 폐하의 포고령을 따르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

지. 자네도 들었겠지만, 그 명령이 우리 민족의 불행한 이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위협했는지 말일세.

산초는 그 말대로 했다. 리코테가 다른 순례자들에게 말을 건네자, 일행은 대로에서 멀리 떨어진 저 미루나무 숲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들은 지팡이를 내던지고 어깨에 걸쳤던 망토를 벗어 던진 채 가벼운 차림이 되었다. 일행은 모두 젊고 풍채 좋은 청년들이었고, 오직 리코테만이 이미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괴나리봇짐을 메고 있었는데, 살펴보니 적어도 두 레구아 밖에서도 갈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식욕과 술 생각을 돋우는 먹을거리가 넉넉히 들어 있는 듯했다.

그들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아 풀을 깔아 식탁을 만들었다. 그 위에는 빵과 소금, 칼, 호두, 치즈 조각, 그리고 씹기는 힘들어도 빨아 먹기에는 딱 좋은, 살을 발라낸 하몬 뼈를 차려 놓았다. 또한 캐비아라고 불리는 검은 별미도 올렸는데, 이는 물고기 알로 만든 것으로 술 생각을 크게 돋우는 음식이었다. 비록 절여두지도 않았고 말라 있었지만, 맛이 좋고 먹는 재미가 있는 올리브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연회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와인이 든 가죽 부대 여섯 개였다. 일행은 저마다 괴나리봇짐에서 부대를 하나씩 꺼냈다. 무어인에서 독일인으로 변장한 선량한 리코테조차 자기 것을 꺼냈는데, 그 크기가 다른 다섯 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아주 느긋하고도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다. 한 입 한 입을 소중히 음미하며, 칼끝으로 아주 조금씩 음식을 떠서 맛을 보았다. 그러다 곧 일제히 팔을 들어 올리며 와인 부대를 허공으로 치켜들었다. 입

을 부대 입구에 맞추고 눈은 하늘을 향해 치켜뜬 모습이, 마치 하늘을 조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맛이 아주 좋다는 뜻으로 고개를 양옆으로 까닥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부대 속의 술을 위장 속으로 들이켰다.

산초 판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전혀 불평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말대로 하려고 리코테에게 와인 부대를 건네받았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술을 들이켰는데, 그 즐거움이 다른 이들에게 조금도 뒤처지지 않았다.

와인 부대를 치켜든 것은 네 번까지였다. 하지만 다섯 번째는 불가능했다. 부대가 이미 스파르토 풀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그동안 한껏 고조되었던 흥겨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말았다. 그러던 중 누군가 이따금 산초 판사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과 맞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 스페인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다 한가지, 좋은 동무지!

산초 판사는 "그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좋은 동료라네!"라고 대답했다.

산초 판사는 한 시간은 족히 갈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통치자로서 겪었던 온갖 고생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원래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법이니까. 마침내 술이 바닥나자 모두에게 잠기운이 몰려왔고, 사람들은 식탁과 식탁

보 위로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오직 리코테와 산초 판사만이 깨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먹고 덜 마셨기 때문이다. 리코테는 단잠에 빠져 있는 순례자들을 뒤로한 채 산초 판사를 데리고 너도밤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러고는 무어식 말투를 전혀 섞지 않고 순수한 카스티야 말로 산초 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 나의 이웃이자 친구인 산초 판사여,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국왕 폐하께서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공포하신 포고령과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경악을 안겨주었는지 말일세.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네. 스페인을 떠날 때까지 허락된 유예 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미 나와 내 자식들은 형벌의 가혹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 그래서 나는 신중한 사람답게, 머물던 집을 비워주고 새로 이사할 곳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임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다네. 내 말은,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대신 나 혼자 마을을 떠나, 다른 이들처럼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고 편안하게 정착할 곳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네. 왜냐하면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보았듯이, 그 포고령은 어떤 이들의 말처럼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집행될 엄중한 법이었기 때문이라네. 우리 민족이 꾸미던 그 비열하고 망령된 음모들을 내가 직접 알고 있었기에, 나는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네. 폐하께서 그토록 단호한 결단을 내리신 것은 신의 뜻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중에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니까 말일세. 다만 그 수가 너무 적어 죄를 짓지 않은 이들이 죄인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고, 적을 집 안에 두고 품속에 뱀을 키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 않겠나. 결국 우리

가 추방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일이었네. 어떤 이들은 그 형벌이 부드럽고 완만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끔찍한 형벌이었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스페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다네. 결국 우리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니까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안식처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네. 우리가 환대와 대접을 기대하며 찾아간 베르베리아나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모욕과 학대를 당할 뿐이었지.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된 셈이라네.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어찌나 간절한지, 나처럼 언어를 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아내와 자식을 그곳에 버려둔 채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곤 한다네. 고향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지극하니 말이야. 이제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은 달콤하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네. 앞서 말했듯이 나는 고향 마을을 떠나 프랑스로 들어갔네.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주었지만,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지. 그래서 이탈리아를 거쳐 독일까지 갔는데, 그곳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개의치 않아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네. 그곳은 대부분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저마다 제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었으니까. 나는 아우크스부르크 근처 마을에 집을 얻어 머물렀네. 그리고 매년 스페인의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찾아오는 이 순례자 무리와 합류했지. 그들은 스페인의 성지들을 자기들의 인도(노다지)요, 더없이 확실한 돈벌이로 여긴다네. 순례자들은 스페인 전역을 거의 다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들르지 않는 마을이 없을 정도라네. 흔히들 하는 말로,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나 잘 먹고 잘 마신 데다 적어도 1레알쯤은 현금으로 손에 쥐고 떠난다네. 그렇게 여행을 마칠 무렵이면 100에스쿠도가

넘는 돈을 남기게 되는데, 그 돈을 금으로 바꿔 지팡이 속이나 순례자 망토의 덧댄 부분 사이에 숨기는 등 온갖 기지를 발휘해서, 검문소나 항구의 세관원들을 피해 왕국 밖 자기 나라로 빼돌린다네. 산초, 이제 내 계획은 이렇네. 내가 마을 밖에 묻어둔 보물을 꺼낼 생각이라네. 마을 밖이라 위험하지도 않으니 말이야. 그런 다음 발렌시아에서 내 딸과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그리로 건너갈 작정인데, 아내는 알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네. 그래서 그들을 프랑스의 어느 항구로 데려올 방도를 마련한 뒤, 독일로 데려와서 신의 뜻에 따라 함께 살아가려 하네. 산초, 결론을 말하자면, 내 딸 리코타와 아내 프란시스카 리코타는 분명 가톨릭 신자라네. 나는 그들만큼 신실하지는 못해도 무어인보다는 그리스도인에 가깝고, 늘 하나님께서 내 지혜의 눈을 밝혀 주셔서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내 아내와 딸이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프랑스가 아니라 베르베리아로 먼저 떠났는가 하는 것이네."

그러자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이보게, 리코테. 그건 자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걸세. 자네 아내의 형제인 후안 티오피에요가 그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말이야. 그자가 철저한 무어인답게 형편이 가장 좋은 쪽으로 갔을 테니, 내가 다른 말을 하나 더 하겠네. 자네가 숨겨둔 보물을 찾으러 가봤자 헛수고가 될 것 같네. 자네 처남과 아내가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수많은 진주와 황금 돈을 세관에서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럴 수도 있겠지." 리코테가 대답했다. "하지만 산초, 내가 장담하건대 내 은닉처에는 손도 대지 못했을 걸세.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까 두려워 내가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주지 않았거든. 그러니 산초, 자네가 나와 함께 가서 보물을 꺼내고 다시 잘 숨기는 걸 도와준다면, 내가 에스쿠도 200개를 주겠네. 그러면 자네의 급한 사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네 사정이 얼마나 궁한지는 나도 잘 알고 있으니 말일세."

"나도 그러고 싶네만," 산초가 대답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거든. 만약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손에서 놓은 일만 했어도 집 벽을 황금으로 바르고 반년 안에 은쟁반에 밥을 먹었을 걸세. 그러니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왕의 적을 돕는 배신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든, 나는 자네와 함께 가지 않겠네. 자네가 약속한 200에스쿠도가 아니라 여기서 당장 400에스쿠도를 현찰로 준다 해도 말일세."

"그런데 산초, 자네가 그만둔 일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일인가?" 리코테가 물었다.

"섬의 통치자 노릇을 그만두었지."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냐면, 아무리 발품을 팔아 찾아다녀도 이만한 섬은 다시는 못 만날 걸세."

"그 섬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리코테가 물었다.

"어디냐고?" 산초가 대답했다. "여기서 두 레구아쯤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바라타리아 섬이라네."

"조용히 하게, 산초." 리코테가 말했다. "섬이라는 건 저 바다 너머에 있는 법이지, 육지에는 섬이 없다네."

"그럴 리가 있겠나?" 산초가 대답했다. "이보게, 친구 리코테. 사실 오늘 아침에 그 섬을 떠났다네. 어제까지는 내가 마치 궁수처럼 아주 신나게 그곳을 다스렸지. 하지만 통치자라는 자리가 워낙 위험한 일인 것 같아서, 그냥 미련 없이 떠나왔다네."

"그럼 통치하면서 얻은 건 좀 있는가?" 리코테가 물었다.

"얻은 게 있지." 산초가 대답했다. "내가 가축 떼를 모는 일 말고는 다스리는 데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말일세. 게다가 그런 통치직을 맡아 벌어들이는 재물이란 건, 결국 휴식과 잠을 포기하고 먹고사는 일조차 뒷전으로 미뤄야 얻을 수 있는 것이더군. 섬을 다스리는 자들은 먹는 것도 적어야 하니, 특히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까지 곁에 두고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네."

"자네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산초." 리코테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하는 말은 죄다 헛소리처럼 들리는군. 대체 누가 자네 같은 사람에게 다스릴 섬을 맡겨준단 말인가? 세상에 자네보다 통치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산초, 그만 좀 떠들고 정신 좀 차리게나. 내가 말했듯이, 내가 숨겨둔 보물을 찾는 걸 도와주러 같이 가겠다고 말일세. 정말이지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보물이라고 부를 만하다네.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자네가 먹고살 만한 돈을 넉넉히 챙겨주겠네."

"이미 말했잖나, 리코테." 산초가 대답했다. "난 안 하겠다고. 내가 나서서 자네 정체가 탄로 나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줄 알게나. 그러니 어서 길을 떠나게. 나도 내 갈 길을 갈 테니 말이야. 정당하게 얻은 것은 언젠가 잃게 마련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그 재물뿐만 아니라 주인까지도 함께 잃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네."

"산초, 더는 따지고 싶지 않네." 리코테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 말해주게. 내 아내와 딸, 그리고 처남이 우리 마을을 떠날 때, 자네도 그 마을에 있었는가?"

"그랬고말고." 산초가 대답했다. "자네 딸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마을 사람들이 죄다 구경하러 나올 정도였지. 다들 세상에서 제일가는 미인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네.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고 안고 울었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께 제발 잘 보살펴 달라고 간절히 빌었지.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롭던지, 평소 눈물이 별로 없는 나조차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다네. 아마 많은 사람이 그 아이를 숨겨두었다가 길에서 몰래 데려오고 싶어 했을 거야. 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길까 봐 겁이 나서 다들 참았지. 특히 자네도 아는 그 부유한 장자 가문의 청년, 돈 페드로 그레고리오가 유독 애끓어 하더군. 그 청년이 그 아이를 무척 아꼈다고들 하거든.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난 뒤로 그 청년은 우리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어. 그래서 다들 그 청년이 아이를 훔치러 따라간 게 아닌가 생각하곤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네."

"나는 그 귀공자가 내 딸을 연모하고 있다는 의심을 늘 품고 있었네." 리코테가 말했다. "하지만 내 딸 리코타의 지조를 믿었기에, 그 청년이 딸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마음 쓰지 않았지. 산초, 자네도 들어봤겠지만 무어인 여인들은 순수 기독교인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지 않은가. 내 딸은 사랑에 빠지기보다는 신앙을 지키는 데 더 마음을 쓰는 아이였으니, 그 귀족 청년이 아무리 구애를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걸세."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빌어야지." 산초가 대답했다. "안 그러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을 테니까. 그나저나 친구 리코테, 이제 나를 좀 보내주게나. 오늘 밤 안에는 우리 주인 돈키호테께서 계신 곳까지 가야 하거든."

"하느님께서 자네와 함께하시길, 형제 같은 산초여. 내 동료들이 벌써 몸을 들썩이며 재촉하는구먼. 우리도 이제 길을 떠나야 할 시간이라네." 리코테가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산초는 자신의 당나귀에 올라탔고, 리코테는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다.

제55장



제55장. 산초가 길을 가다 겪은 일들과 그 외에 눈여겨볼 만한 일들에 대하여

산초 판사가 리코테와 함께 머무는 바람에, 그날 공작의 성에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성에서 반 레구아쯤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이미 밤이 깊어 사방이 꽤 어둡고 캄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름이라 그

리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초는 아침을 기다리려고 길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운수가 사나웠던 탓에, 좀 더 편히 쉴 곳을 찾던 산초와 그의 당나귀는 아주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있는 깊고도 캄캄한 구덩이로 함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산초는 이 심연의 바닥에 닿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나귀가 세 스타도 남짓 떨어진 곳에서 바닥에 닿았고, 산초는 아무런 타격이나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당나귀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산초는 몸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어디 부러지거나 구멍이라도 난 곳이 없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지요. 몸 상태가 멀쩡하고 아주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산초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이지 몸이 산산조각이 난 줄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산초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이 구덩이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손으로 벽면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벽은 온통 매끄러워서 잡을 만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산초는 이 사실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특히 당나귀가 가냘프고 고통스러운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사실 당나귀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으니, 그 울음소리가 아주 과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괜히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산초 판사가 그때 말했습니다. "이 비참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얼마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섬의 통치자로 즉위하여 하인과 백성들을 호령하던 사람이, 오늘은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달려와 줄 종자나 백

성도 없는 이 구덩이에 파묻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와 내 당나귀는 여기서 굶어 죽고 말겠구나. 당나귀는 얻어맞아 만신창이가 되고 나는 슬픔에 겨워, 그 전에 먼저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적어도 나는 나의 주인 돈키호테가 그 마법에 걸린 몬테시노스의 동굴로 내려갔을 때만큼 운이 좋지는 못하겠구나. 그곳에서 주인님은 자기 집에서보다 더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이들을 만났으니, 마치 잘 차려진 식탁과 정돈된 침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간 것만 같았지. 주인님은 그곳에서 아름답고 평온한 환영들을 보았지만, 내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이라 믿는 것은 고작 두꺼비와 뱀뿐이로다. 아, 나도 참 불행하구나! 내 망상과 환상이 결국 여기까지 나를 몰아넣었단 말인가! 훗날 하늘의 뜻에 따라 누군가 나를 발견하게 된다면, 내 뼈는 살점 하나 없이 하얗게 닳아버린 채 드러날 것이고, 내 착한 당나귀의 뼈도 그 옆에 나란히 놓이겠지. 그러면 아마 우리가 누구였는지는 알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적어도 산초 판사가 자신의 당나귀를 떠나지 않았고, 당나귀 또한 산초 판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라면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으로 비참한 처지로다! 우리의 짧은 운명은 고향에서 우리 사람들 틈에 섞여 죽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구나. 만약 고향에서 이런 불행을 당했다면, 비록 해결할 방법은 없더라도 슬퍼해 줄 사람은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는 눈을 감겨줄 사람이라도 있었을 텐데! 오, 나의 동료이자 친구여, 그대의 충직한 봉사에 내가 얼마나 박하게 굴었는가! 부디 나를 용서하고, 그대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운명에게 빌어보게나. 우리 둘이 처한 이 비참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일세.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대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어, 마치 월계관을 쓴 시인처럼 보이게 해주고 먹이도 두 배로 챙겨주겠노라 약속하마."

이렇게 산초 판사가 한탄하는 동안, 그의 당나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련한 산초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이나 절박하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비참한 탄식과 통곡으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니 날이 밝아왔습니다. 산초는 밝게 빛나는 햇살 아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구덩이를 빠져나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르는 외침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주변 그 어디에도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산초는 결국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착한 당나귀는 뒤로 넘어져 누워 있었기에, 산초 판사는 당나귀를 바로 세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겨우 서 있을 수 있을 뿐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똑같이 구덩이에 떨어져 엉망이 된 짐꾸러미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 당나귀에게 주었습니다. 당나귀는 그것을 아주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산초는 마치 당나귀가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 빵만 있다면 어떤 슬픔도 견딜 만한 법이지.

그때 산초 판사는 구덩이 한편에서 구멍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몸을 잔뜩 움츠리고 조심조심 움직인다면 사람 한 명은 충분히 지나갈 만한 크기였습니다. 산초 판사는 그 구멍으로 달려가 몸을 낮추고 안으로 기

어 들어갔습니다. 안을 살펴보니 공간은 꽤 넓고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천장이라 부를 만한 곳으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어 내부를 환하게 비춰준 덕분에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길은 또 다른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길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산초 판사는 다시 밖으로 나와 당나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돌을 집어 들고 구멍 주변의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나귀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넓어졌고, 산초 판사는 당나귀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어 그는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다른 출구가 있는지 찾아보려 동굴 안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어둠 속을 헤매기도 하고, 때로는 빛 한 점 없는 곳을 지나기도 했지만, 단 한 순간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저를 굽어살피소서! —산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게는 이토록 지독한 불운이지만, 내 주인 돈키호테께는 차라리 멋진 모험이 될 텐데 말이야. 주인님이라면 이런 깊은 구덩이와 지하 감옥을 꽃이 만발한 정원이나 갈리아나의 궁전이라 여기시겠지. 그러고는 이 어둡고 좁은 곳을 벗어나 꽃이 핀 초원으로 나아갈 날만을 기다리실 거야. 하지만 운도 없는 나는 조언해 줄 사람 하나 없이 기운만 쏙 빠졌으니,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이 툭 꺼지면서 지금보다 더 깊은 구덩이가 나타나 나를 통째로 삼켜버리지는 않을까 겁이 나는구나. 재수 없는 일이라도 혼자 오는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이지!

산초 판사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채 그렇게 걷다 보니, 반 레구아 남짓은 걸었을 무렵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날이 밝아오는 듯한 그 빛은 어딘가로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향하는 듯한 산초의 앞길이 끝나는 곳에 출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돈키호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돈키호테는 매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나 로드리게스의 딸에게 명예를 앗아간 도둑과 맞붙을 결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도둑이 저지른 비열하고도 불쾌한 짓을 바로잡아 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돈키호테는 조만간 마주하게 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몸을 풀고 연습을 하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로시난테를 힘차게 몰아붙이며 나아갔는데, 그러다 그만 동굴 바로 앞까지 발을 들이고 말았습니다. 고삐를 세게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동굴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멈춰 서서 추락을 면했습니다. 돈키호테는 말에서 내리지 않은 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 깊은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구멍 안쪽에서 커다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었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아, 저 위쪽이여! 내 말을 들어줄 그리스도인이 있소? 아니면 산 채로 매장된 죄인을, 다스릴 줄도 모르던 이 불운한 통치자를 가엾게 여겨 줄 자비로운 기사라도 있단 말이오?"

돈키호테는 그 목소리가 산초 판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고, 목청이 터져라 크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거기 밑에 누구냐? 대체 누가 불평을 하는 게냐?"

"여기에 누가 있겠으며, 대체 누가 한탄을 하겠습니까?"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유명한 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의 종자였으며, 제 죄와 불운한 팔자 탓에 바라타리아 섬의 총독 노릇까지 했던, 이 시달릴 대로 시달린 산초 판사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산초 판사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저 밑에서 영혼이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런 상상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내가 맹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건대, 제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만약 당신이 고통받는 영혼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도 말해주시오. 이 세상의 궁핍한 이들을 돕고 보살피는 것이 나의 소명이니,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저세상의 가련한 영혼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도 기꺼이 나서겠소."

"그렇습니다." 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 제 주인님인 라만차의 돈키호테 경이실 겁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이 확실합니다."

"내가 바로 돈키호테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어려움을 돕고 보살피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구려. 만약 당신이 내 종자 산초 판사인데, 악마들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죽기라도 한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연옥에 떨어진 것이라면, 우리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지금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충분한 구제력을 가지고 계시네. 나 또한 내 재산이 허락하는 한 모든 정성을 다해 교회와 함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네. 그러니 어서 정체를 밝히고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시오."

"세상에나!" 그가 대답했습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경이시여,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저는 주인님의 종자 산초 판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통치를 그만두고 길을 나선 뒤 어젯밤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구덩이에 있는 이 당나귀가 제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겁니다. 여기 제 곁에 있는 녀석을 좀 보십시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당나귀가 산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곧바로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녀석이 어찌나 세차게 울어대는지 동굴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증인이로구나!"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내가 직접 낳은 새끼의 소리처럼 잘 아는구나. 산초야, 네 목소리도 잘 들린다. 잠시만 기다려라. 근처에 있는 공작의 성으로 가서, 네 죄가 너를 이 구덩이로 몰아넣었을 터이니 너를 여기서 꺼내 줄 사람을 데려오마."

"부디 다녀오십시오." 산초가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빌 테니 제발 서둘러 돌아와 주십시오. 산 채로 여기 매장되어 있는 이 상황을 도저히 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를 남겨둔 채 성으로 가서 공작 부부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공작 부부는 적잖이 놀랐지만, 아주 먼 옛날부터 그곳에 나 있던 그 동굴과 통하는 길로 산초가 떨어진 것이 틀림없다고 충분히 짐작했습니다. 다만 산초가 돌아온다는 기별도 받지 못했는데 대체 어떻게 총독직을 내팽개치고 온 것인지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흔히 말하듯 밧줄과 굵은 동아줄을 챙겨 나섰고,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엄청난 수고를 들인 끝에 마침내 산초 판사와 그의 당나귀를 그 어둠 속에서 끌어올려 햇빛 아래로 구해 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인이 깊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모든 나쁜 통치자도 이런 식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굶주림

에 지치고, 안색은 창백해진 채, 가진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 말입니다."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말 많은 형제여, 내게 맡겨진 섬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이제 열흘이나 여드레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빵 한 조각 배불리 먹어본 적이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사이 의사들은 나를 들볶아대고, 원수들은 내 뼈마디를 쑤셔대며 괴롭혔지요. 뇌물을 챙길 기회도, 세금을 거둘 여유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끝날 처지가 도저히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획해도 결정은 신께서 내리시는 법이지요. 신께서는 무엇이 최선인지, 각자에게 무엇이 적당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대처하는 법도 생기는 법이고요. 그러니 '이 물은 못 마시겠다'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비계가 가득할 줄 알았던 곳에 막상 가보니 말뚝뿐인 경우도 있는 법이니까요. 신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말하고 싶어도 이쯤 해두겠습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산초야, 너무 화내지도 말고 들려오는 말들에 마음 쓰지도 마라. 그런 말들은 끝도 없이 이어지니까. 그저 네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면 그만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말이야. 욕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드는 건, 마치 들판에 문을 달아놓겠다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이란다. 총독이 통치를 마치고 부자가 되어 나오면 도둑질을 했다고 수군대고, 가난하게 나오면 무능하고 어리석었다고 욕하기 마련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이번에는 도둑놈보다는 바보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라고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일행은 성에 도착했습니다. 성의 복도에서는 공작과 공작부인이 이미 돈키호테와 산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초는 먼저 당나귀를 마구간에 잘 들여놓기 전에는 공작을 뵈러 올라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녀석이 여관에서 아주 고약한 밤을 보냈다는 이유에서였지요. 그러고 나서야 산초는 주인 내외를 뵈러 올라갔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들,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주인님들께서 원하셨기에 바라타리아 섬을 다스리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들어간 섬에서 다시 맨몸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습니다. 제가 통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제 앞에 있던 증인들이 말해 줄 테니, 그들이 뭐라고 하든 마음대로 하라지요. 저는 의심스러운 일들을 가려 주고 송사를 판결했지만, 티르테아푸에라 출신의 섬 의사이자 통치 고문인 페드로 레시오 박사가 그렇게 하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늘 배를 곯아야 했습니다. 밤중에 적들이 쳐들어와 우리를 큰 위기에 빠뜨린 적도 있었는데, 섬 사람들 말로는 제 팔뚝의 용맹 덕분에 무사히 승리를 거두고 풀려났다고들 합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인 만큼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는 통치에 따르는 짐과 의무가 어떤 것인지 몸소 가늠해 보았는데, 제 어깨로는 도저히 짊어질 수 없고 제 갈비뼈로 버틸 무게도 아니며 제 화살통에 든 화살로 감당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깨

달았습니다. 그래서 통치가 저를 뒤엎어 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통치를 내던져 버리기로 하고, 어제 아침 처음 들어갔을 때 그대로 섬을 떠났습니다. 거리도 집도 지붕도 제가 들어갈 때와 똑같았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잇속을 챙기는 일에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유익한 법령을 몇 개 만들어 볼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켜지지 않을 법은 만드나 안 만드나 매한가지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잿빛 당나귀 한 마리만 데리고 섬을 나왔습니다. 그러다 구덩이에 빠져 그 안을 따라 계속 나아가다, 오늘 아침 햇빛이 비치고서야 출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 주인님이신 돈키호테 님을 만나게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갇혀 있어야 했을 만큼,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공작님, 공작부인님, 여기 여러분의 통치자 산초 판사가 있습니다. 저는 통치를 맡은 단 열흘 만에, 섬 하나는커녕 온 세상을 다스린다 해도 통치자 노릇이라는 게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네가 뛰어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넘겨라' 하고 외치는 놀이를 흉내 내어, 여러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통치자 자리에서 훌쩍 뛰어내려 제 주인님이신 돈키호테 님을 모시는 일로 옮겨 가겠습니다. 결국 주인님 곁에서는 비록 가슴을 졸이며 빵을 먹을지언정 적어도 배는 채울 수 있으니, 저로서는 배만 부르다면 그것이 당근이든 자고새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산초가 이토록 긴 이야기를 마쳤을 때, 돈키호테는 그가 수천 가지의 헛소리를 늘어놓을까 봐 내심 조마조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초가 생각보다 짧게 말을 끝내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하늘에 감사를 올렸습니다. 공작은 산초를 껴안으며, 그가 통치를 이토록 빨리 그만두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초의 처지에 맞는, 짐은 가볍고 보람은 더 큰 다른 일을 찾아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공작부인 역시 산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산초의 몰골이 몹시 고달프고 처량해 보였기에, 그에게 선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제56장



제56장. 라만차의 돈키호테와 하인 토실로스가 도냐 로드리게스의 딸을 지키기 위해 벌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전투에 대하여

산초 판사에게 통치 경험을 준다며 벌인 그 장난을 공작 부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더구나 바로 그날 집사가 찾아와 산초가 그동안

했던 말과 행동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전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섬이 습격당한 일과 산초가 겁에 질렸던 일, 그리고 그가 섬을 떠난 일을 실감 나게 들려주자 공작 부부는 적잖은 즐거움을 느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이렇다. 마침내 결투로 정해 둔 날이 밝았다. 공작은 하인 토실로스에게 돈키호테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거듭, 아주 여러 번 일러두었다. 그러고는 창끝의 쇠촉을 모두 떼어 내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공작은 돈키호테에게,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는 기독교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결투를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위험하게 치르도록 허락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러한 결투를 금하는 거룩한 공의회의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이토록 험한 상황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자신의 영지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울 자리를 내어 주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했다.

돈키호테는 공작 각하께서 이 일을 가장 편하신 대로 처리하시라고, 자신은 무엇이든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마침내 그 두려운 날이 밝았다. 공작은 성 앞 광장에 넓은 결투장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곳에는 결투장의 심판들과 원고인 어머니와 딸, 곧 도냐 로드리게스 모녀가 자리를 잡게 되어 있었다. 이 기이한 결투를 구경하려고 인근의 모든 고을과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니, 그 땅에 살아 있는 이들은 물론 이미 죽은 이들조차 생전에 이런 광경을 보거나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투장과 울타리 안으로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의전관이었다. 그는 혹여나 발을 헛디뎌 넘어질 만한 속임수나 숨겨진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결투장을 구석구석 살피며 두루 돌아다녔다. 뒤이어 안주인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적잖은 슬픔을 드러내며 망토를 눈가, 아니 가슴팍까지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돈키호테가 이미 결투장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잠시 후 수많은 나팔 소리와 함께 광장 한편에서 거대한 하인 토실로스가 위풍당당한 말에 올라 광장을 온통 뒤흔들며 나타났다. 그는 투구의 가리개를 내리고 온몸을 빳빳이 세운 채 번쩍이는 단단한 갑옷을 갖춰 입고 있었다. 그가 탄 말은 넓고 덩치 큰 회색빛 프리시안 말로 보였는데, 네 다리에는 양털 뭉치가 각각 한 아로바씩 매달려 있었다.

용맹한 결투사는 주군인 공작으로부터 라만차의 용맹한 돈키호테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이미 상세히 전해 들은 상태였다. 공작은 그에게 절대로 돈키호테를 죽여서는 안 되며, 정면으로 맞부딪치면 돈키호테가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하니 그 죽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 충돌에서는 어떻게든 비켜 달아나라고 일러두었다. 토실로스는 광장을 한 바퀴 돌더니, 안주인들이 앉아 있는 곳에 다다르자 자신과 결혼해 주기를 바라는 여인을 잠시 유심히 바라보았다. 마에세 데 캄포는 이미 광장에 모습을 드러낸 돈키호테를 부르고, 토실로스와 함께 안주인들에게 다가가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그들의 권리를 위해 나서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안주인들은 그러겠노라고 대답하며, 그가 이 일에서 무엇을 하든 모두 정당하고 확실하며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무렵 공작과 공작부인은 결투장이 내려다보이는 회랑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회랑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엄숙한 결투를 지켜보려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결투의 조건은 이러했다. 만약 돈키호테가 승리하면 상대방은 도냐 로드리게스의 딸과 결혼해야 했고, 반대로 돈키호테가 패한다면 상대방은 다른 어떤 보상도 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요구된 약속에서 풀려나기로 했다.

의전관은 두 사람에게 햇빛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 각자 정해진 위치에 세웠다.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자 발밑의 땅이 진동하는 듯했다. 구경꾼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어떤 이들은 불길한 결과를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우리 주 하느님과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공주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올리며 돌격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하인 토실로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제부터 이야기할 그 생각뿐이었다.

적을 마주한 순간, 토실로스의 눈에는 그녀가 자신이 평생 본 여인 중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다. 그 찰나, 저 거리에서 흔히 '큐피드'라 부르는 눈먼 꼬마 신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큐피드는 한낱 하인의 영혼을 굴복시켜 자신의 전리품 목록에 올릴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살며시 다가가 두 바라 길이의 화살 하나를 가련한 하인의 왼쪽 옆구리에 꽂아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 큐피드는 아주 감쪽같이 일을 해치울 수 있었는데, 사랑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 누구에게도 제 행적을 추궁당하지 않고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하자면, 돌격 신호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하인은 이미 자신의 자유를 바쳐 얻어낸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돈키호테처럼 나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돈키호테는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돌격하며 로시난테가 달릴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속도로 적을 향해 내달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충직한 종자 산초 판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신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길, 기사도 중의 꽃이자 정수이신 분이여! 당신의 명분이 정당하니, 신께서 반드시 승리를 내려주시기를!"

돈키호테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토실로스는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큰 소리로 마에세 데 캄포를 불렀고, 마에세 데 캄포가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오자 토실로스가 그에게 말했다.

"주인님, 이 결투는 결국 제가 저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네."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저는," 하인이 말했다. "제 양심이 두렵습니다. 이 결투에 나섰다가는 큰 죄를 짓게 될 것 같군요. 그러니 저는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저 여인과 당장 결혼하겠습니다."

토실로스가 내놓은 이유에 마에세 데 캄포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 모든 일을 꾸며낸 이들 중 한 명이었기에 토실로스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다. 돈키호테는 적이 달려들지 않자 돌진하던 걸음을 도중

에 멈추고 제자리에 섰다. 공작은 어찌하여 결투가 진행되지 않는지 영문을 몰랐으나, 마에세 데 캄포가 다가가 토실로스가 한 말을 전하자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면서도 극도로 화를 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토실로스는 도냐 로드리게스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부인, 저는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용맹한 돈키호테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나는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셈이로다! 두 분, 부디 경사로운 시간에 혼인하시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맺어주셨으니, 성 베드로께서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시길!"

공작은 성 앞마당으로 내려가 토실로스에게 다가가 말했다.

"기사님, 정말로 항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두려운 양심에 이끌려 이 처녀와 혼인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예, 각하." 토실로스가 대답했다.

"그 사람 참 잘하는 거예요." 이때 산초 판사가 말했다. "쥐한테 줄 걸 차라리 고양이한테 주라는 말도 있잖습니까. 그래야 골칫거리를 더는 법이니까요."

토실로스는 투구를 벗으며 어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숨이 가빠져서 그 좁은 방 안에 그렇게 오래 갇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둘러 투구를 벗겨 주었고, 그러자 하인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본 도냐 로드리게스와 그녀의 딸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건 속임수예요, 명백한 속임수라고요! 우리 주인인 공작님의 하인 토실로스를 내 진짜 남편 자리에 갖다 놓다니! 세상에, 이 무슨 악의적인 장난이란 말입니까! 이건 사기나 다름없어요! 하느님과 국왕 폐하의 심판이 있기를!"

"부인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것은 악의적인 장난도, 사기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공작님이 꾸민 일이 아니라, 저를 괴롭히는 사악한 마법사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그들은 제가 이번 결투에서 승리를 거두어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시기한 나머지, 여러분의 남편 얼굴을 공작님의 하인이라는 저 자의 얼굴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제 조언을 들으십시오. 적들의 간악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결혼하십시오. 저자는 틀림없이 여러분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던 바로 그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작은 화를 내기는커녕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공작이 말했다.

"돈키호테 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워낙 기이해서, 내 이 하인이 진짜 하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구려. 하지만 이 계책과 묘수를 한번 써봅시다. 원하신다면 결혼을 보름 정도 미룹시다. 그리고 우리를 의심스럽게 만드는 저 자를 일단 가두어 둡시다. 가둬 두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마법사들이 돈키호테 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테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런 속임수와 변신술을 쓰는 것을 그리 즐기지도 않을 테니까요."

"아이고, 주인님!" 산초 판사가 말했다. "저 악당들은 물건을 이랬다저랬다 바꾸는 게 아주 버릇이 되었나 봅니다. 우리 주인님께도 이제 차례가 온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는 거울의 기사라고 불리는 기사를 이겼더니, 그를 우리 마을 사람인 산손 카라스코 학사로 변신시켜 놓더니만, 이제는 우리 귀하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까지 시골 농부로 바꿔 놓았으니까요. 이런 식이라면 저 하인 놈도 평생 하인으로 살다가 하인으로 죽게 될 게 분명합니다."

로드리게스의 딸이 이렇게 말했다.

"저를 남편으로 맞이하려는 분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죠. 기사에게 이용당하고 조롱받는 여자가 되느니, 차라리 하인의 정식 부인이 되는 편이 훨씬 낫겠어요. 저를 조롱했던 그 기사는 진짜 기사도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와 사건은 토실로스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기 위해 일단 물러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의 승리를 환호하며 축하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했던 결투가

아주 처절하게 벌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실망하며 우울해하는 이들도 많았다. 마치 구경꾼들이 기다리던 사형수가 용서를 받거나 형량이 줄어들어 교수대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실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공작 부부와 돈키호테는 성으로 돌아갔고 토실로스는 방에 갇혔다. 로드리게스 부인과 그녀의 딸은 어떤 식으로든 결국 결혼으로 결말이 났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고, 토실로스 역시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57장



제57장. 돈키호테가 공작에게 작별을 고하는 장면과, 공작부인의 영리하고 능청스러운 시녀 알티시도라와 겪은 일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그 성에서 누리는 이토록 나태한 생활을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력기사인 자신을 위해 공작 부부가 베푸는 무궁무진한 환대와 즐거움 속에 갇혀 빈둥거리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게으름과 안주함에 대해 하늘 앞에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그는 공작 부부에게 떠나겠다는 허락을 구했습니다. 공작 부부는 그를 보내는 것이 무척이나 아쉽다는 기색을 내비치며 허락해 주었습니다. 공작부인은 산초의 아내가 보낸 편지를 산초 판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산초 판사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던 통치 소식이 내 아내 테레사 판사의 가슴속에 불러일으켰던 그토록 큰 희망이, 어쩌다 지금 내가 내 주인 라만차의 돈키호테 님을 따라 그 고달픈 모험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처지로 끝나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테레사가 제 본분을 지켜 공작부인께 도토리를 보내 드린 것을 보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만약 그걸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서운했을 테고, 아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 선물을 뇌물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도토리를 보냈을 때 나는 이미 통치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지요. 어쨌든 나는 빈손으로 통치를 시작해 빈손으로 물러납니다. 그러니 떳떳한 양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있으니,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도다.'"

떠나는 날, 산초 판사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공작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돈키호테는 어느 날 아침 무장을 한 채 성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복도에서 그를 지켜보았고, 공작 부부 또한 그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산초 판사는 자신의 회색 나귀에 올라타 짐자루와 여행 가방, 여벌 옷가지를 챙겨 싣고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예전에 트리팔디 역할을 했던 공작의 집사가 여행길에 쓰라며 금화 200에스쿠도가 든 작은 주머니를 건네주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돈키호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두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작부인을 모시는 다른 시녀와 처녀들도 제각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침없고 영리한 알티시도라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마치 비통한 심정인 양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못된 기사여! 고삐를 잠시 늦추어라. 네가 잘못 다루는 짐승의 옆구리를 더는 괴롭히지 마라. 이 거짓된 자여, 똑똑히 보아라! 네가 도망치려 하는 것은 사나운 뱀이 아니라, 아직 다 큰 양이라 하기엔 한참 어린 양이다.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놈아, 너는 디아나가 산에서, 비너스가 숲에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농락하였다. 잔인한 비레노여, 도망자 에네아스여, 바라바스가 네 곁을 따르기를! 그건 네가 알아서 감당하여라! 이 불경한 자야, 너는 네 흉측한 발톱으로, 사랑에 빠진 채 가냘프고 애틋한 한 여인의 애간장을 움켜쥐고 가는구나. 너는 순백의 대리석처럼 매끄럽고 희고 검은 다리에서 머릿수건 세 개와 가터 벨트를 훔쳐 갔다. 너는 이천 번의 한숨을 훔쳐 갔다. 그 한숨

이 불꽃이었다면, 설령 트로이가 이천 개 있었다 해도 그 모두를 불태워 버렸을 것이다. 잔인한 비레노여, 도망자 에네아스여, 바라바스가 네 곁을 따르기를! 그건 네가 알아서 감당하여라! 네 종자인 저 산초의 마음이 어찌나 고집스럽고 모질어지든지, 둘시네아가 끝내 그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될지어다! 이 땅에서는 의로운 이가 죄인 대신 벌을 받는 일도 있으니, 가엾은 그 여인이 네가 저지른 죄의 벌을 대신 짊어지리라! 네 가장 찬란한 모험은 불행으로 변하고, 네 즐거움은 꿈처럼 사라지며, 네 굳건함은 망각 속으로 흩어지리라. 잔인한 비레노여, 도망자 에네아스여, 바라바스가 네 곁을 따르기를! 그건 네가 알아서 감당하여라! 세비야에서 마르체나까지, 그라나다에서 로하까지, 런던에서 영국까지, 너는 사기꾼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네가 만약 레이나도나 시엔토스, 프리메라 같은 카드 놀이를 한다면, 왕 패가 너를 피해 달아나고, 에이스도 칠도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발의 굳은살을 깎아내면 상처에서 피가 흐를 것이요, 이빨을 뽑으면 뿌리가 남을 것이다. 잔인한 비레노여, 도망자 에네아스여, 바라바스가 네 곁을 따르기를! 그건 네가 알아서 감당하여라!”

앞서 말한 대로 상처 입은 알티시도라가 울먹이며 불평을 늘어놓는 동안, 돈키호테는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단 한 마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산초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산초야, 네 조상들의 명예를 걸고 간청하노니, 내게 진실을 말해다오. 이 사랑에 빠진 처녀가 말하는 그 화장 도구 세 개와 가터 벨트를,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화장 도구 세 개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터 벨트는 우베다 언덕 너머로 사라진 듯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작부인은 알티시도라의 거침없는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그녀가 대담하고 재치 있으며 당돌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작부인은 이것이 장난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에,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작은 이 익살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 돋우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 성에서 이토록 극진한 대접을 받아놓고도 화장 도구 세 개는 물론, 제 시녀의 가터 벨트까지 가져가시다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야비한 짓이며, 기사님의 명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장 가터 벨트를 돌려놓으십시오. 만약 그러지 않으신다면, 저는 기사님께 목숨을 건 결투를 신청하겠습니다. 사악한 마법사들이 제 얼굴을 바꾸거나 변하게 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기사님과 함께 싸우러 들어갔던 제 하인 토실로스의 얼굴을 마법사들이 바꿔놓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공작님의 고귀하신 몸에 제가 검을 겨누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화장 도구는 산초가 가지고 있다고 하니 돌려주겠습니다. 하지만 가터 벨트는 돌려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저도, 산초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만약 이 시녀가 구석구석

을 잘 찾아본다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공작님,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으며, 하느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한 평생 도둑질할 생각도 추호도 없습니다. 이 시녀는 스스로 말했듯이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떠들고 있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녀에게도, 그리고 공작님께도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돈키호테 기사님께 늘 좋은 소식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작부인이 말했습니다. "부디 하느님과 함께 길을 떠나십시오. 기사님이 이곳에 머무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사님을 바라보는 시녀들의 가슴 속 불길만 더 커질 뿐입니다. 제 시녀는 앞으로 눈빛으로나 말로써나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엄히 벌하겠습니다."

"오, 용맹하신 돈키호테 기사님!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때 알티시도라가 말했습니다. "가터 벨트를 훔쳤다고 한 일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과 제 영혼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 가터 벨트는 지금 제가 차고 있거든요. 당나귀를 타고 앉아서 그 당나귀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제가 그만 깜빡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거봐요, 제가 뭐랬습니까!" 산초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눈감아줄 만큼 만만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만약 그러려고 마음먹었다면, 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주 제대로 한바탕 해댔을 겁니다."

돈키호테는 고개를 숙여 공작 부부와 주변에 있던 모든 이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려 잡았습니다.

산초가 회색 당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랐고, 돈키호테는 사라고사로 향하는 길을 따라 성을 나섰습니다.

제58장



제58장. 돈키호테에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수많은 모험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알티시도라의 구애에서 벗어나 탁 트인 들판에 자유롭게 서게 되자,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다시 기사도

모험을 이어갈 기운이 샘솟는 것 같았다. 그는 산초를 돌아보며 말했다.

"산초야, 자유는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란다. 땅속에 묻힌 보물이나 바다 밑에 잠긴 보물도 자유와는 비길 수 없지. 명예를 위해서 그렇듯 자유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 만하며,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반대로 포로가 되는 것만큼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큰 불행은 없단다.

산초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떠나온 그 성에서 얼마나 풍족한 대접을 받았는지 네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야. 맛깔스러운 진수성찬과 시원한 얼음 음료가 가득했지만, 내게는 마치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단다. 만약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어서 아무런 구속 없이 즐길 수 있었다면 달랐겠지만 말이다. 은혜와 호의를 입었을 때 그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자유로운 영혼이 마음껏 기운을 펴지 못하게 옥죄는 밧줄과 같거든.

하늘이 빵 한 조각을 내려주었을 때, 하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보답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지!"

"나으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산초가 말했다. "그래도 공작님의 집사님이 작은 주머니에 담아 제게 주신 황금 200에스쿠도를 우리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돈을 무슨 일이 생길 때 쓰려고, 마치 제 가슴을 보호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찜질약이자 강장제처럼 가슴에 품고 다니거든요. 우리를 융숭하게 대접

해 주는 성만 늘 만나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를 흠씬 두들겨 패는 여관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방랑하는 기사와 종자, 이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고 있었다. 그렇게 1레구아 남짓을 더 갔을까, 푸른 풀이 돋아난 작은 풀밭 위에서 농부 차림을 한 열두 명 남짓한 사람들이 망토를 깔고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곁에는 하얀 천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천들로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덮어두고 있었다. 천들은 여기저기 펼쳐져 있기도 하고 세워져 있기도 했다. 돈키호테는 식사 중인 사람들에게 다가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저 천들로 무엇을 덮어두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나으리, 이 천들 아래에는 저희 마을 제단화에 쓰일 부조 성상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상들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천으로 덮어두었고, 부서지지 않게 하려고 어깨에 메고 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실례하겠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성상들을 꼭 보고 싶군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시고 가는 것을 보니, 분명 훌륭한 성상들임이 틀림없을 테니까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말고요!" 다른 농부가 말했다. "정 못 믿으시겠거든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보십시오. 정말이지 성상 하나하나가 50두카도 값은 족히 나갑니다. 나으리께서 이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던 것을 멈추고는, 첫 번째 성상에 씌워진 덮개를 벗겨냈다. 그러자 말에 올라탄 성 조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성 조지는 발치에 똬리를 튼 뱀을 창으로 꿰뚫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흔히 그려지는 대로 아주 사납고 용맹했다. 성상 전체가 마치 황금빛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다. 돈키호테는 그 성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기사는 신성한 군대가 거느린 가장 위대한 편력기사 중 한 분이셨다. 성 조지라는 이름을 쓰셨으며, 처녀들의 수호자이기도 하셨지. 자, 다음 성상도 한번 보자꾸나."

그 남자가 덮개를 벗기자, 말에 올라탄 성 마르티노의 성상이 나타났다. 성 마르티노는 가난한 이에게 자신의 망토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 성상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이 기사 또한 그리스도교 모험가 중 한 분이셨다. 산초야, 네가 보기에 이분은 용맹함보다는 너그러움이 더 돋보이는 것 같지 않느냐? 가난한 이에게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주고 계시지 않느냐. 게다가 이분이 워낙 자비로운 분이었으니, 그때가 겨울이 아니었다면 망토를 통째로 다 내어주셨을 게 분명하다."

"그건 아닐 겁니다." 산초가 말했다. "그저 속담 하나를 따르신 게 아닐까요? '주면서도 가진 것을 지키려면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말 말입니다."

돈키호테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른 천을 걷어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그 아래에 가려져 있던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말을 탄 스

페인의 수호성인을 그린 그림이었다. 성인은 피 묻은 칼을 휘두르며 무어인들을 짓밟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기사시다.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분이지. 이분의 성함은 돈 산 디에고 마타모로스라고 하는데, 과거에 세상이 가졌던 가장 용맹한 성인이자 기사 중 한 분이셨고, 지금 천국에서도 그 명성을 떨치고 계신 분이다."

그다음으로 다른 그림이 나타났는데, 마치 성 바오로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듯했다. 그 그림에는 성 바오로의 회심을 다룬 제단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든 정황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림이 어찌나 생생한지, 마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바오로가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이분이야말로" 돈키호테가 말했다. "당대 우리 주 하느님의 교회가 마주했던 가장 큰 적이었으나, 동시에 교회가 앞으로 가지게 될 그 어떤 수호자보다도 위대한 수호자가 되신 분이다. 살아생전에는 편력 기사로 사셨고, 죽어서는 굳건히 선 성인이 되셨으며, 주님의 포도밭에서 쉼 없이 일하신 분이지. 또한 만민의 스승이셨으니, 하늘이 그분의 학교가 되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교수이자 스승이 되어 가르치셨다."

성상은 그것뿐이었기에, 돈키호테는 다시 성상들을 덮으라고 명령하며 운반하던 이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방금 본 광경은 아주 좋은 징조라 믿소. 이 성인들과 기사들이 내가 걷는 길과 똑같이 무예를 닦는 삶을 사셨으니 말이오. 다만 나와 그분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은 성인이 되어 신성한 뜻을 위해 싸우셨으나 나는 죄인으로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싸운다는 점뿐이오. 그분들은 팔의 힘으로 천국을 정복하셨으니, 천국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무엇을 쟁취했는지조차 모르겠구려. 그렇지만 만약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벗어난다면, 내 운명도 나아지고 정신도 맑아질 것이니,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고, 죄는 못 들은 체하기를." 산초가 이 말에 대답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습과 말에 깜짝 놀랐으나, 그가 하려는 말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다.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성상들을 다시 짊어지고는 돈키호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길을 떠났다.

산초는 마치 주인님을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돈키호테가 아는 것이 저토록 많다는 사실에 경탄한 나머지, 세상에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라도 돈키호테의 손톱 끝에 새겨져 있고 기억 속에 박혀 있지 않은 것이 없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산초가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인님.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모험이라 불릴 수 있다면, 이 모험은 우리가 길을 떠난 이래 겪은 일 중 가

장 평온하고 달콤한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몽둥이질을 당하거나 깜짝 놀랄 일도 없었고, 칼에 손을 댈 필요도 없었으며, 땅바닥을 뒹굴며 몸을 부딪칠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배를 곯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제 눈으로 이런 광경을 직접 보게 해 주셨으니,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네 말이 옳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모든 시절이 다 똑같지는 않으며, 흐르는 운명 또한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흔히 속된 사람들이 말하는 '징조'라는 것들은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를 좋은 사건의 전조로 여겨야 마땅하다. 어떤 이는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다가 복된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도사를 마주치면, 마치 그리핀이라도 만난 것처럼 깜짝 놀라 뒤돌아 집으로 도망치곤 한다. 또 어떤 이는 멘도사처럼 식탁 위에 소금을 쏟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마치 자연이 그런 사소한 일로 앞으로 닥칠 불행을 예고해야만 한다는 듯이 마음속에 우울함이 밀려오곤 하지. 하지만 지혜롭고 신앙심 깊은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을 살피느라 전전긍긍하며 발끝을 들고 조심조심 걷지는 않는다. 아프리카에 상륙하던 키피오가 땅에 내리다 발을 헛디디자 병사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라 여겼다. 하지만 그는 땅바닥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프리카여, 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꽉 붙잡아 품에 안았으니 말이다.' 그러니 산초야, 이 성상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경사스러운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런데 주인님, 스페인 사람들이 전투를 시작할 때 '산티아고, 그리고 스페인을 닫아라!

(¡Santiago, y cierra, España!)'라고 외치며 저 산 디에고 마타모로스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스페인이 문이 열려 있어서 닫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의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너는 참으로 순진하구나,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붉은 십자가를 단 위대한 기사를 스페인의 수호자이자 보호자로 세워 주셨다. 특히 스페인 사람들이 무어인들과 맞서 싸우던 그 혹독한 시련의 때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전투를 치를 때마다 그를 자신들의 방어자로 부르며 간절히 찾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전투의 현장에서 그가 나타나 아가라 인들의 군대를 쓰러뜨리고, 짓밟고, 파괴하며, 몰살하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정통 역사서들을 살펴보면 이 사실을 뒷받침할 사례를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단다."

산초는 화제를 돌려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 공작부인의 시녀인 알티시도라가 어찌 그리 거침없이 구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랑'이라는 놈이 그 여인을 화살로 아주 깊숙이, 제대로 꿰뚫어 상처를 낸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랑이란 눈곱이 낀 데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예 앞도 못 보는 눈먼 꼬마라지 않습니까? 그런 놈이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과녁으로 삼으면, 화살을 쏘아 단번에 속속들이 꿰뚫어 버린다고들 합니다. 처녀들의 수줍음과 정숙함이 사랑의 화살을 무디게 만든다는 말도 들어

봤지만, 이번 알티시도라의 경우에는 화살이 무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날카롭게 날이 선 것 같습니다."

"산초야, 잘 듣거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사랑이란 놈은 말할 때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이성적인 도리도 따지지 않는다. 죽음과 성질이 똑같지. 왕이 사는 높은 성채든 목동이 사는 초라한 오두막이든 가리지 않고 들이닥치거든. 그러다 일단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두려움과 수줍음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알티시도라가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 그 모습은 내 가슴에 안쓰러움보다는 당혹감을 먼저 불러일으켰단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산초가 말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이란 말입니까! 저 같았으면 그 여인의 아주 작은 사랑의 기색만 보여도 당장 항복하고 굴복했을 겁니다. 에이, 빌어먹을! 주인님은 어쩜 그리 마음이 대리석처럼 딱딱하고, 창자도 청동 같고, 영혼은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겁니까! 도대체 그 처녀가 주인님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저토록 넋을 잃고 매달린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우아함, 어떤 기개, 어떤 재치, 어떤 얼굴이기에—그 하나하나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그 처녀를 그토록 사로잡은 걸까요? 정말이지, 저는 주인님을 발끝부터 머리카락 한 올까지 훑어보며 몇 번이고 멈춰 서서 살펴보곤 합니다만, 사랑에 빠질 만한 구석보다는 겁이 날 만한 구석이 더 많단 말입니다. 아름다움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들 하는데, 주인님께는 그런 구석이 눈곱만큼도 없으니, 그 불쌍한 처녀가 대체 무엇에 반한 건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초야, 잘 듣거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름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단다. 하나는 영혼의 아름다움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아름다움이지. 영혼의 아름다움은 지혜와 정직함, 올바른 행실과 너그러움, 그리고 품격 있는 태도 속에서 빛을 발하며 드러나는 법이다. 이 모든 덕목은 외모가 못생긴 사람에게도 충분히 깃들 수 있지. 만약 육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런 영혼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린다면, 사랑은 훨씬 더 강렬하고도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법이란다. 산초야, 나도 내가 잘생기지 않았다는 건 잘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못생겨서 괴물 같지도 않지. 내가 방금 말한 영혼의 덕목들을 갖추고 있다면, 굳이 괴물처럼 생기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법이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길을 가던 두 사람은 길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숲속으로 어느새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돈키호테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쳐진 초록색 실그물에 몸이 걸려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야, 내가 보기엔 이 그물이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새로운 모험 중 하나인 것 같구나. 만약 나를 쫓아다니는 마법사들이 내가 알티시도라에게 베푼 엄격함에 복수하려고, 나를 이 그물에 가두어 길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해라.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하건대, 이 그물이 비록 초록색 실로 만들어졌을지라도 만약 아주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거나, 혹은 대장장이의 질투 많은 신이 비너스와 마르스를 옭아매었던 그 그물보다 더 강력하다 할지라도, 나는 마치 바다 갈대나 솜뭉치처럼 가볍게 끊어버리고 말 것이다."

돈키호테가 앞을 향해 나아가며 그물을 다 끊어버리려던 찰나,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아주 아름다운 목녀 두 명이 나타났다. 적어도 차림새만큼은 목녀 같았는데, 그들이 입은 겉옷과 치마는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치마는 금색 타비 천으로 짠 아주 호사스러운 치맛단이었다. 두 여인은 머리카락을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금빛이 마치 태양 광선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머리 위에는 초록색 월계수와 붉은 아마란스로 짠 화관을 두르고 있었다. 겉보기에 나이는 열다섯 살 아래로도, 열여덟 살 위로도 보이지 않았다.

이 광경을 본 산초는 넋을 잃고 감탄했으며, 돈키호테는 가던 길을 멈추었다. 심지어 태양조차 이들을 보려고 달리는 길을 멈춘 듯했고, 네 사람 모두 경이로운 침묵에 빠져들었다. 마침내 두 소녀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어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기사님, 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그물을 끊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기사님께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저희가 즐기려고 쳐둔 것이니까요. 저기 그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기사님께서 저희가 왜 그물을 쳐두었는지, 또 저희가 누구인지 물으실 게 분명하니,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두 레구아 정도 떨어진 마을에 귀족과 신사, 부자들이 아주 많이 삽니다. 그곳의 많은 친구와 친척이 뜻을 모아, 각자의 아들딸과 아내, 이웃, 친지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놀러 오기로 했답니다. 이곳은 이 근방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 중 하나거든요. 저희는 모두 모여 새로운 목가적 아르카디아를 만들기로 했고, 처녀들은 목녀로, 청년들은 목동으로 차려입었지요. 저희는 유명한 시인 가르실라소의 작품과 아주 뛰

어난 카몽이스의 작품, 이렇게 두 편의 목가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카몽이스의 시는 포르투갈어 원문 그대로 낭송할 예정인데, 아직 한 번도 선보이지는 않았답니다. 저희는 어제 막 이곳에 도착했어요. 이 나뭇가지들 사이에는 야영용 천막이라고 부르는 텐트들도 몇 개 쳐 두었고요. 이 모든 초원을 비옥하게 적셔주는 풍부한 시냇가 옆에 자리 잡고 있지요. 어젯밤에는 나무 사이에 그물을 쳐 두었는데, 저희 소리에 놀라 날아온 순진한 새들을 잡으려는 것이랍니다. 기사님, 괜찮으시다면 저희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아주 너그럽고 정중하게 대접해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에는 슬픔이나 우울함 따위는 발을 들일 수 없으니까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여인이시여, 제가 그대의 미모를 보고 이토록 넋을 잃은 것을 보면, 안테온도 다이아나가 갑자기 물속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보다 더 놀라거나 경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마련한 여흥의 취지를 칭송하며, 베풀어 주신 호의에도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그대들을 도울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받들 것을 약속하오니 무엇이든 명령해 주십시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제 본분이 아니며, 오히려 모든 부류의 사람들, 특히 그대들처럼 고귀한 신분을 지닌 분들께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저 그물들이 차지하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온 땅덩어리를 통째로 뒤덮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물을 끊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저의 이 과장된 말을 부디 조

금이나마 믿어 주십시오. 적어도 이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그렇게 약속드리는 것이니,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말입니다."

"아이고, 내 영혼의 친구여!" 그때 다른 시골 처녀가 말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운이 찾아왔는지 좀 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이 신사분이 보이시나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의 무용담을 담아 세상에 나온, 그리고 제가 직접 읽어본 그 이야기가 우리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닌 이상, 세상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며, 가장 예의 바른 분이랍니다. 그리고 장담컨대 그분과 함께 온 저 선량한 분은 분명 산초 판사라는 이름의 종자일 거예요. 그 재치만큼은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을 테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제가 바로 나리께서 말씀하신 그 재치 있고 유쾌한 종자이며, 이분은 책에 기록되고 전해지는 바로 그 돈키호테 님이자 제 주인님이십니다."

"아이고!" 다른 처녀가 말했다. "친구여, 이분께 우리 곁에 머물러 달라고 간청해 보자꾸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도 무척 기뻐하실 거야. 나 역시 네가 말한 것과 똑같이 이분의 용맹함과 재치에 대해 들은 적이 있거든.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굳건하고 충직한 사랑을 하는 분이라고들 해. 그리고 이분의 여인분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분인데, 스페인 전역에서 그 아름다움으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들 하더구나."

"그분께 그런 칭송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대들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이 그 일을 의심케 하지만 않

는다면 말입니다. 숙녀 여러분, 부디 저를 붙잡아 두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너무나 막중하여,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편히 쉴 수가 없답니다."

이때, 두 목동 처녀 중 한 명의 오라비가 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 역시 목동의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처녀들의 옷차림만큼이나 풍족하고 화려했다. 처녀들은 그에게 지금 함께 있는 분이 용맹한 라만차의 돈키호테이며, 다른 한 명은 그의 종자 산초라고 알려주었다. 그 오라비는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 그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늠름한 목동은 정중히 자신을 내어주며 돈키호테에게 자신들의 천막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고, 돈키호테는 그 청을 받아들여 그렇게 했다.

이때 새 몰이가 시작되어, 그물 색깔에 속아 넘어가 도망치던 새들이 도리어 자기들이 피하려던 위험 속으로 떨어지면서, 온갖 종류의 작은 새들로 그물이 가득 찼다. 그곳에는 목동과 목동 처녀의 차림을 멋스럽게 한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금세 돈키호테와 그의 종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이미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 알고 있었기에 적잖이 반가워했다. 사람들은 천막으로 갔고, 그곳에는 풍성하고 깨끗하게 잘 차려진 식탁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상석에 앉히며 그를 정중히 대접했고, 모두가 그를 바라보며 그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식사를 마친 뒤 식탁보를 걷어내자, 돈키호테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어 말했다.

"사람이 저지르는 중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만이라고도 하지만, 나는 배은망덕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오. 배은망덕한 자들이 지옥에 가득하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오. 나는 이성을 갖춘 순간부터 할 수 있는 한 이 죄를 멀리하려 애써 왔소. 만약 누군가 베푼 선행을 다른 선행으로 갚을 길이 없다면, 대신 선행을 베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도 품으려 했고, 그 마음조차 다 채우지 못할 때는 그 선행을 널리 알리려 노력했소. 자신이 받은 선행을 말하고 알리는 사람 또한, 능력이 된다면 언젠가 다른 선행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대개 받는 이는 베푸는 이보다 못한 법이오. 하물며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며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분이니, 인간이 베푸는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그 격차가 무한하여 결코 대등하게 보답할 수 없소. 하지만 이 부족함과 한계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오.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며, 그와 똑같은 크기로는 보답하지 못할지라도 내 능력의 좁은 한계 안에서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손수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바치고자 하오.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선언하겠소. 자라고사로 향하는 이 국도 한복판에서 꼬박 이틀 동안, 여기 목동으로 차려입은 이 처녀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의 바른 처녀들임을 지켜내겠노라고 말이오. 오직 내 마음의 유일한 주인이신, 비할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만은 예외로 하겠소. 내 말을 듣는 모든 남녀분께는 송구하나 그렇게 말씀드리오."

그 말을 듣고, 내내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던 산초 판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세상에 감히 우리 주인님을 미쳤다고 말하거나 맹세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 계신 목자 여러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식견이 높고 학식이 깊은 시골 신부라 할지라도 우리 주인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용맹하기로 이름 높은 편력기사라 할지라도, 우리 주인님께서 방금 약속하신 것만큼 대단한 것을 내걸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돈키호테가 산초를 돌아보았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렇게 말했다.

"아, 산초야! 온 세상천지에 너를 두고 바보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느냐? 게다가 안팎으로 똑같은 바보인 데다, 어딘가 교활하고 못된 구석까지 덧대어진 바보가 아니더냐? 누가 너더러 내 일에 끼어들어, 내가 분별 있는 사람인지 멍청이인지 따지라더냐? 입 다물고 대꾸도 하지 마라. 로시난테의 안장이 풀려 있다면 어서 안장을 얹어라. 어서 가서 내 약속을 실현하자꾸나. 내 말이 옳으니, 거기에 반대하려는 자는 누구든 다 패배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몹시 분노하며 화를 내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으로 봐야 할지 제정신인 사람으로 봐야 할지 헷갈릴 정도로 기세등등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들은 돈키호테에게 그런 무모한 일은 하지 말라고 간곡히 설득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며, 그의 용맹한 성품을 알기 위해 굳이 새로운 행동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미 그가 행해온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돈키호테는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그는 로시난테에 올라타 방패를 앞세우고 창을 움켜쥔 채, 푸른 초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길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산초는 회색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랐고, 양 떼를 치던 사람들도 그 오만하고도 전례 없는 제안이 대체 어떻게 끝날지 보고 싶은 마음에 모두 뒤를 따랐다.

그리하여 돈키호테가 앞서 말한 대로 길 한복판에 자리를 잡자, 다음과 같은 말로 허공을 갈랐다.

"오, 이 길을 지나가는, 혹은 앞으로 이틀 안에 지나가게 될 모든 행인과 나그네들이여! 기사와 종자, 걸어가는 이들과 말을 탄 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서 있는 나,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떠돌이 기사로서 선포하노니, 이 초원과 숲에 사는 요정들이 지닌 아름다움은 세상 그 어떤 미와 예절보다도 뛰어나다! 물론 내 영혼의 주인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제외하고 말이다! 만약 내 말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당장 나에게 달려오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리라!"

돈키호테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되풀이했지만, 모험가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운명이 점점 더 좋아지려던 참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길 저편에서 말을 탄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손에 창을 든 채, 떼를 지어 아주 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돈키호테와 함께 있던 이들은 그 무리를 보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서둘러 등을 돌려 길에서 멀리 떨어졌다. 가만히 기다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오직 돈키호테만이 용맹한 마

음으로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었고, 산초 판사만이 로시난테의 뒷다리 뒤로 몸을 숨겼다.

창을 든 무리가 몰려왔다. 그중 맨 앞에서 달려오던 한 사내가 돈키호테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비켜라, 악마의 자식아! 길에서 당장 비켜! 저 소들이 너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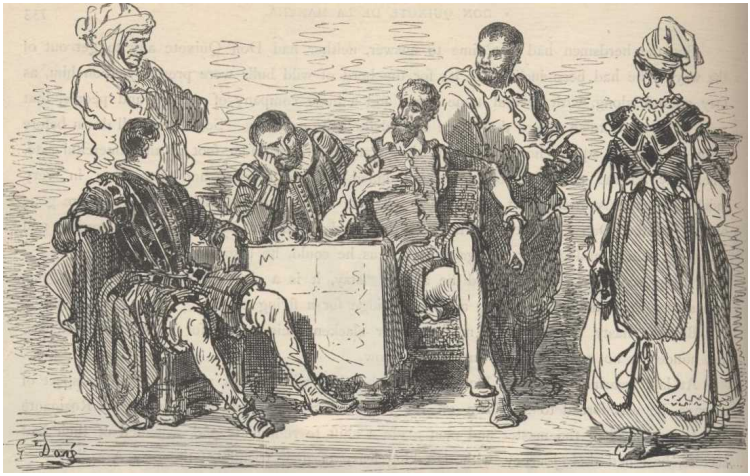
"이놈들, 무례하구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라마 강가에서 길러낸 가장 사나운 소들이라 해도 내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다! 이 무뢰한들아, 두말없이 한꺼번에 인정해라. 내가 여기서 선언한 말이 사실임을 말이다.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소몰이꾼은 대답할 겨를조차 없었고, 돈키호테 역시 피하고 싶었어도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사나운 소 떼와, 그것들을 이끄는 온순한 길잡이 소 떼가, 이튿날 소들을 달리게 할 장소로 몰아넣으려는 수많은 소몰이꾼과 사람들과 더불어 돈키호테와 산초, 로시난테, 그리고 잿빛 나귀를 휩쓸고 지나가며 모두를 땅바닥에 나뒹굴게 했다. 산초는 온몸이 쑤셔 아파했고, 돈키호테는 겁에 질렸으며, 나귀는 얻어맞아 엉망이 되었고, 로시난테 역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모두가 몸을 일으켰고, 돈키호테는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면서도 아주 급히 소 떼를 뒤쫓아 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라, 이 무뢰한들아! 기다려라! 단 한 명의 기사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도망치는 적에게는 은다리를 놓아 길을 터주라'고 말하는 자들과는 그 기질도 생각도 같지 않다!"

하지만 서둘러 달려가는 이들은 돈키호테의 외침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돈키호테의 위협을 마치 예전의 구름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겼다. 돈키호테는 금세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복수는커녕 화만 잔뜩 난 채, 그는 산초와 로시난테, 그리고 당나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길가에 주저앉았다. 이윽고 일행이 모두 도착하자 주인과 종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들은 가짜로 꾸며낸 아르카디아를 다시 작별 인사도 없이, 즐거움보다는 차라리 창피한 마음을 안고 길을 계속 나아갔다.

제59장



제59장.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모험이라 불러도 손색없을 만큼 기이한 사건에 대하여

황소들에게 짓밟혀 먼지를 뒤집어쓰고 기진맥진한 돈키호테와 산초에게, 시원한 나무숲 사이에서 발견한 맑고 깨끗한 샘물이 구원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나귀와 로시난테의 굴레와 재갈을 벗겨 자유로이 풀어 둔 채, 고생에 시달린 주인과 종자 둘이서 샘가에 나란히 앉았다. 산초는 양쪽 가방을 뒤져 평소 자신이 먹을거리라 부르던 것들을 꺼냈다. 산초가 입을 헹구고 돈키호테가 얼굴을 씻자, 그 시원한 기운 덕분에 낙담했던 두 사람의 기운이 조금씩 살아났다. 돈키호테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고, 산초 역시 예의를 차리느라 눈앞의 진미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 채 주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산초는 돈키호테가 망상에 빠져 빵을 입에 넣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은 것을 보고는, 체면 따위는 내팽개친 채 눈앞에 보이는 빵과 치즈를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 넣기 시작했다.

"이보게, 산초 친구."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네는 자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서 먹게나. 나는 내 생각에 짓눌리고 불행에 떠밀려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말일세. 산초, 나는 죽어가며 살 운명으로 태어났고, 자네는 먹다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으니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 참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지. 나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기록된 사람이고, 무용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행동은 신중하고, 군주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처녀들의 구애를 받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도, 내 용맹한 업적으로 일궈낸 영광과 승리와 왕관을 기대하던 내가, 오늘 아침에 어찌하여 이토록 비천하고 천한 짐승들의 발에 짓밟히고 짓눌려 엉망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 사실을 생각하니 씹을 기운도 없고 어금니도 무뎌지며 손끝에 힘조차 들어가지 않는구나. 무엇보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싹 사라져 버렸으니,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싶군. 죽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죽음 말이야."

"그건 아니 되옵니다." 산초가 음식을 급히 씹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시면 '마르타는 배불리 먹다 죽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틀린 말이 되고 맙니다. 적어도 저는 제 목숨을 스스로 끊을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구두 수선공처럼 행동할 작정입니다. 구두 수선공이 가죽을 이빨로 물고 늘어져서 결국 원하는 곳까지 끌고 가듯, 저도 하늘이 정해 놓은 결말에 다다를 때까지 먹으면서 버틸 것입니다. 주인님, 절망에 빠지려 하는 것만큼 큰 어리석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제 말을 믿고, 일단 다 드신 다음에 저 푸른 풀밭을 침대 삼아 잠시 눈을 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깨어났을 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이 얼간이의 헛소리라기보다는 철학자의 이치처럼 들리자, 그 말대로 했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 산초야! 네가 만약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만 해준다면, 내 고통은 확실히 줄어들고 슬픔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조언대로 잠든 사이에, 너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맨살을 드러낸 채 로시난테의 고삐로 네 몸에 채찍질을 삼백 번이나 사백 번쯤 하거라.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린 것을 풀기 위해 네가 앞으로 맞아야 할 삼천 번이 넘는 매 중 일부를 미리 갚는 셈이다. 네 부주의와 태만 때문에 그 가련한 귀부인이 마법에 걸려 계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일단은 우리 둘 다 잠부터 잡시다. 그다음 일은 하늘의 뜻에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

인님, 그런데 맨정신에 제 몸을 채찍질하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몸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께서도 부디 인내심을 가져주시길 빌 뿐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시면, 제가 채찍질을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체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죽기 전까지는 다 살아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아직은 살아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에 고마움을 표하며 음식을 조금 먹었고, 산초는 아주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는 두 사람 다 잠자리에 들면서, 늘 붙어 다니는 동료이자 친구인 로시난테와 잿빛 나귀는 아무런 명령도 없이 제멋대로 그 초원을 가득 채운 무성한 풀을 마음껏 뜯도록 내버려 두었다. 두 사람은 해가 제법 높이 뜬 뒤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다시 말에 올라탄 그들은 길을 재촉했다. 한 레과쯤 떨어진 곳에 여관 하나가 보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내가 여관이라고 말한 이유는 돈키호테가 그곳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평소 모든 여관을 성이라고 부르던 그의 습관과는 달리 말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주인에게 묵을 곳이 있는지 물었다. 주인은 사라고사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곳보다도 편안하고 대접이 좋을 것이라며 흔쾌히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에서 내렸다. 산초는 주인이 건네준 열쇠를 받아 방 하나에 자신의 먹거리를 챙겨 두었다. 그러고는 짐승들을 마구간으로 끌고 가 먹이를 먹인 뒤, 돌 벤치에 앉아 있는 돈키호테가 무엇을 시킬지 보러 나갔다. 그러면서

주인님이 이번 여관만큼은 성으로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해 속으로 하늘에 각별히 감사를 드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각자 머무는 방으로 들어갔다. 산초는 주인에게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은 입맛에 딱 맞을 것이니 무엇이든 주문하라고 대답했다. 이 여관에는 하늘을 나는 작은 새부터 땅 위의 조류,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까지 무엇이든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닭 두 마리만 구워 주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주인님은 입이 짧으셔서 적게 드시는 데다, 저도 그리 대식가는 아니거든요."

주인은 닭이 없다고 대답했다. 솔개들이 닭들을 몽땅 휩쓸어 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럼 주인장께서 부디 연한 닭 한 마리만 구워 주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닭이라니요? 아이고, 세상에!" 주인이 대답했다. "정말로, 정말로 어제 닭을 쉰 마리 넘게 팔러 도시로 보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닭이 없으니, 귀하신 분께서 닭 말고 다른 거라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됐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송아지나 어린 염소 고기라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은 집에 없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다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아주 넉넉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것참 잘도 됐군요!" 산초가 대답했다. "장담하건대, 이렇게 없는 것투성이라도 결국엔 분명 남아돌 베이컨이랑 달걀로 다 귀결될 게 뻔합니다."

"세상에나!" 주인이 대답했다. "우리 손님은 참으로 까다로운 분이시군요! 닭도 없고 암탉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달걀을 달라고 하시다니요? 정 원하신다면 다른 맛있는 음식이라도 좀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닭은 이제 그만 찾으시지요."

"에이, 제발 좀!" 산초가 말했다. "주인장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게 뭔지나 말씀해 주세요. 딴소리는 그만하시고요."

주인이 말했다.

"진짜로 있는 게 뭐냐 하면, 송아지 손바닥처럼 보이는 소 발톱 두 개, 아니면 소 발톱처럼 보이는 송아지 손바닥 두 개가 있습니다. 병아리콩이랑 양파, 돼지비계랑 같이 삶아 놓았는데, 지금 딱 먹기 좋게 '나 좀 먹어줘! 나 좀 먹어줘!' 하고 소리치는 중이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제가 찜해두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아무도 손대지 마세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낼 테니까요. 저한테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게 손바닥이든 발톱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할 겁니다." 여관 주인이 말했다. "여기 묵는 다른 손님들은 아주 귀하신 분들이라, 요리사부터 식료품 관리인, 제과사까지 따로 데려오거든요."

"귀하신 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산초가 말했다. "제 주인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님은 직업 특성상 식료품 관리인이나 술 창고지기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들판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토리나 니스페로 열매를 배불리 먹으며 지낸답니다."

산초가 여관 주인과 나눈 대화는 여기까지였다. 산초는 더 이상 대답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주인이 이미 그에게 주인님의 직업이나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 온 터였기 때문이다.

이윽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여관 주인은 준비된 냄비 요리를 가져왔다. 돈키호테는 아주 작정하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돈키호테의 방과 바로 옆방 사이에는 얇은 칸막이 하나만이 놓여 있었는데, 그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돈키호테가 듣게 되었다.

"돈 제로니모 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녁 식사를 가져오시는 동안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2편」의 다음 장을 마저 읽게 해주십시오."

돈키호테는 자신의 이름이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는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경청했다. 그러다 그 돈 제로니모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돈 후안 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의 1편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2편은 도저히 재미있게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해도," 돈 후안이 말했다.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아무리 나쁜 책이라도 그 안에 좋은 구석은 하나쯤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돈키호테가 이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돈키호테는 분노와 울화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잊었거나, 혹은 잊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똑같이 무기를 들고 맞서서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인지 깨닫게 해주겠다. 비할 데 없이 고귀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돈키호테에게 망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변함없는 절개야말로 돈키호테의 문장이요,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오직 부드러움으로 그녀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그가 받든 본분이기 때문이다."

"대체 누구냐, 우리에게 대답하는 자가!" 옆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라만차의 돈키호테님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그분은 방금 하신 말씀은 물론이고, 앞으로 하실 말씀까지도 다 지키

실 분입니다. 원래 제값을 치르는 사람에게는 돈 나가는 게 아깝지 않은 법이니까요."

산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사처럼 보이는 두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돈키호테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다.

"당신의 모습은 그 이름에 걸맞고, 그 이름 또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 당신이야말로 틀림없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님이십니다. 방랑 기사들의 북극성이자 길잡이이신 분이지요. 당신의 이름을 도용하고 업적을 깎아내리려 애쓰는 자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괴롭힌다 해도 말입니다. 여기 제가 드리는 이 책의 저자처럼 말이지요."

동료가 가져온 책을 돈키호테의 손에 쥐여주자, 그는 책을 받아 들었다. 돈키호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책장을 넘기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다.

"방금 읽은 짧은 내용만으로도 이 저자가 비판받아야 마땅한 점을 세 가지나 찾아냈네. 첫째는 서문에서 읽은 몇몇 문구들이고, 둘째는 문체가 아라곤 지방 사람처럼 쓰였다는 점일세. 관사를 빼먹고 쓰는 걸 보니 딱 그렇더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저자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는 결정적인 잘못인데,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사실을 틀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네. 여기를 보게. 내 종자인 산초 판사의 아내 이름이 마리 구티에레스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실제 이름은 테레사 판사인데 말일세.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자라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실을 왜곡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네."

이에 산초가 말했다.

"참으로 대단한 역사가로군요! 내 아내 테레사 판사의 이름을 마리 구티에레스라고 부르다니, 우리 이야기가 아주 제멋대로 쓰인 게 분명합니다! 주인님, 다시 책을 펼쳐서 제가 거기 등장하는지, 그리고 제 이름이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듣기로는 말일세, 친구 —돈 헤로니모가 말했다—, 자네는 틀림없이 돈키호테 주인님의 종자, 산초 판사인 것 같구먼."

"그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바로 그 산초 판사입니다. 그것이 제 자랑이지요."

"내 장담하건대 —기사가 말했다—, 이 현대의 저자는 자네를 묘사할 때 자네의 실제 모습만큼 깔끔하게 그려내지 못했네. 자네를 그저 먹보에, 어수룩하고, 전혀 재치 없는 사람으로만 그렸으니, 자네 주인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1편에서 묘사된 산초와는 아주 딴판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길 빌 뿐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저 같은 건 그냥 한구석에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말았어야지요. 그런 일은 제대로 아는 사람이나 하는 법이고, 성 베드로께서도 로마에 계셔야 편안하신 법이니까요."

두 기사는 돈키호테에게 자신들의 방으로 건너와 함께 저녁을 들자고 청했다. 그 여관에는 돈키호테의 격에 맞는 음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예의 바른 돈키호테는 그 청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산초는 냄비 요리를 독차지한 채

그 위에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배권을 휘둘렀다. 그는 식탁 상석에 앉았고, 그 곁에는 여관 주인이 자리를 잡았는데, 주인 또한 산초 못지않게 그 족발 요리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이다.

저녁 식사를 나누던 중, 돈 후안은 돈키호테에게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물었다.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는지 혹은 임신 중인지, 아니면 여전히 몸이 온전한 상태라면—예의와 품위를 지키며—돈키호테 경의 애틋한 마음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둘시네아는 여전히 순결한 그대로이고, 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합니다. 그녀의 화답은 예전처럼 메말라 있고, 그 아름다움은 천한 시골 아낙의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어 그는 둘시네아 여사의 신비로운 매력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들려주었다. 또한 몬테시노스 동굴에서 겪었던 일과, 그녀의 마법을 풀기 위해 현자 멀린이 내렸던 명령, 즉 산초를 매질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일도 상세히 이야기했다.

돈키호테가 자신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을 듣는 동안, 두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꼈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늘어놓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품격 있는 말투에 매료되어 넋을 잃고 감탄했다. 한편으로는 그가 참으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저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기도 했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친 사람인지, 그 경계가 어디쯤인지 도무지 판단할 수 없었다.

산초는 저녁 식사를 마쳤다. 그러고는 여관 주인을 고주망태로 만들어 놓은 채 주인님의 방으로 건너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들고 계신 이 책의 저자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한솥밥조차 나눠 먹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처럼 저더러 먹보라고 부르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술꾼이라고까지 부르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긴 하지." 돈 헤로니모가 말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군. 그 말들이 아주 상스럽다는 건 알겠네. 게다가 여기 있는 착한 산초의 얼굴을 보니, 그 말은 순 거짓말인 것 같구먼."

"여러분,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산초가 말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산초와 돈키호테는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쓴 이야기 속 인물들과는 분명 다른 사람일 겁니다. 바로 저희 말입니다. 제 주인님은 용맹하고 분별력 있으며 사랑에 빠진 분이시고, 저는 그저 순박하고 익살스러운 사람일 뿐이지, 먹보나 술꾼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돈 후안이 말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위대한 돈키호테에 관한 일은 그의 첫 저자인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도록 명해야 할 정도야. 마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펠레스 말고는 아무도 자신을 초상화로 그리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말일세."

"누구든 원한다면 나를 그리는 것은 좋으나, 나를 모욕하지는 마시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모욕이 거듭 쌓이다 보면 인내심도 무너지는 법이니 말이오."

"그 어떤 모욕도 돈키호테 경을 해치지는 못할 것이오." 돈 후안이 말했다. "그는 반드시 복수를 하고야 말 사람이니까 말이오. 설령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가 가진 인내심이라는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오. 내가 보기엔 그 방패가 아주 튼튼하고 거대해 보이거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며 밤이 깊어 갔다. 돈 후안은 돈키호테가 책을 더 읽고 무어라 평하는지 보고 싶어 했지만, 끝내 그가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지는 못했다. 돈키호테는 그 책을 이미 다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죄다 어리석은 내용이라고 단언하고는, 혹여 자신이 그 책을 손에 들었다는 사실이 저자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그가 '돈키호테가 내 책을 읽었구나' 하며 기뻐하는 일만은 없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설스럽고 추잡한 것에서는 눈은 물론이거니와 생각조차 멀리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번 여정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자, 돈키호테는 사라고사로 가서 그 도시에서 해마다 열리는 갑옷 차림의 마상 시합에 참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돈 후안은, 그 새로운 이야기에는 돈키호테가—그자가 누구이든 간에—그곳에서 열린 고리 빼기 시합에 참가한 일이 적혀 있는데, 그 시합이라는 게 기발함이라곤 없고 표어도 빈약하며 의상은 더없이 초라한 데다 어리석은 짓만은 넘쳐났다고 들려주었다.

"그렇기에 더욱 그렇소."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사라고사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오. 그리하여 저 현대 작가가 지어낸 거짓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드러낼 것이오. 그러면 사람들도 내가 저자가 말하는 그런 돈키호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돈 헤로니모가 말했다. "바르셀로나에도 다른 경기가 열리니, 그곳에서 돈키호테 나리께서 용맹을 떨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으니 부디 물러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오. 그리고 저를 두 분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충실한 종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시길 바라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초가 말했다. "저도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돈키호테와 산초는 각자의 방으로 물러났다. 돈키호테가 보여준 그 기묘한 이성과 광기의 뒤섞임에 돈 후안과 돈 헤로니모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두 사람은 눈앞의 이들이야말로 진짜 돈키호테와 산초이며, 아라곤 출신의 저자가 묘사한 인물들은 가짜라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돈키호테는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그러고는 옆방 벽을 두드려 숙박객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산초는 여관 주인에게 아주 후하게 값을 치렀다.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음식에 대해 너무 큰소리를 치지 말라거나, 아니면 차라리 음식을 더 넉넉히 갖춰 놓으라고 충고했다.

제60장



제60장.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로 가던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돈키호테가 여관을 나설 무렵의 날씨 또한 청명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그는 우선 사라고사를 거치지 않고 바르셀로나로 가는 가장 곧은 길이 어디인지부터 살폈다. 자신을 그토록 비난

한다는 그 새로운 역사가가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엿새가 넘도록 기록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길을 벗어난 채 걷던 돈키호테는 울창한 상수리나무와 코르크참나무 숲 사이에서 밤을 맞이하고 말았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 대목에서만큼은 시간의 정확성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주인과 종자는 말에서 내려 나무줄기에 몸을 기대고 자리를 잡았다. 그날 낮에 이미 요기를 마친 산초 판사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배고픔보다도 머릿속을 떠도는 온갖 상상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정신이 딴 데 가 있었다. 어떤 때는 자신이 몬테시노스의 동굴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농가 여인으로 변한 둘시네아가 자신의 암나귀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기도 했다. 그러다 현자 멀린이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 들려주던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종자인 산초 판사가 너무나 나태하고 정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돈키호테가 생각하기에 산초는 고작 다섯 대만 제 손으로 때렸을 뿐이었는데,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 필요한 무수히 많은 매질에 비하면 턱없이 적고도 어중간한 숫자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너무나 비통하고 화가 치민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이 말을 내뱉었다.

"위대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매듭을 끊는 것이나 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 전체의 통치자가 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 지금 내가 산초를 억지로 매질한다 해서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일이 어찌 달라지겠느냐? 만약 이 방책의 핵심이 산초가 삼천여 대의 매를 맞는 데 있다면, 그 매를 산초가 직접 맞든 다른 사람이 대신 때려서 맞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중요한 것은 산초가 그 매를 맞는다는 사실 그 자체이지, 그 매가 어디서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품은 돈키호테는 먼저 로시난테의 고삐를 붙잡더니, 그것으로 산초를 때릴 수 있도록 고삐를 갈무리했다. 그러고는 산초에게 다가가 그의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는데, 돈키호테는 그 허리띠가 산초의 옷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키호테가 막 다가갔을 때, 산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체 누구시기에 저를 만지고 허리띠를 푸는 것입니까?"

"나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 허물을 메우고 내 고충을 덜어주러 온 사람 말이다. 산초, 네가 스스로 짊어지기로 했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게 하려고 너를 매질하러 온 것이야. 둘시네아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너는 방심하며 살고 있고,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네 의지로 스스로 허리띠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적막한 곳에서 내가 직접 너를 최소한 이천 대는 매질할 테니까."

"그건 안 됩니다!" 산초가 말했다. "제발 가만히 좀 계십시오. 안 그러면 귀머거리들도 다 들을 만큼 하느님께 맹세코 큰일 납니다. 제가 짊어지기로 한 매질은 제 의지로 받는 것이어야지, 억지로 맞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매 맞고 싶은 기분도 아니고요. 나중에 제가 마음 내킬 때 스스로 매를 맞고 혼나겠다고 주인님께 약속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네 마음대로 하게 둘 수는 없다, 산초."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마음씨는 모질면서도, 비록 천한 촌놈일망정 살갗만은 참으로 무른 놈이니까."

그렇게 돈키호테는 산초를 풀어주려고 애를 쓰며 몸싸움을 벌였다. 그 모습을 본 산초 판사는 벌떡 일어나 주인에게 달려들었다. 산초는 주인과 온 힘을 다해 엉겨 붙더니, 돈키호테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그를 대자로 눕혔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가슴 위에 오른쪽 무릎을 올리고 양손을 꽉 붙잡아, 돈키호테가 몸을 돌리거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압박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배신자 놈 보게? 감히 네 주인과 주군에게 대항하려 드느냐? 네게 빵을 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왕을 폐하지도, 왕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제 자신을 도울 뿐입니다. 저야말로 제 주인이니까요. 그러니 제발 지금은 가만히 계시겠다고, 당장은 저를 매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주인님을 놓아드리고 자유롭게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이 배신자 놈, 여기서 죽을 줄 알아라!"

돈냐 산차의 원수여!

돈키호테는 그렇게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양심을 걸고 맹세하며, 산초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제 매를 맞을지는 전적으로 산초의 의사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산초는 일어나 그곳에서 한참 멀리 떨어졌다. 그러고는 다른 나무 쪽으로 다가가는데, 머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손을 들어 확인해 보니 신발과 양말을 신은 사람의 발 두 개가 만져졌다. 산초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그는 다른 나무로 옮겨 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산초는 돈키호테를 부르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돈키호테가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무서운지 물었다. 그러자 산초는 나무마다 사람의 발과 다리가 가득하다고 대답했다. 돈키호테가 직접 만져 보고는 이것이 무엇인지 곧 깨닫고 산초에게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네가 만지면서도 보이지 않는 이 발과 다리들은 분명 이 나무들에 매달려 죽은 도적이나 강도들의 것이란다. 이곳은 관아에서 도적들을 잡으면 스무 명, 서른 명씩 모아놓고 교수형에 처하곤 하는 곳이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우리가 지금 바르셀로나 근처에 와 있다는 소리다."

그의 짐작대로,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눈을 들어 나무에 매달린 송이들을 올려다보았고, 그것이 도적들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침 날이 밝아 오고 있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을 겁먹게 했다면,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에워싼 마흔 명이 넘는 살아 있는 도적들은 그에 못지않게 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도적들은 카탈루냐어로, 두목이 도착할 때까지 꼼짝 말고 멈춰 서 있으라고 소리쳤다.

돈키호테는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은 말에서 내려 두 발로 선 처지였고, 말은 고삐가 풀려 있는 데다 창은 나무에 기대어 놓은 채여서, 결국 아무런 방어 수단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은 때와 기회를 노리며, 차라리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이는 편이 낫겠다고 여겼다.

도적들은 산초의 당나귀에게 달려들어 안장주머니와 가방에 든 물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 버렸다. 다행히 산초는 허리에 두른 전대 속에 공작이 준 에스쿠도와 고향에서 챙겨 온 돈을 넣어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만약 그 순간 두목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저 무리는 가죽과 살 사이에 숨긴 것까지 샅샅이 뒤져냈을 것이다.

마침내 나타난 두목은 서른네 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로, 체구는 보통보다 컸으며 인상은 근엄하고 피부는 가무잡잡했다. 그는 강철 갑옷을 두른 채 강인한 말 위에 올라타 있었으며, 양옆에는 그 지방에서 페드레냘이라 부르는 네 자루의 권총을 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즉 그 일을 업으로 삼는 자들을 일컫는 종자들이 산초 판사를

약탈하려는 것을 보고는 그만두라고 명령했고, 명령은 곧바로 지켜졌다. 덕분에 전대는 무사했다.

두목은 나무에 기대어 놓은 창과 바닥에 떨어진 방패, 그리고 무장을 한 채 슬픔 그 자체가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우울한 모습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돈키호테를 보고는 놀라워했다. 그는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선량한 분이여. 당신은 잔혹한 오시리스 같은 자의 손이 아니라, 엄격하기보다는 자비로운 로케 기나르트의 손에 떨어진 것이니 말이오."

"제가 슬픈 것은 당신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오, 용맹한 로케여! 당신의 명성은 이 땅의 그 어떤 경계로도 가둘 수 없을 만큼 드높지 않습니까! 제가 슬픈 것은 오직 저의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기사도의 규율에 따라 저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 있으며, 매 순간 스스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하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붙잡히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위대한 로케여,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만약 제가 말 위에 올라타 창과 방패를 갖추고 있었다면, 저들을 굴복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온 세상이 그 무용담으로 가득 찬 라만차의 돈키호테이기 때문입니다."

로케 기나르트는 돈키호테의 병이 용맹함보다는 광기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예전에 돈키호테의 이름을 몇 번 들어 본 적은 있었으나, 그가 했다는 일들을 결코 사실이라 믿지 않았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기이한 성미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멀리서만 듣던 이 인물을 직접 만나 가까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용맹한 기사여,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한 이 불운을 두고 불길한 징조라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뒤틀렸던 운명이 바로잡힐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늘은 때때로 기이하고도 전례 없는 우여곡절을 통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들곤 합니다."

돈키호테가 막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마리의 말이었고, 그 위에는 스무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청년은 금실 장식띠를 두른 초록색 다마스크 옷차림에, 통 넓은 반바지와 짧은 승마용 상의를 걸치고, 왈롱식으로 비스듬히 쓴 모자를 썼으며, 광을 낸 꼭 끼는 장화에 박차를 달고, 금빛 단검과 검을 찼으며, 손에는 작은 엽총을 들고 양옆에는 권총 두 자루를 차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 로케는 이 늠름한 모습을 보았고, 청년은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용맹한 로케여,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내 불행을 해결해 줄 방법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위로라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더 궁금하게 만들지 않으려, 그리고 당신이 아직 저를 모르니 제가 누구인지 먼저 밝히겠습니다. 저는 시몬 포르테의 딸 클라우디아 헤로니마입니다. 시몬 포르테는 당신의 특별한 친구이자, 동시에 클라우켈 토렐라스의 숙

적이기도 합니다. 토렐라스 또한 당신의 적대 세력 중 한 명이니 당신의 적이기도 하지요. 아시다시피 이 토렐라스에게는 돈 비센테 토렐라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적어도 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제 불행한 사연을 길게 늘어놓지 않기 위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사랑의 말을 건네자 저는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 몰래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은둔하며 조신하게 사는 여자라 할지라도, 제멋대로 타오르는 욕망을 실행에 옮길 시간 정도는 늘 있는 법이니까요. 결국 그는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고, 저 역시 그의 아내가 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어제, 그가 제게 진 약속을 잊은 채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이면 그 여인과 혼례를 올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인내심도 바닥나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직접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챙겨 입고, 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 이곳에서 1리그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돈 비센테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늘어놓거나 변명을 들어줄 겨를도 없이, 이 산탄총을 쏘고 덧붙여 이 권총 두 자루까지 퍼부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의 몸에 탄환이 두 발 이상 박힌 것 같습니다. 피에 젖은 제 명예가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주려고 몸에 구멍을 뚫어버린 셈이지요. 그는 지금 하인들 사이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 하인들은 감히 그를 지킬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럴 능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탁하러 왔습니다. 저를 프랑스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곳에는 제가 의지하며 살 친척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 아버지도 지켜주십시오. 돈 비센테의 부하들이 아버지에게 무모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로케는 아름다운 클라우디아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과 훤칠한 자태, 그리고 그 기막힌 사연에 넋을 잃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리 오십시오. 우선 당신의 원수가 죽었는지부터 확인하러 갑시다. 그러고 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지요."

클라우디아가 한 말과 로케 기나르트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듣고 있던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이 부인을 지키기 위해 애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제 말과 무기를 내주십시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직접 그 기사를 찾아가서, 그가 살았든 죽었든 이토록 아름다운 분께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산초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중매를 아주 잘 서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약속을 어기고 처녀를 거절하던 다른 사람을 결혼시키셨으니까요. 만약 주인님을 괴롭히는 마법사들이 주인님의 진짜 모습을 하인의 모습으로 바꿔놓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그 처녀는 이미 시집을 가서 처녀의 몸이 아니게 되었을 겁니다."

로케는 주인과 종이 나누는 대화보다 아름다운 클라우디아가 겪은 사건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팔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로케는 부하들에게 산초에게서 빼앗은 당나귀의 물건을 전부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그날 밤 묵었던 곳으로 돌아가라

고 일렀습니다. 곧이어 로케는 클라우디아와 함께 부상당했거나 혹은 죽었을 돈 비센테를 찾아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클라우디아가 그를 발견했던 곳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방금 흘린 듯한 선혈만이 낭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을 샅샅이 살피던 중, 위쪽 비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살았든 죽었든 돈 비센테를 치료하거나 혹은 장례를 치르려 데려가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그들을 뒤쫓았고,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기에 금세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인들의 품에 안겨 있는 돈 비센테를 찾아냈습니다. 돈 비센테는 지치고 쇠약해진 목소리로, 상처의 통증 때문에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제발 이곳에 그대로 두고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클라우디아와 로케는 말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인들은 로케가 나타나자 겁을 먹었고, 클라우디아는 돈 비센테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클라우디아는 애틋함과 매정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대로 이 손을 내게 내밀어 주었더라면, 자네가 이런 처지에 놓이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네."

부상을 입은 기사가 거의 감긴 눈을 뜨더니, 클라우디아임을 알아보고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고도 속임을 당한 여인이여, 잘 알겠소. 바로 당신이 나를 죽인 것이구려. 내 마음도, 내 행동도 결코 당신을 모욕할 생각도, 그럴 능력도 없었거늘, 어찌 내게 이런 과분하고도 부당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오."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부유한 발바스트로의 딸 레오노라와 혼인하러 가던 길이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요?"라고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아니오, 정말로 그렇지 않소." 돈 비센테가 대답했습니다. "내 불운이 당신에게 그런 소문을 전했나 보구려. 당신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내 목숨을 앗아가게 하려고 말이오. 하지만 내 생명을 당신의 손과 품에 맡길 수 있으니, 나는 오히려 운이 좋다고 생각하오.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다면, 원하신다면 내 손을 잡고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오. 당신이 나로부터 받았다고 여기는 그 모욕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것 말고는 내게 더 큰 기쁨이 없으니 말이오."

클라우디아가 그의 손을 꽉 잡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돈 비센테의 가슴과 몸 위로 쓰러졌고, 돈 비센테는 치명적인 실신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케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와 얼굴에 끼얹을 물을 가져왔고, 하인들은 그 물로 두 사람의 얼굴을 씻어주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정신을 차렸으나, 돈 비센테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클라우디아는 사랑하는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이 떠나가라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거칠게 헤집어 바람에 날려 보냈고,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쥐어뜯으며 슬퍼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진 이가 보여줄 수 있는 온갖 고통과 비탄의 몸짓을 쏟아내며 말입니다.

"오, 잔인하고도 무심한 여인이여!" 그녀가 외쳤습니다. "어찌 그리도 쉽게 그런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오, 질투라는 광기 어린 힘이여! 제 가슴속에 당신을 받아들인 이를 어찌 이토록 절망적인 파멸로 몰아넣는단 말인가! 오, 나의 남편이여! 나의 반려라는 불행한 운명 때문에, 당신은 침실에서 무덤으로 떠나버렸구려!"

클라우디아의 통곡이 어찌나 처절하고 슬픈지, 평소 어떤 일에도 눈물 흘리는 법이 없던 로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인들도 울음을 터뜨렸고, 클라우디아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주변은 온통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로케 기나르트는 돈 비센테의 하인들에게 그의 시신을 근처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을로 옮겨 장례를 치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로케에게, 자신의 고모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으로 가서 그곳에서 더 훌륭하고 영원한 남편과 함께 남은 생을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로케는 그녀의 갸륵한 결심을 칭찬하며, 그녀가 원하는 곳까지 동행하겠다고, 또한 친척들이나 세상 그 누구든 그녀의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면 그로부터 아버지를 지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디아는 어떤 식으로도 그의 동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가장 정중한 말로 그의 호의에 감사를 표한 뒤,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돈 비센테의 하인들이 시신을 운반해 떠나자 로케도 자신의 일행에게로 돌아갔고, 이로써 클라우디아 헤로니

마의 사랑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질투라는 거부할 수 없고 가혹한 힘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실타래를 엮어낸 것이니, 이런 결말이 무슨 놀랄 일이겠습니까?

로케 기나르트는 자신이 명령한 곳에서 종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로시난테를 탄 돈키호테도 있었는데, 그는 종자들에게 영혼과 육체 모두에 위험한 그런 삶의 방식은 이제 그만두라고 설득하며 한참 동안 훈계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자들 대부분이 거칠고 무지한 가스코뉴 사람들이라, 돈키호테의 말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로케가 다가오자, 그는 산초 판사에게 자기 부하들이 당나귀에서 빼앗아 갔던 보석과 장신구들을 다시 돌려주었는지 물었습니다. 산초 판사는 돌려받았다고 대답하면서도, 다만 도시 세 개 값은 족히 나갈 머릿수건 세 개가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보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네만, 3레알의 가치도 안 되는 물건이라네."

"그 말이 맞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지만 내 종자가 한 말은 일리가 있네. 나에게 그것들을 준 분이 계시니,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로케 기나르트는 그것들을 즉시 산초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자기 부하들을 한 줄로 늘어서게 한 뒤, 지난번 분배 이후로 도둑질해 온 옷가지와 보석, 돈,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물건을 전부 그 앞으로 가져오게 했다. 그는 물건들을 간략하게 셈한 다음, 나누기 어려

운 물건들은 돈으로 환산하여 일행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과정이 어찌나 법도에 맞고 신중했는지, 분배의 정의를 조금도 어기거나 속인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흡족해하며 정당한 몫을 받았다고 여기자, 로케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이런 일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둑들과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이오."

그러자 산초가 말했다.

"여기서 내가 직접 본 바로는, 정의라는 것이 어찌나 좋은 것인지 도둑들 사이에서조차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도더군요."

그 말을 들은 한 종자가 화승총의 개머리판을 치켜들었다. 만약 로케 기나르트가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않았어도, 그는 분명 그 개머리판으로 산초의 머리를 깨뜨렸을 것이다. 산초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저 무리 사이에 있는 동안에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길목마다 초소를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상황을 우두머리에게 보고하도록 배치된 종자 중 한 명 혹은 몇 명이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나리,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바르셀로나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엄청난 무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로케가 대답했다.

"그들이 우리를 찾는 자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찾는 자들인지 확인해 보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자들입니다."라고 그 종자가 대답했다.

"그럼 다 나와라." 로케가 대답했다. "그리고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당장 이리로 데려와라."

그들은 분부대로 움직였다. 돈키호테와 산초, 로케 셋만 남게 되자, 종자들이 무엇을 데려오는지 지켜보며 기다렸다. 그러던 중 로케가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사건들, 게다가 하나같이 위험천만한 일들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우리만큼 불안하고 정신없이 사는 법도 없으니까요. 저에게는 어떤 복수심이 깃들었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주 평온한 사람의 마음조차 뒤흔들어 놓을 정도입니다. 본래 저는 동정심도 많고 선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가해진 잘못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제 모든 선한 성품을 짓눌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이성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이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심연이 다른 심연을 부르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는 것처럼, 복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제는 제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 제가 떠맡아 해결하려 듭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이 혼란스러운 미로 한복판에 갇혀 있을지언정, 안전한 항구로 빠져나갈 희망만큼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로케가 이토록 논리 정연하고 훌륭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듣고 무척 놀랐다. 도둑질이나 살인, 약탈 같은 일을 업으로 삼는 자들 중에는 말솜씨가 번듯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는 로케에게 대답했다.

"로케 나리, 건강을 회복하려면 먼저 자기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환자가 의사의 처방약을 기꺼이 먹으려 해야 하는 법입니다. 나리께서는 지금 병이 드셨고, 그 병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사이신 하늘, 아니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 나리를 낫게 할 약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 약은 기적처럼 단번에 듣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낫게 하는 법이지요. 게다가 분별 있는 죄인은 우둔한 죄인보다 회개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법입니다. 나리께서는 방금 하신 말씀으로 충분히 사려 깊음을 보여 주셨으니,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양심의 병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나리께서 구원의 길로 가는 수고를 덜고 한결 수월하게 그 길에 들어서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지요. 제가 편력기사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길에는 온갖 고생과 불행이 가득하니, 그것을 참회로 삼는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리를 천국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로케는 돈키호테의 조언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화제를 돌려 클라우디아 헤로니마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들려주었다. 그 처녀의 아름다움과 당당함, 그리고 기백이 퍽 마음에 들었던 산초 판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때, 사로잡으러 나갔던 부하들이 말을 탄 기사 두 명과 걸어오는 순례자 두 명, 그리고 하인 여섯 명을 거느린 여인들의 마차를 데리고 나타났다. 하인들은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여인들을 수행하고 있었고, 기사들이 데려온 나귀 몰이꾼 두 명도 함께였다. 부하들은 이들을 가운데로 몰아 세웠다. 승자와 패자 모두 숨을 죽인 채 침묵을 지켰고, 위대한 로케 기나르트가 입을 열기만을 기다렸다. 로케는 기사들에게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기사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나으리, 저희는 스페인 보병대의 대장 두 명입니다. 나폴리에 저희 부대를 두고 있으며, 지금은 시칠리아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바르셀로나에 대기 중이라는 갤리선 네 척에 몸을 실으러 가는 길입니다. 돈은 200에서 300에스쿠도 정도 챙겼으니, 저희 생각에는 아주 넉넉하고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병사들이 원래 형편이 넉넉할 리 없으니 이 정도면 큰 재물을 가진 셈이지요."

로케는 순례자들에게도 대장들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순례자들은 로마로 가려고 배를 타러 가는 길이며, 둘이 합쳐 60레알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로케는 마차에는 누가 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돈은 얼마나 지녔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그러자 말을 타고 가던 일행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마차에 타고 계신 분들은 나폴리 비카리아 법원장의 부인이신 도냐 기오마르 데 키뇨네스 님과 어린 따님 한 분, 그리고 시녀 한 명과 노시

녀 한 명입니다. 저희 하인 여섯이 그분을 모시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 돈은 600에스쿠도입니다."

"그렇다면" 로케 기나르트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여기 900에스쿠도와 60레알을 확보한 셈이군. 내 부하들은 60명이나 되니, 내가 계산에 서투르니 각자 얼마씩 나누어 가질 수 있을지 잘 살펴두게나."

이 말을 들은 도적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로케 기나르트 만세! 그를 파멸시키려는 도둑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가 무사히 오래오래 살기를!"

대장들은 괴로운 기색을 내비쳤고, 법원장 부인은 슬픔에 잠겼으며, 순례자들도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을 보고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다. 로케는 잠시 그들을 그렇게 마음 졸이게 내버려 두었으나, 화승총 사정거리에서도 알아챌 만큼 뚜렷한 그들의 슬픔을 더는 끌고 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다시 대장들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대장님들, 예의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무리를 달래도록 두 분께서 60에스쿠도를, 법원장 부인께서는 80에스쿠도를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원장도 미사를 노래한 값으로 끼니를 잇는 법이니까요. 그러고 나면 제가 써드릴 통행증을 가지고 홀가분하고 거침없이 각자 갈 길을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대에 나누어 배치해 둔 다른 부대와 마주치더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는 어떤 병사에게도, 어떤 여성에게도, 특히 지체 높은 부인께는 더더욱 해를 끼칠 뜻이 없습니다."

대장들은 자기들 돈을 그대로 남겨 준 로케의 예의와 너그러움에 — 그들은 그것을 정말 너그러운 처사로 받아들였다 — 한없이 훌륭한 말로 감사를 표했다. 도냐 기오마르 데 키뇨네스 부인은 위대한 로케의 발과 손에 입을 맞추려고 마차에서 뛰어내리려 했으나, 로케는 결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못된 직업이 강요하는 피치 못할 의무를 다하느라 부인께 끼친 결례를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법원장 부인은 하인을 시켜 자기 몫으로 정해진 80에스쿠도를 곧바로 내주게 했고, 대장들도 이미 60에스쿠도를 내놓은 뒤였다. 순례자들도 가진 쥐꼬리만 한 돈을 다 내놓으려 했으나, 로케는 그러지 말라고 이른 뒤 자기 부하들에게로 몸을 돌려 말했다.

"이 에스쿠도들 중에서 각자 두 개씩 나누어 주고도 20개가 남는다. 그중 10개는 이 나그네들에게 주고, 나머지 10개는 이 착한 종자에게 주어라. 그래야 이 모험을 겪고 나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로케는 늘 지니고 다니던 필기도구를 가져오게 하여, 자기 부대의 우두머리들 앞으로 된 통행증을 그들에게 써 주었다. 그러고는 작별을 고하며 그들을 자유로이 보내 주었다. 풀려난 이들은 로케의 고결함과 늠름한 풍모, 그리고 기이한 처신에 감탄하며, 그를 이름난 도둑이라기보다 차라리 알렉산드로스 대왕 같은 인물로 여겼다. 종자들 가운데 한 명이 가스코뉴와 카탈루냐 말을 섞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대장님은 도둑이라기보다 차라리 수도사에 가깝구먼. 앞으로도 이렇게 너그럽게 굴 작정이라면, 우리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베풀 일이지."

불운한 그자가 아무리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도 로케의 귀를 피하지는 못했다. 로케는 곧바로 칼을 빼 들어 그자의 머리를 거의 두 쪽으로 갈라 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무례하고 건방진 놈들을 응징한다."

모두가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감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이 로케에게 보이는 복종심이 그만큼이나 대단했기 때문이다.

로케는 한쪽으로 물러나 바르셀로나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한 통 썼다. 그는 편지에, 그토록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편력기사이자 라만차의 유명한 돈키호테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돈키호테가 세상에서 가장 익살스럽고도 식견이 높은 사람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고는 나흘 뒤, 곧 성 요한 세례자의 축일에 돈키호테가 모든 무장을 갖추고 자신의 말 로시난테에 올라탄 채, 그의 종자 산초가 당나귀를 타고 함께 도시 해변 한복판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친구인 니아로스 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다. 로케는 자신의 적수인 카델스 파가 이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를 바랐지만, 돈키호테의 광기와 분별력, 그리고 종자 산초 판사의 익살스러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막을 길은 없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편지

를 다 쓴 로케는 자신의 종자 중 한 명에게 이를 맡겼고, 이 종자는 도적의 옷을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바르셀로나로 들어가 받을 사람에게 편지를 전했다.

제61장



제61장. 돈키호테가 바르셀로나에 입성하며 겪은 일과, 사실이라기보다는 허풍에 가까운 여러 가지 소동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로케와 함께 사흘 밤낮을 보냈다. 만약 삼백 년 동안 곁에 머물렀다 해도, 그의 삶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구경하고 감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것이다. 이쪽에서 동이 트면 저쪽에서 밥을 먹고, 누군지 모를 이에게 쫓겨 도망치다가도, 또 누군지도 모를 이를 기다리며 서성였다. 선 채로 잠을 자다 잠을 설치고는 이곳저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였다. 하는 일이라곤 온통 정찰병을 세우고, 보초의 동태에 귀를 기울이고, 화승총의 심지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뿐이었다. 화승총은 몇 자루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다들 부싯돌식 총을 썼기 때문이다. 로케는 밤마다 부하들과 떨어져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바르셀로나 부왕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수많은 포고령을 내렸기에, 그는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 부하들조차 믿을 수 없었다. 자기 편인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거나 관가에 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전전긍긍했으니, 참으로 비참하고 고달픈 삶이었다.

결국 로케와 돈키호테, 산초는 다른 종자 여섯 명과 함께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는 길과 지름길, 그리고 숨겨진 오솔길을 따라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이들은 성 요한 축일 전날 밤에 바르셀로나 해안에 도착했다. 로케는 돈키호테와 산초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약속대로 산초에게 에스쿠도 열 개를 건넸다. 양측은 서로 수없이 고마움을 표하며 정답게 헤어졌다.

로케는 떠나갔고, 돈키호테는 말을 탄 채 그대로 머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머지않아 동쪽 발코니 너머로 하얀 새벽빛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빛은 귀를 즐겁게 하는 대신 풀과 꽃들을 생기 있게 깨워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많은 피리 소리와 북소리, 방울 소리가 들려오며 귀를 즐겁게 했다. 또한 도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듯한 사람들이 "비켜라, 비켜! 길을 비켜라!"라고 외치는 소란스러운 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새벽이 지나자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양은 마치 방패보다 더 커다란 얼굴을 한 채, 낮은 지평선 너머에서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사방으로 눈을 돌려 주위를 살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를 마주했다. 그들에게 바다는 라만차에서 보았던 루이데라 호수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해변에는 갤리선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갑판을 덮은 차양을 걷어내자 바람에 휘날리며 수면에 입 맞추듯 스치고 지나가는 깃발과 장식용 띠들이 가득 모습을 드러냈다. 배 안에서는 나팔과 트럼펫,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멀고 가까운 곳의 공기를 부드러우면서도 용맹한 선율로 가득 채웠다. 갤리선들은 잔잔한 물결 위에서 마치 작은 전투라도 벌이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도시에서는 멋진 말을 탄 수많은 기사들이 화려한 제복을 입고 나와 마치 화답하듯 움직였다. 갤리선의 병사들이 끊임없이 대포를 쏘아 올리자, 도시의 성벽과 요새에 있던 이들도 이에 응수했다. 육중한 대포가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뿜으며 공기를 가르면, 갤리선의 함포가 그 소리에 맞서 포성을 울렸다. 즐거운 바다와 유쾌한 땅, 그리고 대포 연기 때문에 약간 탁해진 것 외에는 맑은 공기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산초는 바다 위를 움직이는 저 덩어리들이 대체 어떻게 저토록 많은 발을 가질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화려한 제복을 입은 무리가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며 떠들썩하게 달려왔다. 돈

키호테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 중 로케가 미리 기별을 넣어 둔 사람이 돈키호테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모든 방랑 기사들의 거울이자 등불이며, 길을 밝히는 별이자 북극성 같은 분께서 우리 도시에 오셨도다! 그분께 드릴 찬사는 끝이 없으니 차마 다 말할 수도 없구나. 내가 말하는 이는 바로 용맹하신 돈키호테 데 라만차 님이시다! 요즈음 가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를 현혹하던 거짓된 분이나 꾸며낸 분, 혹은 출처도 불분명한 가짜가 아니시다. 역사가들의 꽃이라 불리는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가 우리에게 묘사해 준, 바로 그 진실하고 정당하며 충실한 분이 오셨도다!"

돈키호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기사들 또한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뒤따라오던 다른 이들과 함께 돈키호테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소란스럽게 원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산초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들은 우리를 아주 잘 알고 있구나. 내 장담컨대, 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판된 아라곤 사람의 이야기까지도 읽었을 것이다."

말을 했던 기사가 다시 돈키호테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그에게 말했다.

"돈키호테 나리, 저희와 함께 가시지요. 저희 모두 나리를 모시는 하인이자, 로케 기나르트의 절친한 친구들이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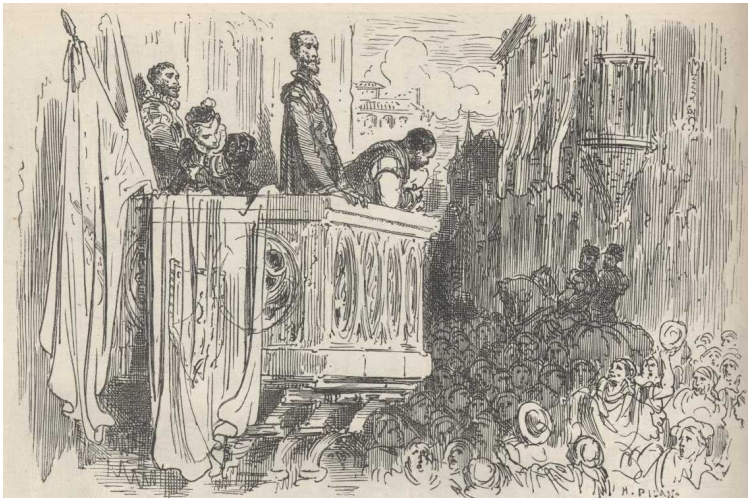
"예의는 예의를 낳는 법이니, 기사 나리의 그 친절함은 위대한 로케의 친절함에서 태어났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임이 분명합니다. 나리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오직 나리의 뜻을 따를 뿐이며, 만약 그 뜻이 저를 모시는 데 쓰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기사는 이보다 못지않게 정중한 말로 대답했다. 그러고는 피리 소리와 북소리에 맞춰 사람들을 모두 그를 중심으로 에워싸게 한 뒤, 함께 도시로 향했다. 그런데 도시로 들어설 무렵, 온갖 악을 꾸미는 악마와 그 악마보다 더 못된 아이들이 일을 벌였다. 그중에서도 아주 장난기 많고 겁 없는 아이 둘이 인파를 헤치고 몰래 다가오더니, 한 명은 산초의 당나귀 꼬리를, 다른 한 명은 로시난테의 꼬리를 붙잡고는 가시금작화 뭉치를 꼬리에 꽉 박아 넣었다. 가시가 꼬리를 찔러오자 불쌍한 짐승들은 깜짝 놀라 날뛰었고, 그 고통에 꼬리를 바짝 조이며 몸부림치다 크게 뛰어오르는 바람에 주인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창피를 당하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애마 꼬리에 박힌 가시를 뽑으려 애썼고, 산초 역시 제 당나귀 꼬리에 박힌 가시를 떼어내려 분주히 움직였다. 돈키호테를 인도하던 이들이 아이들의 무례함을 꾸짖고 벌을 주려 했으나, 이미 천 명도 넘는 인파 속에 섞여버린 탓에 도저히 아이들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시 말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아까와 다름없는 박수 소리와 음악 소리에 묻혀 안내인이 마련한 저택에 도착했다. 그 집은 마치 부유한 기사의 저택처럼 크고 으리으리했다. 시데 아메테 베

넹헬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기로 한다.

제62장



제62장. 마법에 걸린 머리에 얽힌 모험과, 들려주지 않고는 못 배길 그 밖의 사소한 이야기들

돈키호테의 주인인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부유하고 신중한 기사였다. 그는 건전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상냥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

는 집에 돈키호테가 머물게 되자, 돈키호테의 광기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소동을 광장으로 끌고 나가 구경거리로 만들 수 있을지 궁리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조롱은 결코 유희가 될 수 없으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즐기는 놀이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돈키호테의 무장을 해제시킨 뒤, 예전에 여러 차례 묘사하고 그려냈던 그 좁고 뻣뻣한 옷차림 그대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로 난 발코니로 돈키호테를 데려갔다. 사람들과 아이들은 마치 원숭이를 구경하듯 돈키호테를 바라보았다. 제복을 입은 하인들은 마치 축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돈키호테 한 사람만을 위해 옷을 차려입은 것처럼 그의 앞을 다시금 줄지어 달렸다. 산초 판사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았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카마초의 결혼식 같은 잔치를 다시 만난 것 같았고,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의 집이나 공작의 성 같은 곳에 다시 온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돈 안토니오는 몇몇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식사를 했다. 친구들은 모두 돈키호테를 예우하며 그를 마치 진짜 편력기사처럼 대접해 주었다. 돈키호테는 그 대접이 어찌나 기쁜지, 허세 섞인 몸짓을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산초 판사가 재롱을 부리는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그의 입담에 이끌려 집안 하인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다. 식사가 이어지던 중, 돈 안토니오가 산초에게 말을 건넸다.

"여보게 산초, 듣자 하니 자네가 만하르 블랑코와 작은 미트볼을 아주 좋아한다더군. 그래서 음식이 남기라도 하면 다음 날 먹으려고 품속에 꼭꼭 챙겨둔다지?"

"아닙니다, 주인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깔끔한 사람에 가깝거든요. 제 앞에 계신 주인님 돈키호테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주인님은 도토리 한 줌이나 호두 몇 알만 있어도 며칠을 든든히 버티곤 합니다. 사실 제게 고기 한 점이 주어지는 운 좋은 날이 오면,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맛있게 먹어 치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게 주어지는 대로 먹고 형편이 닿는 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깔끔하지 못한 대식가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식탁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참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분명히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나저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가 음식을 먹을 때 보여주는 그 절제력과 깔끔함은 청동판에 새겨두어야 마땅하네. 그래야 다가올 후세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사실 산초가 배가 고플 때면 좀 게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 워낙 급하게 먹고 양 볼이 불룩해지도록 씹어대니까 말일세. 하지만 깔끔함만큼은 언제나 완벽하다네. 게다가 총독으로 지내던 시절에는 아주 까다롭고 품격 있게 먹는 법도 배웠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포도알은 물론이고 석류알까지도 포크로 집어 먹을 정도였다네."

"세상에!" 돈 안토니오가 말했다. "산초가 총독이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바라타리아라고 불리는 섬의 총독이었지요. 열흘 동안 제 뜻대로 아주 호의호식하며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렸고, 세상의 그 어떤 통치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결국 그곳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는데, 그러다 동굴에 빠지는 바람에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지요."

돈키호테는 산초가 총독으로 지낸 일의 자초지종을 낱낱이 들려주었고, 그 덕분에 듣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식탁보를 걷어낸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의 손을 잡고 별도의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 방에는 장식이라고는 벽옥으로 만든 듯한 탁자 하나뿐이었는데, 탁자는 같은 재질의 받침대 하나로 지탱되고 있었다. 그 탁자 위에는 로마 황제의 흉상처럼 가슴 윗부분만 있는 청동 머리 모양의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와 함께 방 안을 천천히 거닐며 탁자 주위를 여러 번 돌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다.

"자, 돈키호테 님. 지금 이 방에는 우리 말고는 아무도 듣는 이가 없으며 문도 굳게 닫혀 있으니,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이한 모험,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장 놀라운 일 하나를 당신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듯,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그 비밀 위에 커다란 돌덩이라도 얹어 놓겠습니다. 돈 안토

니오 님, 당신이 이미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신은 듣는 귀는 있어도 말하는 혀는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 마음속으로 옮겨 놓으셔도 좋습니다. 마치 침묵의 심연 속으로 던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맹세를 믿고," 돈 안토니오가 대답했다. "당신께서 보고 듣게 될 일들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해 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는 제 비밀을 나눌 상대가 없어 괴로웠던 마음도 조금이나마 달래보고 싶습니다."

돈키호테는 이 모든 준비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때 돈 안토니오가 돈키호테의 손을 잡더니, 청동 머리와 탁자 전체, 그리고 머리가 놓인 벽옥 받침대를 차례로 훑으며 지나갔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돈키호테 님, 이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이자 술사 중 한 명이 만든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폴란드 사람인 듯하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전해지는 그 유명한 에스코티요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저희 집에 머물렀는데, 제가 천 에스쿠도를 주고 이 머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 머리는 귀에 대고 무엇을 묻든 대답하는 신비한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지요. 그는 방위를 살피고, 글자를 새기며,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점성의 위치를 헤아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이 머리를 완성해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입을 닫고 침묵하기 때문에, 마침 오늘이 금요일이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당신께서

는 무엇을 물어볼지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 이 머리가 대답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더군요."

돈키호테는 머리의 신비한 능력과 특징에 몹시 놀라워하며, 돈 안토니오의 말을 믿지 못할 뻔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는, 이토록 거대한 비밀을 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아꼈다. 두 사람은 방을 나와 돈 안토니오가 문을 잠갔고, 다른 기사들이 모여 있는 거실로 향했다. 그사이 산초는 주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모험과 사건들을 사람들에게 신나게 늘어놓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산책시키기로 했다. 다만 무장을 시키는 대신, 그 당시라면 얼음조차 땀을 흘리게 할 만큼 두툼한 갈색 모직 외투를 입혀 차림새를 갖추게 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는 산초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잘 달래서 붙들어 두라고 일렀다. 돈키호테는 로시난테가 아니라, 걸음걸이가 아주 안정적이고 겉모양도 잘 꾸며진 커다란 노새를 타고 나섰다. 사람들은 돈키호테에게 외투를 입힌 뒤,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등 뒤에 양피지 하나를 꿰매 붙였다. 그 양피지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분은 라만차의 돈키호테다.' 산책이 시작되자마자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 문구로 향했다. 사람들이 '이분은 라만차의 돈키호테다'라는 글을 읽자, 돈키호테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저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며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도 몹시 놀라워했다. 그는 곁에서 함께 걷던 돈 안토니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편력 기사라는 직업에는 참으로 위대한 특권이 깃들어 있군요. 이 길을 걷는 자라면 세상 어디에서든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을 떨치게 해 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 안토니오 님, 저를 좀 보십시오. 이 도시의 어린아이들조차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제 이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말고요, 돈키호테 님." 돈 안토니오가 대답했다. "불길을 아무리 숨기고 가두려 해도 그 빛을 감출 수 없듯이, 덕망 또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특히 무예를 닦아 얻은 명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며 세상에 널리 떨쳐지기 마련이지요."

그리하여 돈키호테가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아가고 있을 때였다. 뒤편에 붙은 문구를 읽은 한 카스티야 사람이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다.

"세상에, 돈키호테 데 라 만차라니!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가? 그동안 그 수많은 매를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단 말인가? 자네는 미친 사람이네. 만약 혼자서 미친 채로 자기 집 안에서만 그러고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라도 되겠지. 하지만 자네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죄다 미치광이로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재주가 있군. 여기 자네와 함께 있는 이분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이 어리석은 자여, 당장 집으로 돌아가게! 가서 자네 재산이나 돌보고, 처자식이나 챙기란 말일세. 뇌를 갉아먹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헛된 망상은 이제 그만두게나."

"형제여," 돈 안토니오가 말했다. "가던 길이나 계속 가시지요. 부탁하지도 않은 충고를 늘어놓지는 마시고요. 돈키호테 데 라 만차 님은

아주 제정신인 분이시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저희도 바보가 아닙니다. 미덕은 어디서든 존중받아야 하는 법인데, 당신은 참 운도 없군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세상에, 말씀이 옳습니다." 카스티야 사람이 대답했다. "이 선량한 분께 충고를 하는 건 차라리 채찍에 발길질을 하는 격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가 모든 일에 뛰어난 재주를 가졌다고들 하는데, 그 재능이 고작 떠돌이 기사 놀음에 다 낭비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비록 므두셀라보다 오래 산다 해도, 오늘 이후로 누군가 제게 충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더라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제가 충고를 한다면, 방금 당신이 내뱉은 그 불운한 저주가 저와 제 모든 후손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충고하던 이는 자리를 떴고, 산책 행렬도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아이들과 구경꾼들이 그 양피지 문구를 읽으려고 어찌나 몰려들던지, 돈 안토니오는 마치 다른 것을 떼어내는 척하며 그 양피지를 떼어내야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돈 안토니오의 아내는 품위 있고 유쾌한 데다 아름답고 사려 깊은 귀부인이었는데, 그녀가 친구들을 초대해 손님을 대접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광경을 함께 즐기자고 권하면서 부인들의 잔치가 벌어졌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성대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고, 밤 10시가 다 되어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부인들 중에는 장난기 가득하고 남을 놀리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둘 있었는데, 이들은 매우 정숙한 사람들이었으나 농담이 기분을 상

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흥을 돋울 수 있도록 행실이 다소 거리낌 없고 자유분방했다. 이들은 돈키호테를 춤판으로 끌어내려고 어찌나 서두르던지, 돈키호테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탈탈 털릴 지경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데다 얼굴색은 누렇고, 옷은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하며, 무엇보다도 춤사위가 전혀 경쾌하지 않은 돈키호테의 모습은 참으로 볼만했다. 아가씨들은 슬그머니 그에게 구애의 말을 건넸고, 돈키호테 역시 슬그머니 그들을 외면했다. 하지만 아가씨들의 구애가 점점 거세지자, 그는 결국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물러가라, 불청객들아! 무례한 생각들아, 나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어라! 부인들, 당신들의 욕망은 당신들끼리나 나누시오. 내 마음의 여왕이신, 비길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께서 당신들의 욕망 따위가 나를 굴복시키고 굴레 씌우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니 말이오."

그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춤판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로, 방 한가운데 바닥에 주저앉았다. 돈 안토니오는 그를 침상까지 정중히 모시도록 사람을 시켰는데, 돈키호테를 가장 먼저 붙들어 일으킨 사람은 산초 판사였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아이고, 주인님! 대체 춤을 어떻게 추신 겁니까! 용맹한 자라면 누구나 춤꾼이고, 기사라면 예외 없이 무도회장의 무용수라도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어떤 사내는 거인을 베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가벼운 춤사위 한 번 추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법이니까요. 만약 발을 구르는 춤이라도 추셔야 했다면

제가 대신 해드렸을 겁니다. 제가 발놀림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거든요. 하지만 정식 춤사위만큼은 저도 영 소질이 없습니다."

산초 판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너스레를 떨자 연회에 모인 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산초는 주인님을 침상에 눕히고는, 춤을 추느라 몸에 밴 한기가 땀과 함께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불을 정성껏 덮어 드렸다.

다음 날, 돈 안토니오는 마법의 머리를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리고 다른 친구 두 명을 불렀다. 여기에 돈키호테를 춤판에서 아주 녹초로 만들었던 두 여인도 함께했는데, 이들은 그날 밤 돈 안토니오의 부인 곁에 묵었던 이들이었다. 돈 안토니오는 이들을 데리고 머리가 놓인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머리가 가진 신비한 능력을 설명해 준 뒤, 이 일을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오늘이 바로 그 마법의 머리가 가진 힘을 처음으로 시험해 보는 날이라고 일러주었다. 만약 돈 안토니오의 친구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마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설령 돈 안토니오가 친구들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더라도,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경악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머리가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법의 머리 귓가에 가장 먼저 다가간 이는 돈 안토니오 본인이었다. 그는 아주 낮게 속삭였으나, 그 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지는 않았다.

"머리야, 네 안에 깃든 신비한 힘을 빌려 내게 말해다오. 지금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 있느냐?"라고 돈 안토니오가 물었다.

머리는 입술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명확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는데, 그 소리는 좌중에 있던 모든 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네."라고 머리가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방 안은 물론이고 식탁 주변을 둘러보아도 대답할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더욱 경악했다.

"우리는 여기 모두 몇 명이나 있는가?"라고 돈 안토니오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앞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당신과 당신 부인, 그리고 당신 친구 두 명과 그쪽 친구 두 명, 그리고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불리는 유명한 기사 한 명, 마지막으로 산초 판사라는 이름의 종자 한 명이 있소."

이때는 정말이지 모두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공포로 쭈뼛 설 정도였다! 돈 안토니오는 머리에서 몸을 떼며 말했다.

"지혜롭고, 말솜씨 좋고, 대답도 잘하며, 참으로 경이로운 머리여! 그대 덕분에 나를 속여 판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소. 자,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무엇이든 물어보게나!"

보통 여자들이란 성미가 급하고 무언가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이라,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돈 안토니오의 부인과 친한 두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머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머리여, 말해 보아라. 내가 아주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자 머리가 대답했다.

"아주 정직해지거라."

"더는 묻지 않으마." 질문을 던지던 여인이 말했다.

곧이어 그 동료가 다가와 말했다.

"머리여, 내 남편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구나."

그들이 대답했다.

"그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이오."

그 유부녀는 이렇게 말하며 따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대답은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소. 실제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법이니까 말이오."

이어서 돈 안토니오의 친구 두 사람 중 한 명이 다가와 그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건 당신이 이미 알고 있지 않소."

"그걸 묻는 게 아니오." 기사가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알아보는지 묻는 것이오."

"알고 말고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이 돈 페드로 노리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는 묻지 않겠소. 이 정도면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충분하니까 말이오, 오, 머리여!"

그러고는 그가 물러나자 다른 친구가 다가와 머리에게 물었다.

"말해 보게, 머리여. 내 장자(長子)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대답했다. "저는 그 무엇도 갈망하는지 아닌지 판단할 처지가 못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는 확실

히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당신의 아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당신을 땅에 묻는 일뿐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맞네." 기사가 말했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니, 손가락으로 가리켜 분명히 보여줄 수도 있다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때 돈 안토니오의 부인이 다가와 말했다.

"머리님, 당신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저 제가 좋은 남편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것 하나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남편분의 건강과 절제된 생활 습관을 보니 장수하실 것 같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 때문에 수명을 단축하곤 하는데, 그분은 다르니까요."

곧이어 돈키호테가 다가와 말했다.

"대답해 보시오, 질문에 답하는 이여. 내가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겪었다고 말한 일들이 사실이었소, 아니면 꿈이었소? 내 종자인 산초가 나를 때린 것도 사실이었단 말이오? 그리고 둘시네아의 마법이 풀리는 일도 정말로 일어나겠소?"

"동굴에 대해서라면," 청동 머리가 대답했다. "할 말이 아주 많소. 그 모든 일이 다 사실이라오. 산초가 휘두른 매질은 차츰 차츰 일어날 것이고, 둘시네아의 마법이 풀리는 일 또한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오."

"더는 알고 싶지 않소." 돈키호테가 말했다. "둘시네아의 마법이 풀리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내가 바라는 모든 행운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라 믿겠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 이는 산초였는데, 그가 물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저기, 머리님. 혹시 저도 다시 통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종자라는 좁은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그대는 집안을 다스리게 될 것이오. 만약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되겠지. 그리고 종자 노릇을 그만두면, 종자 신분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오."

"아이고, 세상에나!" 산초 판사가 말했다. "이런 말은 나 스스로에게나 하면 됐지, 예언자 페로그루요가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짐승 같은 놈아," 돈키호테가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대답하라는 말이냐? 이 머리가 내놓은 답변들이 질문에 딱 들어맞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냐?"

"충분하고말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저 머리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 제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질문과 답변은 끝이 났지만,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돈 안토니오의 두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탄은 멈추지 않았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봐 이 일을 곧바로 밝히고자 한다. 사람들은 저 머리 안에 어떤 마법사나 기이한 신비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베넹헬리의 말에 따르면,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마드리드에서 본 어떤 머리를 흉내 내어 직접 집에서 이 물건을 만들었다고 한다. 인쇄업자가 만든 머리를 본 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무지한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고 만든 것이다.

그 구조는 이러했다. 탁자 상판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마치 벽옥처럼 색을 입히고 칠을 했다. 탁자를 받치는 다리 역시 같은 재질이었으며, 무게를 견디고 더 튼튼하게 고정하려고 네 개의 독수리 발 모양을 달아 놓았다. 로마 황제의 흉상이나 메달처럼 생긴 청동색 머리는 속이 텅 비어 있었다. 탁자 상판도 머리와 크기가 딱 맞아떨어져서, 머리를 끼워 넣으면 이음새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 탁자 다리 역시 속이 비어 있었는데, 이 공간은 머리의 목과 가슴 부분과 연결되었고, 다시 머리 아래에 있는 별도의 방으로 이어졌다. 이 메달 모양 머

리와 흉상의 목, 가슴, 탁자, 다리의 빈 공간을 모두 관통하는 얇은 양철 관이 있었는데, 아주 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위층 방과 연결된 아래층 방에는 답변자가 자리를 잡고 입을 그 관에 밀착시켰다. 그러면 마치 대나무 피리처럼 목소리가 위아래로 오가며, 아주 또렷하고 명확한 말로 전달되었다. 이런 방식 덕분에 속임수를 알아채는 것은 불가능했다.

답변을 맡은 사람은 영리하고 신중한 학생인 돈 안토니오의 조카였다. 그는 삼촌으로부터 그날 머리 방에 누가 들어올지 미리 전해 들었기에, 첫 번째 질문에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그다음 질문부터는 추측을 통해 대답했는데,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했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야기를 더 이어간다. 이 놀라운 장치는 열흘에서 열이틀 정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돈 안토니오의 집에 질문하는 대로 대답하는 마법의 머리가 있다는 소문이 도시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깨어 있는 감시자들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진 돈 안토니오는 종교재판관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 재판관들은 무지한 민중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 일을 더 이상 키우지 말고 당장 없애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그 머리가 정말로 마법에 걸린 데다 대답까지 잘하는 머리라고 믿었다. 산초보다는 돈키호테가 훨씬 더 만족스러워했다.

도시의 기사들은 돈 안토니오를 기쁘게 해주고 돈키호테를 대접하려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가 헛소리를 늘어놓을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엿새 뒤에 이곳에서 고리 맞히기 시합(correr sortija)을 열기로 결정

했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시합은 결국 열리지 않았다. 돈키호테는 말을 타고 나갔다가는 아이들에게 쫓길까 봐 걱정되어, 평지를 걸어서 도시를 구경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돈키호테와 산초는 돈 안토니오가 붙여준 다른 하인 두 명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그리하여 길을 가던 중, 돈키호테가 눈을 들어 보니 어느 집 문 위에 아주 커다란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은 책을 찍어내는 곳입니다.' 돈키호테는 이 광경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그때까지 인쇄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데다, 인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을 모두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인쇄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교정 작업을 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조판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오탈자를 바로잡는 모습, 즉 큰 인쇄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모든 공정을 지켜보았다. 돈키호테는 작업대 하나하나에 다가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 중인지 물었고, 일꾼들이 설명해 주면 신기해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다 또 다른 작업대에 이르러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일꾼이 대답했다.

"손님, 여기 계신 이 신사분 말입니다." 일꾼은 체격이 아주 좋고 풍채가 위엄 있으며 태도가 진중해 보이는 한 남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분이 토스카나 언어로 된 책을 우리 카스티야어로 번역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쇄할 수 있도록 교정 작업을 해드리는 중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러자 저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그 책은 토스카나 말로 '레 바가텔레(Le bagatele)'라고 합니다."

"그럼 그 '레 바가텔레'라는 책은 우리 카스티야어로는 뭐라고 답하던가요?" 돈키호테가 물었다.

"'레 바가텔레'라니요." 저자가 말했다. "우리 카스티야어로 치면 '장난감들'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비록 책 이름은 이토록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아주 훌륭하고 알찬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는 토스카나어를 조금 할 줄 압니다. 아리오스토의 시 구절을 몇 대목 노래할 수 있을 정도지요. 그런데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선생님의 재간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순전히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만, 혹시 쓰신 글 중에 '피냐타(piñata)'라는 단어가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네,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카스티야어로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돈키호테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저자가 대답했다. "그저 '올라(olla, 냄비 요리)'라고 말하는 수밖에요."

"세상에나!"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토스카나어에 어찌 그리 능통하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주인님께서 토스카나어로 '피아케(piache)'라고 하시는 곳은 카스티야어로 '플라세(place)'라고 하는 곳이고, '피우(più)'라고 하시는 곳은 '마스(más)'라고 하는 곳일 것입니다. 또한 '수(su)'라고 하시는 곳은 '아리바(arriba)'라 하시고, '쥬(giù)'라고 하시는 곳은 '아바호(abajo)'라고 하실 게 분명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단어들은 서로 딱 들어맞는 짝이니까요."

"제가 감히 맹세하건대,"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세상이란 늘 뛰어난 재능을 치하하거나 훌륭한 노고를 기리는 데 인색한 법이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능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재가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덕이 멸시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 사이에서 번역을 하는 일은, 마치 플랑드르식 태피스트리를 뒷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뒷면에서도 문양은 보이지만, 실들이 엉켜 있어 앞면처럼 매끄럽고 선명한 빛깔은 볼 수 없으니까요. 또한 쉬운 언어를 번역하는 것은 재치나 문장력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는 종이를 다른 종이에 옮겨 적거나 베껴 쓰는 사람이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이라는 작업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보다 훨씬 못하고 이득도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니까요. 다만 저 유명한 두 번역가는 예외로 두어야겠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토발 데 피게로아 박

사로 『충직한 목자(파스토르 피도)』를 옮겼고, 다른 한 사람은 돈 후안 데 하우리기로 『아민타』를 옮겼는데, 두 사람의 번역은 어느 쪽이 번역본이고 어느 쪽이 원작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훌륭합니다. 그런데 주인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책은 직접 출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어떤 서점에 출판권을 파셨습니까?"

"제가 직접 출판합니다." 저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첫 인쇄본으로 적어도 천 두카도를 벌 생각입니다. 이천 권을 찍어낼 계획인데, 한 권당 여섯 레알씩 눈 깜짝할 사이에 팔아치울 작정이지요."

"계산이 아주 정확하시군요!"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인쇄업자들의 생리와 그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천 권이나 되는 책을 떠맡게 되면 그 무게에 눌려 몸이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그 책이 조금 까다롭고 재미가 없다면 더더욱 말이지요."

"자, 그럼 어쩌겠습니까?" 저자가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제가 서점 주인에게 책을 넘기고 특권료로 세 마라베디를 받는 것이, 마치 저에게 베푸는 은혜라도 되는 양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름을 떨치려고 책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 작품들로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이득이 없다면 명성이 아무리 높아도 네 쿠아트린의 가치도 없는 법이니까요."

"신께서 주인님의 앞길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음 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영혼의 빛〉이라는 제목의 책 원고를 교정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은 비록 시중에 아주 많다지만, 반드시 출판해야 마땅한 책들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이들이 워낙 많으니,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수많은 이들에게는 끝없는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앞으로 더 나아가 또 다른 책을 교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 물었고, 사람들은 그 책이 토르데시야스 출신의 어떤 이웃이 지은 〈라만차의 기발한 귀족 돈키호테 제2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미 그 책에 대해 소식을 들었소."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내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나는 그 책이 너무나 쓸데없는 내용이라 이미 불타 없어져 재가 되어버린 줄로만 알았소. 하지만 돼지에게도 제 때가 있듯, 그 책도 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오. 지어낸 이야기라 할지라도 진실이나 진실에 가까울수록 그만큼 재미있고 즐거운 법이며, 반대로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라면 사실에 가까울수록 더욱 훌륭한 법이니까 말이오."

이렇게 말한 돈키호테는 다소 분이 풀리지 않는 기색을 보이며 인쇄소를 나갔습니다. 그날 돈 안토니오는 돈키호테를 데리고 해변에 정박해 있는 갤리선을 구경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는데, 평생 갤리선을 본 적이 없던 산초 판사는 이 소식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돈 안토니오는 그날 오후에 유명한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손님으로 모시고 갤리선을 구

경시켜 주겠다고 갤리선 선장에게 미리 알려 두었습니다. 선장과 도시의 모든 이웃은 이미 돈키호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갤리선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제63장



제63장. 산초 판사가 갤리선을 방문했다가 겪게 된 불운과 아름다운 무어인 여인과 마주친 새로운 모험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마법에 걸린 머리가 대답한 내용에 대해 장황한 말을 늘어놓았다. 그 누구도 그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모두

가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돈키호테는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으며 혼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기뻐했다. 한편 산초는 앞서 말했듯 총독이 되는 것을 몹시 싫어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부리고 명령을 내리고 싶어 했다. 비록 조롱을 받는 자리일지라도, 이런 불운한 운명에는 권세가 따르는 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날 오후, 주인인 안토니오 모레노와 그의 친구 두 명은 돈키호테, 산초 판사와 함께 갤리선으로 향했다. 미리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갤리선의 선장은 그 유명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일행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갤리선이 돛을 내리고 피리 소리를 울려댔다. 이어 화려한 덮개와 진홍빛 벨벳 베개로 장식된 작은 배가 물 위로 내려졌다. 돈키호테가 그 배에 발을 내딛자마자 지휘선이 함포를 발사했고, 다른 갤리선들도 일제히 똑같이 응답했다. 돈키호테가 오른쪽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귀한 손님이 배에 오를 때 행하는 관례대로 선원 무리가 모두 "후, 후, 후!" 하고 세 번을 외치며 그를 환영했다. 발렌시아 출신의 고귀한 기사였던 선장—이후로는 그를 선장이라 부르겠다—이 돈키호테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그를 껴안고 이렇게 말했다.

"라만차의 돈키호테 경을 직접 뵙게 된 오늘을 내 생애 최고의 날 중 하나로 기억하며, 흰 돌로 이 날을 표시해 두겠소. 이 시간과 이 징표는, 편력 기사로서의 모든 용기가 바로 이분 안에 응축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오."

돈키호테는 자신을 이토록 귀하게 대접해 주는 모습에 몹시 기뻐하며, 그에 못지않게 정중한 말로 대답했다. 일행은 화려하게 꾸며진 선미로 들어갔고, 각자 난간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갑판장이 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며 호각을 불어 노잡이들에게 웃옷을 벗으라고 신호했고, 노잡이들은 순식간에 옷을 벗었다. 맨몸이 된 수많은 사람을 본 산초 판사는 넋이 나갔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찌나 급하게 돛을 내리는지, 산초의 눈에는 마치 악마들이 몰려와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말할 일에 비하면 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산초 판사가 오른쪽 끝자리 노잡이 옆의 기둥 위에 앉아 있을 때였다. 할 일을 미리 전달받은 그 노잡이가 산초를 붙잡더니, 그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자 선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경계 태세를 갖추더니, 오른쪽부터 시작해 산초를 팔에 끼고 이 노반에서 저 노반으로 정신없이 옮기며 돌려대기 시작했다. 워낙 속도가 빨라 불쌍한 산초 판사는 눈앞이 아찔할 지경이었다. 그는 분명 악마들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선원들은 산초를 왼쪽 끝까지 옮겨 선미에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를 놓아주었다. 산초 판사는 온몸이 짓눌린 듯 만신창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며 땀을 뻘뻘 흘렸다.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산초 판사가 날개도 없이 허공을 나는 듯한 모습을 본 돈키호테는 선장에게 물었다. 갤리선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행하는 의식이 바로 저런 것이냐고 말이다. 만약 저것이 의식이라면, 갤리선 노잡이가 될 마음이 전혀 없는 자신은 저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고는 만약 누군가 자신을 붙잡아 휘둘러대려 든다면 발길질로 그자의

영혼을 뽑아 놓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다. 말을 마친 돈키호테는 자리에서 일어나 칼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돛이 내려앉았고, 엄청난 소음과 함께 활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산초 판사는 하늘이 축에서 이탈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줄로만 알았다. 겁에 질린 산초 판사는 공포에 사로잡혀 머리를 푹 숙이고는 두 다리 사이에 파묻었다. 돈키호테라고 별수 있겠는가. 그 역시 몸을 떨며 어깨를 움츠렸고 얼굴색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선원들은 활대를 내릴 때와 똑같이 급하고 시끄럽게 다시 활대를 들어 올렸는데, 이 모든 과정을 마치 목소리도 숨결도 없는 사람들처럼 아무 말 없이 수행했다. 그러자 갑판장이 닻을 올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갑판장은 채찍을 들고 가운데 통로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선원들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배는 조금씩 바다로 나아갔다. 산초 판사는 붉은 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노라고 생각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마법에 걸린 광경이지,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 불쌍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매를 맞는 걸까요? 게다가 저기 혼자 휘파람을 불며 돌아다니는 남자는, 저 많은 사람을 매질할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 생각엔 여기가 지옥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연옥임이 분명해요."

돈키호테는 산초 판사가 눈앞의 광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아, 산초 친구여! 자네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상체를 드러내어 이 귀하신 분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겠나? 그러면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고행을 단번에 끝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야! 저 수많은 사람이 겪는 비참함과 고통을 생각하면, 자네가 겪을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걸세. 게다가 저 매질이 워낙 정성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자 멀린이 저 매 한 대를 자네가 나중에 스스로에게 가할 매 열 대와 맞먹는 가치로 쳐줄지도 모를 일 아닌가!"

선장이 저 매질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혹은 둘시네아의 어떤 마법을 푸는 과정인지 물으려던 참에, 한 선원이 이렇게 말했다.

"몬후이가 신호를 보냅니다! 서쪽 해안가에 노를 젓는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선장은 갤리선 한가운데의 통로(크루히아)로 뛰어올라 말했다.

"자, 얘들아, 놓치지 마라! 저 망루에서 가리키는 건 분명 알제리 해적들의 작은 배 중 하나일 것이다!"

나머지 세 척의 갤리선도 무슨 명령을 내릴지 알아보려고 곧장 선장선으로 다가왔다. 선장은 나머지 두 척에는 바다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자신은 다른 한 척과 함께 해안을 따라 이동하겠다고 했다. 그래야 배를 놓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선원들은 노를 힘껏 저어 갤리선을 몰아붙였고, 배는 마치 날아가는 듯한 기세로 나아갔다. 바다로 나간 배들은 2마일쯤 떨어진 곳에서 배 한 척을 발견했다. 눈으로 훑어보

니 노를 젓는 자리가 14~15줄 정도 되어 보였는데, 실제로도 그러했다. 그 배는 갤리선들을 발견하자마자, 배가 가벼운 점을 믿고 달아날 생각으로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이 나빴다. 선장선은 바다를 누비는 배들 중에서도 손꼽히게 빠른 배였던 것이다. 선장선이 점점 거리를 좁혀오자, 작은 배의 선원들은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노를 놓고 항복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갤리선을 지휘하는 선장의 화를 돋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장선이 항복하라는 외침이 들릴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작은 배에 열두 명과 함께 타고 있던 술 취한 터키인 두 명이 산탄총 두 자루를 발사했다. 그 총탄에 우리 배의 뱃머리 쪽 통로에 있던 병사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광경을 본 선장은 배에 탄 자들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선장은 온 힘을 다해 배를 들이받으려 했으나, 상대 배가 선장선의 노 밑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는 바람에 실패했다. 갤리선은 한참을 더 앞으로 나아갔다. 상대 배의 선원들은 이제 끝장났다는 것을 직감하고, 갤리선이 되돌아오는 동안 돛을 올려 도망치려 했다. 그들은 다시 돛을 올리고 노까지 저으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의 서두름은 오히려 독이 되었고, 무모한 행동은 화를 불렀다. 선장선이 0.5마일 남짓한 거리까지 따라붙어 노로 상대를 덮쳐 그들을 모두 산 채로 사로잡았다.

이때 나머지 갤리선 두 척이 도착했다. 네 척의 배는 모두 포로를 태운 채 해안으로 돌아갔다. 해안에는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장은 해안 근처에서 닻을 내렸다. 그는 그곳에 도시의 부왕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장은 부왕을 모셔 오기 위해 작은 배를 띄우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작은 배에서 생포한 아라에스(arráez)와 나머지 터키인들을 곧장 교수형에 처할 수 있도록 활대를 내리게 했다. 포로는 모두 서른여섯 명에 달했는데, 다들 기백이 넘쳤고 그중 대부분은 산탄총을 다루는 터키인들이었다. 선장이 작은 배의 아라에스가 누구인지 묻자, 포로 중 한 명이 스페인어로 대답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스페인 출신의 배교자였다.

"나리, 여기 보이는 이 젊은이가 우리 배의 아라에스입니다."

그러자 포로 중 한 명이 그 젊은이를 가리켰는데, 인간의 상상력으로 그려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기백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나이는 보아하니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아 보였다. 선장이 그에게 물었다.

"말해 보아라, 이 어리석은 개 같은 놈아! 도망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어찌하여 내 병사들을 죽였느냐? 이것이 기함(旗艦)을 대하는 예의란 말이냐?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희망이 불확실할 때 인간은 대담해질 수는 있어도, 무모하게 굴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 청년은 대답하려 했으나, 그때 선장은 대답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 이미 갤리선에 들어서고 있는 부왕을 맞이하러 가야 했기 때문이다. 부왕의 뒤를 따라 몇몇 하인과 마을 사람들도 함께 배 안으로 들어섰다.

"사냥이 아주 훌륭했나 봅니다, 선장님!" 부왕이 말했다.

"그렇고말고요." 선장이 대답했다. "이제 저 활대에 매달려 있는 광경을 보시면, 사냥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왕이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장이 대답했다. "모든 법과 이성, 그리고 전쟁의 관습을 무시한 채, 이 갤리선에 타고 있던 병사 중 가장 뛰어난 자 두 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로잡은 자들을 모조리 교수형에 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특히 저기 저 녀석, 작은 배의 선장(아라에스)인 저 애송이는 반드시 죽일 작정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이미 손이 묶이고 목에 밧줄이 감긴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소년을 가리켜 보여주었다.

부왕은 그 소년을 바라보았다. 소년이 워낙 수려하고 늠름한 데다 태도까지 겸손하니, 그 모습만으로도 죽음을 면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 정도였다. 부왕은 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말해 보아라, 이 녀석아. 너는 터키인이냐, 아니면 무어인이냐, 그것도 아니면 배교자냐?"

그러자 소년도 똑같이 카스티야말로 대답했다.

"터키인도 아니고, 무어인도 아니며, 배교자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대체 무엇이냐?" 부왕이 되물었다.

"그리스도교 여인입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여인이자 그리스도교인이라고? 그런데 옷차림은 그 모양이고 처지는 또 그 지경이란 말이냐? 믿기보다는 차라리 경탄할 노릇이로구나."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청년이 말했다. "오, 신사 여러분! 제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제가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의 복수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듣고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심장이 돌덩이처럼 굳은 사람이 대체 누구겠는가? 아니, 적어도 이 가엾고 상처 입은 청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을 때까지만이라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선장은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허락하면서도,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기대하지는 말라고 덧붙였다. 그 허락을 받은 청년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혜롭기보다는 불운한 민족의 사람입니다. 요 며칠 사이 불행이 바다처럼 쏟아진 민족 말이에요. 저는 모리스코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두 숙부에게 끌려 베르베리아로 오게 되었지요. 제가 사실은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말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참되고 가톨릭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이 비참한 유배지로 몰아넣은 관리들은 제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고, 숙부들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태어난 땅에 남고 싶어서 지어낸

거짓말이라 치부했지요. 결국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리스도교인이셨고, 아버지 또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교인이셨습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앙을 젖을 먹으며 배웠고, 좋은 예절 속에서 자랐습니다. 말씨나 행동에서 모리스코라는 기색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미덕과 더불어, 만약 저에게 미모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미모 또한 함께 자라났지요. 비록 제가 무척 조신하게 집 안에만 머물렀다 해도,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오라는 젊은 기사가 저를 볼 기회가 있을 정도는 되었나 봅니다. 그는 우리 마을 근처에 영지를 가진 기사의 장남이었지요. 그가 저를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가 저에게 얼마나 푹 빠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에게는 그다지 마음을 주지 않았는지는 말하자면 너무 깁니다. 게다가 지금은 제 목구멍에 저 무시무시한 밧줄이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이라 더 길게 말할 여유도 없군요. 그러니 그저 그레고리오 씨가 우리 유배지에 어떻게 동행하게 되었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온 모리스코들과 어울려 지냈는데, 언어에 능숙했기 때문입니다. 여행 중에 저를 데려오던 두 숙부와도 친구가 되었지요. 제 아버지는 매우 신중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분이셨습니다. 유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 우리를 받아줄 외국 영토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저 혼자만 아는 곳에 아주 귀한 진주와 보석들, 그리고 크루사도 금화와 두블론 금화를 한데 묶어 땅속에 묻어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유배를 가게 되면, 그 보물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요. 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숙부들과 다른 친척, 일가친척들과 함께 베르베리아로 왔고, 우리가 정착한 곳은 마치 지옥과도 같은 알제였습니다.

알제 국왕은 제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더불어 제 재산에 대한 소문까지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제게 다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국왕은 저를 불러 스페인 어디 출신인지, 어떤 돈과 보석을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향을 말하고, 보석과 돈은 그곳에 묻혀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가져오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국왕의 눈이 제 미모가 아니라 탐욕에 멀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국왕은 제 곁에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청년이 함께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그 말이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오를 두고 하는 말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저는 그레고리오 씨가 처한 위험을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런 야만적인 터키인들 사이에서는 여자보다 잘생긴 청년이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왕은 즉시 그 청년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고는, 그 청년에 대해 사람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마치 하늘이 예비해 준 것처럼, 네,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그가 남자가 아니라 저와 같은 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래의 옷을 입고 나타나야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고, 국왕 폐하 앞에서도 덜 당황할 수 있으니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국왕은 그러라고 허락하며, 제가 스페인으로 돌아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올 방법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돈 가스파르에게 그가 남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겪게 될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인 옷을 입혔지요. 그날 오후, 그를 데리고 국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국왕은 그를 보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했고, 그를 잘 보살펴서 위대한 주군께 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레고리오 씨는 여인들의 하렘에 갇혀 위험을 겪거나, 혹은 국왕 자신이 그에게 마음을 뺏길까 두려워진 국왕이, 그를 지키고 시중들 수 있도록 권세 있는 무어 여인들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제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는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는 분들이라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후 국왕은 제가 이 작은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호위할 터키인 두 명을 붙여주었는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군사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출신 변절자도 함께 왔습니다(먼저 말했던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겉으로는 변절자이나 속으로는 그리스도교인이며, 베르베리아로 돌아가는 것보다 스페인에 남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배에 탄 나머지 무리는 노를 젓는 데 쓰이는 모로인과 터키인들뿐입니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두 터키인은, 저와 이 변절자를 그리스도교인 차림으로 스페인 해안에 먼저 내려주기로 했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만약 우리를 먼저 내려주었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들키게 되고, 혹시 해안에 갤리선이 나타나

배를 탈취할까 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해안을 훑으며 전리품을 챙기려 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이 해안을 발견했지만, 이 네 척의 갤리선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들통이 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돈 그레고리오는 여인들 사이에 여인 차림으로 갇혀 목숨이 위태로운 처지이고, 저는 손을 쓸 방도가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제는 삶이 너무나 지치니까요.

신사 여러분, 이것이 제 비참하고도 진실한 이야기의 끝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죽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의 눈에서는 애처로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그녀의 슬픔에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부왕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가가, 그 무어 처녀의 아름다운 두 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손수 풀어주었습니다.

그 모리스코 그리스도교인이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늘어놓는 동안, 부왕이 들어올 때 갤리선에 올라탄 한 노인 나그네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스코 여인이 이야기를 마치기가 무섭게, 노인은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흐느낌과 한숨을 섞어가며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나 펠릭스, 불행한 내 딸아! 내가 바로 네 아버지 리코테다. 내 영혼인 너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너를 다시 찾으러 온 것이란다!"

그 말에 산초 판사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초는 방금 겪은 고생이 너무나 기가 막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을 살펴보니, 자신이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던 날 마주쳤던 바로 그 리코테였습니다. 산초는 저 여인이 리코테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딸은 묶였던 결박을 풀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물 속에 눈물을 섞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리코테가 함대 사령관과 부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이름보다 처지가 훨씬 더 불행한 아이이지요. 이름은 아나 펠릭스라고 합니다만, 리코테라는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모로도 유명하고 제 재산으로도 이름이 높지요. 저는 우리 가족을 거두어줄 사람을 찾아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다 독일에서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났고, 다른 독일인들과 함께 순례자 차림을 하고 돌아와 딸을 찾고 제가 숨겨둔 막대한 재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찾지 못하고 대신 지금 제가 가져온 보물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이 기이한 소동을 겪으며, 저는 저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줄 진짜 보물, 즉 사랑하는 제 딸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허물과 딸아이의 눈물, 그리고 저의 눈물을 보아주시어 여러분의 정의로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결코 여러분께 해를 끼칠 마음이 없었으며, 정당하게 추방당한 저희 동포들의 뜻에 동조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산초가 말했습니다.

"리코테는 저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나 펠릭스가 제 딸이라는 말도 사실일 테고요. 그저 왔다 갔다 하며 좋은 뜻으로 그러는지 나쁜 뜻으로 그러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일에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산초가 말했습니다.

그 기이한 광경에 모두가 놀라워하자, 함대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때문에 제가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것 같군요. 아름다운 아나 펠릭스여, 하늘이 정해준 수명만큼 오래도록 건강히 사십시오. 그리고 죄를 저지른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이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장은 자신의 병사 두 명을 죽인 터키인 두 명을 활대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부왕이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용맹함이라기보다 광기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부왕의 청을 받아들여 처형을 미루었습니다. 피가 차갑게 식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복수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 돈 가스파르 그레고리오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낼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리코테는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진 진주와 보석을 다 합쳐 2,000두카도 넘게 내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오갔지만, 앞서 언급한 배교한 스페인인이 내놓은 방법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노를 젓는 그리스도인들을 태운, 노가 여섯 개뿐인 작은 배를 타고 알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는 어

디서, 어떻게, 언제 상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돈 가스파르가 머무는 집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부왕은 이 배교자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노를 저을 그리스도인들을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나 펠릭스는 그를 믿기로 했고, 그녀의 아버지 리코테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몸값을 치르러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자 부왕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안토니오 모레노는 무어인 여인과 그녀의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부왕은 안토니오 모레노에게 그들에게 가능한 한 정성껏 대접하고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며, 자기 집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이든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나 펠릭스의 아름다움이 부왕의 마음속에 이토록 깊은 자애와 친절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제64장



제64장. 돈키호테가 지금까지 겪은 일 중 가장 큰 근심을 안겨준 모험에 대하여

이야기에 따르면, 돈 안토니오 모레노의 아내는 아나 펠릭스를 자기 집에 맞이하게 되어 더없이 큰 기쁨을 느꼈다. 아내는 아나 펠릭스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녀의 미모뿐만 아니라 영리함에도 푹 빠졌기 때문이다. 이 무어인 여인은 미모와 지혜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인물이었기에, 도시 사람들은 마치 종소리가 울리면 구름처럼 몰려들 듯 너도나도 그녀를 보러 왔다.

돈키호테는 돈 안토니오에게, 돈 그레고리오를 구출하는 일에 관해 내린 결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 방안은 이득보다 위험이 더 컸기 때문이다. 차라리 자신에게 무기와 말을 내어주어 베르베리아로 보내는 편이 낫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돈 가이페로스가 아내 멜리센드라를 구출해냈던 것처럼, 자신 또한 그 어떤 무어인들의 저항도 뚫고 그를 구해내겠다고 장담했다.

"주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산초가 그 말을 듣고 대답했다. "돈 가이페로스 경은 부인을 육지에서 구출해서 육지를 통해 프랑스로 데려갔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우리가 그레고리오를 구출한다 해도, 중간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스페인으로 데려올 길이 없단 말입니다."

"죽는 문제만 아니라면 무엇이든 해결할 방법이 있는 법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로막는다 해도 우리는 그 배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

"주인님 말씀대로라면 참 쉬울 것 같지만," 산초가 말했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아주 어려운 법입니다. 저는 그 배교자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아주 선량하고 마음씨도 아주 고운 사람 같거든요."

돈 안토니오는 만약 그 배교자가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위대한 돈키호테를 베르베리아로 보내는 방도를 직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배교자는 한쪽 면에 노가 여섯 개 달린 가벼운 배를 타고 아주 용맹한 무리를 거느린 채 떠났다. 그리고 다시 이틀이 지나자 갤리선들은 동쪽을 향해 출항했다. 선장은 부왕에게 돈 그레고리오의 석방 상황과 아나 펠릭스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부왕은 요청받은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아침, 돈키호테는 모든 무장을 갖춘 채 해변을 산책하러 나섰다. 그는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듯, 무기는 자신의 몸과 같고 싸움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라 믿었기에 무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견딜 수 없었다. 그렇게 걷던 중,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기사 한 명을 발견했다. 그 기사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무장하고 있었는데, 방패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달이 그려져 있었다. 기사는 목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다가오더니, 돈키호테를 향해 큰 소리로 말을 건넸다.

"라만차의 돈키호테여, 이름 높은 기사이시나 정당한 찬사를 받지 못하신 분이여! 나는 하얀 달의 기사라고 하오. 아마 그대는 나의 전무후무한 업적들을 듣고 나를 기억해 냈을지도 모르겠군. 나는 그대와 겨루어 그대의 힘을 시험하러 왔소. 나의 여인이 누구든 간에, 그대의 엘토보소의 둘시네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대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오. 만약 그대가 이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다면, 그대는 죽음을 면할 것이고 나 또한 그대를 죽이기 위해 애쓰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그대가 싸움을 택하여 내가 승리한다면, 나는 다른 보상은 바라지 않겠소. 다만 무기를 내려놓고 모험을 찾아다니는 일도 그만둔 채, 일 년 동안은 그대의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기를 원하오. 그곳에서 칼을 잡지 말고 평온하고 유익

한 안식 속에서 조용히 지내시오. 그것이 그대의 재산을 늘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오. 만약 그대가 나를 이긴다면, 내 목숨은 그대의 처분에 맡기겠소. 내 무기와 말은 모두 그대의 전리품이 될 것이며, 나의 업적에 대한 명성 또한 그대의 것이 될 것이오.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잘 생각해서 즉시 대답하시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왔으니 말이오."

돈키호테는 하얀 달의 기사가 보여준 오만함과 그가 결투를 신청한 이유에 모두 깜짝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고는 침착하게, 엄숙한 태도를 갖추어 대답했다.

"하얀 달의 기사여, 그대의 업적은 아직 내 귀에 들린 바 없으나, 그대가 고귀한 둘시네아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내가 감히 맹세할 수 있소. 만약 그대가 그녀를 보았다면, 결코 이런 결투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녀를 직접 보는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환상에서 깨어났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러니 그대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하지 않겠소. 다만 그 제안이 틀렸을 뿐이지. 그대가 말한 조건대로 결투를 받아들이겠소. 그대가 오늘 중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으니 지체하지 않겠소. 다만 그대의 업적에 대한 명성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조건만은 뺄 것이오. 그 업적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니 말이오. 나는 내 업적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오. 자, 원하는 곳을 골라 결투를 시작합시다. 나도 똑같이 하겠소.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의 것이며, 성 베드로께서 그 승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오."

도시 쪽에서 하얀 달의 기사를 멀리서 발견하고는, 돈키호테와 대화 중이던 부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부왕은 이것이 돈 안토니오 모레노나 도시의 다른 기사가 꾸며낸 새로운 소동일 것이라 생각했다. 부왕은 돈 안토니오 모레노, 그리고 그를 수행하던 수많은 기사와 함께 곧장 해변으로 나갔다. 마침 돈키호테는 결투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고 로시난테의 고삐를 돌리던 참이었다.

두 기사가 다시 만나기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본 부왕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어찌하여 이토록 갑작스럽게 결투를 벌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하얀 달의 기사는 아름다움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양측이 합의한 결투 조건과 함께, 돈키호테에게 했던 말을 짧게 요약하여 부왕에게 전했다. 부왕은 돈 안토니오 모레노에게 다가가 저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혹시 돈키호테를 골탕 먹이려는 장난이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그 기사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저 결투가 장난인지 진심인지도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 대답을 들은 부왕은 결투를 허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졌다. 하지만 이것이 장난이 아닐 리 없다고 생각한 부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리를 물러났다.

"기사님들, 여기서는 자백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인 것 같소. 돈키호테 님은 이미 자기 뜻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하얀 달의 기사님 또한 한 치도 물러설 기색이 없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서 결투를 시작하시오."

하얀 달의 기사는 결투를 허락해 준 부왕에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고, 돈키호테 또한 마찬가지였다. 돈키호테는 결투를 시작할 때마다 늘 하던 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늘에 의지하고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생각하며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는 상대방도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말을 몰아 조금 더 들판 쪽으로 나아갔다. 두 기사 모두 돌격 신호를 알릴 나팔이나 다른 군악기를 울리지 않은 채, 말의 고삐를 당겨 동시에 한 지점을 향해 달려 나갔다. 하얀 달의 기사의 말이 더 빨랐기에, 돈키호테가 달리기 거리의 3분의 2쯤 나아갔을 때 이미 그에게 다다랐다. 하얀 달의 기사는 돈키호테를 향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돌진했는데, 이때 창을 직접 맞히지는 않았으나(창을 높이 치켜든 모양새가 마치 일부러 그러는 듯했다), 그 충격으로 로시난테와 돈키호테는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쳐졌다. 하얀 달의 기사는 곧장 돈키호테에게 다가가 그의 투구 챙 위에 창을 겨누며 말했다.

"기사님, 패배하셨소. 만약 우리 결투의 조건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소."

돈키호테는 온몸이 으스러지고 정신이 아득해진 상태였다. 그는 투구 챙을 올리지도 못한 채, 마치 무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힘없고 병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기사요. 나의 나약함 때문에 이 진실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오. 기사님, 창을 꽉 쥐고 내 목숨을 거두시오. 이미 내 명예를 앗아갔으니, 목숨까지 가져가도 좋소."

"그렇게 하지는 않겠소." 하얀 달의 기사가 말했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이 아름답다는 명성은 그 자체로 영원히 빛나게 두어야 할 것이오.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오. 우리가 이 결투를 시작하기 전에 약속한 대로, 위대한 돈키호테가 일 년 동안, 혹은 내가 명령하는 기간까지는 자신의 거처로 물러나 있는 것이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만족하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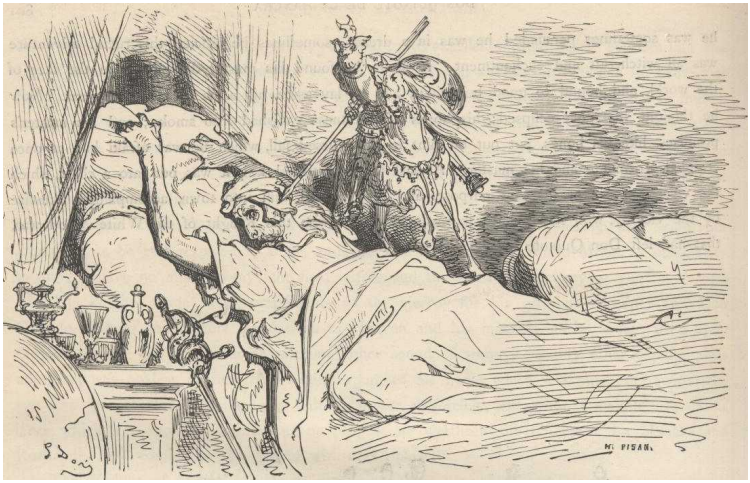
부왕과 돈 안토니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들었다. 또한 돈키호테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었다. 돈키호테는 만약 하얀 달의 기사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에게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않는다면, 기사로서의 도리를 다해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얀 달의 기사는 이처럼 약속을 한 뒤 고삐를 돌렸다. 그러고는 부왕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는, 반쯤 속도를 높여 말을 몰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부왕은 돈 안토니오에게 하얀 달의 기사를 뒤쫓아가 그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일으켜 세워 얼굴을 가린 투구를 벗겼다. 돈키호테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로시난테는 형편이 너무도 나빠져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조차 못했다. 산초 판사는 슬픔과 망연자실함에 빠져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산초 판사의 눈에는 이 모든 일이 마치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고, 이 모든 소동이 마법 때문인 것처럼 느껴졌다. 산초 판사는 주인이 쓰러져 앞으로 일 년 동안은 무기를

들지 못하게 된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인이 이룩해 온 영광스러운 업적의 빛이 흐려지고,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새로운 약속의 희망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상상했다. 산초 판사는 로시난테가 다치지는 않았을지, 혹은 주인이 탈골되지는 않았을지 걱정스러웠다. 만약 주인이 탈골된 것이라면 차라리 다행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결국 부왕이 가져오라고 명한 들것에 실려 돈키호테는 성 안으로 옮겨졌다. 부왕 역시 하얀 달의 기사가 대체 누구이기에 돈키호테를 저토록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에 성 안으로 향했다.

제65장



제65장. 하얀 달의 기사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돈 그레고리오가 자유를 얻으며, 그 밖의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하얀 달의 기사를 뒤쫓았습니다. 수많은 소년도 그 뒤를 따라갔고, 심지어 기사를 몰아붙여 결국 도시 안에 있는 어

느 여관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돈 안토니오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에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종자가 나와 하얀 달의 기사를 맞이하고는 그의 갑옷을 벗겨 주었습니다. 기사는 낮은 방에 틀어박혔고, 돈 안토니오 역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다는 듯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얀 달의 기사는 이 기사가 자신을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오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숨길 필요도 없으니, 제 종자가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동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점의 거짓도 없이 말이지요. 선생님, 제 이름은 산손 카라스코 학사입니다. 저는 돈키호테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분의 광기와 어리석음을 보면 저를 포함해 그분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이지요. 저 역시 그분을 가장 가엾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분이 고향 집에서 편히 쉬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분을 집에 머물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 달 전쯤, 제가 '거울의 기사'라는 이름의 방랑 기사가 되어 그분과 맞붙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해치지는 않되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이었지요. 대신 싸움의 조건으로 패배한 쪽은 승자의 처분에 따르기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을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기에, 그분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 년 동안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요구할 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사이에 병도 나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기고 말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결국 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요.

그분은 길을 계속 가셨고, 저는 패배한 채로 돌아왔습니다. 낙마한 것이 워낙 위험했던 터라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보신 것처럼 그분을 다시 찾아가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기사도의 규율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니, 제가 내건 조건 또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심의 여지 없이 따를 것입니다. 선생님, 사정은 이렇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부디 제 정체를 밝히지 마시고, 돈키호테에게도 제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사도 놀이라는 어리석은 짓에서 벗어나, 저처럼 그분을 무척 아끼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그분이 제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선생님!" 돈 안토니오 모레노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광인을 제정신으로 돌려놓겠다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길 빕니다! 선생님, 돈키호테가 제정신을 차려서 얻는 이득이 그분의 광기 어린 행동이 주는 즐거움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산손 카라스코 학사가 아무리 애를 쓴들, 저토록 지독하게 미친 사람을 제정신으로 돌려놓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돈키호테가 결코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그분이 건강을 되찾으시면 그분의 재치뿐만 아니라, 종자인 산초 판사의 재치까지 함께 잃게 될 테니까요. 그 둘의 재치라면 우울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산손 카라스코 학사의 노력이 결국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제 짐작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일이 하나씩 잘 풀려가고 있으며, 결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한 뒤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러고는 노새 위에 무기를 챙겨 실은 뒤, 전투 때 탔던 말에 올라타 곧장 그날 바로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진실한 이야기에서 굳이 따로 기록할 만큼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돈 안토니오 모레노는 산손 카라스코가 말해준 내용을 부왕에게 전부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왕은 그 이야기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돈키호테가 은둔하게 되면,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을 지켜보며 즐거움을 얻던 모든 사람이 그 재미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는 엿새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는 기운이 없고 슬프며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몸 상태도 몹시 나빠져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패배했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산초 판사가 그를 위로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고개를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가능하다면 기뻐하시기라도 하란 말입니다. 하늘에 감사해야 합니다. 땅바닥에 나동그라지긴 했어도 갈비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세상일이란 원래 주고받는 법이고, 말뚝이 있는 곳에 늘 비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사 따위는 콧방귀를 뀌며 무시해 버리십시오. 지금 주인님의 병을 고치는 데 의사가 딱히 필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제 그만 우리 집으로 돌아갑시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땅

을 헤매며 모험을 찾아다니는 일은 그만둡시다. 잘 생각해보면, 비록 주인님께서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이셨지만, 여기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저입니다. 저는 통치자가 되고 싶던 욕심은 접어두었지만, 백작이 되고 싶던 마음까지 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인님께서 기사 활동을 그만두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면, 제 꿈도 영영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 희망도 결국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조용히 하게, 산초. 내 은둔과 물러남은 길어야 1년이면 끝날 일이라네. 그 뒤에는 다시 명예로운 기사 활동을 재개할 것이니, 내가 정복할 왕국과 자네에게 줄 백작령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초가 말했다. "하늘이 들어주시길, 그리고 죄악은 못 들은 체하기를 빌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나쁜 소유물을 갖는 것보다 좋은 희망을 품는 편이 낫다고들 말하니까요."

그때 마침 돈 안토니오가 들어오더니, 아주 기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돈키호테 님! 돈 그레고리오와 그를 데리러 갔던 배교자가 해변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해변이라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미 부왕의 저택에 도착했으니 곧 이곳으로 올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조금 기운을 차리며 말했다.

"정말이지 모든 일이 반대로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랬다면 내가 직접 힘을 써서 베르베리아에 갇힌 돈 그레고리오뿐만 아니라,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선사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 한심한 놈아! 패배한 건 나 아니냐? 쓰러진 것도 나고, 앞으로 일 년 동안은 무기조차 들 수 없는 처지가 된 것도 바로 나란 말이다. 그런데 내가 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칼을 휘두르는 대신 물레를 돌려야 할 처지에 놓인 내가 말이다."

"주인님,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알을 못 낳더라도 닭은 살려둬야 하는 법입니다. 오늘은 주인님 차례지만 내일은 제 차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이나 매질 같은 일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쓰러진 사람도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새로운 싸움을 하겠다고 섣불리 기운을 내지 마시고 일단은 기운을 좀 빼고 쉬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만 일어나셔서 돈 그레고리오 님을 맞이하십시오. 사람들이 밖에서 북적거리는 걸 보니 벌써 집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돈 그레고리오와 배교자가 자신들의 왕복 사실을 부왕에게 이미 보고했고, 돈 그레고리오는 아나 펠릭스를 보고 싶은 마음에 배교자와 함께 돈 안토니오의 집으로 왔기 때문이다. 돈 그레고리오는 알제에서 끌려올 당시 여인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배를 타고 오는 길에 함께 탈출한 포로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어떤 옷을 입었든 그는 누구나 탐내고 모시며 존경할 만한 인물임이 분명했다. 워

낙 빼어나게 잘생긴 데다 나이도 열일곱이나 열여덟 살 정도로 보였기 때문이다. 리코테와 그의 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갔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고, 딸은 정숙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지 않았는데,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개 지나치게 격의 없이 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돈 그레고리오와 아나 펠릭스, 이 두 미남미녀가 함께 있는 모습에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침묵이 두 연인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즐겁고도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 것은 바로 눈빛이었다.

배교자는 돈 그레고리오를 탈출시키기 위해 자신이 부렸던 온갖 기지와 수단들을 이야기했다. 돈 그레고리오 역시 함께 남겨졌던 여인들과 겪어야 했던 위험과 곤경을 들려주었다. 그는 길게 늘어놓으며 설명하는 대신 짧고 간결하게 말했는데, 그 모습에서 나이에 비해 사리 분별이 매우 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리코테는 배교자와 노를 저어 온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보상을 마쳤다. 배교자는 다시 가톨릭 교회로 돌아와 신앙을 회복했으며, 썩어 문드러진 지체였던 그는 참회와 회개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이틀 뒤, 부왕은 돈 안토니오와 만나 아나 펠릭스와 그녀의 아버지가 스페인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두 사람이 보기에 이토록 독실한 딸과 선한 의도를 지닌 듯한 아버지가 이곳에 남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 안토니오는 어차피 다른 용무로 궁정에 가야 하니 직접 가서 이 일을 협의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궁정에서는 후한 대접과 뇌물을 통해 까다로운 일들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니오." 이 대화의 자리에 함께 있던 리코테가 말을 가로챘다. "후한 대접이나 뇌물 따위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국왕 폐하께서 우리를 추방하라는 임무를 맡기신 살라사르 백작, 위대한 돈 베르나르디노 데 벨라스코 경 앞에서는 간청도, 약속도, 뇌물도, 동정심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자비와 정의를 적절히 섞어 쓰시는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민족 전체가 오염되고 썩어 문드러졌다고 판단하시면 연고를 발라 상처를 달래기보다는 불로 지져 없애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중함과 영리함, 부지런함,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앞세워 이 거대한 사업의 무게를 그 강인한 어깨로 묵묵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부린 온갖 기지와 책략, 간청과 속임수조차 그분의 아르고스의 눈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뿌리가 시간이 흐른 뒤에 싹을 틔워 스페인 땅에 독이 든 열매를 맺을까 봐 말입니다. 스페인이 우리 무리가 심어놓은 공포로부터 마침내 깨끗해지고 해방될 때까지, 우리 중 그 누구도 숨어 지내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위대한 펠리페 3세의 결단은 참으로 영웅적이며, 그 임무를 저 돈 베르나르디노 데 벨라스코 경에게 맡긴 것은 실로 놀라운 신중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제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면 말입니다." 돈 안토니오가 말했다. "돈 그레고리오는 저와 함께 가서, 부모님이 겪고 계실 슬픔을 달래 드리겠습니다. 아나 펠릭스는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집이나 수도원에 머물게 할 것이고요. 부왕께서도 제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시는

동안에는, 선량한 리코테가 부왕의 댁에 머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왕은 제안된 모든 사항에 동의했다. 하지만 돈 그레고리오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나 펠릭스를 떠날 수 없으며 떠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래도 부모님을 뵙고 싶었고, 나중에 그녀를 데려오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고 싶었기에 결국 정해진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그렇게 하여 아나 펠릭스는 돈 안토니오의 아내와 함께 머물게 되었고, 리코테는 부왕의 댁에 머물기로 했다.

돈 안토니오가 떠나는 날이 왔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떠나는 날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결투에서 쓰러지며 입은 부상 탓에 돈키호테가 더 일찍 길을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돈 그레고리오가 아나 펠릭스와 작별할 때는 눈물과 한숨, 실신과 흐느낌이 교차했다. 리코테는 돈 그레고리오에게 원한다면 에스쿠도 천 개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돈 그레고리오는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다만 돈 안토니오에게오 에스쿠도를 빌렸을 뿐이며 나중에 궁정에서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먼저 길을 떠났고, 앞서 말한 대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가 뒤이어 떠났다. 돈키호테는 무기를 내려놓은 채 길을 나섰고, 산초 판사는 걸어서 이동했다. 나귀에 무기를 가득 실었기 때문이었다.

제66장



제66장. 이 글을 읽는 자나, 읽어 주는 소리를 듣는 자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돈키호테는 자신이 쓰러졌던 곳을 다시금 돌아보며 말했다.

"바로 이곳이 트로이의 함락지였구나! 나의 비겁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의 불운이 내가 거머쥐었던 영광을 앗아갔도다! 운명이 나를 상대로 온갖 변덕을 부린 곳이 바로 여기이며, 나의 위대한 업적들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잠긴 곳도 바로 여기로다! 마침내 나의 행운이 이곳에서 꺾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구나!"

그 말을 들은 산초가 말했다.

"주인님, 용맹한 마음을 가진 자란 불행 앞에서는 인내하고 번영 앞에서는 기뻐하는 법입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총독이었을 때는 기뻐했지만, 지금 평범한 종자가 되었다고 해서 슬퍼하지는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기 떠도는 운명이라는 존재는 술에 취해 제멋대로 구는 여자와 같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눈까지 멀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쓰러뜨리고 누구를 높이는지도 모른다고들 합니다."

"산초, 자네 참 철학자답군."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아주 분별 있게 말하는구먼. 대체 누가 자네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네. 세상에 운명이란 건 없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좋든 나쁘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네. 나 또한 내 운명의 주인이었으나, 필요한 신중함을 갖추지 못했지. 그래서 나의 자만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네. 하얀 달의 기사가 탄 말의 위엄 있는 기세에 로시난테의 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진작 생

각했어야 했는데 말이야. 어쨌든 나는 용기를 내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네. 비록 명예는 잃었을지언정, 약속을 지키는 미덕만큼은 잃지 않았고, 앞으로도 잃을 수 없네. 내가 용맹하고 대담한 기사였을 때는 행동과 손으로 내 업적을 증명했으나, 이제 평범한 종자가 된 지금은 내가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내 말의 가치를 증명하겠네. 그러니 산초, 어서 가세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 수습 기간을 보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세. 그 기간을 잘 마치고 나면, 다시금 예전처럼 무기를 들고 기사도를 펼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이렇게 맨발로 걷는 게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라서, 멀리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안 듭니다. 차라리 이 무기들을 교수형 당한 사람 대신 어느 나무에 매달아 둡시다. 그리고 제가 저 당나귀 등에 올라타 발을 땅에서 떼고 있으면,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거리만큼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맨발로 걸으면서 먼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산초, 자네 말이 맞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 무기들은 전리품처럼 나무에 걸어 두도록 하세. 그리고 무기 아래나 주변 나무들에 롤랑의 무기 전리품에 새겨져 있던 문구를 똑같이 새겨 넣는 거라네."

"아무도 이것을 건드리지 마라."

"롤랑을 상대로 겨뤄 버텨낼 자신이 없는 자는 손대지 말라는 뜻이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산초가 대답했다. "로시난테가 길을 가려면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대로 매달아 둬도 괜찮을 텐데요."

"그도, 그 무기도 목을 매게 둘 수는 없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훌륭한 봉사에 보답이 형편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나귀가 잘못했다고 말안장을 탓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요. 이번 일은 나으리의 잘못이니 나으리 스스로를 벌하십시오. 이미 망가져 피가 흐르는 무기나, 너무 순해 빠진 로시난테, 혹은 너무 많이 걷게 하려는 제 발의 고통 때문에 화를 내며 속을 끓이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하루를 보냈고, 그 후로도 나흘 동안 길을 방해하는 일 없이 계속 나아갔다. 그리고 다섯째 날, 어느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한 여관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을 보았다. 마침 축제 기간이라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돈키호테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한 농부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여기 오시는 이 두 분은 우리 당사자들과 아무 관계도 없는 분들이니, 우리 내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결을 내려 주실 거요."

"물론 말씀드리지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만약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아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 드리겠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선량한 분이여." 농부가 말했다. "이 마을 이웃 중에 몸무게가 11아로바나 나가는 아주 뚱뚱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은 몸무게가 5아로바밖에 안 나갑니다. 조건은 몸무게를 똑같이 맞춰서 100걸음을 달리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도전한 사람에게 몸무게를 어떻게 맞출 거냐고 물었더니, 5아로바인 상대방이 등에 철 덩어리 6개를 짊어지면 된다더군요. 그래야 깡마른 사람의 11아로바와 뚱뚱한 사람의 11아로바가 똑같아질 테니까요."

"그건 아니지요." 돈키호테가 대답하기도 전에 산초가 끼어들며 말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제가 총독과 판사 자리를 내려놓은 지 며칠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의문점을 파헤치고 모든 분쟁에 판결을 내리는 건 바로 제 몫입니다."

"좋은 대답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내 정신이 이토록 어지럽고 뒤숭숭한데, 고양이한테 빵 부스러기나 던져주며 시간을 낭비할 형편이 아니란다."

그 허락을 받고, 산초는 자신의 입에서 나올 판결을 기다리며 입을 벌린 채 자신을 에워싸고 있던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저 뚱뚱한 자가 요구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정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도전받은 사람이 무기를 고를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가로막거나 방해할 만큼 유리한 무기를 골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도전을 건 저 뚱뚱한 자가 살을 깎고, 벗겨내고, 솎아내

고, 다듬고, 매끈하게 손질해서라도 몸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몸의 여기저기서 살을 떼어내든 말든 본인이 편한 대로 해서 여섯 아로바를 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몸무게를 다섯 아로바로 맞춘다면, 상대방의 다섯 아로바와 무게가 딱 맞아떨어질 테니, 그때야 비로소 공정하게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나!" 산초의 판결을 들은 한 농부가 외쳤다. "이분은 성인처럼 말씀하시더니, 판결은 꼭 교구 신부님처럼 내리시는구려! 하지만 저 뚱뚱한 자가 제 살을 단 한 온스라도 떼어내려 하겠습니까? 하물며 여섯 아로바나 떼어내려 하겠냐고요."

"그냥 경주를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또 다른 농부가 대답했다. "마른 사람은 몸무게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뚱뚱한 사람이 제 살을 깎아낼 리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기한 돈의 절반은 술값으로 쓰고, 이분들을 비싼 선술집으로 모셔다드립시다. 그리고 비가 오면 제가 이분들께 제 망토를 씌워드리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잠시도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슬픈 생각과 사건들이 저를 무례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드니 말입니다."

그렇게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의 옆구리를 차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기이한 모습과 더불어, 종자의 분별력 있는 태도에 놀란 사람들은 산초를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른 농부가 말했다.

"종자가 저렇게 영리하다면, 주인은 오죽하겠나! 내 장담컨대, 저들이 살라망카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라면 머지않아 궁정 시장이라도 될 걸세.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총애와 행운을 얻는 것 말고는 다 농담일 뿐이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머리에는 주교관을 쓰고 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날 밤 주인과 종자는 지붕 하나 없는 들판 한가운데서 하늘을 이불 삼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길을 가던 중, 그들은 한 남자가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목에는 짐꾸러미를 메고 손에는 창이나 쇠창을 든 모습이 딱 보아하니 발로 뛰는 전령이었다. 그 남자는 돈키호테 곁에 다다르자 발걸음을 재촉하더니, 거의 뛰다시피 달려와 돈키호테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손이 닿는 대로 돈키호테의 오른쪽 허벅지를 덥석 껴안으며 아주 반갑다는 기색으로 말했다.

"오, 라만차의 귀하신 돈키호테 님! 나리께서 다시 성으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공작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공작님께서는 지금도 공작부인과 함께 성에 머물고 계시니까요!"

"그대를 모르겠소, 친구여."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대가 직접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대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구려."

"저 말입니다, 돈키호테 님." 전령이 대답했다. "저는 주인님이신 공작님의 하인 토시로스라고 합니다. 도냐 로드리게스의 딸이 누구와 결혼할지를 두고 나리께 따지고 들지 않았던 바로 그놈이지요."

"맙소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나를 모욕하고 그 전투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 원수 같은 마법사들이, 그대를 방금 말한 그런 하인으로 변하게 만들었단 말이오?"

"아이고, 착한 분이시여." 전령이 대답했다. "마법사니 얼굴이 변했니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토시로스라는 하인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토시로스라는 하인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저는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서 싸우지 않고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나리께서 저희 성을 떠나시자마자, 주인님이신 공작님께서 전투에 임하기 전 내리신 명령을 어겼다며 저를 백 대나 때리셨거든요. 결국 그 처녀는 수녀가 되었고, 도냐 로드리게스는 다시 카스티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주인님께서 부왕에게 보내시는 편지 뭉치를 전하러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이고요. 혹시 목을 좀 축이고 싶으시다면, 비록 미지근하긴 해도 아주 진한 술이 담긴 박을 가져왔습니다. 트론촌 치즈도 몇 조각 챙겨왔으니, 혹시 갈증이 잠들어 있거든 그 갈증을 불러일으켜 돋우는 미끼가 되어 줄 겁니다."

"저도 한잔하겠습니다." 산초가 말했다. "자, 어서 남은 예우를 다해 주시지요. 저 착한 토시로스 씨가 술을 좀 따라 주시게나. 저 멀리 인디아스(신대륙)에 있는 마법사들이 아무리 배가 아파도 어쩔 수 없도록 말이오."

"결국 말이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먹보에 땅 위에서 가장 무지한 놈이로구나. 이 전령이 마법에 걸린 사람이고 저 토시로스라는 자가 가짜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으니 말이다. 너는 여기서 그와 함께 남아서 배불리 먹고 있거라. 나는 앞서 조금씩 가다 네가 오기를 기다리마."

하인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호리병을 꺼내고 괴나리봇짐에서 치즈 조각을 꺼낸 다음, 작은 빵 한 덩이까지 꺼냈다. 그와 산초는 푸른 풀밭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두 사람은 아주 평화롭게, 봇짐에 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어 치우며 기운을 차렸다.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치즈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편지 뭉치까지 핥아댈 정도였다. 토시로스가 산초에게 말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네 주인님은 미친 게 틀림없어, 산초 친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우리 주인님은 누구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제값 주고 치르시거든요. 특히 미친 짓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주인님께도 똑똑히 말씀드렸지만, 뭐 해서 소용이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은 백월의 기사에게 패해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 더 그렇고요."

토시로스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산초는 주인님이 기다리게 두는 건 예의가 아니라며 대답했다.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말이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과 수염에 묻은 빵 부스러기를 털어냈다. 산초는 나귀를 앞세워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넨 뒤 토시로스를 떠나, 나무 그늘 아래서 기다리고 있는 주인님에게 달려갔다.

제67장



제67장. 돈키호테가 약속한 1년이 지나는 동안 목동이 되어 전원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일과, 그 뒤에 이어진 참으로 즐겁고 유쾌한 사건들

돈키호테는 쓰러지기 전에도 수많은 생각에 시달렸지만, 쓰러진 뒤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에 괴로워했다. 앞서 말했듯 그는 나무 그늘 아래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생각들이 마치 꿀에 꼬이는 파리 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괴롭혔다. 어떤 생각은 둘시네아의 마법이 풀린 일에 관한 것이었고, 또 어떤 생각은 강제로 은둔해야 하는 앞으로의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산초가 다가와 하인 토시로스의 너그러운 성품을 칭찬했다.

"오, 산초야! 아직도 그자가 진짜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둘시네아가 평범한 농가 여인으로 변하고, 거울의 기사가 산손 카라스코 학사로 변한 것이 모두 나를 괴롭히는 마법사들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모양이야. 그런데 하나만 묻자. 네가 말한 그 토시로스에게 알티시도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느냐? 나의 부재를 슬퍼하며 울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곁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그 뜨거운 연정마저 이제는 망각의 늪에 던져버렸는지 말이다."

"제가 그때 품고 있던 생각들은 그런 시답잖은 것을 물어볼 여유를 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세상에나, 주인님! 지금 주인님이야말로 남의 마음속 생각, 그것도 연애 감정 따위가 어떤지 캐물으실 처지이신가요?"

"잘 들어라,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과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행동은 천지 차이다. 기사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엄밀히 말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법이

지. 내가 보기엔 알티시도라도 나를 무척 좋아했던 것 같다. 그녀는 네가 아는 그 두건 세 장을 내게 주었고, 내가 떠날 때 울었으며,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기까지 했다. 수치심을 무릅쓰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이야.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나를 흠모했다는 증거다. 연인들의 분노는 대개 저주로 끝나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줄 희망도, 바칠 보물도 없었다. 내 희망은 이미 둘시네아에게 바쳤고, 방랑 기사의 보물이라는 건 요정의 보물처럼 겉만 번지르르할 뿐 가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녀에 대해 내가 간직한 이 추억들뿐이다. 물론 둘시네아에 대해 간직한 추억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말이다. 그런데 너는 채찍질을 미루고 그 몸뚱이 벌하기를 게을리하여 바로 그 둘시네아를 모욕하고 있구나. 늑대들에게 뜯어 먹히는 꼴을 봤으면 싶은 그 살덩이는, 저 가련한 여인을 구제하는 데 쓰이기보다 차라리 구더기의 밥이 되려고 제 몸을 아끼고 있으니 말이다."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엉덩이를 채찍질하는 게 마법에 걸린 이들의 마법이 풀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마치 '머리가 아프면 무릎에 기름을 발라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인님께서 읽으신 기사도 이야기 중에는, 채찍질 때문에 마법이 풀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감히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법이 풀리든 말든, 제가 스스로를 벌주고 싶을 때나 시간이 날 때면 언제든 제 몸을 채찍질할 겁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리고 하늘이 네게 은총을 내려서, 나의 여주인이자—네가 내 사람이니—곧 너의 여주인이기도 한 그분을 도와야 할 의무가 네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가던 두 사람은, 예전에 황소들에게 들이받혔던 바로 그 장소에 도착했다. 돈키호테는 그곳을 단번에 알아보고 산초에게 말했다.

"이곳이 바로 그 초원이다, 산초! 예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멋진 목녀들과 늠름한 목동들이 있던 곳이지. 그들은 이곳에서 목가적인 아르카디아를 재현하고 본뜨려 했단다. 참으로 새롭고도 현명한 생각이지 않느냐? 산초야, 네 생각만 괜찮다면 나도 그들을 따라 해보고 싶구나. 적어도 내가 은둔 생활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말이다. 내가 양도 몇 마리 사고, 목동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다 갖추마. 나는 '키호티스'라는 이름의 목동이 되고, 너는 '판시노'라는 이름의 목동이 되어 산과 숲, 그리고 초원을 누비는 게 어떻겠느냐? 여기저기서 노래도 부르고 슬픈 노래도 읊조리면서 말이다. 샘물의 맑은 물이나 깨끗한 시냇물, 혹은 넘실거리는 강물도 마시며 말이야. 그러면 참으로 즐거울 게다. 참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줄 것이고, 코르크 참나무 밑동은 의자가 되어줄 것이며, 버드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겠지. 장미는 향기를 풍기고, 온갖 색깔로 물든 넓은 초원은 카펫처럼 우리를 맞아줄 게다. 맑고 깨끗한 공기는 숨결이 되고, 밤의 어둠 속에서도 달과 별은 빛이 되어줄 테니 말이다. 노래는 맛이 되고, 눈물은 기쁨이 되겠지. 아폴로는 시를, 사랑은 영감을 우리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는 지금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세기까지도 영원히 이름을 떨치며 살 수 있을 게다."

"세상에나!" 산초가 말했다. "그런 삶이라니, 제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아니, 아주 딱 맞습니다! 게다가 학사 산손 카라스코나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은 아직 이 생활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막상 보고 나면 우리를 따라 목동이 되겠다고 나설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신부님은 워낙 흥이 많고 노는 걸 좋아하는 분이니, 부디 하느님께서 막아 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분마저 양 우리에 끼어들고 싶어 하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말이 아주 옳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학사 산손 카라스코가 만약 우리 목동 모임에 들어온다면 — 틀림없이 들어올 테지만 — 산소니노 목동이나 카라스콘 목동이라 부르면 되겠지. 이발사 니콜라스는 옛날의 보스칸이 네모로소라고 불렸던 것처럼 미쿨로소라고 부르면 될 게다. 신부님께는 어떤 이름을 붙여 드려야 할지 모르겠구나. 성함에서 따온 이름이 아니라면, 쿠리암브로 목동이라 부르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사랑을 바칠 목녀들의 이름이야 배를 고르듯 마음껏 골라 정하면 될 것이다. 게다가 내 귀하신 분의 이름은 목녀에게도 공주에게도 아주 잘 어울리니, 굳이 더 나은 이름을 찾느라 애쓸 필요는 없겠지. 산초, 너는 네 연인에게 네가 원하는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 주려무나."

"다른 이름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저 테레소나라고 부를 생각입니다. 그 여인이 통통한 데다 이름도 테레사니까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게다가 제가 시를 써서 그 여인을 찬양한다면, 제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셈이 되겠지요. 저는 남의 집 귀한 빵을 탐내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신부님은 모범을 보여야 하니 목녀를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학사님이 굳이 목녀를 두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분의 운명에 맡겨야겠지요."

"맙소사!"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될지 상상이나 가느냐!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은 차룸벨라 소리가 들려올지, 또 사모라의 가이타(백파이프) 소리며 작은 북소리, 방울 소리, 라벨 소리가 얼마나 끊이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 모든 악기 소리 사이로 알보케의 울림까지 들려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곳에 가면 목가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거의 모든 악기를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알보케가 대체 무엇입니까?" 산초가 물었다. "평생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물건인데요?"

"알보케는 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촛대 모양의 금속판 같은 것인데, 속이 비어 있어서 서로 부딪칠 때마다 소리가 난단다. 아주 듣기 좋거나 화음이 딱 맞는 소리는 아닐지 몰라도, 그렇다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아니지. 가이타나 탬버린 같은 소박한 악기들과도 아주 잘 어울린단다. 그리고 '알보케'라는 이름은 무어인식이지. 우리 카스티야어에서 '알(al-)'로 시작하는 말들이 다 그렇단다. 이를테면 알모하사, 알모르사르, 알롬브라, 알구아실, 알루세마, 알마센, 알칸시아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단어들은 아마 몇 개 더 있을 게다. 반대로 우리 언어에서 무어인식인데 '이(-í)'로 끝나는 단어는 딱 세 개뿐이지. 바로 보르세기, 자키사미, 그리고 마라베디란다. 알헬리와 알파키는 앞에

‘알’이 붙고 끝이 ‘이’로 끝나니까 아랍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지. 내가 알보케를 말하다 보니 문득 생각이 나서 덧붙인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어느 정도 시를 쓸 줄 알고, 산손 카라스코 학사도 시에 아주 능통하니, 이런 식의 연습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게다. 신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 하지만 나는 그도 시인 기질이 분명히 있다고 장담한다. 마에세 니콜라스도 마찬가지일 게다. 그들 대부분은 기타를 치고 시를 읊는 사람들이니 의심할 여지가 없지. 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곁에 없음을 한탄하고, 너는 지고지순한 연인임을 뽐내며, 목동 카라스콘은 짝사랑의 아픔을 노래하고, 신부 쿠리암브로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노래한다면,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풍경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주인님, 저는 운이 너무도 없어서 그런 일을 하며 지낼 날이 영영 오지 않을까 봐 겁이 날 지경입니다. 아, 제가 목동이 되는 날에는 얼마나 근사한 숟가락들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빵 부스러기와 크림, 화환, 그리고 목가적인 장식물들을 만들어낼까요? 비록 현명하다는 명성은 얻지 못할지언정, 재치 있다는 명성만큼은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제 딸 산치카가 우리 목동 무리에 음식을 가져다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예뻐 보여도 순진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법이니까요. 혹여나 양털을 얻으려다 오히려 털을 다 깎이고 오는 격이 될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사랑이나 나쁜 마음은 도시나 들판이나 다를 바 없고, 목동의 오두막이나 왕궁이나 마찬가지인 법이지요. 원인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는 법이니, 보지 않으면 마

음 아플 일도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매달려 애걸복걸하느니 차라리 덤불을 뛰어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산초야, 속담은 이제 그만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네가 방금 말한 것들 중 하나만 했어도 네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게다. 내가 여러 번 속담을 너무 남발하지 말고 적당히 아껴서 말하라고 충고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 말을 들어봤자 사막에서 설교하는 격이니, '어머니가 나를 벌주셔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식인 모양이구나."

"제 생각에는 주인님께서 바로 이런 분 같으십니다. '프라이팬이 솥한테 말하기를, 너 그 시커먼 눈 좀 치워라'라고 하던 말 말입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속담을 쓰지 말라고 꾸짖으시면서, 정작 주인님께서는 속담을 두 개씩 짝지어 늘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들어라,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나는 상황에 딱 들어맞게 속담을 인용하고, 내가 말할 때마다 속담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처럼 아주 적절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너는 속담을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다니듯 질질 끌고 다니는구나. 내 기억이 맞다면, 속담이란 옛 성현들의 경험과 사색에서 우러나온 짧은 격언이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상황에 맞지 않는 속담은 격언이 아니라 헛소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만하자꾸나. 어느덧 밤이 깊었으니, 국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오늘 밤을 보내자. 내일 일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법이니까."

두 사람은 길에서 벗어나 자리를 잡았고, 저녁 식사는 늦은 데다 형편없었다. 산초 판사는 그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산초가 보기에

숲이나 산속에서 펼쳐지는 편력 기사들의 삶이란 이토록 옹색하고 고달픈 것이었다. 물론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의 성과 저택에서, 또 부유한 카마초의 결혼식 잔치에서, 그리고 돈 안토니오 모레노의 집에서처럼 풍족한 때도 더러 있기는 했다. 하지만 산초는 세상이 언제나 낮일 수도, 언제나 밤일 수도 없는 법이라 여겼다. 그리하여 산초는 밤새 잠을 잤고, 주인은 밤을 지새웠다.

제68장



제68장.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돼지 떼 소동에 대하여

밤은 제법 어두웠다. 달이 하늘에 떠 있기는 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디아나 여신이 반대편 세상으로 산책을 떠나느라, 검은 산과 어두운 골짜기에는 빛을 남겨두지 않은 모

양이었다. 돈키호테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첫잠은 잤으나, 그다음 두 번째 잠으로는 이어 가지 못했다. 이는 산초와는 정반대였으니, 산초는 밤부터 아침까지 잠이 죽 이어져 두 번째 잠이라는 것을 아예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타고난 체질이 튼튼하고 걱정거리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돈키호테는 온갖 근심 탓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 산초를 깨우며 이렇게 말했다.

"산초야, 네가 어쩜 그리 태평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구나. 너는 대리석이나 단단한 청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다. 도무지 움직임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으니 말이다. 너는 잠들었을 때 나는 깨어 있고, 네가 노래할 때 나는 눈물을 흘린다. 너는 배가 불러서 나태하고 의욕도 없이 늘어져 있을 때, 나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쓰러질 지경이란 말이다. 주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이야말로, 적어도 보기에라도 충직한 종복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오늘 밤의 이 고요함과 우리가 처한 이 적막을 보아라. 이 밤은 우리에게 잠 대신 깨어 있는 고행을 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부탁이니 일어나거라.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채찍질을 삼백 번이나 사백 번 하거라.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린 것을 풀기 위해 치러야 할 고행을 그만큼 미리 갚아 둔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간곡히 부탁하마. 지난번처럼 너와 맞붙어 몸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구나. 네 팔 힘이 얼마나 센지 잘 아니까 말이다. 채찍질을 다 마치고 나면, 남은 밤 동안은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자꾸나. 나는 나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너는 너의 꿋꿋함을 노래하면

서, 우리가 마을로 돌아갔을 때 펼칠 목가적인 삶을 미리 연습해 보는 것이다."

"주인님," 산초 판사가 대답했다. "제가 잠결에 벌떡 일어나 고행을 할 만큼 신심이 깊은 사람도 아닌 데다, 채찍질로 얻은 극심한 고통을 곧바로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잠 좀 자게 내버려 두십시오. 채찍질하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시고요. 자꾸 이러시면 제 살점은커녕 옷자락 하나도 다시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오, 무정한 영혼이여! 오, 자비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종자여! 내가 너에게 베풀어 온 은혜와 앞으로 베풀 은혜가 참으로 아깝구나! 너는 나 덕분에 영주가 되는 꿈을 꾸고, 나 덕분에 백작이나 그에 버금가는 작위를 얻을 희망에 부풀어 있지 않느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분명할 것이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오기 마련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고생도, 영광도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덮어주는 망토이자, 배고픔을 달래주는 진수성찬이며, 갈증을 씻어주는 물이고, 추위를 녹여주는 불이며,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냉기인 '잠'을 발명한 분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잠은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공용 화폐이며, 목동과 왕을,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를 똑같이 만드는 저울이자 무게추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 잠에 나쁜 점이 딱 하나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과 닮

았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요."

"산초야, 네가 지금처럼 우아하게 말하는 건 처음 듣는구나." 돈키호테가 말했다. "덕분에 네가 가끔 하던 '태어난 곳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속담이 참말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아이고, 우리 주인님도 참!" 산초가 대답했다. "지금은 제가 속담을 꿰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속담이야 주인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입에서 술술, 두 마디씩 툭툭 잘 내뱉으시지 않습니까. 다만 제 속담과 주인님의 속담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주인님의 속담은 제때에 딱 들어맞고, 제 속담은 때를 놓치고 엉뚱한 데서 튀어나온다는 것이지요. 뭐, 어쨌든 둘 다 속담이긴 합니다만요."

그때였다. 골짜기 사방으로 울려 퍼지는 낮고 둔탁한 굉음과 거친 소음이 들려온 것은. 돈키호테는 벌떡 일어나 칼자루에 손을 얹었고, 산초는 자기 잿빛 나귀 밑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러고는 무기 꾸러미와 나귀의 길마를 양옆에 둘러 쌓았는데, 돈키호테가 소란스럽게 날뛰는 것만큼이나 산초 역시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다. 소음은 점점 더 커지더니 겁에 질린 두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그러했으니, 다른 한 사람의 용맹함이야 익히 알려진 바였다.

사정인즉슨, 어떤 사람들이 장터에 내다 팔려고 육백 마리가 넘는 돼지 떼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그 시각에 돼지들을 몰고 가던 터라, 돼지들이 내는 소음과 꿀꿀거리는 소리, 씩씩거리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돈키호테와 산초는 귀가 먹먹해져서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겨

를조차 없었다. 그러다 거대하고 시끄러운 돼지 떼가 우르르 몰려왔다. 돼지들은 돈키호테나 산초의 권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두 사람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그 바람에 산초의 짐 꾸러미는 엉망이 되었고, 돈키호테는 물론이고 로시난테까지 함께 나뒹굴었다. 돼지 떼가 몰려오는 소란과 꿀꿀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 불결한 짐승들이 몰려든 기세에 눌려 짐 꾸러미와 무기, 산초의 당나귀, 로시난테, 산초, 그리고 돈키호테까지 모두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산초는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일으키더니, 저 무례하고 몰상식한 돼지 놈들 중 적어도 대여섯 마리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며 주인에게 칼을 달라고 말했다. 이미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게나, 여보게. 이 치욕은 내 죄에 대한 고통이며, 패배한 기사에게 벌레가 꼬이고 말벌이 쏘며 돼지들이 짓밟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정당한 벌이라네."라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패배한 기사의 종자에게 파리가 꼬이고 이가 들끓으며 배고픔이 몰아치는 것 또한 하늘의 벌이겠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만약 종자들이 모시는 기사의 자식이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 죄의 대가가 네 대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사 가문이 키호테 가문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아무튼, 이제 그만 다시 몸을 뉘어 남은 밤이라도 조금 자둡시다. 하늘이 도우시면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요."라고 산초가 말했다.

"자네는 잠이나 자게나, 산초."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자네는 잠을 자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말일세. 반면에 깨어 있으려 태어난 나는, 날이 밝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내 생각의 고삐를 풀어 헤치고, 어젯밤 기억 속에 미리 지어 두었던 짧은 노래 한 곡에 그 마음을 쏟아낼 참이라네."라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요," 산초가 대답했다. "노래를 지을 정도라면 그 생각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마음껏 노래를 지으십시오. 저는 제가 잘 수 있는 만큼 잘 테니까요."

그러고는 산초가 바닥에 널린 것을 마음껏 끌어모아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다. 어떤 보증이나 빚, 혹은 그 어떤 고통도 산초의 단잠을 방해하지 못했다. 한편 돈키호테는—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 나무가 너도밤나무인지 코르크참나무인지 구분하지 않았다—너도밤나무나 코르크참나무의 밑동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자신의 한숨 소리에 맞춰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불렀다.

"사랑이여, 그대가 내게 주는 그 무시무시하고 강렬한 고통을 생각할 때면, 나는 이 거대한 불행을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노라. 하지만 고통의 바다에서 안식처가 되어줄 그 지점에 다다르면,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 생명이 다시금 솟구치니 차마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노라. 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를 죽이고, 죽음은 다시 나에게 생명을 선사하는구나. 오, 이 얼마나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운명이란 말인가! 죽음과 삶을 동시에 내게 휘두르는 이 운명이여!"

돈키호테는 노래 한 구절을 읊을 때마다 수많은 한숨을 내쉬었고 눈물도 적지 않게 흘렸다. 패배의 고통과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곁에 없다는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때 마침 날이 밝아왔다. 태양 빛이 산초 판사의 눈을 내리쬐자, 그는 잠에서 깨어나 나른한 팔다리를 두드리고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다. 산초는 돼지 떼가 자신의 간식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는, 돼지 떼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다 해가 저물 무렵, 말 탄 사람 열 명과 걷는 사람 대여섯 명이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 돈키호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산초 판사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다가오는 사람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처럼 험악한 기세로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가 산초 판사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산초야, 내가 무예를 펼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 맹세 때문에 두 팔이 묶여 있지만 않다면, 우리에게 달려오는 저 무리쯤은 나에게 식은 죽 먹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르겠구나."라고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때 말 탄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을 높이 치켜들고는 돈키호테를 에워쌌다. 그러고는 돈키호테의 등과 가슴에 창끝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보행자 중 한 명은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로시난테의 고삐를 잡아채 길 밖으로 끌어냈다. 나머지 보행자들도 산초 판사와 그의 나귀

를 앞세워 데려갔다. 그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며 돈키호테를 이끄는 자의 뒤를 따랐다. 돈키호테는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두세 번이나 물으려 했다. 하지만 입술을 떼려 할 때마다 창끝이 입을 막아버렸다. 산초 판사도 마찬가지였다. 산초가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보행자 중 한 명이 찌르는 막대기로 그를 찔러댔고, 나귀 역시 마치 말을 하려는 듯이 똑같이 찔려댔다.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붙잡혀 가는 두 사람의 공포는 점점 커져만 갔는데, 이따금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걸어라, 이 야만인들아!"

"조용히 해라, 이 야만인들아!"

"돈 내놔라, 이 식인종 놈들아!"

"불평하지 마라, 이 괴물들아! 눈을 뜨지 마라, 폴리페모스 같은 살인마들아, 사자 같은 도살자 놈들아!"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이름들을 연달아 퍼부으며, 불쌍한 주인과 종의 귀를 괴롭혔다. 산초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멧비둘기라고? 우리가 이발사나 걸레라고? 우리가 무슨 괴물이라는 거야? 이런 이름들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운수가 사나운 날이구먼. 개한테 매질하듯 온갖 불운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말이야. 제발 이 불행한 소동이 저 사람들한테만 딱 멈췄으면 좋겠네!"

돈키호테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그 이름들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있었다. 다만 그 욕설 섞인 이름들을 들어보니 좋은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끔찍한 재앙만 닥칠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던 중 밤이 한 시간쯤 깊었을 무렵, 두 사람은 어느 성에 도착했다. 돈키호테는 그곳이 공작의 성, 곧 얼마 전에 자신들이 머물렀던 바로 그 성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맙소사, 신이시여!" 방 안을 확인한 돈키호테가 외쳤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집은 분명 모든 것이 예의 바르고 정중한 곳인데, 패배한 자들에게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더 큰 재앙이 되는구나."

그들은 성의 중앙 뜰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마주한 화려한 장식과 모습은 그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동시에 두려움을 두 배로 키웠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제69장



제69장. 이 거대한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그 무엇보다도 기이하고도 새로운 사건에 대하여

말을 탄 이들이 내려와 보행자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산초와 돈키호테를 양옆에서 덥석 붙들어 안뜰로 데려갔다. 안뜰 주변에는 받침대에

꽂힌 커다란 횃불이 백 개 가까이 타오르고 있었고, 안뜰 회랑을 따라서는 오백 개가 넘는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 덕분에 밤이라 해도 어둠이 짙지 않아 대낮처럼 환했다. 안뜰 한가운데에는 바닥에서 두 자 정도 높이로 솟은 영구대(靈柩臺)가 있었는데, 그 위를 아주 커다란 검은 벨벳 차양으로 덮어 놓았다. 영구대 둘레 계단에는 백 개가 넘는 은제 촛대 위에서 하얀 밀랍 양초들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영구대 위에는 한 처녀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미모가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보이게 할 정도였다. 처녀는 비단 베개 위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여러 꽃을 엮어 만든 화관을 쓰고 있었다. 두 손은 가슴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는데, 그 손 사이에는 노랗게 빛나는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가 놓여 있었다.

안뜰 한쪽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 의자 두 개에는 인물 둘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손에는 홀을 들고 있어서, 진짜 왕이든 아니면 왕을 흉내 내는 사람이든 간에 분명 왕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 무대 옆에는 의자 두 개가 더 놓여 있었는데, 죄수들을 데려온 이들은 돈키호테와 산초를 그 의자에 앉혔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 입을 다물라고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돈키호테와 산초는 누가 말하지 말라고 시키기도 전에 이미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 경이로워 혀가 굳어버린 탓이었다.

이때 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두 명의 주요 인물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돈키호테는 그들이 바로 자신들을 손님으로 맞이해 준 공작과 공작부인이라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왕처럼 보이는 이들 옆에

놓인 아주 호화로운 의자 두 개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돈키호테는 무덤 위에 놓인 시신이 바로 그 아름다운 알티시도라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 더욱 그러했다.

공작과 공작부인이 무대 위로 올라오자, 돈키호테와 산초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다. 공작 부부 또한 고개를 약간 숙이며 똑같이 답례했다.

이때 한 집행관이 옆에서 가로질러 나오더니 산초에게 다가갔다. 그는 산초에게 불꽃 무늬가 가득 그려진 검은 천옷을 덮어씌웠다. 그러고는 산초가 쓰고 있던 두건을 벗기더니, 종교재판소에서 처벌받은 죄인들이 쓰는 것과 같은 고깔을 머리에 씌웠다. 집행관은 산초의 귓가에 대고, 입을 열면 재갈을 물리거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니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속삭였다. 산초는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몸이 타지는 않았기에 그 불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산초는 악마 무늬가 그려진 그 고깔을 벗어 들여다보고는, 다시 머리에 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다행이지, 불길이 나를 태우지도 않고 저놈들이 나를 끌고 가지도 않으니 말이야."

돈키호테 역시 산초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온몸의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으나, 산초의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자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때 갑자기 무덤 아래에서 플루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곳은 정적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곳이라, 사

람의 목소리에 방해받지 않은 음악 소리는 한층 더 부드럽고 애틋하게 울려 퍼졌다. 이어 죽은 듯 누워 있는 여인의 베개 곁으로 로마식 의복을 차려입은 아름다운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직접 하프를 연주하며, 아주 부드럽고 맑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을 노래했다.

돈키호테의 잔혹함에 숨져버린 알티시도라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마법에 걸린 궁정에서 귀부인들이 거친 피코테 천 옷을 걸칠 때까지, 그리고 나의 여인께서 당신의 시녀들에게 거친 모직과 서지 천 옷을 입히실 때까지, 나는 트라키아의 가수보다 더 훌륭한 솜씨로 그녀의 아름다움과 불행을 노래하리라. 이 노래가 살아 있는 동안만의 내 소임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니, 입안에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혀로도 마땅히 당신께 바쳐야 할 목소리를 내리라. 좁은 바위 같은 육신에서 풀려난 나의 영혼이 스틱스 호수를 건너갈 때에도 당신을 찬미하며 가리니, 그 노랫소리는 망각의 강물마저 멈추게 하리라.

"그만하게." 이때 왕처럼 보이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만하게나, 신성한 가수여. 지금 이 자리에서 비할 데 없는 알티시도라의 죽음과 영광을 다시 재현하려 드는 건 끝도 없는 짓이 될 것이네.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명성의 입술을 통해 살아있네. 또한 여기 있는 산초 판사가 잃어버린 빛을 되찾기 위해 겪어야 할 고난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있지. 그러니 오, 리테의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함께 심판을 맡고 있는 라다만토여! 이 처녀가 다시 깨어나는 일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운명이 정해놓은 모든 것을 그대는 알고 있으니, 어서 그것을 말하고 밝혀주게. 그녀가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이 복된 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말이네."

라다만토의 동료이자 재판관인 미노스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라다만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 집의 모든 관리들은 위아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사람 모두 하나둘씩 차례로 달려들어, 산초의 얼굴을 스물네 번 때리고, 열두 번 꼬집고, 팔과 등에 여섯 번 바늘을 찔러라! 이 의식을 치러야만 알티시도라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산초 판사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말했다.

"맙소사, 내 얼굴을 때리게 두거나 얼굴을 주물럭거리게 두느니 차라리 무어인이 되고 말겠소! 이런 기막힐 노릇이 있나! 내 얼굴을 만지는 게 이 처녀를 되살리는 것과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할멈이 비름나물에 맛 들이듯, 한번 재미 붙이니 끝이 없구먼. 둘시네아는 마법에 걸렸는데 그걸 풀겠다고 매는 내가 맞고, 알티시도라는 하느님이 내리신 병으로 죽었는데 그녀를 살리겠다고 내 얼굴을 스물네 번 때리고, 바늘로 온몸을 벌집처럼 쑤시고, 꼬집어서 내 팔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겠다? 그런 장난은 처남한테나 치시오. 나는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개라, 나한테 '워리, 워리' 해봤자 안 통하니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다만토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 맹수 같은 놈아, 기세를 꺾고 엎드려라! 오만한 넴브로트처럼 굴지 말고, 감내하며 입을 다물어라. 네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일의 복잡한 사정 따위를 캐묻지 마라. 너는 입맞춤을 받아내야 하고, 바늘에 찔려야 하며, 꼬집히는 고통에 신음해야만 한다. 자, 집행관들이여, 내 명령을 수행하라!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선량한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너희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마침 안뜰로 여섯 명의 부인이 한 사람씩 줄지어 행렬을 이루며 들어오는 듯했다. 그중 네 명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모두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는데, 요즘 유행대로 손을 더 길어 보이게 하려고 소맷부리 밖으로 손목을 네 손가락 너비만큼 드러내고 있었다. 산초는 그들을 보자마자 황소처럼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누구든 내 몸을 함부로 만지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귀부인들이 나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절대 안 돼! 내 주인이 이 성에서 당했던 것처럼 내 얼굴을 마구 할퀴어도 좋다. 속이 빈 단검 끝으로 내 몸을 찔러도 좋다. 불집게로 내 팔을 붙잡아도 좋다. 그 정도는 꾹 참아낼 수 있고, 이 귀하신 분들을 모시는 일이라 생각하며 견딜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악마가 나를 끌고 간다 해도, 귀부인들이 나를 건드리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 못 한다!"

그때 돈키호테도 침묵을 깨고 산초에게 말했다.

"참고 견뎌라, 아들아. 이 귀하신 분들을 기쁘게 해 드려야지. 네 몸에 그런 신비한 능력이 깃들게 해주신 하늘의 은총에 감사드려야 한다.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 마법에 걸린 자들을 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게 해주셨으니 말이다."

부인들이 산초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마음이 누그러지고 설득당한 산초는 의자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 첫 번째 부인에게 얼굴과 수염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아주 야무지게 산초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는, 이어 정중하게 절을 했다.

"예의는 그만 차리시고 화장도 그만하시오, 부인! —산초가 말했다—. 맙소사, 손에서 화장용 식초 냄새가 진동하는구려!"

결국 부인들이 모두 산초의 얼굴을 때렸고, 저택의 다른 사람들도 그를 꼬집어댔다. 하지만 산초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었다. 결국 산초는 화가 난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옆에 놓여 있던 불붙은 횃불을 움켜쥐고는 자신을 괴롭힌 부인들과 형리들을 향해 달려들며 이렇게 외쳤다.

"물러가라, 이 지옥의 악마들아! 내가 무슨 청동상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때, 오랫동안 누워 있느라 몸이 뻐근했을 알티시도라가 몸을 옆으로 뒤척였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거의 일제히 한목소리로 외쳤다.

"알티시도라 만세! 알티시도라가 살아났다!"

라다만토는 산초에게 화를 가라앉히라고 명령했다. 이미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돈키호테는 알티시도라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자마자 산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내 종자라기보다 차라리 내 분신 같은 아들아.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기 위해 네가 스스로에게 가하기로 한 매질을 이제 그 가운데 얼마라도 시작하거라. 지금이야말로 네 안에 깃든 능력이 무르익어, 네게 기대되는 선한 일을 효험 있게 해낼 바로 그때란 말이다."

그러자 산초가 대답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달콤하기는커녕 아주 고약하기 짝이 없다고요! 꼬집고 빨고 바늘로 찌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제는 아예 매질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그럴 거면 차라리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와서 내 목에 묶어놓고 우물에 던져버리시지 그래요? 남의 병을 고치겠다고 내가 잔칫상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안 그러면 맹세코 다 때려치우고 다 망쳐버릴 테니까요!"

그때 알티시도라가 무덤 위에 앉았고, 그와 동시에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이어 플루트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모두가 이렇게 외쳤다.

"알티시도라 만세! 알티시도라 만세!"

공작 부부와 미노스, 라다만테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돈키호테와 산초도 함께 일어나 모두가 힘을 모아 알티시도라를 맞이하며 무덤 위에서 내려오게 했다. 알티시도라는 정신을 잃은 척하며 공작 부부와 왕

들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러고는 돈키호테를 곁눈질로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사랑 없는 기사여, 신께서 그대의 죄를 용서하시길! 그대의 잔인함 때문에 나는 저세상에서 천 년은 넘게 있었던 것만 같소. 그리고 온 세상을 품을 만큼 자비로운 종자여, 그대 덕분에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정말 고맙소. 산초, 내 친구여, 오늘부터 내가 보내주는 내 셔츠 여섯 벌을 마음대로 쓰게. 그것으로 자네 셔츠 여섯 벌을 새로 지으시게. 비록 다 성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모두 깨끗하기는 하다네."

산초는 고깔을 손에 쥐고 무릎을 꿇은 채, 감격하여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공작은 산초의 머리에서 고깔을 벗기고 원래 쓰던 모자를 다시 씌우게 한 뒤, 불꽃 무늬 옷을 벗기고 겉옷을 입히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산초는 이 기이한 사건을 기념하고 증표로 삼고 싶다며, 그 옷과 고깔을 고향으로 가져가게 해달라고 공작에게 간청했다. 공작부인은 산초가 이미 알고 있듯이 자신이 얼마나 큰 호의를 베푸는 친구인지 잘 알 것이라며, 옷을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공작은 마당을 정리하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물러나게 했으며, 돈키호테와 산초는 이미 알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라고 명령했다.

제70장



제70장. 69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를 명확히 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그날 밤 산초 판사는 돈키호테와 같은 방에 놓인 간이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이었으나, 산초는 주인님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느라 자기를 재워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었다. 게다가 그 자신도 말을 많이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으니, 지난날 당한 고초의 통증이 여전히 생생하여 혀를 마음대로 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화려한 방에서 누군가와 함께 자느니 차라리 오두막에서 홀로 자는 편이 훨씬 낫겠다고 여겼다. 그런데 그 걱정은 너무나 현실로 들어맞았고 의구심 또한 확신이 되고 말았다. 주인님이 침상에 눕자마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산초야, 오늘 밤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 없는 냉대가 지닌 힘은 참으로 거대하고도 강력하구나. 네 눈으로 직접 보았듯이, 알티시도라는 다른 화살이나 칼, 그 어떤 무기로도, 혹은 치명적인 독약으로도 죽은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그동안 그녀를 대했던 그 가혹하고 냉담한 태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로다."

"그 여자가 원할 때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버린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차라리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평생 그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냉대한 적도 없으니까요. 분별력보다 변덕이 더 심한 처녀인 알티시도라의 건강이,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저 산초 판사가 겪는 고초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야 세상에 마법사와 마법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느님, 저를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주인님께서 저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제발 저를 좀 재워주시고 더는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잘 자거라, 친구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받은 그 핀에 찔린 상처와 꼬집힘, 그리고 얼굴에 맞은 따귀가 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 어떤 고통도" 산초가 대답했다. "그 따귀의 치욕만큼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시녀(두에냐)가 제게 그 짓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 망할 것들 같으니! 주인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를 좀 재워 주십시오. 잠이야말로 고통 속에 깨어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위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거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신의 가호가 너와 함께하기를."

두 사람은 잠이 들었다. 그사이 이 거대한 이야기의 저자인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공작 부부가 어째서 앞서 말한 정교한 무대 장치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자 했다. 기록에 따르면, 산손 카라스코는 '거울의 기사'가 돈키호테에게 패배하여 쓰러졌던 일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패배와 추락으로 인해 산손 카라스코가 세웠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그는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했던 그 시종에게서 돈키호테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알아냈다. 그러고는 새로운 무기와 말을 구한 뒤 방패에는 하얀 달을 그려 넣었다. 그는 산초나 돈키호테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예전 종자였던 토메 세시알 대신 농부 한 명을 앞세워 노새에 그 모든 것을 싣고 나타났다.

그리하여 산손 카라스코는 공작의 성에 도착했다. 그는 돈키호테가 사라고사에서 열리는 마상 시합에 참가하려 한다는 사실과 그가 지나온 경로를 알아냈다. 또한 공작 부부가 둘시네아의 마법을 풀어준다는 핑계로 산초 판사를 골려주었던 일도 들었다. 그 마법 풀기는 산초의 엉덩이를 대가로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산초가 주인에게 저질렀던 장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다. 산초는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려 농가 여인으로 변해버렸다고 돈키호테를 속였는데, 이때 공작부인이 산초에게 둘시네아가 정말로 마법에 걸린 것이니 네가 속고 있는 것이라고 부추겼다는 내용이었다. 산손 카라스코는 산초의 영악함과 단순함, 그리고 돈키호테의 광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떠올리며 그 이야기를 듣고 꽤나 크게 웃으며 감탄했다.

공작은 산손 카라스코에게 만약 돈키호테를 발견하게 되면, 그를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반드시 돌아와서 그간의 일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학사 산손 카라스코는 그 부탁을 따랐다. 그는 돈키호테를 찾아 길을 떠났으나 사라가사에서는 그를 찾지 못했고, 더 멀리 나아갔다. 그러다 뒤에 서술될 일들을 겪게 되었다.

산손 카라스코는 공작의 성으로 돌아가 전투 조건과 함께 그간의 일을 전부 이야기했다. 또한 돈키호테가 훌륭한 기사답게, 일 년 동안 고향 마을로 물러나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는 중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학사는 돈키호테가 그 일 년 동안 광기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키호테처럼 식견이 뛰어난 귀족이 미쳐 지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에, 그 광기를 고쳐보고자 변장을 하고 나

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공작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그리고 뒤따라올 돈키호테를 기다렸다.

공작은 이 기회를 틈타 그들을 골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산초 판사와 돈키호테가 벌이는 소동이 워낙 즐거웠기 때문이다. 공작은 돈키호테가 돌아올 만한 길목을 성 근처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샅샅이 상상하여 정해두고, 도보와 기마 하인들을 잔뜩 보냈다. 만약 돈키호테를 발견하면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성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마침내 하인들이 돈키호테를 찾아냈고 공작에게 소식을 전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공작은 돈키호테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안뜰의 횃불과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모든 장식과 함께 알티시도라를 무덤 위에 올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생생하고 정교한지, 실제 상황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이렇게 덧붙인다. 남을 골리는 자들이나 골림을 당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미친 자들이라고 그는 여긴다는 것이다. 두 명의 바보를 골려주려고 그토록 열을 올린 것을 보면, 공작 부부 역시 바보로 보이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명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다른 한 명은 걷잡을 수 없는 생각에 잠겨 밤을 지새우는 사이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 두 사람은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승패와 상관없이, 게으르게 누워 있는 시간은 돈키호테에게 결코 즐거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눈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인 알티시도라는 주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무덤 위에 놓여

있던 것과 똑같은 화환을 머리에 쓰고, 금빛 꽃무늬가 수놓아진 흰색 타프타 소재의 짧은 겉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등 뒤로 길게 늘어뜨린 채 아주 가느다란 검은 흑단 지팡이에 몸을 기댄 모습이었다. 그녀가 돈키호테의 방으로 들어서자, 돈키호테는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침대 시트와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거의 다 가려버렸다. 그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힌 나머지 제대로 된 인사조차 건네지 못했다. 알티시도라는 돈키호테의 머리맡 옆 의자에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가냘프고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체 높은 여인들이나 정숙한 처녀들이 명예를 지키려 애쓰다가, 마음속에 품은 비밀을 세상에 다 떠벌리며 앞뒤 가리지 않고 입을 놀리게 되면,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됩니다. 라만차의 귀하신 돈키호테님, 저 또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억눌리고, 짓밟히고, 사랑에 패배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인내하며 품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너무나도 그러하고자 애썼던 나머지, 침묵을 지키느라 영혼이 타들어 갔고 결국 목숨까지 잃고 만 것이지요. 당신이 저를 그토록 냉정하게 대하신 것을 생각하면, 벌써 이틀이나 지났습니다만,"

"오, 저의 애달픈 호소에도 대리석처럼 차갑기만 하신 분이여,"

"무정한 기사님이시여! 저는 죽어 있었거나, 적어도 저를 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사랑이 저를 가엽게 여겨, 이 충직한 종자의 고난 속에 저를 구할 방책을 맡겨두지 않았더라면, 저는 저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 방책을 차라리 제 당나귀의 고난에다 맡겨두었더라면, 저야말로 오히려 고마워했을 텐데요." 산초가 말했다. "그건 그렇고 부인, 부디 하늘이 제 주인님보다 훨씬 다정한 연인을 점지해 주시길 빕니다만, 저세상에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지옥에는 무엇이 있던가요? 절망에 빠져 죽은 사람이라면 분명 그곳에 가 있을 테니까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저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나 봐요.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만약 지옥에 들어갔더라면,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사실 저는 지옥 문턱까지 갔답니다. 그곳에서는 악마 열두 명쯤 되는 무리가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악마들은 모두 호박바지와 상의 차림이었는데, 플랑드르식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옷깃을 달았고, 같은 레이스로 된 소맷부리를 둘렀더군요. 그 소맷부리 밖으로 팔이 네 손가락 정도 튀어나와 있어서 마치 손이 아주 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 손에는 불타는 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공 대신 책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겉보기에는 바람과 솜뭉치만 가득 찬 것 같은 책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고 생소한 광경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보통 경기에서는 이긴 사람이 기뻐하고 진 사람이 슬퍼하기 마련인데, 그곳에서는 경기를 하는 모두가 투덜대고, 모두가 화를 내며, 서로를 저주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놀랄 일도 아니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악마라는 놈들은 경기를 하든 안 하든, 이기든 지든 간에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던 건데, 공을 한 번만 휘둘러도 멀쩡한 공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멀쩡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 책이든 헌 책이든 끊임없이 갈아치우는데, 그 광경이 정말 가관이었죠. 그중에는 아주 새것이고 번듯하게 제본까지 잘 된 책도 있었는데, 어떤 악마가 그걸 한 대 탁 쳐서 속을 다 털어버리고 종이 낱장들을 사방으로 흩뿌려 놓더라고요. 그러자 한 악마가 다른 악마에게 말했어요. '저게 대체 무슨 책인지 좀 봐.' 그러자 다른 악마가 대답했죠. '저건 라만차의 돈키호테 이야기를 다룬 제2편이야. 첫 번째 저자인 시데 아메테가 쓴 게 아니라, 자기가 토르데시야스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아라곤 사람이 쓴 거지.' 그러자 처음 악마가 말했어요. '어서 저걸 치워버려! 지옥의 심연 속으로 던져버리라고. 내 눈에 다시는 안 보이게 말이야.' '그렇게나 나쁜 책이야?' 다른 악마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주 나쁘지.' 첫 번째 악마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더 나쁘게 고쳐 쓰려고 해도 도저히 못 할 정도로 말이야.' 악마들은 다시 다른 책들을 공 삼아 주고받으며 경기를 계속했어요. 저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돈키호테의 이름이 들리기에, 이 환상을 꼭 기억해 두려고 애를 썼답니다."

"분명 환상이었을 게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이미 여기저기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어느 손에도 머물지 못한단다. 다들 그 이야기를 발로 차버리듯 내팽개치니까 말이다. 그 이야기가 지옥의 어둠 속을 떠도는 유령처럼 돌아다닌다는 말을 들었어도 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세상

의 밝은 곳을 떠도는 것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이야기가 훌륭하고 충실하며 진실하다면 수백 년 동안 살아남겠지만, 만약 나쁜 이야기라면 태어난 순간부터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그리 길지는 못할 것이다."

알티시도라가 돈키호테에 대해 불평을 이어가려 할 때, 돈키호테가 그녀에게 말했다.

"부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저를 생각해주시는 것이 제게는 오히려 마음의 짐이라고 말입니다. 제 생각은 보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외면당하기 일쑤니까요. 저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운명 또한 저를 그녀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영혼이 차지하고 있는 그녀의 자리를 다른 어떤 미인이 대신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불가능한 일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깨달으셨으리라 믿으니, 이제 그만 품위를 지키며 물러나 주십시오. 아무도 불가능한 일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 말을 들은 알티시도라는 화가 나고 마음이 뒤숭숭한 기색을 내비치며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맹세코, 이 말린 대구 같은 양반아, 절구통 영혼에 대추씨 같은 인간아, 졸라도 제 고집만 부리는 촌놈보다 더 고집 세고 모진 양반아, 내가 달려들면 당신 눈알을 뽑아버리고 말 테야! 이 패배자에다 흠씬 두들겨 맞은 양반아, 혹시 내가 당신 때문에 죽기라도 한 줄 아는 거야? 오늘 밤 당신이 본 건 전부 꾸며낸 거라고! 난 그깟 멍청이 같은 자들

때문에 손톱 끝의 때만큼도 아파할 여자가 아니야. 하물며 죽는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산초 판사가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죽네 사네 하는 건 다 웃기는 소리죠. 말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는 유다라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앞서 언급한 두 구절을 노래했던 음악가이자 가수, 그리고 시인이 들어왔다. 그는 돈키호테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기사님,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사님을 흠모하는 가장 충실한 종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그 명성과 무훈을 익히 들어 흠모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까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기사님, 부디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당신의 품격에 걸맞은 예우를 갖출 수 있을 테니까요."

그 하인이 대답했다. 자신은 어젯밤에 왔던 음악가이자 찬양사라고 말이다.

"그나저나,"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무척 빼어나시더군요. 하지만 부르신 노래는 상황에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르실라소의 시 구절이 이 귀부인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놀라실 것 없습니다." 음악가가 대답했다. "요즘처럼 배움이 부족한 시인들 사이에서는 제멋대로 글을 쓰고, 의도한 바와 맞든 맞지 않든 누구의 것이든 마음대로 훔쳐 쓰는 게 유행이니까요. 이제는 노래나 글에 담긴 어떤 어리석은 내용이라도 '시적 허용'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하고 마는 세상입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하려 했으나, 마침 그를 보러 들어온 공작과 공작부인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 사이에는 길고 즐거운 대화가 오갔는데, 그 와중에 산초 판사가 워낙 익살스럽고도 영악하게 말을 주고받는 바람에 공작 부부는 산초의 순박함과 재치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말았다. 돈키호테는 그날 바로 떠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다. 자신처럼 패배한 기사에게는 화려한 궁전보다 차라리 헛간이 더 어울린다는 이유였다. 공작 부부는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러자 공작부인이 알티시도라가 여전히 자신의 은총을 입고 있는지 물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부인, 이 처녀가 겪는 모든 불행은 그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그 해결책은 건전하고 꾸준한 일거리를 갖는 것뿐입니다. 그녀가 제게 말하기를, 지옥에서도 레이스를 쓴다더군요. 그녀가 레이스를 짤 줄 안다면, 제발 그 일을 손에서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레이스 막대를 놀리는 일에 정신을 쏟느라, 마음속에 품은 연인의 모습이 환상처럼 떠오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며, 제 생각이고,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산초 판사가 덧붙였다. "제 평생을 통틀어 사랑 때문에 죽은 레이스 짜는 여인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일에 몰두하는 처녀들은 연애 생각보다는 눈앞의 일을 끝내는 데 온 정신을 쏟는 법입니다.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 말입니다. 저는 땅을 파고 있을 때면 제 아내 테레사 판사 생각은 눈곱만큼도 나지 않거든요. 제 눈썹보다 더 아끼는 아내인데도 말입니다."

"산초 판사, 당신 말이 아주 옳아요." 공작부인이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 알티시도라가 자수라도 부지런히 하게 해야겠군요. 그 아이가 자수 솜씨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마님." 알티시도라가 대답했다. "이 무지몽매한 놈이 저에게 저지른 잔혹한 짓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다른 어떤 수단을 쓰지 않고도 그놈을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님의 허락을 구하오니, 저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놈의 슬픈 모습이 아니라, 흉측하고 가증스러운 몰골뿐이라서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군요." 공작이 말했다. "흔히들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모욕을 퍼붓는 자는 용서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법이지요." 공작이 말했다.

알티시도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시늉을 하더니, 주인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는 방을 나갔다.

"가련한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당신은 참으로 운도 없구려. 속은 짚단으로 채우고 마음은 통나무로 만든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오. 맹세컨대, 만약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상황이 아주 딴판이었을 텐데 말이오!" 산초가 말했다.

대화가 끝나자 돈키호테는 옷을 갖춰 입고 공작 부부와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그날 오후 길을 떠났다.

제71장



제71장. 돈키호테가 종자 산초와 함께 그의 마을로 가던 중 겪게 된 일에 대하여

패배의 쓴맛을 삼키며 길을 나선 돈키호테는 한편으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기분이 좋았다. 패배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지만, 산초가 보여준 능력이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다. 알티시도라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산초가 보여준 그 능력을 생각하면

말이다. 물론 그 사랑에 빠진 처녀가 정말로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긴 했지만 말이다. 반면 산초는 전혀 즐겁지 않았다. 알티시도라가 셔츠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못내 서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길을 가던 산초가 주인에게 말을 건넸다.

"주인님, 정말이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의사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환자를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죽여놓고도 제 수고비를 챙기려는 의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자기가 직접 짓지도 않고 약사가 짓는 약 처방전에 서명이나 해주는 것뿐인데, 그러고도 감쪽같이 돈을 받아 챙기죠. 그런데 남의 건강을 돌보느라 피눈물을 흘리고, 꼬집히고, 바늘에 찔리고, 매까지 맞으며 고생하는 저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맹세컨대, 다음에 또 다른 환자가 제 손에 맡겨진다면, 그를 고치기 전에 먼저 제 손에 기름칠부터, 그러니까 돈부터 쥐여줘야 할 겁니다. 노래 부르는 곳에서 밥도 먹는 법인데, 하늘이 제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남들에게 거저 베풀라고 그러신 거라고는 도무지 믿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말이 옳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알티시도라가 약속한 셔츠를 주지 않은 건 정말 잘못한 일이다. 게다가 네 미덕은 아무런 공부도 들이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이긴 하다만, 네 몸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공부보다도 값진 것이지. 내 너에게 분명히 말해두마. 둘시네아의 마법을 푸는 그 매질의 대가를 네가 요구했더라면, 내 진작 넉넉하게 치러 주었을 것이다. 다만 그 보수가 치료와 잘 어울릴지 모르겠고, 보수 때문에 약효가 가로막히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렇더라도 한번 시험해 본다고 손해 볼 건 없을 듯하구나. 자, 산초야, 받고 싶은 만큼 네가 정하고, 어서 매를 맞아라. 그러고는 내 돈이 네 손에 있으니 그 돈으로 직접 현금으로 네 삯을 치르려무나."

산초는 그 제안을 듣자마자 눈과 귀를 번쩍 뜨더니, 속으로는 기꺼이 매를 맞겠노라 마음먹고 주인에게 말했다.

"자, 주인님.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제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제 실속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인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얼마를 주실 건가요?"

"산초야, 만약 내가 이 처방이 지닌 위엄과 가치에 걸맞게 보상을 하려 한다면, 베네치아의 보물이나 포토시의 은광을 다 가져온다 해도 네 몫을 다 치르기엔 부족할 것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그러니 네가 가진 내 돈을 적당히 살펴보고, 매 한 대당 얼마를 받을지 네가 직접 정하거라."

"그건 모두 3,300대하고 몇 대 더 됩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그중에서 제가 이미 다섯 대를 때렸으니 나머지가 남았지요. 그 다섯 대는 '몇 대 더'에 끼워 넣고, 깔끔하게 3,300대로 잡읍시다. 한 대당 1쿠아르티요씩 — 온 세상이 저더러 그러라고 명령해도 그보다 덜은 못 받습니다 — 치면 모두 3,300쿠아르티요가 됩니다. 그중 3,000쿠아르티요는 1,500메디오 레알이 되고, 이는 750레알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300쿠아르티요는 150메디오 레알, 곧 75레알이 됩니다. 이 75레알을

앞서의 750레알과 합치면 전부 825레알이 되는 셈입니다. 이 돈을 주인님께 받은 돈에서 떼어 내면, 저는 매를 호되게 맞긴 했어도 부자가 되어 흐뭇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수고 없이는 송어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 복된 산초야! 오, 친절한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삶의 매일매일 동안, 나와 둘시네아는 네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인가! 만약 그녀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그녀의 불행은 곧 행복이 되고 나의 패배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될 것이다. 자, 산초야, 언제 이 매질을 시작하고 싶은지 말해 보거라. 네가 일을 빨리 끝내려 한다면 내가 100레알을 더 얹어 주마."

"언제 말입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오늘 밤,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주인님께서는 우리가 탁 트인 하늘 아래 들판에서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갗을 드러내 놓고 제 몸을 칠 수 있으니까요."

밤이 찾아왔다. 돈키호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밤을 기다렸기에, 마치 아폴로의 수레바퀴가 부러져 버린 듯 낮이 평소보다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이는 결코 제 욕망의 셈을 맞추지 못하는 연인들이 으레 겪는 일과도 같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운치 있는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로시난테의 안장과 잿빛 당나귀의 길마를 벗겨 놓은 뒤, 푸른 풀밭에 드러누워 산초가 챙겨 온 음식으로 저녁

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산초는 당나귀의 고삐와 굴레로 튼튼하고 낭창낭창한 채찍을 만들더니, 너도밤나무 숲 사이로 주인에게서 스무 걸음쯤 떨어진 곳까지 물러났다. 돈키호테는 산초가 기운차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친구, 너무 무리해서 몸이 망가지게 하지는 말게나. 매질을 한 번 하고 나서 다음 매를 맞을 수 있도록 적당히 조절해야 해. 너무 서둘러 달리다가 중간에 숨이 차 버리면 안 되니까 말이야. 내 말은, 목표한 횟수를 채우기도 전에 기운이 다 빠져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라네. 그리고 자네가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더 보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묵주를 셈하듯 자네가 맞는 매의 횟수를 하나하나 세고 있겠네. 자네의 그 선한 의도에 걸맞게 하늘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바라네."

"제값을 받는 사람에게는 매가 아프지 않은 법이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저는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딱 아플 만큼만 맞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이 기적의 참뜻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산초는 곧 상체를 드러내고는 밧줄을 낚아채 제 몸을 때리기 시작했고, 돈키호테는 그 매질의 횟수를 세기 시작했다.

산초가 대여섯 대에서 여덟 대 정도를 때렸을 무렵, 그는 이 농담이 너무 가혹한 데 비해 대가는 너무 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잠시 매질을 멈추더니, 주인에게 자신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 한 대당 4쿠아르티요가 아니라, 최소한 반 레알은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계속하게나, 산초 친구여. 기운을 잃지 말게." 돈키호테가 말했다. "내가 매 한 대당 가격을 두 배로 올려주겠네."

"그렇게 합시다." 산초가 말했다. "신의 손에 맡기고, 매질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길!"

하지만 영악한 산초는 더 이상 돈키호테의 등짝을 때리지 않고 나무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산초는 가끔씩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한숨을 쉴 때마다 영혼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처럼 들릴 정도였다. 돈키호테는 마음이 약해졌다. 산초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정작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다.

"여보게 친구,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세. 이 처방은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겠네. 자모라를 단 한 시간만에 얻을 수는 없는 법 아니겠나. 내가 잘못 센 게 아니라면 자네는 이미 천 대가 넘는 매를 맞았네.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해. 거칠게 표현하자면, 나귀도 짐을 질 수는 있지만 짐이 너무 무거우면 버티지 못하는 법이라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산초가 대답했다. "'돈을 받았으니 팔이 부러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말은 제 입으로 차마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으리께서는 조금만 더 물러나 계십시오. 제가 딱 천 대만 더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만 더 하면 이번 할당량은 다 채우고도 옷감이 남을 정도가 될 테니까요."

"자네가 그렇게까지 의욕이 넘친다면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하늘이 자네를 돕기를 빌겠네. 그럼 어서 매를 맞게나. 나는 이만 물러나 있으리다."

산초는 다시 아주 기세 좋게 매질에 매달렸는데, 어찌나 매섭게 매질을 해 댔던지 이미 여러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나갈 정도였다. 그러다 한 번은 목소리를 높이며 너도밤나무 한 그루를 무지막지하게 후려치고는 이렇게 외쳤다.

"여기서 죽어라, 산손! 너와 함께 있는 놈들도 다 같이 죽어라!"

돈키호테는 그 애처로운 비명과 매서운 매질 소리를 듣고 곧장 달려갔다. 그러고는 산초가 채찍 삼아 쓰던 뒤틀린 고삐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산초, 내 친구여. 나를 즐겁게 하겠다고 자네가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네. 자네의 목숨은 아내와 자식들을 부양하는 데 쓰여야 할 소중한 것이니까. 둘시네아께서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려 보세. 나는 그저 가까운 희망의 테두리 안에서 자제하며 기다릴 테니, 자네가 기운을 차려서 우리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말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다리겠네."

"그렇다면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요." 산초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자, 어서 주인님의 외투를 벗어 제 등에 덮어 주십시오. 지금 땀이 비 오듯 흘러서 이대로 있다간 감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갓 시작한 고행자들은 다들 이런 위험을 겪는다고 하더군요."

돈키호테는 산초가 말한 대로 해 주었다. 자신은 알몸이 된 채로 산초를 감싸 주었고, 산초는 해가 떠서 깨울 때까지 곤히 잠을 잤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나, 그곳에서 세 레구아쯤 떨어진 어느 마을에 이르러 일단 그날의 여정을 마쳤다. 두 사람은 한 객줏집에 짐을 풀었는데, 돈키호테는 그곳을 깊은 해자와 탑과 쇠창살 문과 도개교를 갖춘 성이 아니라 그저 객줏집으로 알아보았다. 패배를 겪은 뒤로는 매사를 한결 분별 있게 헤아리게 되었던 것인데, 그 까닭은 곧 이야기될 것이다. 두 사람이 묵게 된 곳은 1층 방이었고, 그 방에는 시골에서 흔히 그러하듯 값비싼 가죽 벽걸이 대신 그림이 그려진 낡은 천 휘장이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에는 엘레나를 납치하는 장면이 아주 형편없는 솜씨로 그려져 있었는데, 대담한 손님이 메넬라오스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데려가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천에는 디도와 아이네아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디도는 높은 탑 위에서 이불 반 장을 흔들며, 프리깃선인지 범선인지를 타고 바다 건너로 달아나는 손님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돈키호테는 두 이야기 속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엘레나는 몰래 입가에 미소를 띠며 즐거워하는 듯하여 그리 내키지 않게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었으나, 아름다운 디도는 눈에서 호두만 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두 여인은 이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네. 하지만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로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 이분들을 만났더라면, 트로이는 불타지 않았을 것이고 카르타고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네. 내가 파리스

를 죽이기만 했어도 그토록 많은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일세."

"제 장담하건대," 산초가 말했다. "머지않아 술집이나 여관, 혹은 이발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모험담이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보다 훨씬 더 솜씨 좋은 화가가 우리 이야기를 그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말이 맞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 화가는 우베다에 살던 오르바네하라는 화가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 화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그리느냐고 물으면 그저 '나오는 대로 그립니다'라고 대답하곤 했지. 그러다 혹시라도 수탉을 그리게 되면, 사람들이 여우로 오해할까 봐 그 밑에 '이것은 수탉이다'라고 써놓을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산초야,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돈키호테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은 화가나 작가—사실 둘이 하나나 마찬가지겠지만—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구나.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거나 썼을 뿐이지. 아니면 예전에 궁정에서 활동하던 마울레온이라는 시인 같기도 하구나. 그 시인은 누가 무엇을 묻기만 하면 즉각 대답하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데움 데 데오(Deum de Deo)가 무슨 뜻입니까?'라고 묻자 '주는 데서 준다는 뜻이다(Dé donde diere)'라고 대답했다더구나.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이쯤 해두자꾸나. 산초야, 오늘 밤에 매를 한 차례 더 맞을 생각이 있느냐? 지붕이 있는 곳에서 맞고 싶으냐, 아니면 탁 트인 하늘 아래서 맞고 싶으냐?"

"맙소사, 주인님," 산초가 대답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매를 맞을 거라면 들판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맞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맞고 싶네요. 나무들이 저를 지켜봐 주는 것 같아서, 이 고된 일을 견디는 데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안 될 말이다, 산초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네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매 맞는 일은 우리 마을에 도착해서 하기로 하자꾸나. 아무리 늦어도 모레면 그곳에 도착할 테니까."

산초는 주인님 뜻대로 하시라고 대답하면서도, 이 일은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을 때, 즉 기세가 올랐을 때 얼른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일을 미루다 보면 위험이 닥치기 마련이라며, 기도만 하고 망치를 휘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중에 주겠다는 말 두 번보다 지금 당장 한 번 받는 것이 훨씬 낫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기다리느니 손안에 있는 새 한 마리를 챙기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산초야, 하느님 맙소사, 속담은 이제 그만 좀 해라." 돈키호테가 말했다. "너는 자꾸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구나.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복잡하게 꼬지 말고 그냥 쉽고 명쾌하게 말하거라. 그러면 훨씬 더 잘 통한다는 걸 알게 될 게다."

"제 팔자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산초가 대답했다. "속담을 안 쓰고는 제대로 말을 못 하겠고, 속담을 쓰자니 그게 다 맞는 말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일단 멈췄다.

제72장



제72장. 돈키호테와 산초가 어떻게 자신들의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그날 하루 종일 돈키호테와 산초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돈키호테는 평원에서의 기사 수행을 마무리하려 했고, 산초는 그 수행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자신이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

는 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말을 탄 한 나그네가 서너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인 중 한 명이 주인으로 보이는 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알바로 타르페 나리, 이곳에서 오늘 낮잠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관이 깨끗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산초야. 내 이야기의 제2편이라는 그 책을 훑어볼 때, 돈 알바로 타르페라는 이름을 스치듯 본 기억이 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산초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말에서 내리게 두시지요. 나중에 여쭤보면 될 테니까요."

기사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여관 안주인은 돈키호테의 방 맞은편에, 돈키호테의 방에 걸린 것과 같은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천으로 장식된 아래층 방을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기사는 여름용 옷으로 갈아입고는, 돈키호테가 거닐고 있던 넓고 시원한 여관 현관으로 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귀하신 신사분, 대체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제 고향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귀하신 신사분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나리."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조국인 그라나다로 가는 길입니다."

"참으로 좋은 조국이군요!"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의를 갖춰 말씀드리자면, 귀하신 신사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제 이름은 돈 알바로 타르페입니다."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돈키호테가 대답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이야말로 최근에 현대의 어느 저자에 의해 세상에 막 출판된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 이야기 제2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돈 알바로 타르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돈키호테는 나의 더없이 귀한 친구였지요. 내가 그를 고향에서 데리고 나왔거나, 적어도 내가 가던 길에 사라고사에서 열리는 마상 시합에 그가 참가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바로 나였답니다. 정말이지 나는 그에게 여러모로 두터운 우정을 베풀었으며, 그가 너무 무모하게 구는 바람에 사형 집행인에게 등을 매질당할 뻔한 것도 막아주었답니다."

"그렇다면 돈 알바로 경,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말하는 그 돈키호테라는 자와 조금이라도 닮았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키호테라는 자는," 우리 돈키호테가 물었습니다. "산초 판사라는 이름의 종자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그렇습니다, 데리고 다녔지요." 돈 알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익살스럽다는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가 농담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전혀 재미가 없었거든요."

"제 생각도 아주 그렇습니다." 이때 산초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귀하신 분,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산초라는 자는 분명 엄청난 악당이자 냉혈한에 도둑놈까지 겸비한 놈임이 틀림없습니다. 진짜 산초 판사는 바로 저 아닙니까? 저는 비가 쏟아지듯 재치가 넘치는 사람이라고요. 정 못 믿겠다면 직접 시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를 따라 적어도 일 년만 같이 지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얼마나 많은 농담을 던지는지 보게 될 겁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을 정도로, 제 말을 듣는 사람마다 웃음보를 터뜨리게 만들 테니까요. 그리고 저의 주인님이야말로 바로 여기 계신 진짜 돈키호테입니다. 그 유명하고 용맹하며 분별력 있고, 사랑에 빠졌으며,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아와 미망인을 돌보며, 처녀들을 사로잡고, 오직 유일한 여인으로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모시는 분이지요. 이분 말고 다른 돈키호테나 산초 판사가 있다면, 그건 다 조롱이거나 꿈속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세상에, 정말 그렇군요!" 돈 알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방금 자네가 네 마디 말 속에 담아낸 재치가, 내가 들어본 그 다른 산초 판사가 수없이 내뱉었던 말들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구먼. 내가 아는 그 놈은 말솜씨보다는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재치보다는 멍청함이 더 컸다네. 아무래도 착한 돈키호테를 괴롭히는 마법사들이, 나쁜 돈키호테를 앞세워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모양이야. 하지만 내가 뭐라고 말하겠나. 내가 장담컨대, 내가 알던 그 돈키호테는 치료를 받으라고 톨레도에 있는 교황 대리관 집에 맡겨두고 왔네. 그러니 지금 여기 남아 있는 다른 돈키호테는 내가 알던 분과는 전혀 다른 사람임이 틀림없네."

"저는 제가 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귀하신 돈 알바로 타르페 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사라고사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환상 속의 돈키호테라는 자가 사라고사의 마상 시합에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는, 세상의 거짓을 낱낱이 밝혀내고자 그 도시에 발을 들이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대신 저는 예절의 보고이자 이방인들의 안식처이며, 가난한 이들의 병원이자 용맹한 자들의 조국인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억울한 이들의 복수가 이루어지고 굳건한 우정이 꽃피는 곳이며, 장소와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유일무이한 도시입니다. 비록 그곳에서 겪은 일들이 즐겁기보다는 슬픈 일들이 많았으나, 그 도시를 직접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 알바로 타르페 님, 제가 바로 세상에 알려진 그 돈키호테

입니다. 제 이름을 가로채어 제 명성을 도둑질하려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기사로서의 도리를 다해, 이 마을 시장 앞에서 제 신원을 증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소설 제2편에 인쇄된 그 돈키호테가 아니며, 제 종자인 이 산초 판사 또한 귀하께서 알고 계신 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해 드리지요." 돈 알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행동은 판이하게 다른 돈키호테와 산초가 동시에 두 명씩이나 나타났으니,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게 일어난 이 일 또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귀하께서는 마법에 걸리신 게 틀림없습니다." 산초가 말했습니다. "우리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처럼 말입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제가 그분을 위해 스스로 매질하듯 귀하의 마법을 푸는 일도 제가 삼천 대 남짓 더 매질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제 몸에 그 매질을 하겠습니다."

"채찍질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돈 알바로가 말했습니다.

산초는 그 이야기가 길다고 대답하면서도, 만약 가는 길이 같다면 기꺼이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돈키호테와 돈 알바로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마을 시장이 서기 한 명을 데리고 여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돈키호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며 청원서를 통해 시장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사 돈 알바로 타르페가, 역시 그 자리에 있던 라만차의 돈키호테를 알지 못한다고, 또 이 돈키호테는 토르데시야스 출신의 아베야네다라는 자가 쓴 『돈키호테 2편』이라는 제목의 책 속에 인쇄되어 나오는 그 인물이 아니라고 시장 앞에서 증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를 처리했고, 증언은 그런 경우에 마땅히 갖춰야 할 모든 효력을 갖추어 이루어졌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마치 이런 증언이 자신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양 무척 기뻐했습니다. 사실 두 돈키호테와 두 산초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것은 그들의 행실과 말만 보아도 명백했는데 말입니다. 돈 알바로와 돈키호테 사이에는 정중한 인사와 호의가 오갔는데, 이때 라만차 출신의 이 위대한 기사는 아주 분별 있게 처신하여 돈 알바로 타르페가 품고 있던 오해를 말끔히 풀어주었습니다. 돈 알바로는 손으로 직접 이토록 판이하게 다른 두 돈키호테를 만져보았으니, 자신이 분명 마법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반 레구아쯤 떨어진 곳에 갈림길이 나타났는데, 한 길은 돈키호테가 머무는 마을로 이어졌고, 다른 길은 돈 알바로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 짧은 거리 동안 돈키호테는 자신이 패배한 불행한 사연과 둘시네아가 마법에 걸린 일,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 알바로는 이 이야기에 새삼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돈키호테와 산초를 한 번씩 껴안아 주고는 자신의 길을 떠났고, 돈키호테도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돈키호테는 산초가 고행을 마칠 수 있도록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산초는 전날 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행을 이어갔는데, 그 매질은 제 등짝보다 너도밤나무 껍질이 훨씬 더 뒤집어썼습니다. 산초가 어찌나 제 등을 잘 아꼈던지, 설령 파리 한 마리가 등에 앉아 있었다 한들 채찍질로는 그 파리조차 쫓아내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속아 넘어간 돈키호테는 채찍질 수를 세는 데 단 한 대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전날 밤에 친 것까지 합치면 모두 3,029대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마치 태양조차 이 고행을 지켜보려고 평소보다 일찍 떠오른 듯했습니다. 두 사람은 밝아온 햇살을 받으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돈 알바로가 부린 속임수에 대해, 그리고 시장 앞에서 그토록 정식으로 증언을 받아낸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과 그날 밤, 두 사람에게는 딱히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초가 정해진 고행을 모두 마쳤을 뿐인데, 이 덕분에 돈키호테는 매우 흡족해했습니다. 돈키호테는 길을 가다 자신의 여주인인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마법에서 풀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지 기대하며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돈키호테는 길을 가는 내내 마주치는 여인마다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아닌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멀린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될 수 없으니, 마법이 풀린 그녀를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과 기대를 품은 채 두 사람은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언덕 정상에 올라서자 그들의 마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마을을 본 산초 판사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눈을 뜨거라, 그리워하던 고향아! 네 아들 산초 판사가 돌아가고 있다. 비록 아주 부유하진 않아도, 아주 호되게 매를 맞고 돌아가는 중이란다. 팔을 벌려 네 아들 돈키호테도 맞아주렴. 그는 남의 손에 패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란다. 돈키호테 말로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하더구나. 돈도 좀 챙겨 왔단다. 매를 아주 제대로 맞아야 기사답게 돌아가는 법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게."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상서로운 발걸음으로 우리 마을로 들어가세. 그곳에서 우리가 꿈꾸던 상상들을 마음껏 펼치고, 목가적인 삶을 살아가려 했던 그 계획도 실행에 옮기는 것이네."

이 말을 끝으로, 그들은 언덕을 내려와 자신들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제73장



제73장. 돈키호테가 마을에 들어서며 마주한 불길한 징조들과, 이 위대한 이야기를 더욱 빛내고 가치를 더해줄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의 말에 따르면, 돈키호테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을 타작마당에서 소년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한 소년이 다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페리키요, 너무 애쓰지 마라. 그건 네 평생 다시는 못 볼 테니까."

그 말을 들은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말했다.

"여보게 친구, 저 소년이 방금 한 말 못 들었나? '그건 평생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뭐 어떻습니까? —산초가 대답했다— 저 소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무엇이라? —돈키호테가 되물었다—. 저 소년이 내 의도에 맞춰 저 말을 한 것이 아니냐? 내가 다시는 둘시네아를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뜻이 아니냔 말이다."

산초가 대답하려던 찰나, 수많은 사냥개와 사냥꾼들에게 쫓기던 토끼 한 마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도망쳐 오더니, 겁에 질려 잿빛 당나귀의 발치 아래로 파고들어 몸을 웅크리는 바람에 말을 잇지 못했다. 산초는 손쉽게 그 토끼를 붙잡아 돈키호테에게 내밀었다. 마침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하던 중이었다.

"불길한 징조로다! 불길한 징조야! 토끼는 달아나고 사냥개들이 뒤쫓으니, 둘시네아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뜻이로다!"

"나으리도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산초가 말했다. "설령 이 토끼가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이고, 뒤쫓는 저 사냥개들이 그녀를 농부로 변하게 만든 못된 마법사들이라고 칩시다. 그녀는 달아나고, 저는 그 토끼를 붙잡아 나으리 손에 넘겨드렸지 않습니까. 나으리는 지금 토끼를 품에 안고 선물처럼 소중히 들고 계시는데, 이게 어찌 불길한 징조란 말씀입니까? 여기서 대체 무슨 나쁜 예감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싸우고 있던 두 소년은 토끼를 보러 다가왔다. 산초는 그중 한 소년에게 왜 싸우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평생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라고 했던 소년이 대답하기를, 상대편 소년에게서 귀뚜라미가 든 새장을 빼앗았는데 평생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산초는 돈주머니에서 4쿠아르토를 꺼내 새장 값으로 소년에게 주었다. 그러고는 그 새장을 돈키호테의 손에 쥐여주며 말했다.

"나으리, 보십시오. 불길한 징조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깨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긴 해도 생각건대, 이런 것들은 지난해의 구름이 그러하듯 우리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마을 신부님께서도 이런 유치한 것에 연연하는 건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 할 짓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나으리께서도 지난번에 저에게, 이런 징조를 따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더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자, 어서 앞으로 나아가 우리 마을로 들어갑시다."

사냥꾼들이 도착해 토끼를 달라고 하자, 돈키호테는 토끼를 내주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마을 입구에 이르러서는 신부와 바치예르 카라스코가 작은 풀밭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마주쳤다.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산초 판사가 잿빛 당나귀와 무기 꾸러미 위에 일종의 덮개로 쓰려고 불꽃 무늬가 그려진 보카신 천 옷을 덮어 놓았다는 점이다. 그 옷은 알티시도라가 정신을 차렸던 밤에 공작의 성에서 산초에게 입혔던 바로 그 옷이었다. 또한 산초는 당나귀 머리에 코로사(coroza)까지 씌워 놓았는데, 이는 세상의 그 어떤 당나귀도 일찍이 받아본 적 없는 가장 새로운 변신이자 치장이었다.

신부와 바치예르 카라스코는 두 사람을 알아보고는 두 팔을 벌려 반갑게 다가왔다. 돈키호테는 말에서 내려 그들을 꽉 껴안았다. 그때 어디서나 빠지지 않는 살쾡이처럼 눈썰미 좋은 아이들이 당나귀가 쓰고 있는 코로사를 알아보고는 구경하러 달려들며 서로 이렇게 떠들어댔다.

"자, 얘들아, 이리 와서 보렴! 산초 판사의 나귀는 밍고보다 훨씬 잘생겼고, 돈키호테의 말은 첫날보다 더 홀쭉해졌단다!"

마침내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둘러싸이고 신부와 바치예르 카라스코를 동행하여 마을로 들어가, 돈키호테의 집으로 향했다. 집 문 앞에는 이미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돈키호테의 하녀와 조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산초 판사의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도 똑같이 그 소식이 전해진 터였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옷차림도 반쯤 벗은 상태로 딸 산치카의 손을 잡고 남편을 맞이하러 달려 나왔다. 그러고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던 통치자다운 품격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어찌 이런 꼴로 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데다 발까지 부르터 보이니, 통치자라기보다는 차라리 통치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가만있어요, 테레사." 산초가 대답했다. "말해두겠는데, 말뚝이 많은 곳에는 베이컨이 없는 법이라고요.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기 가면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건 돈인데, 내가 내 힘으로 누구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정당하게 벌어왔으니 걱정 말아요."

"돈은 가져오세요, 여보." 테레사가 말했다. "그게 어디서 벌었든 무슨 상관이에요? 돈을 벌었다면 세상에 새로운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산치카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무엇이라도 가져왔는지 물었다. 오월의 단비를 기다리듯 아버지를 기다려 왔던 것이다. 산치카는 한쪽으로 아버지의 허리띠를 붙잡고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으며, 딸이 잿빛 당나귀를 끌면서 그들은 집으로 향했다. 돈키호테는 조카와 하녀에게 맡겨진 채, 신부와 바치예르 카라스코와 함께 자기 집에 남았다.

돈키호테는 시간이나 격식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 즉시 바치예르 카라스코, 신부와 따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패배한 경위와, 앞으로 일 년 동안은 마을을 떠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짧게 설명했다. 그는 기사도 문학의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따르는 편력기사로서,

그 약속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지킬 생각이었다. 또한 이번 일 년 동안은 목동이 되어 들판의 고요함 속에 머물며, 그곳에서 사랑에 관한 상념을 마음껏 펼치고 목가적이고 고결한 수행에 전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두 사람에게 혹시 별다른 할 일이 없거나 더 중요한 용무가 없다면 자신의 동료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자신이 목동 이름에 걸맞은 충분한 양의 양과 가축을 사겠다고 말이다. 아울러 그는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이름까지 미리 정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신부가 그 이름들을 말해 보라고 하자, 돈키호테는 자신은 키호티스라는 이름의 목동이 되고, 바치예르 카라스코는 카라스콘, 신부는 쿠람브로, 그리고 산초 판사는 판시노라는 이름의 목동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모두가 돈키호테의 이 새로운 광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가 이번 일 년 동안은 제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그가 다시는 마을을 떠나 기사 놀음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돈키호테의 새로운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 광기가 오히려 현명한 처사라고 여겨 주며, 목동 생활의 동료가 되어 주겠노라 약속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저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닐게 될 그 길목마다 목가적인 시나 궁정 시를, 혹은 상황에 따라 그에 걸맞은 시를 지어 부르며 지루함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시로 찬양하고자 하는 목녀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사랑에 빠진

목동들의 관습에 따라,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새기거나 써넣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거 참 좋군요."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저는 가공의 목녀 이름을 찾느라 애쓸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 이 강가와 들판의 영광이자, 푸른 초원의 장식이며, 아름다움의 근원이자, 재치와 우아함의 결정체인, 비할 데 없는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가 이미 계시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과장된 찬사라 할지라도 그녀라면 그 모든 칭송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야 이 근처에서 고분고분한 목녀들을 찾아볼 작정입니다. 혹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라지든 말든 내버려 두면 그만이지요."

산손 카라스코가 말을 덧붙였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세상에 널린 시집이나 노래책에 나오는 이름들을 갖다 붙여주면 그만입니다. 필리다스, 아마릴리스, 디아나, 플레리다스, 갈라테아, 벨리사르다 같은 이름들 말입니다. 광장에서 흔히 파는 것들이니, 우리가 사다가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만약 제 여인,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제 목녀의 이름이 우연히 아나라면 아나르다라고 부를 것이고, 프란시스카라면 프랑세니아라고 부를 겁니다. 루시아라면 루신다라고 부르겠지요. 다 그렇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산초 판사가 만약 이 목동 무리에 합류하게 된다면, 그의 아내 테레사 판사도 테레사이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면 될 겁니다."

돈키호테는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신부는 돈키호테의 정직하고도 고결한 결심을 무한히 칭찬하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남는 시간마다 기꺼이 곁을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이로써 그들은 돈키호테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면서 돈키호테에게 건강을 잘 챙기고, 몸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먹으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조언했다.

운명의 장난인지 돈키호테의 조카와 가정부가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말았다. 그들은 세 사람이 자리를 뜨자마자 곧장 돈키호테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조카가 그에게 말했다.

"삼촌,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제야 겨우 삼촌께서 집으로 돌아와 조용하고 명예로운 삶을 사시겠구나 싶었는데, 어찌하여 또다시 스스로를 새로운 미궁 속으로 몰아넣으려 하시는 건가요? 설마 또다시…"

"어린 목동아, 너는 오는 길이냐, 아니면 가는 길이냐?"

"정말이지, 이제는 팬플루트를 불기엔 너무 늦어버린 모양이구려."

그러자 가정부가 덧붙여 말했다.

"그런데 나리, 여름날의 낮잠이나 겨울밤의 찬 공기, 그리고 늑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들판에서 버텨내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그건 아주 건장하고 강인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을 하려고 자라온 사람들 말입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목동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떠돌이 기사가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나리, 제 충고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빵과 포도주를 배불리 먹어본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굶주린 채로 쉰 살이 넘은 나이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집에 머물며 재산이나 잘 돌보십시오. 고해성사도 자주 하시고 가난한 이들도 도우며 사십시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제 영혼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하거라."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내가 잘 안다. 일단 나를 침상으로 데려다다오.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구나.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두어라. 내가 떠돌이 기사로 살든, 아니면 목동으로 살든, 내 행동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너희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달려가 도울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착한 딸들이라 할 만한 가정부와 조카는 돈키호테를 침상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 그를 돌보았다.

제74장



제74장. 돈키호테가 병으로 쓰러진 이야기, 그가 남긴 유언장,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인간의 삶이란 영원할 수 없으며, 시작된 순간부터 끝을 향해 쇠락해 가기 마련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더욱 그러하다. 돈키호테의 삶 또한 운명의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하늘의 특권 따위는 없었기에,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패배를 목격하며 느

낀 우울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 그러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열병에 걸려 엿새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그동안 친구인 신부와 학사, 그리고 이발사가 수시로 그를 찾아와 문병했으나, 충직한 종자인 산초 판사만은 한시도 그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돈키호테가 패배의 허탈함과,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를 자유롭게 하고 마법을 풀어주겠다는 소망을 이루지 못한 슬픔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를 기쁘게 해주려 온갖 노력을 다했다. 학사는 돈키호테에게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목가 생활을 시작해 보라고 권했다. 이미 목가시를 한 편 지어 두었는데, 산나사로가 지은 그 어떤 목가시도 무색하게 만들 만한 작품이라고 했다. 게다가 양 떼를 지킬 유명한 개 두 마리도 자기 돈으로 이미 사 두었다고 덧붙였다. 킨타나르의 한 목축업자에게서 산 바르시노와 부트론이라는 개였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런 말에도 슬픔을 떨쳐내지 못했다.

친구들이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맥을 짚어 보았으나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그는 육신의 건강이 위태로우니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영혼의 안녕부터 돌보라고 말했다. 돈키호테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 말을 들었으나, 그의 가정부와 조카, 그리고 산초 판사는 그 말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마치 돈키호테가 이미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라도 되는 양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의사는 돈키호테가 우울함과 상실감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돈키호테는 잠시 눈을 붙이고 싶으니 혼자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사람들은 그 청을 들어주었고, 돈키호테는 흔히 말하는 '단숨에' 여섯 시간 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가정부와 조카는 그가 이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다 마침내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깨어난 돈키호테가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찬양하라! 참으로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으시니, 인간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한들 그 자비를 줄이거나 막지 못하시는도다."

조카는 삼촌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적어도 병중의 평소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삼촌의 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조리 있게 들렸다. 조카는 삼촌에게 물었다.

"나리,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하느님의 자비라니요, 아니면 인간의 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느님의 자비 말이다."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조카야, 방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바로 그것이란다. 앞서 말했듯이, 내 죄가 하느님의 자비를 막지는 못하더구나. 이제 나는 이성을 되찾았다. 무지라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아주 맑고 깨끗해졌지. 그동안 그 끔찍한 기사도 소설들이 내 정신을 흐려놓았었지. 이제는 그 책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속임수투성이인지 다 안단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것이란다. 영혼의 빛이 되어줄 다른 책들을 읽으며 보답할 시간조차 남지 않았으니 말이다. 조카야,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내 삶이 미치광이로 기억될 만큼 나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구나. 이미 미친 사람으로 살았으니, 죽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싶지는 않단다. 얘야, 내 친구들을 불러오너라. 신부님과 학사 산손 카라스코,

그리고 이발사 니콜라스 선생을 불러다오. 고해성사를 보고 유언장을 작성해야겠다."

하지만 세 사람이 들어오자 조카는 이 번거로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돈키호테는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오, 친애하는 벗들이여. 내가 이제 더는 돈키호테 데 라 만차가 아니라, 평소 행실 덕분에 '선량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은 알론소 키하노가 되었다는 소식을 말이오. 나는 이제 아마디스 데 가울라와 그 혈통의 끝도 없는 무리들을 적으로 돌렸소. 방랑 기사들에 관한 그 모든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이제는 혐오스러울 뿐이라오. 그 책들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하느님의 자비 덕분에 내 몸소 그 대가를 치르며 깨달았으니, 이제는 그 책들을 혐오한다오."

세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그가 분명 또 다른 광기에 사로잡힌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자 산손 카라스코가 그에게 말했다.

"아니, 돈키호테 나리, 이제 겨우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이 마법에서 풀려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게다가 이제 막 노래나 부르며 왕자님들처럼 즐겁게 살아가는 목동이 되려던 참인데, 어찌 갑자기 은둔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제발 부탁이니 입 좀 다무시고,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이제 그만 좀 하시고요."

"지금껏 나를 괴롭혀온 이 고통들이,"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하늘의 도우심으로, 내가 죽을 때쯤이면 모두 나에게 이로운 것으로 바뀔 것이오. 여러분, 나는 지금 죽음이 무척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소. 농담은 그만두고, 나에게 고해성사를 해줄 신부님과 유언장을 작성해 줄 서기를 데려와 주시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사람이 농담이나 하며 영혼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까. 그러니 신부님께서 고해성사를 해주시는 동안 서기를 데려오도록 다들 움직여 주시오."

돈키호테가 내놓은 논리에 놀란 이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그들은 일단 그의 말을 믿어주기로 했다. 그가 정말 죽어가는 것인지 짐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그가 이토록 쉽게 미친 상태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돈키호테는 앞서 말한 이유들에 더해, 아주 조리 있고 신앙심 깊으며 질서 정연한 말들을 줄줄이 이어갔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의심을 완전히 거두고, 그가 정말로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믿게 되었다.

신부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돈키호테와 단둘이 남아 그의 고해를 들었다.

학사는 서기를 데리러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기와 산초 판사를 데리고 돌아왔다. 산초 판사는 학사에게서 주인의 상태가 어떤지 이미 전해 들은 터였다. 주인댁 안주인과 조카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산초 역시 입술을 삐죽거리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고해성사가 끝나자 신부가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알론소 키하노 선인(善人)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고, 또 정말로 제 정신을 되찾았네. 자, 어서 들어가서 유언장을 쓰게 하세."

이 소식은 눈물로 젖어 있던 안주인과 조카딸, 그리고 충직한 종자 산초 판사의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그들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수천 번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사실 예부터 말해왔듯, 돈키호테가 그저 알론소 키하노 선인으로서 존재했을 때나, 돈키호테 데 라 만차로서 존재했을 때나 그는 언제나 성품이 온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했다. 덕분에 그는 집안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이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서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다. 돈키호테는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법을 갖추어 자신의 영혼을 정돈하고 유언장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러고 나서 유언의 내용을 전달할 차례가 되자, 돈키호테가 말했다.

또한, 나의 뜻은 이러하다. 내가 미쳐 있을 때 종자로 삼았던 산초 판사가 가진 어느 돈에 대하여, 그와 나 사이에 주고받을 것과 계산할 것이 좀 있긴 하지만, 그에게 그 돈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어떠한 결산도 요구하지 않기를 원한다. 다만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할 돈을 다 갚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면, 그 남은 돈은 모두 산초의 것으로 하겠다. 아마 얼마 남지 않은 적은 액수겠지만, 그가 유용하게 쓰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내가 미쳤을 때 그에게 섬의 통치권을 주려 했던 것처럼, 이제 제정신인 상태에서 그에게 한 왕국의 통치권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주겠

다. 산초의 소박한 성품과 변함없는 충직함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산초를 돌아보며 말했다.

"친구여, 나를 용서하게.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네까지 나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구먼. 세상에 떠돌이 기사가 존재한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네."

"아이고!" 산초 판사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주인님, 제발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제 조언을 듣고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미친 짓은,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속에 쌓인 우울함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어서 이 침대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원래 약속했던 대로 목동 옷을 차려입고 들판으로 나갑시다. 어쩌면 덤불 뒤에서 마법이 풀린 엘 토보소의 둘시네아 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직접 보기만 해도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패배한 슬픔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신다면, 차라리 제 탓을 하십시오. 제가 로시난테의 안장을 잘못 얹는 바람에 낙마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주인님께서 읽으신 기사도 소설에서도 기사들끼리 서로 맞붙어 넘어뜨리는 일은 흔한 일 아니었습니까? 오늘 패배한 자가 내일은 승리자가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산손 카라스코가 말했다. "착한 산초 판사의 말이 백번 옳습니다."

"여러분," 돈키호테가 말했다. "이제 그만 천천히 가봅시다. 예전의 둥지에는 이제 새가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한때 미쳤었으나 이제는 제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돈키호테 데 라 만차였으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알론소 키하노 선량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이 참회와 진실한 고백을 보아, 저를 향한 여러분의 신뢰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서기는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가게 하시오."

"또한, 내 모든 재산을 통째로 남김없이 여기 함께 있는 조카딸 안토니아 키하나에게 물려주노라. 단, 내가 남긴 유언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 재산 가운데 가장 온전한 부분에서 가장 먼저 떼어낸 뒤에 말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은, 우리 가정부가 나를 위해 일해 온 기간 동안 밀린 품삯을 챙겨주는 것이며, 여기에 옷 한 벌을 해 입을 수 있도록 20두카토를 더 얹어주는 것이다. 여기 함께 있는 신부님과 학사 산손 카라스코를 나의 유언 집행인으로 임명하노라."

"또한, 내 조카딸 안토니아 키하나가 만약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기사도 소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사내와 결혼하기를 바라노라. 만약 그 사내가 기사도 소설을 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카딸이 굳이 그와 결혼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결혼하게 된다면, 내가 물려준 재산은 모두 몰수할 것이니, 나의 유언 집행인들은 그 재산을 조카딸의 뜻에 따라 자선 사업에 나누어 주도록 하라."

"또한, 나의 유언 집행인인 두 분께 간곡히 부탁하노라. 만약 운 좋게도 세상에 떠도는 『돈키호테 데 라 만차의 모험 제2편』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쓴 저자를 만나게 된다면, 내 대신 그에게 최대한 간절히 용서를 구해주길 바라노라.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쓰게 할 빌미를 제공했으니, 그 점을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이다. 나는 그에게 그런 글을 쓰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려 하노라."

이로써 유언을 마친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길게 쓰러졌다. 사람들이 모두 소란을 피우며 그를 돌보러 달려갔다. 유언을 남긴 후 살아있던 사흘 동안 그는 수시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곤 했다. 집안은 온통 소란스러웠으나, 그럼에도 조카딸은 음식을 먹고, 유모는 잔을 들어 축배를 들었으며, 산초 판사는 즐거워했다. 유산을 물려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죽은 이가 남긴 슬픔을 상속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거나 무디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결국 돈키호테는 모든 성사를 마친 뒤, 수많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기사도 소설을 저주하고 나서야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곁에 있던 서기는 어떤 기사도 소설에서도 돈키호테처럼 침상에서 이토록 평온하고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방랑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애도와 눈물 속에서 그는 영혼을 거두었으니, 다시 말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신부는 서기에게 증언을 요청했다. 흔히 돈키호테 데 라 만차라 불리는 알론소 키하노, 즉 '선량한 알론소 키하노'가 이승의

삶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말이다. 신부가 이 증언을 요청한 이유는, 혹시라도 다른 작가가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를 내세워 그를 거짓으로 부활시키거나 그의 무용담을 가지고 끝도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라만차의 재치 있는 귀족이 맞이한 최후였다.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그가 정확히 어디에서 죽었는지 밝히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는 그리스의 일곱 도시가 호메로스를 자기 사람이라 주장하며 다투었던 것처럼, 라만차의 모든 마을과 고을이 그를 자신들의 사람이라 부르며 서로 차지하려 다투게 하려는 의도였다.

돈키호테를 위해 울음을 터뜨린 산초와 조카, 그리고 유모의 곡소리나 그의 무덤에 새겨질 새로운 묘비명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산손 카라스코가 남긴 묘비명만큼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강인한 귀족이 잠들어 있노라. 그는 용맹함의 극치에 이르렀기에, 죽음이 그의 삶을 이겨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노라. 그는 세상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으며, 세상의 공포이자 경외의 대상이었으니, 제정신으로 죽고 미친 채로 살았다는 사실로 자신의 운명을 증명하였노라.

그리고 더없이 지혜로운 시데 아메테 베넹헬리는 자신의 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여기 이 선반에, 이 철삿줄에 매달린 채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내 깃펜아, 네가 잘 깎였는지 서툴게 깎였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오

만하고 악독한 역사가들이 너를 모독하려고 끌어내리지만 않는다면, 너는 이곳에서 영겁의 세월을 살아가리라. 하지만 그들이 너에게 손을 대기 전에, 너는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식으로 이렇게 말이다."

"이놈들, 가만히 있어라!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 위업은, 어진 임금이시여, 오직 나만을 위해 간직되어 있던 것이란 말이다."

"돈키호테는 오직 나만을 위해 태어났고, 나 또한 오직 그만을 위해 태어났다. 그는 행동할 줄 알았고 나는 글을 쓸 줄 알았으니, 우리 둘만이 하나로 맺어진 존재다. 거칠고 엉성하게 깎은 타조 깃펜으로 내 용맹한 기사의 업적을 감히 써 내려갔거나 앞으로 써 내려가려 하는 저 거짓되고 토르데시야스 출신인 작가가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한들 말이다. 그런 일은 그자의 어깨가 짊어질 짐도 아니고, 그 무딘 머리로 다룰 만한 주제도 아니다. 혹시라도 그자를 만나게 되거든 이렇게 일러두어라. 돈키호테의 지치고 이미 썩어버린 유골을 무덤 속에 편히 쉬게 두고, 죽음의 온갖 법도를 거스르면서까지 그를 카스티야 라 비에하로 끌고 가려 하지 말라고. 그가 실제로 또 진정으로 길게 뻗은 채 누워 있는 무덤에서 그를 끄집어내려 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는 이제 세 번째 여정이나 새로운 출정에 나설 수 없는 몸이다. 수많은 편력 기사가 떠났던 그 무수한 출정을 비웃기에는 그가 행한 두 번의 출정만으로 충분하니, 그 소식이 전해진 이 나라 사람들은 물론 머나먼 이국 사람들까지도 그 두 번의 출정을 더없이 즐기고 기뻐하였다." 그리하면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좋은 충고를 건네는 셈이 되어 그리스도교인의 도리를 다하게 될 것이요, 나는 내가 바라던 대로 그의 글이 맺은 결실을

온전히 누린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 기사도 소설의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 나의 진정한 돈키호테가 보여준 이야기들 덕분에 그 거짓 이야기들은 이미 비틀거리고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머지않아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럼 잘 있으라(Vale).

끝